6·25戰爭史 5

낙동강선 방어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문



전쟁의 아픈 상처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비극과 교훈을 역사로 남기는 작업은 어쩌면 살아남은 자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난 2003년부터 6·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담은 『6·25전쟁사』 편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에 걸쳐 총 11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6·25전쟁사』 제5권입니다. 여기서는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최후의 저항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열악한 전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핵심내용은 낙동강 방어선 형성 배경, 이승만 정부의 총력전 체제하의 전쟁지도, 미국의 한국전 수행을 위한 조치, 국군과 유엔군의 전력 증강,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위한 국군 장병들의 투혼 및 감투정신, 한미동맹의 시발점이 된 한미연합작전의 전개,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과 작전기도 등입니다. 각 장에서는 당시의 생생한 전투상황과 참전 관련국들의 비밀자료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서가 군 및 학계의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연구 자료이며, 국군 장병 및 국민들에게는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그때의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작업을 그 동안 훌륭히 수행해온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본서의 발간을 통해 군사편찬연구소가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국방사와 전쟁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60년 전 그 날, 한반도의 찢겨진 산하에서 오로지 조국 수호와 민족생존을 위해 산화하신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렸던 자유 우방 참전국 16개 국가의 장병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이상희

국방부장관 이 상 희

발 간 사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및 건군 60주년이자 6·25전쟁 발발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고 한반도에서도 평화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적 교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소중하게 간직해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편찬연구소는 1967년부터 10여년에 걸쳐 『6·25전쟁사』 전집을 발간하였으며, 또 국내외적으로 6·25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사』 전집은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제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군을 비롯한 참전원로 및 관련학자 등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편찬연구소는 기존의 『6·25전쟁사』 전집을 총 11권 규모로 증보한다는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네 권의 결실을 보았으며, 이번에 다섯 번째 결실인 『6·25전쟁사』 제5권(낙동강선 방어작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남진한 북한군을 최후의 저항선인 낙동강 방어선에서 물리치고 반격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6·25전쟁사』 제5권은 이와 같은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으로부터 반격으로 전환하기 직전까지의 전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역별 작전상황은 물론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배경과 한·미 양군 지휘부의 방어선 사수노력, 국군 및 유엔군의 연합작전과 해상 및 공중작전 등이 소상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추진하는 『6·25전쟁사』 편찬은 미·소와 남·북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그리고 당사국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개된 시점에서 추진되어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고 끝에 출간되는 본서가 이런 면에서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내는 물론 국내외 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본 전쟁사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최선을 다해 준 집필자 여러분과 작전분석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조사연구부, 자료지원과 원고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자료실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호, 정용근 위원님, 그리고 군 원로 및 관련학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군사편찬연구소장 김 홍 영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또 각장 마지막 부분에 담당 집필자명을 명기하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7.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8. 이 책에서 상황도는 1950년대 1 : 5만 군사지도 및 상황도를 사용하였으며, 독도법과 군대부호 등은 종전의 방식을 따라 작성하였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넣었다.

9.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목 차

▌장관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양측의 상황 ····· 3
제 2 절 지상 작전 ····· 5
제 3 절 해 · 공군 작전 ····· 8

제 2 장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전쟁지도 / 15

제 1 절 국내외 정세 ····· 17
제 2 절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부대배치 ····· 26
제 3 절 북한의 전쟁수행방침과 작전기도 ····· 37
제 4 절 정부와 유엔군의 전쟁지도 ····· 54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89

제 3 장 중서부지역 작전 / 103

제 1 절 작전 개요 ····· 105
제 2 절 낙동강연안-다부동-팔공산 전투 ····· 109
제 3 절 왜관-다부동-대구 북방 전투 ····· 189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212

제 4 장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 / 231

제 1 절 작전 개요 ····· 233
제 2 절 창녕-영산 전투 ····· 240
제 3 절 마산 서부지역 전투 ····· 272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313

제 5 장 중동부지역 작전 / 325

제 1 절 작전 개요 ····· 327
제 2 절 신녕지구 전투 ····· 347
제 3 절 의성-보현산지역 전투 ····· 395
제 4 절 영천지역 전투 ····· 433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465

제 6 장 동부지역 작전 / 479

제 1 절 작전 개요 ····· 481
제 2 절 기계-안강 전투 ····· 496
제 3 절 영덕-포항 전투 ····· 542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577

제 7 장 해군작전 / 587

제 1 절 작전 개요 ····· 589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 592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 629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651

제 8 장 공군작전 / 661

제 1 절 작전 개요 ····· 663
제 2 절 한국공군 작전 ····· 666
제 3 절 유엔공군 작전 ····· 681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733

제 9 장 총 평 / 747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 749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 753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 758

부 록 / 763

1. 연 표 ····· 765
2. 국군 작전명령 ····· 772

■ 참고문헌 / 787
■ 찾아보기 / 795

<표 목 차>

<표 2-1> 낙동강 방어선(X·Y선)의 종류 ····· 33
<표 2-2> 북한군 1개 사단 1일 평균 보급량 ····· 42
<표 2-3> 북한군 8월 공세시 전투편성 ····· 45
<표 2-4> 북한군 주요 지휘관 및 예·배속 부대 ····· 46
<표 2-5> 8월 중 북한군 병력 현황 ····· 48
<표 2-6> 북한군 9월 공세시 공격집단 편성 ····· 52
<표 2-7> 북한군의 9월 중 병력 현황 ····· 53
<표 2-8> 신병훈련소 현황 ····· 60
<표 2-9> 낙동강 방어작전기 미군 증원부대 현황 ····· 70
<표 2-10> 낙동강 방어작전기 유엔군 지휘계통 ····· 80
<표 2-11> 한미연합군 사단의 방어 책임지역 ····· 82
<표 2-12> 낙동강 작전기 국군 전투편성 및 지휘관 현황 ····· 84
<표 2-13> 낙동강 방어작전기 미군 전투편성 및 지휘관 현황 ····· 86
<표 2-14> 낙동강 방어작전기 미군 특수임무부대 현황 ····· 87
<표 3-1> 왜관-대구 축선에 지향된 북한군 지휘관 현황 ····· 112
<표 3-2> 제1사단 지휘관 현황 ····· 117
<표 3-3> 미 제27연대 지휘관 현황 ····· 165
<표 3-4> 전투상보에 기록된 전과(노획무기 및 포로) ····· 185
<표 3-5> 왜관-대구북방 축선의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 191
<표 3-6> 낙동강 중서부 작전시 미 제1기병사단 지휘관 현황 ····· 194
<표 4-1> 밀양-영산 축선의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 243
<표 4-2>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 246
<표 4-3>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 제2사단 지휘관 현황 ····· 248
<표 4-4> 마산 서부지역의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현황 ····· 275
<표 4-5> 마산 정면의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 276
<표 4-6> 마산 서부지역의 미 제25사단 지휘관 현황 ····· 277
<표 5-1> 중동부지역 북한군 전투서열 ····· 331
<표 5-2> 중동부지역의 국군 전투서열 ····· 338
<표 5-3> 국군 제6사단 지휘관 현황 ····· 350
<표 5-4> 국군 수도사단 및 제8사단 지휘관 현황 ····· 398
<표 5-5> 영천지역 전투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 436
<표 6-1> 동부지역 북한군 전투서열 ····· 485
<표 6-2> 동부지역의 국군 전투서열 ····· 489
<표 6-3> 수도사단 및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주요지휘관 현황 ····· 500
<표 6-4> 국군 제3사단 주요 지휘관 현황 ····· 545

<표 7-1> 상륙반 편성표 ····· 600
<표 7-2> 통제부방위대의 편성표(1950년 8월 11일 현재) ····· 615
<표 7-3> 미극동해군의 기동편성(1950. 7. 21～9. 11) ····· 630
<표 8-1> 국군·유엔 공군 지휘관 현황 ····· 665
<표 8-2> F-51전투기 작전전과 종합(1950. 8. 1～9. 15) ····· 674
<표 8-3> F-51전투기 지원을 위한 T-6기 작전종합(1950. 8. 1～9. 15) ····· 674
<표 8-4> 공지간 통신제원표(1950. 8. 24) ····· 676
<표 8-5> 낙동강방어 작전기간 중 정찰비행대 작전 종합(1950. 8. 3～9. 30) ····· 680
<표 8-6> 낙동강방어 작전지원을 위한 T-6기 출격종합(1950. 8. 1～9. 23) ····· 680
<표 8-7> 미 극동공군의 인가 및 보유병력 현황(1950년 5월～9월) ····· 695

<상황도 목차>

<상황도 1-1> 낙동강선 방어작전 상황(1950. 8. 1～9. 14) ····· 11
<상황도 2-1>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지명 ····· 30
<상황도 2-2> 북한군 8월 공세시 피아 배치상황(1950. 8. 1～4) ····· 44
<상황도 2-3> 북한군 9월 공세시 피아 배치상황(1950. 8. 31)) ····· 51
<상황도 3-1> 중서부지역 작전(1950. 8. 1～9. 14) ····· 108
<상황도 3-2> 낙동강 연안-주저항선 지연전(1950. 8. 3～12) ····· 120
<상황도 3-3> 제15연대의 328고지 부근 전투(1950. 8. 13～30) ····· 135
<상황도 3-4> 제12연대의 유학산-수암산 전투(1950. 8. 13～30) ····· 147
<상황도 3-5> 837고지의 소모전 ····· 150
<상황도 3-6> 수암산 전투상황(1950. 8. 19～24) ····· 155
<상황도 3-7> 제11연대의 최초 전투(1950. 8. 13～14) ····· 161
<상황도 3-8> 제11연대와 미군의 다부동 전투(1950. 8. 14～30) ····· 164
<상황도 3-9> 제1사단 가산-팔공산 지역 전투(1950. 8. 31～9. 14) ····· 178
<상황도 3-10> 미 제1기병사단의 8월 전투상황(1950. 8. 9～17) ····· 196
<상황도 3-11> 미 제1기병사단의 9월 전투상황(1950. 9. 2～11) ····· 203
<상황도 4-1-1>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1)(1950. 8. 1～9. 14) ····· 235
<상황도 4-1-2>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2)(1950. 8. 1～9. 14) ····· 237
<상황도 4-2> 미 제24사단의 영산 전투(1950. 8. 5～19) ····· 251
<상황도 4-3> 미 제23연대의 창녕지역 전투(1950. 8. 31～9. 9) ····· 263
<상황도 4-4> 미 제9연대와 미 해병대의 영산지역 전투(1950. 8. 31～9. 5) ····· 268
<상황도 4-5> 마산 서측방의 정찰전(1950. 8. 2～3) ····· 281
<상황도 4-6> 킨 특수임무부대 반격작전(1950. 8. 7～12) ····· 293
<상황도 4-7> 북한군의 마산방면 공격(1950. 8. 31～9. 1) ····· 303
<상황도 5-1-1> 중동부지역 작전(1) (1950. 8. 1～9. 14) ····· 343
<상황도 5-1-2> 중동부지역 작전(2) (1950. 8. 1～9. 14) ····· 345
<상황도 5-2> 용기동 부근 전투(1950. 8. 2～6) ····· 352
<상황도 5-3> 효령 부근 피아상황(1950. 8. 15～16) ····· 359
<상황도 5-4> 매봉산-365고지 전투상황(1950. 8. 17～18) ····· 362
<상황도 5-5> 제5연대 및 기갑연대의 증원(1950. 8. 20～21) ····· 365
<상황도 5-6> 국군 제6사단 주저항선상의 공방전 상황(1950. 8. 13～16) ····· 369
<상황도 5-7> 국통산-우보 일대 공방전 상황(1950. 8. 25) ····· 376
<상황도 5-8> 제2연대와 제19연대 방어진지 재편성(1950. 8. 28) ····· 378
<상황도 5-9> 화산탈환작전 상황(1950. 8. 29～9. 1) ····· 381
<상황도 5-10> 조림산 공방전 상황(1950. 8. 28～9. 1) ····· 385
<상황도 5-11>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 편성(1950. 8. 3) ····· 400
<상황도 5-12> 국군 제8사단의 향로봉 피탈 및 재배치 상황(1950. 8. 4～7) ····· 404
<상황도 5-13> 국군 제8사단의 파쇄공격 상황(1950. 8. 10) ····· 408
<상황도 5-14> 제18연대 및 기갑연대 기동축선(1950. 8. 14) ····· 414
<상황도 5-15> 제8사단 제16연대의 포위망 돌파상황(1950. 9. 3～4) ····· 430
<상황도 5-16> 제8사단 제16연대의 384고지-372고지 방어상황(1950. 9. 4) ····· 438
<상황도 5-17> 218고지 전투상황(1950. 9. 7) ····· 446
<상황도 5-18> 자천탈환 상황(1950. 9. 12～13) ····· 458
<상황도 6-1-1> 동부지역 작전(1) (1950. 8. 1～9. 14) ····· 491
<상황도 6-1-2> 동부지역 작전(2) (1950. 8. 1～9. 14) ····· 493
<상황도 6-2> 제17연대 공격상황(1950. 8. 11) ····· 508
<상황도 6-3> 제18연대 및 기갑연대의 공격상황(1950. 8. 15) ····· 514
<상황도 6-4> 제18연대의 기계탈환 상황(1950. 8. 18) ····· 516
<상황도 6-5> 수도사단 주저항선 형성(1950. 8. 22) ····· 520
<상황도 6-6> 제3사단(영덕-강구) 철수상황(1950. 8. 8～9) ····· 549
<상황도 6-7> 제3사단 해상철수 상황(1950. 8. 17) ····· 555
<상황도 6-8> 제3사단 주저항선 형성 상황(1950. 8. 21) ····· 565
<상황도 6-9> 곤계봉·호명리전투 상황(1950. 9. 6～13) ····· 571
<상황도 7-1> 한국해군의 봉쇄작전(1950. 8. 1～9. 14) ····· 595
<상황도 7-2> 덕적도 상륙작전(1950. 8. 18～8. 19) ····· 601
<상황도 7-3> 영흥도 상륙작전(1950. 8. 20～8. 21) ····· 605
<상황도 7-4> 통영상륙작전(1950.8. 17～8. 19) ····· 621
<상황도 7-5> 함포지원사격, 항공강습(1950. 8. 2～8. 13) ····· 635
<상황도 7-6> 항공강습, 함포지원사격(1950. 8. 25～9. 4) ····· 641
<상황도 8-1> 미 극동공군의 일본기지 현황 ····· 694



제 1 장 총 개요

제 1 절 양측의 상황
제 2 절 지상 작전
제 3 절 해 · 공군 작전

제 1 절 양측의 상황

『6 · 25전쟁사』 제5권(낙동강선 방어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한반도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치른 공방전을 수록하였으며, 작전기간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다. 각 장의 작전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작전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편집하여 전체작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개별 전투상황도는 본문 내용을 따라 읽는데 편리하도록 해당 전투내용 속에 수록하였다.

한미연합군(韓美聯合軍)은 7월말까지 '공간을 내주는 대신 미국 본토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시간을 얻는데 필요한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제공 및 제해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소련제 T-34전차와 자주포 등 현대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미연합군으로서는 북한군의 남진을 막고 유엔군의 반격의 발판이 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교두보 확보가 절대적이었다. 부산교두보는 유엔군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다. 유엔군은 부산항을 통해 병력 · 무기 · 장비 · 군수물자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군 증원부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1950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천연의 장애물인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은 최초 낙동강을 연해 형성된 방어선(X선)과 후에 다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방어선(Y선)으로 구분된다. 최초 형성된 낙동강 방어선은 동서 길이 90㎞, 남북 길이 150㎞로 총 240㎞에 달하는 방어선이다. 그 가운데 국군이 128㎞를 담당하였고, 미군이 112㎞를 담당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중동부 및 동부의 산악지역을 국군 2개 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3・제6・제8・수도사단)이 담당하였고, 중부 및 서부방면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미 제8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제2・제24・제25사단) 및 미 제1해병여단이 맡아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렀다.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 제8군은 군단이 편성되지 않은 채 직접 예하 사단을 통제하며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군사령부의 지휘부담이 매우 컸다.

반면 북한군은 개전 이후 공격 기세에 힘입어 1950년 7월 말에는 영덕, 안동, 함창, 상주, 김천, 진주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여 낙동강 방어선 외곽까지 진출하였다. 북한군의 작전기도는 8월 초에 한미연합군이 낙동강 선에서 방어진지를 형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한 추격전으로 낙동강을 도하한 뒤 대구와 부산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작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공세를 단행하였다. 8월 공세 때 북한군은 그들의 13개 보병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여 전 전선에 걸쳐 총공세를 펼쳤다. 이때 북한군은 대구 정면과 아군의 배치가 취약한 마산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곳에서 부분적인 돌파에는 성공하였으나, 돌파구 확장에 실패하였다. 여기에는 한미연합지상군의 조직적인 방어와 성공적인 공・지 합동작전 수행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은 8월 공세 실패의 교훈을 되새기며, 또 다시 총력을 기울여 9월 공세를 준비하였다.

9월 공세 때 북한군은 13개 사단 모두를 5개 공격집단으로 편성하여 대구(大邱)・영천(永川)・경주(慶州)・창녕(昌寧)・마산(馬山)정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군은 9월 공세도 실패하였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에 밀려 38선 이북으로 퇴각하였다.

제 2 절 지상 작전

낙동강 방어작전간 국군이 왜관 북쪽으로부터 동해안까지의 산악지형을 맡고, 미군은 왜관 이남으로부터 마산 서부에 이르는 비교적 교통이 잘 발달되고 기동성이 보장되는 평야지대를 책임지역으로 방어를 실시하였다.

본서(本書)에서는 지상작전 상황을 중서부지역 작전,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 중동부지역 작전, 동부지역 작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중서부지역은 대구 북방의 왜관(倭館)에서 다부동(多富洞) 지역을, 서부 및 남부지역은 현풍(玄風)-영산돌출부-마산(馬山) 서부지역을, 중동부지역은 신녕(新寧)-영천(永川) 지역을, 동부지역은 기계-안강(安康) 지역과 동해안의 영덕(盈德)-포항(浦項) 지역이 포함된 동해안 지역에서의 작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1)]

「중서부지역 작전」(제3장)에서는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대구 북쪽의 왜관-다부동-팔공산 지역에서 전개된 치열한 전투를 다루고 있다. 국군 제1사단은 최초 낙동강 연안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다가 8월 중순경 다부동지역으로 방어정면을 축소하여 방어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이때 미 제1기병사단도 국군 제1사단의 좌측 인접 사단으로 왜관-대구 축선으로 지향된 북한군 제3사단의 8월 공세를 물리치고 이 지역을 사수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군의 9월 공세때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공세 때 국군 제1사단이 담당했던 다부동 지역을 인수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북한군의 8월 공세 때 국군 제1사단이 사수하였던 다부동지역을 빼앗기고 대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은 새로운 방어지역인 대구 북서쪽의 팔공산-가산을 연하는 선에서 적의 대구 진출을 저지하였다.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제4장)에서는 미 제24사단(후에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이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 제24사단과 미 제2사단, 그리고

미 제1해병여단은 낙동강 돌출부로 알려진 창녕-영산지역에서 적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치르며 이 지역을 사수하였다.[2] 미 제25사단은 마산 서부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마산 진출을 저지하고자 사단규모의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진주를 목표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고, 이후 이곳 일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Kean Task Force)」로 구성된 미 제25사단은 8월초 마산 서부에서 진주(晋州)를 목표로 반격작전을 단행하여 북한군의 부산 진출을 저지하고, 진주 이동(以東) 지역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반격작전 이후 미 제25사단은 함안-마산 지역에서 유엔군이 총반격을 개시할 때까지 이 지역을 통해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중동부지역 작전」(제5장)에서는 북한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신녕-영천지역에서 실시한 대규모 공세행동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국군 제6사단의 신녕지역 전투, 국군 제8사단 및 국군 증원부대가 수행한 영천전투, 그리고 경주 북쪽에서 국군과 미군이 실시한 일련의 방어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영천이 점령되고, 미군 비행장인 영일비행장이 적의 위협에 노출되는 등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군사시설들이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급박한 시기였다. 그러나 국군의 기민한 방어작전과 미군의 증원으로 영천을 재탈환하고, 아군 후방 깊숙이 들어온 북한군을 역습으로 격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동부지역 작전」(제6장)에서는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동해안 및 인근의 산악지대를 통해 남하한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을 맞아 기계-안강 및 영덕-포항 일대에서 전개한 전투를 다루고 있다. 국군 제3사단은 북쪽에서 공격하는 북한군 제5사단과 기계-안강으로 침투해 포항을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에 의해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독석동에서 구룡포로 해상 철수해 포항 탈환작전을 수행하였다. 수도사단은 청송-기계 축선으로 남하한 북한군 제12사단이 포항을 점령한 후 안강을 거쳐 경주를 압박하자 형산강 방어선을 형성해 이를 격퇴하고 반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은 일명 「부산교두보(釜山橋頭堡 · Pusan Perimeter)」 또는 「워커라인(Walker Line)」이라고 한다. 부산교두보의 의미는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뜻이다. 워커라인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설정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전기간 동안 미 본토에서는 미 제2사단과 미 제1해병여단, 하와이의 미 제5연대전투단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이 때 미 본토의 6개 전차대대가 한국전선에 투입되어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작전 기간 동안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이 증원됨으로써 낙동강 방어작전은 한미연합군 중심의 작전 편성에서 구색을 갖춘 유엔군 체제로 전환되어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작전 초기의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고 점차 병력과 장비 면에서 북한군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공세이전을 위한 총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 절 해 · 공군 작전

본서에서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군작전」(제7장)과 「공군작전」(제8장)을 정리하였다. 해·공군 작전에서는 해상 및 공중작전과 지상군에 대한 지원작전을 총괄하여 다루고 있다.

해군 작전에는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수행한 제반 작전을 기술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한국과 유엔해군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국 해역에서 해상활동을 주도하며 지상 작전을 지원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의 작전 책임지역은 북위 37도를 경계로 구분하여 활동하였다. 37도 이남의 해역에 대한 봉쇄 및 연안작전은 제96.7기동전대로 지정된 한국 해군이 담당하였고, 37도 이북 해역에 대해서는 유엔해군 동·서해안 지원전대가 맡아 수행하였다. 동해안 해역에서는 미국 히긴스(Higgins) 제독의 96.5기동전대가, 서해안 해역에서는 영연방 해군으로 구성된 96.8기동전대가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들 유엔 해군의 봉쇄작전에 대한 북방 한계선은 동해안이 북위 41도이고, 서해안은 북위 39.30도까지였다.[3]

한국 해군은 서·남해안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군수물자를 수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봉쇄작전을 전개하여 연안에서 적의 해상침공과 병력 및 군수물자의 전방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지상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 해군은 작전 기간 동안 통영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낙동강선 방어작전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서해상의 덕적도(德積島)와 영흥도(永興島)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대 반격작전의 기틀이 되는 인천상륙작전의 전초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유엔 해군은 작전기간 동안 대폭적인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전쟁 초기 항공모함은 미 제7함대 소속의 밸리포지(Valley Forge)호와 영국 항공모함 트라

이엄프(Triumph)호 2척 뿐이었다. 그런데 7월 말 미 항공모함 시실리(Sicily·트라이엄프와 교대)호와 바동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호가 도착해 96.8기동전대에 배속돼 해병대의 비행전대를 탑재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4] 또 8월 1일 극동해역에 도착한 미국 항공모함 필리핀 씨(Philippine Sea)호가 미 제77기동부대에 배속되어 한국전선에서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8월 5일부터 한국 해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한국 해역에서 작전에 투입된 유엔 항공모함은 4척에 이르렀다.

맥아더 장군은 지상전 상황이 악화되자 8월 8일부터 함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근접항공지원과 후방차단작전에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5] 이에 항모기동부대는 적의 전선에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근접항공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한국공군은 1950년 7월 말 비행단과 항공기지사령부를 대구비행장(K-2)에, 정찰비행대를 경북 의성(義城)에 두고 적의 후방 차단작전과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에 대한 정찰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작전기간 한국 공군본부는 경북 대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7월 24일 미 제5공군전방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하고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자 비행단을 대구비행장에서 진해비행장(K-10)으로, 정찰비행대를 의성에서 신녕으로 이동하여 작전활동을 시작하였다. 또 F-51비행부대의 한국군 조종사는 8월 1일부터 미 공군조종사와 1개 조를 이루어 비행훈련을 실시한 후 8월 15일부터 미 공군조종사와 함께 편대를 조직하여 출격을 개시하였다.[6] 한국의 T-6비행부대(부대장 소령 신유협)는 8월 17일 한국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였고, 9월 영천 전투시에는 이 지역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동안 지상군 후방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에 우선을 두었다. 미 극동공군의 작전 구역은 대체로 한강을 경계로 이북지역은 미 폭격사령부가, 이남지역은 미 제5공군이 담당하였다. 미 폭격사령부는 8월 16일 왜관일대에 융단폭격을 제외하고는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즉 8월 7일에는 평양조차장, 8월 8일에는 함흥조차장을 폭격하였다. 미

제5공군은 미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에 힘입어 미 제8군은 지상에서 조성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다.

(집필 : 남정옥)

<상황도 1-1> 낙동강선 방어작전 상황(1950. 8. 1~9. 14)

A3

주 (註)

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第3卷(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pp. 1-3.
기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韓國戰爭史』(3권)에서는 낙동강 방어작전을 (1) 중부방면작전(왜관-다부동지역), (2) 서부방면작전(영산-마산서부지역), (3) 낙동강 동부방면작전(안강-포항), (4) 대구 북동부방면 방어작전(신녕-영천 지역)으로 편성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새로 발간하는『6·25전쟁사』(5권)에서는 작전지역을 중서부지역(왜관-다부동지역), 서부 및 남부지역(영산-마산서부지역), 중동부(신녕-영천-안강 지역), 동부지역작전(안강-포항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새로 발간하는 제5권에서는 1970년 발간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의『韓國戰爭史』(제3권)에서 별도 장으로 설정한 대구 북동부방면 작전의 작전지역(신녕-영천)은 시기와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해 중서부 및 중동부지역 작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는 9월 공세시 국군 제1사단의 작전지역(대구 북서쪽)과 미 제1기병사단의 작전지역(대구 북쪽)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중서부지역에 포함한 것이다.
2) 1950년 8월말까지 미 제24사단은 영산-창녕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8월말 미 제24사단은 작전지역을 미 본토에서 증원된 미 제2사단에 인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 제2사단은 유엔군이 총반격작전을 실시할 때까지 이 지역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또 미 제1해병여단은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이 지역을 방어하던 미 제24사단과 미 제2사단이 북한군에 의해 방어지역이 돌파될 때마다 이 지역에 투입되어 낙동강 돌출부 위기를 구해주었다.
3)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Navy, 1962), p. 59.
4) 이들 항공모함이 소속된 96.8기동전대는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1해병임시여단에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5) Walter Kraig, Malcom W. Cagle aq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and Co., Inc., 1952), p. 51.
6) 空軍本部,『航空戰史: 韓國戰爭』(서울: 공군본부군사연구실, 1989), p. 122.



제 2 장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전쟁지도

제 1 절	국내외 정세
제 2 절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부대배치
제 3 절	북한의 전쟁수행방침과 작전기도
제 4 절	정부와 유엔군의 전쟁지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세

1. 국내 정세의 추이

1950년 8월과 9월의 낙동강 전선 상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아군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한미연합군이 비록 낙동강 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개전 이래 최초로 협조된 전선을 구축하며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전 전선에 걸쳐 실시한 동시다발적 집중공세에 전황(戰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전황 속에서 대구와 부산을 번갈아가며 미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회는 1950년 7월 27일 대구에서 국회의원 130명의 출석하에 제8회 임시국회를 개회하여 8월 8일 휴회할 때까지 전쟁 이후 정부가 조치한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 등을 승인하고, 정부에 전시내각 및 외교진의 강화를 건의하였다. 또 국회는 유엔군총사령관 및 유엔한국위원단에게 조직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일선 군경 및 유엔군 장병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부산에서 개회한 국회는 다음날인 9월 2일 유엔과 맥아더 원수에게 전 한국민이 바라는 총공격의 촉진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가결하였고, 9월 6일에는 이의 요청을 직접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할 국회사절단을 구성하였다. 국회사절단으로는 부의장 장택상(張澤相)과 김동성(金東成)·황성수(黃聖秀) 의원이 선임되었다.

일반시민들도 후방치안유지·오열(五列)적발·군경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기구를 결성하였다. 즉 9월 2일 민·관·군(民官軍)의 주요 인사 60명으로 구성된 「전시 선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발족되었다. 이에



민생을 살피기 위해 농촌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1950년 9월)

따라 일반 시민들도 필요할 경우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군경의 전쟁수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낙동강 전선에서 한국 정부는 민·관·군을 동원한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 카투사(KATUSA)를 선발 하여 8월 15일부터 미군부대에 배속하기 시작하였다. 또 국군에 대한 부족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9월초부터 부산 등지에서 의무병제에 기초한 강제징집을 실시하였고,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소를 부산(제2훈련소), 구포리(제3훈련소), 제주도(제5훈련소)에 설치하였다.[1] 특히 장교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8월 16일 「전시육군장교보충규령(국방부령 임시 제2호)」을 공포하여 전시·사변·기타 사태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임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국방부령은 8월 26일 대통령령 제382호 「육군보충장교령」으로 다시 공포되었다.[2] 또한 1950년 8월 18일 정부가 부산으로 이동한 후 문교부는 각 학교간부들을 소집하여 중앙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산하에 학도의용대, 학도치안대, 학도구호대의 3개 단체를 두었다. 이 가운데 학도의용대는 국방부 정훈국의 지도하에 전시 학도조직체로 출발하여 학도의용군의 실질적인 모체가 되었다.[3]



낙동강에서 주민들이 부교 옆에 모래주머니로 제방을 쌓고 있는 모습(1950년 8월 24일)

경찰도 개전 이래 비상경비총사령부 체제하에 낙동강 전선에서도 전투 및 대공(對共) 업무를 겸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경비총사령부는 8월 6일 각도 경찰국장을 비상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해 전투지역을 할당하고 예하부대를 책임지역에 배치해 군경합동작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소년지원병, 노무자, 대한청년단, 여군도 전쟁에 적극 동참하여 누란(累卵)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자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8월과 9월 공세'[4]는 한국 정부와 한미연합군에게 위협적이었다. 임시 수도였던 경북 대구(大邱)는 낙동강 전선과 너무 가까웠고, 북한군은 이를 노리고 대구 점령을 위해 낙동강 전 전선에서 총공세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대구에는 한국 정부, 미 제8군사령부, 그리고 외국 사절들이 머물고 있는 정치·군사의 중심이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무초(John H. Muccio) 대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를 떠날 수 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5] 무초 대사는 처음에 한국 정부의 이전에

반대하였으나, 8월 16일 전황이 악화되자 한국정부 이동의 불가피성을 미 국무부에 보고한 후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해 유엔군사령관의 의도를 밝히고 한국 정부 이동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이전을 강력히 거절하면서 무초 대사에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하고서라도 대구에서 싸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하였다.[6] 하지만 북한군의 포탄이 대구역에 떨어진 1950년 8월 18일 정부를 부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7]

또한 북한군의 9월 총공세가 시작된 9월 4일경 전 전선에 걸쳐서 유엔군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경북 경주와 영천에서의 국군의 패퇴로 인해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8군사령부 지휘부의 기간요원만 대구에 남기고 나머지 요원을 모두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육군본부도 9월 5일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8]

특히 미 제8군사령부는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될 것에 대비하여 설치하였던 「데이비드슨 라인(Davidson Line)」으로의 철수, 나아가 '망명정부의 구상'[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만약 한미연합군이 데이비드슨 라인으로 철수하게 되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소진한 북한군이 대구를 점령해 이곳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보충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연전으로 시간을 벌어온 아군의 전력우세는 무의미하게 될 상황이었다.

더구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미 극동군사령부가 준비해 온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도 부산교두보에 대한 적의 위협 앞에서 실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6일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이 점령됨으로써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작전지역이 동서로 양분되고, 대구-안강-포항으로 연결되는 아군의 유일한 동서횡단로가 차단되어 대구와 경주가 동시에 위협받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 9월 7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전면 철수를 고려하라는 극비의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구상이 미국 고위층의



북한에 의해 '의용군'으로 끌려온 나이어린 북한 소년병들

것은 아니었지만 예정된 인천상륙작전의 취소까지도 고려해서 내린 지시였다.[10] 그러나 다행히 9월 10일 이후 영천(永川)의 위기가 해소되면서 유엔군의 전면 철수는 백지화 되었고, 이때부터 유엔군은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군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각 시·도로부터 행정부서의 말단인 리(里)와 동(洞)에 이르기까지 공산당 조직편성을 완료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인력 동원은 징병·노역·부역·각종 조직의 결성 등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한 점령지역의 모든 주민을 동원 대상으로 하였다. 징병은 군중궐기대회라는 명목으로 대회에 청년들을 강제동원 한 다음 공산당 특유의 만장일치 형식으로 전원이 '의용군'에 참가할 것을 결의시킨 후 즉석에서 지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나중에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35세까지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입대시켰고,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연령을 40세로 확대해 징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남한에서 징집된 인원이 약 47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병사나 노무자로 이용되었다. 낙동강 방어작전시 북한군 사단병력의 약 3분의 1이 남한에서 강제로 징집된 장정들로 충원되었다.[11] 또한 강제 징집된 남한사람들 가운데 30

만명에 달하는 수송 노무자와 철도 및 도로 보수 노무자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장정리, 진지구축, 교량가설, 수송, 방역 등에 동원되었다.

북한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물자도 강제 동원하였다. 그들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식량을 강탈해 배급제를 실시하였으나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남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2. 국제 정세의 추이

6·25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치 풍향계를 좌우하였던 유엔, 그 중에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로 지칭)는 한국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유엔회원국의 지원을 받았고, 유엔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그들의 군대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고, 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으나 1950년 1월 13일부터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로 유엔안보리에 불참하고 있었다. 소련은 모택동의 중공을 중국대표로 승인해 유엔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 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자 유엔에 불참하였다. 6·25 이후 소련의 유엔 불참은 한국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회원국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0년 7월 27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Mallick)가 유엔안보리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소련이 유엔에 복귀하고자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엔회원국 대부분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국제상황이 전쟁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유엔안보리 의장이 매달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고 있었는데 1950

년 8월 1일부터 소련 대표가 유엔안보리 의장직을 맡을 차례였다. 유엔안보리 규정에 의하면 안보리 의장은 매월 알파벳(Alphabet) 순으로 돌아가며 맡게 되었다. 그래서 소련은 유엔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고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엔 복귀를 통보하였다.[12]

유엔안보리에 복귀한 소련 대표는 북한과 중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과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심지어 소련 대표는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유발되었다"라고 발언할 정도였다.[13] 하지만 9월 1일 영국이 의장을 맡으면서 한국에 유리하게 회의를 진행시켰다. 영국은 주미한국대사인 장면(張勉)을 유엔안보리에 출석시켜 북한 침략의 진상과 소련의 배후조정 및 공산측의 침략정책을 폭로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유엔의 협력을 요청하도록 배려하였다.

한국 정부도 9월 13일 유엔한국수석대표에 임병직(林炳稷) 외무부장관을 임명하고 대표에 김동성, 장택상, 임영신 등을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총회에 참석시켜 한국 입장을 밝히고 협력을 구하도록 조치하였다.[14] 이들 한국의 유엔대표단은 미국 도착 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을 비롯하여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 러스크(Dean Rusk) 국무차관,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 오스틴(Austin) 유엔주재 미국대표 등을 만나 한국에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등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편 소련의 유엔안보리 복귀로 미국의 대(對) 유엔전략에도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소련이 유엔안보리에 복귀하자 유엔안보리 대신에 유엔총회를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미국은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략기구로 유엔총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회에서 계속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 지상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지 2개월이 지난 1950년 9월 1일 10:00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전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연설하였다. 이때 한국전선은 낙동강 방어선을



트루먼 대통령(왼쪽)과 애치슨 국무장관(오른쪽)

연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였고, 또 2주 후에 실시될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트루먼은 이 연설에서 "만일 한국에서 북한의 침략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형태의 침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북한의 남한 침공에는 소련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이 국제적 긴장을 위해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15]

트루먼 대통령은 행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쇄정책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봉쇄정책에는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 리오 협정(Rio Pact), 마셜 플랜, 베를린 공수, 그리고 나토 창설 등이 있었다. 지난 6주 동안 한국에 전개된 미군 병력은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국가간에 계속되는 투쟁의 일부였다. 그러나 트루먼은 이러한 봉쇄정책의 최대 부담자는 미국과 한국의 군대라는 점을 지

적하였다. 이러한 침략에 대해 유엔도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는 한국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3천만 명 이상을 동원하고, 국방물자 생산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하였다.[16]

특히 트루먼은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공과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은 대만을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며, 대만에 대한 어떤 영토적 야심도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차 대만의 지위는 국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유엔의 지도하에 자유롭고 독립된 통일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17]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6·25전쟁에 미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안보회의문서인 NSC81로 나타났다. 이 문서는 1950년 9월 1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된 새로운 대한정책으로 38도선 이북으로의 유엔군의 군사작전 전개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즉 북한 지역 내에서의 군사행동과 점령을 어떻게 하고, 중국 및 소련의 개입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 핵심 내용이었다. 또한 NSC81의 실행은 1950년 9월 11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NSC81/1에 의해 이루어졌다. NSC81/1은 NSC81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 문서가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으로의 군사작전 확대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NSC81/1에서는 유엔군이 38선을 넘기 전에 소련군이나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었다.[18]

NSC81/1은 유엔군이 38선에 도달하기 전에 소련 및 중공 공산세력이 북한을 재점령하거나 유엔군의 북한 지역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정치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NSC81/1이 승인된 뒤, 북한지역의 점령지침에 관한 초안이 수립되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전달되었다.

제 2 절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부대배치

1. 낙동강 방어선 형성 배경

한미연합군이 효과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마지막 방어선을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에서 구축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공세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수해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둘째, 낙동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이 지니고 있는 지형상의 이점이었다. 낙동강은 양쪽이 단애(斷崖)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강을 도하해야 될 북한군에게는 불리한 반면, 이를 방어하는 국군과 미군에게는 유리하였다.

셋째,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야겠다는 총력전 태세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결정하고, 이곳에서 북한군과의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결심을 하였다.

1) 낙동강 방어선 형성 이전의 전황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받고 서울이 함락된 이래 한미연합군은 축차적인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군은 최초 '평택-안성-삼척을 잇는 선(200㎞)'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미 양군이 이 선을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이 선이 내륙 깊숙이 들어온 아산만(牙山灣)에 의하여 남한지역에서 폭이 가장 좁은 곳으로 방어가 유리했고, 둘째는 북한군이 평택을 점령할 경우 부산으로 통하는 접근로와 함께 호남(湖南) 방면으로의

접근로가 개방되면 아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은 7월 6일 북한군에게 돌파되었다.

한미연합군은 다시 '금강(錦江)과 소백산맥(小白山脈)을 잇는 선(270㎞)'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24사단으로 하여금 금강선을 방어케 하고, 미 제25사단은 소백산맥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 중인 미 제1기병사단의 증원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 방어선도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의 집중 공격으로 3일 만인 7월 16일에 붕괴되었다. 이 때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국군도 미군의 철수에 따라 불가피한 전선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소백산맥의 큰 고개인 문경의 조령(鳥嶺)과 단양의 죽령(竹嶺), 그리고 동해안의 영덕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1950년 7월 16일 북한군에 의해 금강방어선이 돌파되자 미군은 교통의 중심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大田)을 사수하고자 하였다. 대전은 북한군의 작전계획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전 목표였다. 그러나 7월 18일 워커 중장은 금강방어선에서 많은 전투력을 상실한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의 '대전 사수 계획'을 변경한 대신 7월 18일 포항에 상륙할 미 제1기병사단이 대전에 진출할 시기인 7월 20일까지 대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대전이 적에게 함락됨에 따라 전선은 계속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2) 낙동강 방어선의 지리적 특성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한에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살펴보면 북쪽으로부터 임진강선, 한강선, 평택-삼척선, 차령산맥선, 금강선, 소백산맥선, 그리고 마지막이 낙동강을 연한 선이다.

이들 방어에 유리한 지형 중 낙동강은 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왜관에서 남지(南旨)에 이르는 낙동강 본류(本流)는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낙동강은 강폭이 400~800m에 달하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200~400m이며, 수심은 1~1.5m 이상으로 도하에 부적합하였다. 또 이곳 낙동강의 동서 양안(兩岸)은 깎아

세운 듯한 산이 많고 언덕이나 평지가 없어 도하가 어려웠고 대규모 병력의 기동에도 제한을 주었다.

특히 공격을 해야 하는 북한군은 아군의 감제하에 강의 동쪽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간 도하보다는 야간 도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도 급속도하보다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정밀도하를 선택해야만 하였다. 이렇듯 낙동강은 공자(攻者)인 북한군 보다는 방자(防者)인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녔다.

그 중 낙동강과 만나는 남지(南旨)로부터 남해에 이르는 마산 정면의 낙동강지역은 방어에 유리하지 않았으나, 마산 서쪽의 고지군(高地群)은 병풍처럼 마산을 감싸고 있어 방자에게는 유리한 지형이었다. 또 마산서부지역은 남해안에 가까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해상으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으나,[19] 만약 적이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 부산이 직접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위험부담이 큰 지역이었다.

3) 미 제8군사령관의 낙동강 방어선 결정

한국전선에서 유엔군 지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7월 한 달 동안의 지연작전의 불리한 전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낙동강의 지형상 특징을 고려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워커 중장의 낙동강 방어선 구상은 지연작전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정확한 시점은 한미연합군에 의해 형성된 대전 북방의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이 돌파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부터였다. 그는 낙동강 방어작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즉 워커 중장과 참모들은 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 증원부대의 상황, 유엔 해·공군의 지원, 북한군의 상황, 지형, 부산항의 여건과 양륙상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 연후에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교두보로 선정하고, 이 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한 다음 총반격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20]



미국 보급품이 양륙되는 전쟁 당시 부산항 부두의 전경

워커 중장의 낙동강 방어작전 구상에 대해서는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정일권(丁一權) 소장도 실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 정일권 총참모장은 7월 18일 워커 중장과 함께 격전을 벌이고 있는 대전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비버'라는 경비행기를 타고 왜관 상공을 지날 때 워커 중장의 낙동강 방어선 구상을 알았다. 워커 중장은 왜관 상공을 지날 때 정일권 소장에게 창밖으로 보이는 낙동강을 가리키며 차후의 방어지역으로 이곳을 선정했다고 말하였다. 이 때 국군과 미군에 의한 금강-소백산맥의 지연작전은 이미 전력상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었다.[21] 정일권 소장은 이 때 워커 중장의 낙동강선 방어작전 구상을 확인하였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반격을 위한 발판으로 계획하였다. 그는 새로운 방어선으로 낙동강과 영덕을 잇는 선으로 결정하고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진을 소백산맥을 이용하여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국군과 함께 영동-함창-안동-영덕에 이르는 140㎞의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이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여 이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낙동강 방어선의 특징

낙동강 방어선은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일명 부산교두보(釜山橋頭堡)라고 하며 또 워커 장군이 설정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워커 라인(Walker Line)이라고도 한다. 이 방어선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에 연하여 설정되었으며, 남쪽의 마산으로부터 남지~왜관~낙정리~영덕을 잇는 동서(東西)간 약 80㎞, 남북(南北)간 약 160㎞의 'ㄱ' 모양의 방어선으로써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상황도 2-1>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지명



첫 번째 구간은 낙정리-왜관-남지를 잇는 낙동강을 이용한 방어선으로 당시 강폭은 400~800m, 수폭은 200~400m, 수심은 1~1.5m이었다. 두 번째 구간은 남지~마산 서측 진동리를 잇는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지점으로부터 남해안까지로, 이곳은 전투산(戰鬪山・661m), 필봉(筆峯・742m), 서북산(西北山・738m) 등 험준한 고지군(高地群)으로 형성되어 있다. 세 번째 구간은 낙정리~영덕~낙동강 상류의 남쪽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따라서 방어선의 대부분은 하천과 고지군 등 천연장애물로 형성되어 외곽방어선의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방어선상의 중요 지점인 마산, 남지, 왜관, 낙정리, 의성, 영덕까지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내선작전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였다.

한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8월초 낙동강 교두보의 방어계획을 검토하면서 미 제8군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부산주변에 해안의 상륙거점을 방어하는 예비방어선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미 제8군 공병참모 데이비드슨(Garrison H. Davidson) 준장이 소위 '데이비드슨 라인'을 선정하여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미 제25사단과 미 제2사단, 그리고 인근 주민의 협조를 얻어 경상남도 울산 동북방 17㎞지점 서동리에서 밀양 북방 유천과 무안리를 따라 마산 동북을 잇는 90㎞의 예비진지를 구축하였다.[22]

이렇듯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은 지금까지의 지연작전에서 최대 취약점이었던 부대배치상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3.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와 부대배치

1)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철수명령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국군과 유엔군이 적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7월 26일 전군에

낙동강 선으로의 철수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는다. 한국판 덩커르크는 없다"고 강조하고 전선고수의 필요성을 역설한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의 작전지침에 따라 행동하였다. 워커 중장은 7월 29일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른바 전선사수(Stand or Die) 명령을 하달하여 전의(戰意)를 다졌다.[23]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전선 사수명령은 북한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균형을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각 부대로 하여금 역습을 실시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는 "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아군진지에 대한 적의 조직적인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역습을 시도하라. 한국군 작전에서 입증된 것처럼 역습은 잃었던 진지를 되찾고,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역습은 방어의 결정적 요소이며, 그것의 성공여부는 실시속도와 대담성, 그리고 기습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24]

8월 1일 그는 한미연합군에게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25] 한미연합군의 낙동강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8월 3일까지 낙동강 외곽선(X선)에서 적을 지연하면서 새로운 방어선이 될 낙동강 방어선(Y선)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8월 4일부터는 Y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26]

한편 미 제8군은 낙동강선의 부대배치를 계획할 때 피아(彼我)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미 제8군은 지연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은 산악지대에서의 침투, 근접전투, 우회기동에 뛰어났으나, 기동공간이 넓고 각종 화력의 운용이 용이한 개활지에서의 전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고려해 미 제8군은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에게는 낙동강 서부 및 남부 일대의 개활지 정면을 부여하였고, 산악지대에서 주로 전투를 수행해 온 국군에게는 낙동강 상류 지역의 산악지역을 전투지대로 부여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미군은 왜관북쪽 작오산(鵲烏山) 북단에 협조점을 설치하고,

<표 2-1> 낙동강 방어선(X·Y선)의 종류

구 분		구 간	기 간	근 거
낙동강 방어선 형성시	X선	마산-합천-김천-상주-예천-안동-영덕	8. 1~8. 3	• 미 제8군작전명령 • 육본작명제94호(8.2)
	Y선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	8. 4~8.12	
낙동강 방어작전시	X선	왜관-수암산-유학산-신주막-군위-보현산	8.13~9.14	• 육본작명제119호(8.11)
	Y선	Y선 후방의 집결지		

그 남쪽 낙동강 연변과 남해안까지는 미군 3개 사단이, 왜관 북쪽에서부터 낙정리와 영덕까지는 국군 5개 사단이 전선을 분담하여 방어하였다.

2) 미군의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와 배치

한미연합군은 8월 1일 낙동강 철수명령에 따라 이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진지전환은 북한군의 압력에 따라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먼저, 경북 상주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제25사단은 8월 1일 새벽 남쪽의 신방어진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때 미 제8군으로부터 갑자기 삼랑진(三浪津)으로 이동하라는 수정 명령을 받았다. 이는 미 제8군사령부가 북한군 제4사단과 북한군 제6사단이 낙동강 서부의 마산방면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고 내린 조치였다.

8월 2일 밤 왜관 근처에서 먼저 출발하였던 미 제25사단 선발대는 미 제8군으로부터 목적지가 삼랑진에서 마산(馬山)으로 변경되었다는 명령을 받고 진로를 변경하였다. 미 제25사단 상주-김천-왜관까지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마산까지는 열차로 이동하였다. 미 제25사단 예하의 미 제35연대는 8월 3일 10:00시에, 미 제24연대는 19:30분에 마산에 도착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중요한 시기에 전례 없는 신속한 기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

령 부대표창을 받았다.[27]

한편 진주-마산 지역에서 X선을 점령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장은 7월 31일 사단사령부를 합천(陜川)에서 창녕(昌寧)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인 8월 1일 미 제24사단은 미 제25사단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북한군 제6사단의 진출에 대비해 진주-마산에 이르는 두개의 접근로에 대한 위력정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8월 2일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미 제29연대 제2대대와 미 제27연대 제1대대가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차량화 정찰대를 편성해 북한군의 접근로로 판단되는 중암리-진주방향 및 진동리(鎭東里)-진주방향으로 위력수색을 실시하였다.

8월 2일 위력정찰을 전개한 미 제29연대 제2대대는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철수하였으나, 미 제27연대 제1대대는 진주고개에서 북한군의 차량보급부대와 조우하자 유엔 공군의 지원 하에 격파하였고, 정찰 중 북한군에 의해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진동리로 공세적인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8월 3일 제1대대는 진동초등학교에서 북한군 제6사단 제14연대의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 60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28]

한편 8월 2일 철수명령을 받은 미 제34연대는 낙동강을 도하하여 영산에 집결한데 이어 미 제21연대와 국군 제17연대도 대구-고령간 교량을 건너 창녕(昌寧)으로 철수하였다. 이 교량은 8월 3일 야간에 미 제3전투공병대대에 의해 폭파되었다.[29] 미 제19연대도 8월 3일 저녁 미 제25사단 제35연대가 도착하자 다음날 창녕으로 이동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대체로 무난하게 철수하였다. 철수과정에서 후위임무를 맡은 미 제5기병연대의 1개 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으나, 8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문제는 대구에 이르는 왜관 교량에 대한 폭파였다. 교량폭파는 엄호부대가 철수하는 대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폭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밀려오는 피난민 때문에 지체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장은 작전 목적상 교량을 폭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낙동강상의 대부분의 교량은 8월 4일까지 폭파되었다.[30] 이로써 미군 부대는 8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고, 낙동강선 방어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3) 국군의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와 배치

국군의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철수는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육군본부는 제1·제2군단에게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7월 31일과 8월 1일 야음을 이용해 낙동강 남안으로 이동하라는 「육본 작명 제91호」를 하달하였다. 또 8월 3일 야간까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육본 작명 제94호」를 하달하였다.[31]

육본작명 제94호 1950.8.2. 03: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1) 한국군은 8월 2일~3일 야간까지 "X"선 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Y"선 남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2) 주요 보급로 경호에 관한 책임을 계속 담당하라.
三. (1) 제1군단은
가. 현 방어진지(작전요도 "X"선) 남부의 적 행동을 8월 2일~3일 야간까지 계속 저지하라.
나. 8월 2일~3일 간의 야간에 "Y"선(작전요도) 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구 내 "Y"선 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이동은 제2군단과 협조하여 실시하라.
다. 1개 연대를 군단예비로 보유하라.
(2) 제2군단은
가. 현진지(작전요도 "Y"선) 남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8월 2일~3일간의 야간까지 계속 저지하라.
나.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선(작전요도) 상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구 내 "Y"선 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이동은 미 보병 제25사단과 협조하여 실시하라.
다. 제3사단은 현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3)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이에 함창(咸昌)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 제2군단 예하 제1사단은 8월 1일 밤 북한군과 접촉을 끊고 상주의 미 제25사단 엄호하에 낙동리로 이동하였고, 다음날에는 사단 예하의 제12연대 엄호하에 낙동리 나루터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8월 3일 저녁 신진지를 점령하였다.

국군 제1사단 우측에서 접적 중이던 국군 제6사단은 함창-점촌에서 용기동(龍其洞)으로 이동해 방어하라는 제2군단의 명령을 받고 8월 2일 사단 예하 제19연대의 엄호 하에 도하 철수하여 용기동 일대에 도착하였다.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은 군단작명에 따라 안동(安東)에서 수도사단의 엄호아래 안동대교를 건너 그 남쪽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군단으로부터의 촉박한 명령전달과 수도사단의 엄호미비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도하 철수하였다. 제8사단은 안동 철수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국군 수도사단도 제8사단과 마찬가지로 무질서 속에서 길안(佶安) 방면으로 이동해 방어편성을 하였다.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은 현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영덕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대체로 8월 3일 야간까지 신진지인 낙동강 방어선으로 진지전환을 완료하고, 방어편성에 주력하였다.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대구에 위치하였고, 제1군단사령부는 경북 의성에, 제2군단사령부는 경북 군위에 위치하여 낙동강 방어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제 3 절 북한의 전쟁수행방침과 작전기도

1. 북한의 전쟁지도

북한 당국은 8·15광복 제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남반부 무력 해방'의 전승 축하 행사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거행할 목적으로 8월 15일까지 침략전쟁(侵略戰爭)을 끝낼 계획을 가지고 전쟁 전반을 지도하였다.

김일성(金日成)은 7월 20일경 충청북도 수안보까지 내려와 북한군의 지지부진한 전황을 보고 받은 후 전선사령관 김책(金策)에게 "8월 15일 내에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 유엔군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낙동강을 도하하여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32] 이는 8월 초에 한미연합군이 낙동강 선에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형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급속한 추격 작전으로 낙동강을 도하해 대구-부산의 좁다란 지역을 압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각 부대에 독전대(督戰隊)를 편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8월 15일 안으로 부산을 점령하라며 독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부산 점령은 고사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자, 김일성은 8월 15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82호'를 하달하여 북한군뿐만 아니라 전 북한주민에게도 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는 "후방에 있는 전 인민들은 생산을 배가하라. 그리고 육·해군 전사 지휘관 및 남녀 빨치산·노동자·농민·문화활동가 등의 동무들은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백발백중의 사격술, 병기의 애호, 지휘통솔의 발전, 한미 양군의 격멸, 유격전의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전쟁 종결을 외쳤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도 예비부대를 비롯하여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전선으로 추진하였다.[33]

하지만 전황이 계속 악화되자 김일성은 8월 22일 낙동강 전선돌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족보위상 최용건(崔鏞健)에게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장병들에게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우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비 전투부문을 최대한 줄이고 전투원을 보충하라"고 지시하였다.[34]

이렇듯 김일성은 최종 목표 부산 점령의 마지막 장애물인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네 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어느 한곳만 돌파하면 승리한다는 확신하에 전쟁을 지도하였다.

첫째는 대구를 돌파하여 부산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낙동강 돌출부(창녕-영산)를 통하여 밀양(密陽)에서 철도와 육로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남강(南江)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동쪽에서 마산을 돌파하여 부산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는 경주(慶州)를 점령한 후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부산을 점령하고자 하였다.[35]

2.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 이르러서 그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북한군의 전력 한계는 제공권 상실, 병참선 신장, 후방기지의 파괴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은 전쟁 초기부터 유엔공군에게 제공권을 상실함에 따라 많은 전력 손실을 입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개전 초기부터 미 극동공군사령부에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여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과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유엔공군은 북한군의 전선 공격부대는 물론이고 후방의

예비전력까지도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공군은 시계의 제한이나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주로 야간이나 시계가 불량하여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에 보급추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급 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주로 야간에 차량과 열차를 이용하여 제한된 양의 야포·박격포·기관총을 전선의 부대에 보급하였다. 그 결과 전선에 있는 북한군의 야포와 박격포는 개전 초에 비해 그 수가 1/3로 감소하였고, T-34전차도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36]

둘째, 북한군의 병참선 신장에 따라 보급 수급에 차질을 가져왔다. 북한군은 전선이 낙동강에 형성됨에 따라 그들의 병참선도 이에 비례하여 더욱 신장되었다. 낙동강 전선으로 이어지는 북한군의 병참선은 마치 최대한으로 팽창한 고무줄과 같아서 외부에서 조그마한 충격만 주어도 곧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다.[37]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장거리에 걸쳐 보급품을 수송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의 병참선은 만주와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낙동강 전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북한군은 전선으로 보급품을 추진하기 위해 두 개의 경로를 이용했다. 하나는 만주-평양-서울-낙동강 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 수송로였고, 다른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청진-원산-서울을 경유하여 낙동강 전선으로 이어지는 수송로였다. 이 때 서울은 북한군의 보급 수송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서울에서 낙동강 전선의 관문인 왜관까지는 약 300㎞에 달하는 장거리였다.[38] 북한군은 서울에 도착한 보급품을 다시 낙동강 전선으로 추진해야 하였다.

셋째, 북한지역의 후방전략기지는 개전 이후 50여회의 유엔 항공기의 전략폭격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유엔군의 폭격으로 평양병기창·원산정유소·흥남합성화학공장·나진부두·성진제철소·진남포 알루미늄공장 등 북한 주요 군수시설과 공장이 파괴됨으로써 북한의 전쟁지원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북한은 전선에 보낼 보급물자 부족과 보급추진의 제한, 그리고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김일성은 후방공고화 방침을 제시한 상태에서 전선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는 유엔군의 공중공격과 폭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증가와 수송요령을 지시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였다.[39]

먼저, 북한은 병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어린 소년까지 강제징집하여 '의용군'이라는 미명아래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는 낙동강 전선에서 많은 전투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선에 전개한 북한군의 각 사단 전투력은 개전초기에 비해 50~60%로 격감되었다. 이는 북한군이 초기에 제공권을 상실함으로써 모든 부대는 주간행동이 제한된 데다가 병력보충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아군 방어진지의 돌파를 위해 무리한 공격 작전과 독전대를 편성하여 전투를 독전함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북한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이른바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전선의 총알받이



북한군 점령지역의 남한 청년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

또는 노무자로 내보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은 연령에 관계없이 점령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동원하였다.

둘째, 북한군은 미군이 참전하면서부터 제공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거리 육상수송을 통해 낙동강 전선의 전투부대에 보급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이를 위해 수만 명의 서울시민을 강제 동원하여 한강교를 보수하고, 서울에서 낙동강 전선의 각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통해 전선의 11개 전투사단에 군수품을 지급하였다. 북한은 주민 30만 명을 강제 동원하여 전선까지 보급품을 운반하였다. 북한은 주민 한 사람당 20㎏의 보급량을 20~30㎞ 거리를 정해 운반하도록 하고, 다른 마을의 주민들이 이를 인수받아 다른 지점까지 운반하는 릴레이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선에까지 수송된 북한군의 보급품이 약 400톤에 달했다. 이것은 전선에 전개된 북한군 사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급품 양이었다.[40]

그 결과 각 전선에서 북한군의 보급품 부족현상은 최악의 상태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군의 전투력은 극도로 제한을 받았다. 북한군의 열악한 보급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급감해가는 식량배급에서 확인되었다. 전쟁초기 북한군의 급식은 주로 쌀, 마른 생선, 고기, 야채 등 일일 급식 800그램이 지급되었으나,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600그램으로 감소되었고, 9월에는 400그램으로 줄어들었다.[41]

셋째, 북한군은 남한점령지역에서 보급품을 조달하였다. 북한군은 남한점령지역에서 이른바 '인민위원회'를 통해 식량과 일용품을 강탈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작전지역이 대부분 산악지대의 가난한 농가인데다 주민들의 비협조로 강압적인 현지조달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 1개 사단의 1일 평균보급량이 7월 15일까지는 206톤이었던 것이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그 1/4인 51톤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낙동강 방어작전이 끝나갈 무렵 북한군의 보급품은 그 절반인 21.5톤으로 급감하였다.[42] 북한군이 남한점령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였던 식량과 일용품도 점령지역의 조달능력의 한계에 부딪쳐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군 사단의 보급 상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북한군 1개 사단 1일 평균 보급량[43]

(단위 : 톤)

보급품	기 간		
	6. 25~7. 15	7. 16~8. 15	8. 16~9. 20
제1종(식량)	18	9	2.5
제2종(병참)	10	5	-
제3종(POL)	12	7	2
제1종(병기)	166	30	17
계	206	51	21.5

이렇듯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제공권 상실과 병참선 신장, 그리고 원활하지 못한 보급사정으로 인해 그 전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전투수행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그들의 보급 수준이 잘 입증하고 있다. 북한군은 1950년 8월 15일까지 T-34전차 21대와 전차병 200여 명만을 겨우 전선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이 지원한 최대 규모였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선으로 오는 도중 유엔 공군의 폭격으로 상당수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44] 더욱이 8월 중순부터 북한군은 연료 부족으로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차량도 기동에 제한을 받았다. 북한군 식량을 비롯한 보급품은 물론이고 전투장비 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가운데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

3. 북한군의 8월 공세 작전

1) 작전개념과 부대 운용

1950년 7월말 낙동강선 외곽에서 도하준비를 갖춘 북한군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부산 점령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에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이전에 신속히 도하하여 8월 공세의 목표인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 즉 주공을 최단거리 접근로인 왜관 일대에서 대구에 이르는 축선에 투입하여 조기에 대구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군은 전 전선의 가용한 모든 접근로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을 조기에 분산시키고, 어느 축선에서든지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대하여 후방 깊숙이 진출해 차기 작전의 발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45]

또한 북한의 『조국해방전사』도 그들의 8월 공세에 대한 목표와 작전기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북한군은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작전으로 미군과 국군을 김천-함창-안동지역에서 포위소멸하고, 빨리 낙동강을 강행 도하하여 적의 기본집단을 대구 일대에서 포위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산-대구-영천-포항계선으로 진출함으로써 미군들을 최종적으로 격멸소탕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8월 공세의 기본목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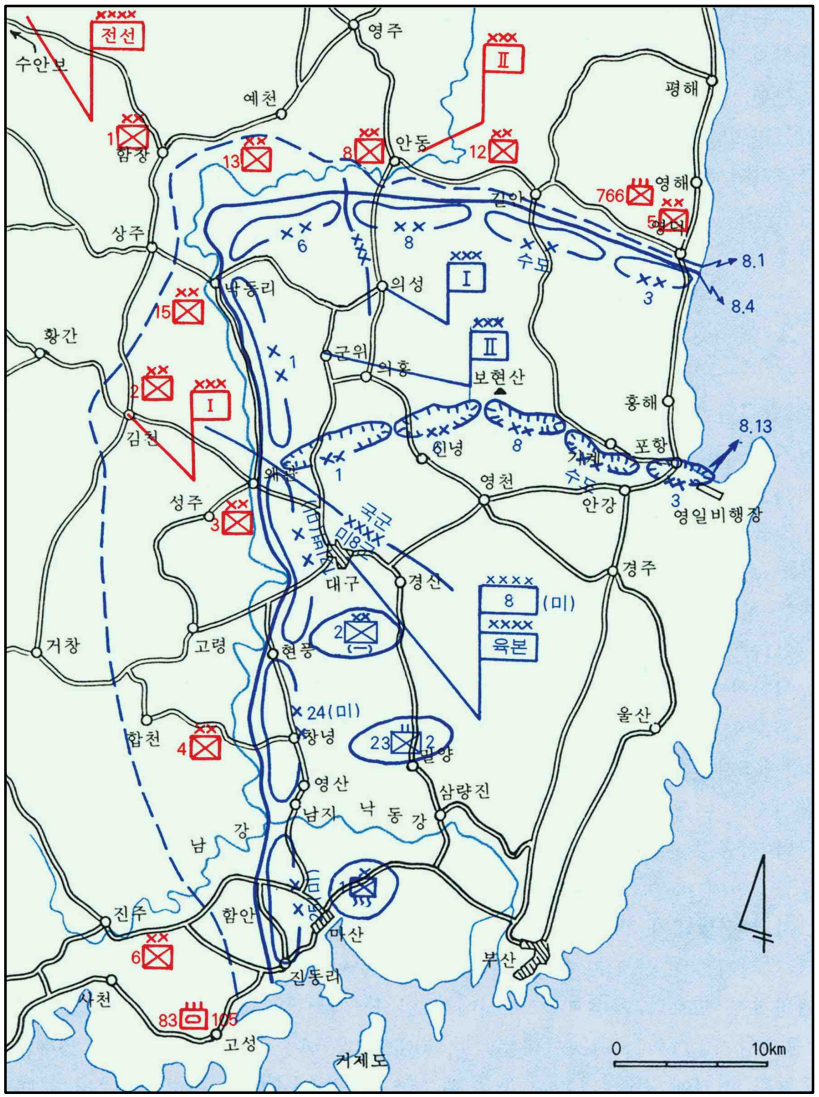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월 공세 때 북한군은 13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였으며, 주공을 왜관일대-대구-부산 축선에 두고 전 전선에서 한미연합군의 방어진지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북한군은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주공지역인 대구 축선에 5개 사단을 투입하여 공격하였다. 즉 대구에 이르는 최단거리 축선인 다부동-대구 축선에 2개 사단, 군위-대구 축선에 1개 사단, 왜관-대구 축선에 2개 사단을 투입하여 집중 공격하였다. 그리고 5개 사단은 마산, 밀양, 영천, 경주, 포항 축선으로 투입하여 전 전선을 돌파하도록 하였다.

2) 전투편성과 부대 전개

1950년 8월 1일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여 대체로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8월 4일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이 형성한 낙동강 방어선의 외곽선까지 진출하여 공격을 위한 부대배치를 완료하였다.

<상황도 2-2> 북한군 8월 공세시 피아 배치상황(1950. 8. 1~4)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에 9개 보병사단을 배치하였고, 1개 예비사단을 김천에 집결시켰다. 이외에도 북한군의 2개 사단(제7・제10사단)이 낙동강 전선에 거의 도착하고 있었고, 새로 창설된 북한군 제9사단도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47] 그 중 북한군 제10사단[48]은 최초 군 예비로 있다가 제1군단에 배속되어 북한군 제3사단과 협동작전으로 미 제1기병사단의 방어정면을 공격하였다.

그 당시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에는 2개 군단, 11개 사단, 1개 전차사단, 1개 독립연대로 편성되었다.

이를 지휘하는 북한군 전선사령부 사령관은 김책(金策)[49] 대장이고, 참모장은 강건(姜健) 중장이다. 북한군 제1군단장은 김웅(金雄)[50] 중장, 제2군단장은 김무정(金武亭)[51] 중장이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2사단장은 최현 소장, 제3사단장은 이영호 소장, 제4사단장은 이권무 소장, 제6사단장은 방호산 소장이다. 제1군단은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정면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표 2-3>과 같다.

<표 2-3> 북한군 8월 공세시 전투편성

구 분	예하 부대	공격 축선	아군 정면
제1군단 (마산-왜관)	• 제6사단	• 마산-부산 축선	• 미 제1기병사단
	• 제4사단	• 영산-밀양 축선	• 미 제24사단
	• 제3사단 • 제10사단	• 왜관-대구 축선	• 미 제25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13사단 • 제15사단	• 다부동-대구 축선	• 국군 제1사단
	• 제1사단	• 군위-대구 축선	• 국군 제6사단
	• 제8사단	• 의성-영천 축선	• 국군 제8사단
	• 제12사단	• 기계-경주 축선	• 국군 수도사단
	• 제5사단	• 영덕-포항 축선	• 국군 제3사단
지원부대 (제1・2군단)	• 제105전차사단 • 독립전차연대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사단장은 김광협 소장,[52] 제5사단장은 김창덕 소장, 제8사단장은 오백룡 소장, 제12사단장은 최춘국 소장, 제13사단장은 최용진 소장, 제15사단장은 박성철 소장이다. 제2군단은 국군 사단의 방어정면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 북한군 주요 지휘관 및 부대 편성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북한군 주요 지휘관 및 예·배속 부대[53]

직책		계급	성명	예속 및 배속 부대
전선사령부	사 령 관	대장	김 책	제1군단·제2군단·제105전차사단·독립전차연대
	참 모 장	중장	강 건	
제1군단	군 단 장	중장	김 웅	
	제2사단장	소장	최 현	제4연대(대좌 이승호)·제6연대(?)·제17연대(대좌 김관대)·포병연대(?)
	제3사단장	소장	이영호	제7연대(대좌 김창봉)·제8연대(대좌 김정동)·제9연대(대좌 김만익)·포병연대(대좌 안백성)
	제4사단장	소장	이권무	제5연대(대좌 최인덕)·제16연대(?)·제18연대(?)
	제6사단장	소장	방호산	제1연대(대좌 김후진)·제13연대(대좌 한일래)·제15연대(대좌 김현기)·포병연대(중좌 박해민)
	제10사단장	소장	?	
제2군단	군 단 장	소장	김광협	
	제1사단장	소장	김광협	제2연대(대좌 김양춘)·제3연대(대좌 이창권)·제14연대(대좌 황석)·포병연대(대좌 현학봉)
	제5사단장	소장	김창덕	제10연대(대좌 박정덕)·제11연대(대좌 김봉문)·제12연대(대좌 왕휘)
	제8사단장	소장	오백룡	제81연대(총좌 이학래)·제82연대(총좌 사세)·제83연대(중좌 오충섭)·포병연대(중좌 김명항)
	제12사단장	소장	최춘국	제30연대(대좌 최학훈)·제31연대(대좌 이성진)·제32연대(대좌 황동화)·포병연대(대좌 마동결)
		소장	최인두	
	제13사단장	소장	최용진	제19연대(대좌 김승국)·제21연대(대좌 이승준)·제23연대(대좌 태병열)·포병연대(중좌 정봉욱)
	제15사단장	소장	박성철	제45연대(대좌 이철룡)·제48연대(대좌 김치규)·제50연대(대좌 이을설)·포병연대(대좌 김연섭)
예비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	제51연대(대좌 강치복)·제52연대(대좌 한일해)
	제9사단장	소장	박효삼	제85연대(?)·제86연대(?)·제87연대(?)·포병연대(?)
지원부대	제105전차사단장	소장	유경수	?

한편, 북한군 전선사령관 김책 대장은 낙동강 전선에서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사령부를 수안보에서 김천으로 이동하였다. 제1군단은 김천에서, 제2군단은 안동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낙동강선 외곽에 1개 전차사단으로 증강된 10개 사단을 배치하고, 예비사단인 북한군 제10사단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시키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 제7사단과 제9사단 2개 사단을 서울에 집결시켜 전선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왜관북방에서 영덕까지를 담당하게 된 북한군 제2군단은 제15사단과 제13사단 일부가 왜관북방 국군 제1사단 정면에서 도하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동쪽으로 북한군 제13사단(-)과 북한군 제1사단은 국군 제6사단 정면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동을 점령한 북한군 제8사단은 국군 제8사단 정면에, 청송일대로 진출한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 수도사단 정면에 배치되었고, 동해안의 북한군 제5사단과 북한군 제766부대는 국군 제3사단과 접전 중에 있었다.

또한 왜관에서 마산정면까지를 담당한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3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 북한군 제4사단이 낙동강돌출부의 미 제24사단 정면에서 각각 도하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산서부에는 북한군 제6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예하 제83독립전차연대가 미 제25사단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105전차사단의 전차 약 40여대는 2개 군단에 나뉘어져 지원하고 있었으며 북한군 제2사단은 경북 김천에서 예비로 집결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군 사단의 전투력 수준은 50~60% 수준이었다. 미 제8군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8월 4~5일 북한군의 지상군 총병력은 79,100명이었다. 북한군은 보병 10개 사단의 병력 63,600명에 예비 1개 사단의 병력 10,000명이 있었다. 또 전차 1개 사단과 1개 독립전차연대 병력 4,000명에 전차 40대, 그리고 제766게릴라부대 1,5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54] 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이외에도 북한군은 남한 점령지역에 설치한 제706치안여단 예하에 12개의 치안연대(연대당 2천여 명)를 편성하였다. 제706치안여단은 내무성 경비국장 박훈일

<표 2-5> 8월 중 북한군 병력 현황

부대 명칭	병 력	부대 명칭	병 력
제1사단	5,000명	제12사단	6,000명
제2사단	7,500명	제13사단	9,500명
제3사단	6,000명	제15사단	5,000명
제4사단	7,000명	예비 제10사단	10,000명
제5사단	6,000명	제105전차사단	3,000명
제6사단	3,600명	제83독립전차연대	1,000명
제8사단	8,000명	제766부대	1,500명
합 계	79,100명		

(朴勳一)을 사령관으로 하여 1950년 8월 1일 서울에서 최초 8개 연대를 창설하였고, 그 후 4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해 총 12개 연대 48개 대대 24,000명으로 편성되었다.[55] 이들 부대는 기간요원을 제외하고는 90%가 현지 주민으로 편성되었고, 무장력이 없었으므로 주로 전쟁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제102치안연대(전주), 제103치안연대(안동), 제104치안연대(사천)는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56]

4. 북한군 9월 공세 작전

1) 작전 개념과 부대 운용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통해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돌파작전의 필수조건인 전투력의 집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특히 왜관 서쪽 약목(若木) 일대에서 감행된 유엔 공군의 융단폭격에 의한 충격은 북한군으로 하여금 병력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은 8월 공세의 목표였던 대구는 고사하고 낙동강 방어선도 돌파하지 못한 채 공세종말점에 이르고 말았다. 하지만 북한군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을 새로운 공격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산점령을 위한 최후 총공격, 즉 9월 공세를 준비하였다.

북한군은 9월 공세의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8월 공세의 실전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북한군은 1~2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돌파구를 형성한다 해도 기동력이 우수한 유엔군이 지체 없이 예비대를 투입해 국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북한군은 야간전투와 침투전술에 숙달된 그들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57]

이에 따라 북한군의 9월 공세때 작전개념은 "어느 한 정면에도 전투력을 집중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접근로에서 일제히 공격하여 어떤 지역이든 간에 한 곳이라도 돌파구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 대한 전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었다.[58]

이렇듯 9월 공세시 북한군의 작전목표는 8월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방어선을 조기에 와해시키고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을 각개 분할해 포위 섬멸한 후 부산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부대를 운용할 때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는 제공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군은 공격개시 시간을 결정할 때 이를 특별히 염두에 두었다. 북한군은 공격개시 시간을 해가 뜰 무렵인 여명(黎明)에 실시하지 않고 해가 진 뒤인 일몰(日沒)을 택했던 것은 유엔공군과 포병 화력으로부터 공격간 부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59]

북한군은 8월 공세 때 주로 여명공격을 실시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여명공격을 하면 점차 날이 밝아지기 때문에 유엔공군의 폭격이나 포병사격의 활동이 점차 많아져 북한군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몰공격은 점차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공중정찰이 제한돼 북한군의 활동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유엔 공군도 야음으로 활동을 제한받기 때문에 유리하였다.

북한군은 이러한 '전훈(戰訓)'을 살려 9월 공세시에는 통상 해가 진 뒤 공격을

개시해 최소한 새벽이 되기 전에 목표를 탈취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아군 방어진지 전방 100~150m 지점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여 유엔군의 화력지원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미군이 방어하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의 서부 및 남부지역에서는 8월 31일 23:0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의 중동부와 동부지역에서는 9월 2일 18:0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는 모두 여명 공격이 아니라 일몰 이후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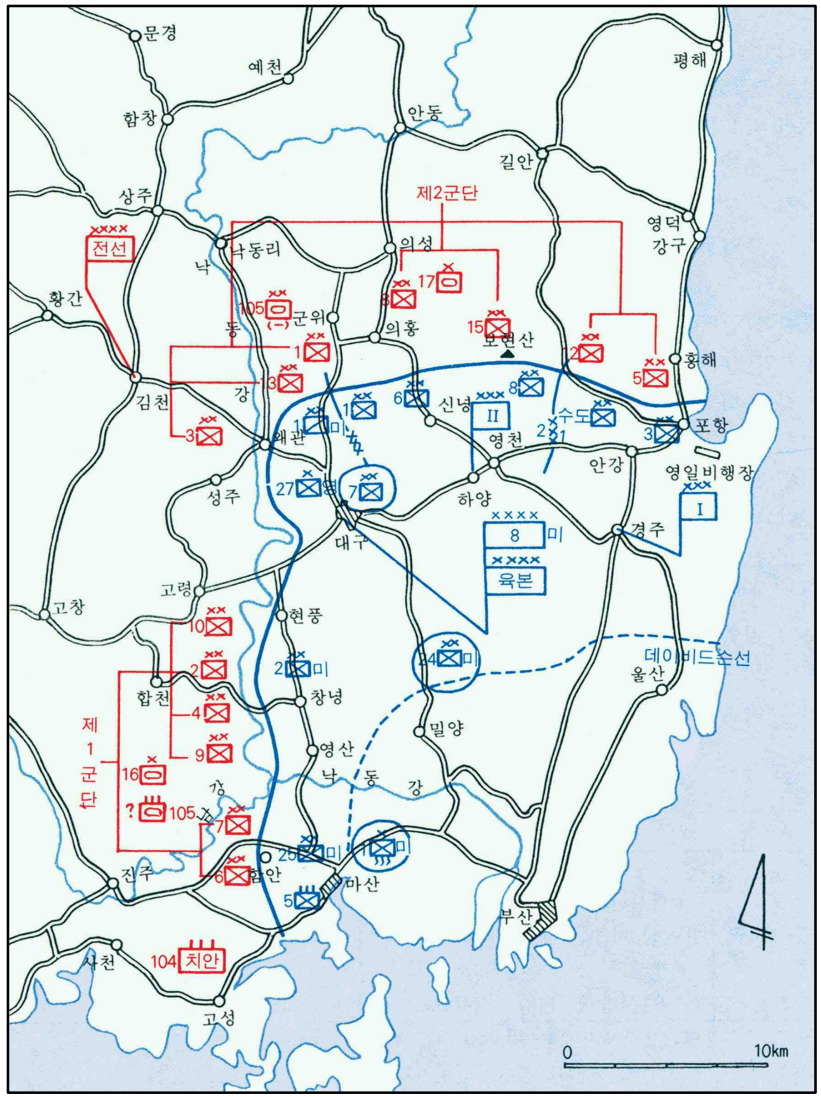
북한군의 이러한 시간차 공격은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병력 손실을 줄인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북한군이 국군과 미군 방어지역에 대한 시간차 공격을 한 것은 천연장애물인 낙동강 도하시간을 고려해야만 전 전선에서 아군에 동시 다발적인 공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은 각 군단의 공격시간에 2일간의 시차를 두었다. 또 북한군은 미군이 담당한 남부전선을 먼저 공격하여 마치 이곳이 주공인 것처럼 오판케 하려는 기만작전도 있었다.[60]

북한 자료에서는 북한군 제1군단이 먼저 공격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북한군 제1군단이 서부에서 먼저 낙동강을 도하해 공격함으로써 북쪽의 제2군단의 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적[아군]의 기본 집단을 각개 분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61]고 하였다.

2) 전투 편성과 부대 전개

북한군은 8월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9월 공세 때도 예하 군단의 전투지대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격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9월 공세에 군 예비까지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북한군의 전력은 제1군단이 6개 사단, 제2군단이 7개 사단으로 증강되었다. 즉, 북한군은 9월 공세 때 보병 13개 사단, 1개 전차사단, 2개 기갑여단, 그리고 치안연대를 투입하여 낙동강 선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2개 군단 예하 부대를 총 5개의 공격집단으로 편성하였다(<표 2-6> 참조).[62]

<상황도 2-3> 북한군 9월 공세시 피아 배치상황(1950. 8. 31)



<표 2-6> 북한군 9월 공세시 공격집단 편성

구 분	공격 집단	전투 편성	공격 축선
제1군단 (마산-왜관)	• 제1공격집단	• 제6・제7사단 • 제104치안연대	• 마산-김해-부산 축선
	• 제2공격집단	• 제2・제4・제9・제10사단	• 영산-밀양-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6기갑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3공격집단	• 제1・제3・ 제13사단	• 왜관/다부동-대구 축선
	• 제4공격집단	• 제8・제15사단	• 영천-대구/경주 축선
	• 제5공격집단	• 제5・제12사단	• 안강/포항-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7기갑여단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8월 22일 전선돌파를 위한 최종공세 준비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이도록 독전하였다. 이에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8월중 모든 예비부대와 장비 및 보급품을 전선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63]

북한군은 고령에 위치해 있던 예비사단인 제10사단과 북한지역에서 증편되어 남하한 제7사단, 그리고 제9사단(-)을 전선에 투입하였다.[64] 이들 부대들은 병력 중 1/3을 남한에서 강제징집한 신병들로 보충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단에 비해 전투력이 낮았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2개 기갑여단(제16・제17기갑여단)은 8월 23일 소련에서 새로 도착한 T-34전차로 장비하였다. 소련제 전차는 8월말 평양을 출발해 철도를 이용하여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하였다.[65] 이들 부대가 낙동강 선에 증원된 마지막 부대였다.

미 제8군 정보판단에 의하면 9월 1일 기준으로 북한군은 보병 13개 사단을 포함한 전선 전개부대의 총병력이 97,850명이었고, 사단병력은 5,000명에서 10,000명이었다.[66] 제105전차사단은 병력이 1,000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이름뿐인 사단으로 전락하였다. 비록 2개의 기갑여단이 새로 창설되어 투입되었으나, 그 수도 1,000여명에 불과하였다. 북한군 9월 공세에 투입된 전력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북한군의 9월 중 병력 현황

부대 명칭	병 력	부대 명칭	병 력
제1사단	5,000명	제10사단	7,500명
제2사단	6,000명	제12사단	5,000명
제3사단	7,000명	제13사단	9,000명
제4사단	5,500명	제15사단	7,000명
제5사단	7,000명	제104치안여단	2,000명
제6사단	10,000명	제105전차사단	1,000명
제7사단	9,000명	제16기갑여단	500명
제8사단	6,500명	제17기갑여단	500명
제9사단	9,350명		
합 계	97,850명		

제 4 절 정부와 유엔군의 전쟁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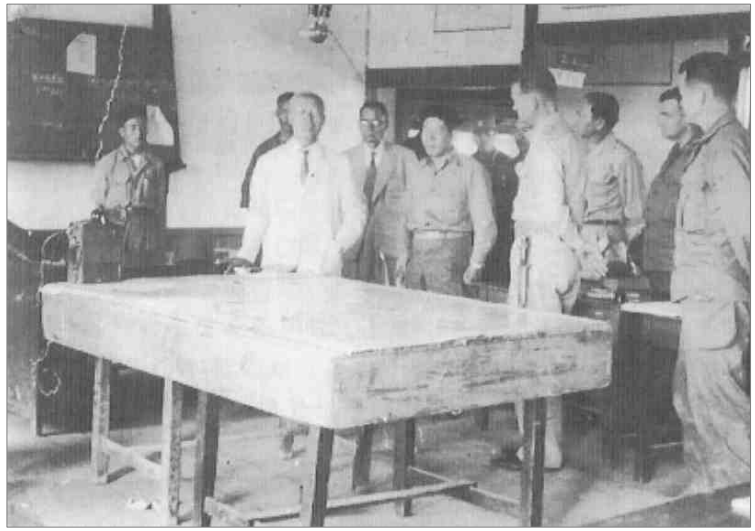
1. 정부의 전시조치와 전력 증강

1) 정부 및 국회의 주요 조치

이승만 정부는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될 즈음에 효율적으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1950년 8월 1일 긴급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원(國務院)내에 국방부장관·내무부장관·상공부장관·교통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시대책위원회(戰時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또한 7월 15일 내무부장관에 조병옥을 임명한데 이어, 8월 15일에는 김활란(金活蘭)을 공보처장에 임명하여 내각을 보강하였다.

특히 이승만 정부는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8월 1일 이승만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상시향토방위령(긴급명령 제7호, '50년 7월 22일)」을 폐기·공포한데 이어 이를 수정한 「비상시향토방위령(긴급명령 제9호, '50년 8월 4일)」[67]을 8월 4일 공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계속해서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령(법률 제145호, '50년 8월 4일)」, 「징발보상령(대통령령 제381호, '50년 8월 21일)」, 「육군보충장교령(대통령령 제382호, '50년 8월 28일)」을 공포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68]

이승만 정부는 국내에서 자력으로 생산 및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은 자체 조달하였고, 기타 장비와 물자는 미 군수지원 계통으로 지원을 받았다.[69] 이를 위해 정부는 미 제8군과 합의하여 전시 비상경비(제1~제4차)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최초 일반예산의 27.7%(250억원)이던 국방예산을 72~75%로 상향 책정하였다.[70]



영천 재탈환 후(1950년 9월 7일)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오른쪽 3번째)과 유재흥 제2군단장(오른쪽 5번째)

국방부도 경남지구에 산재한 주요물자를 군수품으로 충당하고, 전남방직공장의 재고품을 부산으로 수송하여 군복으로 대용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대구와 부산 등지의 방직공장을 총동원하여 군의 소요량을 확보하는가 하면,[71] 부산과 제주도에 조병기지를 설치하여 탄약, 수류탄, 총기 부속품 제조, 노획병기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72]

한편 낙동강 방어선 형성시 피난민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 제8군에 의하면 피난민은 1950년 7월 중순 약 380,000명이 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수는 매일 25,000명씩 늘어났다. 피난민은 주로 경부(京釜) 도로를 따라 집중되었으며, 적의 공격이 심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73] 전투지역에서 남하하는 피난민 통제는 대단히 어려웠다. 미 제25사단은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사단에 배속된 한국경찰대와 협조하여 진동리와 남강 전투지역에서 5만명 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을 피난시켰다. 낙동강 돌출부를 방어하던 미 제24사단도 사단 정면에서

낙동강을 도하하려는 피난민의 수가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8월 24일 미 제24사단은 영산과 창녕 일대에 집결한 피난민을 한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사단의 정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때마다 사단에 배속된 한국경찰대는 현지 경찰과 협조하여 피난민을 전투지역에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74]

그러나 피난민들이 작전도로를 메워 기동에 제한을 주는가 하면, 적의 오열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아군 후방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동에서는 적이 지뢰지대를 통과하기 위해 피난민을 앞세워 통과하였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정면인 왜관 교량에서는 많은 피난민이 미군 후미부대의 뒤를 따라 밀려들어옴으로써 작전에 지장을 주었다.[75]

따라서 한국 경찰은 피난민을 전투지역에서 피난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도 1950년 7월 10일 각 부처에 '피난민 분산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하달하여 피난민 대책을 강구한데 이어,[76] 8월 4일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아군 작전의 편의를 제공하고, 피난민의 폭도화를 방지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용소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77]

나아가 정부는 8월 중순 피난민구호중앙위원회를 편성하고, 대구와 부산에 60여개의 피난민수용소를 설치해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보건후생처가 설치되어 피난민 구호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난민 구호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밖에 적십자를 비롯하여 각종기구 및 자원봉사자들이 민간구호에 참여하였다.[78]

2) 국군 수뇌부의 전쟁 지도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 수뇌부들은 전선지역의 부대를 방문하여 격려하거나 군 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 7일 친필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는 격려문을 썼고,[79] 8월 16일 다부동 전선이 위험하게 되자, 제2군단 지휘소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였다.[80] 그는 9월 7일 낙동강 전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진

영천의 전선지역을 시찰하고 제2군단사령부와 제8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때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 조병옥 내무부장관,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이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단장 유재흥 준장과 사단장 이성가 준장을 비롯한 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81]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한 영천 지역은 적의 포사정권 내에 들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으나, 그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도 8월 초 '최근의 전국과 우리의 각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적을 반드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이 북한군 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전국에 발표하며 민·관·군의 사기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82] 또한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 북한군 8월 공세시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지역의 제1사단을 방문하고, 사단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사단장 백선엽 준장에게 공로훈장을 수여하였다.[83]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부동의 제1사단 전선지역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훈시하는 모습(1950년 8월 23일)

한편 1950년 8월 18일 대구정면의 전세악화로 정부와 국회는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나, 국방부와 내무부는 미 제8군사령부와 함께 대구에서 전쟁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8월 31일 북한군의 최종공세가 시작되면서 대구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9월 4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의 부산 이동을 권유하였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9월 5일 24:00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로 올라와서 더 이상의 철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였다. 그는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84]으로부터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의 면담경위와 사수결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후에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 시민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육군본부 정훈국장 이선근(李瑄根) 대령에게, 국군의 대구철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3) 국가 총력전 체제로의 전환

(1) 대구방위사령부 설치와 운용

대구방위사령부(大邱防衛司令部)는 임시수도인 대구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였다. 육군본부는 7월 24일 제2사단을 해체하면서 육본직할대로 대구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제2사단장이던 이한림(李翰林) 대령, 참모장에는 이기건(李奇建) 중령을 임명하였다.[85] 그러나 대구방위사령부는 기구만 설치되었고, 실질적인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 방어를 위해서 각 도에서 집결한 경찰병력, 청년방위대, 후방부대 일부 병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구방위사령부는 7월 27일 대구방어를 위한 군경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군에서는 사령관 이한림 대령・참모장 이기건 중령・보좌관 박금윤(朴金潤) 중령이 참석하였고, 경찰에서는 비상경비총사령부 참모장 최치환(崔致煥) 총경・동원참모 이성우(李成雨) 총경・경북경찰국 보안과장 송관수(宋寬洙) 총경이 참석하였

다. 청년방위대 고문 장석윤(張錫倫) 대령과 포병단 및 통신대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대구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86]

대구방위사령부는 8월 1일 대구방어 및 팔공산 지역에 대한 경비를 위해 대구 동촌비행장에서 경비대대를 창설하였다. 병력은 대구 시내에서 모병한 신병들로 편성하였고, 대원들은 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하였다. 대구방위사령부 경비대대는 규모와 장비면에서 볼 때 보잘 것 없었으나, 임시수도의 방위책임을 맡은 유일한 부대였다. 청년방위대와 경찰부대가 이를 보좌하였다.[87]

대구방위사령관은 부대 규모가 작은 탓인지 지휘관이 자주 교체되었다. 초대 사령관이던 이한림 대령이 8월 7일 국군 제2군단 참모장으로 승진되면서 육군헌병사령관 송요찬(宋堯讚) 대령이 8월 10일 부임하였다. 그 후 워커 중장은 대구방어의 실질적인 책임을 정규군 보다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9월 8일 대구방위사령관직을 경북경찰국장 조준영(趙俊泳)이 맡도록 하였다. 이에 참모장은 보안과장 송관수 총경이 맡았다.[88]

그러나 대구 위기가 다가오자 미 제8군사령부는 다시 지휘의 단일화와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위해 9월 10일 대구방위사령관에 전시특명검열관 보좌관이던 민기식(閔機植) 대령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대구방위사령관이 경찰의 방위업무도 인수케 하여 대구 방어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전담하게 하였다.[89]

(2) 국군의 병력충원과 전력증강

국방부는 미군과의 합의에 따라 국군 전투사단 증강을 위해 5개 사단을 완편하고 신편사단을 창설하며 국군의 일부 보충병을 미군 부대에 증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육군본부도 1950년 8월 1일 대구에 육군중앙훈련소를 설립하여 신병보충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였다.

국군은 중앙훈련소본부의 통제하에 신병양성에 주력하여 8월중 제1훈련소와 제3훈련소를 창설하였고, 9월까지 제2・제5・제6훈련소를 증설하였다.[90] 이들 훈련소는 수용병력이 5~6천명이며 1~2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9월부터는 하사관교육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우수병사를 선발하여 화기별로 전문교육을 실시

하였다.[91] <표 2-8>은 신병 훈련소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국군의 장교충원도 이 무렵부터 체계화되었다. 임시 폐교된 육군사관학교가 1950년 8월 7일 육군중앙훈련소에 재설치되었고, 8월 15일에는 육군보병학교로 합병되어 개칭되었다. 육군보병학교는 8월 21일 다시 육군제병학교로, 9월 7일에는 육군종합학교로 개칭되었다. 육군종합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간부후보생을 선발함으로써 매주 250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였다.[92]

<표 2-8> 신병훈련소 현황

구 분	훈련 소장	창설일	창설 장소	비 고
제1훈련소	대령 최 석	1950. 8. 14	대 구	
제2훈련소	대령 박현수	1950. 9. 20	부 산	
제3훈련소	대령 유흥수	1950. 8. 15	구 포	
제5훈련소	대령 김병휘	1950. 9. 3	제 주	
제6훈련소	대령 박기병	1950. 9. 3	삼랑진	



훈련소로 입소하고 있는 남한 장정들(1950년 8월 1일, 부산)

또한 국군 사단증편계획의 일환으로 8월 20일 민부대(閔部隊)와 독립유격 제1·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이 재창설되고, 8월 27일 제11사단의 신편작업이 착수되었다. 또한 제2사단과 제5사단의 재창설과 제9사단 및 제3군단의 신편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때 국군은 미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작전, 부대재편, 교육훈련, 장비운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받았다.[93]

특히 국군은 1950년 8월부터 미군으로부터 신장비와 보급을 지원받아 공세이전을 위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국군은 3.5인치 로켓포를 지급 받아 대전차공격능력을 보유하였다.[94] 또 지연작전을 통해 나타난 국군의 취약점인 포병도 대폭 개선되어 개전 이래 6개의 105밀리 포병대대를 개편하여 8월 12일 105밀리 신형야포 30여문을 보급 받는 등 4개 포병대대를 증설하여 9월 10일까지 10개 대대를 보유하였다.[95]

한편 학도의용군의 수도 늘어났다. 학도의용군은 8월 중 포항지구에서 국군 제3사단과 함께 전투를 치렀고, 9월 초에는 153명의 학도의용군이 사단의 중화기



전선으로 출동하는 학도의용군

중대요원으로 자원하여 영일비행장 경비임무를 맡았다.[96] 재일교포 학도병 54명과 애국청년 25명도 미 제1기병사단에 편입하여 참전하였고, 641명의 재일학도병이 국군과 미군 사단에 편입되어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학도의용군은 대부분 계급과 군번도 없이 각 부대에 편입하여 전투 및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다.[97]

또한 이 무렵 여자의용군이 창설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육·해·공군에서는 여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자의용군을 창설하였다. 육군은 9월 1일 부산 제2훈련소에서 여자의용군 제1기생 491명, 12월 8일에는 제2기생 383명을 배출하였다. 우수자 12명은 장교로 임관되었다. 해군도 8월 31일 126명의 해병대 여자의용군을 선발하여 중위 1명, 소위 20명을 간호장교로 배출하였다. 이들은 9월 20일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여자의용군



다부동 지역 전투에 참전한 소년지원병

해군여자의용군으로 개칭되었고 인원도 120명으로 증원되었다. 공군여자의용군도 제1·제2기생 43명을 선발하였다. 육·해·공 여자의용군은 전쟁 동안 주로 행정지원, 공산여군 포로심문, 선무공작, 공비귀순 전향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는 병역의무가 없는 나이어린 소년지원병이 참전하여 전선에 투입되었다. 소년지원병은 최전선의 병력 보충 요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연대 수색중대 및 특공대요원으로 편성되어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주요 참전지역은 낙동강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를 비롯하여 신녕전투, 영천전투, 가산-팔공산 전투, 안강-기계전투, 포항전투, 마산서부지역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98]

(3) 미군 부족병력 보충을 위한 카투사 제도 시행

국군은 미군 지상군 병력의 보충을 위해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 S. Army) 제도를 실시하였다. 카투사란 미군부대에 증원된 국군 병력이

란 의미로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카투사 설치 목적은 주한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전력을 유지시키는데 있었다.[99] 한국전선에 투입된 주일미군사단은 평시 감소편성으로 병력이 부족한데다 전투손실의 발생으로 병력보충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보충병이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8월 16일 국군 313명을 일본으로 보낸데 이어 8월 24일까지 총 8,625명의 한국군 병사를 미 제7사단에 배속하였다. 또한 8월 20일에는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미 제24·미 제25·미 제2사단 및 미 제1기병사단에도 각각 250명의 카투사를 보충하였다. 그 후 카투사는 미군 사단의 소총중대와 포대에 각각 100명씩 보충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 사단은 매 4일마다 500명을 인수받아 사단 별로 8,300명을 보충 받았다. 그렇지만 카투사는 제도적으로 국군의 일원이었으므로 봉급과 행정처리는 한국정부가 책임을 진 반면, 급식과 일용품은 미군이 지원하였다.[100]

미 극동군사령부는 최초 미군과 국군을 전우조(戰友組)로 편성·운용하였으나, 실제로 일선부대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사단은 전우조를 편성해 운용하되 화기사용법을 비롯한 야전위생훈련과 병영관리교육은 미군이 담당하였다. 미 제25사단의 1개 연대에서는 한국군을 별도의 소대로 편성하여 미군 장교와 하사관이 지휘하였다. 미 제24사단에서는 카투사를 독립소대 및 분대별로 운용하되 한국군 장교와 하사관이 이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카투사는 주로 경계, 정찰 그리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히 이들은 중화기 중대에서 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및 탄약을 운반하였다.[101] 이렇듯 카투사는 방어진지의 위장, 진지구축 등 작전활동에 있어서 보조임무를 수행하여 미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4) 국립 경찰의 재편성과 작전활동

국립경찰의 총사령부인 비상경비총사령부(非常警備總司令部)는 국군 및 유엔군

과 협동체제를 유지하고 예하 각급 경찰의 전투력 강화와 부과된 임무완수에 철저를 기하면서 대공(對共)작전에 전념하였다. 비상경비총사령부는 편성된 부대병력의 무단 전용을 엄금하는 한편 전투에서의 무단 후퇴 및 임의 철수시 극형으로 대처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낙동강 방어작전간 국립경찰은 군과 함께 대구방위에 최선을 다하였다.[102]

낙동강 방어작전간 비상경비총사령부는 대구방위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였다. 8월 1일 경기도경찰국(국장 경무관 한경록)의 전방지휘소를 와촌(瓦村)에 설치하였다. 경기도 경찰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진양(珍良)에 배치하여 대구 외곽방어를, 제3대대를 와촌(瓦村)에 배치하여 현풍(玄風)지역 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제5대대는 청도(淸道)에 배치하여 팔공산 지역 방어를 담당케 하였다. 충남경찰국 국장(경무관 심형택)은 성주(星州)지구전투사령부로서 제6대대와 충남부대를 지휘하여 그 방면의 적을 저지하였다. 신상묵(辛相默) 총경을 고령(高靈)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서울 제7대대와 경북부대로 하여금 그 지역의 적과 대적케 하였다.[103]

8월 6일 비상경비총사령부는 각도 경찰국장을 비상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전투지역을 할당해 주고 예하부대를 책임지역에 배치하여 군경합동작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시경찰국(국장 이사관 이익홍)은 지휘소를 성북(城北)지서에 두고 칠곡(漆谷)과 성북지서에 각 1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경기도경찰국(국장 경무관 한경록)은 지휘소와 1개 대대를 와촌에 배치하고, 진양에 2개 대대, 청도에 1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충남경찰국(국장 경무관 심형택)은 지휘소와 2개 대대를 공산(公山)에 배치하였다. 충북경찰국(국장 경무관 정태섭)은 지휘소와 2개 대대를 지천(枝川)에 두었다. 경북경찰국(국장 경무관 조준영)은 신동(新洞)과 칠곡(漆谷)에 대대를 배치하고, 신상묵 총경이 지휘하는 경찰과 지휘소를 월배(月背)에 두었다. 강원도경찰국(국장 경무관 윤명운)은 경주(慶州)에 지휘소를 두고 예하 병력은 제1군단에 배속하였다. 전북경찰국(국장 경무관 윤기병)은 지휘소를 진동리(鎭東里)에 두고 예하병력은 미 제25사단에 배속하였다. 철도경찰본대(대장 경무관 전득수)는 지휘소를 대구에 두고 전병력은 철도호송임무를 수행하였다.

제주경찰국(국장 경무관 이성주)은 자체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사 및 정보경찰관으로 오열 및 용공분자색출을 위한 연락참모에는 선우종원(鮮宇宗源) 경무관이 맡았다.[104]

8월 24일 비상경비총사령부는 팔공산지역 상황이 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경기도경찰국장 한경록 경무관을 팔공산지구전투사령관에, 문석제(文錫濟) 총경을 참모장에 임명하여 관할 구역 내 전 경찰병력을 통합 지휘하도록 하였다. 예하부대로는 제6전투대대·제8전투대대·제9전투대대·제13전투대대 등 4개 전투대대로 편성되었다.[105]

9월 1일 비상경비총사령부는 북한군의 차후 공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제9전투대대를 대구에, 제11·제12전투대대를 지천에, 제24전투대대를 부산에, 제25전투대대를 대구에, 제36전투대대를 부산에 배치하였다. 9월 2일 제2군단에 배속된 경기 제5독립경찰대대는 팔공산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9월 8일 영천이 위기에 처하고 적이 대구 후방을 차단하고자 운문산(雲門山)·채약산(采藥山)·구룡산(九龍山)으로 침투하자 비상경비총사령부는 이에 대비하여 운문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전투사령관에 한경록 경무관, 참모장에 박주현(朴柱炫) 총경을 임명하고 청도·경산·영천·경주에 주둔 중인 서울·경기·충남경찰국 경찰병력을 재편성하여 지휘하도록 하였다.[106]

(5) 한국 경찰의 미군 배속과 작전지원

1950년 7월 15일 내무부장관에 임명된 조병옥(趙炳玉)은 개전 당시 25,000명이던 국립경찰이 그의 취임 무렵에 13,000명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또 보유장비도 칼빈 소총 6,000정 정도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전시하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그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107]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경찰력을 65,000명으로 대폭 증강할 계획으로 대구와 부산에 경찰관훈련소를 설치하여 경찰을 양성한 결과 1950년 말에는 그 수가 48,010명으로 증가되었다. 장비도 미 제8군사령부 참모장 앨런(Leven C. Allen) 소장에게 요청해 M1소총, 칼빈 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박격포 등 70,000여점에 달하는 무기를 획득하여 전력을 대폭 증강하였다.[108]

특히 그는 영동전선을 시찰할 때 북한군 게릴라가 피난민을 가장해 전선 후방으로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을 우려해 한국의 언어와 지리에 밝지 못한 유엔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한국 경찰을 유엔군부대에 배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3일 조병옥 내무장관과 워커 중장이 미군 작전지역에서 적 게릴라의 색출을 위해 한국경찰을 미군부대에 배속한다는데 합의하여 15,000명의 경찰이 미군에 배속되었다.[109] 이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미 국방부에 건의하여 이루어졌다.

미군은 각 대대와 중대에 한국 경찰대를 배속시켜 통역과 오열(五列) 색출, 탄약집적소 보호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용감히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에 편입된 한국경찰 133명은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후송을 거부하고 전투를 계속하여 미군의 신뢰를 얻었다.[110]

(6) 노무단(勞務團) 운용과 보급수송 체제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노무자들은 전선 전후방에서 작전을 지원하였다. 국군은 각 부대별로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주민들 중에서 노무자를 모집하였다. 8월초부터 이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어 각 연대 단위로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군 1개 대대에는 50~60명의 노무자들이 있었다.[111]

노무자들은 미군부대에도 편성되어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항만 하역업무와 전방으로의 보급 추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중 한국경찰을 통해 차출된 민간인 3개 수송중대가 편성되어 미군의 보급수송을 지원하였다. 미군에 배속된 노무자들은 비행기 급유, 비행장·도로·철도 건설과 유지 등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노무단은 8월초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가 각종 노무와 근무를 지원할 목적하에 노무자를 미군 부대에 지원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화되었다.[112]



탄약과 식량 등 보급품을 운반하고 있는 노무부대 대원들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된 후 노무자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다. 8월중 미 부산 군수사령부도 한국인 노무자의 역할과 규모가 증대되자 사령부내에 현지인 노무과(勞務課)를 신설하여 관리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 동안 미군 사단에는 평균 500여명의 노무자가 배치되었고, 이들은 보급소에서 전방부대까지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산악지대로 지게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후송하였다.[113]

2. 유엔군의 전력증강과 지휘체계 개선

1) 미국 정부의 전시 조치와 증원

미국은 한국전에 필요한 군비증강을 서두르면서 증원부대와 군수물자를 한국전선에 투입하였다. 8월초까지 트루먼 대통령은 주방위군(National Guard) 4개 사단을 현역군에 편입하고 250만 명까지 동원할 준비를 갖추었다. 국방비도 연간 13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114] 산업동원계획도 수립하여 3개 고무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하고, 민간 선박회사 및 항공사와 인원 및 물자 수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증원은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7월 말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하였고, 미국 항공모함 복서(Boxer)호가 145대의 F-51(무스탕기)을 만재하고 일본에 도착하였다. 8월초 미 극동공군은 F-80 전투기 625대와 F-51전투기 264대를 보유하여 일일 출격 항공기 수가 525대로 증강되었다. 미 극동공군은 주야로 지상 근접지원과 근접차단, 전략폭격, 정찰 및 수송 등의 지상 작전을 지원하였다.[115]

미군의 증원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전차부대였다. 최초로 미 제89전차대대(M4A3 50대)가 8월 3일 한국에 도착하여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었다. 또한 미국 본토로부터 미 제2사단의 예하연대가 한국 전선에 도착하였다. 7월 31일 미 제9연대, 8월 5일 미 제23연대, 8월 19일 미 제38연대가 도착하였다. 8월 29일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제27여단이 도착하여 한국 전선에 투입되었다.

전투지원부대도 대폭 증강되어 전력 증강에 보탬이 되었다. 8월 7일 미국에서 중형전차 3개 대대가 급파되었다. 미 제5전차대대는 미 제24사단, 미 제70전차대대는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었다. 미 제73전차대대는 중대 단위로 나누어 상황이 급박한 부대를 지원하였다. 8월 16일 미 제72전차대대(전차 80대)의 도착으로 한국 전선의 미군 전차대대는 6개 대대에 달하였다. 한국에 투입된 미군 전차대대는 M46(패튼전차)을 보유한 1개 대대를 제외하고, M26(퍼싱전차)과 M3A3

(셔먼전차)로 편성되었다. 미군 전차대대는 69대의 전차를 보유하였다. 9월 총반격작전 때까지 한국 전선에 투입된 전차는 500여대로 전차면에서 북한군 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116] 이를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1950년 8월 하순경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그동안의 전투손실과 새로운 부대의 증원으로 부대재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동부지역에서의 국군의 철수와 재배치로 인해 전투지경선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표 2-9> 낙동강 방어작전기 미군 증원부대 현황[117]

부 대	월일	목 적	이동지역	거리 (km)	이동 수단	소요시간
제25사단(-)	8. 1	마산방어	상주→마산	240	도보/철도	36시간
제5연대전투단	8. 1	마산방어	부산→마산	120	철도	1~2일
제1해병여단	8. 2	8군 예비	마산→창원	120	철도	1~2일
제9연대전투단	8. 2	8군 예비	부산→경산	175	철도	1일
제2사단(-)	8. 2	8군 예비	부산→경산	175	철도	1일
제9연대 1대대	8. 6	영산지구증원	경산→영산	85	차량	12시간
제9연대(-1)	8. 7	영산지구증원	경산→영산	85	차량	12시간
제27연대 1대대	8.11	남지교 점령	마산→남지교	30	차량	8시간
제27연대(-1)	8.13	영산지구섬멸	마산→남지	30	차량	8시간
제23연대 1대대	8.13	영산지구섬멸	부산→영산	90	차량	8시간
제1해병여단	8.14	영산지구증원	창원→영산	30	차량	8시간
제27연대	8.15	8군 예비	영산→대구	95	차량	1일
제23연대(-)	8.19	다부동지구증원	밀양→다부동	85	차량	1일
제1해병여단	8.20	8군 예비	돌출부→창원	30	차량	1일
제24사단(-)	8.25	8군 예비	영산→경산	85	차량	1일
제24사단21연대	8.26	포항지구증원	경산→경주	80	차량	1일
제23연대	8.28	제2사단 복귀	다부동→창녕	75	차량	1일
제27연대	8.30	제25사단 복귀	다부동→마산	150	차량/철도	1일

또한 미 제2사단 예하의 제38연대가 8월 19일 도착하자, 낙동강 돌출부 지역을 미 제2사단이 맡도록 하였다. 미 제2사단은 8월 24일 미 제24사단과 방어지역을 인수 받았다. 미 제24사단은 미 제8군 예비가 되어 경산에서 재편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 제24사단 예하의 제19연대와 미 제11포병대대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118]

이 때 미 제24사단은 8월 26일 미 제34연대를 해체하여 병력과 장비를 미 제19연대와 미 제21연대에 각각 편입하고, 미 제34연대를 지원하던 미 제63포병대대는 해체하여 미 제11·제13·제52포병대대에 편입시켰다.[119] 동시에 미 제5연대전투단을 미 제24사단의 예하연대로 편입하였다. 미 제8군은 이때부터 1개 사단을 예비로 확보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부대 운용을 하게 되었다.[120]

미 제25사단도 2개 대대로 편성된 미 제27연대와 미 제35연대를 3개 대대로 증편하였다. 미 제25사단은 미 제29연대에서 편입된 2개 대대를 2개 연대의 3번째 대대로 편입함으로써 3각 편제를 이루었다. 미 제1기병사단도 2개 대대로 편성된 각 연대를 8월 26일 미 본토로부터 3번째 대대를 증원 받음으로써 각 연대는 3개 대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전선에 투입된 미군 4개 사단은 8월 말에 이르러 사단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121]

한편 병력증강과 함께 군수지원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병사 1인당 1톤 기준으로 보급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고, 미 제8군은 예비보급품을 최소 45일분에서 120일분으로 증가하도록 하였다.[122] 7월 한 달 동안 부산항에는 선박 230척이 입항하고 214척이 출항하여 총 309,314톤의 보급품과 장비가 양륙되었다.[123]

2) 유엔회원국의 파병 제의와 유엔군의 전력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회원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유엔회원국들은 군대를 파병하거나 파병제의를 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유엔회원국들의 파병 상황을 육·해·공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동강 전선에 배치된 영국군 제27여단

첫째, 유엔회원국의 육군 파병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홍콩에서 보병 2개 대대를 즉시 한국으로 파병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들 부대는 정규군으로 영국 제27보병여단 본부, 미들섹스(Middle Sex)연대 제1대대, 아길(Arygyll)·서더랜드 하이랜더즈(Sutherland High Landers) 연대의 1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이들 대대는 미국 독립전쟁 때 창설된 부대로서 코드(Basil A. Coad) 준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들 영국군은 8월 25일 홍콩을 출발하여 8월 29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미 제8군의 명령에 의해 경산지역에 배치되었다.[124]

태국은 지원병 8,900명을 선발하여 파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터키는 4,500명의 여단병력의 훈련을 완료하고 한국으로의 수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1개 보병여단 5천명을 파병하기 위해 훈련·편성 중에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222명을 편성 중에 있었고, 뉴질랜드는 1,500명을 편성하고 있었다. 필리핀은 5,000~6,000명의 1개 전투단 파병을 정식으로 통고한 다음 편성 중에 있었다. 니카라구아는 5,000명을 편성 중에 있었다. 에티오피아는 1개

대대의 파병을 발표한 상태였다. 남아프리카 나라들은 유엔과 파병을 협의 중에 있었다.

둘째, 유엔회원국의 해군부대 파병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영국 극동함대는 한국 해역에서 이미 작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캐나다 구축함 3척, 오스트레일리아 구축함 3척, 뉴질랜드 구축함 1척, 프랑스 구축함 1척, 네덜란드 구축함 1척이 한국으로 항해 중에 있었다.

셋째, 유엔회원국의 공군부대 파병 상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1개 전투비행단이 작전활동 중에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1개 전투비행중대가 한국에 도착하여 작전 중에 있었다. 캐나다는 C-54 수송기 1개 중대를 한국에 파견하였고, 벨기에는 공군수송기 파병을 유엔에 신청해 놓고 있었다.

1950년 9월 1일 유엔군 병력은 국군 91,696명을 포함하여 총 180,000명에 달하였다. 유엔군 병력은 미군은 제8군 본부병력 16,815명을 포함하여 78,762명이었고, 영국 제27보병여단이 1,578명, 미 제5공군이 3,603명,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이 330명이었다. 이외에도 미 극동공군 33,651명과 미 극동해군 36,389명이 있었다.[125]

3) 유엔군의 군수보급과 수송체계 개선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유엔군사령부는 일본조병창에서 병기물자를 대량생산하여 3.5인치 로켓포 900여문을 보급하였다.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까지 한국전선에 투입된 무기 및 장비는 소화기 489,000정, 기관총 및 로켓포 34,316정, 야포 1,418문, 전투차량 743대, 일반 차량 15,000대였다.[126] 작전 기간 중 박격포와 야포의 1일 탄약소모량은 미 육군 교범상의 제한 양을 훨씬 초과하였다. 재고가 부족한 야전용 식량은 미국 본토에서 긴급 수송하여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투식량 2만여 톤이 8월 달에 부산에 도착하였다.[127]

미 극동군사령부는 보급품의 대량수송을 위해 긴급 물자는 비행기로 수송하고, 기타 품목은 '레드볼 특급(Red Ball Express)'이라 불리는 수송 작전을 이용하였다. 레드볼 특급작전은 요코하마에서 사세보까지는 특급열차로 보급품을 운반

하고, 그 다음 부산까지는 배로 운반하는 개념이었다. 소요되는 시간은 육상수송 30시간, 해상 수송 23시간으로 총 53시간이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레드볼 특급 작전을 통해 매일 300톤의 보급품을 한국전선으로 수송하였다. 9월 14일까지 약 86만 톤의 보급품이 부산항에 양륙되었다.[128]

한편 한국 정부는 국내조달품목의 양이 극히 제한된 관계로 국군 소요량의 90%를 미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 9월까지 한국은 20여만 명에 해당하는 보급품을 지원받고 있었다.[129]

3.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수행개념

1)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전쟁목표

6·25전쟁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목표는 한반도 통일이었고, 그 방식은 힘에 의한 북진통일이었다. 그의 이러한 전쟁목표는 전쟁수행방식만 달리했을 뿐 전쟁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미군 참전이후에는 전쟁 국면과 관계없이 북진통일을 위해 매진하였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참전을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국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북진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참전과 유엔의 한국지원을 획득한 다음에는 총력전으로 전쟁을 지도했다. 6·25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해 이승만 대통령은 총력전 전개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는 카투사 제도를 설치하여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였고, 노무단, 청년단, 학도의용군의 애국심에 우러나온 자발적인 지원을 적극 장려하였다.

한편 미국의 6·25전쟁 목표는 전쟁이전 상태로의 회복이었다. 이는 트루먼 대통령이 6월 29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나는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 나는 우리[미국]의 작전이 그곳[한국]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130]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전쟁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월 25일과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에 따라 해·공군을 먼저 파병했고, 6월 30일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상군 파병을 결정했다.[131]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참전결정과정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면서 한국에서의 전쟁은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혔다.[132]

이러한 점에서 낙동강 방어작전간 한미 양국의 전쟁목표는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 나아가 북진통일까지 바라보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의 전쟁지도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수행하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의 의지는 누구보다 더 강하였다. 이것은 전쟁 기간 또는 전쟁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

2)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침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될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작전지도는 명확하였다. 1950년 7월 26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북한군이 대구에 군사적 압박을 증가시키자, 통신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미 제8군사령부의 부산 이전을 미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하였다. 워커 중장은 단지 사령부만 이전하는 것이지 전투부대를 부산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미 제8군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미 제8군이 더 이상 한국에서 지탱을 못하고 철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령부의 이전을 반대하였다.[133]

알몬드 소장은 이러한 내용을 미 극동군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보고하고, 사령관이 직접 한국 전선을 시찰해 줄 것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맥아더 원수는 다음날인 7월 27일 참모장 알몬드 소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대동하고 10:00시에 대구를 방문하였다.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사령부에서

알몬드 장군만이 배석한 자리에서 워커 중장에게 "미 제8군이 현 진지를 고수해야 된다"면서, "더 이상의 후퇴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서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 참모들에게 "한국에서 철수란 있을 수 없으며, 한국 전선에서 제2의 덩커르크(Dunkirk)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134]

이 때 맥아더 원수는 1950년 6월말 한강방어선 시찰을 하고 나서 구상했던 인천상륙작전을 7월 23일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맥아더 원수는 상륙부대를 비롯하여 상륙작전일도 9월 중순경에 실시할 것을 미 육군부에 보고한 상태였다. 그러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 사수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맥아더 입장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인천상륙작전도 가능한 것이었다.

3)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개념과 작전지도

(1) 워커 중장의 작전개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제1차 세계대전시 기관총 중대장으로서 발군의 전공을 세워 특별진급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패튼(George Patton) 장군의 휘하에서 미 제20군단장과 기갑군단장을 역임하여 공격작전의 권위자라는 말을 들은 명장이었다. 그는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과 특이한 용모로 '불독(bulldog)'이라는 별명이 붙었다.[135]

워커 중장은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임하면서 '역습만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미 제8군이 낙동강선으로 철수할 때에도 "각 지휘관은 항상 적과 접촉하여 적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의 전진을 저지시켜야 한다. 적의 추격을 격파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 적극적인 작전을 펴라 … 역습이야말로 방어를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였다.[136]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중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임무는 부산교두보를 확보하며 현재 극비리에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에 호응하여 즉시 공세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

지침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그는 "우리는 항상 공세이전에 필요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세에 필요한 능력과 전기의 파악이다. 그러므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적에게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적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할 것이며, 총공격으로 전환할 아군의 준비 또한 빨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137]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준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세행동으로서 적을 교란하고, 공세로 전환하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방어기간에도 공세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교두보내의 국군과 유엔군은 증원부대와 보급수송을 위한 병참선을 확보하고, 우세한 포병과 항공기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적극적인 역습으로서 전세를 전환하여 장차 반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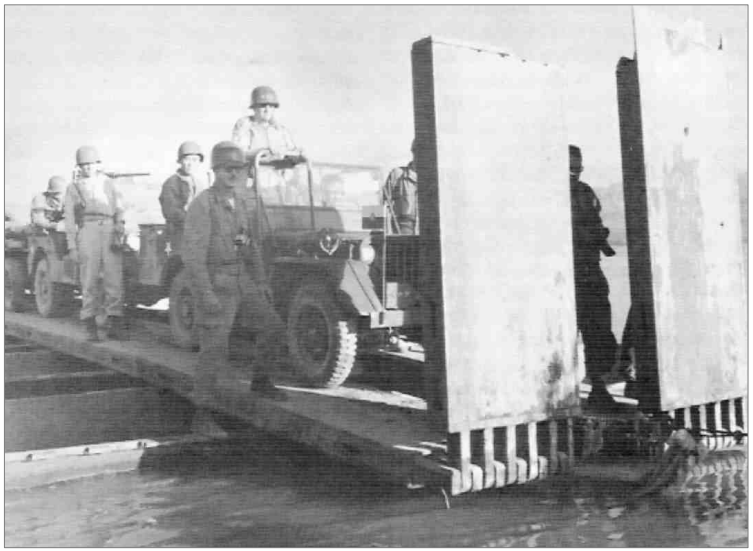
(2) 워커 중장의 작전지도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느 곳에 예비대를 투입시킬 것인가, 또는 새로운 예비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군사령부의 일상 업무는 거의 참모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전선을 찾아 뛰어다녔다. 그는 저녁때가 되어 군사령부로 돌아오면 부재중에 수집 정리한 정보와 참모장 랜드럼(Eugene M. Landrum) 대령이 전화상으로 파악한 사항을 기초로 다음날의 순시계획을 수립하고,[138] 전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전선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현장의 지휘관을 만나 본 다음, 정황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는 예비대 투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역습을 위해서는 항시 어려운 조건, 즉 정보수집, 정확한 상황판단, 역습 부대의 기동, 적의 돌파저지, 과감한 공격, 적절한 보급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미 제8군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최전선의 미군 부대는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전투 경험으로 숙달되어 있었고, 정보는 공중정찰의 발달, 포로, 특히 투항자의 증가, 문서노획, 주민의 협조, 여기에 전방부대의 정보수집 능력의 향상으로 적절한 정보판단을 할 수 있었다. 또 기동은 철도와 육상도로의 병용으로 용이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미 제8군이 가장 어려운 것은 역습을 반복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비대의 편성 문제였다. 미 제8군 참모장 랜드럼(Eugene M. Landrum) 대령은 "나의 최대 임무는 예비대를 차출해 내는 일이었다. 나는 190㎞의 전선에 전개하고 있는 부대현황을 파악하고, 적의 기도를 예측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전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여 그곳으로부터 부대를 차출하는 일에 몰두하였다"고 회고하였다.[139] 워커 중장도 매일 아침 인사가 "랜드럼, 오늘은 어느 정도의 예비대를 확보해 두었나?" 하고 묻는 것이었다고 한다.[140]



낙동강을 도하하고 있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1950년 9월)

특히, 워커 중장은 상륙작전에 호응하여 반드시 총반격작전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였다. 그가 예하 사단장에게 "적이 대구시내로 쳐들어온다면 나는 거리에서 장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니 귀관도 나처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도록 하게. 나는 귀관을 전선 후방에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네. 관속에 들어가 있다면 별문제이지만" 라고 하여 그의 대구전선 사수 의지를 읽을 수 있다.[141]

워커 중장은 이러한 전투의지와 적극적인 지휘방식에 따라 킨(Kean) 작전을 지휘하였고, 낙동강 돌출부 전투, 왜관-다부동 전투, 안강-기계전투, 영덕-포항 전투 등을 지휘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돌파한 곳에는 반드시 그 용감한 모습을 드러내 역습병력을 집중시키고 공·지합동작전의 통합된 화력지원하에 작전을 실시하였다. 낙동강 방어작전은 내선에 있는 유엔군이 북한군의 돌파 정면으로 병력을 기동시켜 역습을 하는 전투의 반복으로 이루어졌다.[142]

또한 그는 대구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적의 공세로부터 부산교두보를 지켜내고 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4) 유엔군의 전선 조정과 지휘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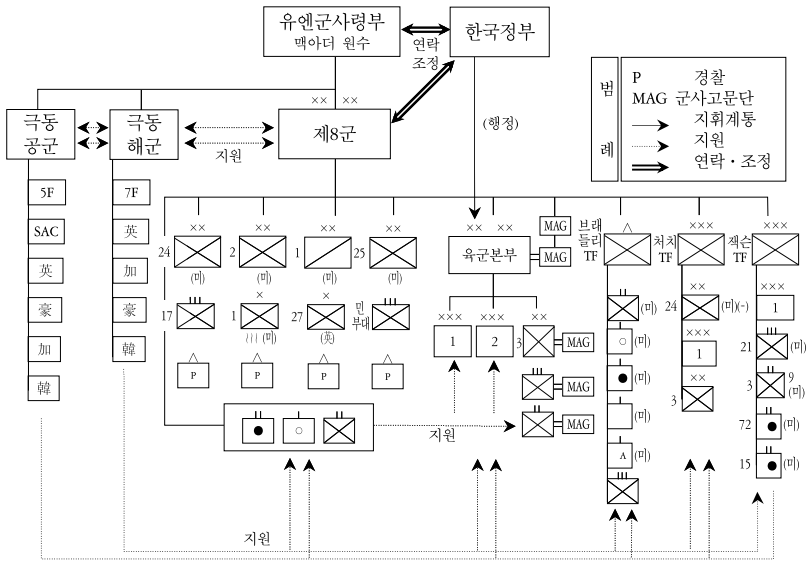
한국 전선의 지상군 작전수행을 위한 유엔군에 대한 지휘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의 직접지휘를 받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1950년 7월 17일 미 제8군 일반명령 제3호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지역에서 직접 작전에 참가하는 부대의 지휘권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한국군도 미 제8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143]

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있었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는 육군본부를 통해 지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워커 중장이 그의 명령을 육군총참모장인 정일권 소장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제시하면, 정일권 총참모장은 미 제8군의 작전계획과 명령에 부합되게 예하부대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144] 이러한 지휘체제는 낙동강선 방어작전 뿐만 아니라 전쟁 내내 유지되었다.

한편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군의 전력증강에 따라 1950년 8월 하순 전선조정이 이루어졌다. 미 제8군은 지금까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상주-다부동-대구축선을 미군 책임지역으로 변경하여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그 결과 제1사단이 담당했던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제1사단은 다부동 동쪽 지역인 팔공산 북쪽의 새로운 방어지역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전선조정에 따라 신녕 정면의 제6사단의 방어정면이 축소·조정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그동안 병력이 증강되어 복잡해지면서 일부 지휘체제를 개편하였다. 맥아더 원수는 8월 25일 주일(駐日)군수사령부를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 편제부대로 설치함과 동시에 주일 미군부대 및 주한 유엔군의 군수지원을 담당케 함으로써 미 제8군이 일본에서 수행해야 했던 무거운 후방지원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맥아더 사령부는 8월 25일 주일군수사령부(JLCOM)를 창설하였다.

<표 2-10> 낙동강 방어작전기 유엔군 지휘계통



이에 따라 요코하마의 미 제8군 후방지휘소는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일본에서의 기지와 철로관련 임무에서 해제되고, 주한유엔군에 대한 모든 군수지원 임무에만 전념하게 되었다.[145] 이제까지 부산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 및 피난민과 전쟁포로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던 미 부산군수사령부는 9월 18일 미 제2군수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아울러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미 제3군수사령부가 일본에서 창설되었다.[146]

또한 8월 27일 미 극동공군과 해군을 유엔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하여 지휘체제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총반격작전을 고려하여 9월에 미 제8군 예하에 미 제1·제9·제10군단 3개 군단을 편성하였다.[147]

특히 9월 초에는 한국 전선에서 전공이 현저한 사람들을 미 제8군사령부 참모로 보직하였고, 미 육군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 유럽 전선에서 브래들리 원수의 집단군사령부의 참모장을 역임하였던 앨런(Leven C. Allen) 육군 소장을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참모장에 임명하였다. 앨런 소장은 9월 4일 대구에 부임함에 따라 지금까지 미 제8군사령부 참모장이었던 랜드럼 대령은 참모부장(參謀副長) 직책을 맡아 워커 사령관을 계속 보좌하게 되었다.[148]

4.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편성과 운용

1) 8월 공세시 전투편성과 부대 운용

낙동강 방어선 형성시 동부의 국군 제1군단은 제8사단이 의성일대, 수도사단이 길안 일대에서 방어편성을 하였고, 동해안에서는 제3사단이 영덕을 놓고 북한군 제5사단과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국군은 북한군의 주력이 안동-의성-영천 접근로와 영덕-포항 접근로에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곳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의 북한군 제1·제13·제15사단의 3개 사단을 대구정면으로 투입하고, 북한군 제8사단을 안동-의성-영천으로, 북한군 제12사

단을 청송-안강-경주로, 그리고 북한군 제5사단을 계속 포항방면으로 투입시켜 대구의 동부를 위협하며 부산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낙동강 돌출부 남쪽 남지에서 마산까지 37㎞의 낙동강 방어선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마산으로 긴급 투입된 미 제25사단이 담당하였다. 대구 서측방 현풍에서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 남지에 이르는 하천거리 60㎞, 직선거리 40㎞ 방어정면은 미 제24사단이 담당하였다. 왜관(303고지)에서 현풍 북쪽에 이르는 35㎞의 방어지역은 미 제1기병사단이, 왜관 북방 328고지에서 낙정리까지 42㎞는 국군 제1사단이 담당하였다.[149]

국군 제6사단이 낙정리에서 상아동까지 26㎞ 정면을 담당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국군 제8사단이 상아동에서 구미동까지 20㎞ 정면을, 수도사단이 구미동에서 청송까지 24㎞ 정면에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육본직할인 제3사단은 영덕 정면의 16㎞를 담당하였다. 낙동강 방어선 240㎞에 대한 각 사단의 방어책임 지역을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한편 작전간 육군본부는 북한군 제12사단에 의해 안강-기계 지역이 점령되고 포항이 실함될 위기에 직면하자 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임시수도인 대구방어를 위해 대구방위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표 2-11> 한미연합군 사단의 방어 책임지역

구분	계	미 군			국 군				
		25사단	24사단	1기병사단	1사단	6사단	8사단	수도사단	3사단
책임지역	마산-영덕	남지-진동리	현풍-남지	왜관-현풍	왜관-낙정리	낙정리-상아동	상아동-구미동	구미동-청송	영덕 정면
방어정면	240㎞	37㎞	40㎞	35㎞	42㎞	26㎞	20㎞	24㎞	16㎞

미 제24사단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경남 거창 산제리 부근에서 지연전을 마감하고 낙동강을 도하하여 미 제34연대가 영산, 미 제21연대가 창녕, 배속된 국군 제17연대가 현풍으로 이동하여 강변고지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단의 전투력은 40%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정면을 담당하여 부대간격이 4~5㎞나 되었다.

미 제25사단은 방어책임 지역을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인수받고 8월 4일까지 각 예하연대를 배치하였다. 미 제25사단은 미 제35연대를 중암리, 미 제24연대를 함안 부근, 미 제27연대를 진동리에 배치하고 이미 그곳에서 작전 중이던 미 제27연대,[150] 민부대(閔部隊), 김성은 부대를 작전 통제하여 북한군 제6사단과 대치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중암리 축선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던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이날 원대 복귀하였다. 또한 미 제25사단은 8월 2일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동한 미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 받고, 8월 3일에는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1해병임시여단도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곳의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대구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군 예비를 투입한 것은 이곳의 전황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육군본부는 미 제25사단이 마산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군이 담당할 방어선이 너무 넓고 연결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8월 11일 국군의 전선을 축소시켜 제1군단과 제2군단에 「육본작명 제119호」를 하달하였다. 국군은 이후부터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군위-보현산을 잇는 수정된 방어선상으로 이동하여 적을 계속 방어하게 되었다.[151]

한편 작전 기간 중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국군 제1군단장은 김홍일 소장에서 김백일 준장으로 교체되었으나, 제2군단장은 유재흥 준장이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사단장 가운데는 수도사단장이 김석원 준장에서 백인엽 대령, 그리고 9월 1일에는 송요찬 대령으로 교체되었다.[152] 백인엽 대령은 인천상륙작전 부대로 차출된 제17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사단장에서 연대장이 되어 인천상륙 및 서울탈환작전을 지휘하였다.[153] 송요찬 대령이 헌병사령관에서 수도사단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헌병사령관에는 장창국 대령이

임명되었다.[154] 제3사단장은 이준식 준장에서 김석원 준장으로 교체되었다가 9월 1일 이종찬 대령이 취임하였다. 제8사단장은 이성가 대령에서 최덕신 대령으로 교체되었다가 8월 23일 이성가 대령이 다시 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155]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이 개전 이후 사단장 직책을 계속 유지하며 발군의 전투지휘능력을 발휘하였다.

<표 2-12> 낙동강 작전기 국군 전투편성 및 지휘관 현황

직 책		계급	성명	예속 및 배속 부대
육군총참모장		소장	정일권	제1군단 · 제2군단 · 육본직할부대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홍일	수도사단 · 제8사단
		준장	김백일	수도사단 · 제8사단
	수도사단장	준장	김석원	제1연대 · 제18연대 · 기갑연대
		대령	백인엽	제1연대 · 제17연대 · 제18연대 · 기갑연대
		대령	송요찬	제1연대 · 제17연대 · 제18연대 · 기갑연대
	제8사단장	대령	이성가	제10연대 · 제16연대 · 제21연대 · 포병대대
		대령	최덕신	
		준장 (9.1진급)	이성가	
제2군단	군단장	준장	유재흥	제1사단 · 제6사단
	제1사단장	준장	백선엽	제11연대 · 제12연대 · 제15연대 · 포병대대 * 증원/배속부대: 미 제23연대 및 미 제27연대, 국군 제10연대
	제6단장	준장	김종오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포병대대
육본직할	제3사단장	준장	이준식	제22연대 · 제23연대 · 기갑연대
		준장	김석원	제22연대 · 제23연대 · 제26연대
		대령	이종찬	제22연대 · 제23연대 · 기갑연대
특수임무부대	포항지구 전투사령부	대령	이성가	제17연대 · 제26연대 · 민부대 · 해병육전대
	대구방위 사령부	대령	이한림	경찰병력, 청년방위대, 후방부대 병력
		대령	송요찬	경찰병력, 청년방위대, 후방부대 병력
		경무관	조준영	경찰병력
		대령	민기식	경찰병력, 군 후방병력

또한 8월 중순 재창설된 제7사단장에는 신상철 대령, 새로 창설된 제11사단장에는 최덕신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7월 말 임시수도인 대구를 방어하기 위해 창설된 대구방위사령부 초대 사령관에는 이한림 대령이 임명되었다.[156] 포항지구전투사령관에는 제8사단장에서 물러난 이성가 대령이 보직되었다. <표 2-12>는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국군의 전투편성과 지휘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 9월 공세시 전투편성과 부대 운용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8월 30일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왜관~741고지까지, 국군 제1사단은 741고지~팔공산 북방 중앙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미 제5기병연대를 왜관(倭館)에서 동남쪽에, 미 기병연대를 유학산 일대에, 미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 북쪽 도로변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의 우인접에는 국군 제1사단이 팔공산(八公山) 북방정면에 배치하였다.

낙동강 돌출부 창녕-영산에서는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2공격집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미 제2사단은 8월 하순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미 제9연대를 영산정면의 부곡리에서 남지까지, 미 제23연대를 창녕정면, 그리고 미 제38연대를 현풍정면의 강안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편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마산 서부일대에서 방어하고 있던 미 제25사단은 남지교(南旨橋)에서부터 십이당산(十二堂山), 진주-마산 간 철도를 따라 남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쳐 진동리 해안에 이르는 48㎞의 넓은 방어선을 담당하였다. 킨 소장은 남강변과 검안리 일대에 미 제35연대를, 전투산과 필봉 등 함안 일대의 산악지대에 미 제24연대를, 서북산 남쪽에서 진동리 해안까지에 미 제5연대전투단(RCT)을 배치하였다. 미 제27연대는 예비임무를 맡아 마산에 위치하였다. <표 2-13>은 미군부대의 전투편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3> 낙동강 방어작전기 미군 전투편성 및 지휘관 현황

제대별 지휘관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부대
제8군사령관	중장	워커 (Walton H. Walker)	한국군·미군·유엔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주한미군사고문단
제1기병사단장	소장	게이 (Hobart R. Gay)	제5기병연대·제7기병연대·제8기병연대·제61포병대대·제77포병대대·제99포병대대·제82포병대대
제2사단장	소장	카이저 (Laurence B. Keiser)	제9연대·제23연대·제38연대·제15포병대대·제37포병대대·제38포병대대
제24사단장	소장	딘 (William F. Dean)	제19연대·제21연대·제34연대·제13포병대대·제52포병대대
	소장	처치(1950.7.21부) (John H. Church)	
제25사단장	소장	킨 (William B. Kean)	제24연대·제27연대·제35연대·제8포병대대·제64포병대대·제90포병대대 * 배속 부대 제5연대전투단(1950.8.3~9.9) 제29연대 1·3대대(50.8.4~9.4)

미 제8군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 및 동부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영일비행장 포함) 및 경주가 북한군의 위협에 들어가자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이 때 편성된 미 제8군 예하의 특수임무부대로는 브래들리(Bradley) 특수임무부대,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 처치(Church) 특수임무부대, 데이비드슨(Davidson) 특수임무부대이다. 이들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8군의 예비였던 미 제24사단의 예하부대로 편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국군 제1사단은 9월 6일 오후까지 팔공산 전방으로 이동한 후, 제2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영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써 예하 제11연대(-)를 제8사단에 증원하였다.[157]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서로는 미 제1기병사단과의 간격을 봉쇄하고, 동으로는 제6사단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서쪽의 남산동에 제15연대, 동쪽의 대율동에 제12연대를, 그리고 사단의 서쪽 가산성 남쪽에 제11연대 제1대대를 배치하였다.[158]

<표 2-14> 낙동강 방어작전기 미군 특수임무부대 현황[159]

부대명칭 (존속기간)	지휘관		임 무	예속 및 배속부대
	계급	성 명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 (8.10~8.20)	준장	브래들리 (Joseph S. Bradley)	영일비행장 방호 임무	미 제2사단 제9연대 제3대대, 중박격포 1개 소대, 제15포병대대 C포대, M16자주고사기관총, 공병소대
잭슨 특수임무부대 (8.27~9.7)	소장	콜터 (John B. Coulter)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 남하 저지/포항북방선 회복	미 제24사단 제21연대, 미 제9연대 제3대대, 제73전차중대(-1), 국군 제1군단
처치 특수임무부대 (9.7~9.15)	소장	처치 (John H. Church)	경주 북방의 북한군 제15사단 남하 저지	잭슨특수임무부대와 동일
데이비드슨 특수임무부대 (9.9~9.15)	준장	데이비드슨 (Garrison H. Davidson)	영일비행장 방호 임무	미 제24사단 제19연대 제1·2대대, 제13포병대대, 제15포병대대 C포대, 제3공병대 A중대, 제9연대 전차중대

국군 제6사단은 신녕 북쪽 산악지대인 산성-갑령-화산선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2연대를 군위-신령축선의 운산동 일대, 제19연대를 의성-신령 접근로의 조림산 남쪽, 제7연대 1개 대대와 배속부대인 제15연대를 화산에 각각 배치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북한군에 대비하였다. 이때 제16포병대대 3개 포대(105밀리 18문)는 각 보병연대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었다.[160]

영천북방의 국군 제8사단은 제21연대를 서쪽의 노고재-보현산에, 제16연대를 동쪽의 입암(立岩) 남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이미 8월말 경부터 전초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제8사단 제10연대는 제3사단에 배속되어 포항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기계 남쪽고지 일대에 제18연대와 제17연대(배속)·제1연대순으로 배치하여 진지를 편성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3사단

이 포항 북쪽 학천동-천마산 일대에 제8사단 제10연대(배속)·제22연대·제23연대순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포항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유엔 공군기와 함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무렵 이 방면의 상황이 급변하고 불안하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8군부사령관인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작전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콜터 소장은 이곳에 지원된 부대로 잭슨특수임무부대(Task Force Jackson)를 편성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였다.[161]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9월 1일부로 제1군단장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준장을, 수도사단장에 헌병사령관 송요찬(宋堯讚) 대령을, 그리고 제3사단장에는 이종찬(李鍾贊) 대령을 임명하였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낙동강 방어작전의 성격과 의의

낙동강 방어작전은 6·25전쟁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한 작전이었다. 당시 낙동강을 연하는 선에서 최후 방어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었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선정할 때 지형, 아군 증원 상황, 유엔 해·공군의 지원, 아군 및 적 능력, 부산항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낙동강 방어선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 방어선은 천연장애물을 최대로 이용한 방어선이었다. 방어선 북측에 자리잡고 있는 횡격실의 고지군은 아군의 방어를 유리하게 해줄 지형이었다. 물론 방어병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간격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게릴라부대의 후방교란작전의 수행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으나, 북부지역의 지형은 방어작전 측면에서 아군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루고 있었다. 낙동강 본류가 흐르는 서쪽의 방어선은 양측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자락으로 이어지는 고지군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해야 하는 북한군은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해야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낙동강 방어선은 자연적인 조건을 활용한 건실한 방어선이었다.

둘째, 낙동강 방어선은 조직적으로 연결된 전선을 형성해 주었다. 북한군의 기습침공이 있은 후에 아군이 방어를 실시하였던 임진강선, 한강선, 평택-안성-삼척선, 차령산맥선, 금강-소백산맥의 방어선은 '희망의 방어선(wishful line)'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방어선은 병력 배치상 연결된 방어선도 아니었으며 화력으로 엄호된 방어선도 아니었다. 다만, 군사작전상 방어선이 되기를 희망했던 선이었다.

여기에 비해 낙동강 방어선은 비록 광정면이기는 하나, 전투정면과 종심이 있고 실질적인 전투지경선이 부여되었던 방어선으로서 한국전선에서 최초로 전 부대가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셋째, 낙동강 방어선은 전술적으로 최초로 의미가 있는 방어선이었다. 지연전을 통해 형성된 방어선은 좌우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토막방어선이었다. 부대간의 간격을 통해 적이 침투해 퇴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아군은 항상 불안을 안고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은 전방에는 적이 존재하였고, 인접 좌측과 우측에는 아군이 존재해 서로 의지하며 전투를 할 수 있었으며, 후방으로부터 예비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넷째, 낙동강 방어선은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구축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탱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는 제주도로 이전하여 제2의 대만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될 상황이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구상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될 때에야 성립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사작전 및 전략적 측면에서 낙동강 방어선은 반드시 방어해야 될 필수조건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전선사수를 명령하고, 맥아더 원수가 인천상륙작전에 사용할 병력을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하여 전선을 안정시키려 한 것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또한 낙동강 방어작전은 국가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전이었다. 이러한 작전의 성격과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낙동강 방어작전은 전쟁 발발 이후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전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 특히 국군은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저지하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였다. 개전 후 국군은 북한군 기습공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로 적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여 전쟁발발 45일이 지난 8월 1일에는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였다. 따라서 이 작전은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격전의 연속 속에서 전개된 마지막 결전이었다.

둘째, 낙동강 방어작전을 통해 한미연합군은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부산 점령을 목표로 한 그들의 8월과 9월 공세를 낙동강 방어선에서 격퇴하게 되었다. 즉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마산·대구·경주 축선을 고수하여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부산교두보를 간신히 확보한 선에서 북한군의 전쟁목표를 분쇄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낙동강 방어작전은 북한군의 공세종말점을 도달하게 한 작전이었다. 북한군은 그들의 병참선이 신장되고 게다가 제공권이 상실됨으로써 군수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전선에서 공세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군 후방지역에 대한 유엔공군의 차단작전 및 전략폭격은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마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무리한 전투를 지속함으로써 전투력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북한군은 개전 이후 계속된 80여일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너무나 많은 전투손실을 입어 전력이 극도로 약화되었고, 남한에서 강제징집한 보충병은 전의가 결여되어 실질적인 전력회복의 방편이 되지 못하였다.

넷째, 낙동강 방어작전은 유엔군이 제공권을 최대로 활용한 공세적 방어작전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돌파지역에 대한 과감한 역습, 예비대의 사전 확보, 적의 제파식 공격 차단, 대규모 융단 폭격, 후방차단작전을 통해 방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공세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낙동강 방어작전은 한국의 총력전 체제를 구축시킨 작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국민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반공과 국가수호정신으로 뭉친 전 국민은 북한군의 점령지역에서 탈출하여 한국 정부가 있는 경상도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정부는 이 지역에서 전시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온 국민이 동참하는 총력전 체제를 구축해 건국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지원, 특히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대한 유엔군의 참전은 국군은 물론 국민으로 하여금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전의를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낙동강 방어작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낙동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활용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세이전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였다.

2. 이승만 정부의 전쟁지도

낙동강 방어작전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전쟁 초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통수권자로서 또는 전시 전쟁지도본부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목표를 '대한민국의 국권 수호와 한반도 통일'에 두고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 이를 위해 그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여 낙동강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는 대통령이 통수권자 또는 국가원수로서 전선의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전선의 부대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국가수반으로서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첫째, 이승만 정부는 미국 및 유엔외교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주한미국대사(무초) 및 주미한국대사(장면)를 통해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본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엔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둘째, 이승만 정부는 전쟁지도본부 역할을 할 국방부장관·내무부장관·상공부장관·교통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시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시에 필요한 정부 조치를 취해 나갔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비상시향토방위령,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령, 징발보상령, 육군보충장교령 등 주요 법령을 공포해 전시에 필요한 치안·피난민 수용·징발·병력 보충 등 긴급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셋째, 이승만 정부는 미군에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한국군을 편입시키는 카투사 제도를 도입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연전을 통해 부족한 국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경남 및 제주도 지역에 신병훈련소를 설치하여 일선 부대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개전 초기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혼란을 겪었으나,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러서는 통수권자로서 또는 전시 전쟁지도본부로서의 역할을 미국 및 유엔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차질없이 수행해 나갔다. 그럼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국가 최대의 위기인 낙동강 방어작전을 총력전으로 극복하고 공세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3. 총력전 체제 구축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낙동강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끈질긴 공세에 굴하지 않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자 총력전 태세에 돌입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소년지원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총력전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였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영천의 함락으로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최전방 대구에서 몸소 항전의지를 표명하였다. 군 지휘관들도 장병들과 참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진두지휘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드높였고, 장병들은 지휘관과 함께 결사항전의지를 표방하며 육탄공격도 주저하지 않은 감투정신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국군 장병들은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정신력으로 열악한 전장 환경을 극복하며 낙동강 전선에서 잘 싸웠다. 이러한 결사적인 항전의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꼭 같았다. 이것이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에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반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경찰도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전투 및 대공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비상경비총사령부는 각도 경찰국장을 비상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해 전투지역을 할당하고 예하부대를 책임지역에 배치해 군경합동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후방의 국민들도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소년지원병으로부터, 여군, 학도병, 카투사, 노무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기존의 군사단체에 속한 청장년들은 각종 청년단과 청년방위대, 그리고 향토자위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최후의 부산교두보라는 어려운 전장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이 굳게 뭉쳐 민관군 합동작전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낙동강 방어작전 중 영국군의 한국전선 투입으로 유엔군에 의한 연합방위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국군은 8월 28일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이 한국 전선에 도착하고, 이어 9월 초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다.

이렇듯 낙동강선 방어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적으로는 전 국민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바탕위에 민관군 합동작전 체제가 굳건하게 구축된 결과였다. 또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 및 유엔의 도움으로 미국에 이어 영국 지상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됨으로써 한미연합전선을 뛰어넘어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로 전환된 것도 크게 한 몫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나타난 총력전 체제는 한국 국내의 민관군 합동체제와 유엔군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내적·외적 고리를 형성하며 단단하게 어우러진 강력한 안보결집체를 구현하였다.

(집필 : 남정옥)

주 (註)

1)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서울: 육군본부, 1956), p. 6.
2) 병무청, 『병무행정사』(상)(서울: 병무청, 1985), pp. 149-150.
3) 남상선·김민규, 『6·25와 학도병』(서울: 혜선문화사, 1974), pp. 82-83.
4) 6·25전쟁사에서 1950년 8월 9월 소백산맥 및 낙동강 선에서 국군 및 유엔군과 북한군과의 치열한 공방전에 대한 명칭이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낙동강선 방어작전' 또는 '부산교두보 확보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제4차 작전 및 제5차 작전'으로 부른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전의 특징과 성격을 고려해 낙동강에서 벌어진 국군 및 유엔군과 북한군 간의 공방전을 '8월 공세 및 9월 공세'로 부르고 있다. 이는 6·25전쟁사에서 중공군 개입 이후 그들의 공세적인 행동을 중공군 공세로 부르고 있듯이 1950년 8월과 9월 낙동강에서 부산 점령을 위한 북한군의 최후의 공세적 행동을 '8월 공세 및 9월 공세'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도 최근 기존 전사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이해와 작전의 특징을 고려하여 '8월 공세와 9월 공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 169; *FRUS, 1950*, Vol. Ⅶ, p. 590.
6) Noble, *Embassy at War*, p. 17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GPO, 1992), p. 351; *New York Times*, August 18, 1950; *New York Harold Tribune*, August 18, 1950.
7)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부산: 국방부 정훈국, 1951), pp. A37, B33.
8) *FRUS, 1950*, Vol. Ⅶ, p. 698.
9) 미 제8군사령부의 후퇴를 일본으로의 철수 전조로 오해한 부산지역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일부 계층은 대만으로 피난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부산 시내에는 부산에 곧 북한군이 진입할 것이며, 정부가 제주도로 천도해 제주도에 '제2의 대만'이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기도 하였다.
10) 워커 장군은 맥아더의 지시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1950년 9월 9일 부산의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미군의 철수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군이 부산에 오면 먼저 앞에 나서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황이 위태로워 떠나려면 자기들만 떠나라고 주장하였다.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6), pp. 85-88.
11) 일본육전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부산교두보 확보』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87), p. 80.
12)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 A86.
13)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p. 12.
14)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 B43;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
15)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36.
16) *FRUS, 1950*, Vol. Ⅶ, Korea, p. 694.
17) *FRUS, 1950*, Vol. Ⅶ, Korea, p. 694.
18)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p. 370.

1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p. 22.
20) 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in 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8), p. 296; 낙동강방어선의 발전과정은 브래들리 장군을 위하여 준비한 '한국상황의 일일중점'의 한 부분으로서 1950년 7월 15일부터 작성한 일련의 상황도에서 추적할 수 있다.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Washington, D.C. : Joint Chiefs of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1990, p. 507.
21) 정일권,『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6), pp. 78-79.
2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 p. 50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朝鮮戰爭』 2;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한국전쟁』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86), p. 66.
23)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126; War Diary 25th Division, G-3 Journal, July 1950, Division History notes.
24)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p. 10.
25) BG. G. 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6(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p. 11.
2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4호'('50. 8. 2, 03:00)는 전 전선을 계획한 미 제8군의 작전명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며, 8월 11일 육군본부가 작성한 작명 제119호에 설정된 X선과 Y선은 국군의 방어선만을 축소하여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육본작명 제94호'에 계획된 Y선이 다부동-보현산을 잇는 선이라는 것은 해석상의 착오이다.
27) U. S. 25th Infantry Division,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ision*(Atranta, Georgia: Albert Love Enterprises, 1987), p. 13.
2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p. 242-247.
2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50.
3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51.
3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50. 7. 3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4호'('50. 8. 2, 03:00).
32)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조국해방전사 1』 2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31;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82호, 1950. 8. 15).
3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1950. 8. 28);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제25권, p. 274.
34)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제25권, p. 274.
3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89.
3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64, 376.
3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98-210;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p. 414; 국방부,『한국전쟁사: 낙동강 방어작전기』 제3권, pp. 307-319.
38) 북한군은 징집병과 군수품을 서울에 집결시킨 후 이들을 영등포역을 통해 철도로 각 전선으로 보충하고 있었다.
39)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25권, pp. 207-229.
40) ATIS, Interrogation Rpts, N. K. 15th Div. 장기화 전사, 20 Sep. 50; 5th Div. 오상만 전사, 16 Aug. 50, 4th Div. 김영호 소위, 3 Oct 50.

41) 空軍本部,『유엔 空軍史: 韓國戰爭』 상, p. 85.
42)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1992, p. 447.
43)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1992, p. 447.
4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4.
45)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도록 독전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81호('50. 8. 13)';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382.
46)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제25권, p. 231.
47)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378.
48) 북한군 제10사단은 전북 무주를 경유하여 8월 8일 경북 고령에 도착하였다.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378.
49) 김책은 함북 성진(城津) 출신으로 당시 49세였다. 그는 만주 간도성에서 중학을 졸업하고 북만주로 가서 항일연합군에 가담하여 최용건·김일성 등과 합류하여 빨치산 생활을 하였다. 1941년 소련으로 건너가 독립여단 제3영 부영장(대위)로 있다가 1945년 광복 후 입국하여 함흥의 소련특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있었다. 1946년 평양학원이 창설되자 원장이 되었다. 그 후 최용건이 한민당 부위원장으로 가자 그를 감시하기 위해 정치부장으로 위장하여 들어갔다. 그 후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북한정권 수립과 더불어 산업상에 취임하였다. 그는 1950년 7월 4일 전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51년 1월 4일 미 공군에 의한 평양 대폭격시 모란봉 영명사(永明寺)에서 폭사 당하였다.
50) 김웅은 경북 출신으로 당시 39세였다. 그는 대구상업을 졸업한 후 중국으로 가서 만포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40년 팔로군 구역에 월경, 신사군모분구(新四軍某分區) 작전참모로서 조선독립동맹 화중분맹주임(華中分盟主任)을 겸하였다. 1945년 광복후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으로 1946년 초 이북하여 신의주학원 원장 등으로 있다가 동교가 평양학원에 통합되자 보안간부학교 부교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제1사단장과 훈련군장을 거쳐 1950년 6월 15일 제1군단장으로 남침을 지휘하였다. 1950년 9월 이후 총참모장, 중조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56년 8월 민족보위부상에 있다가 김일성에 의해 연안파로 숙청당하였다.
51) 김무정은 1905년생으로 함북 경성(鏡成) 출신이다. 중앙고보를 중퇴하고 18세 때 북경 문화대학에서 중국어를 수학하였다. 1924년 북경군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하여 중국 포병 대위로 임관하였다. 1927년 포병 중좌까지 진급하였으나 1925년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7년 장개석에 의해 체포 투옥되었다가 총살직전에 학생 시위의 압력으로 석방되었다. 1929년 홍콩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 편입하였고 중공군사위원회에 연좌 소위 2만 5천리 장정 때 작전총책임자로서 활약하였다. 1936년 홍군(紅軍) 대학 수학, 홍군 육군대학에 재학하면서 교관을 지냈다. 육대 졸업 후 팔로군 총사령부 작전과장, 중공군 포병부대를 창설하여 포병사령관, 1937년 위장병으로 1년 휴양 후 팔로군을 이탈하여 연안으로 가서 김두봉(金枓奉)과 같이 조선의용군 건군 공작, 1939년 의용군 지휘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945년 10월 입북하였으나 김일성의 제1의 정적으로 질시 당하였다.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소 포사령관, 1948년 3월 북로당 중앙위원, 1950년 7월 제2군단장, 10월 평양방위사령관, 12월 만포진 별오리회의(제3차 정기회의)에서 명령 불복종, 전투조직의 불성립, 후퇴 시 불법 살해 등의 이유로 군단장 직에서 해직되어 감금되었다. 그 후 중공 당국의 인도에 의해 중공에 가서 병사했다는 설도 있고, 또 1951년 7월 형무소에서 심복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모두 분명치 않다.
52) ATIS, No. 1468, 29 September, 1950.
53) 林隱,『北韓 金日成 王朝秘史: 金日成 正傳』(서울: 한국양서, 1982), pp. 114-120; 장준익,『北韓人民軍隊史』, pp. 370-387;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pp.

120-135.

5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3;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p. 380.

55) GHQ Far East, Military Intelligence Sec., INTELLIGENCE SUMMARY, SN.2948, GHQ FECOM, 19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북한군 전투서열』(미간행), pp. 41-42.

56)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육군본부 역,『韓國戰爭』 제2권, pp. 78-79; ATIS, Interrogation Rpts, N. K. 102th R. 박홍식 중위, 5 Oct 50.

57)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410.

58)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410.

59)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412.

60)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413.

61)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조국해방전쟁사1』 제25권, p. 274.

62)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1984, p. 412.

6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4.

64) FEC, G-2,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5, pp. 64-70. 북한군 제9사단은 7월 11일~8월 12일간 서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단 예하 제87연대는 인천경계를 위해 잔류하고 제85연대와 제86연대는 경남 영산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6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95.

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92.

67) 1950년 8월 11일에는 비상시 향토방위령 시행세칙을 공포하였다.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한국전란 1년지』, p. C60.

68) 國防部戰史編纂會,『韓國戰亂 1年誌』, p. C47-C85; 남정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_',『軍史』 제63호(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 47.

69)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Vl, ch. 4, p. 21.

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서울: 국방부, 1987), pp. 31, 439.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p. 111.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p. 292;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한국전란1년지』, p. C277.

7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9, p. 25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pp. 251-252.

7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3.

7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9, p. 252.

76)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1년지』, p. C51.

77)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1년지』, pp. C57, C61.

78)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1년지』, pp. C103, C277. 극동군사령부의 군수지원계획에 의하면 피난민의 이동과 보호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p. 639.

79) 육군본부,『부대역사일지, 1949.8.17-1951.12.3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미간행), p. 38.

80) 육군본부,『부대역사일지』, p. 42.

81) 정일권,『6·25비록: 전쟁과 휴전』, p. 98; 유재흥,『격동의 세월』(서울: 을유문화사, 1994), pp. 187-188.

82) 1950년 8월 18일 대구시내에 적의 박격포 탄이 떨어짐으로써 시민 소개령이 하달되었으며 이날 정부와 국회도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한국전란1년지』, pp. A37, B33.

83) 육군본부,『부대역사일지』, p. 42.

84) 워커 중장의 대구 이동을 권유받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내무부에도 이동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조병옥 내무장관이 예하 각 경찰이 전선 각지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은 불가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워커 중장을 방문하여 내무부와 경찰은 최후 순간까지 대구에 잔류하여 북한군을 저지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다. 그는 워커 중장에게 "적에게 빼앗기게 될 경우에는 부산교두보 또한 방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은 덩커르크나 바탄반도의 비운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강변하며 대구(大邱) 고수를 역설하였다. 내무부치안국,『한국경찰전사』(부산: 내무부, 1952), pp. 149-150.

8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88.

8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88.

8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89.

8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89.

8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89.

9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國防史』 제2권, p. 41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4.

91)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p. 413.

92)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 p. 413.

93) 국군 제7사단 제3·제5·제8연대는 '국일명 제49호_('50.8.20), 제11사단 제9·제13·제20연대는 '국일명 제54호_('50.8.27)에 의해 각각 창설되었다. 국방부,『국방사』 제2권, p. 334.

9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p. 363.

9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p. 32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0.

96) 남상선,『학도의용군』(서울: 효성출판사, 1975), pp. 63-70.

97) 여자의용군교육대는 9월 6일 육군 제2훈련소에서 창설되었다. 국방부,『국방사』 제2권, p. 64; 병무청,『병무행정사』 상, p. 642.

98) 다부동 구국전투사편찬위원회,『다부동 구국전투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pp. 271-285;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전사자 명부』; 하재평, '한국전쟁시 국가 총력전 전개양상_',『전사』 제3호(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6), pp. 7-9.

99)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 Eight U. 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Vol.1 4, ch. 3, p. 25.

10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6.

1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9.

10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93.

10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93.

10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594, 603.

10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96.

10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98.

10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89.

10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90.

109) Bradley J. Haldy, *Korean Service Corps-Past and present*, Army Logistician, July-August, 1987, pp. 22-2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590; 1950년 8월초 대구에는 경찰 5천 8백 명

과 전투경찰 1만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유관종, 『한국경찰사』(현대경찰문고, 1982), p. 104.

11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6.

11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서울: 국방부, 1981), pp. 41, 124.

11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권, pp. 305, 354. 이들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26)에 근거하여 동원되었고, 이들의 운영비는 미제8군과 협의하여 유엔군 주둔비에서 지출되었다.

11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권, p. 388.

114)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Washington, D.C.: U.S. G.P.O., 1988), p.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pp. 145-147.

11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56-257.

11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1.

117)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 防禦作戰期』 제3권, p. 322.

11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9.

119) 미 제34연대 제1대대는 미 제19연대 3대대에, 미 제34연대 제3대대는 미 제21연대 제2대대에 흡수되어 편성되었다. 미 제34연대장 뷰챔프(Beauchamp) 대령은 미 제7사단 32연대장으로 전임되었다. 미 제34연대를 지원하던 미 제63포병대대는 새로 창설되는 미 제11·제13·52포병대대의 각 C포대로 편성되었다(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9).

1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9.

121) EUSAK War Diary, 26 August 1950; 5th and 8th Cavalry Regiments War Diary, 26 August 19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89-390.

122)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Vol. 1, ch. 2, pp. 5, 15.

12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0.

12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2.

125)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 防禦作戰期』, pp. 318-319.

12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1.

127)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 4, pp. 38-40, 133. 미육군교범상에 의하면 포 1문당 일일 탄약소모량은 81밀리 20발, 4.2″포 20발, 105밀리 포 45발이지만, 8월간 1일평균 소모량은 30, 25, 75발이었다.

12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60, 380.

129)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 4, p. 38: Vol. 4, ch. 8, pp. 19, 21.

130)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Vol. Ⅱ, p. 388.

131) 남정옥, '6·25전쟁 초기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쟁지도_, 『軍史』 59호(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59-60.

132) 남정옥, '6·25전쟁 초기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쟁지도_, p. 59.

1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06.

13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07.

135)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 『韓國戰爭: 釜山橋頭堡』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91), p. 120.

136)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 『韓國戰爭: 釜山橋頭堡』 제2권, p. 120.

13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34.

138) 미 제8군 참모장 랜드럼 대령은 매일 밤부터 심야까지 각 사단장이나 참모장, 또는 고문관들과 전화로 예하 사단의 상황을 직접 청취하는 동시에 의견을 교환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전화 문의는 새로운 상황을 입수하는데 효과가 매우 컸다.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 『韓國戰爭: 釜山橋頭堡』 제2권, p. 122.

139)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 『韓國戰爭: 釜山橋頭堡』 제2권, p. 122.

14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35.

14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17.

142)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 『韓國戰爭: 釜山橋頭堡』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91), p. 121.

14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제3권(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2), p. 499.

144)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9), 89.

145)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1954, Vol. 1, ch. 3, pp. 10-11.

146)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1954, Vol. 1, ch. 3, pp. 15-35. 미 제3군수사령부는 1950년 9월 18일 인천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인천기지사령부의 작전을 개시하였다.

147) 미 제1군단은 1950년 8월 2일에 창설되어 사령부가 9월 6일 한국에 도착하였고, 미 제9군단은 8월 10일에 창설되었으나 참모와 지원부대 편성의 지연으로 9월 23일부터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 제10군단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군단으로서 1950년 8월 26일에 창설되었다.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 424.

14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2.

149) U.S. 25th Infantry Division,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 p. 13.

150) 미 제27연대는 왜관에서 미 제8군 예비로 있다가 사단의 이동에 앞서 마산으로 이동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진동리 지역에 투입되었으며, 제19연대와 더불어 무촌리 지역에 대한 정찰전을 전개 중이었다.

151) 육군본부는 8월 11일 작명 제119호를 하달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8월 13일부터 국군은 왜관-다부동 북쪽-군위-보현산-강구남쪽을 잇는 선에 배치되었다. '육본작전명령 제119호_('50.8.1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6.

152) 육군본부, 『한국전쟁 사료: 전투상보(제1군단·제2군단·수도사단)』 제41권(서울: 육본 군사연구실, 1986), pp. 19-22.

153)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 防禦作戰期』 제3권, pp. 760-765.

154) 육군본부, 『육군역사일지, 1949.8.17-1951.12.3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미간행), pp. 48-49.

155) 육군본부, 『한국전쟁 사료: 전투상보(제1군단·제2군단·수도사단)』 제41권, pp. 19-22.

156) '국일명(육) 제23호_(1950.7.27); '육본특명 제43호_(1950.7.29).

157) '제2군단 작전명령 제31호_('50.9.5); '제2군단 작전명령 제32호_('50.9.6).

158)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158('50.9.5).

159)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 防禦作戰期』 제3권, pp. 455-463.

160)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135호('50.8.2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新寧·永川戰鬪』, p. 129.

16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98.



제 3 장 중서부지역 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낙동강연안-다부동-팔공산 전투
제 3 절	왜관-다부동-대구 북방 전투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중서부지역 작전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북한군의 작전목표인 대구(大邱) 북방의 다부동-왜관-팔공산지역에서 한미연합군(국군 제1사단·미 제1기병사단)과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5개 보병사단(제1·제3·제10·제13·제15사단)간의 45일간에 걸쳐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을 일컫는다.

이 때 다부동-왜관의 서측에서는 미 제24사단(이후 미 제2사단)이 현풍에서 낙동강 돌출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동측에서는 제6사단이 의성(義城)-신녕 축선에서 북한군 제1사단을 맞아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고 있었다.

낙동강 중서부지역 작전은 2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북한군이 8월 공세 때 대구-부산으로 진출해 전쟁을 종식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국군 제1사단이 대구의 관문인 다부동지역을 사수하여 무산시켰던 시기이다. 이 때 미 제8군사령부는 다부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 2개 연대(미 제23연대·미 제27연대)를 제1사단 지역에 투입해 이 지역의 전투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방어중심을 깊게 함으로써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또 낙동강 대안의 구미(龜尾) 일대에 융단폭격을 실시해 북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군이 한 곳에 전투력 및 군수물자를 집중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제1사단은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하고 경북 신녕(新寧)지역으로 이동해 팔공산-가산전투를 수행하였다.

제2단계는 북한군이 8월과 9월 공세기간 왜관-다부동-대구 북방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미 제1기병사단과 북한군 제3사단·제10사단이 격전을 벌였던 시기이다. 이 때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다부동과 왜관지역을 빼앗기고, 대구 북방의 가산산성 일대로 물러나 총반격작전을 전개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구를 사수하였다. 이 무렵 대구가 적의 직접적인 위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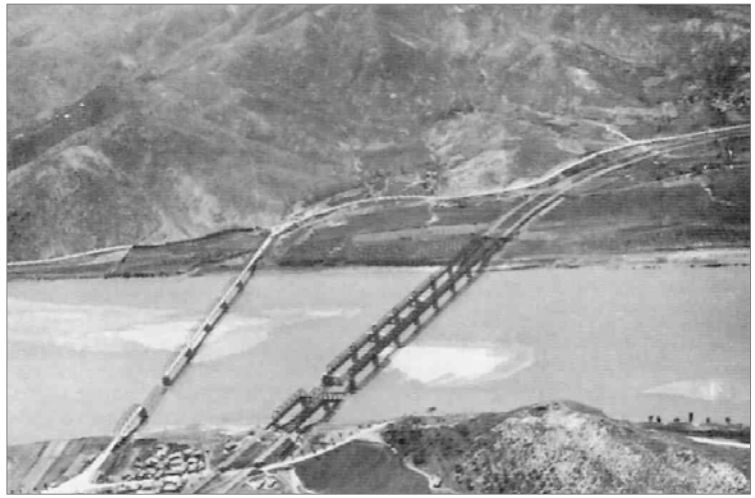
받자 국군과 경찰도 증원되어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釜山)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부산관문의 최단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 점령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그들의 전력 1/2를 이곳에 투입해 독전(督戰)을 강요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이 지역에 5개 사단을 투입해 대구를 공략한 후 부산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즉 북한군은 아군 방어 정면에 그들의 정예사단인 제1사단·제3사단(후에 제10사단 투입)·제13사단·제15사단을 투입하였다. 제1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1사단·제13사단·제15사단의 3개 사단을, 미 제1기병사단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3사단(후에 10사단 합류)과 제105전차사단(-)을 투입해 대구를 북쪽과 서쪽에서 공략하고자 하였다.

제1사단은 1950년 8월 3일 낙동강 방어상에 진지편성과 부대 전개를 마쳤다. 그러나 사단이 담당한 방어정면은 42㎞에 달하는 광정면이었다. 더욱이 사단의 병력수준은 70%였고, 중화기도 30~40%에 불과하였다.[1] 따라서 사단 정면은 북한군의 우세한 병력과 장비, 그리고 전차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방어는 전술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사단에서는 각 연대를 북한군의 예상 도하 지점별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후에는 다부동 일대의 주저항선과 새로운 방어지역인 팔공산과 가산 일대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며 대구를 사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인접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2]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東京)에 진주해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던 중 6·25 발발로 1950년 7월 중순 한국전선에 투입돼 지연전을 수행하였다.[3] 그러다 8월초 사단은 미 제8군의 명령에 의해 왜관 일대에서 낙동강 방어작전을 수행한 후 9월에는 대구 북쪽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한편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책임지던 낙동강 중서부지역은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국도와 경부철로, 다부동-대구를 연결하는 5번 도로, 그리고 왜관-대구를 연결하는 국도 등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도로 사이에는 횡적으로 발달된 소백산백의 끝자락이 낙동강과 조화를 이루어 방자(防者) 입장에 있는 한미연합군에게는 유리하였으나, 낙동강을 도하 공격해야 하는 북한군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형적 조건을 극복해야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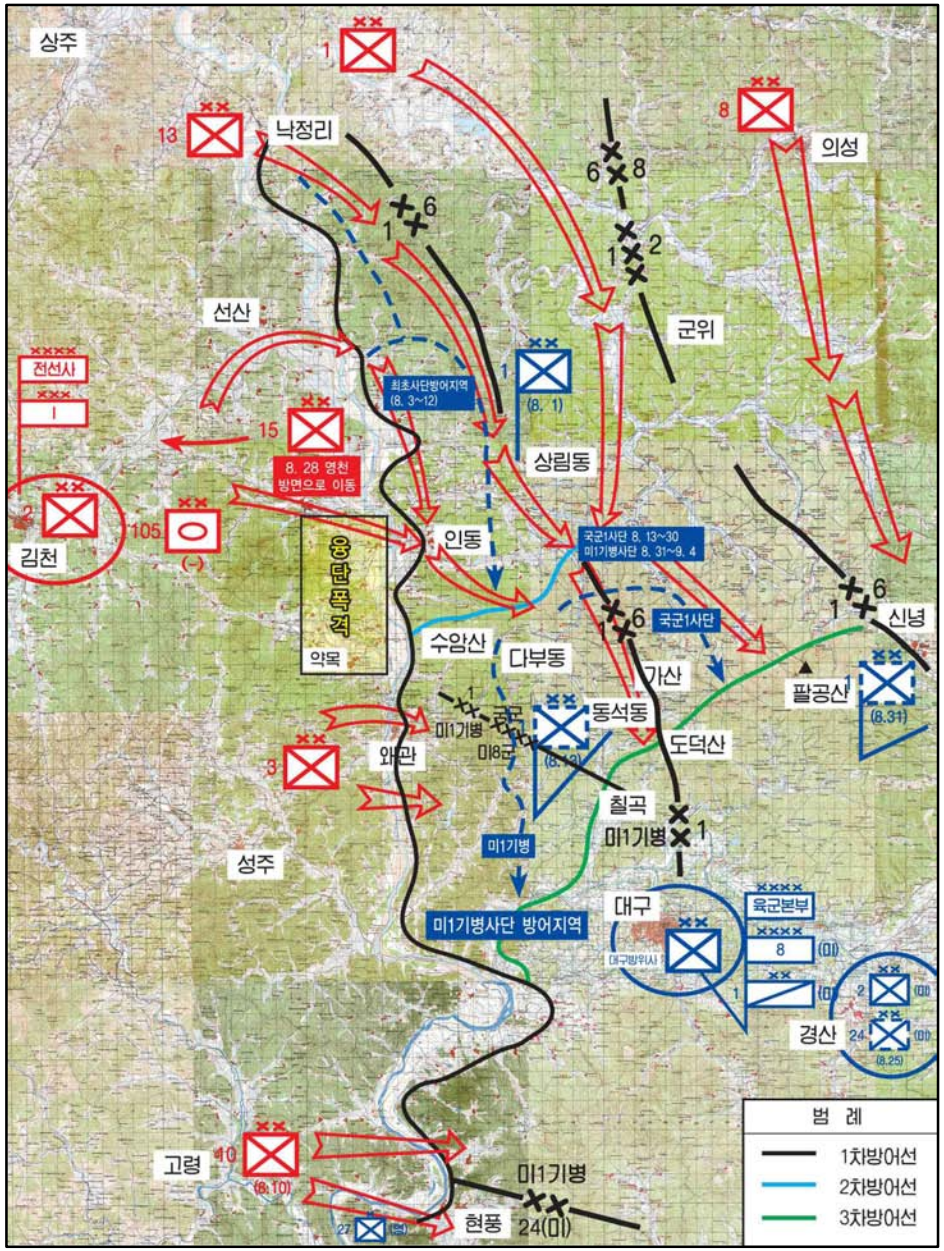


낙동강 방어작전시 파괴된 왜관교



현재의 낙동강 왜관교 모습

<상황도 3-1> 중서부지역 작전(1950. 8. 1~9. 14)



제 2 절 낙동강연안-다부동-팔공산 전투

1. 전투 개요

낙동강연안-다부동(多富洞)-팔공산 전투는 국군 제1사단(사단장 준장 백선엽)이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 지역에서 수행하였던 전투이다. 그러나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세 시기로 구분해 기술하였다.

첫째는 1950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1사단이 낙동강 연안의 방어전투에서부터 다부동 일대의 주저항선으로 철수하는 시기이다. 둘째는 제1사단이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저항선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이 지역을 인계하고 신진지로 이동하는 시기이다. 셋째는 제1사단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새로운 방어지역인 팔공산과 가산 일대에서 전투를 치른 시기이다.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3사단과 제15사단은 상주와 김천에서 부대재편을 마치고 낙정리와 구미로 진출하였고, 왜관 서쪽의 북한군 제3사단은 성주(星州) 일대에 집결하였다. 이들 부대와 협조하기 위해 북한군 제10사단이 증원부대로서 고령(高靈) 일대로 이동하고 있었다.[4] 또한 북한군 제1사단이 국군 제1사단의 북쪽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군은 다부동-왜관 정면에 5개 사단을 투입해 일거에 대구를 점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에 배치된 한미연합군은 2개 사단이었다. 대구를 중심으로 왜관 북방 328고지에서 낙정리(洛井里)까지는 국군 제1사단이, 왜관(303고지)에서 현풍까지는 미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였다. 특히 8월 공세시 북한군은 이곳 국군 제1사단 방어지역에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보병 3개 사단을 투입해 돌파하고자 하였다. 백선엽(白善燁)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1사단은 개전 초기 개성

-문산의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제1사단을 맞아 크게 활약하였고, 지연전을 통해 전력을 정비한 국군의 정예사단이었다.

국군 제1사단이 8월 초에 수행한 낙동강 연안 전투는 적의 낙동강 도하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작전기간 동안 제1사단은 광정면의 방어지역에 3개 연대를 투입해 방어하다가 나중에는 1개 연대를 예비로 활용해 융통성 있게 부대를 지휘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를 수행하였다. 이후 제1사단은 다부동 일대의 주저항선에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을 저지하며 대구를 사수하였다.

다부동은 대구 방어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다부동은 대구 북쪽으로부터 22㎞, 상주와 안동에서 대구에 이르는 5번 및 25번 도로가 합쳐지고 왜관에 이르는 지방도로(997번 도로)의 시점이 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하지만 다부동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60여 가구 밖에 안 되는 한적한 촌락이었다. 다부동을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유학산(遊鶴山・839m)이 북쪽을 향하여 횡격실(橫隔室)을 이루고 있고, 그 동쪽에는 지역내에서 가장 높은 가산(架山・902m)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돌파되면 10㎞ 남쪽의 도덕산(道德山・660m) 일대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구가 적 포병사격의 사정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이들 지형의 이점을 활용해 다부동 일대에 설정된 주저항선에서 대구를 공략하려는 북한군 3개 사단을 상대로 낙동강 방어작전 중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혈전을 벌인 끝에 이를 격파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전황을 타개하였다. 이후 국군 제1사단은 신녕(新寧) 서쪽지역으로 이동하여 팔공산-가산 전투를 수행한 후 유엔군의 총 반격작전에 가담하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북한군 전선사령부(前線司令部)는 1950년 8월초 제2군단 예하의 제1・제13・제15사단 등 3개 사단을 함창(咸昌)・상주 일대에, 제2군단 예하의 제3사단과 제10사단 2개 사단을 왜관서측에 집결시켜 총 5개 사단으로 왜관-다부동 축선을 통해 대구를 공략할 준비를 갖추었다. 즉 북한군은 8월초 국군 제1사단의 방어정면에 전차로 증강된 보병 2개 사단을 배치한데 이어 8월 13일에는 추가로 보병 1개 사단을 투입하였다.[5]

북한군 제13사단은 상주 일대에 집결해 낙동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사단 병력은 편제의 약 80%인 약 9,000명이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선산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고, 병력은 편제의 42%인 약 5,000명이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약목-성주 일대에 집결해 최초 미 제1기병사단을 공격하였으나, 8월 13일부터는 약목-다부동 지역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가 8월 16일부터 국군 제1사단 방어지역에 투입돼 공격하였다.[6]

한편 북한군 사단의 장비와 무기는 국군 제1사단에 비해 10 : 1로 우세하였다. 이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T-34전차 20대, 122밀리 곡사포 20문, 76.2밀리 곡사포 60문, 76밀리 자주포 20문, 45밀리 대전차포 50문, 120밀리 박격포 20문, 82밀리 박격포 150문, 61밀리 박격포 180문을 보유하였다.[7]

특히 북한군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강제로 징집한 병력을 보충하여 병력과 화력면에서 여전히 국군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의 상실로 인한 보급품의 제한과 유엔 공군의 위협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북한군 사단은 정찰대를 파견하여 낙동강 도하지점을 탐색하였다.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 낙동강의 수심은 3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심이 1~1.5미터로 도하장비 없이 도섭이 가능함으로써 방자인 아군에게는 불리한 반면, 공자(攻

者)인 북한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 작전지역내에는 고령-왜관-상주와 안동-대구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에게는 양호한 접근로가 되었다. 중서부 작전 중 대구 축선에 지향된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왜관-대구 축선에 지향된 북한군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제2군단	군단장	중장	김무정(金武亭)	중공 팔로군 출신
제1사단	사단장	소장	김광협(金光俠)	
	제2연대장	대좌	김양춘(金陽春)	
	제3연대장	대좌	이창권(李昌權)	
	제14연대장	대좌	황 석(黃 石)	
	포병연대장	대좌	현학봉(玄學奉)	
제3사단	사단장	소장	이영호(李英鎬)	
	제7연대장	대좌	김창봉(金昌奉)	
	제8연대장	대좌	김정동(金貞童)	
	제9연대장	대좌	김만익(金萬益)	
	포병연대장	대좌	안백성(安白成)	
제13사단	사단장	소장	최용진(崔鏞鎭)	소련군 대위 출신
	제19연대장	대좌	김승국(金勝國)	
	제21연대장	대좌	이승준(李承俊)	
	제23연대장	대좌	태병열(太炳烈)	
	포병연대장	중좌	정봉욱(鄭鳳旭)	1950. 8. 22일 귀순
제15사단	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소장	조열광(趙烈光)	1950. 9. 5 이후
	제45연대장	대좌	이철룡(李哲龍)	
	제48연대장	대좌	김치규(金致奎)	
	제50연대장	대좌	이을설(李乙說)	
	포병연대장	대좌	김연섭(金連燮)	

2) 국군 제1사단 상황

(1) 제1사단장의 방어구상과 결전의지

6·25전쟁 최후의 보루(堡壘)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왜관-다부동-대구 축선을 미 제1기병사단과 함께 책임진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燁) 준장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곳은 한반도의 최남단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배수진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증원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교두보인 한국 최대의 항구인 부산(釜山)항이 있었다.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는 과정은 실로 험난한 긴 여정이었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부터 시작된 개전 초기부터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기까지 국군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작전기간 동안 국군은 8개 사단에서 3개 사단이 해체되고, 5개 사단이 개편 또는 증편되었다.[8] 또 개전 초기 8명의 사단장 중에서 5명의 사단장이 교체되거나 해임됨으로써 전쟁 초기부터 남아 있는 사단장은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을 포함해 제6사단장(대령 김종오·金鍾五)과 제8사단장(대령 이성가·李成佳) 3명뿐이었다.

무릇 개전 초기 모든 국군 사단들이 그랬듯이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기까지 국군 제1사단이 겪은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제1사단은 개전 초기 수도 서울의 서부관문인 개성-문산 축선에서 북한군 제1사단을 맞아 치열한 교전을 치렀다. 제1사단은 전쟁 이전 계획하였던 임진강 방어선으로부터 봉일천(奉日川) 방어선에 이르는 축차적 방어를 통해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 제1사단의 남진을 저지해 그들의 작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9] 그 결과 제1사단은 의정부-포천 축선의 북한군이 6월 28일 새벽 서울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서울 서북방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특히 제1사단과 맞섰던 북한군 제1사단은 개전 초기 입은 피해 때문에 지연작전에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재편성을 거친 후인 7월 중순에야 작전에 투입되었다.[10]

그렇지만 이러한 개전 초기 작전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1사단은 육군본부로부터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철수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로

써 제1사단은 의정부 축선으로부터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의 후방퇴로의 차단 앞에서 뒤늦게 결행(決行)한 한강도하로 인해 모든 장비를 한강 이북에 버리고 한강을 도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제1사단은 사단의 명맥만 유지한 채 중부전선에 투입돼 북한군의 정예사단을 맞아 힘겨운 지연전을 치렀다.

국군 제1사단이 전투사단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50년 7월 하순 경상북도 상주(尙州)에서다. 이곳에서 제1사단은 병력을 증원받고 제17포병대대(대대장 소령 박영식·朴永湜)를 배속받았으며, 이 때 총이 없는 병사들에게 M1소총과 칼빈총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제1사단은 7천명 이상의 병력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다.[11]

특히 이 무렵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이 6·25전쟁 이후 사단장으로는 처음으로 장군이 되었다.[12] 그의 장군 승진은 뜻밖이었다. 이 때 제1사단은 낙동강 지류인 함창(咸昌)의 영강(嶺江)에서 남하하는 적군을 맞아 격전을 치르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1950년 7월 27일 예고도 없이 상주우체국에 위치한 사단지휘소에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과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이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다부동 전투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오른쪽)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1950년 8월 23일)

백선엽 사단장은 "사단이 증원·재편되어 이제부터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두 사람은 백(白)사단장에게 "장군 승진을 축하한다"고 축하하며 준장 계급장을 전투복에 달아주었다.[13] 이로써 제1사단은 낙동강 방어작전을 앞두고 전투력면에서나 장군으로 진급한 사단장의 위상에서 볼 때 새로운 사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국군 제1사단은 낙동강 방어선 형성시 한미군 수뇌부로부터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는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에 의해 나중에 밝혀졌다. 즉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부대배치를 협의하기 위해 열린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의 회의에서, 워커 중장은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한국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단을 왜관 북쪽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일권 소장이, 백선엽 준장의 제1사단을 추천하자 워커 중장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14] 이는 워커 중장도 제1사단의 전투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서 제1사단은 낙동강 방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왜관 북쪽 지역에 대한 방어를 책임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 제1사단의 방어정면(42㎞)은 다른 사단의 2배에 달하는 광정면(廣正面)이었다.[15]

이 때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전쟁 이전 사단의 38선 방어계획의 실행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6·25전쟁 이전 제1사단의 방어책임지역이 청단-개성-문산을 연하는 90㎞에 달하는 광정면으로 사단의 자체의 병력과 화력으로는 정상적인 전투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단 방어계획을 부대 실정에 맞게 수정한 바가 있었다. 그는 사단의 병력과 화력으로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어계획, 즉 임진강 남안의 지형을 고려한 20㎞에 달하는 방어선을 설정해 개전 초기 이곳에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42㎞에 달하는 광정면을 부여받은 사단장은 낙동강 연안에서의 방어가 결전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낙동강을 연하는 광정면에서의 진지고수나 결전방어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한군과 넓은 정면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낙동강 연안에서는 결전을 회피하고, 방어에 유리한 다부동 일대로 철수해 이곳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심하였다.[16]

그러나 다부동은 임시 수도인 대구와 너무 근접해 있었다. 제1사단은 이를 조국수호정신과 결전의지를 통해 극복하였다. 실제로 제1사단은 낙동강 최대 격전지로 알려진 328고지·유학산·수암산 전투에서 진지를 사수하고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 시체를 방벽삼아 적을 물리치고 팔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수류탄을 던지며 적의 파상공격을 막아내는 감투정신을 발휘하였다. 이는 백선엽 사단장이 "다부동을 잃을 땐 장병들 앞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각오와 사단 장병이 "생일은 달라도 죽는 날은 한 날 한 시로 하자고 맹세"한 것이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감투정신과 전투의지로 뭉친 제1사단은 마치 '얇은 종이장 같은 방어선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공격'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대구의 관문인 다부동을 사수하였다.[17] 다부동 전투가 제1차 세계대전시 프랑스군이 막대한 희생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저항해 독일군의 대공세를 좌절시킨 방어전투의 신화로 알려진 베르됭(Verdun) 전투와 비견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18]

(2) 제1사단의 방어배치와 전투력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7월 31일 밤 함창 북서쪽의 국사봉-영강 일대에서 적과 접촉을 끊고 다음날 상주를 경유 운성(雲城)나루터와 낙동나루터에서 낙동강을 도하해 위천(渭川) 하구-산막(山幕) 사이에 3개 연대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8월 1일 사단 좌측부대로 왜관-낙정리간을 담당한 미 제25사단이 갑자기 마산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자 이 지역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이에 제1사단은 8월 2일부터 이틀간의 강행군 끝에 미 제25사단의 마산이동으로 공백이 된 위천 하구로부터 왜관 북쪽까지를 방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1사단은 42㎞에 달하는 광정면을 담당하였으며, 낙동강 연안의 방어지역에 제11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최초 제13연대)를 모두 배치하였다.[19]

제1사단의 좌전방 부대인 제15연대는 청계동-금곡리의 18㎞를 담당하였고, 중앙의 제11연대는 금곡리-청산동의 17㎞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우전방부대인 제

12연대는 도개동-송하동의 12㎞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이 때 제1사단은 서측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과는 접촉을 유지하였으나, 동측 부대인 국군 제6사단과는 4㎞의 간격이 발생하였다.[20]

제1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석주암 대령, 제11연대장 김동빈 대령, 제12연대장 박기병 대령과 김점곤 대령,[21]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으로 구성되었다. 제1사단의 지휘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제1사단 지휘관 현황[22]

구 분		계급	성 명	임관구분	비 고
사단지휘부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군 영	대장 예편
	참모장	대령	석주암(石柱岩)	육사 2기	소장 예편
제11연대	연대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육사 1기	중장 예편
	제1대대장	소령	김재명(金在命)	육사 2기	중장 예편
		소령	김 소(金 沼)		
	제2대대장	소령	이두황(李斗璜)		
		소령	차갑준(車甲俊)		
	제3대대장	소령	정영홍(鄭永洪)	육사 3기	준장 예편
제12연대	연대장	중령	김점곤(金點坤)	육사 1기	소장 예편
		대령	박기병(朴基丙)	군 영	8월 8일부 소장 예편
		중령	김점곤(金點坤)	육사 1기	9월 3일부
	제1대대장	소령	한순화(韓順華)		
	제2대대장	소령	조성래(趙成來)		
	제3대대장	소령	박병수(朴炳洙)		
		소령	김기용(金基容)		
제15연대	연대장	대령	최영희(崔榮喜)	군 영	중장 예편
	제1대대장	소령	김진위(金振暐)	육사 3기	소장 예편
		소령	유재성(劉載成)		
	제2대대장	소령	안광영(安光榮)		
		소령	이존일(李存一)		8월 20일부
	제3대대장	소령	최병순(崔炳淳)		
제17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박영식(朴永湜)	육사 5기	
공 병 대 대	대대장	소령	김영석(金永錫)	육사 3기	

이들은 개전 초기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던 경험있는 참모 및 지휘관들이었다. 또 대대장들도 육사 제2기 및 제3기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도 개전 초기부터 지휘관을 역임한 전투경험이 풍부한 장교들이었다.

사단은 1950년 8월 3~4일 인동(仁洞)초등학교에 임시로 설치된 미군 추진보급소에서 개전 이래 처음으로 무기와 개인 장구류를 지급받았다. 이 때 지급받은 장비와 무기로는 57밀리 대전차포, 박격포 및 기관총, 개인화기, 통신장비, 개인용 야전삽과 곡괭이였다. 또 학도병 500여명을 보충 받음으로써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앙양되었다.[23]

한편 제1사단 작전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8월 3일 피난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피난하기 전에 마을 단위로 장병들에게 주먹밥을 지어 주고 노무자 모집에 자진 참여해 장병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피난민의 철수와 통제는 경찰이 전담해 작전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었다. 문제는 낙동강 이북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이었다. 피난민 속에는 적 게릴라가 침투해 아군 후방을 교란한 사례가 빈번하였으므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미군 지휘관들은 이에 골치를 앓았다. 이 때문에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피난민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3. 전투 경과

1) 낙동강 연안-주저항선 지연전(1950. 8. 2~8. 12)

(1) 개 요

이 작전은 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의 주저항선으로 이동하기까지 낙동강 연안의 42㎞의 광정면에서 실시한 일련의 방어전투이다. 제1사단이 낙동강 연안의 방어지역에서 제일 먼저 교전한 부대는 낙정리 일대에 배치된 제12연대였다. 북한군은 1950년 8월 4일부터 낙동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24] 주접근로

를 담당한 제1사단은 낙정리 부근으로 도하하는 북한군 제13사단을 몇 차례 격퇴시켰다. 그러나 북한군의 도하가 본격화되자 방어정면이 너무 넓은데다가 북쪽이 돌출되어 있어 방어선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8월 4일 정면을 축소 조정하고 제12연대를 예비로 전환시켰다.

제1사단은 8월 5일부터 북한군 제13사단 주력의 총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11연대가 제12연대지역으로 도하한 적 1개연대의 공격을 받아 낙산동 일대의 고지가 일시 피탈되었으나, 때마침 배속 받은 제12연대 제1대대의 과감한 역습으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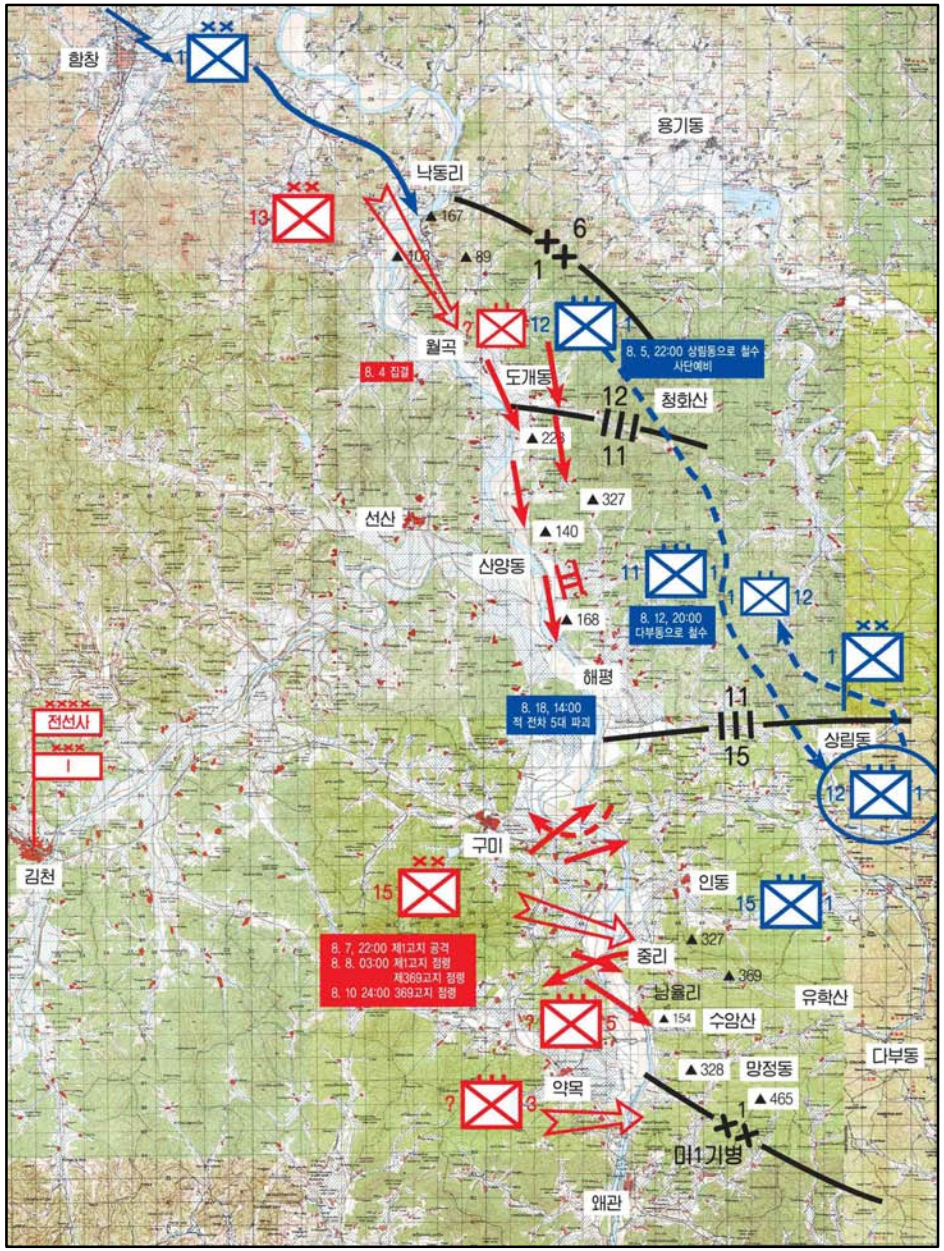
8월 8일 01:00시부터 제1사단은 북한군 제13사단과 북한군 제15사단으로부터 도하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전날부터 선산(善山)-구미에서 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비밀리 수중교(水中橋)를 가설해 미리 도하시킨 전차와 함께 1개 연대병력으로 제15연대 정면을, 다른 1개 연대병력으로 제11연대 정면을 도하해 공격하였다. 수중교는 항공정찰로도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권을 상실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도하방법이었다.[25]

제11연대는 유엔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등 저지사격을 하였지만, 결국 도하를 허용해 해평천(海平川)으로 물러나 적을 저지하게 되었다. 제11연대는 다음날(8월 9일) 북한군의 접근을 관측하고 준비된 탄막사격을 집중하는 동시에 대전차특공대를 투입하여 전차 5대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달성하면서 진지를 고수하였다.[26]

제15연대는 일시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예비인 제12연대(-)의 지원으로 위기를 타개하였으며, 유엔 공군의 지원하에 역습을 실시해 8월 9일 새벽, 상실한 고지를 탈환하였다.[27] 이어 제12연대장도 적진에 대전차특공대를 투입해 전차 4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28] 이를 계기로 제12연대는 8월 10일 새벽, 역습을 실시해 적을 낙동강 서쪽으로 격퇴하였다.

이 때 한미군 수뇌부는 낙동강 방어선 전반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후 전선을 재조정하였다. 이는 미군이 낙동강을 장애물로 이용해 적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국군은 전체 방어정면이 너무 넓어 부대 간 연결도 이루지 못하고 적의 돌파를

<상황도 3-2> 낙동강 연안-주저항선 지연전(1950. 8. 3~12)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8월 11일부로 국군 사단은 축소된 방어선인 왜관북방 303고지-다부동-군위-보현산을 잇는 선으로 이동해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29]

제1사단은 낙동강을 연하는 방어선이 하천 방어의 이점이 있었으나, 결국 42㎞ 달하는 광정면을 1개 사단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사단은 1950년 8월 12일 낙동강 연안 방어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인 다부동 지역으로 전개해 포남동의 270고지-수암산(水岩山・519고지)-유학산(遊鶴山・839고지)-신주막을 연하는 20㎞의 신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30]

(2) 제1사단 제12연대의 낙정리 지역 전투

제12연대는 8월 3일 오전 중에 낙동리 일대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였다. 도하후 제12연대 제3대대는 낙정리(洛井里)의 167고지 일대와 103고지에, 제2대대는 연산진(連山津)에서 178고지 사이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이날 17:00시경 연대장 김점곤 중령은 연대참모를 대동하고 제3대대 방어진지가 있는 167고지로 가는 도중 강 대안의 북한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이 사격을 신호로 연대 병력이 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김점곤 중령은 제3대대로 달려가 대대장(박병수 소령)에게 대대 모든 중화기를 강기슭으로 옮겨 사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제3대대는 북한군의 도하를 사격으로 저지하였고, 이 때 미군 전폭기 1개 편대가 도하하려는 북한군에게 20분간 폭격을 가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후퇴하였다.[31]

8월 4일 미명 북한군 대대 병력이 낙동강을 도하해 제12연대 제3대대 방어진지를 공격하였다. 제3대대는 모든 화기를 집중해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였다. 이는 강의 수심이 목 부분까지 차서 북한군은 도하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도하에 성공한 북한군도 제3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이날 20:00시경 북한군은 또 중대 병력을 동원해 제12연대 제2대대(대대장 조성래 소령) 지역으로 도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피해만 입은 채 물러났다.[32]

한편 8월 4일 14:00시에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가 용기동(龍基洞)에서 철수

하자, 제1사단장은 이날 22:00시에 제12연대를 사단예비로 하여 작전지역의 중앙인 상림동(上林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33] 이에 제12연대는 제11연대와 제13연대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사단의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단예비가 된 제12연대는 8월 5일 상림동에 집결한 후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10:00시에 북한군 제13사단(-)이 낙동리에서 도하해 제11연대 정면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2연대 제1대대(대대장 한순화 소령)를 제11연대에 배속시킨 다음 대대를 송곡동(松谷洞)의 270고지 일대에 배치하게 하였다.[34] 그러나 제11연대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전개되자 8월 7일 사단장은 제12연대 제3대대(대대장 박병수 소령)를 오리(梧里: 일명 오리골)로 진출시켜 제11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제12연대 제3대대는 제11연대 지원 임무를 마치고 8월 8일 17:00시에 도개동(道開洞)에 집결하였다. 이 무렵 제12연대 제2대대도 사단장의 지시로 제15연대에 배속되어 옥계동(玉溪洞)에 배치되었다.

한편 제12연대 제3대대는 사단 명령을 받고 다시 제11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8월 9일 05:00시에 수암산(水岩山)쪽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제3대대는 목표인 369고지를 공격하였으나 기동로의 제한과 심한 경사, 그리고 적 전차의 포격으로 공격에 실패하였다. 제12연대장과 부연대장은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지 않고는 369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3.5인치 로켓포로 무장한 전차특공대(12명)를 편성하였다.[35] 전차특공대는 8월 9일 12:30분에 적 전차가 집결해 있는 석적(石積)초등학교로 접근한 후 적 전차 5대 중 4대를 파괴하고 도주하는 적 전차가 전복되자 이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36] 제3대대는 전차특공대의 활약으로 369고지 일대의 북한군을 압박하자, 북한군은 수세에 밀리게 되었다.

이 때 제12연대 제2대대도 201고지로 진출해 신기동(新基洞)의 무명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8월 10일 아침에 210고지에서 369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때 인접의 제12연대 제3대대는 제15연대 제3대대와 함께 154고지를 공격해 12:30분에 이를 점령하였다. 제12연대 제2대대와 3대대는 이날 오후에 369고지를 협동으로 공격해 이를 점령한 후 제15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였다. 그러나 이날 자정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369고지를 빼앗겼고, 제12연대

(-1)는 제15연대 제1대대와 함께 3차에 걸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탈환에 성공하지 못하였다.[37] 다음날(8월 11일) 날이 밝자 제12연대(-1)는 369고지를 다시 공격하여 369고지를 점령하였으나, 8월 12일 20:00시에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에 따라 수암산과 유학산으로 이동해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제12연대는 제1대대는 학산동(鶴山洞)으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수암산 남쪽의 망정동(望亭洞)으로 이동해 다음 작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38]

(3) 제1사단 제11연대의 해평동 지역 전투

낙동리에서 낙동강을 건넌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는 후속부대의 도하를 엄호한 후 사단의 마지막 도하부대인 제12연대의 도하가 완료되자 1950년 8월 3일 오후 해평동(海平洞)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다.[39] 이 때 연대는 인덕동(仁德洞·선산군 산동면)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주평동(舟平洞)에서 해평동(海平洞) 사이를, 제2대대는 74고지-조명산(趙明山·140고지)-산양동(山陽洞) 사이를 점령하였다. 또 신병들로 편성된 제3대대는 문양동(文良洞) 일대에서 정비에 들어갔다. 이 때 제11연대는 북쪽에 배치된 제12연대가 후방으로 이동해 사단예비로 전환됨에 따라 연대의 동측부대인 국군 제6사단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11연대는 제6사단과의 간격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군 제13사단의 주력부대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제11연대와 북한군 제13사단과의 전투는 8월 4일부터 이루어졌다. 8월 4일 밤 낙동리에서 도하한 북한군 제13사단 연대병력이 아군과 접촉 없이 야간에 도로를 따라 남하해 다음날(8월 5일) 10:00시경에는 제2대대 제5중대의 74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고, 이에 제5중대는 인접 제6중대의 지원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사단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고 예비인 제12연대 제1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시켜 증원하게 하였다.[40]

북한군 제13사단(-)은 8월 5일 야간에 다시 제11연대 제2대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가 사격과 수류탄으로 끝까지 저항을 하였으나, 다음날 01:00시경에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152고지로 후퇴하였다. 이날 아침에 재편성을 마친

제2대대는 제12연대 제1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 공격해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 때 225고지를 공격하던 제12연대 제1대대도 야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제11연대의 작전 성공 뒤에는 유엔 공군과 사단 포병의 화력지원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41]

8월 7일 01:00시경 북한군 제13사단(-1)이 다시 제11연대 제2대대와 제12연대 제1대대를 우세한 병력을 앞세워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이에 제11연대 제2대대는 수적 열세와 진지 고수로 인한 병력 손실을 고려해 152고지로 후퇴하였으나, 이날 정오에 북한군의 재공격을 받고 152고지에서 다시 금호동(金湖洞)과 반포동(反浦洞)으로 후퇴하였다.[42] 이 때 제12연대 제1대대도 225고지에서 327고지로 물러났다.

한편 제11연대 제1대대는 168고지와 해평동 사이의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고, 제3대대는 정비훈련을 마치고 문양동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8월 7일 22:00시에 북한군 제15사단 예하의 대대병력이 도하해 제11연대 방어진지 측면에서 공격을 하였고, 전차를 수반한 북한군 제13사단(-)이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와 해평(海平)을 점령하였다. 이에 제12연대 제3대대가 이날 14:00에 상림동에서 오리골로 진출해 제11연대 제3대대 우측으로 전개하였다.[43]

8월 8일 새벽 북한군의 해평동 진출로 제12연대 제1대대가 327고지에서 적림동으로 후퇴하였으나, 제11연대 제2대대는 168고지를 고수하였다. 제12연대 제1대대는 이날 제12연대 제3대대와 함께 미 전투기의 지원에 힘입어 161고지와 반포동까지 진출하였다. 여기에는 미 공군의 활약이 컸다. 북한군은 미 전투기의 활동에 위축되어 주간 활동을 포기하고 야간활동만을 실시하였다.[44]

한편 북한군 전차 5대가 미 공군의 지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해평동의 하천 제방으로 기동하였다. 하지만 북한군 전차는 제11연대 대전차포 소대의 사격에 의해 4대가 파괴되었다.[45] 제1사단이 북한군 전차를 파괴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엔한국위원단(UNTOCK)의 인도 대표(나얄 대령)와 영국종군기자가 8월 12일 사진 취재차 현장으로 오던 중 아군이 매설한 대전차지뢰에 의해 모두 순직하였

다.[46] 당시 도로상에는 북한군 전차의 남하에 대비해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경계병이 배치되었으나, 이들은 급한 마음에 경계병의 제지를 무릅쓰고 지나가다 참변을 당하였다.[47]

8월 8일 오후 제11연대 제1대대가 제2대대의 우측방으로 전개하자 제2대대는 지역내의 북한군에 대해 역습으로 전환해 잔적들을 강변으로 격퇴하였다. 이로써 제11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이제까지 제11연대를 지원하던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날(8월 8일) 원대 복귀하였다.[48]

8월 9일 제11연대는 적과의 접촉 없이 확보된 진지를 계속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선산(善山)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북한군 제13사단의 대대 병력이 8월 10일 03:00시경 제11연대 제1대대가 점령한 161고지 우측으로 우회해 배후를 위협하였다. 이에 제2대대는 포병의 지원 화력을 받으며 반포동으로 철수하였다.[49]

제11연대 방어지역에서는 며칠간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8월 12일 다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날 14:00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제11연대 제3대대의 우측을 공격을 한 다음, 연대 전 정면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연대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분전하였다. 이 때 연대의 증원부대인 제12연대 제1대대가 문양동 일대에서 북한군 전차 1대를 파괴하였고, 미군 전투기가 4대를 파괴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의 공세가 둔화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반포동까지 진출하였다.[50]

한편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이 옥골(金谷)로 진출해 제11연대의 퇴로를 위협하자, 제2군단에서는 전반적인 전황을 검토한 후 새로운 방어선(Y선)으로의 철수를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8월 12일 20:00시 제2군단은 『군단작전명령 제12호』에 의거 신방어진지인 다부동(多富洞)으로 철수하게 되었다.[51]

(4) 제1사단 제15연대의 약목 일대 전투

낙동리에서 낙동강을 도하한 제1사단 제15연대는 1950년 8월 3일 오후에 부대이동을 끝내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연대는 지휘소를 소복동(召福洞)에 설치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봉두암산(鳳頭岩山・326고지)부터 201고지-369고지까지를, 제2대대는 옥계동(玉溪洞)을 중심으로 157고지-177고지-175고지를, 제3대대는 포남동(浦南洞)을 중심으로 328고지 일대를 점령하였다.[52] 이 때 연대 방어정면은 16㎞에 달하는 광정면이었다. 이후 제15연대는 8월 4~5일 동안 적정이 없는 가운데 진지보강과 부대정비를 하였다.

제15연대의 방어전투는 8월 5일에 경미하게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8월 5일 야음을 이용해 약목(若木) 일대에 진출한 북한군 제3사단 중대 병력이 은밀하게 도하하였으나 제3대대가 이를 격퇴하였다. 그렇지만 제1대대와 제2대대는 8월 6일까지 별다른 적정이 없었다.[53]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북한군이 왜관-다부동 축선에 주공을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8월 7일 사단예비인 제12연대 제2대대를 옥계동으로 진출시켜 제15연대 예비로 두었다. 이날 야간에 북한군이 164고지 일대로 도하하자 제2대대장(소령 안광영)은 박격포 사격으로 적의 도하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다음날(8월 8일) 01:00시경 북한군이 다시 전차(15대)를 앞세우고 급속도하를 감행해 아군의 포병사격을 뚫고 제1대대와 제3대대 지역으로 도하하였다. 도하에 성공한 북한군이 03:00시경 201고지를 점령한 후 제3대대의 154고지를 공격하였다.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사단 포병화력을 이곳에 집중시키면서 201고지 탈환을 연대장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때 369고지가 적에게 점령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이날 오후에 제3대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북한군은 8월 8일 164고지 부근에 수중가도를 설치해 전차를 도하시킨데 이어 2개 연대를 투입하였다.[54]

8월 9일 제15연대 제1대대는 201고지와 369고지를 빼앗긴 후 부대를 수습하고 06:00시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제3대대도 154고지를 공격한 북한군과 하루 종일 교전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이 때 북한군은 미 전투기의 공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 다음날인 8월 10일 제15연대는 01:00시를 기해 총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154고지를 빼앗겼다. 그러나 제12연대 제3대대의 증원을 받은 제15연대 제3대대가 154고지를 다시 탈환하였다.

한편 제15연대 제1대대는 8월 10일 오전에 201고지를 점령한 후 369고지를 공

격하였으나 201고지에 있던 북한군이 369고지로 퇴각해 저항하자 제1사단장은 제12연대의 주력을 증원해 369고지를 탈환하도록 하였다.[55] 그러나 이날 자정에 제15연대는 다시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방어지역을 상실하였다. 이에 제15연대는 병력을 수습한 후 8월 11일 오전에 제1대대는 201고지를, 제2대대와 제3대대는 369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이 때 제15연대는 미 전폭기의 지원을 받고 369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19:00시에 201고지를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이 때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낙동강 대안으로 퇴각하였다. 8월 12일 제15연대는 「군단 작전명령 제12호」에 의거 포남동의 328고지만 방어하게 되었다.[56]

(5) 전투 결과

국군 제1사단은 9일간에 걸친 낙동강 연안의 방어전투에서 거의 3개 사단에 이르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전과를 얻었다. 제1사단은 적 사살 6,800여명을 비롯하여 각종 포 23문, 전차 10대, 그리고 트럭 3대분의 각종 화기를 파괴하거나 획득하였다.

제1사단의 방어정면은 42㎞에 달하였으나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 것은 해평(海平)과 369고지 일대로 한정되었다. 북한군은 낙동강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특별한 도하장비도 없이 인력으로 수중가도(水中假道)를 설치하여 전차와 차량을 도하시켰고, 도보부대는 수심이 얕은 곳을 이용해 아군의 방어진지에 쉽게 접근하여 공격하였다.

제1사단이 낙동강 선에서 하천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데에는 사단 좌측부대인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낙동강 연안의 광정면에 걸쳐 전개해 방어했기 때문에 북한군에게 쉽게 도하할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정리에 배치되었던 제12연대도 광정면에 걸친 병력 배치 때문에 적에게 압도되어 남쪽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사단은 하천선을 이용하는 방어의 장점을 전술적으로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이는 하천방어의 이점은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저지하다가 적이 반쯤 도하했을 때 공격해 적을 격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제1사단의 화력의 열세와 병력의 미약, 그리고 넓은 방어정면으로 인해 불리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군 3개 사단도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제1사단의 완강한 방어와 강력한 역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때 북한군은 낙동강 대안에 교두보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였다. 특히 북한군은 유엔공군의 네이팜탄과 폭격, 기총소사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 이 무렵 개전 이래 막강한 전력의 원천이었던 북한군의 소련제 T-34전차도 미군의 신형 대전차 무기인 3.5인치 로켓포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제1사단은 이러한 토대위에서 낙동강 연안 방어선에서의 작전을 끝내고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거 포남동-수암산-유학산-다부동 북방을 연하는 Y선에서 새로운 방어를 하게 되었다.

2) 국군 제1사단의 주저항선 공방전(1950. 8. 13~8. 28)

(1) 개 요

국군 제1사단은 낙동강연안 전투를 끝내고 1950년 8월 12일 새로운 방어선인 270고지-수암산(519고지)-유학산(839고지)-신주막을 연결하는 20㎞의 정면을 담당하였다.[57] 사단은 8월 13일 주저항선 방어를 위해 제15연대가 328고지 일대, 제12연대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 제11연대가 다부동 접근로인 신주막 일대의 계획된 진지로 이동하였다.

한편 북한군도 8월 13일부터 제3사단 일부가 약목(若木) 일대에서 도하해 328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5사단은 제12연대 보다 먼저 유학산을 점령했고, 제13사단도 다부동 접근로상에 있는 제11연대 방어지역의 674고지를 선점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북한군은 8월 15일 328고지, 유학산, 다부동 접근로에서 일제히 공격하였다.[58] 이에 유엔군사령부도 8월 16일 이 지역에서의 북한군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B-29 폭격기 98대로 융단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황은 제1사단에게 계속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 제8군은 제1사단만으로는 다부동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8월

17일 군 예비인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이 지역에 투입하였고, 이어 미 제23연대를 투입해 사단 방어종심을 증가시켰다. 육군본부도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켜 사단의 측면을 보강해 주었다.

또한 사단에서는 매일 평균 600~700명의 병력 손실이 발생하자 신병과 학도병으로 보충해 나갔고, 부족한 전투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1개 대대에 평균 50~60명의 노무자를 지원해 탄약과 보급품을 운반하게 하였다.[59] 이러한 노력으로 8월 21일부터 제1사단의 전황은 점차 호전되었다. 이날(21일) 야간에는 다부동 계곡에서 6·25전쟁 최초로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북한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대규모 야간기습을 감행하였으나, 한미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오히려 막대한 피해만 입고 퇴각하였다.[60]

한편 제12연대는 그동안 8차례의 공격 끝에 23일 밤 최초로 야간기습을 감행해 유학산을 탈환하였다.[61] 그러나 이날 북한군 제1사단 제1연대가 제8사단 제10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741고지를 점령하고, 그 일부가 가산으로 침투하여 제11연대 지휘소와 미군 포병진지를 공격하였다. 이에 제1사단은 미 제27연대와 연합작전으로 신주막을 점령하고, 인접부대와 협조된 작전을 전개해 가산 일대로 침투한 적을 격퇴하고 741고지를 다시 점령하였다.

또한 제1사단은 8월 28일 주저항선에서 확보하지 못한 수암산을 탈환함으로써 다부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였다. 이후 제1사단은 미 제8군 명령에 의해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하고 새로운 방어지역인 팔공산-가산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제1사단장의 최후방어선 선정과 결전의지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사단 전투정면에서 북한군의 압력이 가중되던 1950년 8월 6일경 사령부로 사용하고 있던 오상중학교(五常中學校) 교실 벽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를 훑어보다가 문득 어느 한 지점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것은 다부동 지역이었다.

사단장은 다부동 일대의 지형을 정찰하고 나서 328고지-수암산-유학산-741



국군 제1사단사령부가 위치했던 오상중학교

고지를 연결하는 선에서 최후의 결전을 단행키로 결심하고 이를 제2군단에 건의하였다.[62] 백선엽 사단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즉 그는 'Y선(주저항선)' 방어개념에 합당한 유리한 지형을 찾았으나 군용지도가 없어 '대한민국 전도'에 의존하던 당시 형편으로 도상에서 산과 골짜기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답사한 끝에 가산산성과 다부동을 차후 사단방어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 두 지역이 대구 북쪽에서 부채꼴 형태로 감싸고 있어 아군이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찰을 마친 그는 사단으로 복귀해 사단참모장(석주암 대령)과 작전참모(문형태 중령)를 불러 "여태까지 전투지역은 참모인 당신들이 잘 건의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내가 직접 정하고 싶다. 이번 방어선이 우리의 최후가 될지 모르겠다. 가산과 다부동 일대를 정찰한 후 방어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은 다소 뜻밖의 표

정을 지으며 현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정찰을 나간 후 "그곳이 가장 좋은 방어선이 될 것"이라며 정찰결과를 보고하였다.[63] 이로써 사단의 방어선이 이곳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군단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최후 방어선이 결정되자 백선엽 사단장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새로운 방어선 개념을 설명하고 비장한 훈시를 하였다. 그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이 선이 사단의 최후 저지선이다.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대구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낙동강의 미군 방어선도 붕괴된다. 따라서 조국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 있다. 이 선은 내가 정했다. 성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부디 성공하여 명예와 기쁨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64] 제1사단은 전 장병이 혼연일치가 되어 이곳에서 미군 2개 연대의 증원을 받아가며 부산이 아니면 대구라도 8월 15일까지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대구 관문인 이곳을 탈취하고자 투입된 북한군 3개 사단의 집중 공격을 저지하고 이곳을 사수하였다.



다부동 전투시 작전 관계관들과 토의하고 있는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1950년 8월 23일)

(3) 제1사단의 주저항선 배치

육군본부는 낙동강 연안에서의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8월 11일 낙동강 주저항선으로의 철수를 육본작전명령으로 하달하였다. 육본작전명령에 의하면 "군은 차기 작전을 위해 8월 12~13일 야음을 이용하여 'X'선까지 8월 13~14일 야간에 'Y'선으로 이동하고자 함. 따라서 제1사단은 8월 12~13일 야음에 동(同) 지구 'X'선으로 이동한 후 8월 13~14일 야음을 이용하여 'Y'선으로 이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65]

이 무렵 국군 제2군단도 적정을 분석하고 이른바 워커라인에 의거하여 방어지대를 축소하는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 제2군단은 8월 12일 새로 작성된 작전계획에 의거 제1사단에게 주저항선으로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에 의하면, "제1사단은 1950년 8월 12일 20:00에 철수를 개시하여 상림동(上林洞)~다부동(多富洞)을 경유하여 'Y선(주저항선)'을 점령하라"는 것이었다.[66] 'Y'선은 303고지(鵲烏山・미제1기병사단 방어지역)-328고지-수암산-유학산-356고지-273고지(국군 제6사단 방어지역)-위천(제6사단 방어지역)을 연결하는 최후 방어선이었다.[67]

'Y'선에서의 제1사단의 방어정면은 20㎞에 달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예비를 확보할 병력의 여유가 없이 주저항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사단은 8월 12일 20:00시 적과 접촉을 끊고 주저항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 때 사단은 25번 도로 접근로를 방어하게 된 제11연대에 제15연대 제2대대를 배속하고 예하 3개 연대에 다음과 같이 방어지대를 부여하였다.

제1사단은 사단사령부를 다부동 남쪽 9㎞ 지점에 있는 동석동(東石洞)의 동명(東明)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 제15연대는 좌전방 부대로 다부동으로의 길목인 328고지를 중심으로 3㎞의 방어정면을 부여받았다. 제12연대는 중앙일선부대로 수암산-유학산-674고지를 중심으로 9.5㎞의 방어정면을 부여받았고, 제11연대는 우전방 부대로 356고지-297고지-석우동(石隅洞)을 중심으로 7.5㎞의 방어정면을 부여받았다.[68] 이에 제15연대(-1)는 8월 13일 328고지에 2개 대대로서 방어지대를 편성하였으며, 제12연대는 수암산과 유학산 주봉(839고지)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치할 계획이었다.

한편 8월 5일 제11연대에 배속된 제12연대 제1대대는 주저항선으로 철수할 때 배속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일단 사단사령부에 집결해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에 837고지(유학산 제2봉우리・주봉 동쪽 2㎞에 위치)에 배치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제12연대 제1대대가 집결지로 이동 중 837고지와 674고지(유학산 동쪽끝・다부동 북쪽 1.7㎞)를 적이 먼저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 두 고지를 탈환하는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69]

제11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상판동(上板洞・속칭 웃너실)-297고지 일대에, 제3대대와 연대에 배속된 제15연대 제2대대를 엄호부대로서 266고지-무명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8월 13일 사단 정면에는 우측 미 제1기병사단을 공격하던 북한군 제13사단이 약목 일대로 이동해 제15연대와 대치하고, 수암산-유학산 정면에는 북한군 제15사단이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제11연대 방어지역에는 북한군 제13사단이 접근하고 있었다.[70]

(4) 제15연대의 328고지 전투(1950. 8. 13~8. 30)

① 피아 상황

왜관 북쪽 5㎞ 지점의 328고지는 남북으로 약 2.5㎞ 밖에 안되는 나지막한 바위산(岩山)이다. 그러나 낙동강 기슭에서 약목 일대를 향해 횡격실을 이루고 있으므로 방어에 유리하며 이 고지 서쪽의 465고지-백운산(714m)으로 이어지는 능선 접근로를 따라 사단 후방지역과 303고지를 경유 왜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적의 도하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이다.[71]

제1사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15연대(-1)에는 다른 연대보다 훨씬 협소한 방어정면을 부여하여 이 고지를 사수하도록 하였다. 북한군도 이 고지의 전술적 이점을 간파하고 제3사단을 투입해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이에 제15연대도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328고지는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로 강을 이루는 시산혈하(屍山血河)"의 참상을 나타냈다.

제15연대는 8월 12일 야간에 방어지대를 부여받고 처음부터 이곳을 방어하던

제3대대를 좌측의 278고지·328고지 제2봉우리에, 제1대대를 우측의 328고지에 배치하고, 연대전투지휘소는 매남동(梅南洞)에 설치하였다. 연대 좌측부대는 작오산을 방어하는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였고, 우측부대는 수암산에 배치된 제12연대 제2대대였다. 연대 정면의 적은 8월 12일 밤 제3대대가 270고지로 이동한 것을 틈타 154고지를 점령한 후 328고지까지 접근해 있었다.[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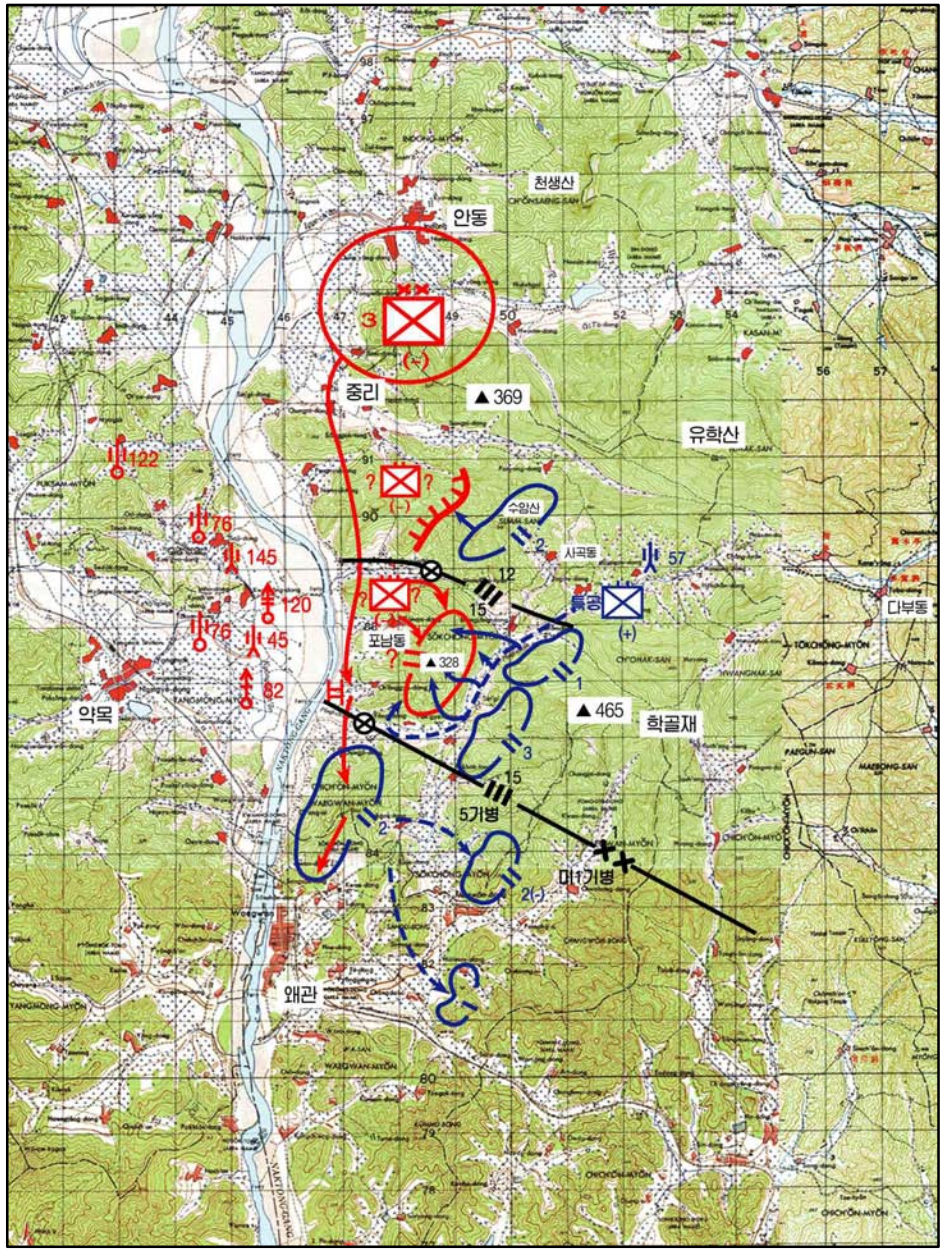
한편 제15연대 제1대대는 8월 12일 저녁 망정리(望亭里) 부근으로 이동한 뒤 다음날 새벽 328고지로 이동하였다. 이 때 제1대대는 328고지 전사면에 침투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제3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런데 암석 투성인 328고지의 7부 능선 이상에는 나무도 크게 자라지 못하고 군데군데 잔솔나무 몇 그루만 있는 평탄한 지형이었고, 더구나 20~30㎝만 파 내려가면 암반이 나오는 방어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래서 호(壕) 주위에 흙과 돌을 쌓아 올려 방벽을 만들어야만 하였다.[73]

한편 북한군은 8월 12일 밤 점령한 154고지를 예비진지로 삼고 낙동강 대안의 관선리(觀船里) 부근 과수원에 120밀리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포를 방열하고, 제15연대가 능선상에 노출되면 포사격을 가하였다. 이 때문에 아군은 호 속에서 꼼작도 하지 못하였다. 반면 연대의 지원포병인 제17포병대대 제3포대는 8월 13일 북한군이 674고지를 점령하자 삼학동(三鶴洞·일명 三幕)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15연대는 연대 대전차중대의 57밀리 대전차포(6문)와 대대의 81밀리 박격포(11문)만 있었다.[74]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군에게는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 공군이 있었다. 주간에는 L-5관측기가 전투지대의 상공에서 적정을 감시하다가 표적이 나타나면 즉시 전투기를 요청하여 이를 제압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주간공격을 회피하고 모든 전투행동은 야간에만 실시하였다.[75]

② 제15연대의 초기 방어전투

제15연대(-1)가 328고지에 진지를 편성한 8월 13일 밤은 오랜만에 궂은비가 내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이 때 북한군 연대병력이 마진(馬津)나루터의

<상황도 3-3> 제15연대의 328고지 부근 전투(1950. 8. 13~30)



수중가도를 이용하여 328고지로 접근해 왔다. 이날(13일) 자정 무렵 북한군은 아군 진지 전방 50~60m까지 접근해 온 후 제1대대 진내로 돌격하였다. 제1대대는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대응하였으나 적은 이미 진내로 들어와 백병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은 그믐밤의 비 내리는 야음을 이용해 제1대대 진전까지 접근해 기습적으로 돌격하였다. 제1대대는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전투경험이 부족한 신병이 과반수를 차지한데다 불의의 야간기습을 받고 진지 후사면으로 후퇴하였다.[76]

한편 좌측의 제3대대도 제1대대가 철수하자 곧 전투지경선이 설정된 안부 일대에 준비된 예비진지를 점령하고 북한군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대안의 적이 포격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진내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328고지-270고지 능선을 점령한 후 대대의 배후를 공격하자 반계동(潘溪洞)으로 철수하였다.[77]

제15연대(-1)는 8월 14일 날이 밝자 곧 적의 후속 병력이 증원되기 전에 2개 대대로 역습을 실시해 이날 08:00시에 328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전날 밤부터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항공지원을 못함으로써 고지 전사면의 기복이 착잡한 3~4부 능선에서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반면 낙동강 대안의 적 포병부대는 유엔 공군이 출격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고지의 7~8부 능선까지 진출한 아군에게 포격을 가하였다. 엄폐물이 없었던 국군 병사들은 적의 포탄에 암석과 살점이 난무하는 속에서 피해만 누적되어 갔다.[78]

적의 포병사격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자 고지 후사면으로 철수한 제15연대는 능선 정상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치열한 수류탄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30분도 못되어 수류탄마저 떨어지자 마침내 465고지 서측으로 무질서하게 철수하였다. 이 때 연대장 최영희 대령이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병력을 향해 안전거리를 두고 57밀리 대전차포를 발사토록 하였다. 그 때서야 무질서하게 후퇴하던 병사들을 수습해 혼란을 수습하였다.[79] 연대가 대전차포로 328고지의 적을 견제하고 있을 때 비가 그치면서 유엔 공군기가 출격해 지원하였다. 이에 제1대대와 제3대대는 465고지 서측에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부대를 재편성하

였다.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200여명이 손실되었고, 제3대대는 50%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제10중대는 98고지(270고지 남단)에 남아 인접 미군과 협조를 유지하였다.[80]

③ 제15연대의 주저항선의 회복

328고지가 위태롭다는 전황을 보고받은 백선엽 사단장은 연대지휘소를 방문하고 연대장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 입장에서 제15연대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증원해 줄 예비대가 없었다. 그런데도 연대장(대령 최영희)은 태연하게 "우리 연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특공대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곧 투입해 주저항선을 회복하겠으니 염려 마십시요?"라고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81]

제15연대가 자체적으로 예비대를 확보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제15연대는 7월 5일 증평(曾坪)에서 재편성할 당시 소속부대를 찾지 못한 각 부대의 낙오병을 수용해 1개 소대 규모의 특공대를 잠정 편성해 예비대로 확보하였다. 이후 연대장은 앞으로 전투가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학도병과 신병을 특공대에 보충하여 장교 4명, 하사관 10명, 사병 30여명으로 대폭 강화한 후 야간전투에 중점을 둔 훈련을 실시해 왔다. 특공대의 장비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서 2.36인치 로켓포 5문이 지급되었다.[82] 연대는 이 특공대를 8월 14일 밤에 328고지에 침투시키고 다음날인 15일 새벽에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역습할 때 배후를 교란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특공대는 이날 밤 망정리(望亭里)를 경유 98고지에서 북한군의 배후로 은밀하게 침투하였다.[83]

한편 적의 일부는 특공대가 침투를 개시한지 약 3시간이 지난 후에 전차 2대를 앞세우고 90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좌측방의 작오산(鵲烏山)으로 진출하였다. 이것을 지켜보던 98고지의 제10중대는 즉시 인접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에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전화선이 절단되어 있었다. 제10중대는 적의 측방사격을 받자 대대명령에 의거 465고지로 철수하였다.[84]

8월 15일 날이 샐 무렵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역습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이 아

군의 역습부대의 정면공격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특공대가 적의 배후로 돌격해 들어갔다. 제1대대는 예상치 못한 특공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고 있던 북한군을 격퇴하고 328고지를 탈환하였고, 제3대대도 270고지를 점령하였다.[85] 이 교전에서 특공대는 소대장(소위 이좌균·李佐均) 이하 10여 명이 부상한데 비해, 국군은 북한군 제3사단 제8연대 소속의 군관을 생포하였다. 포로가 된 북한군 군관은 "국군의 야간 침투와 기습공격으로 고지를 빼앗겼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날(8월 15일) 2개 연대가 증원되어 이곳을 공격준비진지로 하여 대구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포가 되고 말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타격이 적지 않았음을 실토하였다.[86]

그러나 제1대대 목표에서 후퇴한 북한군은 예상외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그들은 제15연대의 역습을 받자 일시 고지 정상에서 물러났지만 곧 154고지를 발판으로 반격을 기도하였다. 북한군은 8월 15일 13:00시부터 날씨가 흐려지며 내린 가랑비로 인해 유엔 공군기가 출격하지 못한 것을 알고 아군 진지에 포격을 가하였다. 이 때 특공대는 제3대대에 배속되어 제1대대와 제3대대 중간에서 방어진지의 연결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연대수색대도 제3대대에 배속되었다.[87]

8월 15일 밤 제1대대는 328고지 우측의 적의 접근로상에 매복조를 운영하였다. 이날 23:00경 매복조는 북한군 선발대가 매복지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전원 사살하였다. 이 때 대대 방어진지 정면으로 접근하고 있던 적의 본대가 이 총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가 발각된 줄 알고 일제히 사격을 하면서 공격해 왔다. 제1대대는 수류탄을 던지고 박격포의 탄막사격을 하다가 적이 방어진지 전방으로 육박하자 백병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계속해서 제파식 공격을 가해왔다. 북한군 선두공격제대는 남한에서 강제징집한 '의용군'으로 편성해 이들에게 술을 먹인 채 소총도 없이 수류탄만 주고 공격케 하였다.[88] 이들 북한 '의용군'은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하였던 것은 술을 먹은 탓도 있었지만, 다발총으로 무장한 독전대가 뒤에서 총을 겨누며 무자비하게 전선으로 내몰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접전이 3시간이나 반복되면서 제1대대는 병사 1인당 50여발씩 지급

된 수류탄을 모두 소모하였고, 그 결과 방어진지 전방에는 적의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북한군은 그들 시체를 방패삼아 수류탄을 던지면서 아군 진지로 침입하였다. 이처럼 치열한 전투가 반복되자 제1대대는 어쩔 수 없이 망정리로 다시 후퇴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 방어진지를 빼앗은 북한군이 328고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270고지로 진출하고, 좌측방의 작오산을 점령한 적이 측방에서 공격하자 제3대대도 할 수 없이 465고지로 철수하였다.[89] 다시 465고지에 급편 방어를 하게 된 제15연대(-1)는 재편성을 실시하고 적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역습을 준비하였다. 8월 15일 야간 적의 주공부대와 혈전을 치른 제1대대의 손실은 격심하여 전날 130명이었던 중대병력이 60~70명으로 감소하였고, 고참병은 중대별로 겨우 15~16명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제1대대는 대대본부 요원을 모두 차출하여 소총중대로 보내고 전날 대대에 도착한 신병 150명을 각 중대에 보충하였으나 이들은 훈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당시 대대의 모든 행정기능은 마비되었다.[90]

8월 16일 날씨는 쾌청하였고, 이에 L-5관측기도 정찰 활동을 하였다. 이날 역습을 실시하기 전에 제1대대와 제3대대는 328고지에 네이팜탄을 투하해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로부터 30분후 제15연대(-1)는 328고지의 적이 네이팜탄 공격으로 모두 전멸되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공격하였다. 그런데 적은 시체더미 속에 은폐하고 있다가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러한 전투가 4시간이나 계속되자 제15연대는 일단 465고지로 물러나 재편성을 하고 있을 때 낙동강 대안에 미 B-29에 의한 대규모 융단폭격이 실시되었다.[91]

1950년 8월 16일 13:00 재공격을 위해 공격부대가 전개하였을 때 사단 포병이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다는 통보를 받은 연대는 즉시 병력을 465고지로 후퇴시켰다. 그러나 제1대대와 제3대대 중간에 산개한 연대수색대는 포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20명의 대원이 희생되었다. 한편 공격을 개시한 연대는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육탄전을 벌인 끝에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날은 융단폭격이 실시된 탓인지 낙동강 대안의 북한군 지원포병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틈을 이용해 제15연대는 전사면 하단 907번 도로변까지 밀고 내려가 잔적을 소탕

함으로써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154고지는 적이 워낙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이를 탈환하지 못하였다.[92]

제15연대는 328고지-270고지의 최초 구축한 방어진지를 보수하고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주저항선 일대의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이미 썩은 시체에다 아직도 선혈이 낭자한 주검들이 더하여지고 골짜기마다 송장으로 메워져 있었는데 그 수는 어림잡아 1,000구를 넘었다. 장병들은 휴식을 이용하여 전장을 정리하였다. 지난 밤 제1대대 정면으로 공격하다가 죽은 적의 시체를 검색한 결과 그들이 소지한 수첩에 기록된 현주소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남한에서 강제로 동원된 '의용군'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제15연대가 다시 328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연대 좌측방의 작오산(鵲烏山)을 점령한 적의 퇴로가 차단되었으나, 미 제5기병연대는 역습을 실시하지 않았다.[93]

④ 미 전략폭격기(B-29)의 융단폭격

8월 14일 북한군 제3·제13·제15사단은 국군 제1사단 정면에서 각각 중앙돌파를 기도하였다. 즉 북한군은 미 제1기병사단의 우측 끝인 303고지와 제1사단 좌전방인 제15연대 정면에 북한군 제3사단의 주력이 낙동강을 도하해 압력을 가해 왔다. 미 제8군사령부 정보처에서는 왜관 북서쪽 부근에 적 3개 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집결하고 있으며 그 병력은 약 40,000명 정도로 추산하였다.[94] 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정보과에서도 수색대의 보고를 통해 연대 정면에 2개 사단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이러한 적정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고,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정찰을 실시한 뒤 적정을 육본에 보고하였다.[95]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적정을 보고받은 미 제8군은 전 전선에서의 북한군 공세로 인해 왜관 정면의 적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이 없었다. 이에 미 제8군 작전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Normandy) 상륙작전시 생로(Saint Lo) 지역에 감행한 융단폭격(絨緞爆擊)을 생각하고, 이를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에게 건의하였다. 융단폭격의 건의를 받은 맥아더 장군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을 불러 적의 집결지를 폭격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 14일 극동공군사령관은 미 폭격사령관과 이를 협의한 후 융단폭격을 실시하였다.[96]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8월 16일 융단폭격이 계획되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1950년 8월 14일 대구 전선(戰線)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왜관 일대의 미 제1기병사단 및 국군 제1사단 정면에 대한 융단폭격을 유엔군사령부에 건의하였다.[97]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아군 지상부대에 피해를 우려하여 우선 낙동강 대안(對岸)에 대한 폭격을 실시한 연후에 그 성과를 본 후 8월 19일에 다시 낙동강 차안(此岸) 일대에 폭격하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국군 제1사단 방어지역 좌측방, 즉 왜관교 북쪽을 폭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결과 1950년 8월 16일 일본 요코다(横田)와 가데나(嘉手納) 비행장에서 출격한 B-29 전략폭격기 98대가 이날 11:58~12:24분까지 26분간 400~900kg 폭탄 960톤을 투하하였다.[98]

융단폭격이 끝난 다음 폭격사령관 오도넬(Emmett R. O'Donnell) 소장은 폭격성과를 확인하려고 2시간 이상이나 목표지역 상공을 선회하였으나 폭격 뒤에 일어난 짙은 연기로 인해 정확한 전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8월 17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융단폭격의 성과는 현재로는 불명하다고 보고하였다. 폭격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지상정찰대를 침투시켰으나 목표 지역에 이르지 못하였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정찰대도 도하하려다가 적의 사격 때문에 저지되었다.[99]

이처럼 융단폭격이 끝난 뒤 공중 및 지상관측으로부터는 전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2차로 계획된 19일의 융단폭격은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트메이어(Stratemeyer) 중장이 건의하자 맥아더 사령관은 낙동강 동부지역에 실시할 제2차 폭격을 취소하였다.[100] 그러나 그 이후 한 동안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방어지역에 대한 적의 포격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그 후 포로진술에 의하면 강 서쪽에 배치된 적의 포병과 공병, 통신, 전차, 탄약, 보급품 등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그 부근 적의 보병은 이미 도하해 아군 정면에 전개하고 있었다.[101]

융단폭격이 끝난 8월 16일 저녁 제15연대 제1대대 정보장교(한인성 대위)는 연대로부터 대안의 적정과 폭격성과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5명으로 편성된 수색조를 이끌고 낙동강을 건너 융단폭격 지역 100m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적 1개 소대와 조우한 수색조는 적과 총격전을 벌인 후 복귀하였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에서도 융단폭격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투정찰대를 침투시켰으나 적의 매복조에 걸려 폭격지역에 접근하지 못하였다.[102]

당시 북한군 제2군단 통신대 소속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였던 북한군 김윤문(통신장교) 소좌는 융단폭격에 대해 "B-29의 융단폭격으로 북한군의 손실은 매우 컸다. 약목 부근 낙동강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3사단 및 제15사단의 예비대·지원 포병 그리고 공병·전차·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고 유선이 모두 절단되어 대혼란이 빚어졌다. 북한군 제2군단장 김무정(金武亭)을 비롯한 군단 간부들은 이때부터 동요되어 승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이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북한군 제2군단에서는 B-29 120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말도 못하게 하여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103]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군은 융단폭격에 의해 물심양면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북한군의 공격 재개와 전장의 참상

북한군은 8월 20일 밤부터 융단폭격 이후의 소강상태에서 벗어나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는 융단폭격에 파괴된 그들의 지원화력이 보강된 징후였다. 아군은 적이 포격을 실시할 때 생기는 섬광을 보고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 미군 포병 관측병에 통보하였고, 그러면 다음날 주간에 아군은 대포병 사격과 공중공격으로 이를 공격하였다. 이 방법은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104]

제15연대는 8월 20일의 혈전으로 대치한 북한군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154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연대수색대에 적정 수집을 지시하였다. 이날(20일) 밤 23:00시경 연대수색대(32명)는 154고지 배후로 우회하여 목표로 접근하여 적정을 탐지하였다. 연대수색대는 적의 훈련정도가 매우 미숙하다는 것을 조우시

그들의 행동에서 알았다.[105]

제15연대가 328고지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육군본부에서는 제1사단이 일보(日報)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규명하기 위해 8월 21일 사단을 방문하였다. 육군본부 고급부관실(高級副官室) 중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단이 사단을 방문하자 사단에서는 제15연대 제3대대로 이들을 안내하였다. 제3대대장은 행정규정만 따지는 그들에게 "전장에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뒤 270고지로 그들을 직접 안내하였다. 270고지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시체 썩는 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또 고지에 올라가자 포탄이 그들 근처에 떨어지는 등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 후 육군본부에서는 제1사단에 일보를 제출하라는 독촉을 하지 않았다.[106]

한편 제1사단의 보병대대에서는 신병이 도착하면 명단도 작성할 겨를도 없이 소총중대에 보충되므로 누가 전사하고 어느 병사가 후송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황이 급박하였다. 심지어 중대장과 소대장도 자기 부대의 현재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2~3명씩 희생되고 하룻밤의 격전을 치르고 나면 총원의 30~40%가 손실되어 다음날 아침 또 신병이 보충되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나중에는 분대장이 분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기억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몰한 병사들을 무명용사로 일괄 처리되었다.[107]

⑥ 제15연대 제1대대의 328-270고지 쟁탈전

제15연대와 대치한 북한군은 8월 22일 18:45분부터 아군진지에 맹렬한 포격을 집중하다가 21:00시에는 154고지에서 소화기를 사격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북한군은 전날 격멸된 연대와 부대교대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5연대는 미군 포병관측반과 협조해 소총중대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으며 주저항선에 배치된 각 중대는 적이 전반야(前半夜)에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였다.[108]

그러나 북한군은 아군의 예상을 깨고 자정이 지나도록 사격만 하다가 01:00시경 154고지에서 328고지로 연결된 능선 접근로에 약 2개 대대를 투입해 정면 돌파를 기도하였다.[109] 그러나 이 때 제15연대는 미 제5기병연대로부터 포병 1개 포대의 직접지원을 받고 있었고, 또 제3대대 전투지휘소에 위치한 미 포병관측반과 전방항공통제반(FACT: Forward Air Control Team)을 통해 충분한 화력을 지원받고 있었다.[110] 북한군은 예전처럼 국군의 야간 지원화력이 보잘 것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시에 아군의 일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이 돌격선에 전개하는 즉시 탄막사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돌격을 감행하다가 아군의 탄막사격에 의해 진전에서 격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병력을 몰아넣고 1개 돌격제대의 공격이 실패하면 또 다른 제대로 하여금 초월 공격케 하는 제파식 공격을 4시간 동안이나 반복하였다. 이는 북한군을 양성한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한 전법으로서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특화점(特火點)이나 강력하게 편성된 목표를 공격할 때 공격부대지휘관이 공명심과 상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만 내고 실패한 전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소련군의 전통을 물려받은 북한군인지라 그들은 낙동강 전선에서 아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와 같은 무모한 공격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특히 328-270고지를 목표로 한 북한군 제3사단은 이 전법으로 시종일관하였다.[111]

이날 밤 북한군은 끝내 제1대대 방어진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진전에서 모두 격퇴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군 지원 포병의 효과적인 지원사격이 큰 위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용기를 얻은 제1대대 장병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적을 저지하였다. 북한군이 공격을 중단한 얼마 뒤 날이 밝아지고 북한군 병사 1명이 제1대대에 귀순하였다. 그 병사는 "나는 의용군으로 끌려와 3일전에 이 전선에 도착하였다. 전날 밤 공격을 시작할 때 우리 대대 병력은 300여명이었으나 거의 전멸되어 369고지로 후퇴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의 병력은 그 대부분이 강제로 동원된 의용군이며 사기가 몹시 저하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112]

제15연대는 8월 23일 과로로 말미암아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제1대대장을 잠시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유재성(劉載成) 소령과 교대시키는 한편, 지난 밤 교전에서도 수 없는 손실이 발생된 제1대대에 연대 특공대 병력 일부를 차출하여 보충하였다. 이날 낮 구름이 두텁게 낀 관계로 공중지원이 제한되자 대치한 북한군은 지난밤의 참패를 설욕이라도 하듯 포격을 가하였다. 이 때 제3대대 작전장교와 미군 관측반은 270고지 정상에서 적 포병진지의 위치를 확인하던 중 부근에서 폭발한 포탄에 미군 관측장교는 전사하고, 제3대대 작전장교는 부상하여 후송되었다.[113]

그러나 그 직후 미 전방항공통제반의 요청에 의해 출격한 B-26경폭격기 2개 편대가 적 포병진지를 강타하자 그들의 포격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연대 정면의 북한군은 328-270고지를 돌파하려는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이날 밤 그들은 또 다시 공격부대를 교체해 20:00시부터 제1대대 정면으로 돌격해 왔다. 1개 돌파제대가 아군 진전에서 격멸되면 독전대가 다발총으로 위협하면서 다음 제대를 몰아세우는 파상공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죽음의 돌격이 무려 10회나 되풀이 되자 제1대대는 탄약이 바닥이 났다.[114]

이에 제1대대는 연대의 승인을 받아 270고지 후사면으로 철수하는 즉시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이 때 북한군은 그 전과 같이 정상으로 진출하여 270고지로 전진하려 할 때 미군 105밀리 곡사포의 일제사격에 의해 10여분 만에 격멸 당하였다. 제1대대는 포격이 끝나자 곧 역습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115]

제15연대는 이때가 154고지를 탈환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8월 24일 여명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대대는 약 15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일제히 공격하자 북한군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369고지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로써 개전 초기 북한군으로부터 '서울사단'이라는 칭호를 받고 무적을 자랑하던 북한군 제3사단은 328-270고지를 방어하던 제15연대(-1)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마침내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116]

⑦ 제15연대 진지 교대

1950년 8월 23일 밤 아군이 승리한 이후 적의 공격은 중단되었다. 항공관측에 따르면 전방의 적은 369고지-201고지(하의산·霞衣山) 일대에 집결한 징후가 포착되었으나 그들이 공격을 재개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8월 26일에는 약목 일대에 적 증원 병력이 집결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측방의 369고지-수암산은 여전히 적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공격준비를 완료하면 언제든지 그 고지를 공격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117]

8월 29일 제15연대는 사단 작전명령에 의해 328-270고지를 미 제5기병연대에 인계하고 다부동에 집결하였다.[118] 이 때 진지교대를 하게 된 미군은 격전을 치르고 난 전장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국군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전하였는가를 알았다. 각 개인호에는 5~6구, 골짜기에는 30~40구의 시체가 쌓여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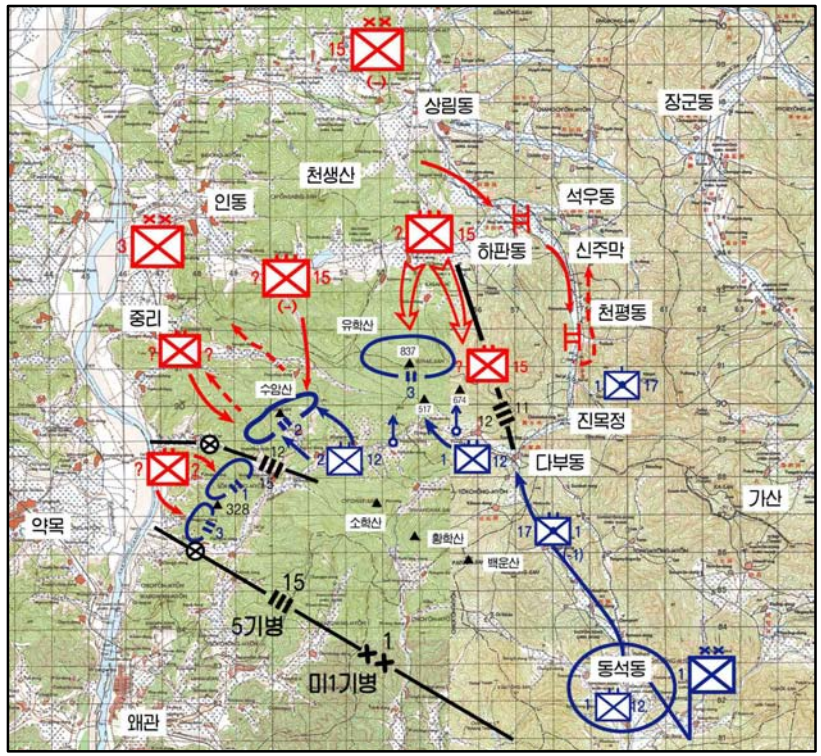
(4) 제12연대의 유학산과 수암산 전투(1950. 8. 14~8. 30)

① 북한군의 유학산 837고지 선점

유학산은 대구 방어의 관문이자 전술적인 요충지였다. 방자(防者)가 이 고지를 장악하면 적의 보전협동부대의 주 접근로인 5번 도로를 제압하는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공자가 이를 확보하면 대구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발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유학산은 다부동 결전장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고지가 1950년 8월 13일 오후 아군 병력이 배치되기도 전에 적의 수중에 먼저 들어가고 말았다. 사단의 중앙 일선을 담당하게 된 제12연대는 8월 13일 아침에 제2대대를 수암산에, 제3대대를 유학산 주봉인 839고지에 각각 배치한데 이어, 제11연대에 배속되었다가 원대복귀하게 될 제1대대를 837고지(유학산 제2봉·주봉 동쪽 1.8㎞)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제1대대가 배치되기 전에 북한군이 8월 13일 13:00시경에 먼저 이를 점령하였다.[119] 즉 837고지를 선점한 북한군은 제11연대가 해평 일대에서 철수할 기미를 포착하고 그

<상황도 3-4> 제12연대의 유학산-수암산 전투(1950. 8. 13~30)



뒤를 추격하였다. 그 중 일부가 제1대대가 배치될 837고지를 점령한 후 674고지로 진출하였다. 이 때 하판동(下板洞)-신주막에 배치된 제11연대 제1대대는 전후 양측에서 적의 협공을 받게 되자 다부동으로 철수해 674고지 동측 사면으로 진출해 적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받은 사단장은 이날 14:00시경 제12연대장과 사단 작전참모를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 제1대대장(소령 한순화)에게 유학산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제1대대는 17:00시경에 674고지 맞은편의 517고지 하단에 병력을

배치하고 지형을 정찰 한 후 다음날(8월 14일) 공격하기로 하였다. 8월 14일 날이 밝자 제1대대는 2개 중대로 여명공격을 하였으나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4~5부 능선에서 멈추었다. 제1대대는 14:00시 포병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2차 공격을 실시하여 정상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이 때 유엔 공군기가 목표에서 재편성중인 아군을 적으로 오인 폭격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역습한 북한군에게 다시 고지를 빼앗겼다.[120]

674고지는 유학산 제2봉인 837고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으로 연결된 고지로서 등고선 560m 지점에서 갑자기 경사도가 가파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정상에서 수류탄을 던지면 8부 능선까지 그대로 굴러 가며 폭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837고지는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였으나 공격하기에는 매우 힘든 지형이었다. 제1대대는 이날 2회에 걸친 공격을 통해 얻은 교훈은 산악전에서는 부대를 경량화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1대대는 공격중대에 배속에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소대를 직접지원으로 전환시키고 소총중대의 60밀리 박격포를 3~4부 능선에 방열시켜 근접지원 하도록 하였다.[121]



낙동강 쪽에서 바라본 다부동 지역의 능선자락

8월 15일 08:00시 제1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때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었으나 포탄이 정상 뒤쪽의 계곡과 능선에 떨어지거나 사거리를 줄이면 전사면에 근탄이 생겼다. 그래서 공격부대는 5~6부 능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격을 연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목표 정상 부근은 경사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사거리 측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대는 3회에 걸쳐 공격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약 1개 대대로 증강된 적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었다. 이를 주시하고 있던 사단에서는 674고지를 제11연대가 담당하도록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주었다. 이에 제12연대 제1대대는 674고지를 제11연대 3대대에 인계하고 둔현(屯峴, 다부동 서쪽 2㎞)으로 이동하였다.[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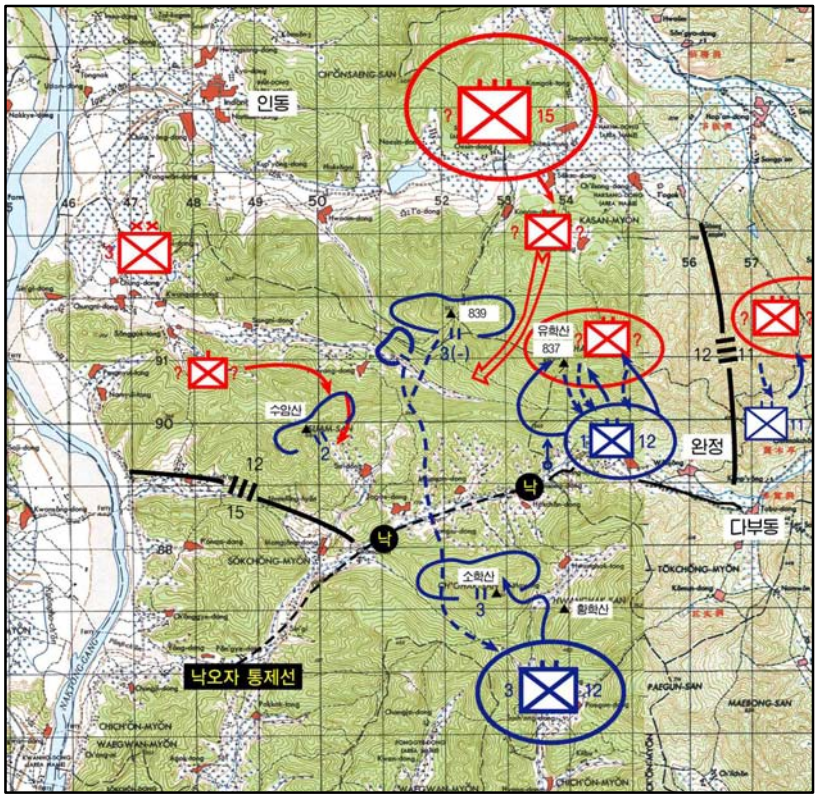
② 유학산 837고지 공방전

제12연대 제1대대는 이날 밤(8월 15일) 837고지 일대에 대한 수색을 통해 1개 대대의 적이 유개호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유학산은 해발 800m 이상이 되는 능선이 동서로 4㎞나 뻗어 있는 험준한 고지였다. 특히 북한군이 이용할 수 있는 유학산의 북쪽은 경사가 완만해 정상에 오르기 쉬운 반면, 아군이 공격하게 될 남쪽은 경사도가 심하고 700m 지점에서 정상까지는 암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맨 몸으로 오르기에도 힘들 지형이었다. 더구나 837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능선은 3~4개소뿐이었고, 그나마 1개 분대가 겨우 산개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또한 측방으로 우회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적이 정상에서 유개호만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게 될 제1대대의 입장에서는 탈취하기 어려운 공격목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16일 제12연대 제1대대는 837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이날 14:00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경사도가 가파르고 포병지원사격이 지형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공격에 실패하였다. 제2대대장은 임무수행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다음날 정면공격을 재개하되 만약 실패할 경우 공격중대는 고지 하단까지 내려오지 말고 산중턱에서 재편성하도록 하였다.[123]

<상황도 3-5> 837고지의 소모전



한편 이날(8월 16일) 밤 03:00시경 연대 중앙일선인 제3대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유학산 주봉에서 철수하였고, 적은 그 여세를 몰아 997번 도로변의 517고지를 점령하였다. 날이 밝자(17일) 상황은 아군에게 매우 위태롭게 전개되었다. 517고지를 점령한 적이 제15연대와 제12연대 제2대대의 주보급로인 997번 도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사단방어지역 좌측방이 언제 돌파당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837-674고지에는 적이 계속 증원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

하게 돌아가자 사단장은 제12연대 전투지휘소에, 연대장은 제1대대 관측소로 나아가 837고지 탈취를 독촉하였다. 즉 사단장은 제1대대가 837고지를 공격함으로써 517고지에 증원될 적을 견제할 의도였다.[124]

그러나 이날 새벽 실시한 제1대대의 837고지에 대한 공격은 실패하였다. 이는 제1대대가 칡덩굴과 암석, 잡목으로 뒤엉킨 절벽 중턱까지 올라가면 위에 있던 북한군이 수류탄을 던져 이를 저지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8부 능선에 머물며 재편성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적의 사격 때문에 주간에 보급품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대에서는 야간에 노무자를 동원해 보급품을 추진하였으나 이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 제1대대장(한순화 소령)은 "유학산 전투의 절반은 노무자들이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숨은 공로와 희생정신을 높이 찬양하였다.[125]

8월 18일 08:00시에 제1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9부 능선에서 저지되었다. 이에 대대는 8부 능선으로 물러난 후 오후에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9부 능선의 적진 50~60m까지 육박하였다. 그런데 이때 유엔군 1개 편대가 나타나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폭격함으로써 제1대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때 정상에 있던 북한군의 수류탄 공격으로 제1대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유엔 공군의 오폭이 발생하자 이날(18일)부터 대대관측소에 미군 전방항공통제반이 파견되었다.[126]

8월 19일 이른 새벽 제1대대는 공격을 재개해 8시간 동안 혈투를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대대에서는 정보장교를 조장으로 한 각 중대 소대장 4명으로 수색대를 편성해 목표지역에 침투시켰다. 이날 23:00시경 장교수색대가 837고지 정상 부근에 접근해 북한군 병사들이, "서울을 내놓을망정 유학산 만은 어림없다"는 말을 들었다.[127] 대대장은 장교 수색대의 이 보고를 받고 적이 얼마나 유학산을 중요시 하는가를 짐작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목표를 꼭 탈취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8월 20일 06:00시 837고지 7~8부 능선에서 목표를 향해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이번에도 암반을 기어올라 공격하는 아군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제1대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선

두분대가 격멸되면 다음 분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10여 차례 공격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접근로에는 아군의 시체가 수북하게 쌓였고 골짜기마다 선혈이 흘러내렸다.[128]

한편 유학산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15사단은 8월 20일 밤 제13사단과 교대하였다. 제12연대는 이러한 적의 동정을 모른 채, 8월 21일 새벽에 837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결사대를 편성하였다. 제1대대는 이번 공격에서는 정면 돌파를 지양하는 대신, 고지 측면의 790고지-837고지-820고지를 차례로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이들 고지에 좌로부터 제1(820고지)·제2(837고지)·제3(790고지)봉이라는 번호를 부여하였다.[129]

8월 21일 새벽 공격을 개시한 결사대는 먼저 제3봉으로 접근해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이를 탈취하였다. 이어 결사대는 여세를 몰아 제2봉도 탈환한 후 정오경에는 제1봉까지 진출하였다. 전날까지 대대가 정면에서 공격할 때에는



다부동에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을 안내하고 있는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1950년 8월 23일)

악착같이 저항하던 적도 측방에서 기습공격을 받자 쉽게 무너졌다.[130] 그러나 잠시 후 후퇴했던 적이 치열한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다시 공격함으로써 결사대는 다시 제3봉으로 철수하였다. 제3봉에서 하룻밤을 지낸 결사대는 재편성이 끝나는 즉시 공격을 재개해 제2봉의 전방 30m 전방까지 접근하였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은 주간공격으로는 목표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3봉으로 철수한 후 긴급항공지원을 요청해 적을 견제하였다.[131] 제2대대는 야간에 수색조를 통해 적이 공격할 기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습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1대대는 8월 23일 02:00시에 드디어 837고지를 탈취하였다. 제1대대는 9회에 걸친 백병전과 천여명의 손실 끝에 8일 만에 목표를 탈취하였다.[132] 이날(8월 23일) 동석동 동명초등학교에 위치한 제1사단 사령부에는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을 비롯해 방한 중인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방문해 제1사단의 용전을 치하하였다.[133]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동명초등학교의 제1사단사령부를 방문(1950년 8월 23일)

한편 좌측의 제3대대도 이날(8월 23일) 06:00시경 유학산 주봉을 탈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유학산에서 연결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제12연대는 비로소 유학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③ 제12연대 제3대대의 유학산 주봉(839고지) 탈취

8월 21일 새벽에 제12연대 제3대대는 전날(8월 20일) 연대에 배속된 제10연대 제3대대의 엄호하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 고지를 점령할 결심으로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적의 끈질긴 저항으로 막대한 피해만 입은 채 실패하였다. 다음 날(22일) 제3대대는 다시 연대특공대를 배속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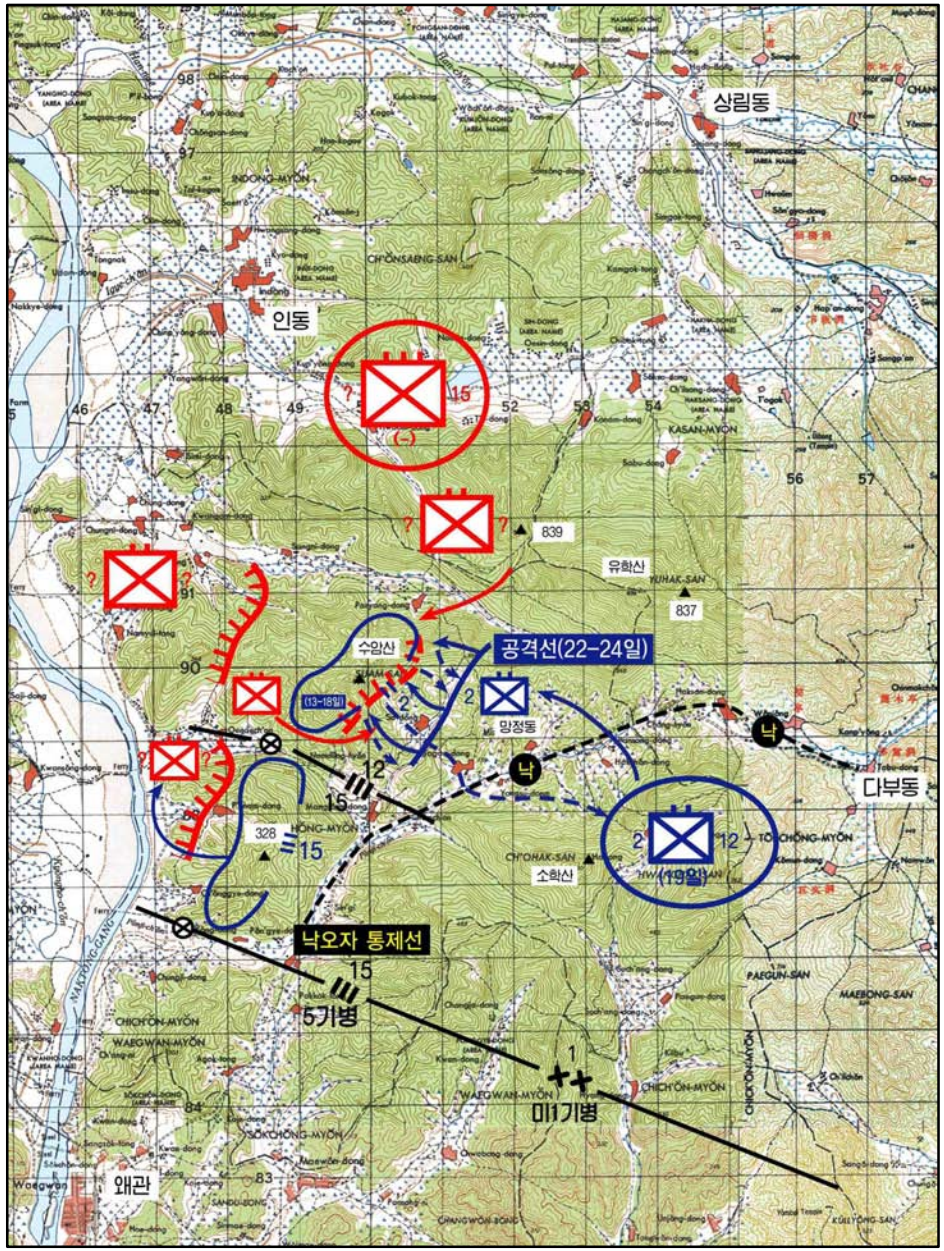
전투력을 보강한 제3대대는 주간공격으로 고지를 점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야간공격을 계획하였다. 제1대대는 8월 23일 새벽 03:00시에 은밀하게 목표로 접근하였는데, 때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여 목표 접근이 용이하였다. 제3대대는 적의 배치가 미약한 주봉 남쪽의 절벽지대로 침투한 예하 제9중대의 활약으로 주봉을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제3대대가 야간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해가 뜰 무렵에야 개인호로 가다가 기습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였다. 유학산 주봉인 839고지에서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던 것은 지난 밤 우측의 제1대대가 837고지를 공격할 때 이곳에 배치된 병력의 일부가 그곳에 증원되었기 때문이다.

제3대대가 유학산 주봉을 점령한 뒤 고지 정상 일대와 남측 경사면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점에는 북한군의 예비진지가 구축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적의 방망이 수류탄이 50~60발씩 쌓여 있었다. 제3대대는 정상 일대를 장악한 후 고지 북쪽으로 전과를 확대하고 인접 제1대대와 연결하여 유학산에 방어태세를 갖추었다.[134]

④ 제12연대 제2대대의 수암산 전투

제12연대 제2대대는 8월 12일 밤 주저항선으로 철수하는 제3대대를 엄호한 다음 제6중대를 수암산(水岩山)에 잔류시키고, 대대(-)는 망정리(望亭里)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제2대대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69고지 공방전을 치르는 동안 전투력이 약화되어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35]

<상황도 3-6> 수암산 전투상황(1950. 8. 19~24)



한편 369고지로 진출한 적은 아군의 철수를 눈치 채고 수암산으로 접근하다가 제6중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후퇴하였다. 북한군은 그 뒤에도 2회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제6중대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대신 북한군은 공백상태로 방치된 316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제2대대는 다음날(8월 14일) 아침 제5중대로 하여금 316고지를 공격케 하고 나머지 주력은 수암산으로 올라가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316고지 북쪽에서 협공하여 이를 탈환하였다. 제3대대는 이곳에 대대관측소를 설치하였다.[136]

수암산은 997번 도로를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69고지-소학산(巢鶴山)-동석동 접근로를 제압할 수 있는 요지였다. 제12연대 제2대대는 방어지대 북쪽에 집결한 적 1개 연대와 369고지에 거점을 구축한 1개 대대 규모의 적에게 반월형으로 포위된 상태였다. 제2대대장은 이러한 적정을 감안한 끝에 수암산이 비록 방어에 유리하더라도 수세일변도의 방어로는 이 고지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369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137]

이에 따라 8월 15일부터 매일 낮에는 아군이 공격하고 밤에는 적이 공격하였기 때문에 시일이 지날수록 대대전투력은 감소되어 갔으며 대대 좌측의 328고지에서 격전이 벌어지자 보급사정이 악화되었다. 이는 적이 328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는 망정리-사곡동(寺谷洞)-수암산 정상에 이르는 보급 운반로를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대안과 성곡동 일대에서 발사되는 적 포탄이 수암산 남쪽 3~4부 능선에 떨어짐으로써 노무자의 손실이 하루에도 50~60명씩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보급로에서 대대 방어지역까지 보급품 도수운반 거리가 멀고 지형이 착잡한 탓으로 노무자들이 밤에 보급품을 운반 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대 장병들은 하루에 한 끼니의 주먹밥으로 연명하고 때로는 보급품이 전혀 추진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대대로서는 무엇보다도 탄약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공세행동을 실시할 수 없었다.[138]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대는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목표인 369고지가 사단 포병의 사정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화력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8월 18일 아

침에는 2개 중대를 동시에 투입해 치열한 근접전을 반복하였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 무렵 병사들은 굶주림과 주야로 계속되는 전투에 시달려 몸이 쇠약해졌다. 이는 대대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이날(8월 18일) 밤 적 약 2개 대대가 성지골을 우회하여 수암산 정상 우측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하고 그들의 조공부대는 남등고개 부근에서 316고지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아군은 그동안의 피로와 굶주림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졌다.[139]

8월 19일 13:00시경 제2대대는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병력이 분산되었다. 이때 대대장은 실종되고 많은 병력이 손실되었다. 제2대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보급부진으로 인한 굶주림과 탄약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무리한 공격을 반복한 것이 전투력의 손실을 가속화시켰다.[140] 제2대대는 행정요원 70여명과 신병 300여명을 보충 받아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날(8월 19일) 제2대대 좌측의 제15연대도 328고지에서 465고지로 철수하였고, 우측의 제12연대 제3대대도 황학동(黃鶴洞)에서 재편성 중에 있었다. 이때 수암산을 점령한 적과 328고지의 적이 협조된 공격을 하게 된다면 후방에 예비진지를 준비하지 못한 아군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적 또한 공격할 여력이 없었는지 328고지-수암산-517고지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141]

재편성을 마친 제2대대는 8월 20일 아침 사곡동(망정리 북쪽 1.2㎞)[142]으로 진출해 정면의 적을 견제하였다. 대대는 이곳에서 21일까지 역습준비를 하였다. 이 무렵 19일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제2대대장 조성래(趙成來) 소령이 연대본부로 복귀해 대대를 지휘하였다. 8월 22일 04:00시 대대는 목표인 수암산과 316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음날(8월 23일)도 대대는 2회에 걸쳐 공격을 반복하였지만 병력 손실만 입은 채 목표를 탈취하지 못하였다. 대대장은 인접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유학산을 탈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몹시 초조해졌다.[143]

제2대대장은 다음날(8월 24일) 목표의 9부 능선까지 접근하였으나 적이 던진 수류탄으로 인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제2대대는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고



수암산에서 적정을 살피고 있는 제12연대장 박기병 대령과 제2대대장 조성래 소령

적과 치열한 근접전을 벌였으나 피해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중대장과 소대장이 전사 및 부상으로 후송되자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하사관을 중심으로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역부족이었다. 병사들은 대대장의 독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퇴하게 되었고, 대대는 망정리-도개동(道開洞)에 설치된 낙오자 통제선에서 연대헌병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수습되었다.[144]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연대에서는 즉시 긴급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정면의 적을 수암산 일대에 고착시키는 동시에 전투부대의 사기를 고려하여 낙오자 통제선에 패잔병을 무리하게 다룬 연대헌병대 대신 연대 수색대를 파견하여 이를 수습하였다. 당시 연대전투상보에는 이날(24일) 대대 총 손실 349명 중 295명이 실종으로 기록되었다. 목표와 공격개시선 간의 거리가 1㎞ 안팎인 전장에서 실종 발생률이 총 손실의 84%인 것을 고려할 때 그 혼란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145]

제2대대가 다시 참패하자 연대와 사단에서는 야단이 났다. 사단방어지역 전역에서는 주저항선을 회복해 전과확대를 하고 있는데 수암산에서만 거듭 패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8월 29일~30일에 사단방어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 인

계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제1사단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수암산을 탈환해야 했다. 그래서 제2대대에 신병 50명을 추가 보충하고, 연대특공대를 배속해 다시 공격하도록 하였다.

8월 25일 10:00시 연대특공대가 316고지를 탈취한데 이어 오후에는 수암산의 6~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이 때 연대특공대가 산개한 지역에 계획에 없던 아군 포병사격으로 연대특공대는 총원 130명 중 부상당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9명뿐이고,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연대특공대는 대대장 지시로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연대로 복귀하였다.[146]

제2대대(-)는 연대특공대의 참화와 관계없이 25일 밤 가듬이재(사곡동에서 성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진출해 이곳에서 수암산 능선 북쪽으로 진출하였다.[147] 얼마 후 대대(-) 선봉인 제8중대장이 선두에서 돌격해 육박전을 벌인 끝에 목표 정상을 탈환하였다. 이에 제8중대장은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고 대대에서는 이를 즉각 연대와 사단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가 점령한 것은 수암산 정상에서 40m 동쪽에 위치한 513고지였다. 날이 밝자 수암산 정상의 적이 기관총 사격을 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다. 결국 제2대대는 수암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교대하게 되었다.[148]

⑤ 제12연대의 진지교대

제12연대는 8월 29~30일에 수암산-유학산의 방어진지를 미 제7기병연대에 인계하고 다부동에 집결하였다. 연대는 9㎞에 달하는 광정면을 담당해 방어 아닌 공격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투지와 인내로 극한상황을 극복하였다. 하지만 사단내에서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노무자의 희생 또한 적지 않았다. 그 만큼 제12연대는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149]

(5) 제11연대와 미군의 다부동지역 전투(50.8.14-30)

① 제11연대의 최초 배치

제11연대는 사단 우전방으로서 신주막(新酒幕)-진목정(眞木亭)-다부동 일대의 방어를 책임지게 되었다. 연대는 8월 12일 밤 해평천 방어진지에서 신주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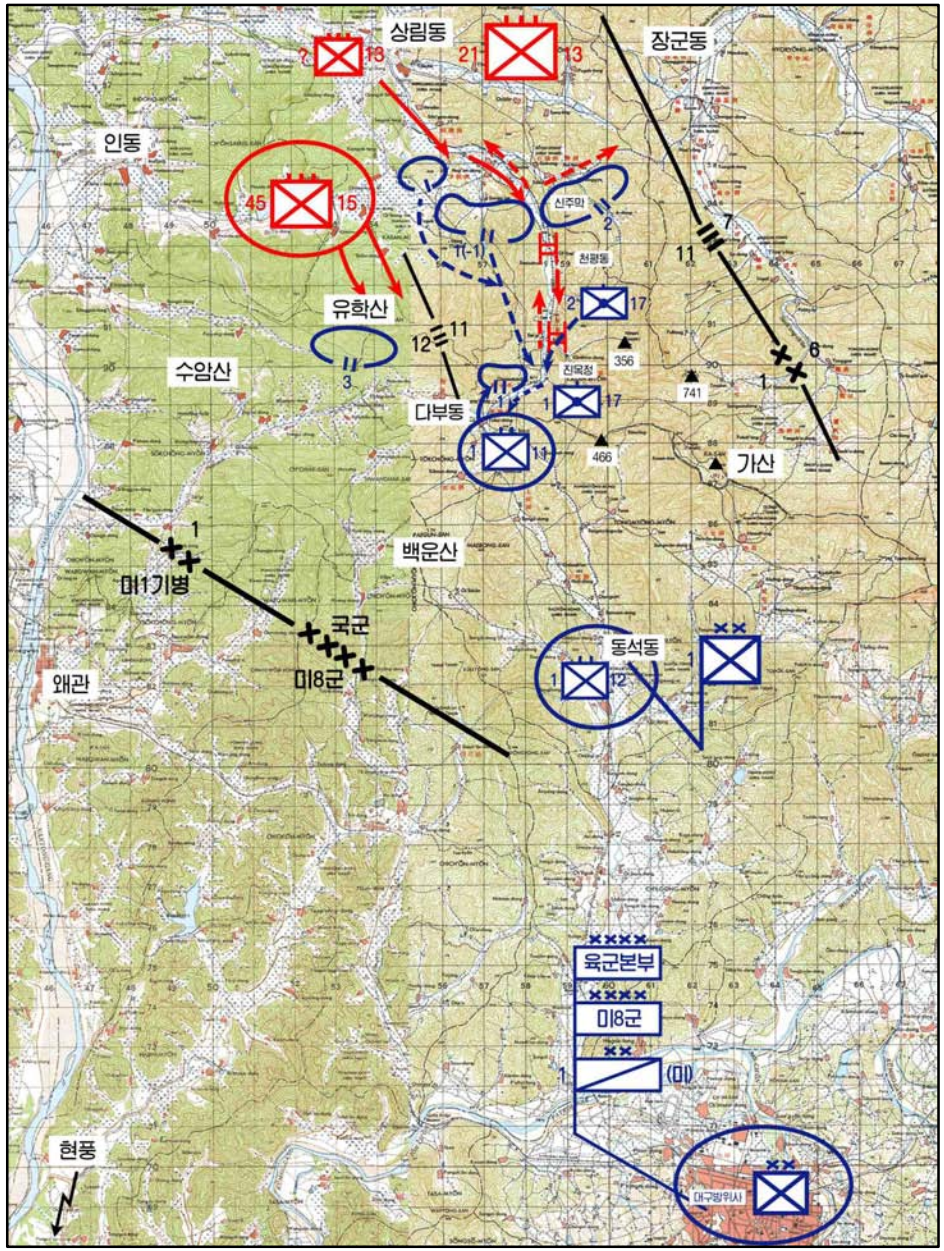
철수하였다. 이 때 사단에서는 177고지에 배치된 제15연대 제2대대에 제11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인접부대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사단은 다음날(13일) 제1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하였다.[150]

즉 제11연대는 우측 제6사단과의 전선 균형을 유지하고자 「육본작명 제119호」에 의거 8월 12일 20:00시를 기하여 제15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아 상림동(上林洞)을 거쳐 신주막 선으로 남하하여 13일 오전 중에 다음과 같이 연대지휘소와 대대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151] 연대는 지휘소를 학명동(鶴鳴洞・다부동남쪽 3㎞)에 두고, 제1대대를 208고지-하판동(下板洞) 일대에, 제2대대를 297고지-석우동(石隅洞) 일대에, 제3대대를 266고지 일대에, 그리고 연대에 배속되어 가산(架山)초등학교에 집결한 제15연대 제2대대를 266고지 북동쪽 2㎞ 지점의 무명고지에 배치하여 엄호부대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152]

사단 정면의 우측을 담당하게 된 제11연대는 해평에서 지금까지 치열한 격전을 치렀던 북한군 제13사단과 그리고 군위에서 제6사단과 전투를 치른 북한군 제1사단(-)과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작전지역 내의 신주막은 군위와 상림동, 그리고 대구에 이르는 삼차로(三叉路)로 그 형태가 'Y자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에게 이 도로는 분진합격(分進合擊)을 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로일 뿐만 아니라 대구에 이르는 적 전차부대의 기동로 역할을 하는 요충지였다. 그럼으로 제11연대가 담당한 Y선이 무너진다면 대구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마지막 공세를 퍼부었다. 다부동은 이러한 결전의 중간에 위치한 중서부 전선의 요충지였다.[153]

또한 제1사단 우측인 제6사단과는 거의 3㎞에 이르는 간격이 생겨서 북한군의 침투와 포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사단의 가용 예비대는 제15연대 제2대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단의 추가 증원 없이는 전투지경선내의 방어선을 형성하기가 힘들었다. 이처럼 제11연대는 처음부터 방어임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대는 전차전에 대비한 전차가 없을 뿐더러 포병도 각 연대에 1개 포대에 지나지 않았다. 대전차 무기는 최근 지급받은 3.5인치 로켓포가 전부였다.[154]

<상황도 3-7> 제11연대의 최초 전투(1950. 8. 13~14)



② 제11연대의 초기 전투

8월 13일 국군의 철수를 의심하면서 해평지역에서 재편성을 끝낸 북한군 제13사단은 야간을 이용해 상림동을 거쳐 14일 미명에 그 선두부대가 상장동(上場洞) 선에 진출하였다. 이날 오전에 북한군 1개 대대가 여남동(汝南洞)에, 다른 1개 대대가 심곡동(審谷洞) 일대로 진출한 후 제11연대 제1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208고지의 제1대대 경계부대는 적을 유도하여 이를 격퇴시켰다[155]

8월 14일 정오경 하판동의 과수원에 전차 2대와 보병 1개 대대가 집결하였고, 여남동에는 2개 대대가, 그리고 학하동(鶴下洞) 일대에는 1개 연대 병력이 집결함으로써 북한군 제13사단의 주력이 모두 집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북한군의 공격이 임박해지자 제3대대는 연대장 김동빈(金東斌) 대령의 명령에 의해 14:40분경에 제2대대가 배치된 우측으로 기동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이날 17:00시를 기해 제1대대가 배치된 293고지의 하판동의 우측 일대, 그리고 여남동의 적은 265고지에 공격을 시작하였으므로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2대대 정면의 북한군은 제15연대 제2대대의 저항 때문에 265고지로의 진출이 저지되었고 제1대대는 북한군 1개 연대의 공격을 받고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19:00시경에 전세가 불리하여 370고지와 741고지를 연하는 능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군은 제2대대 정면으로 진출해 밤새도록 교전을 벌였다.[156] 제11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야음을 이용해 제1대대 방어진지를 뚫고 8월 15일 아침에 전차 7대와 장갑차 5대가 신주막을 거쳐 수정(水亭)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진목정으로 빠져 나왔고, 제2대대도 356고지로 지연전을 하면서 철수하였다.

한편 265고지에서 철수한 제3대대(대대장 소령 정영홍)는 741고지와 가산 바위를 거쳐 정오에 사단지휘소가 있는 동석동으로 내려와 사단 지휘소 부근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다부동으로 이동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도 가산 바위의 능선을 따라 제11연대 지휘소가 있는 학명동(鶴鳴洞)으로 16:00시경에 빠져 나왔는데 사

단명령에 의해 오후에는 다부동 우측의 우학산(牛鶴山)에서 466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다.[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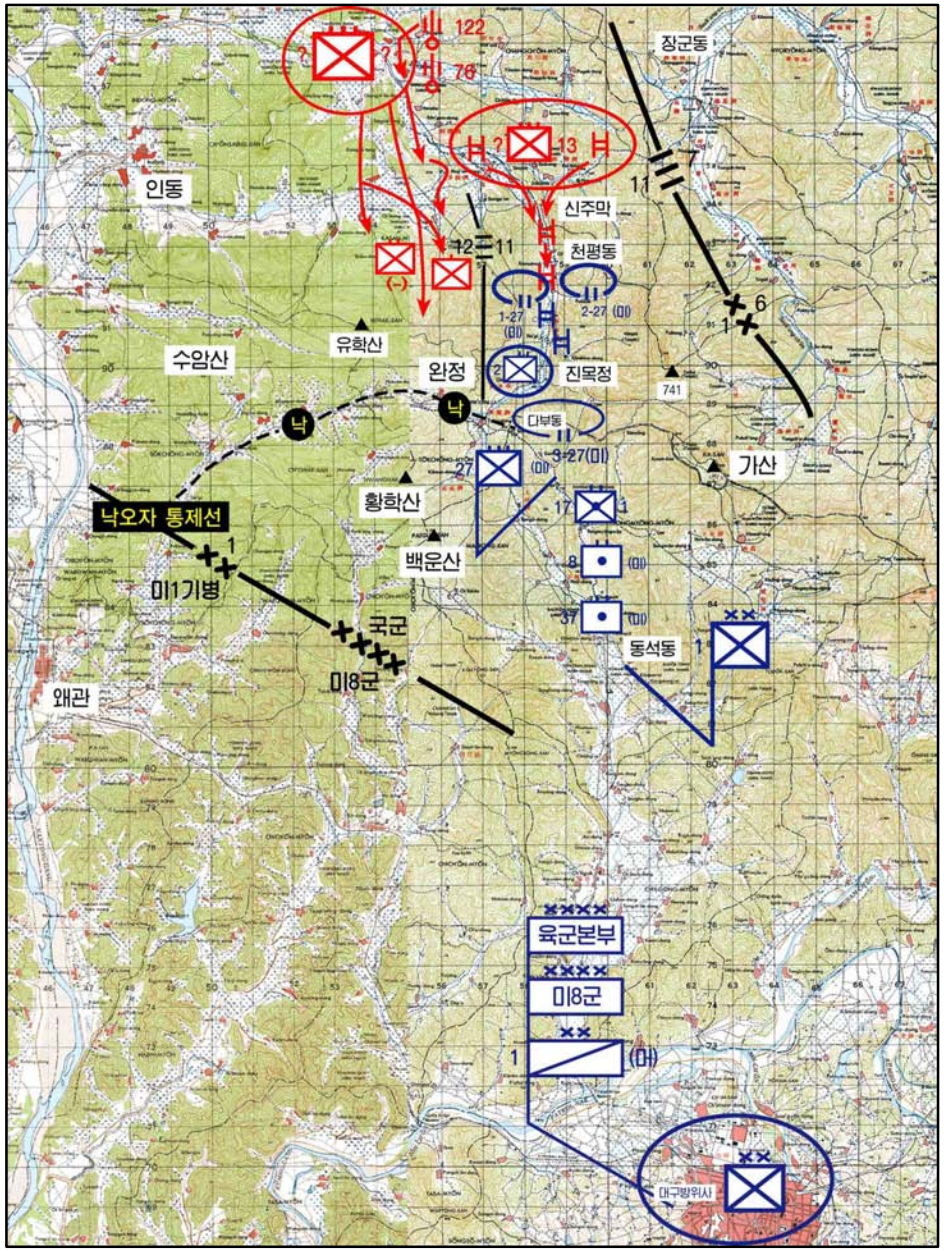
다부동 동쪽 1.8㎞의 466고지는 5번 도로를 통제하고 복곡(卜谷)과 그 동쪽의 297고지-356고지-355고지로 연결된 능선접근로를 향하여 횡격실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그러나 이 고지 남쪽에는 방어에 적합한 지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적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 사단사령부까지 저항을 받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지형이었다.[158]

8월 16일 북한군 1개 연대 병력이 837고지 일대에 진출한데 이어 신주막 부근의 적 2개 대대가 제11연대 제2대대(대대장 소령 차갑준・車甲俊)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날 오후에 741고지로 침투한 북한군이 가산 방위로 집결하였는데 그 규모는 1개 연대로 추산되었다. 이에 앞서 이날(16일) 미명에 적 1개 대대병력이 가산쪽에서 제15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466고지에 기습 공격했으나, 아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1개 중대에 달하는 시체를 남기고 적은 가산방향으로 후퇴하였다.[159]

제11연대 제3대대는 이날 처음으로 좌인접 부대인 제12연대 제1대대가 5회에 걸쳐 공격하였던 673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제11연대 제3대대도 이날 처음 공격에서 희생만 내고 말았는데 이는 제3대대가 대부분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8월 17일 미명을 기해 제15연대 제2대대는 355고지에서 고립된 제11연대 제2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741고지에서 금화동(金華洞)으로 뻗은 355고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대대는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 때 제15연대 제2대대는 이날(17일) 아침에 공격을 시작해 적을 격파하고 355고지 일대를 탈취함으로써 제2대대는 진목정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제3대대도 어제에 이어 673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1대대는 진목정에서 제2대대가 빠져 나오자 수정의 좌측 능선을 점령해 357고지에 진출한 적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제11연대는 수정과 금화동 선에서 반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3대대의 673고지 점령은 여의치가 않았다.[160]

<상황도 3-8> 제11연대와 미군의 다부동 전투(1950. 8. 14~30)



③ 미군 연대전투단의 증원과 한미연합작전

1950년 8월 17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국군 제1사단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군 예비로서 경산(慶山)에 집결한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연대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를 제1사단에 증원하고,[161] 19일에는 1개 대대가 감소된 미 제2사단 제23연대(연대장 대령 프리먼·Paul Freeman)를 동 사단 주저항산 직후방에 종심깊이 배치하였다.[162] 미 제27연대의 지휘관 현황은 <표 3-3>과 같다.

<표 3-3> 미 제27연대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연대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제1대대장	중령	체크(Gilbert J. Check)
제2대대장	중령	머치(Gordon E. Murch)
제3대대장	중령	드 초우(George H. De Chow)



미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왼쪽)과 사단 포병사령관 바스 준장

또한 육군본부에서도 같은 날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해사단의 전투력이 증강되었다. 이 무렵 제1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3·제13·제15사단 3개 사단과 군위 일대에서 인접 제6사단과의 전투지경선으로 진출하던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가 효령(孝令) 일대에 돌파구를 형성해 741고지-가산 산성으로의 침투를 기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사단에 증원부대를 투입하지 않는 한 다부동 방어진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주막-다부동에 이르는 전차부대 접근로에 지향된 적의 전차연대(북한군 제13사단에 배속)는 당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전차연대 중에서 가장 많은 전차 14대를 재보급 받아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163]

미 제27연대는 '울프하운드(wolfhound)'라는 별칭을 가진 전통에 빛나는 부대였다. 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제1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그에게 부여된 임무를 설명하고 연합작전에 대해 서로 협조하였다. 미 제27연대는 제1사단에 배속되거나 작전통제하에 들어간 것은 아니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이 한국군 사단 방어지대에 투입되어 작전하는 까닭에 한미연합작전의 효시(嚆矢)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미 제27연대의 임무는 다부동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적의 보전협동부대(步戰協同部隊)를 격멸하고 신주막 북쪽 일대를 탈환하는 제한된 공격으로서 전투지대는 신주막-다부동의 5번 도로를 중심으로 1,000m 안팎의 협소한 정면이 부여되고 그 좌우의 감제고지는 제11연대가 담당하게 되었다.[164]

8월 17일 오후 미 제27연대장은 진목정-소이리(所以里) 일대를 직접 답사하면서 지형을 정찰하고 연대 전투지휘소를 삼학동(三鶴洞)에 설치하였다. 이 때 제11연대 장병들은 미군 연대장이 통신병 1명만 데리고 최전선의 총탄이 교차되는 지점까지 나아가 적정을 살피는 것을 보고 감격하였다. 다음날(8월 18일) 13:00시 소이리 북쪽 400~500m까지 진출한 미 제27연대는 5번 도로 좌측 일대에 제1대대를, 그 우측에 제2대대를 배치하였으며, 제3대대는 예비로서 우계산(牛鷄山)-466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전차중대는 최전방 도로 및 개울가에 각 2대씩 배치하고 4대를 그 후방에 예비로 두는 한편 3.5인치 로켓포 6문도 도로와 개울가에 사격진지를 준비함으로써 대전차방어를 위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165]

제11연대 제1대대는 미군에게 신주막-다부동 골짜기인 복곡(卜谷) 방어지대를 인계한 후 위봉 골재에서 북쪽으로 뻗은 높이 400~500m의 능선으로 진출하였고, 제15연대 제2대대는 356고지 일대를 고수하고 있었다.[166]

이날(18일) 저녁 북한군은 전차 5대를 포함한 보전협동 공격을 기도하였다. 북한군은 다부동 접근로에 미군이 투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사격을 가하며 접근하고 있었다. 얼마 후 적 전차 2대가 미 제27연대의 F중대의 방어진지 앞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 중 1대가 3.5인치 로켓포탄에 맞아 화염에 휩싸이자 다른 한 대의 승무원은 전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후속하던 적 전차 3대도 미군의 치열한 포병사격을 받고 후퇴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적은 다시 공격을 하였으나 미군의 탄막사격에 의해 격퇴되었다.[167]

그렇지만 8월 18일 새벽에는 가산에서 침투한 일부의 적이 사격한 박격포 포탄이 대구역(大邱驛) 부근에 떨어지자 대구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충격으로 이날 정부가 부산으로 이동하고 피난령이 하달되어 대구는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경찰과 함께 직접 가두에 나서 피난령을 취소하고 민심을 수습함으로써 가까스로 질서가 회복되었다.[168]

다음날(19일)은 소강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8월 20일 주간에는 유엔공군의 대대적인 항공폭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투기를 유도하는 전방항공통제관(FACT)이 제11연대 예하 대대에는 파견되지 않았던 탓으로 674고지의 아군이 오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448고지 일대에도 폭격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배치된 제11연대 제1대대가 진목정으로 철수하였다가 이날 저녁에 다시 그 고지로 이동하였다.[169] 이날(19일) 제2군단에서는 Y선을 확보하기 위해 「육본작명 제139호」에 의해 제8사단 제10연대가 배속되자 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제10연대를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에게 지휘토록 하였다. 이에 제10연대의 선발부대인 제2대대가 22:00시경에 동석동의 제1사단지휘소에 도착하여 다음날의 작전지시를 받고 학교운동장에서 숙영을 하였다.[170]

한편 5번 도로 우측 356고지 일대에는 적의 120밀리 박격포가 간단없이 집중되어 제15연대 제2대대가 곤욕을 치렀다. 이윽고 8월 20일 17:00시경에는 적의



천평동의 볼링앨리 계곡의 적 전차 접근로(1950년 8월)

포탄이 다부동 접근로로 연신되고 뒤이어 적 전차가 보병과 함께 은밀하게 접근하여 왔다. 이 때 미군은 침묵을 지키다가 그들이 진전 지뢰지대에 이르러 지뢰를 제거하자 탄막사격으로 적을 격퇴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 정면에서는 이날(20일) 밤 02:00~03:00시 사이에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접근하였다. 아군은 그들을 진전 50m까지 바싹 유인한 다음 기습사격을 가하고 수류탄으로 살상지대를 형성하여 격멸하였다. 그들이 철수한 후 방어진지 전방에는 아군의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이 살포되어 있었다.[171]

8월 21일 아침 제11연대 제1대대는 5번 도로 좌측의 356고지를 탈취하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다부동 접근로 좌측의 제15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356고지와 더불어 다부동 접근로의 좌우 양측방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이 때 미 제27연대 정면에는 여기저기 백기(白旗)가 보이고 "적이 투항을 원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다. 연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차 3대와 보병 2개 소대로 정찰대를 편성하고 천평동(泉坪洞)-신주막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그들이 투항할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백기와 주민의 제보는 적의 기만책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을 분석한 미 제27연대는 적이 대대적인 야간공격을 할 것이라 판단하고 방어진지 전방의 지뢰지대를 보강하고, 그 앞 90m에는 각종 지뢰를 무질서하게 뿌려 놓았다.[172]

이날(21일) 밤 다부동 계곡에서 6·25전쟁 최초로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조공을 제11연대로, 주공을 미 제27연대 정면으로 지향



볼링앨리 전차전 후 파괴된 미군 전차(1950년 8월 21일)

하여 대규모 야간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예상한 대로 결전을 시도한 듯 대대적인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신주막-다부동 접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각각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고, 5번 도로를 따라 북한군 보전협동부대가 공격해 오고 있었다. 미 제27연대는 방어진지 최전방에 배치된 C중대로부터 적 접근 보고를 받고 즉각 조명탄을 발사하였다. 북한군은 전차 7대와 자주포 3문이 사격을 하면서 전진해 왔고, 그 뒤로 19대의 차량과 산개한 보병이 도로 양쪽을 이용하여 뒤따라 왔다. 미군은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켰고, 미군 전차도 약 200m 거리에서 전차포를 사격하여 적 전차 1대를 파괴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F중대의 3.5인치 로켓포는 자주포를 단 한발에 파괴하였으며, 또 1대의 적 전차는 진지 전방에 설치된 대전차호에 빠졌다. 그들은 선두 전차조가 파괴당하자 후속하던 전차와 자주포는 정지한 채 아군에게 포격을 가해왔다. 이리하여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차 대 전차의 사격전이 벌어졌다.[173]

다부동 접근로의 좁은 골짜기에는 쌍방의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의 탄환이 5시간 동안이나 불꽃을 튀기면서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굉음은 산야를 진동시켰다. 다부동 접근로 한 복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F중대 장병들은 전차포의 포탄 덩어리가 교차되는 것을 보고 볼링이 굴러가는 모양을 연상하게 되어 이날



미 제27연대의 다부동 전투 전승비

밤의 전차전을 「볼링앨리(Bowling Alley) 전투」라고 이름 붙였다. 이날 밤 미군의 화력지원은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미 제8포병대대는 1,661발, 4.2인치 중박격포 소대는 902발을, 그리고 제1대대와 제2대대의 81밀리 박격포반은 1,200발, F중대 60밀리 박격포반은 385발을 각각 사격하였다. 다음날(22일) 날이 밝은 다음 미군 정찰대는 진전에 파괴된 적 전차 9대와 자주포 4문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과 1,300여구의 시체를 확인하고 11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로써 대구를 목표로 다부동으로 공격하던 적은 75%의 병력이 손실되고 나머지는 간신히 철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174]

한편 다부동 접근로상의 좌우 양측 능선으로 접근하던 북한군은 전투력을 집중하지 않고 소대규모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다가 끝내 아군 방어진지 전에서 격멸되고 말았다. 적들은 이날 밤에도 대적방송을 실시하였으나 그들이 열세할수록 더욱 극성스럽고 방송내용도 저질적인 욕설로 일관된 까닭에 오히려 아군 병사들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175]

④ 북한군의 제1사단사령부 피습

8월 19일 국군 제2군단은 Y선의 확보를 위해 육본작명 제139호에 의하여 제8사단 제10연대가 군단에 배속되자 이를 제1사단에 배속시켰다. 이 무렵 가산산성(架山山城)에 침투한 북한군은 아군의 후방을 교란하려고 기도하던 중 8월 20일 02:00시에 소규모의 정찰대를 동석동의 동명초등학교에 위치한 사단사령부로 기습 침투시켰다.

그러나 이 때 동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숙영하고 있던 제10연대 제2대대가 침투한 적에게 집중사격을 하여 격퇴시켰다. 또 이날 13:00시 제10연대 제2대대는 제11연대 제2대대와 협동으로 741고지에서 준동하고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제11연대 제2대대는 금곡사(金谷寺) 부근에서 북한군의 후방을 공격하고 제10연대 제2대대는 남에서 북으로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그들의 후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자 분산·퇴각하였고, 이에 제10연대 제2대대는 16:30분 741고지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176] 이 때 제11연대



다부동 전투시 제1사단사령부가 있었던 동명초등학교

제3대대도 673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⑤ 제1사단장의 돌격지휘와 연합작전

8월 21일 제1사단은 Y선으로 진출하고자 미명을 기하여 반격을 시작하였는데 북한군 제13사단도 최후의 발악적인 저항을 함으로써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특히 우전방의 제11연대 제1대대는 448고지에서 적의 반격을 받고 뒤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미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연대의 측면이 뚫리자 즉각 미 제8군사령부에 "한국군이 후퇴했다. 퇴로가 차단되기 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미 제8군사령부는 백선엽 사단장에게 전화로 "한국군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싸울 의지가 있느냐"는 힐책하였다.[177] 또 마이켈리스 연대장은 미 제1대대가 위협을 받게 되자 "후퇴하겠다"며 백선엽 사단장에게 통고하였다. 이에 백선엽 사단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제11연대 제1대대 병력을 수습한 다음 장병들에게 훈시하였다.

> "지금 국가의 운명은 낙동강 방어선에 달려 있고 조국의 흥망은 이 유학산에 걸려 있으므로 이 유학산에서 철수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갈 곳은 어디냐? 이제부터 사단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나갈 터이니 귀관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만일 사단장이 선두에서 물러선다면 사단장을 쏴다오. 만일 귀관들이 명령 없이 철수한다면 가차 없이 귀관들을 쏘겠다. 우리는 한 치의 땅도 적에게 허용할 수 없으며 죽음으로써 이곳을 사수하여야 한다. 조국을 지켜 후손들에게 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기기 위한 사수냐?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철수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최후의 기회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단장의 훈시와 격려에 흥분한 장병들은 사단장의 돌격명령을 듣고 448고지를 향해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11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사단장의 진두지휘에 힘입어 공격 개시 30분 만에 목표를 탈환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감탄과 한국군의 숨은 용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178] 특히 마이켈리스 연대장은 백선엽 사단장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단장이 직접 돌격에 나서는 것을 보니 한국군은 신병(神兵)"이라며 감탄하였다.[179]

여기서 백선엽 사단장은 한미연합작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연합작전의 성패는 상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군이 산상에서 물러나면 미군은 골짜기에 고립되고, 미군이 돌파되면 국군은 산중에 고립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해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미군도 상황이 좋을 때는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전황이 불리할 때는 냉혹하게 된다. 국군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여 신뢰를 얻고 그들로부터 '도와 줄 가치가 있는 전우'라는 신임을 얻지 못하면 연합작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180]

⑥ 북한군 제13사단 포병연대장 귀순

8월 22일 북한군 제13사단의 주력은 결사적으로 신주막에서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미 공군 전폭기의 폭격과 포병사격, 그리고 미 전차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출혈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아군 역시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방어진지 전방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10:00시에 국군 제11연대 제2대대(대대장 소령 차갑준) 진지에 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북한군 제13사단 포병연대장 정봉욱(鄭鳳旭) 중좌가 병사 1명과 함께 귀순하여 왔다. 그는 한 손에 백기(白旗)를 들고 어개에서 허리에 찬 가죽가방 안에는 작전지도가 들어 있었다.[181] 그는 위봉(威鳳) 골재로부터 진목정으로 빠지는 골짜기를 통해 귀순하였다. 그는 곧 연대본부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의 귀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북한군 제13사단장은 그들의 공격이 실패하고 패색이 짙어지자 포병연대장에게 유학산-다부동 일대에 대한 포격에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당시 하판동 부근의 과수원에 구축된 적 포진에서는 다부동-진목정이 사각지대에 들어감으로 그 일대를 폭격하려면 진지를 전환하여야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군 항공기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수원을 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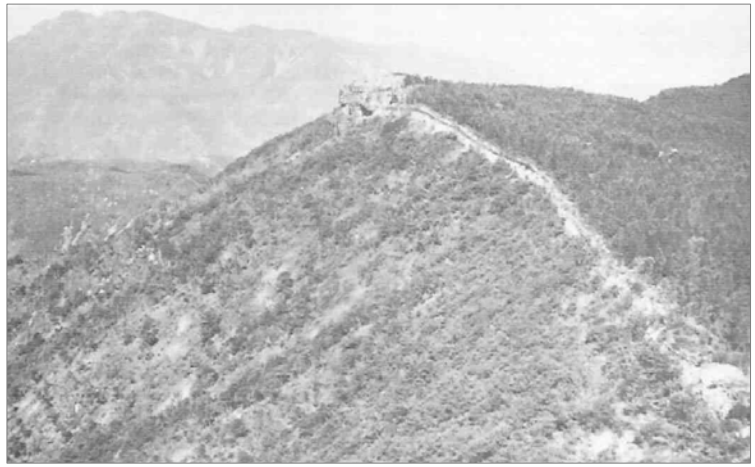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러한 실정을 들어가며 사단장에게 항의하였음으로 언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평소에 품고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도 작용하여 자유를 찾기로 결심하고 귀순하였다.[182]

제11연대 제2대대로 귀순한 정봉욱 중좌는 하판동 부근 과수원에 교묘하게 위장된 적 포병진지에는 아직도 122밀리 곡사포 7문과 76밀리 곡사포 13문이 배치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위치까지도 정확히 알려 주었다. 이 정보에 따라 미군 전폭격기의 폭격과 미군 155밀리 곡사포의 대포병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적의 포병사격은 현저히 감소되었다.[183]

⑦ 북한군의 공격기세 둔화와 미군 증원부대 철수

8월 22일 밤에 북한군의 야간공격을 받은 아군은 힘들이지 않고 격퇴하였다. 그만큼 북한군의 전력은 약화되어 있었다. 8월 23일 제11연대는 미명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356고지로 진출하였고, 이곳에 있던 제1대대는 448고지의 동남쪽에 진지를 점령하여 미 제27연대를 직접 엄호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 제2대대는 제15연대 제2대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진목정으로 나와 예비가 되었다.[184]

한편 741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0연대 제2대대는 약 2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의 공격을 받고 진지를 빼앗기고 말았으나 이날(23일) 아침에 진목정으로 철수, 예비가 된 제11연대 제2대대는 서쪽 능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제10연대 제2대대는 741고지 동쪽 능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14:00시에 가산에서 적 1개 소대병력이 학명동(鶴鳴洞)에 위치한 제11연대 지휘소를 기습하였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이곳에는 미 제27연대 4.2인치 박격포 진지가 있었다. 이날 16:00시에는 가산에 침투한 적은 1개 연대로 증강되었는데 그 일부병력이 삼산동(三山洞) 동북쪽의 570고지에 침공하였음으로 군단에서는 제10연대(연대장 중령 고근홍)의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급파하여 이들을 물리쳤다. 제10연대의 2개 대대는 적을 물리친 후 19:00시에 동석동 부근에 집결하였다.[185]



902고지 가산산성의 돌로 된 성벽(1950년 9월)

8월 24일 07:00시 제1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미 제23연대의 포병지원하에 570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가산산성으로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그 일부를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때 북한군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강제로 동원된 '의용군'이었다. 이 무렵 제10연대 제2대대 우측 기갑연대와 협동하여 21:00시에 741고지의 서측 능선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제11연대 주력과 미 제27연대는 전차를 앞세우고 적의 저항을 물리치며 신주막선까지 진출하였다.[186]

1950년 8월 25일 제10연대 제1대대는 가산산성의 적을 격파하고 741고지의 동북쪽으로 진출하였고, 제11연대 제2대대도 진목정에서 미 제27연대 제2대대 전방으로 진출하여 신주막 우측 능선지대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는 293고지선에, 제15연대 제2대대는 천평동 우측 고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17:00시 현재 전선 배치는 다음과 같다. 제11연대 제3대대는 293고지에서 하판동까지, 제1대대는 356고지에서 동쪽 능선까지, 그리고 제2대대는 신주막 우측 능선까지를 점령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천평동 능선에 배치되었다. 미 제27연대 제1대대는 신주막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 500미터, 제2대대는 신주막의 우

측 500미터를 점령하였다.[187]

그렇지만 이날부터 다부동 전선의 위기가 사라지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27연대를 국군 제1사단의 증원임무에서 해제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26일 03:45분에 미 제27연대의 방어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미 제27연대는 8일간의 격전을 치르고 8월 31일 08:00시에 병력은 기차로 차량은 육로로 출발하여 31일 밤 20:30분까지 미 제25사단사령부가 있는 마산으로 이동 완료하였다.[188]

한편 미 제8군은 다부동 전선에 지향되었던 북한군 제15사단이 8월 20~21일 사이에 영천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북한군은 8월 20일 밤 더 이상 다부동 전선을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학산 일대에 전개한 북한군 제15사단을 의성방면으로 이동시킨 후 국군 제8사단정면 영천방면으로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189] 이에 따라 북한군 제13사단이 그들 제15사단의 공격정면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공격에 부담을 지게 되었다.[190] 이로써 북한군 제3사단 일부가 수암산 일대에, 제13사단이 유학산 우측면을 담당하게 되어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국군으로서는 당시 북한군 제1사단의 위협이 가중되어 다부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였으므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8월 26일부터 국군 제1사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방어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할 준비를 갖추면서 수색정찰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2연대 수색대 제1소대장 대리 배성섭 특무상사 외 11명은 유학산 정면의 적정파악 임무를 띠고 적진으로 진출 중에 27일 미명 상림동의 적 제13사단사령부를 습격하여 적을 살상하고 3명의 포로를 획득함으로써 2계급 특진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191]

국군 제11연대 정면의 북한군은 8월 26일과 27일 몇 차례에 거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아군의 방어정면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27일 1개 소대 규모의 침투병력을 투입하여 제11연대 지휘소를 공격하였으나 인근에 배치된 미군 제105밀리 포병의 직접사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이날(27일) 제10연대 제1대대는 제2군단 작명에 의해 신녕(新寧)에 위치한 국군 제6사단에 배속되었으나 적과 교전 중이라 전선에서의 철수가 곤란하자 대신 제15연대 제2대대를 신녕으로 이동시켜 지원케 하였다.[192]



신녕의 제1사단 사령부(큰 나무 옆에 사단지휘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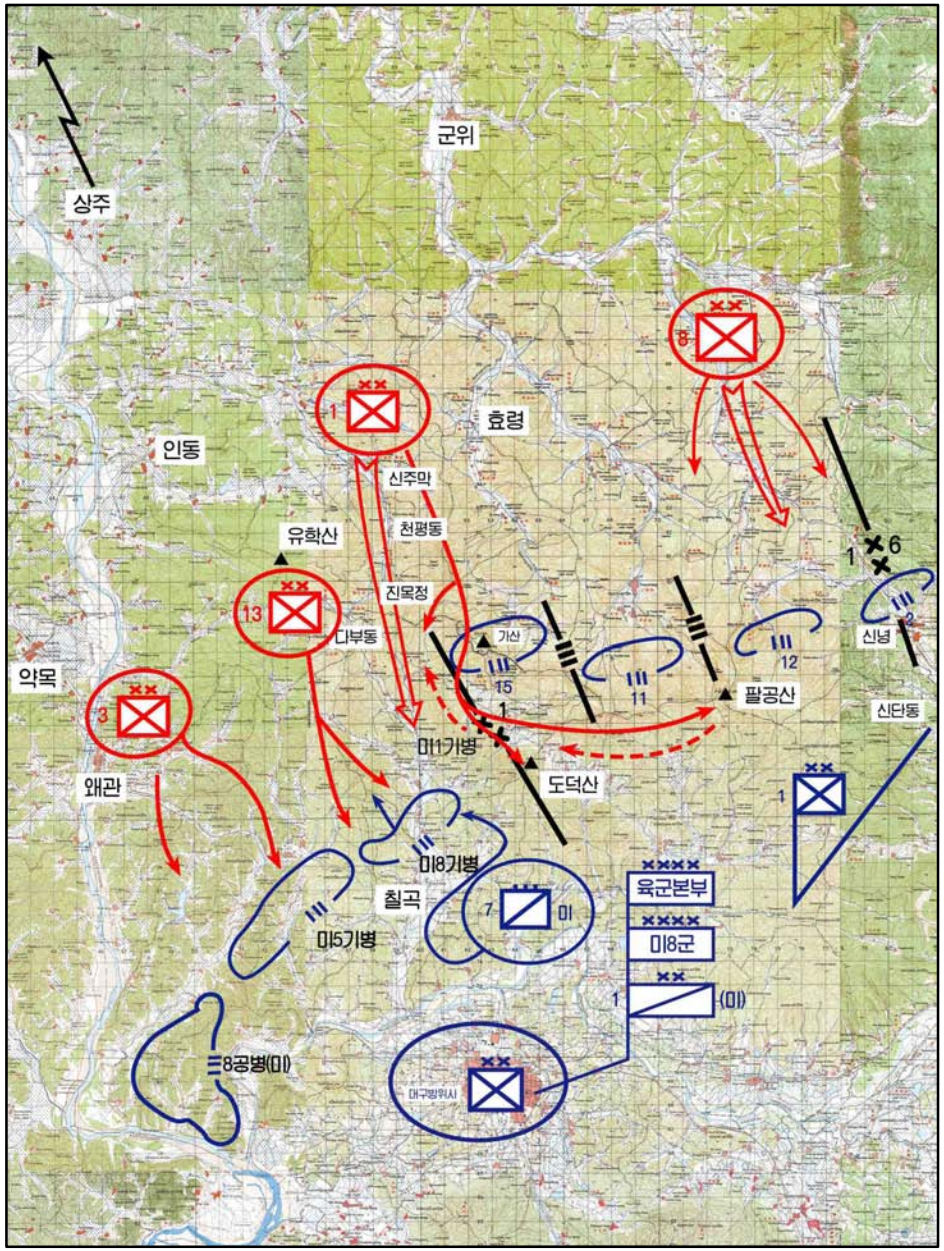
미 제8군은 제1사단이 다부동 전투를 성공리에 끝마칠 무렵 제6사단의 방어지역인 신녕-영천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제1사단의 방어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신녕 이서지역의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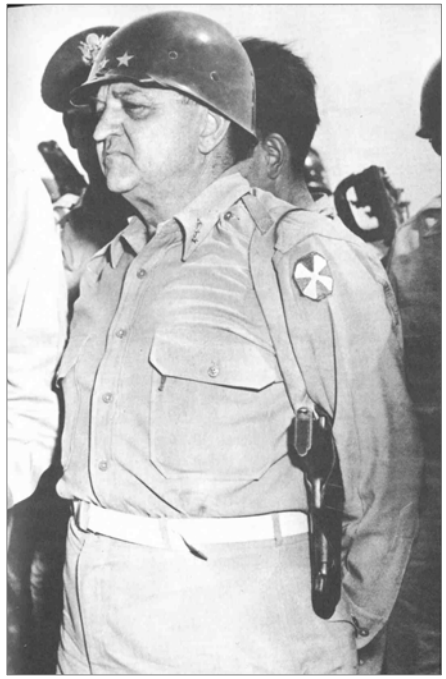
3) 국군 제1사단의 가산-팔공산 전투

(1)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복안과 제1사단 신진지 점령

1950년 8월 초부터 왜관-다부동 지역에서 대구 공략을 목표로 공격을 계속하던 북한군 제2군단은 8월 말에 이르러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험준한 산악지대로 침투하여 우회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북한군 제2군단은 효령(孝令) 일대에서 다부동으로 남하 중인 북한군 제1사단을 가산-도덕산과 대율동-팔공산

<상황도 3-9> 제1사단 가산-팔공산 지역 전투(1950. 8. 31~9. 14)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선으로 진출시켜 그 동쪽의 북한군 제8사단과 협동으로 대구 외곽으로 진출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다부동 지구에서 작전 중인 국군 제1사단의 방어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시킨 다음 신녕지역에서 작전중이던 국군 제6사단의 좌측을 담당하게 하여 국군 제2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시켜 남침하는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사단은 다부동 전선의 동쪽으로 이동하여 국군 제6사단 지역의 일부와 제5연대 및 기갑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팔공산(八公山)과 가산(架山)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새로운 방어지역 인수를 위해 8월 30일 「육본작명 제151호(작명부록 제33호)」와 「제2군단 작명 제22호(부록 제37호)」에 따라 부대를 이 지역으로 이동시켰다.[193] 육군본부는 「육본작명 제22호」에서 "제1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현 담당지구 교대완료 후 즉시 신 담당지구로 이동하여 2개 연대로서 동 지구를 담당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2군단도 작명을 통해 "제1사단은 1950년 8월 30일 12:00시까지 현 진지를 미 제1기병사단과 교대 후 대구, 하양, 신녕을 거쳐 8월 31일 19:00시까지 제7연대, 제5연대, 기갑연대와 교대하여 적의 남진 및 동남진을 저지하고 이를 진전에서 포착 섬멸하라"고 명령하였다.[194] 명령에 따라 제1사단은 신 방어진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동석동의 사단 집결지를 출발하여 8월 31일 대구·하양을 거쳐 신녕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후 19:00시까지 제11연대는 대율동(大栗洞)으로 들어가 제5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였고,[195] 제15연대는 신덕동(新德洞)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196] 또한 제12연대는 신계동(新溪洞)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197]

(2) 가산(架山) 서북 지역의 전투(1950. 8. 31~9. 4)

제1사단은 8월 31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51호(작명부록 제3호)에 제6사단 지역인 신녕 부근으로 이동한 후 사단사령부를 신단동에 설치하였다. 사단 예하의 제11연대와 제12연대는 가산 동북지역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한 제5연대와 기갑연대 그리고 제7연대의 방어진지를 인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제11연대가 인수할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던 제5연대와 기갑연대 지역내의 558고지와 527고지 그리고 655고지가 지난(30일) 밤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압력으로 점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제11연대는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제5연대 및 기갑연대와 협동으로 이날 13:0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제12연대는 제7연대의 방어지역을 계획대로 인수하여 전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7연대는 제2군단작명에 의해 신녕으로 이동한 후 사단예비가 되었다.[198]

9월 1일 기갑연대는 제11연대 제2대대(대대장 소령 차갑준)의 지원을 받아 558고지를 공격하여 11:00시에 이를 탈환하여 제11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신녕으로 이동하였다. 제5연대 제2대대(대대장 대위 이창범)는 이날 12:00시에 655고지를 공격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 2개 소대 병력을 격퇴한 후 점령하였다. 제5연대 제2대대는 다시 527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우선 655고지만을 제11연대 제3대대에 인계하였다.[199]

9월 2일 제11연대 제1대대는 전날 진지를 인수받았으나 북한군의 야간 기습공격을 받고 이날 02:00시에 381고지에서 318고지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우측에 배치되었던 제12연대 제1대대가 적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예비인 제2대대의 증원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다.

한편 제5연대 제2대대는 제11연대 제3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527고지를 03:00시에 공격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11:00시에 이를 점령하였다. 제5연대 제2대대는 14:00시에 527고지를 제11연대 제3대대에 인계한 후 신녕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였다.[200]

9월 3일 제1사단의 좌측 연대인 제11연대는 04:00시부터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제2대대가 538고지 남쪽에서 적 2개 대대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14:00시에 538고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우측의 제3대대는 655고지에서 피아간에 서로 탐색전만 전개하고 교전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제1대대는 318고지 동남쪽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원진지인 318고지로 다시 복귀하였다. 제12연대 정면에서는 제2대대가 침입해 온 적을 격퇴하고 말았으며 제1대대는 구미동(龜尾洞) 부근에서 그리고 제3대대는 제1사단과 제6사단의 전투지경선 변경에 따라 제2연대로부터 인수한 제370고지를 점령한 후 진지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201]

9월 4일 이 지역의 전선은 전투가 없는 가운데 비교적 평온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날 제12연대 제1대대는 제2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한 후 연대지휘소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202]

(3) 팔공산 지역 전투(1950. 9. 5~9. 14)

1950년 9월 5일 중부전선의 제8사단 전선이 돌파되면서 북한군 제15사단이 영천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제2군단은 「군단작명 제31호(작명부록 제62호)」를 통해 제1사단에게 "9월 5일 24:00시 안으로 팔공산과 대율동을 연하는 선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인접사단과의 전선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위해 제6사단에 배속된 제15연대를 원대 복귀시켰다.[203]

군단 작명에 따라 제1사단은 9월 5일 밤 전반적으로 전선을 조정하고 다음날(6일) 오전에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사단의 좌측부대로서 583고지 북쪽 능선을 점령하여 미 제1기병사단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는 384고지 좌측 전방에, 그리고 제2대대는 대율동 남쪽 능

선을 점령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제12연대의 좌측 후방인 836고지인 파계(把溪)재 일대의 주요지점에 배치되었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군단예비가 되어 영천 부근의 신단동(新丹洞)으로 이동하였다. 제11연대 지휘소는 중리(中里)에 두었다. 제12연대 제1대대는 좌전방 부대로서 573고지에서 329고지 사이에 그리고 제3대대는 388고지 일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는 예비로서 진곡(晋谷) 북쪽의 능선에 예비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때 제12연대는 지휘소를 제6사단 제2연대 및 제7연대의 지휘소와 함께 신녕에 두었다. 제1사단 지휘소는 하양 북쪽의 덕촌동(德村洞)에 설치하였다.[204]

이날(6일) 북한군 제1사단은 대구에 이르는 최단 접근로에 주력을 투입해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국군 제1사단을 돌파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사단의 일부 병력이 02:00시 야음을 이용하여 583고지로 침투하여 가산 부근의 적과 합세하여 중리를 향해 남진하였다. 그런데 이날(6일) 아침 중리(中里)에 도착한 제15연대 제1대대는 남진하고 있는 북한군과 불시에 조우하였으나 과감한 공격으로 이를 격퇴한 후 583고지를 계획대로 점령하였다. 이날(6일) 오후 미 공군과 사단 제17포병대대가 제1사단 정면에 지원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은 공세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205]

제1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7일과 8일 별다른 공세행동을 보이지 않고 가벼운 정찰활동만 실시하였다. 이는 북한군 제2군단장으로부터 "대구 정면으로 과감하게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북한군 제1사단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인 까닭이라고 한다.[206] 그러나 독전대까지 파견한 북한군 제2군단장의 강요가 주효한 탓인지 북한군 제1사단은 9월 9일 19:00시에 팔공산 북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제1사단의 후방을 차단하고자 약 2개 중대의 병력으로 도덕산(道德山・660고지)으로 침투시켰으나, 제15연대의 공격을 받고 격퇴되었다. 한편 제11연대 제1대대는 사단 좌측에 대한 적의 압력이 증가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날(9일) 새벽 파계재에서 고도현(古道峴)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적 1개 대대병력을 격퇴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도 22:00시 적 1개 대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치열한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이날 제15연대는 연대지휘소를



대구 북쪽에서 본 팔공산 전경

중리에서 2㎞ 남쪽에 위치한 '매골'로 이동하였고, 제12연대도 연대지휘소를 신녕 부근의 왕산동(旺山洞)으로 이동하였다.[207]

북한군 제1사단장은 9월 10일 군단으로부터 11일 안으로 대구를 점령하라는 독전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1,200여명의 병력을 증원받아 도덕산(道德山)으로부터 대구 동촌(東村)비행장으로 진출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에 제15연대(-)와 제11연대(-)가 10일 미명에 도덕산을 탈취하여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 제1사단은 3분의 2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부대로 받은 대구 진출 명령은 이룰 수 없게 되었다.[208]

이때부터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12일 적의 특공대가 제15연대 지휘소가 있는 매골지역으로 침투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한 아군의 매복공격으로 격퇴하였다. 9월 13일 제11연대 제1대대는 인접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와 협동으로 756고지 부근에서 침투해 온 적을 포착하여 격퇴하였다. 583고지를 방어하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포병지원을 받은 적 1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일시 고지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209]

한편 제1사단은 「국일명(육) 제70호」에 의해 9월 13일 12:00시부로 국군 제2군단으로부터 미 제1군단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210] 그러나 현행 작전은 계속 수행하였다. 제11연대 1대대는 적이 장악하고 있는 756고지를 야간에 기습 공격하여 탈취하였다가 다시 적의 역습을 받고 빼앗겼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14일 783고지를 공격하여 이날 19:30분에 점령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인 9월 15일 미군 전폭기와 포병지원사격을 받으며 756고지를 다시 공격하여 이를 점령한 후, 추격전을 전개해 가산산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제1사단의 대구 동촌비행장을 점령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211]

(4) 전투후의 개황

제1사단은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사단에 맞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가산과 팔공산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제1사단은 이 기간 동안의 전투에서 북한군 제1사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재기불능



다부동 전투 성공 후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왼쪽), 사단 참모장 석주암 대령(가운데), 미군 포병부대장 헤닉 대령(1950년 9월)

상태로 만들었다. 북한군 제1사단은 그들 병력의 3분의 2를 이 전투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제1사단은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 이후 단행된 낙동강 방어선의 총반격명령에 따라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사단은 팔공산 지역에서 적을 추격하여 가산 부근을 탈환한 후 다부동 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과 협조하여 9월 22일 이 지역에서 북진의 돌파구를 만들었다.

4. 전투 결과

1) 전 과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3일 청계동(淸溪洞)-낙정리(洛井里)에 진출한 이후부터 8월 30일 미 제1기병사단에 진지를 인계할 때까지의 전과 및 손실이 정확하게 집계된 기록은 없다. 연대급 이하 부대의 행정요원마저 일선 소총중대에 보충된 까닭에 군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일보(日報) 조차도 작성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여기에 제시한 자료는 이 전투에 참전한 장병의 증언과 1950년 말에 작성된 전투상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표 3-4> 전투상보에 기록된 전과(노획무기 및 포로)[212]

구 분	포로 (명)	소총 (정)	기관총 (정)	박격포 (문)	대전차총 (정)	각종포 (문)	전차 (대)	트럭 (대)	무전기 (대)
합 계	216	2,297	354	45	13	44	17	3	6
제11연대	159	955	167	5	6	33	11	·	·
제12연대	28	714	90	22	·	7	5	3	3
제15연대	29	628	97	18	13	4	1	·	3
비 고	1. 제10연대 제3대대의 전과 및 손실 기록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2. 미 제27연대의 전과: 전차 13대, SU-76자주포 15문, 사살 1,300명								

<표 3-4>에 제시된 노획무기중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총은 1정당 1명, 기타 화기는 1문당 2명씩의 적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할 때 2,900여명이 되며 여기에 미 제27연대와 제1사단에 배속된 제10연대의 전과를 합치면 약 3,500여명의 적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213] 귀순한 북한군 제13사단 포병연대장 정봉욱 중좌의 증언에 의하면 제13사단은 유학산 전투에서만 1,500명에 달하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내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30일까지의 북한군의 손실을 종합하면 거의 3,000여명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214]

또한 적의 포로 216명과 전사 대 부상 발생 비율을 1 : 4로 산출할 때 북한군은 약 17,500여명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소 산출된 감이 없지 않으며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낙동강을 도하 중에 사살된 자들은 휴대한 무기와 함께 물속에 빠지고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으로 살상된 병력을 파악할 수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215]

2) 아군 피해

아군에 대한 피해는 이를 산정할 근거가 될만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병력보충과 참전자의 증언 그리고 그때의 꾸밈없이 기록한 제12연대 전투상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즉 당시 제1사단 참모장 석주암(石主岩・육사 2기) 대령은 "다부동에서 매일 700여명의 병력을 보충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제12연대 부연대장(김점곤 중령)은 "유학산 일대 전투에서 우리 연대는 3,000여명의 손실이 있었다"며 그 때의 치열했던 상황을 설명하였다.[216]

또한 제12연대의 전투상보에 수록된 유학산 전투(1950. 8. 22~23・제3대대)에서는 아군은 전사 30명, 부상 147명, 실종 37명으로 총 214명의 손실을 입었다. 또 수암산(1950. 8. 24・제2대대)에서 아군은 전사 7명, 부상 47명, 실종 295명으로 총 349명의 손실을 입었다.[217]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볼 때 낙동강 연안-주저항선 전투간에는 일일 평균 300여명을 보충 받아 작전기간 10일 동안 모두



다부동 전투후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왼쪽),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가운데),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오른쪽)의 기념사진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 전적비(사단사령부로 사용된 동명초등학교 교정에 건립)

3,000여명을 보충 받았고, 주저항선인 다부동지역 방어 때에는 매일 약 600여명의 병력을 보충 받아 작전기간 17일 동안 약 10,000여명을 보충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8월 낙동강 방어작전 동안 제1사단은 13,000여명의 병력을 보충 받았다.

그런데 1950년 8월 초 제1사단 병력은 7,600명이었으나 9월 초에는 10,480명이었으므로 그 차이인 2,880명을 뺀 10,000여명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배속부대의 손실과 노무자 및 현지 입대한 무명용사의 희생은 제외되었다.[218]

제 3 절 왜관-다부동-대구 북방 전투

1. 전투 개요

왜관-다부동-대구 북방 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 인천상륙작전 직전까지 미 제1기병사단이 이 지역에서 대구를 점령하려는 북한군 4개 사단과 맞서 싸운 치열한 전투이다. 최초 미 제1기병사단은 왜관 일대에서 북한군 제3사단 및 제10사단과 싸웠고, 이후 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다부동 일대를 인수받은 9월 2일부터는 북한군 제1(-)·제3·제13사단과 전투를 치렀다.

8월 초 대구 북서쪽 정면의 북한군은 제105전차사단의 지원을 받는 보병 5개 사단(제1·제3·제10·제13·제1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중 왜관-대구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제1기병사단의 정면의 북한군은 제3사단과 제10사단이었고, 9월에는 제1사단과 제13사단이 추가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의 북쪽에는 국군 제1사단이, 남쪽에는 미 제24사단이 배치되었다. 8월 초 낙동강 방어선 점령시 미 제1기병사단은 왜관-현풍 북쪽에 이르는 35㎞의 정면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219] 9월 공세시 미 제1기병사단은 국군 제1사단의 다부동지역을 인계받아 왜관-다부동-팔공산 이서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왜관은 경부국도와 철도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구의 관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아 공히 이 지역의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기계화부대 접근로 뿐만 아니라 부산에 이르는 길목인 왜관을 확보해 북한군의 공격 기도를 분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은 9월 작전기간 중 다부동 지역을 빼앗기는 등 위험에 처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대구를 사수하여 총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북한군과 미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미 제1기병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은 제3사단과 제10사단이었다. 그 중 북한군 제3사단은 왜관 약 8㎞ 남쪽의 성주에 집결하였고, 그 남쪽에는 북한군 제10사단이 경북 고령(高靈) 일대에 집결하였다. 이들 사단은 북한군 제105전차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그들 편제 병력의 약 50%인 6,0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개전 초기 최선봉부대로 서울에 침입한 뒤 조치원 전투를 거쳐 금강(錦江)을 도하한 다음 북한군 제4사단과 협동으로 미 제24사단과 대전에서 싸웠고 이어 충북 영동(永同)에서는 미 제1기병사단과 싸운 뒤 이곳 낙동강 방어선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다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220] 북한군 제10사단은 후방예비사단으로 7월 25일 주둔지인 평남 숙천(肅川)을 출발하여 철도편으로 충남 천안에 도착한 다음 도보행군으로 대전, 금산(錦山), 무주(茂朱)를 거쳐 8월 8일 경북 성주(星州)에 도착하였다. 이 때 북한군 제10사단의 병력은 약 10,000명이었다.[221] 한편 북한군 제13사단이 9월 공세부터 북한군 제3사단과 함께 왜관-다부동지역의 전선에 투입되어 미 제1기병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북한군 제3사단은 제7・제8・제9연대로 편성되었고, 북한군 제10사단은 제25・제27・제29연대로 편성되었으며, 북한군 제13사단은 제19・제21・제23연대로 편성되었다. 이들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편성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북한군 제3사단은 8월 9일부터 낙동강 도하를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 제7연대는 9일 03:00시 왜관교 남쪽 3㎞ 지점에 있는 나루터에서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이 1.5m나 되는 낙동강을 통과하기 위해 적은 총을 머리 위로 쳐들고 걸어서 건넜다.

북한군 제3사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7연대를 도하시킨 다음 다시 제8연대와 제9연대를 후속해 도하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미

<표 3-5> 왜관-대구북방 축선의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222]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제1사단	사단장	소장	김광협(金光俠)	
	제2연대장	대좌	김양춘(金陽春)	
	제3연대장	대좌	이창권(李昌權)	
	제14연대장	대좌	황 석(黃 石)	
	포병연대장	대좌	현학봉(玄學奉)	
제3사단	사단장	소장	이영호(李英鎬)	
	제7연대장	대좌	김창봉(金昌奉)	
	제8연대장	대좌	김정동(金貞童)	
	제9연대장	대좌	김만익(金萬益)	
	포병연대장	대좌	안백성(安白成)	
제10사단	사단장	소장	?	
	제25연대장	대좌	?	
	제27연대장	미상	?	
	제29연대장	총좌	?	
	포병연대장	대좌	?	
제13사단	사단장	소장	최용진(崔鏞鎭)	소련군 대위 출신
	제19연대장	대좌	김승국(金勝國)	
	제21연대장	대좌	이승준(李承俊)	
	제23연대장	대좌	태병열(太炳烈)	
	포병연대장	중좌	정봉욱(鄭鳳旭)	1950. 8. 22일 귀순
		대좌	심운경(沈云景)	1950. 8. 22일 이후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대의 집중사격을 받아 대부분이 피해를 입고 분산되었고, 소수의 병력만이 겨우 도하하였다.

북한군 제10사단도 8월 11일부터 미 제1기병사단 방어지역으로 도하를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10사단도 도하과정에서 미군 포병의 집중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223]

한편 9월 2일부터 전개된 다부동-대구 북방전투에서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 제13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싸웠던 북한군 제3・제10・제13사단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2) 미 제1기병사단 상황

미 제1기병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치열한 교전을 해 가면서 철수하여 1950년 8월 3일부터 4일 아침에 걸쳐 낙동강 동안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지례(知禮)-김천에서 왜관으로 이동한 미 제1기병사단은 예하 제5기병연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무난하였다. 최종 후미였던 미 제5기병연대는 거의 1개 대대를 상실하였다. 8월 3일 왜관 남서쪽의 상주 도로에서 야간 철수를 엄호하고 있던 미 제8기병연대 제1대대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왜관을 통과하는 주요 교량과 철교는 미 제1기병사단이 철수하는 대로 폭파하게 되어 있었다.[224]

8월 3일 새벽에는 많은 피난민이 이 교량지점에 쇄도하였다. 후미가 철수할 무렵에는 더욱 혼잡해지자 게이 사단장은 피난민을 서쪽으로 축출하고 부대가 교량을 통과하면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난민이 계속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단장 게이 소장은 작전상 할 수 없이 교량을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225] 다리가 파괴되면 수많은 피난민의 활로가 차단되므로 사단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심이었다. 이때 미 제8군은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는 피난민 행렬

왜관교 폭파와 함께 8월 4일 아침까지 미 제8군의 전선 정면의 낙동강상의 모든 교량을 폭파하였다.[226]

미 제1기병사단은 경북 왜관에서 현풍(玄風) 북쪽에 이르는 대구 서측면의 방어지역을 담당하여 낙동강변의 북에서 남으로 미 제5기병연대, 미 제8기병연대, 미 제7기병연대(-)순으로 배치하였고, 1개 대대만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사단 사령부는 대구에 위치하였다.[227] 이 때 미 제1기병사단의 북쪽에는 국군 제1사단이, 그리고 그 남쪽에는 미 제24사단이 배치되었다. 1950년 8월말 미 제24사단은 미 본토에서 증원된 미 제2사단으로 교체되었다.

한편 북한군 9월 공세 때 미 제1기병사단에도 영국군 제27여단이 배속되었다. 8월 28일 부산에 상륙한 영국군 제27여단은 낙동강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한국에 도착한지 만 6일만인 9월 4일 대구 방위를 위하여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대구 남서쪽 9㎞ 지점의 죽곡리(竹谷里)-산당동(新塘洞)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 지역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은 정찰작전을 실시하였다.[228]

미 제1기병사단은 왜관에서 현풍에 이르는 35㎞를 담당하였다.[229] 그 가운데 미 제5기병연대는 약 13㎞의 정면을 방어하고, 미 제8기병연대는 약 10㎞의 방어



미 제5기병연대 책임지역의 왜관 마을 전경(1950년 8월 10일)

정면을 부여받았다.[230] 더욱이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 제1기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되긴 하였으나, 각 연대는 2개 보병대대로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단 전투력은 2개 연대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사단 병력은 편제 병력에 비해 8천명이 부족한 10,300명에 불과하였다. 이 작전 기간 중 미 제1기병사단의 지휘관 현황은 <표 3-6>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1기병사단은 이러한 전력을 갖고 북한군 3개 사단을 맞아 8월과 9월 공세를 물리치고 총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의 이러한 결과에는 유엔군의 제공권과 포병화력의 우위,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의 진지고수 정신이 크게 작용하였다.

<표 3-6> 낙동강 중서부 작전시 미 제1기병사단 지휘관 현황[231]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지휘부	사단장	소장	게이(Hobart R, Gay)	
	포병사령관	준장	팔머(Charles D. Palmer)	
제5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크롬베츠(Marcel B. Crombez)	
	제1대대장	중령	로저스(Glenn F. Rogers)	
제7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니스트(Cecil Nist)	
	제1대대장	중령	클레이노스(Peter D. Clainos)	
	제2대대장	중령	헤이어(Herbert B. Heyer)	
	제3대대장	중령	린치(James H. Lynch)	
제8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팔머(Raymond D. Palmer)	
	제1대대장	중령	케인(Robert W. Kane)	
	제2대대장	중령	필드(Eugene J. Field)	
	제3대대장	중령	존슨(Harold D. Johnson)	
배속부대	영국 제27여단	준장	코드(Basil Coad)	

3. 전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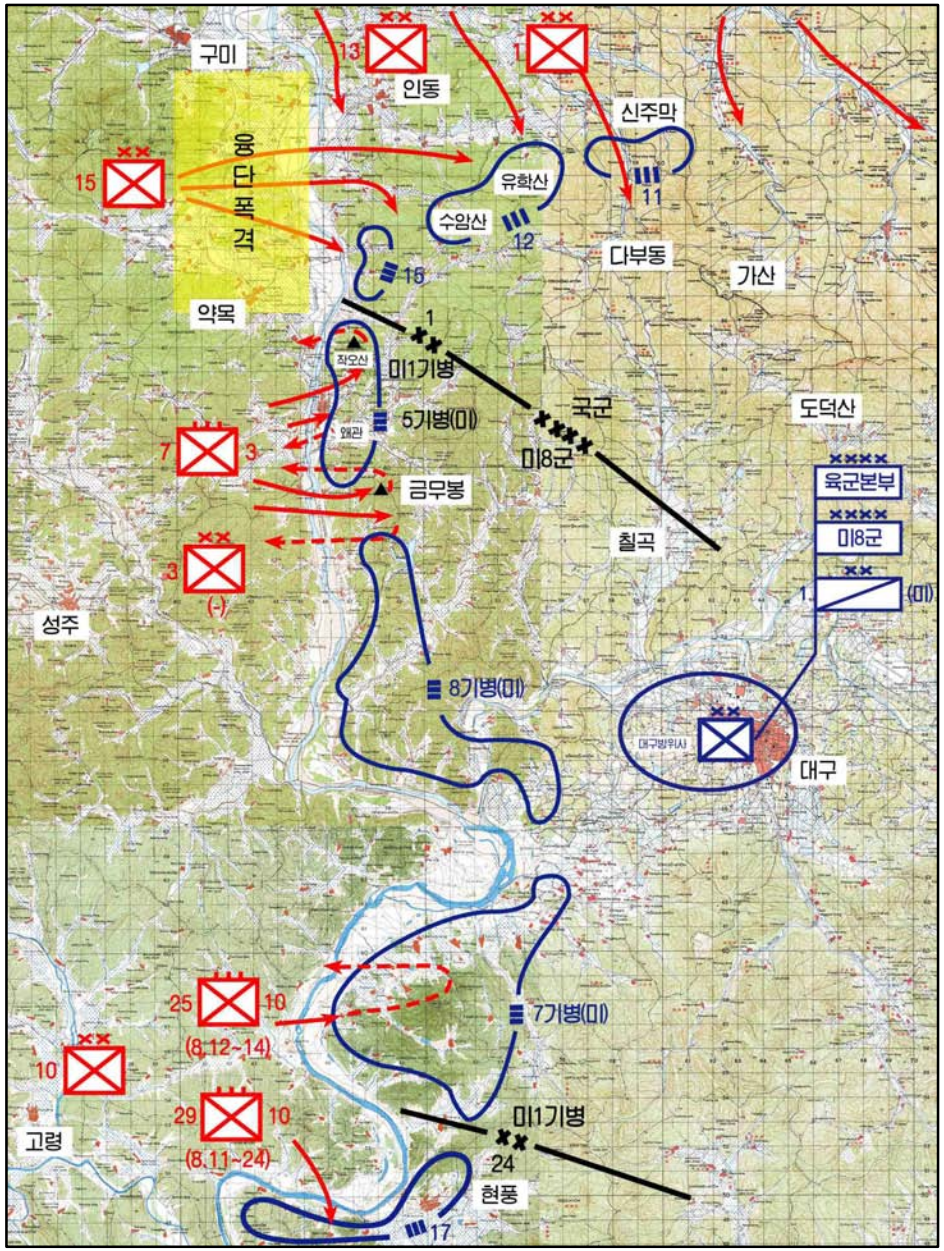
1) 미 제7기병연대의 금무봉(錦舞峰) 전투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9일 03:00시부터 북한군 제3사단의 도하 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의 선두부대는 왜관교 남쪽 3㎞ 지점의 노촌에서 총을 머리에 받쳐 들고 도하하였다.[232] 정면의 미 제5기병연대는 즉시 낙동강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을 발견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가 도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장은 즉시 북한군의 주력부대가 도하할 것으로 판단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곧이어 예상대로 북한군 제3사단 제7연대와 제9연대가 신기부근에서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 제5기병연대는 즉각 조명탄과 예광탄으로 정면을 대낮같이 밝히고 보·전·포의 저지사격으로 노출된 적을 향해 집중하였다. 도하중인 북한군은 순식간에 대부분이 궤멸되었으며 그 일부만이 다시 낙동강을 건너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 1개 대대가 금무봉(錦舞峰·268고지)으로 침투했음이 정찰대에 의해 밝혀졌다. 금무봉은 부산-서울-신의주를 거쳐서 만주에 이르는 경부선 복선 철도가 이 산의 북쪽 기슭을 지나고 있고, 주보급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고지였다.

한편 이날(8월 9일) 새벽 03:00시경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대구에 있는 사단사령부에서 북한군이 왜관 남쪽에서 도하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233] 그러나 보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는 좀더 상세한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 미 제5기병연대 정보장교를 도하지점에 급히 보냈다. 사단장은 정보장교가 돌아올 때까지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를 확보해 놓고 있었다. 미 제5기병연대 정보장교는 명령을 받은 즉시 연대수색소대의 일부 병력을 지휘하여 적의 도하지점으로 출발하였다. 날이 밝기 45분에 연대정보장교가 지휘하는 수색대는 북한군이 금무봉 북서쪽 능선을 따라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북한군은 4명이 1개조가 되어 이동하고 있었다. 각 조의 4번째 병사는 경기관총

<상황도 3-10> 미 제1기병사단의 8월 전투상황(1950. 8. 9~17)



또는 자동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정보장교는 적의 병력이 약 750명의 증강된 대대 규모라고 판단하였다.[234]

미 제1기병사단장이 미 제5기병연대 정보장교의 보고를 받은 몇 분 뒤 미 제8군사령관이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 게이 사단장은 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약 1개 대대 병력의 적이 낙동강을 건너서 금무봉을 점령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 적에 대하여 즉시 역습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좋소(Fine)! 그런데 적은 기만작전을 쓰고 있을지 모르니 계속 적정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시오. 적의 주공은 멀리 '좌측방'에 있을지도 모르니까?"라고 지시하였다.[235]

워커 중장이 복귀한 뒤인 이날(8월 9일) 09:30분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Gay) 소장은 사단예비인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장(중령 Peter D. Clainos)에게 이를 구축하도록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236] 제1대대는 강력한 공격준비사격 후 미 제71중전차대대 A중대(5대) 지원하에 즉시 공격에 나섰으나 숲이 무성하고 또 극심한 더위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다음날인 8월 10일 미군은 화포와 항공기의 강력한 공격준비사격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전차를 금무봉 후면으로 진출시켜 전후에서 협공을 개시함으로써 마침내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전투간 금무봉 옆 왜관도로상에서 부사단장·참모장·정보참모 그리고 헌병이 적에게 매복기습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으며, 또한 현장에서 사단장과 대화를 하던 제1대대 부대대장과 일단의 병사들도 적의 박격포 직격탄을 맞아 사단장과 부관을 제외하고 모두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237]

8월 13일 금무봉 전투 후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제13사단 제7연대가 대파 당하였으며 그 중 제1대대는 300~400명이 사망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도 2일간에 걸친 이번 금무봉 전투에서 전사 14명과 부상 4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238]

결국 서울사단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북한군 제3사단은 도하작전의 실패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패잔병 2,500여명과 함께 잠시 전선에서 물러났다.[239] 이로

써 미 제1기병사단은 영동전투에서 패배를 설욕하고 북한군 제3사단이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군단장은 이날부터 대구 서측방의 공격임무를 북한군 제10사단에 부여하였다.

2) 북한군 제10사단의 낙동강 도하 공격

북한군 제2군단장으로부터 새롭게 임무를 받은 북한군 제10사단은 최초 제3사단과 협동하여 대구를 장악할 계획이었으나 8월 8일에야 왜관에 도착하였다. 북한군 제10사단은 낙동강을 도하, 대구-부산 병참선을 차단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8월 11일 고령에 집결하여 용포(龍浦) 및 현풍(玄風) 대안에 제25연대와 제29연대를 추진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야간강습도하를 시도하였다.[240]

북한군 제10사단은 제29연대 1개 대대가 가장 먼저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4사단의 접경지역으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도하하여 현풍 일대의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29연대 제1대대는 도하과정에서 20~30명이 익사하였다. 북한군의 도하지점은 미 제24사단의 방어지역이었으나 국군 제17연대가 이동한 후 거의 무방비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편, 북한군 제25연대는 선두대대가 8월 12일 03:00시 짙은 안개를 틈타 용포교(龍浦橋) 부근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 정면으로 도하하였다. 지형상 낙동강에서 약 2㎞ 후방에 배치된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뒤늦게 도하사실을 알았으나 즉시 공군과 포병의 지원하에 역습을 전개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재차 적의 도하공격을 받았으나, 공군의 지원 폭격과 계획된 탄막사격으로 저지하였다. 이날부터 북한군 제10사단이 몇 일간 공격을 중단하였고 전선에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왜관방면의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8월 11~12일 도하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 제10사단이 8월 14일부터 예비인 제27연대를 투입하였다. 이날 적은 용포교와 그 남쪽 반성에서 도하하였다. 게이 소장은 8월 14일 새벽에 적이 도하했다는 보고를 받고 예비인 미 제7기병연대 1대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3주일 전에 영동(永同) 동쪽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전투를

치른 적이 있었다.[241] 이제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 출동으로 전투는 북한군 제10사단과 미 제7기병연대간의 전투로 확대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7기병연대는 공중지원과 포병 지원사격 등 화력 집중을 통해 적의 도하를 차단하였다. 특히 이날(14일) 미 제77포병대대는 적 집결지에 최대발사속도로 총 1,860발을 포격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는 1,700여명의 북한군 중 1,500여명을 살상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북한군 시체 중에는 대좌(大佐・대령 계급)가 2명이나 발견되었고, 적의 문서도 많이 노획하였다. 북한군 노획 문서 중 8월 13일자 사단장 훈시문에는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해방 5주년 기념일인 8월 15일까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령하였다 … 우리들은 전 노력을 경주하여 낙동강 도하에 성공할 것을 맹서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같은 훈시문은 북한군 제10사단 병사들을 분발시켰을지 모르나 작전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낙동강 강변과 골짜기에 수많은 북한군 시체만 남겼다.

북한군 포로에 의하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곳 전투에서 북한군 제10사단은 2,500여명을 잃었고 대부분의 부대는 50%의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북한군 제10사단은 재기불능이 되어 후퇴하였다.[242]

3) 미 제5기병연대의 작오산(鵲烏山) 전투

북한군 제10사단이 도하할 무렵 왜관 동북쪽에서도 적이 도하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3사단 일부병력이 국군 제1사단 좌측을 교란하면서 8월 14일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왜관 북쪽 작오산(鵲烏山・303고지)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303고지는 왜관 일대를 감제함은 물론 경부국도 교량과 철교를 통제할 수 있는 지형이었다. 즉 303고지는 왜관 철교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지로 왜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고지이다. 이 고지의 남쪽은 왜관 시내를 향해 경사졌고, 서쪽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다. 또 이 고지는 동남과 북서로 달리는 경부철도와 대구로 향하는 국도, 그리고 다부동에 이르는 도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감제고지로서 왜관 못지않은 중요한 요지였다.[243]



파괴된 왜관교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미 제5기병연대(1950년 8월 5일)

수중가도를 이용하여 도하한 뒤에 그날 밤으로 미군과 국군 전투지경선 바로 북쪽 고지대에서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여 왔다. 다음날(9월 15일) 아침 미 전폭기가 적의 수중가도를 폭파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부대는 남쪽으로 공세를 확장하여 303고지 정상에 배치된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 1개 중대와 박격포 소대가 적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고 있었다. 8월 16일 미 제5기병연대는 고지 주변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미 제61포병대대와 제82포병대대 B포대까지 가세하여 이날(16일) 하루 종일 적진에 포격을 하였다. G중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303고지에서 철수하였다.[244]

8월 17일 새벽 미 제5기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제70전차대대 A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303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심한 박격포 사격으로 왜관 근교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 제61포병대대에서는 1,159

발의 포탄을 적진에 발사하였고, 14:00시에는 공중폭격을 하였다. 미군 전폭기는 네이팜탄과 폭탄, 로켓포탄, 기관총사격으로 적진을 강타하였다. 강력한 화력사격 후 15:30분 보병부대가 공격을 재개하여 8월 17일 16:00시 303고지를 탈환하였다.[245]

미군이 303고지를 탈환하였을 때 고지에는 200여구의 적 시체가 즐비하였고, 생존자들은 철수하고 없었다. 그러나 미 제5기병연대는 적의 포로가 되었던 박격포 소대원 26명이 손을 뒤로 묶인 채 학살당한 채 버려져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들은 적에 포위된 상황에서 8월 15일 미명 무전으로 국군 60명이 증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기하던 중 침투중인 적을 국군으로 오인하여 접근을 허용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246]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은 8월 20일 즉시 잔학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북한군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귀하 및 귀하의 야전지휘관은 그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만행을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본관은 전쟁법규와 관례에 의해서 귀하 및 귀하의 예하지휘관을 처벌할 것이다.[247]

이에 대해 8월 28일 북한군 제3사단장 이영호(李英鎬)는 전선사령관 김책(金策)과 총참모장 강건(姜健)이 서명한 포로 대우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이 문서에서 북한군은 "지금부터 적 포로에 대한 살상은 엄금한다. 투항한 자는 포로로서 취급하고 사상적 정치적 교화에 노력하라. 포로의 취급은 최고사령부가 지시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지시는 즉시 모든 장병에게 이해시킬 것이며 정치적 참모에 의해서 그 수행을 확인 감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서는 미군이 총반격작전시 노획한 문서에서 확인되었다.[248] 그러나 전쟁 중 적의 비인도적인 처사는 계속되었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손실을 입은 정면의 적이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4) 미 제7기병연대의 수암산 전투(1950. 9. 2~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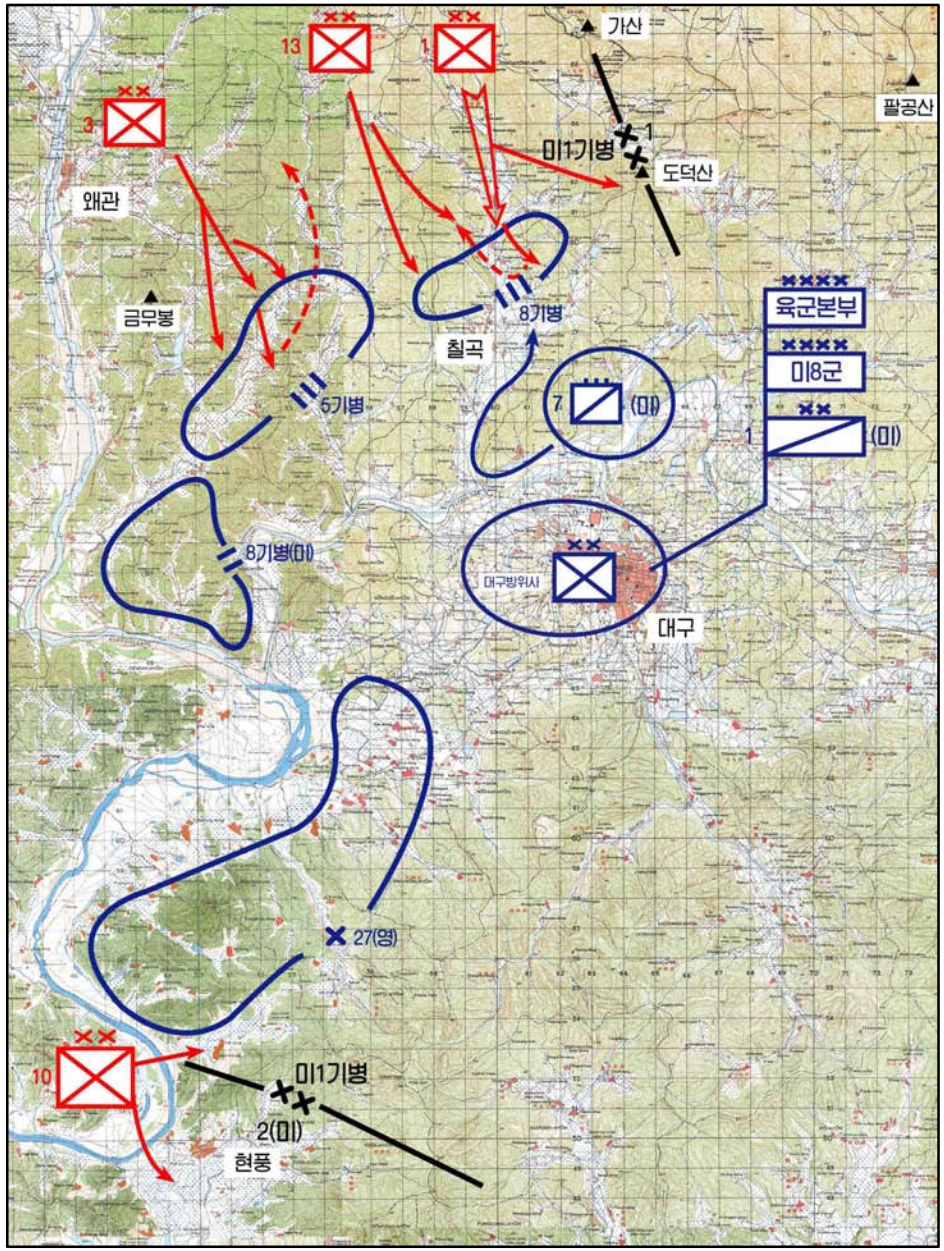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8월 30일 전투지경선을 조정하고 미 제1기병사단이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왜관~741고지까지를 담당하고, 국군 제1사단은 741고지~팔공산북방 중앙선까지 담당하여 대구북쪽의 방어진지 편성에 주력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미 제5기병연대를 왜관 동남쪽에, 미 제7기병연대를 유학산 일대에, 미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 북쪽 도로변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1사단이 팔공산 북방정면에 배치되었다.

9월 공세시 대구정면으로는 북한군 제2군단의 제3공격집단에 편성된 제1·제3·제13사단 3개 사단이 9월 2일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왜관-다부동-대구 축선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북한군은 8월 공세 때 이곳을 공격하던 북한군 제3사단을 왜관 북쪽에서, 북한군 제13사단을 상주-다부동 축선의 서측 고지군으로, 그리고 북한군 제1사단은 이 도로 동측 고지군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8월 31일 밤에 시작된 북한군 제1군단의 공격으로 낙동강 돌출부지역이 위기에 처하자 9월 1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1기병사단장에게 북쪽 또는 북서방향으로 공격하여 서측의 적을 유인하라고 명령하였다. 즉 북한군 제1군단이 낙동강과 마산 서부 및 남강(南江) 선에서 9월 1일에 미 제25사단과 미 제2사단 진지를 돌파하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날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에게 미 제8기병연대 정면에서 상주에 이르는 도로 방향으로 공격을 명령하였다. 사단장 게이 소장은 워커 중장의 명령대로 공격을 결심하였으나 사단 참모와 연대장들이 모두 사단장의 결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미 제7기병연대 정면의 수암산(水岩山·519고지) 공격을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군의 대부대가 이미 아군 방어진지 전방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아군이 공격할 경우 발생하게 될 기동공간을 방어할 아무런 병력도 없기 때문에 적에게 역포위(逆包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게이 사단장은 참모와 연대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암산을 공격하게 되었다.

<상황도 3-11> 미 제1기병사단의 9월 전투상황(1950. 9. 2~11)



미 제1기병사단장은 사단작전회의 결과에 따라 미 제7기병연대가 수암산을 탈환하고 미 제8기병연대가 그 우측에서 견제 공격하도록 하였다. 수암산은 왜관-다부동도로 북방에 위치하여 그 남쪽 대구로 이르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지물로서 당시의 적의 집결지로 알려져 있었다.[249]

미 제7기병연대가 공격개시하기 직전 9월 2일 새벽 갑자기 정면의 북한군 제13사단 제19연대 작전참모 김성준 소좌(少佐・소령)가 귀순하였다. 그는 "북한군 제2군단은 9월 2일 18:00시를 기해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며, 북한군 제13사단은 이번 최후공세를 위해 병력 4,000명(의용군)을 보충하여 총 9,0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50] 김성준 소좌의 제보는 대단히 시기적절한 것이었으며, 미 제8군은 즉시 예하 전 부대에 북한군의 총공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9월 2일) 아침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계획대로 수암산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구북방에 대한 위력수색작전이었다. 유엔 전폭기 편대가 수암산 일대에 네이팜탄을 집중 투하하는 동시에 사단포병이 일제히



적정을 살피고 있는 미 제1기병사단 관측장교(1950년 9월 1일)

사격을 집중하였다. 곧이어 미 제7기병연대는 제1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능선 기동로가 너무 좁아 공격부대가 중대-소대-분대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적의 강력히 준비된 진지로 1개 분대로 공격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공격이 실패되고 말았다. 이 때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서쪽에서 엄호진지를 미리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제2대대의 배후에서 수암산과의 공간지대에 배치되었다.[251]

9월 3일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수암산 공격 임무를 인수하여 제1대대가 한 것과 똑같은 분대의 종대 대형으로 남쪽에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다음날(4일) 공격에서도 제3대대는 실패하였다. 생포한 북한군 포로에 의하면 "수암산에는 1,200여명의 병력이 참호 속에 있으며 120밀리 야포와 82밀리 박격포 및 탄약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52] 이날(4일) 밤 북한군이 519고지 남쪽 능선 비탈에 있던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와 서쪽 제2대대 사이의 공간을 뚫고 침투하여 465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사단 좌측에서는 미 제5기병연대가 제2대대로 왜관북쪽 303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9월 5일 미 제7기병연대는 수암산 후방에 위치한 465고지에 더 많은 북한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군은 이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왜관-다부동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는 적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하였다. 폭격과 연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는 수암산의 북한군 제3사단이 부대간격을 따라 왜관-다부동 도로 남쪽 464고지로 침투하고 있었으며, 좌측방 왜관도 무인지경이 되고 우측방에서는 북한군 제13사단이 다부동까지 진출하였다. 가산으로 진출하던 미 공병대는 다음날 5일까지 북한군 제1사단 1개 대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철수하고 말았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군사령부 참모부장 콜리어(Collier) 대령을 불러 철수계획을 의논한 다음 미 제1기병사단장에 야음을 이용하여 왜관-다부동도로 남쪽의 방어진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253] 국군 제1사단도 이날 우측 영천의 국군 제8사단이 돌파됨으로써 전선균형을 위한 군단장의 철수명령을 받았다.

미 제1기병사단은 9월 6일 밤부터 미 제8・제7・제5기병연대순으로 철수하였


다부동 전투 후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1950년 9월)

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정면의 적과 접전 중이었으며 이미 적의 일부가 왜관동남과 다부동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으므로 철수가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날 밤은 폭우로 인해 행군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신방어진지인 465고지 일대를 적이 이미 점령하고 있어 제7기병연대의 진지전환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사단은 6~7일간에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여 미 제5기병연대(제7기병연대 제1대대 배속), 미 제8기병연대로 왜관-대구 간 도로남쪽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미 제7기병연대(-)를 대구부근에 사단예비로 확보하였다.[254]

국군 제1사단도 9월 6일 오후까지 팔공산 전방으로 이동하고 국군 제2군단명령에 따라 영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써 제11연대(-)를 제8사단에 보내야만 하였다.[255] 국군 제1사단장은 좌로는 기병사단과의 간격을 봉쇄하고 우로는 제6사단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좌전방 남산동에 제15연대, 우전방 대율동에 제12연대를, 사단의 좌측방 가산성 남쪽에 제11연대 제1대대를 배치하였다.[256]

5) 미 제8기병연대의 가산전투(1950. 9. 2~9. 11)

9월 2일 밤 미 제1기병사단의 우전방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8기병연대는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다부동 계곡 서측 448고지에 배치된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가 돌파되었으며, 우측 가산성지(架山城址)에 배치된 정찰소대와 경찰도 북한군에게 유린되고 있었다. 이처럼 미 제8기병연대가 다부동 일대의 요충지인 가산을 북한군에게 내줌으로써 대구 방어문제는 곧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257]

가산(架山・902고지)은 대구 북쪽 16㎞에 위치한 중요한 감제고지로써 다부동-대구간 도로와 대구까지도 감제하여 전술적으로 중요하였다. 이 산봉우리에 있는 산성은 돌로 쌓아올린 산성으로 그 높이는 10m로서 산꼭대기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 고지는 원래 8월 29일 미 제8기병연대가 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방어지역이었으나 미 제8기병연대장은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대책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상부에 건의하는 사이에 적의 침입을 받고 9월 3일 가산을 적에게 빼앗겼다.[258]

9월 3일 대구위기를 실감한 미 제1기병사단장은 즉시 부사단장 알렌(Frank A. Allen) 준장에게 사단 후방지원부대인 본부중대・근무부대・군악대・보충대까지 합하여 「앨런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이를 대구 북쪽 주변에 배치하여 적의 대구외곽 돌파에 대비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에서도 이날(3일) 대구 중앙훈련소의 제5교육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신병을 기간으로 1개 대대(대대장 중령 이상철)를 편성하여 미 제8기병연대 후방으로 진하여 다부동-대구돌파에 대처하였다.[259] 신병대대는 미 제8기병연대에 배속되어 제2전선인 도덕산(道德山・660고지)에 배치되어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260]

그러나 대구를 직접 위협하는 가산의 군사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날(9월 3일)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에게 즉시 가산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 작전참모 데브니(John A. Dabney) 대령도 미 제1기병사단 참모장 홀메스(Enerst V. Holmes) 대령에게 가산을 탈환하라고 명령하면서 탈환 후 그 지역은 사단책임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군사령부에서 1개 공병중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사단참모장 홀메스 대령은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사단장 게이 소장은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의 3개 연대 모두가 일선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사령부의 공병 1개 중대를 가산 탈환에 참가시키기로 결심하였다.[261]

참모장 홀메스 대령은 미 제8야전공병대대장 홀리(William C. Holley) 중령에게 이 명령과 함께 미 제8기병연대장 팔머(Raymond D. Palmer) 대령과 이 문제를 협

의하라고 전달하였다. 이날(9월 3일) 오후에 미 제8기병연대장은 다부동의 연대 지휘소에서 공병대대장과 제8야전공병대대 D중대장, 그리고 미 제8기병연대 E중대장에게 가산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262]

다음날인 9월 4일 아침 미 제8야전공병대대 D중대는 기성동(箕聖洞)에서 가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산을 점령한 적은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 제2대대 주력이었다. 공병 D중대와 E중대는 4일부터 미 항공기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공격하였으나 가산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더욱이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이 9월 6일 다부동 4.5㎞ 남쪽 도로를 봉쇄하였고 대구에 이르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570고지 마저 점령하였다.[263]

570고지는 대구 북쪽 12㎞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었다. 이 때 미 제8군 정보처는 570고지에 약 1,000명의 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워커 중장은 전날부터 미군과 국군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산공격의 임무는 우인접 국군 제1사단이 담당하였다.[264] 다음날(7일) 미 제1기병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수색중대의 전차 5대가 진출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적을 분산시켰으며, 가산 및 570고지 일대는 유엔 전폭기가 출격하여 폭격하였기 때문에 적은 이틀 동안 공격을 못하였다.

9월 8일 아침 미 제8기병연대 제3대대장 존슨(Harold K. Johnson) 중령은 570고지 탈환임무를 받고 공격하였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탄약이 떨어져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2척의 탄약선을 부산에 보냈으나 배가 도착하는 11일까지 미군 포병부대(제18포병대대·8인치 곡사포)는 포탄이 없어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일일 발사탄수를 50발에서 25발로 제한하여 사격하였다.[265]

한편 9월 7~8일에 미 제5기병연대를 303고지에서 밀어붙이고 왜관을 점령한 북한군 제3사단이 9일 왜관 동쪽 5㎞ 지점의 미 제5기병연대의 신방어선상의 345고지를 공격함으로써 일진일퇴의 전투가 전개되었다.[266] 제1대대는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으나 4차에 걸쳐 역습을 반복하여 적을 격퇴함으로써 마침내 진지를 회복하였다. 연대는 고지를 놓고 14일까지 많은 병력손실을 입으면서 7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반복하면서 간신히 174고지를 고수하고 있었다.[267] 이날 국군 제1사단은 좌전방 부대가 하루 종일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으나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268]

9월 10일 미 제1기병사단은 예하 부대를 대구 동쪽 측방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 때 미 제1기병사단 미 제8기병연대에 배속되었던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대구 북쪽 봉암리(鳳岩里) 181고지와 182고지에 있었고, 제7기병연대(-)는 대구 동쪽 6㎞ 지점인 동촌(東村)비행장 부근의 금호강(琴湖江) 기슭에 있는 산골짜기에 위치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는 대구 북서쪽 9㎞ 지점에 있는 낙산동(洛山洞) 부근 고지에 배치되었고, 미 제8공병대대는 대구 서쪽 금호강 교를 지키고 있었다.[269] 이 무렵 가산성지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대구로 침공할 준비를 갖추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 미 제7기병연대 314고지전투(1950. 9. 11~9. 12)

9월 11일 미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가산 남서쪽 3.5㎞ 지점에 위치한 570고지를 탈환하고자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북한군 제1사단의 일부 병력이 도덕산 남쪽 능선상의 314고지를 점령하였다. 314고지는 북한군이 점령한 고지 중에서 대구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서 대구시의 중심가까지 12㎞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이 곡사포 사격을 한다면 대구시가 적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270] 이로 인해 대구방어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기병연대 우측 도덕산에 배치된 국군 제5신병대대는 전투경험도 없고 장비도 보잘 것이 없었지만 적의 공격을 잘 저지하였다.

314고지에 대한 탈환임무는 9월 11일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에게 부여되었다. 제3대대는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베닝(Fort Benning)에서 편성돼 미 제3사단 제30연대의 예하 대대였으나, 1950년 8월 말 한국전선에 참전해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었다. 대대장은 린치(James H. Linch) 중령이었다. 제3대대는 첫 전투인 수암산 전투에서 중대가 종대공격을 하여 실패한 사례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2개 중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9월 12일 11:00시 314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당시 미군은 탄약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공격준비사격도 하지 못한 가운데 보병 단독의 공격을 실시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120밀리 박격포의 집중사격에 의해 제3대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날(12일) 14:00시경 미군 전폭기의 지원과 미군 포병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제3대대는 정상을 일시 점령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기관총 사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제3대대는 다시 미군 공중폭격의 지원하에 고지 정상을 공격하여 15:30분에 마침내 점령하였으나, 그 피해는 극심하였다. 공격의 선두에 섰던 2개 중대는 중대장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중대원 수가 40명을 넘지 못하였다. 북한군의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의 손실도 700여명에 달하였다.[271]

4. 전투 결과

9월 12일부터 대구 북쪽의 상황은 크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여러 고지에서 전투가 수행되고 있었다.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는 다부동 도로 동쪽 570고지에서 쟁탈전을 계속 중이었으며, 제3대대는 연대간격으로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도 미 제1기병사단과 협조하여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주며 9월 14일에는 가산성 가장자리까지 진출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침투하는 북한군을 역습하여 가산성의 755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제15연대도 일부 부대가 가산성 성벽까지 진출하였다. 제1사단은 13일 정오부로 대구방어의 지휘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미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되어 주로 북한군 제1사단과 작전을 계속하였다.[272]

특히 9월 14일 항공관측에 의하면 다부동에서 북으로 약 500명의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15일 755고지, 783고지, 팔공산으로 연결된 곳에서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대세는 북한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 무렵



미 제1기병사단의 왜관전투 전적비

북한군 제1사단의 대부분은 902고지에서 후퇴하였고, 북한군 제13사단도 북쪽으로 퇴각하고 있었다.[273]

한편 대구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경찰 14개 대대가 대구시 주위에서 호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형성하여 최후저지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최후결전을 치러야 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14일까지 대구북쪽의 약 10㎞ 지점에서 적을 저지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패잔병들은 다부동과 가산산성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대구점령을 위한 북한군 제2군단의 9월 공세는 좌절되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 다음날인 9월 16일 09:00시를 기해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 작전을 개시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중서부지역 작전은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대구 북쪽 다부동-왜관지역에서 한미연합군(국군 제1사단·미 제1기병사단)이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5개 보병사단(제1·제3·제10·제13·제15사단)과 45일간에 걸쳐 전개된 치열한 공격을 물리치고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총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한 작전이다.

작전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은 대구-부산 축선의 관문인 다부동-대구 축선과 왜관-대구 축선에서 북한군 5개 보병사단을 맞아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또 작전기간 중 다부동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다부동을 방어하던 국군 제1사단 지역에 국군 1개 연대와 미군 2개 연대를 증원하여 한미연합작전을 수행케 하였다. 또 미 공군의 융단폭격을 포함한 수많은 항공지원이 있었다. 낙동강 방어작전간 모든 전선의 지상작전에서 근접항공지원은 지상군의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중서부 지역에 투입되었던 북한군 사단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 가운데 북한군 제13사단이 특히 심하였다. 북한군 제13사단은 병력의 피해말고도 사단참모장·포병연대장·연대작전참모가 차례로 귀순해옴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타나는 그들의 전투력 부족과 함께 크게 떨어진 사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사수결의에 바탕을 둔 성공적인 방어작전 결과에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군 피해 또한 컸다. 국군 제1사단은 이곳 다부동 전투에서 장교 56명을 포함해 2,300여명의 전사자를 냈다.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회고에 의하면, "매일 주저앉아 울고 싶을 정도의 인원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274] 이때 다

행히 청년 학생들이 조국수호 결의를 다지고 자원하여 전선에 투입됨으로써 그 손실을 메워주었고, 인근의 주민들도 지게를 메고 나와 포화를 무릅쓰고 탄약, 식량, 물과 보급품을 고지까지 운반해 주었다.

이렇듯 다부동 전투는 민·관·군을 비롯해 우방국 미군이 가세한 총력전이자 한미연합작전이 최초로 일궈낸 쾌거였다. 그렇기에 이것은 국군, 우방국, 국민 모두의 승리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낙동강 전선 최대의 격전지로 알려진 대구의 관문인 왜관-다부동을 지켜내 6·25전쟁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낙동강 교두보를 지켜내어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크게 일조(一助)하게 되었다.

2. 제1사단장(백선엽 준장)의 다부동 전투 평가

다부동 전투의 신화를 남겼던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다부동 전투가 끝난 후 이 전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하였다.

첫째, 방어지역에 침투한 적을 역습으로 격퇴 혹은 격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파구의 견부(肩部)를 확보하여 돌파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견부를 지키는 부대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전투를 하게 되나 이를 극복하고 인내하는 정신이 필요하였다.

둘째, 예비대의 중요성이다. 예비대의 보유 문제에 있어서 광정면을 방어할지라도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요 지형지물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하고 지휘관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를 각 제대별로 보유하여야 하며 일단 예비대를 사용하면 지체없이 새로운 예비대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셋째, 방어시의 취약점은 인접부대와의 협조문제이다. 인접부대와의 경계선은 항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긴급한 상황하에서 상호 연락과 협조가 유지되도록 되어야 한다.

넷째, 국군은 정예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휘관이 있는 곳에 정예부대가 존재한다고 단언하여도 지나친 속단이 아니었다. 즉 훌륭한 지휘관일수록 부하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에 의하여 지휘계통을 먼저 확립하고 솔선수범으로 엄정한 군기가 유지되며 부하의 복지를 향상시킨 다음 부대를 통솔함으로써 부대사기는 왕성하게 되고 부대는 단결되어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다섯째, 방어시 종심(縱深) 유지는 병력은 물론 특히 화력으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한미연합작전의 중요성

6·25전쟁 이후 다부동 전투를 통해 한미간의 실질적인 연합작전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미 제8군은 8월 중순 대구 관문인 다부동 지역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8월 18일 군 예비인 미 제27연대를 증원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미 제23연대를 두모동에 종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비록 미군 2개 연대가 국군 제1사단에 배속되거나 작전통제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들 미군 부대가 국군 제1사단의 작전책임지역에서 공동의 작전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시한 연합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화력이 부족한 보병 중심의 국군 제1사단은 적 전차접근로상의 계곡 양쪽의 고지 능선에 주로 배치되었고, 증원된 미군 도로 좌우측의 고지 하단부에 배치되어 북한군의 전차를 수반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전차와 포병화력으로 증강된 미군은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하자 대(對) 전차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고지의 양쪽 견부를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을 양측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연합작전을 훌륭히 소화해 나고 있었다.

그러나 다부동 전투 기간 중 국군 제11연대 제1대대가 보급 추진이 되지 않아 일시 후퇴함으로써 발생한 미 제27연대의 철수 위협 상황은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정신교육, 그리고 이어 단행된 사단장 돌격지휘로 간신히 무마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연합작전의 어려움과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국군 제1사단은 똑똑히 보고 배우게 되었다. 이는 국군에게 한미연합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산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 최초로 실시한 연합작전을 통해 국군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다. 서로 목숨을 담보로 맡기고 싸우는 전선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강한 신뢰뿐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방어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퇴했을 때 차후작전에서 정상적인 연합작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작전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국군 제1사단이 총반격 작전을 앞에 둔 1950년 9월 12일 국군 사단으로는 최초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어 북진작전을 할 수 있게 된 배경도 사실은 다부동 전투에서 보여준 제1사단의 전투수행능력과 사단 전투력에 대한 미군 지휘관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전투지휘관으로서의 뛰어난 리더십과 인간적인 신뢰도 크게 한 몫 하였다. 다부동 전투는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이후 미국 고급지휘관으로부터 수없이 받은 테스트(test)의 시작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를 통해 작전 및 전투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백선엽 장군은 한국군 최초의 대장으로 진급하였고, 두 차례에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6·25전쟁을 통해 '한국군 최고의 작전지휘관(the finest operational commander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으로 명성을 떨치며 성장했던 것도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총명함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전의 근간인 한미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전쟁 초기 가장 어려운 전황에서 그 누구보다 일찍 실전을 통해 체득한 결과였다.[275] 그는 6·25전쟁 최대의 위기인 낙동

강 방어작전을 거치며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해 나갔던 것이다. 이 낙동강 방어작전은 분명 위기였으나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그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호기(好機)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부동 전투는 분명 한미연합작전의 시금석(試金石)이자 유능한 전투지휘관을 발굴하게 되는 기회였다.

4. 지휘체계의 일원화

미 제8군은 8월 18일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의 급박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 예비인 미 제27연대를 다부동 북쪽 복고에 투입하고 다음날에는 미 제23연대를 그 후방에 종심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때 미군 2개 연대는 국군 제1사단에 배속되거나 작전 통제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지휘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대구 사수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군이 협조된 작전을 전개하였지만, 단일 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완전한 연합작전이 성립되지 않았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국군 지휘관의 작전지휘 및 부대 운용능력과 군사지식을 갖춘 통역장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미 제8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칙적인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휘계통의 이원화와 연합작전을 위한 협조체제의 미비로 발생한 '미 제27연대장의 철수' 운운과 미 공군의 오폭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작전상 큰 혼란을 빚게 하였다.

비록 미 제8군이 연합작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일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휘통일의 단일화를 실시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야간 전투의 중요성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은 8월 공세 초기부터 야간전투 위주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 이유는 제공권을 상실하여 주간 행동이 제한되고, 기동력과 지상 화력이 열세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9월 공세시 북한군은 공격개시 시간을 일몰 후 또는 초저녁으로 정하였다. 이는 북한군이 다음날 새벽까지 공격부대가 아군 진지 전방 100~1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공중에서 관측할 때 피아 구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유엔 공군과 포병사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북한군은 낙동강의 천연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작전행동을 야간에만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8월 6일 낙동강 돌출부의 오항나루터와 8일의 다부동 서쪽 마진나루를 통한 야간 도하작전은 기습을 달성하여 아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다부동 전투에서는 한 달 간 계속된 교전기간에 북한군이 주간에 공격한 것은 7회에 지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네 번은 아군 전폭기의 출격으로 실패하였다. 반면 북한군이 수없이 야간공격을 실시하였다. 아군도 8회에 걸쳐 실시한 야간에 실시한 공격은 모두 성공하였다.

야간전투는 철저한 훈련으로 자신력을 배양하고, 한편으로 소부대 지휘관의 정확하고 과감한 전투지휘와 세밀한 사전 정찰, 그리고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강구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6. 사기의 중요성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에 비해 병력이나 장비면에서 2~3배 열세하였다. 전투에서 병력과 장비의 우세는 승리의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무리 유

능한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병력과 장비가 열세하면 부하들의 사기가 저하되기 쉬우므로 승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장의 엄연한 원칙이다.

국군 제1사단은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부족한 병력과 화력으로 인해 악전고투하였다. 특히 낙동강 연안전투에서 제15연대의 경우에는 적이 아군 정면으로만 왔지만 제11연대의 경우는 전방, 측방, 후방의 3개 방향으로 공격하여 왔다. 따라서 처음부터 낙동강을 이용한 하천방어를 처음부터 할 수 없었고 항상 노출된 진지에서 2~3배에 가까운 적과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에도 제11연대가 적에게 패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격파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부대 장병들의 높은 사기 때문이었다.

제1사단 장병들은 개전 초기 전투와 지연전을 통해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으로 물러난 제1사단은 여기서 신병보충을 받아 병력을 70%로 유지하게 되고,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3.5인치 로켓포를 지급받자 이제 싸울만하다며 사기가 높아졌다. 제1사단은 이러한 감투정신으로 아군보다 우세한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치며 낙동강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

7. 보·전 협동작전의 중요성

개전 이래 국군 장병의 병폐는 적의 전차에 대한 공포심이었다. 이는 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차무기인 2.36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동강 방어작전시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3.5인치 로켓포가 각 연대에 3문씩 지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1사단은 3.5인치 로켓포가 지급되면서 적 전차를 파괴하기 시작하였고 전차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 먼저 제12연대 전차특공대는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5대나 파괴하였고, 제11연대도 57밀리 대전차포로 5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였다.

전차는 항상 보병의 엄호를 받아 협동작전을 하여야 하는데 낙동강 방어작전 초기 적 전차는 단독 행동을 하여 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북한군 전차가 단독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 T-34전차는 미 공군의 활동으로 낮에는 민가를 뚫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데 아군 진지에 이르는 작전지역이 대부분 논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에서 적 전차는 기동이 용이치 않아 보병과의 협동작전이 용이치 않았다. 적 전차와 보병이 분리된 기회를 이용해 국군 전차특공대가 적 전차의 50m까지 접근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처럼 보병을 수반하지 않은 전차는 눈먼 장님처럼 무력하게 국군 전차특공대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이후 국군 제1사단에서는 적 전차가 나타나면 서로 이를 파괴하겠다고 지원하는 병사가 속출하게 되었다.

8. 후방 주요 시설의 경계대책

낙동강 방어작전은 국운이 걸린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이에 국군 사단은 예비대 없이 모든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여 북한군의 발악적인 공세를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후방에 위치한 사단지휘소를 비롯한 연대지휘소가 적의 기습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8월 19일, 23일, 27일 3차에 걸쳐서 동석동의 동명초등학교에 위치한 사단 지휘소와 연대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았다. 지휘소를 기습한 북한군의 병력은 소규모 병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이를 즉시 격퇴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8월 19일 밤 사단지휘소이 학교 운동장에 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도착해서 운동장에 야영하고 있던 제10연대 제2대대가 없었다면 제1사단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적이 침투한 목적이 사단장을 사살하러 왔다는 것

만 보더라도 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때 미군 통신병 수명이 침투한 적에게 사살당한 것을 볼 때 경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사단 지휘소 부근에는 지뢰를 매설하고 요소에는 기관총을 배치하여 소대규모의 병력이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전시 고급사령부에 대한 경계대책으로는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후방지역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대책은 사단 본부 요원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경계부대에 의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9. 전장 상황별 훈련(수류탄 훈련)의 필요성

낙동강 작전시 제1사단으로 보충된 신병들은 10일간의 기초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M1소총도 제대로 사격하지 못할 정도였다. 따라서 유학산과 수암산 산악지형에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2연대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제12연대는 신병이 보충되면 먼저 소총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그 다음 수류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신병들이 전투에서 소총으로 적을 겨냥하여 사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수류탄 훈련에 치중하였다.

수류탄은 공격이나 방어시 매우 중요한 무기였다. 따라서 제12연대 신병들은 전투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난 다음날 모두 팔들이 부었다고 할 정도였다. 암석으로 된 유학산과 수암산 전투에서 제12연대는 신병들에게 수류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투에서 많은 효과를 보았던 것은 전장에서 융통성 있는 훈련의 좋은 선례라고 판단된다.

(집필 : 남정옥)

주 (註)

1) 國防部, 『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p. 127.
2) 미 제1기병사단은 '기병'의 명칭과는 달리 보병사단이었으나, 창설 이후 전통에 빛나는 부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多富洞戰鬪』(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 25.
4) FEC, G-2,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군사편찬연구소사료, No.856, Section5, pp. 69-70). 북한군 제10사단은 7월 25일 평남 숙천과 충남 대전을 거쳐 8월 8일 경북 왜관에 도착하였다.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213-221.
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多富洞戰鬪』, p. 36.
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多富洞戰鬪』, p. 36.
8) 국군 사단은 「제1차 국군재편성계획('50. 7. 5)」과 「제2차 국군재편성 계획('50. 7. 24)」에 의거 제2사단·제5사단·제7사단이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방어작전시 건제를 유지한 국군 사단은 제1사단·제3사단·6사단·제8사단·수도사단의 5개 사단이었다.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62-163.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pp. 204-205. 의정부-포천 축선 또는 춘천-홍천 축선에 투입되었던 북한군 사단은 바로 국군의 지연작전에 투입되어 교전에 들어갔으나, 북한군 제1사단은 7월 9일에야 음성 서북방에 투입되었다.
11) 백선엽, 『6·25한국전쟁 회고록: 軍과 나』(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p. 54.
12)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 이후 장군으로 진급된 사단장은 제6사단장(김종오 대령), 8사단장(이성가 대령), 수도사단장(송요찬 대령), 3사단장(이종찬 대령)이다. 이들 사단장이 1950년 9월까지 모두 준장으로 승진하면서 국군사단장은 모두 장군으로 보직되었다.
13) 백선엽, 『6·25한국전쟁 회고록: 軍과 나』, p. 54.
14) 정일권, 『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6), p. 115.
15) 낙동강 방어작전시 국군과 미군 사단의 방어책임 구간은 제1사단보다 훨씬 협소하였다. 국군 제6사단(26㎞)·제8사단(20㎞)·수도사단(24㎞)·제3사단(16㎞)이 30㎞ 미만이었고, 미 제1기병사단(35㎞), 미 제24사단(40㎞), 미 제25사단(37㎞)도 제1사단(42㎞)도 적은 정면을 부여받았다.
16) 정일권, 『전쟁과 휴전』, p. 119.
17) 정일권, 『전쟁과 휴전』, p. 119.
1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多富洞 戰鬪』, p. 31.
19) 다부동 전투간 제13연대가 제15연대로 개칭되었다. 이는 1950년 7월 5일 충북 증평에서 제15연대가 제13연대의 잔존병력을 흡수하였으나 사단 건제인 제13연대의 고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이는 제15연대의 전통과 명예문제라고 하여 고유명칭 변경을 주장한 결과 같은 해 7월 25일 함창에서 제15연대로 호칭키로 하고 이를 육본에 건의하였다. 그 후 「국본 일반명령(육) 제53호」(1950.8.25)에 의거 제13연대가 제15연대로 부대명칭이 바뀌었다. 본서에서는 제15연대의 호칭을 실제로 1950년 7월 25일부터 사용한 사실과 국군 제1사단 「작전명령 제20호」(1950.7.21) 및 「작전명령 제23호」(1950.7.28)에도 그 때를 전후하여 제15연대로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혼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15연대로 사용하였다. 이후 본서에서는 제15연대로 기술

하였다.

2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34-35.

21) 다부동 전투시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장은 최초 김점곤 중령에서 박기병 대령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1950년 7월 경북 함창에서 제5사단 제20연대가 제1사단 제12연대에 흡수되었을 때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제2군단 요원으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박기병 대령은 계속 전선에서 싸우겠다고 간청했으므로 연대에 머물러 전투지휘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명령 수령 및 부대 운용은 김점곤 중령이, 전투현장 지휘는 박기병 대령이 담당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육본특명 제9호」(1950.8.8일부)로 박기병 대령을 연대장에, 김점곤 중령을 부연대장으로 발령하였다. 김점곤 중령은 제1사단이 다부동 전투를 끝내고 신녕지역으로 이동한 직후인 1950년 9월 3일부로 '육본특명(甲) 제118호」에 의거 제12연대장에 보직되었다. 이 때 박기병 대령은 제6훈련소로 전속되었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8.

22) 장교자력표(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25.

2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35.

24) 온창일,『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p. 661.

25) 수중교 일명 수중가도(水中假道)는 수면아래 30㎝ 높이로 하상에 암석과 목재 혹은 가마니에 모래와 자갈을 채워 수중가도를 만들어 차량과 중장비를 도하시키는 방식으로써 소련군이 독·소전쟁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다.

26)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3, SN. 122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73-75.

27)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6('50.8.9).

2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 113.

29) '육본 작전명령 제119호」,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50.8.12); 이때의 X선과 Y선은 '육본작명 제94호」의 내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Y선은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신주막-군위-보현산을 연하는 선이며, X선은 Y선 후방에 위치한 부대집결지였다.

3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07.

3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28; 제12연대장 김점곤 중령 증언.

3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29.

3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29.

3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0.

35) 전차특공대의 총지휘는 김성룡(金成龍) 대위, 특공대장 김원희(金元熙) 소위, 조장 정영조(鄭永朝)·송효석(宋孝錫) 상사, 대원 9명이었다. 특공대는 3.5인치 로켓포 각 1문, 2.36인치 로켓포, 수류탄, 소총으로 무장하였다.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1.

3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131, 134. 이 전공으로 특공대장 김원희 소위는 중위로 특진되었고, 조장 정영조·송효석 상사는 소위로 현지임관(現地任官)하였고, 나머지 대원들은 2계급 특진의 영예를 누렸다. 또한 정일권 총참모장과 조병옥(趙炳玉) 내무부장관이 연대를 방문해 전차특공대의 전공을 치하하였고, 노획한 북한군 전차는 대구 시내에 전시하였다(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5).

3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5.

38) '국군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 부록 제9호」(1950.8.12).

3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6.

4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7.

4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7.

4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7.

4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8.

4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8; ≪부산일보≫, 1950년 8월 9일.

4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8.

46) 런던타임즈(London Times)의 아이안 모리슨 기자, 런던 테일러 텔러그라프지의 크리토퍼 버클리 기자.

47) 제11연대장 김동빈 대령 증언.

4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38.

4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0.

5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0.

51) '국군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 1950. 8. 1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1.

5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1.

5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2.

5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142-143.

5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3.

5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44;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작명부록 제9호)」, 1950. 8. 12. 20:00.

5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07.

58)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94(50.8.15).

5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23-125.

6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p. 355-360.

6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15('50.8.22).

6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7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15; 백선엽,『軍事評論』 제118-119합본(경남 진해: 육군대학, 1970), p. 2.

63) 백선엽,『軍과 나』, p. 61.

64) 백선엽,『軍과 나』, p. 61.

65) '육본작명 제119호」, 1950. 8. 11. 11:00.

66)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 1950. 8. 12. 18:00.

6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15.

6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16.

6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16.

7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17.

7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5.

7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6.

7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8.

7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8.

7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9.

7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29-130.

7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0.

7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1.

7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2.
8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3.
8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3.
8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3.
8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4.
8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4.
8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4.
8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34-135.
8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6.
8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7.
8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8.
9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38.
9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2.
9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0.
9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0.
9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2.
9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07-208.
9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2.
9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0.
9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1.
9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3.
10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3.
1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51-35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3.
1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3.
10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44.
10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57.
10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58.
10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58.
10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59.
10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0.
10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0.
11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53.
11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0.
11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1.
11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1.
11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2.
11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2.
11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4.
11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5.
118) '사단작전명령 제32호'(1950.8.2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6.
11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69.

12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1.
12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2.
12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2.
12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5.
12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6.
12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7.
12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79.
12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82.
12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83-184.
12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86.
13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86-187.
13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88.
13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88-189.
133) 國防部,『韓國戰亂 1年誌』(大邱: 國防部政訓局 戰史編纂會, 1951), p. B-3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67; 백선엽,『軍과 나』, p. 72.
13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96.
13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98.
13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98.
13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99.
13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199-200.
13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01.
14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03.
14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03.
142) 사곡동(寺谷洞)은 원래 남동사(南桐寺)라는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 절은 전화(戰火)에 휩싸여 소실되고 절터만 있었다.
14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05.
14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07.
14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08.
14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10.
14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11.
14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212-213.
14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20.
15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21.
151) '육본작명 제119호'(1950. 8. 11. 18:0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76.
15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221-222.
15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76.
15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176-177.
15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176-177.
15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78.
15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78.
15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236-237.
15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178.

16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79.
161) 미 제27연대는 제73전차대대 C중대(M-26전차 20여대)와 제37포병대대(155밀리 곡사포)의 2개 포대 그리고 제8포병대대(105밀리 곡사포)의 2개 포대를 배속 받아 8월 17일 저녁 무렵에 제1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동석동에 집결하였다가 이날 20:00시경 전선의 다부동으로 이동하였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79; 백선엽,『6·25전쟁 회고록: 軍과 나』(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p. 65.
16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8.
16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4.
16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55; 백선엽,『軍과 나』, p. 62.
16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4.
16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55.
16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6.
168) 國防部,『韓國戰亂1年誌』(대구: 國防部政訓局 戰史編纂會, 1951), p. B-3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1.
16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58.
17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1.
17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58.
17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8.
17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9.
17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9.
17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60.
17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1.
17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60-361; 백선엽,『軍과 나』, p. 69.
17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183-184.
179) 백선엽,『軍과 나』, p. 70.
180) 백선엽,『軍과 나』, p. 70.
181) ATIS Interrogation Report No.771 N. K. 13th Div., 13th Artillery Regiment 정봉욱 증좌, 26 Aug 50, 군사편찬연구소, MF SN. 26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4.
18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61.
183) 제11연대장 김동빈 대령 증언; 제11연대 제2대대장 차갑준 소령 증언;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5.
18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5.
18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6.
18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6.
18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6.
18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63.
18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122.
19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7.
19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214-21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63.
192) 「육본작명 제151호(작명부록 제33호)」, 1950. 8. 30; 「제2군단 작명 제22호(부록 제37호)」, 1950. 8. 3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7.
19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8.
19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68.
19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87.
19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56.
19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68.
19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3.
19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3.
20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3.
20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4.
20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4.
203) 「제2군단작명 제31호(작명부록 제62호)」, 1950. 9. 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4.
20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4.
20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5.
20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5.
20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6.
20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6.
20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6.
210) 「國防部 一般命令(陸) 제70호」, 1950. 9. 13.
21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37.
212) 陸軍本部,『第1師團 第12聯隊 戰鬪詳報』;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315.
21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315.
21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69.
21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p. 315-316.
21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316.
21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316.
21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317.
219)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 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300.
22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2.
22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201-202.
22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198, 202, 469.
22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199, 202.
22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51.
22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51.
22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52.
22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199.
228) 國防部,『韓國戰爭史: UN군 참전편』제11권(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0), pp. 395-397.
22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6.
23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37.

231)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New York: Anchor Press Books, Doubleday, 1989), pp. 155-16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198, 469.
232) 온창일,『한민족전쟁사』, p. 661.
2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0.
23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0.
235) 좌측방은 창녕·영산 정면의 미 제24사단 정면을 말하는데 워커 사령관의 상황판단은 적중하였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1.
236) After-Action interview with Lt. Col Peter D. Clainos, Commanding Officer, 1st Battalion, 7th Cavalry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1119.
23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1.
23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2.
23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2.
24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2.
24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5.
24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42-345.
24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4.
24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48-34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5.
24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06.
24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45-347.
24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47.
24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50.
249) 북한의 공간사에 의하면 "만일 수암산을 견지하지 못하면 부득불 다시 낙동강을 건너와야 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북한군도 수암산을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제25권, p. 262.
2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11-412.
25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71.
25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14.
25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73.
25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19.
255) 「제2군단 작전명령 제31호」, 1950. 9. 5; 「제2군단 작전명령 제32호」, 1950. 9. 6.
256)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158('50.9.5).
257)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52;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153 ('50.9.3).
25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78.
25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2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9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78.
26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87. 이상철 중령은 미숙한 신병교육대로서 도덕산 방어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미국정부로부터 동성훈장(銅星勳章)을 받았다. 또한 이 대대는 9월 20일 쯤 대구의 교육대로 복귀하여 훈련을 마친 다음 10월에 제5사단 제27연대(연대장 중령 이상철)로 증편되었다.
26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79.
26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79.
26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84.
26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30;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167('50.9.8).
26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85.
2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20.
26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21.
268)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169('50.9.9).
26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85.
27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87.
27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32-43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88.
27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35; 「국방부 일반명령(육) 제70호」('50.9.13); 국군 제1사단은 가산과 팔공산 사이에서 북한군 800여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多富洞戰鬪』, p. 295.
27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490.
274) 백선엽,『軍과 나』, p. 72.
275) Matthew B. Ridgway and James A. Van Fleet, "Forward" in Paik Sun Yup, *From Pusan to Panmunjom*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2007), p. x.



제 4 장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창녕-영산 전투
제 3 절 마산 서부지역 전투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부산에 이르는 창녕(昌寧)-영산(靈山) 축선과 진주(晋州)-마산(馬山) 축선에서 미 제1해병여단으로 증강된 미 3개 보병사단(제2·제24·제25사단)과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5개 사단(제2·제4·제6·제7·제9사단)간에 펼쳐진 약 45일간의 공방전을 일컫는다. 특히 작전기간 동안 미군은 한국 해병대와 한국 육군부대를 배속 받아 북한군의 최종목표인 부산교두보를 방어하기 위해 영산과 마산 지역에서 북한군 5개 보병사단과 격전을 치렀다.

창녕-영산 축선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은 대전 전투 이후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였으나, 미 제1해병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4사단의 8월 공세를 저지하였다. 이후 미 제24사단은 이 지역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어 경북 경산(慶山)으로 이동하였다. 8월 20일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인수한 미 제2사단도 새로 투입된 북한군 제2·제9사단의 9월 공세를 맞아 대구-부산간의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마산 서쪽지역의 방어임무는 미 제25사단이 맡고 있었다. 미 제25사단은 이 지역에서 북한군(제6사단·제7사단)의 8월 및 9월 공세를 모두 저지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상주지역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여 낙동강 방어작전에 투입되었다. 최초 미 제25사단은 국군 제1사단 지역인 왜관 북쪽 지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방면으로의 대우회 기동으로 인해 부산의 관문인 마산 서부가 위협을 받게 되자 미 제8군 긴급명령에 의해 이곳을 방어하게 되었다. 미 제25사단은 8월 공세시에는 북한군 제6사단을 맞아 격전을 치렀고, 9월 공세시에는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을 맞아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다.

낙동강 돌출부로 알려진 창녕-영산 지역은 낙동강이 천연장애물 역할을 하였

다. 이 지역의 낙동강은 하폭이 300~1,000m에 이르렀고, 강물의 폭도 200~500m나 되었으며, 물의 깊이는 평균 2~4m로서 적이 도섭하기에는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다. 낙동강 양안(兩岸)의 산은 나무가 별로 없고, 강기슭은 거의 절벽에 가까운 단애(斷崖)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적이 도하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형이었다.

그렇지만 이곳은 거창(居昌)·합천(陜川) 지역에서 영산을 거쳐 밀양(密陽)과 삼랑진(三浪津)에 이르는 중요한 접근로였다.[1]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의 전투지경선에는 남지(南旨) 교량이 있을 뿐이고, 도로는 남지-영산-창녕-현풍-대구에 이르는 간선(幹線) 도로와 영산에서 밀양과 삼랑진에 이르는 도로는 겨우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였다.[2]

미 제25사단의 작전책임지역인 마산은 육로·철로·해로 등 교통이 편리하였다. 철도는 진주와 삼랑진을 연결하는 진주선과 창원(昌原)과 진해를 연결하는 지선(支線)이 있었다. 육로로는 진주에서 마산에 이르는 철도 연변의 도로와 사천(泗川)-고성(固城)-진동(鎭東)을 거쳐 마산에 이르는 우회도로가 있었다. 또 마산



마산 서부방벽으로 알려진 서북산의 능선

<상황도 4-1-1>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1) (1950. 8. 1~9. 14)

A3

<상황도 4-1-2>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2) (1950. 8. 1~9. 14)

A3

에서 부산에 이르는 도로로는 창원-진영(進永)-김해(金海)-구포(龜浦)-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와 진해-김해-구포-부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남해안의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부산 서쪽의 관문으로서 피아(彼我)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북한군은 창녕-영산 축선을 통해 대구-부산간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부산으로 진출하고자 하였고, 진주-마산 축선에서는 부산의 목에 해당하는 마산을 점령하고 부산으로 진출하여 전쟁을 종결짓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1개 기갑여단(-), 1개 자주포 대대 및 각종 포병의 지원을 받는 5개 보병사단을 이곳 전선에 투입하였다.

반면 미군은 창녕-영산 전투에서 낙동강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어에 성공하였고, 진주-마산 전투에서는 서북산(西北山)을 중심으로 한 마산 북서쪽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북한군의 파상공격(波狀攻擊)을 저지하였다.

제 2 절 창녕-영산 전투

1. 전투 개요

창녕-영산 전투는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미군 2개 사단(제24・제2사단)과 북한군 3개 사단(제2・제4・제9사단)이 치열하게 싸운 33일간의 공방전이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대구-부산간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투입된 북한군 3개 사단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북한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창녕-영산 지역의 낙동강은 동으로 굽어져 남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10㎞ 거리에 있는 영산(靈山)의 맞은편에서 서쪽으로 굽어 넓은 반원형(半圓形)을 형성하였다. 미군은 이곳을 '낙동강 돌출부(Naktong Bulge)'라고 불렀다. 즉 현풍에서 남지(南旨)에 이르는 낙동강이 서쪽으로 톱날 모양을 이루며 돌출된 것을 보고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3)]

미군의 방어지역인 이곳 낙동강은 미군의 방어에는 유리하였으나 북한군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이 지역에 형성된 낙동강은 방어선의 4분의 3을 둘러싼 큰 해자(垓字)를 형성하였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물굽이를 형성함으로써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마치 긴 뱀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4)]

낙동강을 연하여 형성된 낙동강 돌출부 방어선은 강과 도로 그리고 중요한 고지와 고지를 연결한 거점형태의 방어진지로 형성되었다. 주변의 고지는 주간에는 주로 관측소로서 운용되었고, 야간에는 이를 청음초 또는 전초선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주간에 관측소로 이용하는 고지에는 분대 병력의 절반 정도만 배치하여 적정 수집과 적정 활동을 관측하였다. 또한 주간에는 지프차로 낙동강을 연한 도로를 순찰하였기 때문에 전체 방어선에 대한 경계가 대체로 취약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군은 하천 후방에 포병과 박격포 진지를 점령하여 북한군의 도하가 가능한 나루터나 예상도하지점에 화력계획을 수립하여 두었다.

미 제24사단과 미 제2사단은 이러한 지형의 이점을 잘 활용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미 제24사단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이 지역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세를 물리친 후 미 제2사단에게 방어지역을 인계하였다. 미 본토에서 증원된 미 제2사단은 8월 20일 이 지역을 인수하여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북한군 제2사단・제4사단 일부・제9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을 끝까지 사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 제24사단과 미 제2사단은 미 제1해병여단의 증원을 받아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제2사단・제4단・제9사단은 낙동강 돌출부를 돌파한 다음 창녕과 영산을 점령하여 미 제8군의 퇴로인 밀양-부산을 차단하려는 기도가 미군의 적극적인 방어와 과감한 역습으로 좌절되었다.

2. 북한군과 미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을 점령한 후 북한군 제4사단의 새로운 임무는 제17군단 포병연대 1개 대대와 협동으로 금산(錦山), 안의(安義), 거창(居昌), 진주를 거쳐 마산(馬山)으로 진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4사단은 미군이 파괴한 도로를 복구하며 느린 속도로 진격하여 1950년 7월 25일 02:00시에 금산에 도달하였고, 7월 26일 18:00시에는 장계리(장수 동북방 11㎞)에 이르렀다.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27일 아침에는 육십령(六十嶺・장계리 동쪽 6㎞) 고개를 넘었고, 7월 27일에는 안의를 점령하였다.[5)]

한편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晋州)를 점령하자, 북한군 제4사단에게 낙동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영산(靈山)과 밀양(密陽)을 점령하고, 부산-대구간 도로를 차단할 것을 명령하였다.[6)] 북한군 제4사단은 이를 위해 7월

28일 정오에 합천(陜川)을 향해 진격하였고, 후퇴하는 아군을 계속 추격하여 7월 29일 오전에 거창을 점령하였고, 18:00시에는 권빈리(權彬里・합천 동북방 12㎞) 까지 진출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낙동강 선으로 계속 진출하여 8월 2일 18:00시에는 합천을 점령한 후 황강(黃江) 도하를 준비하였다.[7] 이 때 북한군 제4사단의 전체 병력은 약 7천명이었고, 1개 보병연대의 병력은 약 1,500명 수준이었다. 사단 포병은 총 12문의 야포를 보유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합천 남쪽 지역의 황강 남쪽 강변에 교두보를 확보한 후 미군 포병 진지들을 위협하는 한편, 강의 북쪽에서 남쪽 강변을 따라 방어하고 있는 미군 경계부대를 포위하였다. 미군은 포위를 염려하여 동쪽 방면인 낙동강 좌측 강변으로 황급히 철수하였다. 이 때 북한군 제4사단이 이를 추격하여 8월 3일 오후에 초곡리(합천 동남방 19㎞)까지 진출하여 도하 준비를 하였다.[8]

북한군 제4사단은 도하준비와 함께 탄약을 충분히 확보한 후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군 제4사단은 왜관 북쪽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이 도하하고, 마산 서부에서 북한군 제6사단이 공격하자 이에 호응하여 8월 5~6일 야간에 도하하였다.[9]

북한군 제4사단은 이때부터 8월 18일까지 미군 사단과 전투를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북한군 제2사단・제9사단이 북한군 제4사단 일부를 배속 받아 낙동강 돌출부에서 미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은 아군의 지연작전 동안 보은(報恩)을 점령한 후 7월 30일 황간에 도달하였다. 이후 북한군 제2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과 함께 김천을 점령한 후 8월 중순 김천(金泉)에서 재편성을 하고, 8월 30일 의령의 신반리(新反里)에 집결하였다.[10] 다음날인 8월 31일 북한군 제2사단은 미 제23연대를 공격하기 위해 도하가 가능한 지점(내재나루터・적포교(赤布橋)・삼밭머리 나루터)에서 도하준비를 하였다.[11]

북한군 제9사단(-)은 최초 평양을 출발하여 1개 연대를 인천방어부대로 남겨놓고, 8월 23일 합천에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은 낙동강 돌출부 서안(西岸)의 신반리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하고, 미 제9연대 방어지역인 영산 정면에서 도

하준비를 하였다.[12] 이때 이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2사단장은 최현 소장, 제4사단장은 이권무 소장, 제9사단장은 박효삼 소장이었다. 이들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북한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은 8월 20일 북한군 전선사령관 김책의 총공격 명령에 따라 영산과 밀양을 동시에 공격하여 밀양과 부산간의 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과 9사단은 공격준비를 갖춘 후 8월 31일 22:00시에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낙동강 돌출부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13] 미 제8군은 창녕과 영산을 북한군에게 빼앗기면 대구와 부산간 도로가 차단됨으로써 전체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수하고자 예비대를 투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였다.

<표 4-1> 밀양-영산 축선의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14]

구 분		계급	성 명	지원부대
제2사단	사단장	소장	최 현(崔 賢)	
	제4연대장	대좌	이승호(李勝虎)	
	제6연대장	?	?	
	제17연대장	대좌	김관대(金寬大)	
	포병연대장	?	?	
제4사단	사단장	소장	이권무(李權武)	
	제5연대장	대좌	최인덕(崔仁德)	
	제16연대장	대좌	?	
	제18연대장	?	?	
	포병연대장	?	?	
제9사단	사단장	소장	박효삼(朴孝三)	• 제1군단 1개 포병대대 • 고사포 1개 대대 • 제16기갑여단 2개 전차대대 • 제4사단 1개 포병대대
	제85연대장	?	?	
	제86연대장	?	?	
	제87연대장	?	?	
	포병연대장	?	?	

2) 미군 상황

(1) 미 제24사단장의 방어구상과 결전의지

미 제24사단장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소장의 실종으로 1950년 7월 26일 사단지휘권을 인수한 존 처치(John H. Church) 소장은 지형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현재 합천 방면에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주공은 창녕 정면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15] 사단장은 지역 내에 많은 도섭장(渡涉場)이 산재해 있고, 창녕 정면의 지형이 남쪽 영산 정면보다는 비교적 공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북한군의 주공 방향은 창녕 정면이 될 것이다. 창녕 정면에는 도섭이 가능한 지점이 많고, 지형도 공격에는 유리하나 방어에는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갑부대에 의한 역습이나 증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북한군은 아군의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창녕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치 소장은 공격시기에 대해 "북한군은 아군의 방어태세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하려고 하겠지만, 도하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군은 8월 중순 이후에나 주공을 창녕 방면으로 지향시켜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16]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

한편 낙동강 방어전투를 즈음해 처치 소장은 사단 장병들에게 훈시를 하였다. 훈시를 통해 그는, "방어를 함에 있어서 도로와 하천에 대한 경계를 엄중히 하고 통신을 완비해야 한다. 각자는 자기의 임무를 숙지하고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각자가 부여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후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싸우게 된다. 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기와 탄약, 삽과 곡괭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자기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간이 있어도 개인호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었다"라고 강조하며, 완벽한 전투준비태세와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불퇴전(不退戰)의 의지'를 밝혔다.[17]

(2) 미 제24사단의 방어배치와 전투력

미 제24사단은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따라 낙동강과 남강(南江)의 합류점에서 북으로 낙동강을 따라 현풍(玄風)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하였다. 이 정면은 직선거리로 약 37㎞, 하천거리로 약 60㎞에 달하였다.[18]

1950년 7월 말 합천 산제리(山際里) 일대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던 미 제24사단 제34연대는 8월 2일 영산으로 이동하였고, 미 제21연대는 창녕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제17연대는 미 제21연대에 배속되어 미군의 도하를 엄호한 후 8월 3일 06:30분 낙동강을 도하하여 현풍 일대에 배치되었다. 미 제19연대는 8월 3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마산-진주간 도로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다가 미 제25사단의 제35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미 제24사단사령부가 있는 창녕에 도착하여 재편성에 들어갔다.[19] 미 제24사단은 사단장 처치 소장을 비롯하여 포병사령관 바스(George B. Barth) 준장, 제19연대장 무어(Ned D. Moore) 대령, 제21연대장 스티븐스(Richard W. Stephens) 대령, 제34연대장 뷰챔프(Charles Beauchamp) 대령이 있었다.

미 제24사단은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에서 북으로 약 37㎞를 담당하였다. 사단 예하의 미 제34연대는 낙동강 돌출부의 영산 서쪽을, 미 제21연대는 창녕 서쪽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7연대가 그 북쪽에 배치되었다. 미 제34연대는 제3대대를 연대 정면의 하천선에 배치하였는데, 방어정면은 약 15㎞에 달하였다. 예비인 제1대대는 낙동강에서 후방으로 약 6㎞ 떨어진 강리(講里)에 위치하였다.[20] 미 제24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21]

구 분		계급	성 명
지휘부	사단장	소장	처치(John H. Church)
	포병사령관	준장	바스(George B. Barth)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무어(Ned D. Moore)
	제1대대장	중령	리(R. L. Rhea)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McGrail)
제21연대	연대장	대령	스티븐스(Stephens)
	제1대대장	중령	스미스(Charles B. Smith)
	제2대대장	중령	페레즈(Gines Perez)
	제3대대장	중령	젠센(Carl C. Jensen)
제34연대	연대장	대령	뷰챔프(Charles Beauchamp)
	제1대대장	중령	아이리스(Harold B. Ayres)
	제3대대장	중령	페레즈(Gines Perez)
배속부대	제1해병여단장	준장	크레이그(Edward A. Craig)
	제5해병연대장	중령	머레이(Raymond L. Murray)

미 제34연대 정면에는 좁은 계곡에 160~200m 높이의 고지군과 심한 경사를 이룬 계곡이 있었다. 15㎞에 달하는 연대 정면에는 강에서 고지로 연결되는 어구가 2개 있었는데, 북쪽 어구가 오항(烏項)나루터와 연결돼 있었다. 또 다른 어구가 낙동강 돌출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박진(泊津)나루터였다.[22]

미 제24사단은 대전 전투 이후 입은 손실로 병력이 부족하였고, 손실로 인한 병력 보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 예하의 각 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었고, 이들 대대도 50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였다.[23] 따라서 연대 병력은 기껏해야 1,000명 안팎이었다. 또한 사단에는 전차가 배속되었으나, 사단 포병은 105밀리 17문과 155밀리 12문을 보유함으로써 사단 전체의 전투력은 약 40%에 불과하였다.[24]

미 제24사단의 방어진지는 8월 2~3일에 걸쳐 구축하였다. 그러나 개인호만 완성되었을 뿐 공사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철조망 설치와 지뢰 매설은 창녕 정면의 일부에만 겨우 설치되었다.[25]

(3) 미 제2사단의 방어배치와 전투력

북한군의 8월 공세를 저지한 미 제24사단은 이곳 방어지역을 미국 본토에서 도착한 미 제2사단에게 인계하였다. 미 제2사단은 8월 20일 미 제24사단과의 교대 명령을 받고 8월 24일 진지를 인수하였다. 새로 방어지역을 맡은 미 제2사단장 카이저(Lawrence B. Keiser) 소장은 8월 31일까지 예하 연대를 새로운 방어지역에 배치하였다.

사단 예하의 미 제9연대는 영산 정면인 낙동강 돌출부에, 미 제23연대는 창녕 정면에, 미 제38연대는 그 북쪽 현풍 정면에 배치되었다.[26] 미 제2사단은 사단장 카이저 소장을 비롯하여 제9연대장 힐(John G. Hill) 대령, 제23연대장 프리먼(Paul L. Freeman) 대령, 제38연대장 페플로(George Pepole) 대령이었다. 미 제2사단의 지휘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미 제2사단장 카이저 소장

미 제9연대의 방어 책임지역은 우(右)로는 낙동강 동안의 부곡리(釜谷里)에서 좌(左)로는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약 20㎞에 달하는 광정면이었다. 미 제9연대는 이 지역의 주요 지점에 연대 예하 5개 소총중대를 배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27] G중대는 거마리(巨馬里)에서 소재미에 이르는 능선에, F중대는 오목나루터 뒤

<표 4-3>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 제2사단 지휘관 현황[28]

구 분		계급	성 명
지휘부	사단장	소장	카이저(Lawrence B. Keiser)
	포병사령관	준장	헤이니스(Loyal M. Haynes)
제9연대	연대장	대령	힐(John G. Hill)
	제1대대장	중령	론달(John E. Londahl)
	제2대대장	중령	해리슨(Fred L. Harrison)
	제3대대장	중령	맥메인(D M. McMains)
제23연대	연대장	대령	프리먼(Paul L. Freeman)
	제1대대장	중령	허친(Claire E. Hutchin)
제38연대	연대장	대령	페플로(George Pepole)
	제3대대장	중령	스튜어트(Everett Stewart)
배속부대	제5해병연대장	중령	머레이(Raymond L. Murray)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2㎞ 사이에, B중대는 월상리(月上里) 210고지에서 반포(泮浦) 앞 능선에 이르는 사이에, C중대는 반포 앞 능선에서 창아지 마을에 이르는 사이에, A중대는 창아지 마을에서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기항(起港)나루터 동안에 자리잡고 있는 아곡동(芽谷洞) 94고지에 이르는 사이에 배치되었다.[29]

미 제23연대는 낙동강 연안의 곱자골 서쪽 능선 동쪽 끝에서 부곡리의 마원에 이르는 14㎞ 정면의 넓은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정면은 미 제24사단 제21연대가 8월 24일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에 인계한 지역이었으나, 8월 29일 제3대대로부터 다시 제23연대가 인수하였다. 미 제23연대장 프리먼(Paul L. Freeman) 대령은 제1대대를 낙동강 연안의 높은 지대에 배치하고, 낙동강에서 창녕에 이르는 두 개의 도로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는 제1대대 후방에 있는 두 개의 교통이 편리한 도로에 예비진지를 점령하였다.[30]



박진나루터의 월상리 마을과 210고지

3. 전투 경과

1) 미 제24사단의 8월 영산 전투

(1) 북한군 제4사단의 낙동강 돌출부 공격

미 제24사단은 낙동강방어선 형성시 대구 서측방 현풍에서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 남지에 이르는 37㎞ 정면을 책임구역으로 할당받았다. 이 일대의 지형은 강의 하폭이 300~400m이고, 수심은 2~4m로 'S자' 모양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러 곳에 돌출부를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 창녕과 영산부근에는 서측으로 보다 크게 반월형으로 돌출되어 있어 전사에서는 이곳을 가리켜 낙동강 돌출부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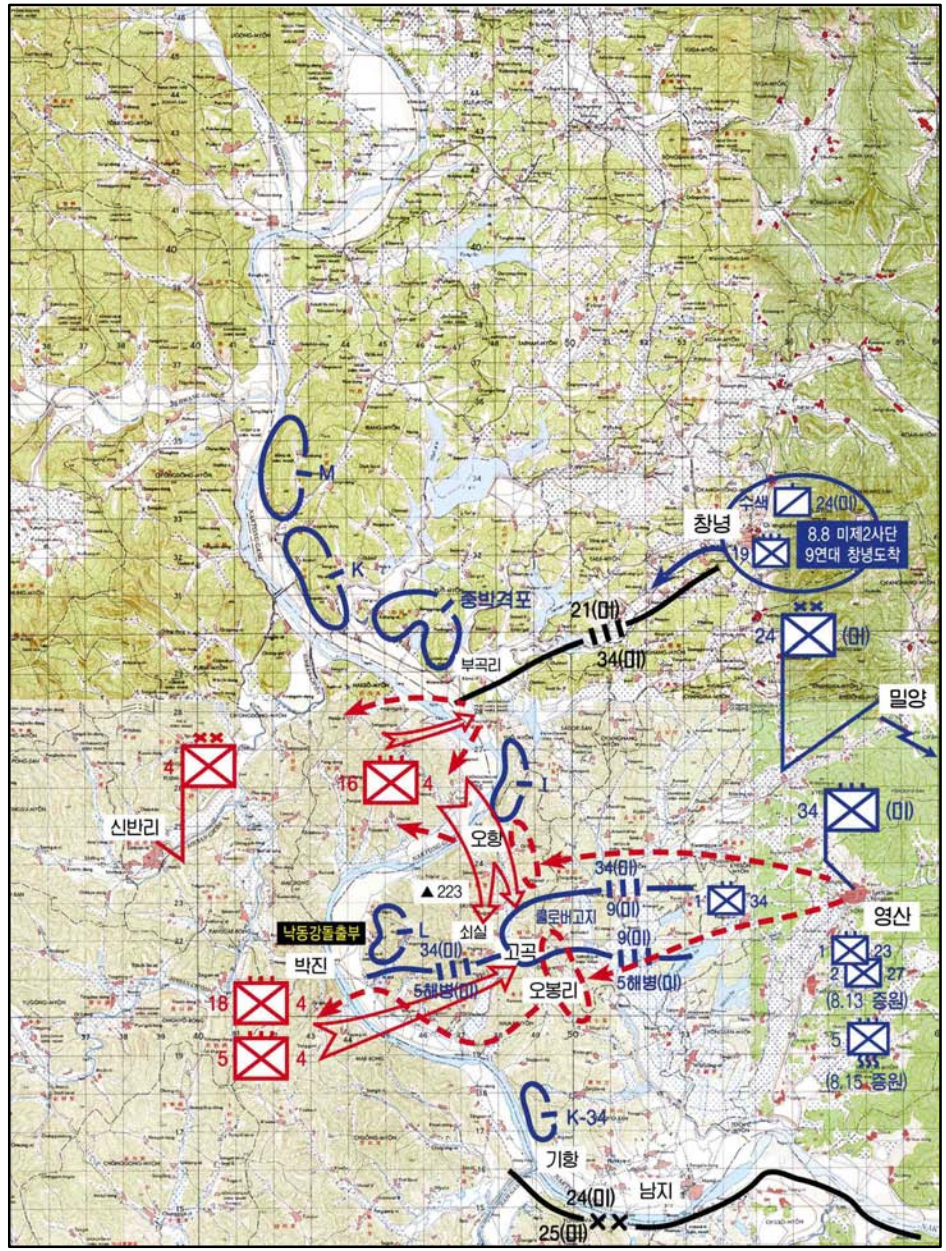
박진나루터에서 바라본 북한군이 배치된 고지

합천-진주 서측에서 이곳으로 이르는 도로는 남지교를 제외하고는 교량이 없는 관계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도섭장과 도선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다. 그 가운데 부곡-창녕, 박진-영산에 이르는 도로는 창녕과 영산을 지나 밀양을 거쳐 부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로였다.

미 제24사단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산제리 부근에서 지연전을 마감하고 낙동강을 도하하여 미 제34연대가 영산, 미 제21연대가 창녕으로, 배속된 국군 제17연대가 현풍지구로 이동하여 강변고지를 중심으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단의 전투력은 40%에 불과한데다 광정면을 담당하여 부대간격이 4~5㎞나 되었고, 따라서 하천 및 도로 위주의 정찰을 실시하였다.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북한군 병력이 창녕 대안의 합천 일대에 집결하여 있고, 또 지형상 영산 보다 창녕지역에 도섭가능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적의 주공이 창녕에 지향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그는 이 일대에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사단수색중대와 마산에서 8월 3일 복귀한 제19연대를 창녕에 집결시켜 예비대로 삼았다.[31] 미 제24사단장은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내의 주민들을

<상황도 4-2> 미 제24사단의 영산 전투(1950. 8. 5~19)



소개하였고, 피난민의 도하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4사단은 군단으로부터 낙동강 돌출부 지역을 돌파하여 신속히 대구 후방을 차단하고, 경부간 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4사단은 합천 일대에 병력을 집결한 후 도하준비를 하였다.

마침내 8월 5일 자정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이 그동안의 탐색을 마치고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32] 그러나 미 제24사단장의 판단과는 달리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는 주공을 영산 정면의 오항(烏項)나루터에 두고, 그 일부는 북쪽의 부곡(釜谷) 일대에서 적색 및 녹색 신호탄에 맞춰 도하하였다. 북한군은 대부분 옷을 벗은 채 장비를 머리에 이고, 어깨까지 미치는 강물을 건넜고, 일부 병력은 뗏목을 만들어 피복과 장비를 운반하였다. 부곡 일대로 도하한 북한군은 미 제21연대로부터 기관총과 야포사격을 받고 격퇴되었다. 그러나 오항나루터로 도하한 북한군은 미 제34연대 제3대대의 중대 방어진지 사이의 간극을 따라 침투하여 박격포진지를 유린한 다음 후방으로 침투하여 제3대대 본부를 위협하자 대대본부는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후방에 배치된 오봉리의 포병진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적의 기습을 허용하게 된 것은 북한군이 공격할 때 미 제34연대가 130고지 정상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기습지점인 오항나루터에는 경계병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 제34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8월 6일 적의 도하공격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연대지역에서 적이 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어두워서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으면 제1대대를 투입시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장에게 연대 진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33]

8월 6일 연대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미 제34연대 제1대대장은 클로버고지(165고지)에 침투한 북한군을 역습하도록 하였으나, 대대 지휘부와 먼저 공격에 나선 C중대가 오히려 적의 기습을 받고 치열한 교전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대대 일부병력이 도로를 따라 계속 전진하여 강변진지로 진출하였다.

한편 미 제24사단장은 이날(6일) 오전 북한군의 주공방향이 영산정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먼저, 사단 예비인 미 제19연대로 하여금 오항 일대를 공격하도록 하고, 정오경 다시 사단수색대를 투입하여 부곡-창녕간 도로를 차단한 뒤 I중대와 함께 부곡리의 북한군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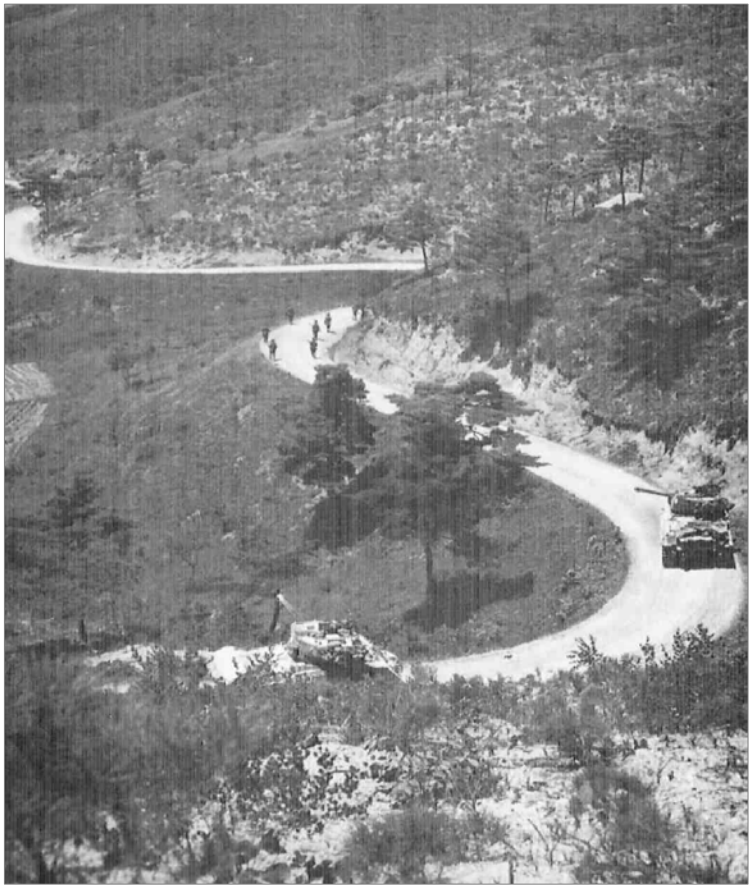
이에 미 제19연대(B중대)는 오항 동쪽으로 진출하여 북한군 300여명을 포위격멸하면서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미 제34연대 제1대대도 역습을 실시하여 클로버고지의 일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24사단 수색대는 부곡리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물러났다. 이날 전투에서 미 제34연대 제1대대는 역습으로 클로버고지를 탈환하고, 낙동강 진지를 확보하여 적이 영산으로 통하는 도로망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미 제19연대와 제9연대가 북상하여 적에게 반격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34]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은 그들의 후속부대를 박진나루터·오항나루터·부곡리를 통해 계속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미군의 야포와 항공기의 집중사격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럼에도 북한군은 오항과 부곡리 일대에 공격거점을 확보하면서 야간도하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증강시켰다.[35]

(2) 북한군 제4사단의 클로버고지-오봉리 능선 점령

1950년 8월 7일 아침 미 제19연대와 미 제34연대 B중대가 적의 공격거점에 대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는 미군의 역습부대가 공격할 때 혹심한 더위에 식량과 식수마저 부족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유엔 공군기의 오인사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36] 이틈을 이용하여 북한군은 클로버고지를 점령한 후 오봉리 능선으로 진출하였다. 적이 점령한 클로버고지 일대는 아군의 후방의 주보급로는 물론 밀양까지도 관측이 가능한 요충지였다.

한편 8월 7일 미명 북한군의 일부가 현풍정면으로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북한군은 국군 제17연대의 도하저지사격으로 격퇴되었다. 이날 국군 제17연대가 국군 재편성계획에 의해 대구로 이동하여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자, 미 제24사단장은 하이저(Hyzer)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17연대의 진지를



영산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미군 전차와 보병(1950년 8월)

인수토록 하였다. 하이저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24사단 수색중대, 제3공병대대(-), 제78전차대대(-)로 구성되었다.[37]

또한 미 제8군은 현풍지역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8월 7일 야간에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2사단 제9연대 제1대대를 미 제24사단에 배속하였다. 이에 미

제9연대 제1대대는 8월 6일 밤 창녕에 도착하였고, 미 제2사단 제9연대(-)도 8월 8일 이곳에 도착하였다.[38]

한편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미 제9연대장 힐(John G. Hill) 대령에게 낙동강 돌출부에 있는 북한군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였다. 미 제9연대는 사단의 지원포격하에 8월 8일 16:00시 2개 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다. 미 제9연대 제1대대가 클로버고지를, 제2대대가 오봉리 능선을 목표로 공격하였다.[39] 그러나 미 제9연대는 밤새 행군으로 인해 피로에 지쳐 있었다. 더구나 미 제9연대는 적정이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전투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급히 투입되었기 때문에 많은 병력손실만 입은 채 후퇴하였다.[40] 한편 이날 밤 강변중앙진지를 맡고 있던 미 제34연대 A중대와 L중대도 북한군의 공격을 견제하며 철수하였다.

8월 10일 미 제24사단은 미 제9연대와 미 제19연대 제2대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북한군과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미 제19연대 제2대대가 오항 일대의 고지를 한때 탈환하고, 미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 일부를 탈환하였다.[41]

(3) 힐(Hill) 특수임무부대의 공격

미 제24사단장은 공격부대의 진출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힐(Hill)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미 제24사단장은 10일 저녁 미 제9연대장 힐 대령에게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권을 부여하였다. 힐 특수임무부대의 편성은 미 제9연대, 미 제34연대, 미 제19연대, 미 제21연대 제1대대, 그리고 기타 배속부대로 이루어졌다.[42] 편성을 끝마치자 미 제24사단장은 힐 특수임무부대장에게 돌출부지역내의 북한군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힐 특수임무부대장 겸 미 제9연대장 힐(Hill) 대령

한편 미 제24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4사단은 8월 10일 야음을 이용하여 도하가 가능한 오항나루터와 박진나루터 일대에 수중교 가설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다음날(8월 11일) 새벽까지 대규모의 병력과 함께 전차·박격포·야포를 도하시켜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었다.[43]

힐 특수임무부대는 8월 11일 아침 공격개시선에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북한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포병지원사격까지 동반한 북한군의 예기치 못한 기습공격으로 미 제21연대 제1대대가 집결지에서 와해되는 등 힐 특수임무부대는 혼란에 빠지면서 공격이 좌절되었다.[44]

(4) 북한군 제4사단의 영산 점령

미 제24사단장은 힐 특수임무부대의 공격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계획을 변경하여 진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45]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군은 고지 정면에 주력을 지향해 미군을 압박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가 미군 진지 좌측방으로 우회하여 영산 후방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다.[46]

8월 11일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의 전투지경선의 협조점에 위치한 남지교가 북한군에게 피탈되고, 영산이 북한군의 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후 미 제24사단 수색대는 영산 남쪽으로 우회한 북한군과 조우하였다. 이에 미 제24사단장은 미 제14공병대대를 영산에 투입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예비인 미 제25사단 제27연대 제2대대를 남지교로 투입하였다.[47]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피난민 대열 속에 잠복한 게릴라의 습격으로 인해 오후 늦게야 남지교에 도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정면의 적과 공방전을 수행하던 힐 특수임무부대는 고전하고 있었고, 영산 동쪽의 주보급로가 적에게 차단되어 보급차량이 기습을 받았다. 힐 대령은 다음날(8월 12일) 아침 미 제9연대 1개 중대와 박격포 소대를 투입하여 북한군의 차단부대를 격퇴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적의 역습을 받고 실패하였다.

한편 밀양의 미 제24사단사령부에서는 본부중대장이 전차 2대, 행정병, 취사병, 헌병 등 135명을 지휘하여 영산-밀양간 심곡리에 진지를 구축하여 침투한

적을 격퇴하는 한편 전투부대에 필요한 식수, 식량, 탄약 등을 장갑차로 추진하였다.[48]

미 제8군사령관은 영산 남쪽과 동쪽 일대의 북한군이 약 2개 대대 병력일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 미 제27연대 주력을 투입하여 소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8월 12일 미 제27연대를 미 제24사단에 배속하고 영산 북쪽에서 적을 공격하였다. 이날(8월 12일)은 각 전선이 악화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예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낙동강 돌출부지역이 그중 가장 심각하였다.[49]

8월 12일 미 제27연대 제2대대가 먼저 항공기의 지원하에 영산 동쪽의 북한군 차단부대를 공격하였고, 다음날(8월 13일) 미 제27연대 주력이 합류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미 제27연대는 영산에 집결한 미 제14공병대대와 증원된 미 제2사단 제23연대 제1대대와 함께 영산주변의 북한군을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였다.

(5) 클로버고지-오봉리의 제2차 전투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영산 일대의 위기가 해소되자 8월 14일 아침 다시 힐(Hill) 특수임무부대에게 총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힐 특수임무부대는 일기불순으로 최초 계획된 전투기 100여대 지원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강행하였다. 힐 특수임무부대의 주공인 미 제2사단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 일부에 도달하였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다음날까지 수차례 뺏고 빼앗기는 백병전을 거듭하였다. 이 전투에서 각 중대의 대부분의 장교가 전사 또는 부상당하였으며, 오봉리 남쪽의 미 제21연대 제1대대는 적에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철수하였다.[50]

힐 특수임무부대는 근접전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 제34연대 제1대대 콜린스(Roy E. Collins) 중사의 소대 35명은 오봉리 능선에서 수류탄전을 전개하여 25명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고지로 돌입하는 투혼을 발휘하였다. 또 적의 역습을 받아 철수할 때 흑인병사 클리본(Edward O. Cleaborn) 일등병은 최후 순간까지 엄호사격을 가하는 감투정신을 발

휘하였다.[51]

8월 15일에 미 제24사단장과 힐 특수임무부대장은 당분간 전투력이 회복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이 사단사령부를 방문하고 계속 역습을 실시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미 제8군의 강력한 예비대인 미 제1해병여단을 미 제24사단에 배속시켰다. 워커 중장은 당시 전선의 도처에서 위기가 조성되어 각 부대가 예비대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날(15일) "미 제1해병여단은 8월 17일 일찍 공격을 개시하여 돌출부내의 북한군을 낙동강 서안으로 구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마산에서 밀양-영산으로 이동하였다.[52]

역습이 계획된 전날인 8월 16일 힐 특수임무부대는 다시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 이에 미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고, 미 제19연대와 미 제34연대도 격전 끝에 오항고지를 상실하였다. 이때 미 제24사단 우전방의 현풍정면에는 전날부터 새로이 북한군 제10사단 제29연대의 2개 대대가 도하하여 강변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이 지역의 위기가 다시 고조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군 제10사단의 향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이들은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53]

(6) 미 해병대의 오봉리 점령

8월 15일 북한군 제4사단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식량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탄약 재보급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다. 미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북한군 제18연대는 8월 14일 탄약보급이 두절되었고, 보충병(남한 점령지역에서 동원된 의용군)의 40%가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54] 이들 보충병은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채 참호 구축에 동원되었다.

미 제1해병여단장과 미 제24사단장, 그리고 예하 연대장들은 8월 15일 공격계획을 토의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대를 지원할 미 항공모함의 사정으로 8월 17일 공격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미 항공모함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호에서 함재기 출격이 가능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육군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오른쪽)과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왼쪽)

해병대의 합동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 때 미 제24사단장이 수립한 반격계획은 미 제1해병여단이 좌에서 오봉리 능선 정면으로, 미 제9연대가 중앙에서 클로버고지로, 미 제34연대와 미 제19연대는 우에서 클로버 우익과 오항고지를 공격하되 미 제9연대는 목표점령 후 적을 축출하도록 하였고, 공격개시시간은 함재기의 지원이 가능한 8월 17일 08:00시로 결정하였다.[55]

이 계획의 핵심은 미 해병연대와 미 제9연대의 협조된 공격으로 오봉리 능선과 클로버고지를 우선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 해병연대장은 해병이 먼저 공격을 하여 오봉리 능선을 점령한 후, 이를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본 작전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미 제24사단장은 미 제5해병연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획을 변경하여 먼저 해병대로 공격하게 하였다.[56]

8월 17일 07:35분 49문의 야포가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고, 미 해병대 함재기 코르세어 전폭기 18대가 오봉리 일대를 강타하였다. 곧이어 미 해병 제2대대가 전진하여 5부 능선에 진입하면서 클로버고지 남단 두곡 부락과 오봉리 부락으로부터 북한군의 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진 부대 중 신카(Michael J. Shinka) 소대의 20명만이 고지정상에 진입하였으며, 이들도 고지 측방과 후사면의 북한군으로부터 기관총 및 수류탄 공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코르세어 전투기의 폭격 후 해병대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신카 소위는 소대원 9명과 더불어 재차 점령하였으나 역시 적의 공격으로 정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사면으로 내려갔다. 이때 소대장은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해 고지정상으로 올라가다가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었다. 미 해병 제2대대는 7시간의 전투에서 60%의 손실을 입었다. 미 해병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부대를 교대하여 재공격 준비를 시켰다.[57]

이 전투 이후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최초 계획대로 전 부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오봉리와 클로버고지에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되었으며, 후사면 참호의 적을 살상하기 위해 일정한 지상높이에서 폭발하는 VT신관이 사용되었다.



보병을 지원하고 있는 미 포병

8월 17일 16:00시 공격이 개시되어 미 제9연대가 클로버고지를 포병화력의 효과로 무난히 점령하였고, 해병연대는 제9연대의 측방 지원사격하에 우측방으로 적진을 공격하여 오봉리 능선상의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때 한국인 노무자들이 오봉리 능선에 보급품을 추진하고 사상자들을 후송하였다.

8월 17일 저녁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차 4대를 투입하여 오봉리와 클로버고지 사이의 도로를 따라 전진하였다. 오봉리 북단의 미 해병대는 즉시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M26퍼싱 전차를 전방진지로 추진하고 75밀리 무반동총과 3.5인치 로켓포를 도로와 애로 지점에 배치하였다. 미군 전투기 3대가 즉시 출격하여 북한군 전차에 기총소사를 하였으나, 그 효과는 어둠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군 전차에 대한 공격은 3.5인치 로켓포, 75밀리 무반동총, 퍼싱 전차순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적 전차 3대는 이들 지상화력에 의해 파괴되었고, 네 번째 적 전차는 항공기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날(8월 17일)



영산-박진전투 전적비

황혼 무렵 미 제19연대도 항공기와 포병의 지원하에 공격하여 오항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 전투에서 미 제19연대와 미 제34연대 공히 많은 손실을 입었다. 결국 미 제24사단과 미 해병대는 다음날(8월 18일)까지 전 지역에서 소탕전을 전개하고 낙동강에서 합류하였다.[58] 미 제1해병여단은 8월 19일 작전이 종료되자 창원으로 이동하여 군 예비가 되었다.[59]

북한군은 완전히 궤멸되어 패잔병들이 포격과 폭격을 받으며 10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낙동강을 건너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돌출부전투에서 입은 타격으로 끝내 인원과 장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는 낙동강전투에 참전할 수 없게 되었다.

2) 미 제2사단의 창녕-영산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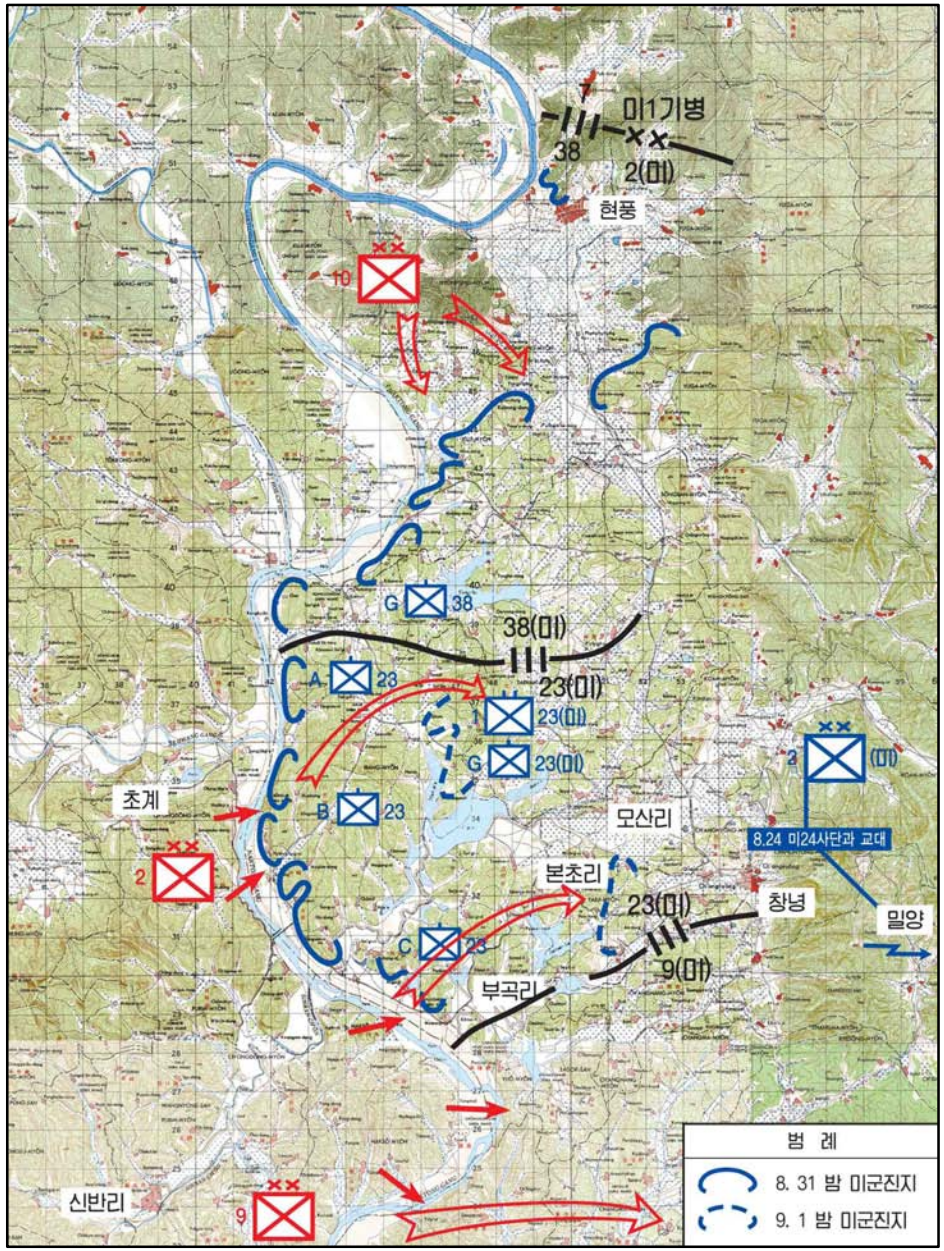
(1) 미 제23연대의 창녕 지역 전투(1950. 8. 31~9. 9)

낙동강 돌출부 창녕-영산에서는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2공격집단과 격전을 벌였다. 미 제2사단은 8월 하순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미 제9연대를 영산정면의 부곡리에서 남지까지, 미 제23연대를 창녕정면에, 그리고 미 제38연대를 현풍정면의 강안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편성에 주력하였다.

반면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공격집단은 북한군 제9사단(-)이 8월 말경부터 미 제9연대 영산정면에, 김천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 제2사단이 창녕정면에, 북한군 제10사단이 현풍정면 낙동강 대안에 집결하였다.[60] 이 지역의 북한군은 8월 31일 22:00시를 공격개시 시간으로 정하여 최후공세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낙동강 서쪽 신반리에 집결한 북한군 제2사단 제4·제6·제17연대는 미 제23연대 예하 제1대대 정면인 내재나루터와 적포교(赤布橋) 및 삼밭머리 나루터에서 낙동강을 건너 적포를 중심으로 창녕으로 뻗어있는 두 개의 접근로를 따라 미 제23연대 진지를 목표로 이동하였다.[61]

<상황도 4-3> 미 제23연대의 창녕지역 전투(1950. 8. 31~9. 9)



1950년 8월 31일 밤 북한군은 미군의 포격을 받으면서 낙동강을 도하해 미군 진지를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야간 기습공격이 시작되자 미 제23연대 제1대대장은 대대(-) 병력을 창녕에서 7.5㎞ 전방 주매리(主梅里)에 있는 대대 지휘소 쪽으로 철수시켰다.

9월 1일 03:00시경 부곡리에서 창녕으로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미 제23연대 C중대는 북한군에게 공격을 받고 중대장을 비롯한 많은 병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 제23연대장 프리먼(Paul L. Freeman) 대령은 미 제2사단의 예비인 G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시켜 제1대대의 전투력을 보강시켰다.

그런데 이날(9월 1일) 밤 북한군이 제1대대의 우측방을 통과한 다음 사단 포병진지를 거쳐 미 제23연대 본부와 근무중대 및 기타 부대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 침투하였다. 이날 낙동강 연안 높은 지역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대대는 붕괴되었고, 그 결과 미 제23연대는 주매리와 모산리(牟山里) 및 본초리(本招里)의 세 곳에서 각각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고전하였다.[62] 이에 미 제2사단장 카이저(Lawrence B. Keiser) 소장은 즉시 미 제38연대 제3대대를 포병과 전차, 항공기의 근접지원 아래 창녕에서 모산리로 투입하였다.



영산전투에 투입되어 전투하고 있는 미군(1950년 9월)

한편 9월 1일 아침 북한군에게 정면 10㎞, 종심 13㎞에 걸쳐 돌파를 당하게 된 미 제2사단은 창녕과 영산으로 양분되었다. 이에 미 제2사단장 카이저 소장은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사단을 남·북 두 개의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북쪽 창녕과 현풍 정면의 부대를 사단 포병사령관인 하인즈(Loyal M. Haynes) 준장에게 맡기는 동시에 남쪽 영산 정면의 부대를 부사단장인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준장에게 지휘하도록 하여 북한군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63]

9월 2일 저녁 북한군이 창녕을 향해 공격해 왔다. 미 제2사단사령부와 미 제9연대 사이의 통신이 단절되자, 하인즈 준장은 통신망을 복구하려고 미 제72전차대대의 C중대장이 지휘하는 전차정찰대(전차 3대)를 영산으로 급히 파견하였으나, 겨우 1대만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브래들리 준장에게 하인즈 특수임무부대의 방어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날(9월 2일) 17:00시 창녕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대대가 북한군에게 포위되었는데 이를 구출하기 위해 모산리 부근에 있던 미 제23연대 지휘소의 서쪽을 공격하던 미 제38연대 제3대대가 제1대대 제1중대와 합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날(9월 2일) 저녁 북한군은 도로 북쪽과 제1대대 맞은편의 구룡산(九龍山·209고지)의 미 제38연대 제3대대를 공격하여 1개 중대를 격파하였다.[64]

한편 현풍정면에서도 북한군 제10사단이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38연대 제1대대는 현풍 일대로 물러나면서 북한군을 저지하다가 다음날(9월 3일) 야간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북한군 제10사단의 향방에 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다행히 북한군은 현풍부근에서 소규모 정찰전만을 수행하였을 뿐 15일까지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작전문서나 포로심문에 의하면 북한군 제10사단은 북한군 제2군단이 대구를 점령할 때까지 현풍 일대에 집결해 있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65]

9월 3일과 4일 창녕 정면의 미 제23연대는 주매리와 모산리 및 본초리 3개소에서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고 곧 반격을 감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인즈 준장은 제38연대와 제23연대 사이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여 미 제38연대로 하여금 창녕으로 가는 남쪽 접근로를

방어케 하는 동시에 제2대대를 지원하면서 제1대대의 이동을 가능케 하도록 하였다. 즉 하인즈 장군은 이 도로를 미 제38연대가 방어하도록 하고 미 제23연대는 부곡-창녕 도로 축선만으로 방어책임지역을 조정하여 창녕정면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미 제23연대 제1대대는 이 5일간의 전투에서 심한 타격을 입었다. 미 제23연대 제1대대 병력은 1,1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다.[66] 9월 4일 미 제23연대는 부곡리와 창녕을 연하는 도로 서쪽에 있던 제2대대 진지에 전 부대를 집결시켜 방어에 들어갔다. 이 무렵 미 제38연대도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연대본부가 공격을 받자, 연대본부, 박격포중대, 전차중대, 방공포대 등 지휘소 주위의 병력으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치렀다.[67]

북한군의 공격은 9월 5일부터 대체로 중단되었으나, 창녕 정면의 북한군 제2사단이 9월 8일 02:30분부터 마지막 공격을 재개, 미 제23연대를 돌파하고 본초리까지 진출하여 창녕을 약 5㎞ 남겨두고 있었다.[68] 미 제23연대는 본부중대 및 특수지원부대까지 임시 예비대에 편성하여 여기에 투입하고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저지하였다. 교전은 다음날까지 지속되었으나, 9월 9일 12:00시경에 북한군의 공격이 중지되었다. 이후에도 북한군 제2사단은 중대규모의 부대를 후방 창녕까지 침투시켜 교란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미 제2사단도 매일같이 정찰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미 제23연대는 창녕지역을 사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



창녕지구 전투전적비

대는 절반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어 남은 병력은 38%에 불과하였다.[69] 그렇지만 미 제23연대는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다.

(2) 미 제9연대와 미 해병대의 영산 전투

8월 전반기 공세가 실패하자, 북한군 전선사령관 김책 대장은 8월 20일 예하 각 군단에 공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영산 정면의 북한군 제9사단은 영산지구를 거쳐 밀양에 진출한 다음 대구와 부산간의 도로를 차단할 임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신반리에 진출한 북한군 제9사단은 8월 31일 22:00시를 기해 공격하였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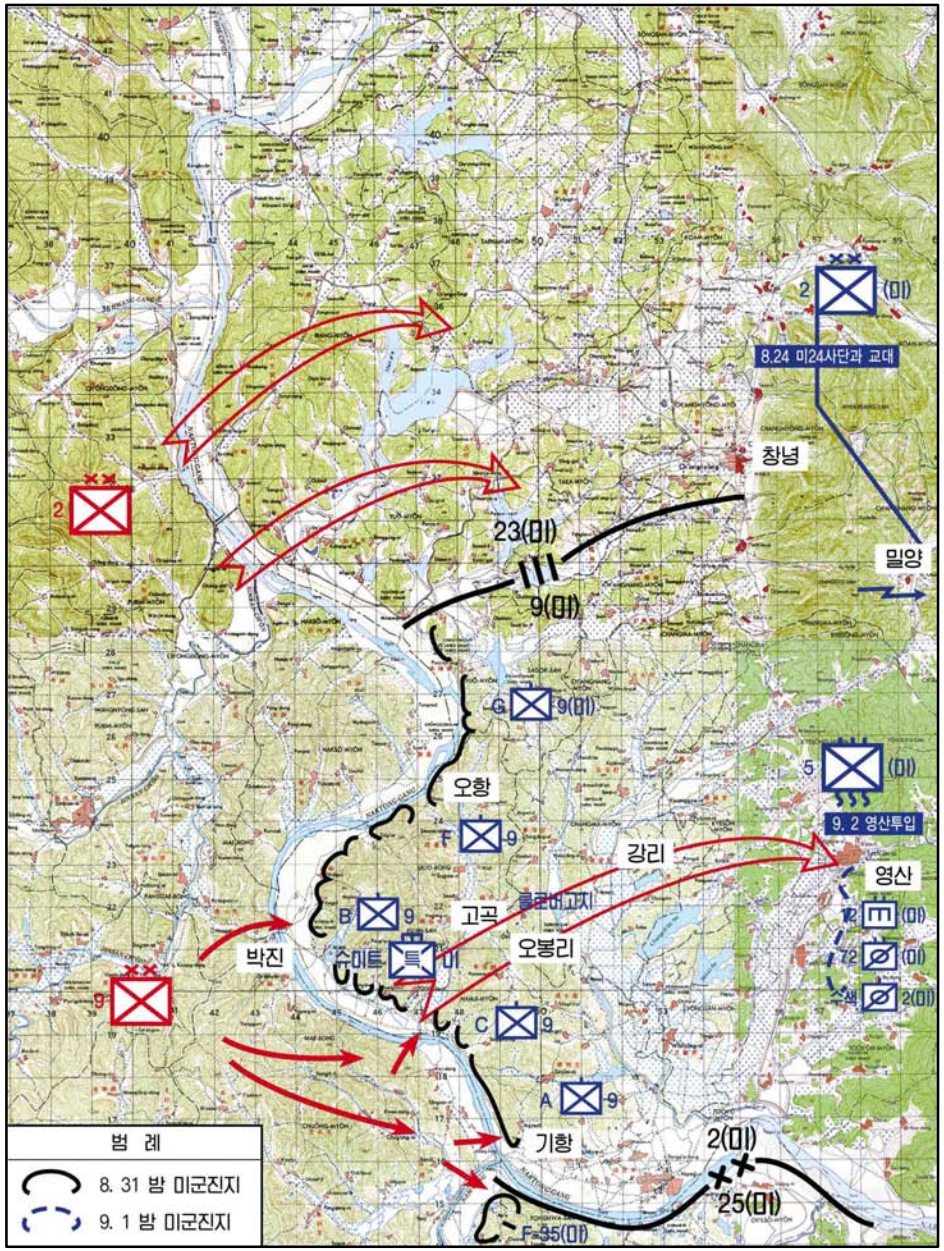
이 무렵 미 제2사단장은 미 제8군으로부터 정찰명령을 받고 8월 31일 미 제9연대장에게 즉시 증강된 중대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편성하여 적정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만주특수임무부대로 명명된 정찰대가 일몰 이후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 북한군의 대규모 기습공격을 받았다.[71]

영산정면의 미 제9연대는 북한군 제9사단의 기습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많은 손실을 입은 채 강안진지가 돌파되었다. 특히 박진 도선장에 배치된 중화기소대는 거의 저항도 못한 채 생포되고 좌전방진지도 기항 일대에서 도하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유린되었다. C중대의 철수과정에서 화기분대장 스토리(Luther H. Story) 상등병은 부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남아 엄호사격을 가하는 용맹을 보여주었다.[72]

상황을 보고받은 미 제2사단장은 정찰계획을 취소하고, 미 제9연대장이 정찰대로 편성한 E중대로 하여금 즉시 클로버고지와 오봉리 능선을 봉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은 고지 일대의 주요거점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다.

9월 1일 아침 무렵까지 미 제2사단은 거의 전 지역이 적에 의해 돌파되어 방어지역이 창녕과 영산으로 양분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지휘통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풍 일대의 부대는 사단포병사령관 하인즈 준장에게, 영산정면의 부대는 부사단장 브래들리 준장으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하였다.[73] 이 무렵 워커 장군도 직접 미 제2사단 전선에 나와 경과를 지켜보면서 예비대의 투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상황도 4-4> 미 제9연대와 미 해병대의 영산지역 전투(1950. 8. 31~9. 5)



그동안 영산정면에서는 만주특수임무부대가 고립된 상황에서 공중보급을 받아가며 9월 3일까지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수차례의 근접전투에서 부대장 슈미트 중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병력이 희생되고 22명만 철수하였다.[74] 당시 미 제2사단장은 미 제9연대의 예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영산에 보병 1개 중대, 공병대대, 제72전차대대, 수색중대를 배치시켰다. 영산 북쪽도로에 배치된 공병대대와 영산 남쪽도로에 배치된 전차대대 및 수색중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교전중이었다. 북한군은 전차 4대로 증강된 1개 대대를 선두로 영산을 점령하였다.

9월 4일 미 제9연대장은 영산 동쪽 지휘소에서 철수부대로 재편성한 800여명의 병력과 전차를 이끌고 영산을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미군 전폭기편대가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한 가운데 미 공병대대가 영산 서쪽에서 북한군 전차 3대를 격파하면서 공격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잠시나마 밀양으로의 적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낙동강 돌출부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일 13:15분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1해병여단을 미 제2사단에 배속시켜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9월 3일 08:00시 미 해병대가 중앙에서 영산 서쪽으로 공격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미 제9연대(제72전차대 1개 중대와 고사포대대 1개 포대 배속)가 북서쪽으로 진출하여 미 제23연대와 연결하고, 남쪽에서는 미 제9연대 1대대 잔존 병력, 미



영산지구 전적비

공병대대, 미 제72전차대대(-)가 공격하여 미 제25사단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때 미 제8군은 예비인 미 제24사단 사령부와 미 제19연대를 마산 남쪽 수산리로 이동시켜 투입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75]

미 해병대는 공군기편대와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공격하였다. 도로남쪽의 미 해병 제1대대는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고, 도로변의 미 해병 제2대대는 적과 치열한 교전에서 전차 4대를 파괴하였으며, 미 해병 제3대대는 제2대대를 초월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미 제9연대도 영산 남서쪽으로 공격하여 해병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9월 4일 아침 무렵 미 해병 제2대대는 영산 서측 116고지를 점령하였고, 미 해병 제1대대는 북한군 제9사단 사령부가 설치된 지역을 탈환하고, 그곳에 유기된 전차 2대를 노획하였다.

영산 정면의 미 해병대는 9월 5일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계속하여 오봉리 능선을 점령하였고, 미 제9연대는 클로버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날 오후 미 해병대는 두곡 일대에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300여명의 공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을 격퇴하면서 전차 4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작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9월 5일 00:01분에 미 제2사단으로부터 배속 해제와 동시에 부산으로 이동하였다.[76]

4. 전투 결과

북한군은 측방공격으로 밀양과 삼랑진을 점령함과 동시에 미군을 격멸하여 대구와 부산간의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3개 사단을 투입하여 공격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야포 2개 대대와 제16기갑여단을 배속 받은 북한군 제9사단을 제2공격집단의 주공부대로 삼고 낙동강 돌출부를 돌파한 다음 영산을 점령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러나 9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군의 과감한 역습으로 북한군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영산-박진전투 기념관 전경

북한군이 가장 믿었던 T-34전차도 작전 기간 중 대부분 파괴되었고, 탄약과 연료마저 거의 떨어졌으며, 보병부대의 손실 또한 극심하여 당장 공세를 취할 형편이 못되었다. 따라서 9월 3일부터 감행된 미군 해병대의 과감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9월 6일 클로버고지(Clover Leaf Hill · 165고지)와 대봉리 고지를 연결하는 낙동강 동쪽의 조그마한 교두보를 간신히 확보하면서 미군의 역습을 막아내고 있었다. 미군은 북한군을 낙동강선에서 되도록 많은 적을 견제함으로써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 전투를 통해 공자(攻者)인 북한군과 방자(防者)인 미 제2사단은 공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 군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군 제2사단은 그동안 전사 1,300여명, 부상 2,500여명의 손실을 입고 공격력을 상실하였다. 반면 미 제2사단도 미 제1해병여단을 비롯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고, 그 중 가장 커다란 손실을 입은 미 제23연대의 전투력은 38%로 감소되었다.[77]

제 3 절 마산 서부지역 전투

1. 전투 개요

마산 서부지역 전투는 1950년 8월 2일부터 9월 14까지 국군과 미군으로 증강된 미 제25사단과 북한군 2개 사단(제6사단·제7사단)이 진주-마산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운 44일간의 공방전이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마산을 거쳐 단숨에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투입된 북한군 2개 사단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마산 서부지역 전투는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1950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미 제19연대와 미 제27연대의 정찰대가 정찰활동 중 마산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북한군 제6사단의 선두부대와 벌어진 정찰전이다. 둘째는 1950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마산 정면의 북한군을 격파하여 부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 킨(Kean) 특수임무부대 반격작전이다. 셋째는 1950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소위 북한군 9월 공세 기간 미 제5연대전투단으로 증강된 미 제25사단과 북한군 2개 사단(제6사단·제7사단) 간에 실시된 공방전이다.

마산은 경상남도 제2의 도시로 1950년 전쟁 당시 인구는 10만명에 이르고 부산에서 서쪽으로 57㎞ 지점, 진주에서 동쪽으로 60㎞ 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마산은 육로·철로·해로 등 교통의 이점을 이용하여 상업도시로 발전한데 이어 수질이 좋아 양조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마산항 입구에는 오른쪽에 국군 해군의 본거지인 진해가 있었다. 철도로는 진주-삼랑진을 연결하는 진주선과 창원-진해를 연결하는 진해선이 있었다. 육로로는 진주에서 마산에 이르는 철도 연변의 병행도로, 사천-고성-진동리를 거쳐 마산에 이르는 우회도로, 창원-진영-김해-부산에 이르는 도로, 진해-김해-구포-부산에 이르는 도로가 잘 발

달되어 있었다.

미 제25사단은 이 지역에서 북한군 2개 사단을 맞아 사단장의 과감한 작전권 행사와 병사들의 용전분투로 방어선을 유지하였고, 강력한 포병화력과 공중지원으로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하여 마산 서측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미 제25사단은 마산을 거쳐 단숨에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차단하고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반격작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2. 북한군과 미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지연작전 동안 북한군 제6사단의 임무는 1개 모터사이클연대와 함께 서해 방면의 아군을 계속 추격하면서 목포와 여수항을 점령하고 마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78] 이를 위해 북한군 제6사단(제1·13·15연대)은 1950년 7월 19일 호남지역으로의 대 우회기동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장 방호산 소장은 마산을 가리켜 "우리가 마산을 점령하면 적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다"라며 마산(馬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79]

그런데 미 제8군은 7월 31일 뒤늦게 포로 심문과 무전 감청을 통해 북한군 제4사단과 제6사단이 낙동강 서남 방면으로 아군 방어선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 제8군은 7월 초순 이후 이 2개 사단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이를 나중에 알았던 것이다.[80]

한편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는 1950년 7월 24일 08:00시 목포항을 점령한데 이어, 제1연대가 7월 25일 06:30분 여수항을 점령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목포항과 여수항의 방어를 위해 증강된 1개 대대씩을 그곳에 주둔시킨 다음 7월 28일 오후에 주력을 하동지역에 집결시키고, 다음날(7월 29일) 아침부터 마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 중 제15연대가 7월 30일 진주-마산간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아군이 동쪽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81]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31일 18:10분에 진주를 점령하여 마산을 직접 위협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진주를 점령한 후 아군을 계속 추격하여 마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북한군은 아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82]

8월 초 북한군 제6사단의 병력은 5,000명이었다. 그러나 미 제25사단 킨(Kean) 특수임무부대 작전 기간 동안 북한군 제6사단의 전력이 강화되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제83모터사이클연대와 T-34전차 25대, 포 36문으로 증강되고, 병력도 7,500명으로 충원되었다. 북한군은 병력보충을 위해 남한 점령지역의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전선에 투입하였다. 서울지역에서 동원된 남한 청년 2,500명이 2주일간의 훈련을 받고 남하해 8월 21일경 북한군 제6사단에 충원되었다. 이러한 보충도 전투손실과 탈출로 어렵게 되자, 북한군 제6사단장 방호산은 마산 남서부지역의 청장년들을 강제 동원해 보급운반 내지는 전투병으로 전선으로 내몰았다.[83]

9월 공세 때 북한군은 마산 서부지역에 기존의 북한군 제6사단에 추가하여 북한군 제7사단(-1)을 새로 증원해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북한군 제7사단은 6·25 이후 한만(韓滿)국경 경비대 4,000명을 기간으로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17~37세 청장년 2,500명을 모집하여 제77연대를 편성하였다. 사단포병연대를 7월 말 개성에서 편입하였고, 이곳에서 다시 2,000명의 신병을 보충 받아 1950년 8월 5일 충남 대전에서 정식으로 제7사단을 창설하였다. 이 때 총병력은 10,000명이었다. 이익성(李益成)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7사단은 8월 1일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전주-남원-함양을 거쳐 8월 15일 경남 진주에 사단 주력이 도착하였다. 이 때 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북한군 제6사단의 후방지역을 방호하면서 제6사단을 증원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84] <표 4-4>는 마산 서부지역에서 활동한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9월 공세 때 마산 서부지역의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의 임무는 마산 방면으로 공격하여 미 제25사단 진지를 돌파하고 마산·김해를 점령한 다음 부산 점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마산 서부지역의 북한군

<표 4-4> 마산 서부지역의 북한군 사단의 지휘관 현황[85]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제6사단	사단장	소장	방호산(方虎山)	
	제1연대장	대좌	김후진(金厚進)	
	제13연대장	대좌	한일동(韓日東)	
	제15연대장	대좌	김현기(金顯基)	
	포병연대장	중좌	박해민(朴海民)	
제7사단	사단장	소장	이익성(李益成)	
	제51연대장	대좌	강치복(姜致福)	
	제52연대장	대좌	한일해(韓日海)	
	포병연대장	?	?	
배속부대	제16기갑여단장	?	?	
	제83모터싸이클연대장	?	?	
	제104치안연대장	?	?	

제6사단에 제105전차사단 전차 20대와 제16기갑여단 전차 43대를 각각 지원하였고, 추가로 제104치안연대도 증원하여 주었다.[86]

2) 미군 상황

(1) 미 제8군의 마산 방면 적정 판단과 조치

미 제8군은 북한군 제6사단의 대 우회기동이 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주 남쪽에서 방어 중인 미 제25사단을 마산 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명령을 8월 1일 14:00시에 하달하였다.[87] 이 때 마산 방면에는 오키나와에서 파견된 미 제29연대(2개 대대), 미 제24사단 제19연대(2개 대대), 미 제25사단 제27연대,[88] 민부대, 이응준 부대가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이들 부대는 전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북한군 제6사단을 저지할 수 없을 것으로 미 제8군은 판단하였다.[89] 이 무렵 미 제25사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마산지역에 대한 방어책임은 미 제24사단에 있었다.

<표 4-5> 마산 정면의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90]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처치(John H. Church)	
미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무어(Ned D. Moore)	
		제1대대장	중령	리(Robert L. Rhea)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배속부대	미 제27연대	연대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제1대대장	중령	체크(Gilbert J. Check)	
		제2대대장	중령	머치(Gordon E. Murch)	
		제3대대장	중령	디 초우(George H. De Chow)	
	미 제29연대	제1대대장	중령	윌슨(Wesley C. Wilson)	
		제3대대장	중령	못트(Harold W. Mott)	
	민부대	부대장	대령	민기식(閔機植)	
	김부대	부대장	중령	김성은(金聖恩)	



미 제25사단장 킨(Kean) 소장

미 제8군의 이러한 조치는 미 제25사단으로 하여금 삼랑진에서 낙동강의 천연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전진을 지연시키고 미 본토에서 부산에 도착한 증원부대로 하여금 반격하려는 의도였다.

1950년 8월 1일 새벽 미 제25사단이 상주 남쪽의 새 방어진지로 이동하고 있을 때,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이 날 15:00시에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삼랑진(三浪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사단사령부 선발대는 1950년 8월

2일 밤중에 새로운 목표지점으로 출발하고, 사단장과 사단 참모의 일부는 비행기로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의 목적지를 삼랑진에서 다시 마산으로 변경한다는 수정된 지시를 받았다.[91] <표 4-6>은 미 제25사단의 지휘관 현황이다.

<표 4-6> 마산 서부지역의 미 제25사단 지휘관 현황[92]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지휘부		사단장	소장	킨(William B. Kean)	
		부사단장	준장	윌슨(Vennard Wilson)	
제24연대		연대장	대령	화이트(Horton V. White)	
			대령	챔페니(Arthur S. Champney)	8. 6 교대
			중령	콜리(John T. Corley)	9. 6 교대
		제1대대장	소령	카슨(Eugene J. Carson)	
		제2대대장	중령	코울(George R. Cole)	
		제3대대장	중령	콜리(John T. Corley)	
			소령	블레어(Melvin R. Blair)	
제27연대		연대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제1대대장	중령	체크(Gilbert J. Check)	
		제2대대장	중령	머치(Gordon E. Murch)	
		제3대대장	중령	디 초우(George H. De Chow)	
제35연대		연대장	대령	피셔(Henry G. Fisher)	
		제1대대장	중령	테터(Bernard G. Teeter)	
		제2대대장	중령	윌킨스(John L. Wilkins)	
		제3대대장	소령	울포크(Robert L. Woolfolk)	
배속부대	미제29연대	제1대대장	중령	윌슨(Wesley C. Wilson)	
	미제5연대 (9월 7일 배속해제)	연대장	대령	오드웨이(Godwin L. Ordway)	8. 15 교대
			중령	쓰록모튼(John L. Throckmorton)	
		제1대대장	중령	존스(John P. Jones)	
			중령	로엘로풉스(T. B. Roelofs)	
		제2대대장	중령	쓰록모튼(John L. Throckmorton)	
	민부대	부대장	대령	민기식(閔機植)	
	김성은부대	부대장	중령	김성은(金聖恩)	

미 제25사단은 상주에서 김천을 거쳐 왜관까지는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는 철도로 마산까지 이동하였다. 김천-왜관간의 도로는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 아주 위험하였고, 왜관-마산까지의 철도도 적의 산발적인 기습을 받았다. 그러나 미 제25사단은 36시간 만에 140㎞에 달하는 먼 거리를 도보, 자동차,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을 완료하였다. 미 제25사단은 8월 3일 야간까지 이동을 완료하였고, 미 제5연대전투단도 이 날 집결을 완료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25사단의 신속한 이동으로 부산이 구출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8월 3일부터 마산 방면의 모든 부대를 통합 지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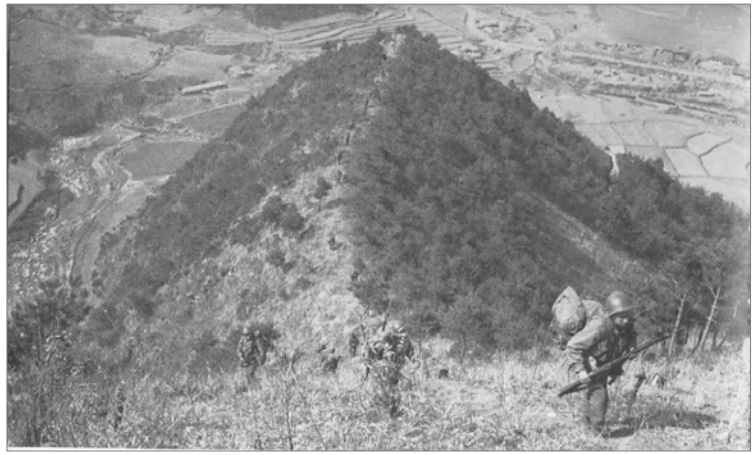
(2) 미 제8군의 반격 작전계획

북한군이 진주-마산 접근로에서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증원 부대를 그곳으로 집결시켰다. 미 제5연대전투단,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미 제1해병여단이 그 주력이었다.[94] 워커 중장은 마산 서부 전선에서의 반격을 결심하였는데 그것은 개전 이후 최초의 대규모 반격이었다.

미 제8군의 작전참모처(G-3) 계획과는 2개의 공격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중 하나는 8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마산-진주 방면에서 공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8월 중순경 전면공세로 여수까지 진출하였다가 순천-전주-논산 축선을 따라 금강선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95]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일반참모들은 이 공격계획을 놓고 많은 논의 끝에 진주를 목표로 역습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 작전의 주요 목적은 적의 일부를 마산 서부지역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대구 정면의 적의 압박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에 워커 중장은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8월 5일부터 6일까지 미 공군의 주력을 마산과 남강에 집중시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96]

한편 미 제8군은 8월 6일 미 제25사단장에게 8월 7일 06:30분을 기해 공격을 하도록 명령하였다.[97] 남강 이남 진주 방면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남강 남안의



고지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들

중암리(中岩里)-무촌리(武村里)-진주(晋州)선, 그리고 진동(鎭東)-사천(泗川)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공격부대 지휘관은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으로 하고, 부대 명칭은 그의 이름을 붙여 킨(Kean) 특수임무부대라 하였다. 이 작전을 위해 미 제29연대를 해체시켜 미 제27연대와 미 제35연대에 편입하여 각 연대를 3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3) 전투 경과

미 제25사단장은 이 지역에서 작전 지휘권을 8월 3일부터 행사하였다. 그 이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작전 책임은 미 제24사단장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미 제24사단 제19연대의 방어책임지역이었다. 미 제19연대는 7월 31일 진주에서 철수하여 중암리 서측방에 있는 괘방산(掛榜山) 능선을 점령하였다.[98] 8월 1일 저녁 미 제19연대는 제1대대를 우전방, 민기식 부대를 좌전방으로 하고 전투에 지친 제2대대와 산청(山淸)에서 돌아온 미 제29연대 제1대대, 그리고 하동에서 타격을 받은 미 제29연대 제3대대를 중암리에 집결시켜 예비로 두었다.

이때 연대 병력은 1,273명이었다.

미 제25사단은 8월 3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휘권을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인계받아 작전을 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이때부터 북한군 제6사단 및 제7사단과 마산 서부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다.

(1) 마산 서측방의 정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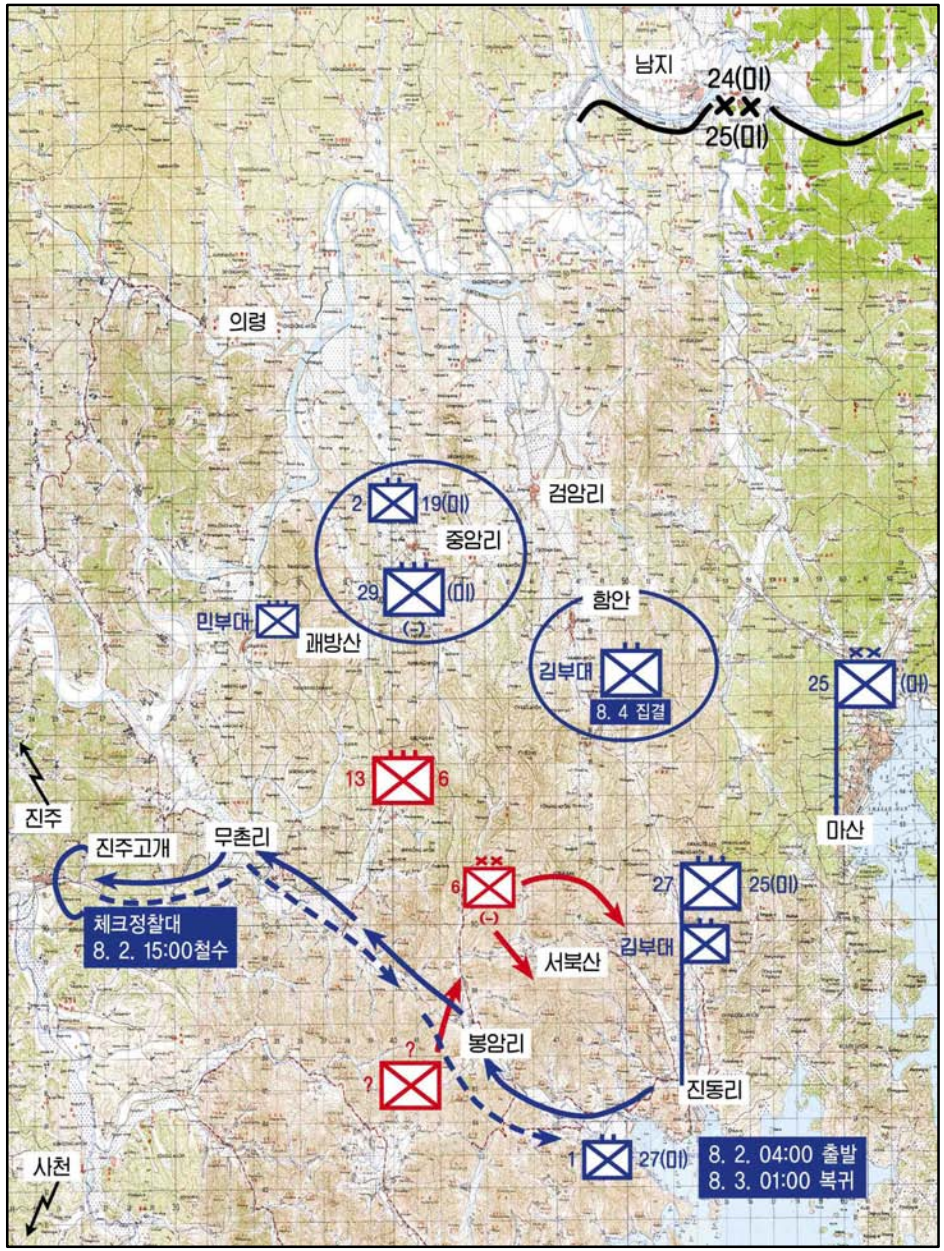
① 괘방산(掛榜山)의 조우전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1950년 8월 1일 오후에 곡안리(谷安里) 전초진지에서 지형과 적정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적의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 제19연대의 정면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처치 소장은 정말 북한군 제6사단이 이 정면에 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만일 북한군 제6사단이 이곳까지 왔다면 이런 전세의 분기점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처치 소장은 북한군 제6사단이 정말 와 있다면 차후의 전투지휘를 위해서 그 주력의 위치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 처치 소장은 일본에서 중(中) 전차중대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전차에 의한 위력수색을 결심하고, 미 제8군의 승인을 얻었다.[99] 처치 소장은 미 제19연대장과 사단에 배속된 미 제27연대장에게 "내일(8월 2일) 06:00시를 기해 배속된 전차지원 하에 진주 방면으로 전진하여 정찰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미 제27연대장은 지휘소를 진동초등학교에 두고 제2대대를 곡안리의 앞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 E중대를 봉암리(鳳岩里) 전방의 발산(鉢山)고개 좌우에 배치하여 경계하게 하였다.[100]

한편 미 제19연대장은 위력수색명령을 받고 8월 2일 아침 무촌리 일대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19연대장은 8월 1일 연대에 배속된 미 제29연대 제1대대에 전차소대(중전차 5대와 M-8 장갑차 4대), 공병소대, 트럭 22대를 배속시켰다.[101] 그런데 무슨 착오인지 몰라도 이 정찰명령이 고개 위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미 제19연대 제1대대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

<상황도 4-5> 마산 서측방의 정찰전(1950. 8. 2~3)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8월 2일 06:30분 중암리를 출발하여 07:00시에 미 제19연대 제1대대의 진지를 통과하였다. 도로는 심한 커브를 이루고 있는 내리막길이었다. 정찰대 선두의 전차대가 고개에서 100m쯤 내려가고, 그 뒤를 따르던 트럭 13~14대가 고개를 넘어섰을 때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이에 첨병소대는 급히 하차하였으나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102]

이때 미군 전차도 북한군으로부터 육탄공격을 받았다. 미군 전차는 접근해 오는 북한군에게 기관총사격을 하면서 450m쯤 전진해 나갔다. 이때 해치를 열고 전진하던 선두전차가 적의 박격포탄을 맞고 돈좌되었다. 이를 보고 있던 트럭과 장갑차가 철수하려고 하였으나, 맨 뒤의 트럭이 적 대전차포탄에 맞아 철수로를 막아버려 이곳에 있던 모든 차량이 적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다.

고개 바로 밑에서 숙영하고 있던 미 제19연대 제1대대장 리(Rhea) 중령은 치열한 총소리와 포(砲) 소리에 잠이 깨 고개위로 가보니 미 제29연대 제1대대장 윌슨(Wilson) 중령이 그곳에 있었다. 리 중령이 "자네 조심하게. 연못이 있는 저쪽은 적지야. 내가 지원을 해 주지…" 하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103]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지금 북한군이 공격을 하고 있던 정면에 자기 대대를 밀어 넣고 있었다.

이번에는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정면의 북한군은 도랑 속에서 포로로 잡은 미군 병사들을 방패로 삼고 전진해 왔다. 또 밤사이에 패방산 정상을 점령한 북한군은 전방의 은폐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중대를 기습하여 중대장을 사살하고 도로까지 진출하여 아군진지에 사격하였다. 또 미 제19연대 제1대대와 민부대 사이로 침투한 북한군은 미군 중박격포진지를 유린한 다음 국도를 차단하였다.

미 제19연대 제1대대와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고개 위에서 적의 사격을 받았고, 은밀하게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더구나 이날 정오경 유엔공군기의 오폭으로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백병전을 치렀다. 이때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적탄을 무릅쓰며 제1대대 진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침내 미 제29연대 제1대대의 C중대가 패방산 정

상을 탈환하고 우측방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또 미 제19연대 제1대대와 민부대와의 사이로 침투한 북한군은 연대 예비인 제2대대(대대장 중령 맥그레일)가 역습을 감행하여 격퇴시켰다.

그런데 이 때 역습부대가 민부대를 적으로 잘못 알고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민부대는 앞뒤로 협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하였다. 미 제19연대장은 민부대가 철수한 자리에 미 제29연대 제3대대(대대장 중령 못트)를 투입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개 주변에는 5개 대대의 병력이 혼재되어 부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8월 2일 오후가 되면서 북한군은 공격을 중단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약 90명의 피해를 입었다.[104]

② 미 제27연대 제1대대(체크 정찰대)의 조우전

미 제27연대 제1대대장 체크(Gilbert Check) 중령은 미 제8야전포병대대 A포대와 셔먼(Shermans) 전차 1개 소대(4대)를 배속받고 대대는 차량화하여 정찰대를 편성하였다.[105] 체크 정찰대는 1950년 8월 2일 04:00시 진동리를 출발하여 진주로 향하였다. 날이 아직 밝지 않은 탓인지 북한군의 저항은 없었다. 그러나 무촌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약 30명의 북한군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대대는 이를 기습하여 그 대부분을 포로로 잡거나 사살하였다. 이때부터 경미한 적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09:00시가 지나서 무촌리에 도달하였는데 이 때 북한군의 차량종대가 진주고개를 넘어오고 있었다. 대대는 매복해 있다가 이 종대를 기습하여 보급품을 가득 실은 10대의 트럭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정찰기로부터 "적 차량의 대종대가 진주고개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어 미군 전폭기 편대가 이 차량들을 공격하였다.[106]

체크 정찰대는 전차 4대를 앞세우고 국도를 따라 진주고개를 향해 공격하였으나, 북한군의 병력이 점점 증가하여 시간이 갈수록 저항이 완강해졌다. 보병이 전진을 멈추고 셔만 전차만이 전진을 하자 우전방 65m 지점의 마을에서 3문의 대전차포가 사격을 가해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번째 전차가 주저앉았고, 이어 세 번째 전차가 불타기 시작하였다. 지원포병이 곧 대전차포를 제압하였다.



무촌리 일대를 수색하고 있는 체크 대대 병사들(1950년 8월 2일)

체크 중령은 주저앉은 전차를 서둘러 수리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공격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대는 후방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한편 미 제27연대는 8월 2일 07:00시가 지나서야 미 제19연대의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체크 대대의 후방이 차단되었고 봉암리 고개로 진출한 E중대도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미 제19연대 정면의 북한군이 우회하여 체크 대대의 후방을 공격하였고, 봉암리 고개의 E중대에 대한 적의 공격도 더욱 치열해졌다. 또 사천-고성-장성점 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된 공병소대도 북한군의 매복에 걸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107]

미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15:00시경에 포로의 진술과 기타 보고를 종합하여 "북한군 제6사단의 주력은 장군대산(將軍臺山) 고개에 있으며 곧 체크 대대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7:00시에 체크 대대에게 정찰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였다.[108] 체크 중령은 불타버린 전차를 견인하고 있는 전차를 앞세우고 피해가 없는 전차와 장갑차를 후위로, 그리고 보병은 퇴로 양측의 고지를 따라서 전진하도록 지시하고 복귀하였다. 머리 위에서는 수

대의 미군 전투기가 선회하면서 엄호하였다.

북한군은 퇴로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대대는 전차와 포병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보병은 공격을 반복해가며 철수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또 약 1개 대대로 보이는 북한군이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후위는 줄곧 뒤쪽을 향해서 전투를 계속하며 철수해야만 하였다. 피로에 지친 체크 정찰대는 8월 3일 01:00시경에 연대 본부가 있는 진동초등학교에 도착하여 야영에 들어갔다. 체크 정찰대장은 보·전·포·공병 등의 여러 부대를 훌륭하게 지휘한 전공으로 십자훈장을 받았다.[109]

③ 북한군의 미 제27연대본부 기습

미 제27연대본부와 체크 대대가 야영하고 있던 진동초등학교는 254고지에서 뻗어 내린 능선 바로 아래인 해안도로와 함안 도로의 교차점에 있었다. 교정에는 155밀리 곡사포 A포대가 있었고, 근처에는 미 제8포병대대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110]



미 제27연대 연대본부가 위치했던 진동초등학교

8월 3일 07:00시 식사를 끝내고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연대본부와 체크 대대를 목표로 적의 기습사격이 집중되었다. 적의 사격은 바로 254고지 능선 아래쪽에서 가해져 왔다. 254고지에는 경계병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태연하게 접근해 오고 있는 북한군을 국군이 지원하러 오는 줄 알고 있다가 기습을 당하였다.[111]

연대장과 대대장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은 집중포화 속에서 태연히 학교 운동장 중앙에 나가서 사격을 멈추게 하고 빨리 지휘체계를 정리하여 중화기의 엄호사격하에 A중대장에게 254고지를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A중대는 충분한 지원사격하에서 적과의 격전 끝에 정상을 탈취하였다. A중대가 정상을 점령한 얼마 후 북한군을 만재한 20~30대의 차량종대가 함안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진동리 북방 1㎞ 지점에서 하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미 제8포병대대가 사격을 하자 당황한 북한군은 산속으로 도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체크 대대는 전사 13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었고, 적은 600여구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였다.[112]

한편 북한군 제6사단은 8월 2일 주간에 경계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진동리의 연대지휘소와 포병진지를 발견하고, 마산에는 전투부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6사단장 방호산은 제1연대를 서북산(西北山) 남쪽으로 침투·우회시켜 진동리를 기습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체크 대대가 철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밤중에 진동리로 복귀한 사실을 몰랐다. 방호산은 8월 3일 새벽 1개 대대로 진동리의 연대본부를 기습공격하고, 제1연대(-)를 마산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동리에 보병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역습을 가해 왔기 때문에 진동리 기습대대는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1연대장은 1개 대대를 차량으로 투입시켰으나, 대대장이 부대 전개지점을 잘못 선정한 탓으로 하차지점이 포착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113]

그 결과 북한군 제6사단은 그동안의 전투 손실이 누적되어 8월 3일 저녁에는 전투력이 반감되고 공격의 핵심이던 전차부대도 연료의 부족으로 운용에 제한을

받았다. 반면 미 제27연대장은 탁월한 지휘와 진동리의 승리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114]

④ 국군 해병대의 진동리 부근 전투

국군 해병대의 김성은 부대는 8월 1일 서남지구전투사령관 이응준(李應俊) 소장의 명령에 의해 이날 18:00시 마산을 출발하여 22:30분경 봉암리 계곡의 고사리(姑舍里)에 도착하여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해병대의 임무는 "마산을 향해 동진하고 있는 적을 진동리 서쪽에서 저지하여 섬멸하라"는 것이었다.[115]

김성은 부대는 8월 3일 전차와 사이드카를 앞세우고 아군 방어진지로 오고 있는 적 대대병력을 공격하여 전차 2대, 트럭 4대, 지프차 2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성은 부대장은 이응준 사령관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무전기 고장으로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한 채 함안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그는 진동리가 적에게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김성은 부대는 8월 4일 13:40분에 함안에 도착하였다.



발산고개에서 내려다 본 봉암리 계곡과 주변 산세

이 때 김성은 부대는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었다. 8월 6일 김성은 부대는 진동리의 미 제27연대에 배속되어 적에게 점령당한 야반산(夜半山)을 공격하여 탈취하였다. 8월 7일 김성은 부대는 미 제25사단의 명에 의해 다시 마산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이곳에서 김성은 부대는 전 장병 일계급씩 특진하였다. 이는 8월 5일부로 내려진 조치였다. 김성은 부대는 이곳에서 다시 진동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116]

(2)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

① 킨(Kean) 작전의 배경

미 제25사단은 1950년 8월초 미 제8군의 명령에 의해 남지(南旨)에서 마산에 이르는 방어지역을 책임 맡았다.[117] 북한군 제6사단의 우회기동에 따라 이곳에 긴급 투입된 미 제25사단은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방어책임지역을 인수받아 8월 4일까지 예하부대를 배치하였다. 즉 미 제35연대는 중암리(中岩里), 미 제24연대는 함안(咸安) 부근, 미 제27연대는 진동리에 배치하였다. 또 사단은 이미 그곳에서 작전 중이던 미 제27연대,[118] 국군 민부대(閔部隊), 김성은(金聖恩)부대를 작전통제하였다. 이때 진주-중암리 축선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던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8월 3일 원대 복귀하였다.

한편 미 제25사단은 8월 2일 마산으로 이동한 미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 받았고, 8월 3일에는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1해병여단이 마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곳의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대구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군 예비를 투입한 것은 이곳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 제25사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6사단은 미 제8군의 남측방을 돌파하여 부산을 신속히 점령할 기도하에 마산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의 선두부대는 이미 중암리와 진동리로 진출하였고, 일부 부대는 함안 남쪽 서북산 등 미 제25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제105전차사단 제83모터사이클연대를 배속 받아 기동력이 보강되었다.[119]

이와 같이 서남부전선의 전력이 강화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마산-진주축선으로 반격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이곳에 집중되는 적의 위협을 격파함은 물론, 이곳으로 적 예비대의 전환을 강요하여 대구전선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120] 이 공격은 개전 이후 최초의 사단급 공격작전이라는 데 그 의의가 컸다.

② 킨 특수임무부대 편성과 기동계획

킨 부대장은 미 제8군 계획에 따라 미 제29연대를 해체하여 미 제27연대와 미 제35연대에 1개 대대씩 증편하여 이들 연대를 3개 대대로 편성하고, 그밖에 미 제87전차중대, 국군 민부대·김부대·경찰 중대를 배속 받아 총병력 20,000여명, 전차 100여대, 야포 100여문을 보유하였다.

이 작전을 위해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8월 5일부터 양일간 항공력을 이곳에 집중하여 전장을 차단하고 지역내의 적을 저지하도록



킨 반격작전의 중간 목표지점인 무촌리 일대

요청하였다. 또 미 제25사단(제27연대: 제5연대전투단과 교대한 후 제8군 예비로 전환)에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1해병여단, 미 제89중전차(M4A3)대대, 미 해병 제1전차대대를 배속하여 킨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121]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계획은 현 배치 선에서 3개 도로로 진주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북쪽에서는 미 제35연대가 가장 양호한 남해안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중암리에서 무촌리로, 미 제27연대와 교대한 미 제5연대가 진동리-봉암리-무촌리로 진출한 후 협동으로 진주고개를 공격하며, 미 제5해병연대가 고성-사천(泗川)간 도로를 따라 진주 남동쪽을 공격하고, 미 제24연대(민부대·김성은부대·경찰 배속)가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적을 소탕하고 함안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122]

이 무렵 북한군 제6사단은 병력을 분산시켜 마산으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으며, 8월 6일 밤 각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진동리 주변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③ 공격 전야의 상황

미 제35연대는 8월 6일 밤 괘방산 진지를 점령하였고,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진동리 서쪽 3㎞의 신기리(新基里) 뒷산 181고지(옥녀봉)로부터 야반산까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진동리에는 미 제27연대와 해병 김성은 부대가 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미 제5해병연대가 이곳에 집결함으로써 이 조그마한 마을은 병원, 포병, 차량 등으로 붐볐다. 미 제24연대의 각 대대는 마산 북쪽과 남쪽, 그리고 진동리 북동쪽에 배치되어 보급로를 경비하였다.

이날(8월 6일) 미 제24연대장이 화이트 대령에서 참페니(Champeny) 대령으로 교체되었다. 8월 6일 밤 미 제35연대의 진지인 괘방산의 정상이 적의 기습을 당하여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데도 북한군 제6사단이 공세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전투로 인해 병력 손실이 많았고, 미군 병력의 증강으로 대규모의 공세를 펼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123]



미 제24연대장 참페니 대령

④ 킨 특수임무부대 전투 경과

킨 특수임무부대는 8월 7일 06: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124] 미 제35연대는 괘방산을 탈환하고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놋치 부근에서 북한군 1개 대대를 격퇴하여 병력 350여명을 살상하고, 전차 2대, 자주포 5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북한군 제6사단 지휘소가 있었던 곳으로 판단된 판송리를 거쳐 무촌리로 진출하였다. 미 제5연대전투단은 이날 아침 일찍 제1대대를 진동리 도로를 따라 고성 방향으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야반산(여우고지·Fox Hill)의 미 제5연대전투단 제2대대는 아침부터 북한군의 포위공격을 받았고, 또 교대하게 될 미 제5해병 제2대대도 능선에 도착해 교전을 하게 되면서 전투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Who attacks Whom?)' 모를 혼전양상을 이루었다.[125] 고지의 해병 제2대대는 식수와 보급품을 공수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섭씨 44도의 극심한 더위 때문에 해병 제2대대는 많은 일사병 환자가 발생하였다.[126]

진동리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미군 보급소와 포병진지에 박격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진동리-마산간 도로도 차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미군 전차가 기동하면서 아군 통신선이 절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야반산(일명 폭스 힐)의 미 제5연대 F중대 진지(1950년 8월 7일)



미 제5연대전투단장 쓰록모튼(John L. Throckmorton) 대령(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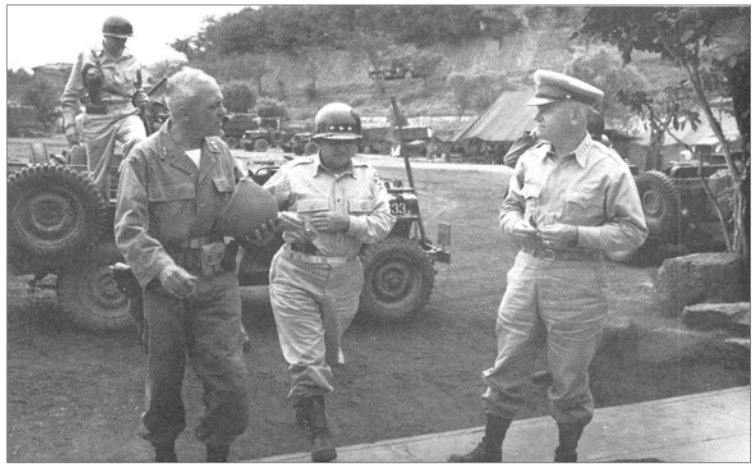
<상황도 4-6> 킨 특수임무부대 반격작전(1950. 8. 7~12)

A3

8월 8일 새벽 야반산 일대의 미 제5연대전투단 제2대대와 미 해병 제2대대는 항공기 편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악전고투 끝에 적을 격퇴하고 연결하였다. 곧이어 미 제5연대 제2대대는 해병대의 고성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적이 장악하고 있는 장성점 부근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적을 격퇴하였다.

반면 미 해병 제3대대와 미 제24연대 제2대대가 진동리 감제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적에 대해 항공기, 포병, 전차의 지원을 받아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양 대대는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북한군 병력 약 600여명을 살상하면서 공격 3일 만인 8월 9일 정오 무렵에서야 탈환하여 마침내 진동리 일대의 북한군의 위협을 제거하였다.[127]

그리하여 킨 특수임무부대는 다시 진주를 목표로 공격작전을 재개하였다. 고성(固城)을 향해 공격하고 있던 미 제5해병연대는 미 항공모함의 함재기로부터 공중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도로를 따라 공격하던 미 제5연대는 북한군의 저항이 점차 증강되면서 지연되고 있었으며, 무촌리 전방으로 진출한 미 제35연대가 합류하기로 계획된 미 제5연대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왼쪽),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가운데),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오른쪽)

미 해병대의 진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8월 10일 봉암리에 진출한 미 제5연대는 야간에 적의 기습을 받고 접전을 벌인 후, 8월 11일 새벽 유엔공군의 지원하에 적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미 제5연대 제3대대는 나머지 대대의 엄호하에 무촌리에 도착해 미 제35연대와 함께 진주고개로 진격하였다.

미 해병대는 우연히 고성 부근에서 위장된 북한군 제83모터사이클연대의 대열을 발견하고 항공기의 폭격을 요청하였다. 미 전투기 편대가 즉시 출격하여 북한군의 차량종대를 폭격함으로써 북한군 200명 사살, 차량 55대, 오토바이 45대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128]

이 무렵 미 제8군은 대구북방에 대한 적의 공격이 강화되고 낙동강 돌출부의 전선 상황이 악화되며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이 장사동에서 포위되는 등 전선 상황의 악화로 예비대의 확보가 시급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을 종료하고, 기동예비대 확보를 위해 미 제25사단장에게 "진주고개와 사천선에 신속히 진출해 이곳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는 민 부대와 김성은 부대는 배속 해제하여 한국군에 복귀시키고, 미 제1해병여단과 미 제5연대전투단도 배속을 해제한다"고 하였다.[129]

이에 미 제5연대장은 제1대대로 봉암리 서북 고개를 점령케 하고, 제1대대의 엄호하에 제2대대, 연대치중대, 포병부대 순으로 이 계곡을 돌파하기로 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8군의 지시를 고려 신속한 이동을 원하였고, 미 제5연대장은 철수시 피해를 고려해 야간이동을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미 제5연대 제1대대가 발산고개를 점령할 무렵 사단장으로부터 "제2대대와 1개 포대를 즉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날이 밝을 때까지 현 위치에 대기하라"는 무전지시가 미 제5연대장에게 전달되었다.[130]

미 제5연대장은 명령을 이행하는 데 큰 재앙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항의를 시도하였으나, 통신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명령대로 제2대대가 먼저 이동하였다. 그 결과 봉암리 계곡에는 지원 병력이 없는 미 제5연대본부, 미 제555포병대대, 미 제90포병대대, 미 제159포병대대, 미 중박격포, 미 근무중대와 의무중대만 남게 되었다.[131]



미 제5연대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피해를 입은 봉암리 일대

자정이 지나 발산고개 북쪽 능선 상에서 교전이 시작되면서 사방에서 총성이 들렸다. 미 제5연대 제1대대장은 사방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자 철수를 건의하였고, 증원하기로 약속된 미 제24연대 제3대대는 서북산 남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도착하지 못하였다.

미 제5연대장은 고개 일대가 북한군에게 포위되었다고 판단하고 날이 밝기 전 신속히 무촌리로 이동할 것을 결심하고 전진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5연대본부의 차량종대가 앞서고 그 뒤에 포병이 따르며 제1대대가 고개에서 엄호한 후 후위가 되도록 하였다. 연대본부는 간신히 고개를 넘었으나 포병부대가 출발하자 3개 방향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다. 둔덕방향에서 진출한 적은 전차 2대를 앞세워 공격하였다. 포병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소총과 기관총으로 자체방어를 하다가 새벽 무렵 생존자들은 함재기의 근접지원사격으로 겨우 탈출하였다.

한편 발산고개를 점령한 미 제5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이 물러간 후 병력을 수습하여 무촌리로 향하였다. 이때 제1대대 C중대의 경우는 180명 가운데 23명만

이 복귀하였다. 제2대대가 포병의 구출명령을 받고 정오경 도달하였으나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즉시 미 해병 제3대대를 봉암리로 전용하였다. 미 해병 제3대대는 항공기와 협동하여 곡안리의 적을 격파하고 봉암리로 향하였으나, 이곳의 공격에 앞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철수하였고, 미 제24연대 제3대대는 끝내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날(8월 12일) 포병은 봉암리 계곡을 '피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132]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미 제555포병대대는 사상자 180명과 105㎜포 8문, 미 제90포병대대는 사상자 190명, 155㎜포 6문, 차량 26대의 피해를 입었다.[133]

8월 12일 미 제5해병연대 주력은 사천 동남쪽 신촌리에 도달하여 북한군 제83모터사이클부대 패잔병과 제15연대 제2대대의 공격을 받았다. 연대는 항모 함재기의 근접지원을 받아 역습을 실시하여 적을 제압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 함재기는 평소 해병대와 함께 실시한 상륙전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정확한 지원사격을 하였다.

한편 서북산 일대를 공격하던 미 제24연대는 진동리 부근의 보급로가 적의 지뢰와 소화기 사격에 차단되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여 통로를 개척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미 제24연대에 배속된 민부대, 김부대, 경찰대는 진동리 부근 감제고지에 배치되어 미군과 함께 북한군의 침투를 격퇴하였다. 이날 배속 해제된 김성은 부대는 중암리, 민부대와 경찰대는 마산으로 이동하였다. 미 제8군은 8월 12일 저녁 반격작전을 중지하고 킨 특수임무부대를 서북산 일대로 전환하고, 미 해병대를 기동예비대로 확보하였다.

8월 13일 자정 킨 특수임무부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예하연대는 서북산 동측으로 이동하였다. 배속 해제된 미 제5연대전투단은 마산으로 철수하였고, 미 해병여단은 낙동강 돌출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미 해병여단이 이동을 완료하자 8월 16일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해체되었다.[134]

킨 특수임무부대는 그동안 7일간의 반격작전으로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정면의 적을 유인한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미군은 이 공격작전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이 작전 기간에 북한군 제6사단은 병력 4,000~5,000명, 전차 13대의 손실을 입었다.

(3) 킨 특수임무부대의 해체와 주저항선 재배치

미 제25사단은 사단 예하 미 제27연대가 군 예비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예비연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미 제8군에서는 북한군 제6사단이 새로운 병력을 보충받지 않으면, 미 제25사단(-)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미 제25사단의 방어선은 25㎞에 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단 예비대를 차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미 제25사단은 1950년 8월 14일부터 미 제35연대를 남지~검암리에, 미 제24연대를 중앙의 서북산 일원에, 미 제5연대를 그 남쪽 진동리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미 제27연대는 군 예비로 전환되었다.[135] 서북산 남쪽 능선에는 경찰 432명이 배치되어 미 제24연대와 미 제5연대전투단의 간격을 메워주었다. 미 제25사단과 미 제24사단의 전투지경선은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으로부터 낙동강 남쪽 하안선을 따라 그어졌다.

미 제25사단은 가야 북서쪽 25㎞ 지점에 있는 십이당산(十二堂山・270고지)에서 남쪽으로 661고지(戰鬪山・미군들이 전투산으로 명명), 필봉(筆峰・742고지), 서북산(西北山・738고지), 야반산(夜半山・342고지), 옥녀봉(玉女峰・181고지)을 잇는 능선위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때 필봉과 서북산의 산봉우리 일부가 적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에 고지 정성을 공격했던 미 제24연대는 난색을 표명하였다. 서북산의 능선은 바위와 절벽이 많아서 등산장비가 필요하였고, 하단에서 정상까지는 6~8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보급품 운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무자를 고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예비사단인 북한군 제7사단(소장 이익성)이 북한군 제6사단의 후방방호 임무를 부여받고, 8월 15일 진주에 집결하여 일부병력을 통영과 여수로 진출시켰다.[136] 북한군 제6사단은 그동안 강제 징집병 2,000여명을 보충하는 등 재편성과 아울러 작전을 재검토해 대대급 이하병력으로 나뉘어 마산정면의

각 고지를 탈취하고자 계획하고, 중암리에서 마산에 이르는 도로 양측방에 중점을 두고 정찰을 시도하였다.[137]

미 제35연대는 8월 17일부터 우측방 십이당산(276고지)과 도로변 진지로 접근하는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의 공격을 받았다. 연대는 북한군이 야간공격으로 진지일부를 돌파하면 즉시 포격과 폭격의 지원하에 역습을 가하는 식으로 전투는 몇 일간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 8월 23일 후퇴하였다.[138]

한편 미 제24연대도 8월 18일 미명부터 북한군 제6사단 제15연대의 공격을 받고 교전하였다. 북한군이 장악한 서북산 일대는 암석절벽이 많고 기동공간이 제한되는 험준한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북한군은 아군의 보급로를 감제하고 후방지역까지를 관측하였다. 북한군이 서북산 정상과 둔덕탄광 일대를 장악하여 요새화하고 있어 유엔 공군기의 네이팜탄 폭격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139]

수일간 계속된 치열한 전투에서 미 제24연대는 제2대대가 진출한 서북산의 일부능선도 지키지 못하고 전투산 북쪽 일부마저 상실하였다. 그러나 무려 38회나 출격한 전폭기의 집중지원을 받아 전투산을 탈환하였다. 이 무렵 경찰은 정찰중 북한군 제6사단 제15연대장을 생포하는 행운을 얻었으나, 그는 도주하려다 사살되었다.[140] 8월 21일에는 서북산 탈환임무를 받은 미 제5연대가 공격에 나서 다음날까지의 혈전으로 마침내 서북산 정상을 점령하였다.[141]

전투산과 서북산 일대에는 8월말까지 연일 밤낮 똑같은 방식의 혈전이 되풀이되었다. 양 연대는 적의 야간공격으로 고지가 피탈되면 야포와 전차포, 박격포사격을 집중하고 항공기의 지원 폭격을 받아 즉시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돌격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142] 서북산 정상의 주인은 19차례나 바뀌는 격전을 치렀다. 8월 25일 서북산 전투에서 미 제5연대 C중대의 핸드리치(Melvin O. Handrich) 상사는 포진지가 돌파된 후에도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야포사격을 유도하다가 적과 교전 끝에 전사함으로써 서북산의 영웅이 되었다.[143]

미 제25사단은 8월말까지 검암리 정면, 전투산, 서북산 일대로 돌파하려는 북한군을 저지하여 전체 작전에 크게 공헌하였다.[144] 미 제25사단은 8월 30일 미

제8군 예비로 차출된 미 제27연대가 원대복귀하고 미 제5연대전투단이 미 제24사단으로 배속 전환되자, 이때부터 사단은 건제를 유지하며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4) 한국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

마산정면 고지 일대에 격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인 1950년 8월 17일 북한군 제7사단은 예하 제51연대 1개 대대로 방어병력이 없는 고성을 무혈점령한 후 한국의 경찰중대를 제압하고 통영으로 진출하였다.[145] 이에 진해에서 정비 중이던 국군 해병의 김성은 부대가 2척의 함정으로 이날 통영반도로 기습 상륙하였고, 다음날(8월 18일) 미명 국군 해병대가 통영입구 원문고개를 점령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군의 역습이 개시되었다. 이때 유엔 및 국군 공군기와 해군함정이 적 집결지와 보급차량을 강타하고 삼천포 해안에서 이동 중인 적 함선 4척을 격침시켰으며, 국군 해병대가 북한군을 격퇴하고 1개 중대로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원문고개 정상에 세워진 통영상륙작전 기념비

통영 원문고개에 진지를 편성한 국군 해병대대는 8월 19일 고개 북쪽에 집결한 또 다른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진지의 일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즉시 출격한 유엔 항공기 편대의 근접지원사격을 받아 격퇴하였다.[146] 국군 해병대는 이후에도 북한군의 공격을 몇 차례 격퇴하였으며, 북한군의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군 제104연대 제21대대와 제22대대 소속이며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학도병이었다.[147] 이후 대대는 새로 보급된 대인지뢰로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이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면서 고성, 통영, 거제 등 해안에 숨겨진 북한군의 선박을 찾아내어 격침하였다.[148]

(5) 9월 공세시 마산 서북방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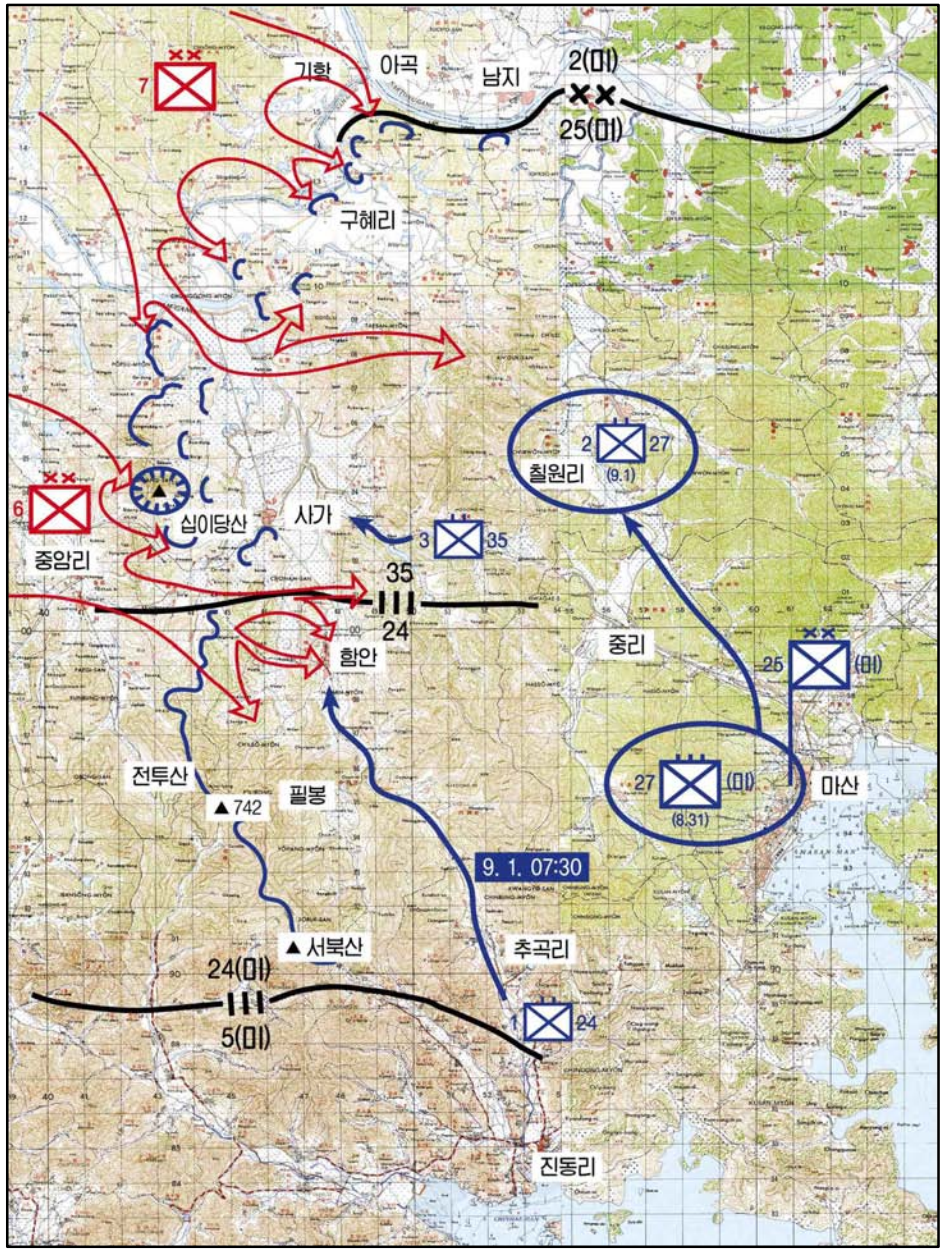
① 미 제25사단의 배치와 북한군의 기도

1950년 8월 하순 마산정면의 전선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후방지역에는 병력집결이 현저히 관측되고 있었다. 미 제25사단은 남지교에서부터 십이당산(271고지), 진주-마산간 철도를 따라 남쪽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전투산(戰鬪山・665고지)과 필봉(筆峰・743고지)을 거쳐 진동리 해안에 이르는 48㎞의 넓은 방어선을 담당하였다. 미 제25사단장 킨(Kean) 소장은 남강변과 검암리 일대에 미 제35연대(연대장 대령 피셔), 전투산과 필봉 등 함안 일대의 산악지대에 미 제24연대(연대장 대령 참페니), 서북산 남쪽에서 진동리 해안까지에 미 제5연대전투단(연대장 대령 쓰록모튼)을 각각 배치하였으며 미 제27연대는 마산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제6사단이 진주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아울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북한군 제7사단이 의령 동북 일대에 집결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149] 북한군은 후방지역에서 병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유엔공군기의 계속적인 폭격에도 불구하고 남강에 수중교를 부설하였다.

북한군의 작전계획은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검암리-마산도로를 따라 돌파하고 북한군 제7사단이 남강남쪽 도로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두개 도로가 주공축선이었다. 즉 북한군 제6사단은 미 제35연대 제1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진지를

<상황도 4-7> 북한군의 마산방면 공격(1950. 8. 31~9. 1)



돌파하여 진주-마산 도로를 따라 중리(中里)로 진출하는 것이고, 북한군 제7사단은 미 제35연대 제2대대 진지를 돌파한 다음 칠원리(漆原里)로 진출하여 남지리-마산 간의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결국 북한군은 미 제35연대를 각개 격파하여 마산을 점령한 다음 부산방면으로 진출하여 삼랑진과 구포 선상에서 미군의 동맥선인 주보급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150]

② 미 제35연대의 남지(南旨) 부근의 전투

8월 31일 23:30분 북한군은 이 지역에서 2개 사단병력으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9월 1일 북한군 제7사단은 남강을 도하하여 미 제35연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이 때 남강변의 미 제35연대 제2대대가 북한군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제2대대는 즉시 미 제64야포대대의 VT신관사격과 유엔전폭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검암리(儉岩里) 북쪽 미 제3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간격이 돌파되면서 북한군의 대규모병력이 칠원과 중리 후방지역으로 접근하였다. 미 제35연대 제2대대는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 고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근접전을 수행하였다. 이 때 유엔 공군의 편대가 마치 '날으는 야포'처럼 후방지역의 적에 대해 집중폭격을 가하여 저지하였다.[151]

검암리 정면 고지 일대에 배치된 미 제35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특히 십이당산(十二堂山)의 제1대대 B중대가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검암리 정면의 십이당산은 관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단방어지역에서 중요한 지형이었다. 북한군의 집중공격을 받자 즉시 미군은 전차대를 추진시켜 북한군 전차 1대를 파괴하였으며, 3.5인치 로켓포조가 자주포와 대전차포를 파괴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는 보급로와 후방지역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면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미군 진지 전방에 매설된 철조망, 대인지뢰, 부비트랩에 부딪쳐 북한군의 공격은 처음부터 실패하였다. 미군은 적 후속부대에 대하여 포병의 지원화력과 함께 보병 중대가 강력한 저지사격을 퍼붓고 3차의 격전 끝에 적을 격퇴시켰다. 북한군은 많은 장비와 시체를 남기고 후퇴하였으며, 그중에는



미 제35연대가 십이당산에서 노획한 '북한인공기'(1950년 9월 5일)

북한군 제13연대장의 시체도 있었다.[152]

그러나 적의 첫날 공격에 미 제25사단 정면의 사태는 위급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마산의 미 제25사단사령부를 방문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사령관에게 전황을 설명한 후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27연대 제2대대를 미 제35연대지역으로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워커 중장은 미 제24연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하지만 미 제35연대 지역의 전황이 위급해지자 킨 소장은 미 제27연대 제2대대(대대장 중령 머치)로 하여금 미 제35연대의 후방지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153]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9월 2일 오후에 투입되어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다음날(9월 3일) 오후에 진지에 도달하였다.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미 제35연대 제2대대 잔여병력과 함께 보·전·포병의 협동공격을 전개하여 마침내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런데 제2대대가 중리를 떠난 뒤 후방에 침투하였던 적이

이날(9월 3일) 중리에 위치한 미 제27연대 지휘소와 미군 포진지가 북한군의 침투병력에 의해 피습되자 사단장은 미 제27연대에게 북한군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27연대 제3대대가 포병진지를 장악한 북한군을 공격하여 다음날(9월 4일) 아침 격퇴하였다.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검암리 동쪽으로 진출하여 미 제24연대 후방을 위협하고 있는 고지(말굽)상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오히려 북한군의 역습을 받아 13명의 장교를 포함해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오후에 보·전·포의 협동작전으로 고지를 탈환하였다. 9월 4일 아침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공군기의 지원하에 검암리와 함안 사이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300명 이상을 사살하면서 격퇴하였다.[154]

9월 4일 오후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미 제35연대 제2대대의 강변진지가 돌파되자 다시 북상하였다.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도로변 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3개 방향에서 기관총 사격을 받아 진출이 저지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후방으로부터 북한군의 포위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날(9월 4일) 밤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심한 폭우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고 탄약마저 부족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다음날(9월 5일) 아침 8대의 수송기로부터 재보급을 받아 후방지역의 북한군을 격퇴하였다.[155] 또한 후방지역에서는 미 제35연대 병력이 중대 및 소대단위로 분산되어 침투한 북한군과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때 미 제25사단 포병은 검암리 일대에 집결한 북한군의 병력과 보급품에 대해 포병사격을 집중하였다. 미 제25사단의 북쪽 남강 전선을 지원한 포병은 미 제159포병대대·제6포병대대(105밀리)의 5개 포대와 미 제90포병대대(155밀리) 1개 포대의 36문이었다. 미군 포병은 검암리와 중리 일대의 북한군 제6사단의 많은 보급품을 파괴시켰고, 9월 첫 3주 동안에 약 1,825명의 적을 사살하였다.[156] 이 때 미 제5공군은 사단포병에 추가하여 놀라운 공중지원을 수행하였다. 9월 3일 킨 소장은 지난 2일간의 작전을 말하면서 "미 제5공군이 근접항공지원이 사단을 구하였다"고 말했고, 워커 중장도 "미 제5공군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157]



주보급로를 재확보한 미 제27연대 제2대대(195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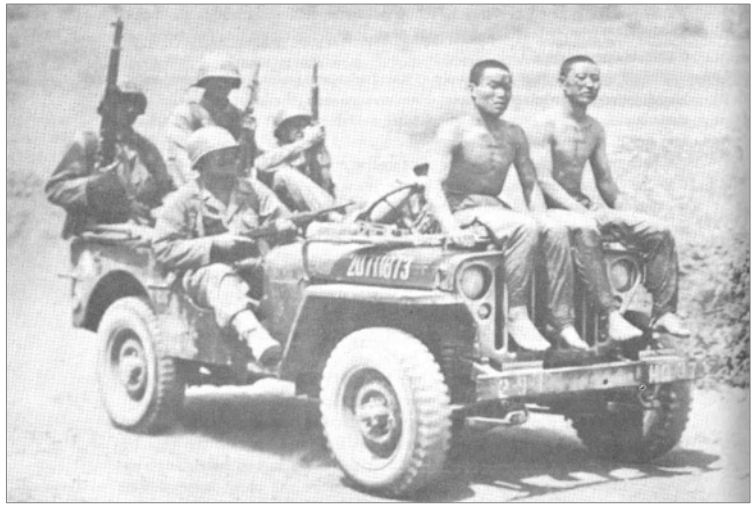
9월 5일부터 북한군의 압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다음날 미 제27연대 제1대대는 남강하류지역에서 교전중인 제2대대와 합류하여 적을 소탕하였다. 이날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16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분산 퇴각하였다. 미 제25사단은 9월 1일~7일까지 방어정면을 제외하고도 전선후방에서만 북한군 시체 2,000여구를 매장하였다.[158] 9월 8일과 9일 양일간의 폭우로 남강과 낙동강의 수위가 2m나 증가함으로써 북한군의 도하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미 제35연대는 격전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미 제25사단 후방지역에서는 북한군 유격대와 적 오열(五列)의 준동이 있었다. 북한군 유격대가 창원의 무전중계소를 습격하였고, 한국신문협회 마산지부장(남로당 마산위원장)과 마산형무소의 간수(공산당원)가 북한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검거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미 제25사단장은 마산 시민에게 피난령을 하달하고, 9월 10일부터 12,000명의 시민을 부산으로 이동시켰다.[159]

③ 미 제24연대의 함안 부근의 전투

1950년 8월 31일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미 제8군사령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다부동에서 도착한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27연대를 사단에 배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워커 중장은 미 제27연대 1개 대대만을 승인하였다. 이에 킨 소장은 9월 1일 02:00시에 미 제27연대 제1대대(대대장 중령 체크)를 미 제24연대에 배속시키고, 제1대대를 미 제24연대지역으로 이동시켰다.[160]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6사단 2개 연대가 미 제24연대 방어지역으로 공격하여 왔다.

미 제25사단의 방어중앙을 담당한 미 제24연대는 8월 31일 한밤중에 북한군 제6사단 주력의 공격을 받아 함안 정면에 배치된 제2대대가 돌파되고 병사들이 분산 후퇴함으로써 9월 1일 아침 함안이 피탈되었다. 미 제25사단장은 즉시 미 제2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였다. 제1대대가 공격하기 전에 야포사격이 집중되고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네이팜·로켓탄·기총소사를 가하여 함안 일대는 불바다를 이루었다.



미군에 의해 호송되고 있는 북한군 포로

이날(9월 1일) 16:30분에 미 제27연대 제1대대가 전차 8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함안 서측고지에서 전차 1대가 파괴되는 등 많은 손실을 입고 저지되었다. 이날 하루 종일 전폭기가 출격하여 북한군 진지를 강타하였다. 미군 전폭기들은 320㎞나 떨어진 기지에서 출격하기도 하였고, 27노트 속력으로 한국전선으로 항해 중인 항공모함 밸리 포지(Valley Forge)호와 필리핀시(Philippine Sea)호에서는 함재기를 출격시켜 공중지원을 실시하였다.[161]

그러나 다음날(9월 2일) 아침 북한군은 역습을 개시하였다. 미 제27연대 제1대대는 전폭기의 근접지원사격을 받아 진전에서 적을 격퇴한 후 추격하여 최초 진지를 회복하였다. 미 제27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9월 3일)에도 적의 역습을 받았으나, 야포·전차·항공기의 지원하에 적을 격퇴하였다. 북한군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 일대에 북한군 4개 대대 병력이 집결해 있었으며 양일간의 역습에서 1,000여명이 손실되었다고 하였다.[162]

함안 일대를 탈환한 미 제27연대 1대대는 9월 4일 밤 미 제24연대 1대대에 진지를 인계하였으나 다음날(9월 5일) 아침 소규모 공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24연대가 경북 상주(尙州)전투이래 빈번히 전선을 이탈하여 작전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보병연대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미 제24연대의 교체를 건의하였다.[163] 그러나 워커 중장은 사단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9월 6일 미 제24연대장 챔페니 대령이 함안 서쪽 일선 진지에서 적의 저격을 받고 중상으로 후송되었다. 이에 연대 지휘는 제3대대장 코리(Corley) 중령이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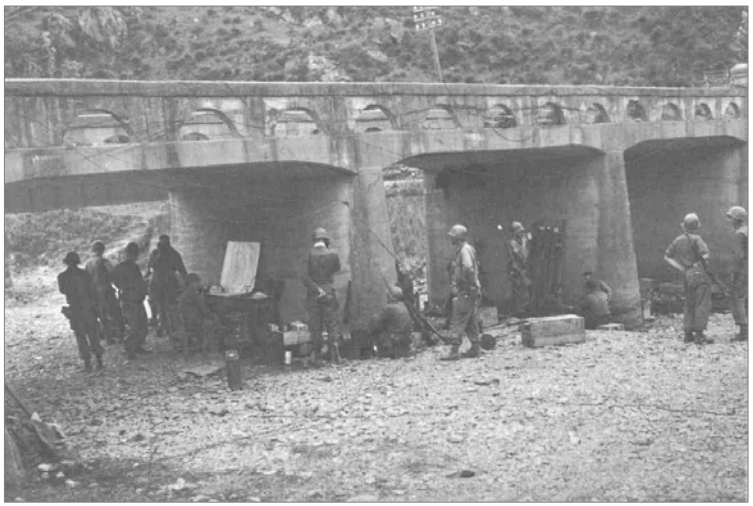
④ 미 제27연대·미 제24연대의 전투산과 서북산 전투

낙동강과 남강에서 미 제25사단지역을 돌파한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은 해안선의 고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전투산, 필봉, 서북산 일대에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8월 21일 미 제25사단장은 이 지역에 대한 미 제24연대의 방어임무가 과중함을 고려하여 미 제5연대전투단 제1대대에게 적 후방지역과 계곡을 감제할

수 있는 서북산 정상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미 제5연대전투단 제1대대는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서북산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킨 소장은 미 제24연대가 9월 1일 전선에서 후퇴하자 미 제5연대전투단의 우측방의 함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 제24연대의 유일한 예비인 E중대를 투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E중대장은 매일 밤 낙오병을 수집하여 다음날 아침에는 원대에 복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7일 북한군이 다시 전투산을 점령하자 사단장은 함안을 탈환한 미 제27연대 제3대대에게 전투산 탈환을 명령하였다.[164]

9월 7일 미 제27연대 제3대대가 탈환임무를 부여받고 3일간 수차례 고지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9월 8일과 9일 양일간 미 제27연대 제3대대가 공격에 실패하자, 미 제24연대장 코리 중령은 재공격을 중단하고 전투산 보다 낮은 동쪽 고지에 지뢰와 철조망에 의한 장벽을 설치한 후 적의 진지에는 집중화력으로 적의 소모를 강요하였다. 이에 적의 병력이 감소되자 미군은 공세로 전환하여 전투산을 탈환하였다.[165]



함안 교량 밑에 위치한 미 제27연대 지휘소

그러나 북한군은 9월 14일 새벽 500여명의 병력으로 미 제24연대의 2개 중대가 배치된 전투산을 공격해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미 제24연대 제3대대장이 다리에 부상을 입은 데다 병력 손실이 많아 철수하였다.

한편 미 제5연대전투단 작전지역에서는 제1대대가 서북산 탈환전에 실패한 후 정찰전만 반복되었다. 북한군은 공격력이 그 한계에 이르자 수세로 전환하였다. 반면 미 제25사단은 공세적인 방어로 북한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다가 마침내 작전의 주도권을 탈취하여 총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 전투 결과

미 제25사단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8월 말과 9월 초의 낙동강 방어작전은 미 제8군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고,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작전 지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 제27연대와 미 제35연대는 충분히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미 제24연대는 8월의 전투산 일대의 전투에서 전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9월 1일 함안 전투에서는 2개 대대가 분산되어 작전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에 미 제25사단장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미 제24연대의 작전을 평가한 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이 연대를 교체해 달라고 건의할 정도로 전투력이 약했다. 미 제24연대는 전투시 언제나 돌파당하여 사단 또는 군에 위협을 조성시켰다. 이에 미 제8군과 미 제25사단에서는 전투경험이 많은 능력있는 장교를 배치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16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25사단은 8월 31일부터 9월 초에 걸친 마산 서부방어전에서 사단장의 과감한 작전지휘와 미군의 용전분투로 방어선을 유지하였고 강력한 포병화력과 공중지원으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미 제25사단은 전선지역에서의 적 사상자를 제외하고도 사단 후방지역에서만 2,000명 이상의 북한군 시체를 확인하였다. 9월 9일 전선을 시찰한 미 제35연대장 피셔 대령은 적

의 시체를 보고 “내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시 유럽 전선의 트룬(Trun) 지역의 작전에서도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고 토로할 정도였다.[167]

그 결과 미 제25사단은 9월 7일 이후부터는 구 진지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부산에 이르는 창녕 또는 영산 축선과 진주-마산 축선에서 미 제1해병여단으로 증강된 미 3개 보병사단(제2・제24・제25사단)이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5개 사단(제2・제4・제6・제7・제9)의 약 45일간의 공격을 물리치고,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총반격전의 기틀을 마련한 작전이다.

이 지역의 한미연합군은 창녕-영산과 진주-마산을 통해 대구와 부산간의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나아가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작전목적을 분쇄하였다. 북한군은 이 작전을 위해 5개 사단을 투입하여 8월과 9월에 걸쳐 공세를 펼쳤으나 미군의 적극적인 방어와 과감한 역습, 그리고 해병대를 비롯한 예비대의 적시 적절한 투입으로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이로 인해 낙동강 서부 및 남서부 지역에 투입되었던 북한군 5개 사단은 모두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울을 점령해 ‘서울사단’의 칭호를 받았던 북한군 제4사단은 전면적인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이 때 손실된 인원과 장비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중공군 개입 이후에야 재편성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단들도 전투력의 감소로 인하여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북한군은 남한 점령지역에서 ‘의용군’ 형식으로 남한 청장년들을 강제 징집하여 전선에 투입시켰으나 전세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미군 피해도 컸다. 미 제2사단 제23연대의 경우 전투가 끝난 후 전투력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미 제29연대와 미 제34

연대는 전투력이 감소되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 제29연대는 미 제25사단 예하의 미 제27연대와 제35연대에 흡수되어 편성되었고, 미 제34연대는 미 제24사단 예하의 제19연대와 제21연대의 예하 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34연대의 경우 1950년 7월 초 한국전선에 출동할 때 2,000명이던 병력이 8월 말 184명만 남아 있었다. 연대 병력 대부분은 전사, 부상, 실종되었다.[168]

이렇듯 서부 및 남서부지역 작전은 미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부산에 이르는 낙동강 돌출부의 영산과 창녕, 그리고 부산의 서부 관문인 마산을 지켜냈다. 이 지역에서 미군은 2개 연대를 해체할 정도의 엄청난 출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교두보를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총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강제로 징집된 '의용군'의 전선 출동 장면

2. 지휘관 독단활용의 효용과 한계

1950년 9월 1일 미 제25사단 정면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마산에 위치한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의 지휘소를 긴급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킨 사단장은 사전 군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1개 예비대(미 제27연대 제2대대)의 미 제35연대지역 투입을 워커 중장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워커 중장은 미 제35연대나 제24연대 모두 위기에 처했으니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려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워커 사령관이 복귀한 이날 오후 상황이 악화되자 킨 사단장은 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예비대를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미 제35연대지역에 투입시켰다. 그 결과 미 제35연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전세는 만회되었다. 그 후 워커 사령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부딪쳐 전시 군 지휘관의 독단활용의 효용성과 지휘권의 한계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킨 사단장의 독단활용은 군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지만, 현지 전투지휘관인 킨 사단장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내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킨 사단장은 승패의 기로에서 예비대를 가까이 두고서도 활용의 시기를 놓쳐 작전실패의 책임을 지기 보다는 독단활용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내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킨 사단장은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전선 상황에서 사령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예비대를 과감히 투입한 것은 군에서 특수한 경우에 통용되는 지휘관 독단 활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워커 군사령관이 나중에 이를 알고도 묵인했던 것도 지휘관의 독단활용 개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상급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한 예하 지휘관의 독단활용은 전쟁 전체 국면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적 기도 판단의 중요성

영산 부근의 전투에서 교훈으로 삼을 것은 우선 적의 기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병력 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8월 31일 밤 북한군이 미 제9연대 정면 낙동강을 건너 이튿날인 9월 1일 영산에 육박하게 된 것은 미군이 8월 공세에서 적의 진격을 격퇴시킨 뒤 "이제 북한군은 방어에 들어갔으므로 다시는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서 20㎞나 되는 정면을 1개 연대 병력으로 방어하게 한데 있었다.

따라서 적이 침공하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방어선이 돌파되고 부산 교두보 확보에 있어 긴요한 영산이 잠시나마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 배치했기 때문에 예비대의 부족으로 결국 적에게 돌파당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방자는 적의 기도를 판단하여 적의 공격 예상지점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돌파를 방지하고 병력을 절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효과적인 공지합동작전의 중요성

영산전투를 통해 공지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영산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포병의 화력지원도 효과적이었으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었다. 작전기간 중 유엔공군은 만 회에 달하는 출격을 하였고, 항공폭격 유도를 위해 전술항공통제본부 및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용하여 지상군 부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종군기자단의 질문에서 "미 제5공군의 협력이 없었다면 부산의 확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도 낙동강

방어작전, 특히 영산전투에서 미 공군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5. 야간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

미군은 적의 야간 기습에 대해 주도면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하였다. 창녕전투시 미 제23연대 제1대대의 B중대와 C중대는 대대의 최전방 고지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적의 공격을 받고 제대로 전투 한 번 하지 않은 채 후퇴하였다. 이 때 대대 병력도 후방의 대대 지휘소로 집결함으로써 북한군의 진출을 손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 전 병력이 적의 포위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 제23연대는 이후의 전투에서 많은 고전을 하게 되었다.

미 제23연대가 사전에 적의 야간 기습공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전투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6. 전투시 신속한 보고체계와 적정 판단의 중요성

낙동강 방어작전간 미군은 북한군에 대한 정찰활동을 소홀히 하였다. 한 예로서 8월 31일 창녕의 부곡리 북쪽 낙동강 제방 일대를 경계하고 있던 미 제23연대 제1대대 B중대 제2소대는 밤의 어둠속으로 불을 켜들고 미군 진지를 향해 행군하고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미군들은 적의 포탄이 떨어지고서야 그것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대대본부의 포병관측장교도 이를 2,000명 정도의 피난민의 행렬로 판단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적정에 대한 보고의 지연과 적정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미 제23연대는 차후 작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전장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하는 상황보고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고, 상급부대에서도 하급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집필 : 남정옥)

주 (註)

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19; 日本陸戰史普及會 編・李元馥 譯,『韓國戰爭: 釜山橋頭堡 確保』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91), p. 172.
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19.
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19, 222.
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 289.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361.
6) 合同參謀本部,『韓國戰史』(서울: 합동참모본부, 1984), p. 383;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韓國戰爭: 釜山橋頭堡 確保』 제2권(서울: 명성출판사, 1991), p. 118.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p. 213, 361.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p. 213.
9)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韓國戰爭: 釜山橋頭堡 確保』 제2권, p. 176.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364.
1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2.
1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8.
1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9.
1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18, 497.
1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19.
1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91-293;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韓國戰爭: 釜山橋頭堡 確保』 제2권, pp. 172-173.
1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21-222.
1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19.
1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19.
2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23.
21)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n War 1950-1953*(New York: Doubleday, 1987), pp. 89-9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198, 469.
2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23.
23) 미군의 보병사단의 대대 완편 병력은 917명이었다. 이 중 장교가 34명이고 사병이 883명이다. David W. Boose, Jr.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1953*(New York: Ospery Publishing, 2005), p. 25.
2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19.
25) 日本陸戰史普及會 편・李元馥 역,『韓國戰爭: 釜山橋頭堡 確保』 제2권, p. 174.
2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8.
27)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8.
28) Blair, *The Forgotten War*, pp. 201-20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491, 497.
2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8.

3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1.
3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3.
3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3.
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4.
3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8.
3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93-298;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dong 1950*, pp. 22-32.
36)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dong 1950*(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pp. 33-35.
3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8.
3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8.
3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99.
40)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dong 1950*, p. 49.
4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1.
4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1.
43)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dong 1950*, p. 5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01-302.
4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2.
4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2.
46) '인민군전투일지'('50.8.13일자) SN792. 북한군은 대전전투시 우회기동임무를 수행하였던 제4사단 제18연대(제1, 2대대)를 우회시켜 후방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4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2.
4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3.
4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3.
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6.
5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06-307.
5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8.
53) 북한군 제10사단 제29연대는 돌출부작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현풍 일대의 고지를 떠나지 않았다. 이는 북한군 제2군단이 대구를 점령할 때까지 현풍 일대에 집결해 있도록 임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09.
5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36.
5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10.
5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11-312.
5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13.
5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13-315.
5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18.
60) FEC, G-2,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7-69. 북한군 제9사단(-)은 1개 포병대대, 1개 고사포대대, 제16기갑연대의 전차 2개 대대, 북한군 제4사단의 1개 포병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북한군 제3연대는 인천경계부대로 투입되어 있었다.
6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51.
62)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3.
6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56-457.

6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4.
6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0.
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7.
6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6.
6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8.
6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9.
7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499.
7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56.
7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55.
7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51.
7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56-457.
7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2.
7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65-467.
7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69. 북한군 제17연대의 군의관은 북한군 제2사단이 매일 평균 300여명을 부곡리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p. 209.
7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53.
8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52.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pp. 209-212, 357.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p. 360.
8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81-282.
8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82.
8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51, 265, 280, 326, 512.
8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326.
8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48.
88) 1950년 7월 30일 밤에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었음.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52.
8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52.
90) Blair, *The Forgotten War*, pp. 89-9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198, 251.
9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48-24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66.
92) Blair, *The Forgotten War*, pp. 147-15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p. 251, 280, 511.
9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 제3권, p. 266.
9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6.
9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7.
9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7.
9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7.
9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35-236.
99) 이 전차는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M4A3셔먼전차(75밀리 포)를 회수하여 일본에서 A3형으로 개조한 50대의 중전차로서 임시로 편성한 미 제8072전차대대의 A중대이다. 중대는 8월 1일

아침 마산에 도착, 이날 저녁때 1개 소대씩 배속되었다.

10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4.
1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37.
10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39-240.
10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6.
10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6.
10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42.
10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8.
107)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이원복 역,『韓國戰爭: 釜山橋頭堡 確保』제2권, p. 70.
10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8.
10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8.
11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44-245.
111)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59.
11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45.
11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60.
114)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60.
11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60.
11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260-264.
117) U. S. 25th Infantry Division,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 p. 13.
118) 미 제27연대는 왜관에서 군예비로 있다가 사단의 이동에 앞서 마산으로 이동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진동리지역에 투입되었으며, 미 제19연대와 더불어 무촌리지역 정찰전을 전개하였다.
119) FEC, G-2,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79.
120) 25th Periodic Opn Rpt No.55(031800 Aug 5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1042.
12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7; Hq. 25th Div. Periodic Opn Rpt No.57(041800 Aug 5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1042.
12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9.
123)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68.
12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71-272.
12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2.
12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2; G. 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p. 16.
12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4.
12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5.
129)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1.
13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77-278.
13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7.
13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76.
1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276-286;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p. 18-21.
13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87.
135)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80.
136) FEC, G-2,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4-66.

137) ' 북한군 제6사단 작전명령 제42호_('50.8.17), 군사편찬연구소, SN.796.
138)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6.
13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86.
14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285.
141)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6.
14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68-375.
14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75.
144) 이 무렵 유엔 공군기가 대거 미 제25사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군기는 1950년 8월 27일 이 일대에 단 하루 동안의 폭격으로 적 자동차 20대, 전차 4대, 야포 15문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Hq 25th Div. Periodic Opn Rpt No.127(272400 Aug 50)(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1042).
145) FEC, G-2,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4-66.
14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288-29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66.
147) 북한군의 남한점령지 치안사령부 예하 제104치안연대는 경남 사천(泗川)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나, 전선 상황이 위급하게 되자 경기관총 등으로 장비하여 전투에 투입되었다.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2권, p. 79.
14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296-301.
149) FEC, G-2,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4-65.
15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12.
151)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p. 28-2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0-472.
15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5-476;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14. 북한군은 이 일대의 전투에서 전사 480여명을 포함하여 약 1,500여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미 제35연대는 총 250여명의 손실을 입었다.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29.
15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2.
15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3-475;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31.
15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4-475.
156) 25th Division War Diary, 4 September 19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6.
15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7.
158)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3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8.
15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7-478;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p. 524-525.
16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9;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19.
16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80; 國防部,『韓國戰爭史: 洛東江防禦作戰期』제3권, p. 521.
16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79-483.
16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86;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p. 30.

16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81.

165) Hq 25th Inf Div Periodic Opn Rpt No.19(071800 Sep 50),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No.104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83-484.

1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82.

167) 25th Division War Diary, 6 September 19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78.

16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389.



제 5 장 중동부지역 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신녕지구 전투
제 3 절	의성-보현산지역 전투
제 4 절	영천지역 전투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중동부지역 작전은 국군이 계획된 철수작전을 통해 낙동강 연안에 방어선을 형성한 1950년 8월 1일부터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반격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9월 14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상의 군위, 의성, 신녕, 영천 일대에서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 및 제8사단과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6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 제8, 제13, 제15사단과 제17기갑여단, 그리고 제73독립연대 및 제103치안연대의 총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방어 작전을 지칭한다.

북한군은 그들의 작전계획 중 마지막 제4단계 작전을 통해 해방 5주년인 1950년 8월 15일까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완성한다는 전쟁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낙동강 선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부산 점령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세, 즉 '8월 공세'와 '9월 공세'를 전개해 국군과 유엔군이 형성한 낙동강 방어선의 돌파를 기도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8월 5일부터 개시된 8월 공세에서 주공 방향을 대구로 지향하고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의 공격을 담당하여 대구와 영천, 포항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적 제2군단은 예하의 제15사단을 선산~다부동~대구 방면에, 제13사단을 상주~다부동~대구 방면에, 제1사단을 문경~군위~대구 방면에, 그리고 제8사단을 안동~의성~대구 방면에 각각 투입해 신속하게 낙동강 도하를 시도하였다.[1] 그리고 낙동강을 도하한 적 제2군단은 예하의 제1사단이 가산~도덕산~팔공산 선, 제8사단이 신녕 북쪽의 조림산 부근, 그리고 제12사단과 제15사단이 보현산 지구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낙동강을 연해 방어선을 형성한 후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직면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장차 작전의 주도권을 탈취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교두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세행동으로 적을 교란하고 공세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방어기간에도 공세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2)]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증원부대와 보급수송을 위한 병참선을 확보하고 우세한 포병과 항공기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적 전술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군 제2군단(제1, 제6사단)을 왜관~의성간, 제1군단(제8, 수도사단)을 의성~청송간의 낙동강 상류의 산악지대에 주로 배치하였다.

적의 8월 공세는 부산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완전히 좌절되었다. 적은 국군의 지연작전으로 인해 전투력이 50~60%로 격감하였고, 300여 ㎞로 연장된 병참선과 제해권 및 제공권의 상실로 막대한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8월 공세에 실패한 북한군은 "낙동강 대안에 압축된 유엔군의 주력을 분할, 섬멸한다"는 방침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예비 병력과 군수물자를 총동원해 최후의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적은 "현풍에서 왜관에 이르는 낙동강 우안을 견제함과 동시에 2개의 기본 타격집단으로 서부와 중부에서 공격, 대구와 영천지구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3)]

이에 따라 적 제2군단은 제3공격집단(제1, 제3, 제13사단과 제17기갑여단)으로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을 돌파해 대구를 점령하고, 제4공격집단(제8, 제15사단)은 국군 제6사단 및 제8사단을 돌파해 하양과 영천을 점령한다는 세부계획 하에 9월 2일 이른바 '9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한편 8월 하순 적의 총공격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미 제8군은 "적을 낙동강선에 묶어 놓고 인천방면으로 상륙함과 동시에 9월 16일 공세로 이전해 당면의 적을 격파하고 신속히 미 제10군단과 연계한다"는 작전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반격기도 하에 적의 9월 공세에 직면한 국군 제2군단은 작전정면을 축소하기로 하고 제1사단을 신녕 지구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제6사단의 좌측

으로 이동시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대구외곽선을 고수하였다. 또한 제6사단은 운산동~화산간 방어정면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함으로써 적의 대구 점령 기도를 좌절시켰다. 제8사단은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방면으로 남진하던 적 제15사단을 제5연대와 함께 임포동 부근에서 섬멸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중동부지역은 남북으로 이어진 태백산맥과 남서로 뻗은 소백산맥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대구를 비롯해 안동, 의성, 군위, 청송, 영천과 같은 주요 거점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중앙에 보현산과 조림산, 팔공산 같은 평균 해발 800~900m의 산악지대로 형성된 대구분지가 있으며, 북부에 향로봉, 등운산, 황학산과 같은 평균 해발 300~600m의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안동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 내 하천은 작전지역 우측의 매봉~선암산에서 발원한 위천이 방어정면 일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흘러 낙동강에 합류되는 금호강이 있어 천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형은 방자(防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북쪽을 향해 횡격실을 이룬 화산과 팔공산은 대체로 방어에 유리하고 화산 서쪽에 위치한 조림산은 신녕 일대의 감제가 가능한 중요한 지형이다.

작전지역의 도로망은 의성~우보~신녕~대구 및 의성~우보~신녕~영천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대구~하양~영천간 간선도로를 비롯한 효령~신녕 및 군위~우보, 화수동~상송동간 도로가 각각 동서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선 철로는 아군의 보급 및 근무지원 시설이 위치한 대구, 하양, 영천을 통과함으로써 아군 작전에 유리하게 이용되었다.

한편 작전기간의 기상조건은 7월초부터 섭씨 30도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한 불볕더위가 8월로 접어들며 34~37도로 수은주를 오르내렸고, 이러한 고온현상은 9월 초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가랑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안개가 끼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8월 한 달간 강우량도 단지 34.1㎜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장병들의 피로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월 초순부터 중순 사

이에 기록한 111.2㎜의 집중호우와 이어진 흐린 날씨는 아군의 반격작전 초기에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였다.[4]

중동부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의 좌측에는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낙동강 중서부지역 왜관과 다부동 등지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3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측에서는 육군본부 직할의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을 따라 남진해 포항과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 제5사단과 안동~청송~안강을 통해 포항과 경주를 점령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 북한군 전투편성

국군이 방어를 담당한 중동부지역(안계~의성~구수동~청송)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사단과 제8사단, 제13사단과 제15사단이 투입되었다. 이들 사단의 전투편성은 북한군의 3각 편제개념에 의거해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 그리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이루어졌고, 대대와 중대 또한 3개 중대와 3개 소대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 지역에는 보병사단뿐 아니라 제17기갑여단이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2개 전차연대 및 2개 보병연대와 자동소총중대, 정찰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및 장비지원중대 등으로 편성되었다.[5]

한편 북한군 제2군단은 의도한 공세를 강화하고 점령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 제73독립연대와 제103치안연대를 기존의 사단에 배속시켜 운용하였다. 제73독립연대는 6개의 보병대대로 편성되었고, 각 대대는 예하에 3개의 소총중대를 비롯

해 중기관총중대와 82밀리 박격포중대, 그리고 기관단총소대, 대전차소대, 공병소대, 통신소대, 보급소대, 의무소대를 두었다.[6]

<표 5-1> 중동부지역 북한군 전투서열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2군단	군단장	중장	김무정(金武亭)	
		소장	최 인(崔 仁)	'50.9.10. 이후
	문화부군단장	소장	임 해(林 海)	
	참모장	소장	김광협(金光俠)	
제1사단	사단장	소장	김광협(金光俠)	'50.7.17. 이후
	참모장	총좌	한 경(韓 璟)	
	제2연대장	대좌	김양춘(金陽春)	
	제3연대장	대좌	이창권(李昌權)	
	제14연대장	대좌	황 석(黃 石)	
	포병연대장	대좌	현학봉(玄學奉)	
제8사단	사단장	소장	오백룡(吳白龍)	
	참모장	총좌	한 청(韓 靑)	
	제81연대장	대좌	이학래(李學來)	
	제82연대장	대좌	사 생(史 生)	
	제83연대장	대좌	윤기근(윤기근)	
	포병연대장	중좌	김명항(김명항)	
제15사단	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조열광(趙烈光)	'50.9.5. 이후
	참모장	대좌	김 연(金 演)	
	제45연대장	대좌	이철룡(李哲龍)	
	제48연대장	대좌	김치규(金致奎)	
	제50연대장	대좌	이을설(李乙說)	
	포병연대장	대좌	김연섭(金連燮)	
제17기갑여단	여단장	?	?	
제766부대	부대장	총좌	오진우(吳振宇)	
배속부대	제73독립연대장	중좌	이주원(李柱元)	
	제103치안연대장	대좌	전윤필(전윤필)	

제103치안연대는 치안여단 예하의 연대로 3개 대대로 이루어졌다. 각 대대는 3개의 소총중대와 박격포중대, 중기관총중대, 대전차중대, 그리고 통신소대, 보급소대, 의무소대, 수색소대로 편성되었다.[7] 이와 같이 중동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은 사단 및 연대포병 등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는 4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여단, 2개 독립연대였다.

북한군 각 사단의 포병은 보병에 배속되어 운용되었다. 주공 방면에서 활동하는 보병연대는 2개 포병대대와 2개 76밀리 자주포포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를, 조공 방면의 보병연대는 1개 포병대대와 1개 76밀리 자주포포대를 배속받아 운용하였다.[8]

한편 중동부지역의 북한군 제2군단의 전투서열에 있어, 지휘부는 군단장 김무정 중장과 후임인 최인 소장, 문화부군단장 임해 소장 및 참모장 김광협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예하 사단은 제1사단장 김광협 소장과 참모장 한경 총좌, 제8사단장 오백룡 소장과 참모장 한청 총좌, 제13사단장 최용진 소장과 참모장 이학구 총좌, 그리고 제15사단장 박성철 소장과 후임인 조열광 소장, 참모장 김연 총좌가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배속부대인 제73독립연대와 제103치안연대의 지휘관은 이주원 중좌와 전윤필 대좌였으며, 각 사단 예하의 연대별 지휘관은 <표 5-1>과 같다.[9]

(2) 공격준비태세

북한군은 국군 및 유엔군의 방어선을 종심 깊이 침투해 남동해안으로 신속하게 진출한 후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의 항구를 점령하는데 공격의 목적을 두었다.[10] 이는 새로운 병력 및 물자의 집결 가능성을 제거하여 종국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그들의 전쟁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연속적인 공격과 기동으로 국군과 미군을 김천-함창-안동 지역에서 포위 섬멸하고 신속하게 낙동강을 도하해 적을 대구 일대에서 포위 섬멸하는 한편 마산-대구-영천-포항 계선에 진출하여 차기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제4차 작전방침을 수립하였다.[11]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포

병화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기존의 단순한 도로접근 정면공격에서 탈피, 산간도로를 따라 적의 측후방을 우회하는 전법을 병행하였다.[12]

이러한 작전개념 하에서 낙동강 전선에 진출한 적은 일선에 전개한 10개 보병사단 중 3개 사단을 미군의 방어정면에 투입한 반면 국군의 방어정면에는 전차로 증강된 6개 보병사단을 투입하였다.[13] 주공방향을 대구로 지향한 적은 제2군단을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 전개시켜 대구, 영천, 포항을 점령하고, 제1군단은 김천에서 진주까지 전개시켜 밀양과 부산을 점령함과 동시에 대구 배후를 공격할 계획이었다.[14]

이에 따라 적 제2군단은 예하의 각 사단에 대구점령을 위한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적 제15사단은 구미 부근에서 도하하여 다부동을 경유하고, 적 제13사단은 낙동리에서 도하하여 다부동을 경유하며, 제1사단은 제13사단의 좌익과 연계하여 대구를 공격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8사단은 영천으로 진출하여 대구 또는 경주를 공격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낙동강을 도하한 후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해온 북한군은 "낙동강 대안에 압축된 적을 전선 서부와 북부에서 2개의 공격집단으로 공격해 신속히 섬멸시킨다"는 제5차 작전방침을 수립하였다.[15] 이는 선공의 임무가 부여된 서부 공격집단이 먼저 공격을 전개하여 낙동강을 신속히 도하한 후 아군의 측방을 위협하면서 대구~부산간 주요 기동로를 차단하는 한편 북부 공격집단의 공격을 쉽게 하여 아군을 대구 및 영천에서 각각 포위 섬멸하려는 의도였다.[16]

이에 따라 적 제2군단은 3개의 공격집단을 편성, 제3공격집단(제1, 제3, 제13, 제17기갑여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을 돌파해 대구를 점령하며, 제4공격집단(제8, 제15사단)은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을 돌파해 하양과 영천을 점령한 후 대구 또는 경주로 진출하며, 제5공격집단(제5, 제12사단)은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돌파해 포항을 점령하고 경주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진출한다는 세부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17]

공세에 앞서 북한군 지휘부는 대구~부산 지역의 국군 및 유엔군을 완전 섬멸하기 위해 낙동강 선에서 결정적인 공격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후방에 있던 5

개 예비사단(제7, 제8, 제9, 제10, 제13사단)을 전선에 투입하였다.[18] 그리고 기존에 운용하던 '정면 견제 후 일부 또는 주력으로 배후를 공격'하는 전법을 포기하였다. 대신에, 모든 접근경로로 공격을 감행해 성공할 경우, 성공한 지역에서 돌파구를 확장해 정면에서의 전과를 확대함으로써 각 집단의 공격기동을 전개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한편 8월 공세로 보급 및 물자 면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북한군은 1950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작전준비기간을 설정하고 병력과 장비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포병은 물론 탄약, 소총, 전차 등의 부족은 결정적이었으며, 식량과 연료, 피복, 수송력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19] 따라서 적은 공세에 대비해 사단 전투력과 기술병과를 강화하고 충분한 물자를 보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3) 전투력 수준

국군이 방어를 담당한 중동부지역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제8・제13・제15보병사단과 제17기갑여단, 그리고 제73독립연대와 제103치안연대가 투입되었다. 적은 낙동강 선에 도달하기까지 남진과정에서 손실된 병력과 장비를 북한이나 남한의 점령지역으로부터 징집과 조달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전투력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포격과 공중폭격으로 보급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으며, 포병의 경우 50%의 물적 손실로 효율적인 화력운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20]

작전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부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문경-군위 방면을 통한 대구 공격의 임무를 지닌 제1사단은 약 8,0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의용군으로 징집된 보충병이었다. 제5차 작전이 전개되던 9월 초순 제1사단의 병력은 인가된 병력의 50% 수준에도 미달하는 3,000명 이하에 불과하였다.[21] 제1사단은 122밀리 곡사포 12문과 76밀리 곡사포 36문, 120밀리 박격포 18문과 82밀리 박격포 72문, 45밀리 대전차포 48문 등과 함께 54정의 중기관총을 운용하였으나, 제5차 작전이 종료될 시점에는 122밀리 6문과 76밀리 15문, 45밀리 대전차포 7문 등 일부 장비만을 보유하였다.

안동~의성 방면을 통해 대구를 공격한 제8사단은 7월초 강릉에서 제1경비여단을 기간으로 하여 사단으로 증편될 당시 약 1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나, 제5차 작전을 전개할 무렵에는 7,000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사단이 보유한 주요 장비 역시 122밀리 곡사포 12문과 76밀리 곡사포 21문, 45밀리 대전차포 42문과 함께 82밀리 및 120밀리 박격포를 각각 36문과 12문을 보유하였으나, 제5차 작전을 개시할 무렵에는 보유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22]

상주~다부동~대구 방면을 지향한 제13사단은 12,000명의 병력을 보유했으나, 이들 중 80%는 군사훈련이 미약한 남한 출신이었다. 제4차 작전이 전개될 무렵 약 9,500명을 유지했던 제13사단의 병력은 8월 25일 총공격 당시에는 보충병을 포함하여 약 3,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장비는 122밀리 곡사포 9문과 포탄 720발, 76밀리 곡사포 20문과 포탄 2,400발, 45밀리 대전차포 11문과 포탄 700발, 그리고 120밀리 박격포 7문과 포탄 560발, 82밀리 박격포 9문과 포탄 1,080발을 각각 보유하였다. 그리고 소총수는 개인당 200발의 탄약을 소지하였다.[23]

구미~다부동~대구 방면의 제15사단은 12,000명의 인가된 병력 중 제5차 작전을 전개할 무렵인 8월말에는 보충병을 포함하여 약 4,200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제15사단은 122밀리 곡사포 12문과 76밀리 곡사포 24문, SU-76 자주포 16문 등 낙동강 중동부지역 전선에 투입된 인접 사단과 비슷한 수준의 주요 장비를 보유하였으나, 제5차 작전이 개시된 9월초의 보유량은 122밀리 곡사포 8문, 76밀리 곡사포 15문, SU-76 자주포 3문 등 50% 이하로 감소되었다.[24]

북한군 지휘부는 낙동강 선에서 결정적인 공격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사단 외에도 후방에 위치하고 있던 5개 예비사단을 전선에 투입해 공격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예비사단은 전쟁 도중에 편성된 관계로 훈련은 물론 무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25] 또한 낙동강 선까지의 남진 및 도하작전과정에서 손실된 병력을 대체하기 위한 보충병 역시 남한 지역에서 징집된 후 단기간의 기본훈련만을 마치고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26]

한편 작전기간 동안 북한군의 사기는 날로 저하되어 전선을 이탈, 도주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였다. 이처럼 적 병사들의 사기를 악화시킨 요인은 첫째는 항공 및 야포지원의 부족이었고, 둘째는 충분한 식량의 보급과 휴식의 부족이었으며, 세 번째는 국군 및 유엔군의 심리전에 있었다.

적은 미 공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보급의 차질이 불가피하였고, 따라서 무기와 탄약은 물론 식량마저 부족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미 공군의 활동은 적의 주간작전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야간기동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27]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과 전투는 병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이 전개하는 심리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8]

(4) 인접부대 상황

1950년 8월초 낙동강 중동부지역의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 사단을 우(서)측에서 좌(동)측으로 제15사단~제13사단~제1사단~제8사단 순으로 전개하였다. 작전지역의 우정면을 담당한 제15사단의 우인접부대는 성주~왜관을 점령한 후 대구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3사단이었고, 작전지역의 좌정면인 제8사단의 좌인접부대는 안동~청송을 점령한 후 안강~포항으로 진출하는 임무가 부여된 제12사단이었다.

2) 국군 상황

(1) 국군의 배치 현황

북한군이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며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 선까지 진출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1950년 7월 29일 반격을 위한 새로운 방어선으로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육군본부는 7월 31일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에게 낙동강-반변천 연변의 방어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고, 육본직할의 제3사단은 오십천 연변의 영덕·강구지구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29]

이 작전명령은 각 군단과 사단이 8월 2일부터 3일까지 낙동강 외곽선인 마산

서북쪽 서북산 일대~합천 북쪽 산제리 일대~지례 동쪽~김천~상주~예천~안동~청송 북쪽 홍구동~영덕을 연하는 이른바 'X선'에서 적을 지연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 즉 'Y선'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고 진지를 전환해 8월 4일부터 'Y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작전명령에 명시된 대로 국군과 미군은 철수를 단행하고 진지전환에 착수하였으나, 적의 압력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왜관 북쪽에서 영덕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한 국군은 "8월 3일 야간까지 낙동강 방어선상으로 철수하라"는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낙동강 도하를 개시하였다.[30]

함창에서 적을 저지하던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1사단은 적과의 접촉을 끊고 낙동리에서 도하하여 신진지의 점령을 완료하였고, 우측의 제6사단 또한 제19연대의 엄호 아래 낙동강을 도하하여 용기동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은 안동에서 수도사단의 엄호 아래 도하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고, 수도사단 역시 길안 방면으로 이동하여 방어편성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은 8월 3일 야간까지 진지전환을 완료하고 방어편성에 주력하였다. 새로운 방어선의 편성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약 68㎞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제1사단이 왜관~낙정리간 42㎞를, 제6사단이 낙정리~상아동간 26㎞ 정면을 담당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방어정면은 약 44㎞로써 제8사단이 상아동~구미동간 20㎞ 정면을, 그리고 수도사단이 구미동~청송간 24㎞ 정면을 담당하였다. 육본직할의 제3사단은 영덕 정면의 16㎞ 정면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새로운 방어선에서 미 제25사단이 마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군이 담당한 방어정면이 확대되고, 인접사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8월 11일 작전명령을 통해 국군의 전선을 축소,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군위~보현산을 연결하는 수정된 방어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31]

중동부지역의 방어임무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8사단, 제2군단 예하의 제1사단과 제6사단이 담당하였다.

<표 5-2> 중동부지역의 국군 전투서열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홍일(金弘壹)	
	부군단장	준장	김백일(金白一)	'50.8.2 이후
	참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50.8.2 이후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김석원(金錫源)	
		대령	백인엽(白仁燁)	'50.8.7 이후
			송요찬(宋堯讚)	'50.9.2 이후
	제1연대장	대령	윤춘근(尹春根)	
		중령	한 신(韓 信)	'50.8.7 이후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8사단 ('50. 9. 5일 제2군단으로 변경)	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최덕신(崔德新)	'50.8.2 이후
	제10연대장	중령	고근홍(高根弘)	
	제16연대장	중령	김동수(金東洙)	
			유의준(兪義濬)	'50.8.11 이후
	제21연대장	대령	김용배(金容培)	
	제50포병대대장	중령	정인완(鄭寅脘)	
	공병대대장	소령	김 묵(金 默)	
육본직할	제17연대장	대령	김희준(金熙濬)	
	제25연대장	중령	유해준(兪海濬)	
	건설공병대대장	중령	윤태일(尹泰日)	
제2군단	군단장	준장	유재흥(劉載興)	
	부군단장	대령	이한림(李翰林)	
	참모장	대령	강영훈(姜英勳)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제11연대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제12연대장	중령	김점곤(金點坤)	
		대령	박기병(朴基丙)	'50.8.8 이후
	제13연대장	대령	최영희(崔榮喜)	
	제17포병대대장	소령	박영식(朴永湜)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6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鍾五)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咸炳善)	
	제7연대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9연대장	대령	민병권(閔丙權)	
		대령	김익렬(金益烈)	'50.8.21 이후
	제16포병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배속부대	민부대장	대령	민기식(閔機植)	
	제5연대장	중령	이영규(李暎圭)	
		대령	최창언(崔昌彦)	'50.8.27 이후
	기갑연대장	대령	유흥수(劉興守)	
			백남권(白南權)	'50.8.13 이후

당시 각 사단은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는데, 수도사단은 제1・제18연대・기갑연대,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 그리고 제1사단은 제11・제12・제13연대,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각각 예하에 두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김홍일 소장과 참모장 이한림 대령, 그리고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과 후임인 백인엽 대령 및 송요찬 대령,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과 후임인 최덕신 대령이었다. 제2군단은 군단장 유재흥 준장과 참모장 강영훈 대령이 지휘부를 구성하였고, 예하의 각 사단은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이었다.

(2) 전투준비태세

국군은 38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할 경우 남한지역의 큰 강을 이용해 지연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32] 이러한 차원에서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이 돌파된 7월 17일 낙동강 방어선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이 선을 최후의 교두보로 선정하고 이 선에서 총반격을 실시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33]

육군본부의 철수명령[34]에 따라 낙동강 방어선상에 편성된 각 사단의 방어정면은 제1사단 42㎞, 제6사단 26㎞, 제8사단 20㎞, 수도사단 24㎞, 그리고 제3사단 16㎞에 이르는 넓은 정면이었다. 뿐만 아니라 방어지역 내에는 방어에 유리한 천연 장애물이 적었고, 태백산맥 남단 일대의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동서로 연결된 교통로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이들 사단의 병력 전개는 대대 또는 연대 단위의 부대가 예상되는 적의 접근로를 점령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방어력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인접부대와의 협조된 방어 작전도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부산교두보를 마련해 극비로 추진중인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려는 국군과 유엔군은 증원병력 및 병참선을 확보하고 우세한 포병과 항공기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국군은 이 무렵까지도 병력과 화력, 기동력이 빈약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국군은 중앙훈련소본부의 통제하에 신병양성에 주력해 1950년 8월 중 제1, 제3훈련소를 창설한 데 이어 9월까지 4개 훈련소를 증설하였다. 이들 훈련소는 5,000~6,000명의 병력을 수용해 1~2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다.[35] 아울러 장교 충원도 체계화되어 매주 250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였다. 또한 8월 20일 민부대와 독립 유격 제1, 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을 재창설하고, 제11사단의 신편작업에 착수하는 등 사단증편계획에 착수하였다.[36]

한편 학도의용군과 노무자도 이 무렵부터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도의용군은 각 지구에서 수십 명씩 국군부대에 입소해 전투와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포항지구에서는 제3사단을 지원해 전투를 수행하는가 하면 영일비행장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37]

노무자는 각 부대별로 필요에 따라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 주민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된 후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들은 보급소에서 전방부대까지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산악지대에서 지게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38]

병력증강과 병행하여 국군은 각 전투부대의 원활한 군수지원에 노력하였다. 당시 정부는 국내조달품목의 양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군 소요량의 90%를 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1950년 9월까지 국군은 경찰 및 노무자를 포함해 205,000명 수준의 보급을 지원받았고 그 중 일용품은 전적으로 군사원조로 충당하였다.[39]

이와 같이 국군은 총반격작전을 위한 8월의 제반 조치로서 병력과 물자를 전방사단에 신속하게 충원하는 등 예비 병력을 보유하여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공세이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전투력 수준

금강~소백산맥 선에서 낙동강선으로 이동해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 각 사단의 병력은 대체로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는 육군본부가 제1 및 제3훈련소를 창설해 신병양성에 주력한 결과였다. 또한 철수과정에서 분산된 병력이 원대로 자진 복귀하였고, 또한 낙오자를 수습해 충원하는가 하면 대한청년단원 및 학도병들이 자원해 현지 입대하는 등 여러 보충원에 의해 신속하게 증원되었기 때문이었다.[40]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될 당시 국군 각 사단의 병력현황은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이 약 6,570명, 제1군단 예하 제8사단과 수도사단이 각각 약 8,150명과 약 5,780명,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의 제3사단이 약 6,470명이었다.[41] 따라서 병력은 상대적으로 적에 비해 열세였으나, 제6사단의 경우와 같이 고참병의 경우 국방경비대부터 교육과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숙달된 전투기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전투지원에 있어 보급시설이 가깝고, 보급로의 발달과 기동력이 우수하였으며, 특히 우군 항공기의 근접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한 병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42]

그러나 병력상황과 달리 군단의 장비보급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국정부는 국내에서 자력으로 생산 및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은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장비와 물자에 대해 미 군수지원계통으로 지원받는다는 내용을 미

제8군과 합의하였으나,[43] 군 소요량의 90%를 미군에 의존하였다.

1950년 8월부터 국군의 각 전투부대는 신장비와 보급의 지원으로 공세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였다. 국군은 3.5인치 로켓포를 확보해 대전차공격이 가능해졌고, 포병도 105밀리 신형야포 30여 문을 보급받아 10개 대대로 확대함으로써 취약점을 개선하였다.[44]

(4) 인접부대 상황

낙동강선에 방어선이 형성된 시점에서 중동부지역의 국군의 배치현황은 방어정면의 좌측(서쪽)에서 우측(동쪽)으로 제1군단 예하 제6사단과 제2군단 예하 8사단 순이었다.

작전지역의 좌전방을 담당한 제1군단 예하 제6사단의 좌인접부대는 328고지~낙정리간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1사단이었고, 우전방을 담당한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의 우인접부대는 청송~길안지구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수도사단이었다.

<상황도 5-1-1> 중동부지역 작전(1) (1950. 8. 1~9. 14)

A3

<상황도 5-1-2> 중동부지역 작전(2) (1950. 8. 1~9. 14)

A3

제 2 절 신녕지구 전투

1. 전투 개요

신녕 전투는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9월 공세를 단행하여 국군 제8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천 동측방으로 진출하던 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천 북방의 신녕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이 영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저지시킨 방어 전투이다.

1950년 8월초 중동부 전선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장은 공세의 주목표를 대구로 정하고 이를 탈취하기 위해 4개 사단을 대구 전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예하의 적 제8사단을 안동~의성~대구 축선에 투입시켜 남진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8월 7일 의성지구에서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국군 제8사단에 의해 피해를 입어 의흥~신녕 선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적 제2군단은 그들의 주공이 지향된 다부동~효령 일대에서 돌파계획이 좌절되자, 의흥~신녕 축선에 투입된 적 제8사단에 전차부대를 증원하였다. 이에 고무된 적 제8사단은 신녕~하양을 목표로 대대적인 돌파 및 침투작전을 전개하며 8월말에는 조림산~화산 선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적은 연일 계속되는 국군 및 유엔군의 지상 작전과 공중폭격으로 상당한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기마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

반면에 위천을 따라 방어선을 형성했던 국군 제6사단은 전차를 앞세운 적의 강력한 공격에 주저항선이 와해되자, 558고지~637고지~화산을 연하는 선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 선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작정하였다.

9월초 인접 사단의 영천 점령에 고무된 적 제8사단은 신녕을 점령한 후 영천으로 돌파구를 확대하기 위해 화산 일대에 주공을 두고 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국군 제6사단은 포격을 집중해 적의 대열을 분산시키고, 유엔 폭격기와 전폭기 혼성편대가 진지 정면의 적에 맹폭을 가함으로써, 적의 총공격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기회를 포착한 제6사단은 즉시 방어진지 전방으로 반격해 전과확대에 돌입하였다. 적 제8사단은 이후 공세작전을 중단한 채 현 전선만을 유지하고 야간에 중대규모 수준의 소규모 전투만을 전개하였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은 예하의 3개 연대와 배속된 2개 연대를 통합하여 동서간 32㎞에 이르는 산악정면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이 제6사단의 좌측에 투입됨에 따라 제1사단은 가산~신원간 13㎞의 정면을, 제6사단은 운산동~화산간 15㎞ 방어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투지경선의 변경과 조정으로 인해 제8사단 제10연대는 제6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원대복귀하기로 결정하였고, 제5연대(-1)와 기갑연대 또한 제7사단으로 원대 복귀한 후 육군본부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이 전투로 북한군 제8사단은 신녕을 거쳐 영천을 우회공격하려던 기도가 좌절되었고, 이는 영천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에 나섰던 적 제15사단이 영천 지역에서 고립된 채 각개격파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국군 제6사단은 대구 외곽선인 신녕 지구의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대구를 점령하려던 적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한편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 및 유엔군의 총반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8월초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예하의 제8사단을 안동~의성 방면으로 진출시켰다. 적 제8사단은 의성 및 의흥 일대에서 국군 제6사단의 저항을 물리치고 남진을 계속하여 8월말에는 신녕 북쪽의 조림산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의 지속적인 반격과 미 공군의 폭격으로 적은 많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고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적은 아군의 반격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인 9월초에 최후의 공격을 시도하였다.

한편 안동~의성 방면으로 진출한 적 제8사단의 병력은 편제의 약 70%인 7,000여 명이었다. 또한 적 제8사단의 전투서열은 사단장 오백룡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한청 총좌, 제81연대장 이학래 대좌, 제82연대장 사생 대좌, 제83연대장 윤기근 대좌와 포병연대장은 김명항 중좌였다. 사단의 장비와 무기는 122밀리 곡사포 12문과 76밀리 곡사포 21문, 45밀리 대전차포 42문이었으며, 82밀리 및 120밀리 박격포를 각각 36문과 12문을 보유하였다.

한편 적은 낙동강 선까지의 남진과정에서 손실된 병력을 남한의 점령지역에서 징집하여 충원함으로써 국군보다 병력의 우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적은 제공권 및 제해권의 상실로 인한 보급의 차질과 연일 계속되는 전투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2) 국군 상황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8사단이 인접사단과 합세하여 의흥을 거쳐 대구를 목표로 우회공격을 기도하던 8월말 국군 제6사단은 적의 최후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신녕 북쪽에 강력한 방어진을 편성하고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은 예하의 3개 연대(제2, 제7, 제19연대)와 제7사단의 제5연대(-1) 및 기갑연대(-1) 등 5개 연대로 동서간 32㎞의 산악지역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방어정면의 조정으로 국군 제6사단은 운산동에서 화산에 이르는 15㎞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한편 신녕지구 전투에 참여한 제6사단은 6,500여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배속된 제5연대와 기갑연대를 포함한 전체 병력은 약 8,500여명이었다. 제6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김종오 준장을 비롯해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 제19연대장 김익렬 대령이고, 배속부대인 제5연대장과 기갑연대장은 각각 최창언 대령과 백남권 대령이었다. 제6사단의 주요 지휘관 현황은 다음

의 <표 5-3>과 같다.

그리고 무기 및 장비는 편제상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현지 관서의 협조와 후방으로부터의 추진으로 충족하였으며, 탄약의 보급도 대체로 원활하였다.

<표 5-3> 국군 제6사단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6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鍾五)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咸炳善)	
	제1대대장	소령	김주형(金柱亨)	
	제2대대장	소령	문정식(文正植)	
	제3대대장	소령	이운산(李雲山)	
		소령	송대후(宋大厚)	'50.8.29 이후
	제7연대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金龍培)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金鍾洙)	
	제3대대장	중령	조한섭(趙漢燮)	
	제19연대장	대령	민병권(閔丙權)	
		대령	김익렬(金益烈)	'50.8.21 이후
	제1대대장	소령	허용우(許容尤)	
	제2대대장	소령	김제선(金濟善)	
		대위	김욱전(金旭篆)	'50.8.27 이후
	제3대대장	소령	김지혁(金志赫)	
	제16포병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배속부대	제5연대장	중령	이영규(李暎圭)	
		대령	최창언(崔昌彦)	'50.8.27 이후
	기갑연대장	대령	유흥수(劉興守)	
			백남권(白南權)	'50.8.13 이후

3. 전투 경과

1) 용기동 부근 전투

(1) 양곡동 지역 전투

8월 1일 제6사단은 함창지역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던 중 군단장으로부터 용기동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45] 사단장은 적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19연대를 먼저 낙동강 남쪽의 주요 고지로 이동시켜 제2연대와 제7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기로 계획하였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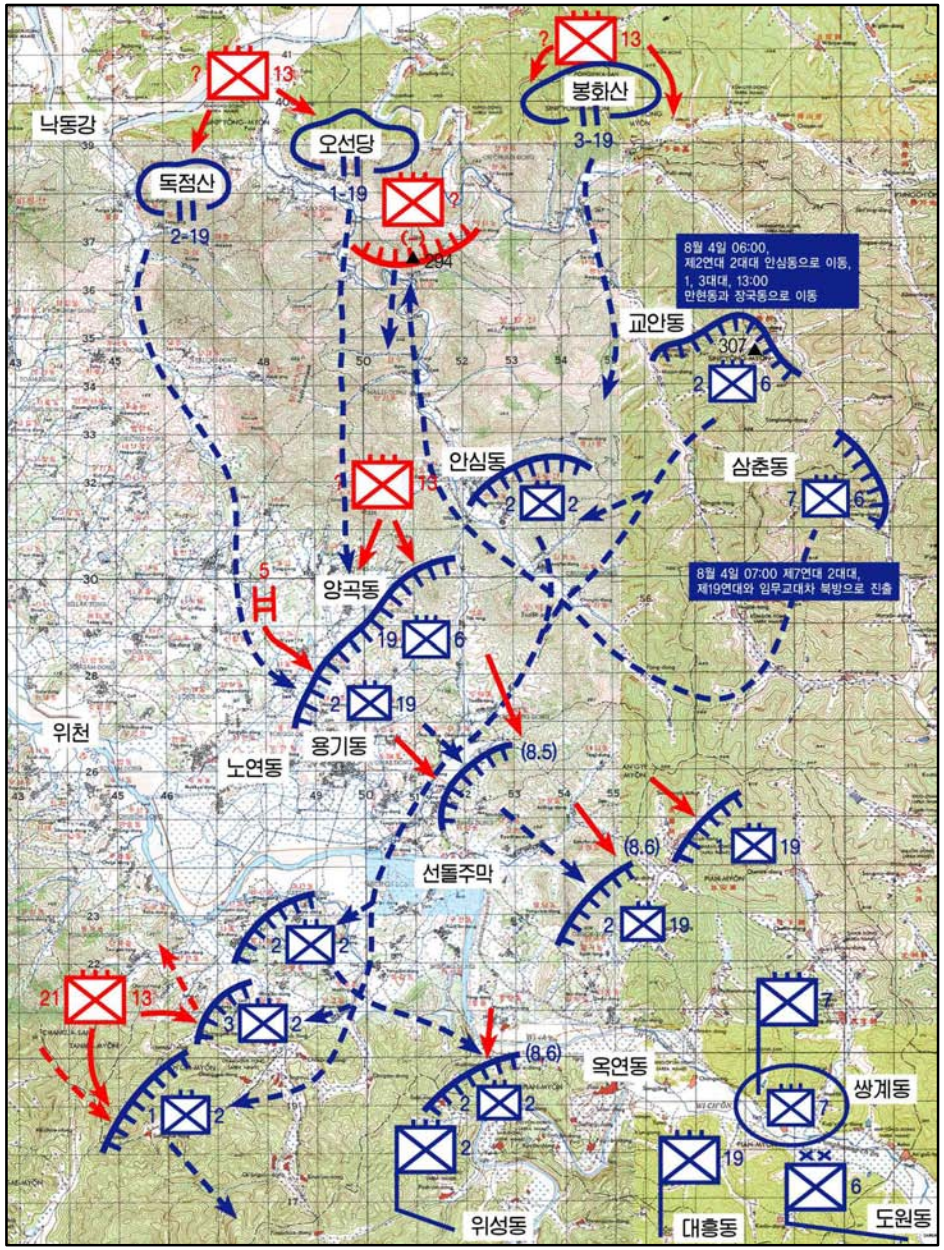
이런 계획에 따라 낙동강을 도하한 제19연대는 8월 2일 04시를 기해 제1대대를 오선당(352고지), 제2대대를 독점산(312고지), 그리고 제3대대를 봉화산(400고지)에 각각 배치해 진지를 강화하면서 후속 연대의 도하작전 엄호에 돌입하였다.[47]

한편 제2연대와 제7연대는 제19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도하를 완료한 후 용기동과 노연동에 각각 집결해 부대를 재편성하고 차기 전투를 준비하였다. 제1사단 및 제8사단과 좌우로 인접해 있던 제6사단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방어방책을 수립하여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8월 3일 06시 무렵 제2연대는 용기동~교안동~307고지를 연하는 능선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7연대는 용기동 동북쪽 13㎞ 지점으로 이동해 삼촌동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에 돌입하였다. 또한 제16포병대대의 각 포대는 연대 지역에서 직접 지원을 담당하도록 배치하는 등 방어에 만전을 기하였다.

낙동강 남단에서 진지를 강화하던 제19연대는 낙동강을 은밀하게 도하한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교전을 전개하였다. 제19연대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한 적은 후속부대를 계속 증원해 병력이 1개 연대규모로 증강되자, 이들 중 2개 대대를 제19연대 제3대대의 동측방으로 우회시켜 공격을 가해왔다.

<상황도 5-2> 용기동 부근 전투(1950. 8. 2~6)





용기동의 모습

8월 4일 06시경 제2연대장은 남하중인 적을 저지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 연대장은 307고지를 방어하고 있는 제2대대를 즉시 이동시켜 안심동 북쪽의 고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제19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던 07시경에 294고지 전방의 적 2개 대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또한 08시경에는 제19연대가 적의 공격으로 더 이상 진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제19연대장은 사단장의 승인 아래 지연전을 전개하며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산된 제7연대 제2대대 및 제3대대 병력을 수습해 용기동에서 재정비하였다.

이날 정오를 지나 제19연대는 제2대대를 용기동 2㎞ 북쪽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양곡동 일대의 능선에 배치해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차 5대를 앞세운 1개 연대규모의 적이 남진을 계속하자, 제6사단장은 사단 및 연대 지휘소를 이동시키고,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지휘소는 용기동에서 도원동으로 이동하였고, 연대지휘소는 제2연대가 위성동에, 제7연대가 쌍계동에 그리고 제19연대가 대흥동에 각각 설치되었다. 또한 교안동과 307고지 사이에 배치된 제2연대 제1대대를 갈현동 북쪽 능선에, 제3대대를 장국동 일대에, 그리고 안심동의 제2대대를 용사동으로 이동시켜 서측방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다.[48]

다음날인 8월 5일 제19연대는 방어중인 용기동~양곡동간 능선 일대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였으나, 병력을 증원받은 적으로부터 계속적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제19연대장은 용기동 북쪽에서 방어중인 제2대대를 18시경에 용기동 1㎞ 남쪽의 천세골~봉양동 일대에 배치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용기동에서 재정비 중에 있는 제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일부를 급파해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적의 강력한 포위공격으로 인해 22시경에 철수를 단행,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전투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제2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야간을 틈타 방어지역을 돌파하려는 적 제13사단 제21연대의 공격을 받았다. 적은 제1사단과의 협조 아래 지연작전을 실시한 아군 2개 대대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또한 옥연동 부근에 진지를 편성한 제2연대 제2대대는 연대의 동측방을 방어하는 한편 제19연대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제19연대는 8월 5일부터 계속된 적의 공격을 양곡동 부근에서 방어하고 있던 중 8월 6일을 기해 진지에서 후퇴, 제1대대와 제3대대는 각각 연대지휘소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2대대는 14시 30분경 선돌주막 남쪽 고지로 이동해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49]

제2연대 제1대대는 1개 연대 이상의 적이 계속 남하중인 것을 포착하고 보다 유리한 지역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18시경 463고지로 이동해 급편방어를 실시하였다.

(2) 선돌주막 지역 전투

제19연대 제2대대는 방어중인 선돌주막 남쪽 고지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교전을 전개하였다. 8월 7일 01시 무렵 제2대대는 계속된 격전 끝에 외곡동으로 후퇴해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북쪽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하기 위해 제7연대 제2대대를 방동 동북쪽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제19연대 제1대대는 방동 서측 능선에서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50] 8월 7일 정오 무렵 제19연대 제1대대는 서북쪽 3㎞ 전방에 있는 217고지를 점령하고 제2대대와 교전중인 적의 측면을 공격하였으나 적이 병력을 증원함으로써 부득이 원진지로 복귀하였다. 이후 제1대대는 제2대대가 연대 예비대 임무를 담당하면서 노출된 서측방을 보완하기 위해 23시경 368고지로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2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2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치열한 교전 끝에 격퇴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420고지를 공격중인 적 1개 연대와 공방전을 실시한 후 20시 무렵 방동 남쪽으로 후퇴해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3대대는 쌍계동에 집결해 부대를 정비하던 중 8월 8일 11시를 기해 현산동 북쪽으로 이동해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 제2대대는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선돌주막 부근까지 진출하자 제1대대 및 제7연대 제2대대의 2개 중대와 함께 적을 공격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에 실패한 제2대대는 16시경에 재공격을 감행해 선돌주막 북쪽으로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11시경에는 236고지를 점령한 제2대대가 동측방에서 역습해 온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51]

(3) 옥연동 지역 전투

236고지에서 철야 격전을 통해 1개 대대의 적을 격퇴한 제19연대 제2대대는 8월 9일 03시 무렵 적이 병력을 증원해 재공격을 가해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후퇴를 시작하였다. 급박해진 전황에 따라 사단장은 15시를 기해 제7연대를 봉양동과 조동 일대에, 제19연대는 236고지에서 철수한 제2대대와 함께 조동과 외곡동 일대를 점령해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2연대 제2대대는 옥연동~막동간 능선 일대에서 광정면 방어를 실시하였고, 제19연대는 전면의 적

을 맞아 지연전을 계속하였다.

8월 10일 03시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은 낙동강의 지류인 위천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도하를 완료한 적은 제2연대 제2대대의 방어진지로 은밀하게 침투해 옥연동~막동간을 공격하였다. 적의 기습공격을 받은 제2연대 제2대대장은 예하의 2개 중대를 장현동 남쪽 능선에 배치해 쌍계동 방면으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였다.

주공을 제19연대 정면인 236고지로 지향하던 적은 8월 11일 01시 20분을 기해 사단의 모든 정면에 일대 공격을 가해왔다. 제7연대 제1대대는 집중공격을 받은 제19연대를 적극 지원하였고, 제19연대장은 제2대대와 제3대대 사이의 공간지역을 봉쇄하기 위해 부대를 재조정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는 적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02시 15분 무렵부터 통신두절 상태에서 진지가 와해되었고, 제3대대는 적의 협공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05시에 제7연대의 엄호 아래 현산동으로 철수해 217고지를 점령하였다.

적은 제19연대 정면에 계속 공세를 취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을 291고지로 우회시켜 제7연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제7연대는 10시 30분부터 제19연대의 엄호 아래 각 대대를 316고지로 이동시켜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2연대는 지휘소를 위성천에서 안영동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8월 12일 22시를 기해 사단은 적과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해 위천 북쪽 1~3㎞ 지점의 감제고지를 연결하는 선에 3개 연대를 배치하였다.[52] 이때 좌인접 부대인 제1사단과는 방어진지를 연결하였으나, 우측은 제8사단이 8월 13일 현재까지도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우전방을 담당한 제19연대의 1개 대대만을 전방에 배치하고 잔여 2개 대대를 연대 예비로 두었다. 제6사단의 방어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53]

① 사단사령부는 화수동(華水洞)에 위치한다.

② 좌전방인 제7연대는 연대본부를 금매동(錦梅洞)에 두고, 방어정면은 응봉산~352고지~303고지간 8㎞이다.

- 제2대대 : 응봉산
- 제1대대 : 불노동
- 제3대대 : 성동(城洞)

③ 중앙 전방인 제2연대는 연대본부를 우보에 두고, 방어정면은 노매실~국통산~청노동(靑路洞)간 9㎞이다.

- 제2대대 : 노행동
- 제1대대 : 도경동
- 제3대대 : 청노동

④ 우전방인 제19연대는 연대본부를 의흥에 두고, 방어정면은 탑리(塔里)~동평동(東坪洞)간 12㎞이다.

- 제1대대 : 산청동
- 제2, 제3대대 : 읍내동

2) 군위-의흥 부근 전투

(1) 매봉산(488고지)지역 전투

제6사단은 오위동~현산동~318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방어하던 8월 13일 군단의 명령에 따라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점에서 방어하기로 계획하였다.[54] 사단은 인접 사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도원리와 군위, 의흥을 경유해 Y방어선의 일부인 매봉산과 산운동 일대로 철수해 진지를 편성하였다.[55]

사단 방어지역의 좌전방을 담당한 제7연대는 방어정면이 광대해 3개 대대를 일선에 배치하였다. 연대는 방어지역에 있는 2개의 접근로, 즉 성동~효령~신녕과 효령~매곡동~중리~대구간 도로 중 기갑부대의 기동이 가능한 첫 번째 도로에 방어중점을 두고 매봉산 일대에서 적을 격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방어정면의 적 제1사단은 전차로 증강되어 아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8월 13일 성동~303고지 간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7연대 제3대대는 군위에 집결한 적을 교란시켜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402고지(마정산)를 점령하기로 계획

하였다. 제3대대장은 예하 제9중대 및 제11중대에 목표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21시 45분 정면과 우측 방향으로 진격에 나선 양 중대가 목표의 7부 능선에 도달했을 때, 군위에서 남하한 적 2개 대대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적은 목표 고지의 전술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지를 선점하였다.[56] 약 2시간의 격전 끝에 402고지를 탈취하는데 실패한 아군은 자정 무렵 원위치로 복귀하였다.[57]

다음날에도 포격전을 계속하던 적은 13시경 제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정면에 각각 1개 대대를 투입해 공격을 가해왔다. 연대는 조직적인 작전을 전개해 적을 저지하고 진지를 확보하는 한편 가용 화력을 최대한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은 공격기세가 약화되어 15시경 402고지로 철수하였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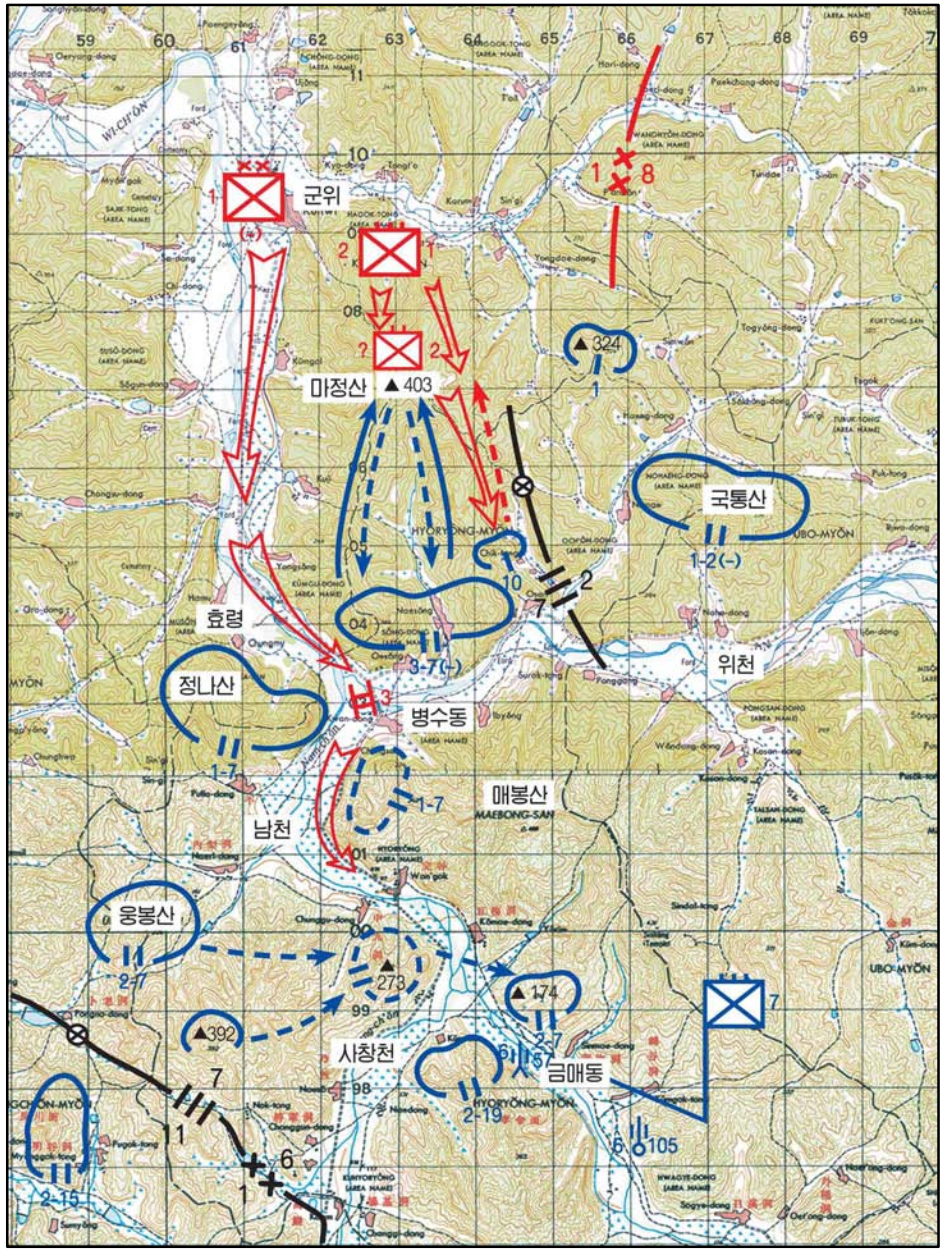
8월 15일 이른 아침, 안동을 떠나 군위에 집결한 적 제1사단은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40여 분에 걸쳐 실시한 후 3대의 전차를 선두로 제7연대 정면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아군의 포화가 적의 대열에 집중되었으나, 전투대형으로 산개한 적은 사격과 각개약진으로 접근함으로써 백병전을 비롯한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다.

적은 일부 병력으로 위천 북방에 배치된 제3대대를 정면에서 견제하는 한편 전차로 증강된 2개 연대 병력을 효령 일대에 집중 투입해 파상공격을 가하였다.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효령을 점령한 적은 14시에 제2대대가 배치된 건너편의 273고지로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4시간 동안 수차례의 육박전을 전개해 방어진지를 고수하였으나, 18시경 탄약이 고갈되어 부득이 174고지로 철수하였다.[59]

한편 적은 효령 뒤편의 매봉산에 집결한 제1대대를 화력으로 견제하며 남진에 주력했지만, 결국 효령~273고지 선에 일단 머물렀다. 이는 공격 과정에서 전투력을 과다하게 소모하였고, 위천 북쪽의 주저항선과 매봉산을 아군이 장악하고 있어 병력증원과 재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제7연대 제2대대는 8월 15일 21시를 기해 273고지를 탈환하기로 작정하고 공격임무를 수색대에 부여하였다. 공격에 나선 수색대가 진지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하자, 대기시킨 1개 중대를 고지에 투입해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60]

<상황도 5-3> 효령 부근 피아상황(1950. 8. 15~16)



제6사단은 적 제1사단의 공격방향이 273고지로 지향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고심하였다. 이는 인접 제1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이 설정된 사창천 접근로(효령~매곡동~대구)는 공격부대가 진출하기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적이 273고지를 점령하면 아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종심 깊은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제2군단장 또한 이러한 제7연대의 긴박한 상황을 우려해 제1사단 예하 제15연대 제2대대를 제6사단에 배속해 제7연대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61] 그러나 제1사단 정면의 전황 또한 급박하게 변화하면서 제15연대 제2대대의 활용이 여의치 못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제19연대 제2대대를 제7연대 서측방의 492고지 일대에 배치하였다.

8월 16일 새벽에 적 제1사단 제14연대는 3대의 전차를 선두로 강력한 포격을 집중하면서 5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였다. 동시에 2개 연대가 위천 북쪽의 제7연대 제3대대와 매봉산의 제1대대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매봉산 서쪽 기슭 224고지에 배치된 제1대대는 완강한 저항으로 이를 진전에서 저지하였으나, 전차로 증강된 적 3개 대대는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왔다.[62]

대대장은 과다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수색대를 방어진지에 잔류시키고 본대는 매봉산 8부 능선으로 철수해 역습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약 1시간 후 적이 재편성 중에 있음을 수색대로부터 보고 받은 대대장은 지원포병에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모든 공용화기를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이어 과감한 공격으로 방어진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보급이 어렵고, 적의 병력이 증원되자 연대장의 승인 하에 매봉산 6~7부 능선으로 물러나 사주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63]

이후 적은 효령과 5번 도로의 감제가 가능한 매봉산 서쪽의 224고지~325고지를 장악하고, 이를 발판으로 제2대대가 점령중인 273고지로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전날 밤에 보강한 진지와 지형의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며 수차례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적은 자신들의 정면공격이 계속 실패하자, 1개 대대를 우회기동시켜 고지 좌측방에서 기습적으로 협공하였다.

측면 공격을 받은 제2대대는 방어진지의 고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대장의 승인을 받아 장군동을 경유해 365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금산에 배치된 제19연대 제2대대는 철수하는 제7연대 제2대대를 엄호하였다.

이날 저녁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제3대대를 위천 북쪽의 성동~303고지로부터 매봉산으로 이동 배치하는 안을 사단장에 건의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8월 17일 02시경 잔류접촉분견대의 엄호를 받으며 위천을 건너 매봉산 북단의 217고지~매봉산 8부 능선을 점령하고 제1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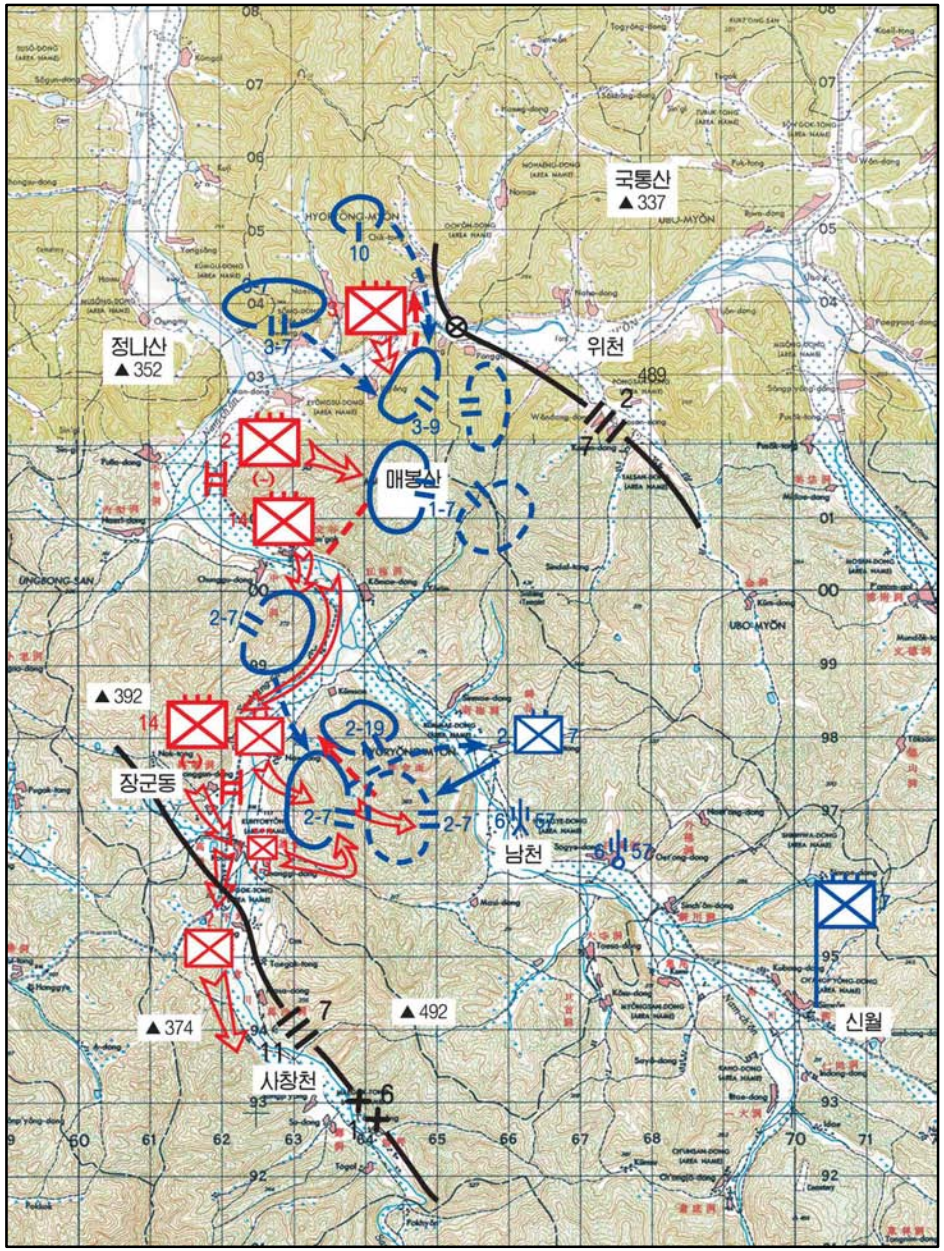
8월 17일 정오 무렵 적 제1사단은 전차로 증강된 예하의 제14연대를 장군동 일대로 진출시킨 후 일부 병력을 가산산성까지 침투시켰다. 따라서 적의 주공이 인접 제1사단과의 전투지경선으로 지향되고 있어 제7연대 및 제1사단의 측후방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매봉산을 점령하지 못해 공격부대의 좌측방이 노출되어 모든 작전행동이 제한되었다. 이처럼 적은 공격을 개시한지 3일이 지나도록 제7연대의 방어지대를 돌파하지 못하자 8월 17일 오전에 공격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때 적은 병수동 북쪽 일대에 제2연대와 제3연대가 집결해 재보급 중에 있었고, 장군동 부근에도 1개 연대가 대대단위로 공격대기지점에서 부대정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대적인 적의 공격준비 징후로 판단한 제7연대는 매봉산과 금산에 배치된 예하 3개 대대에 방어태세의 강화를 지시하였다. 또한 금산의 제19연대 제2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기 위해 365고지의 제2대대를 1㎞ 서쪽 지점의 무명고지로 이동시켜 연대 방어지대의 좌측방을 강화하였다.[65]

공격준비를 완료한 적은 15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병수동 일대에 산개한 약 1개 연대의 적은 북쪽에서 제3대대를 견제하고, 244고지~효령 일대에 전개한 1개 대대는 제1대대 정면으로 각개 약진하였다. 매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사주방어태세에 있던 제7연대 제1대대는 1개 예비중대를 상황에 따라 투입하는 전법으로

<상황도 5-4> 매봉산-365고지 전투상황(1950. 8. 17~18)



적에게 타격을 가하며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에 반해 적은 수차에 걸친 파상공격이 아군 진전에서 저지되고 사상자가 속출하자, 저녁 무렵 244고지~효령 일대로 철수하였다.

한편 장군동에 전개한 적 제14연대는 그들의 제2연대와 제3연대에 호응해 제7연대 제2대대 정면으로 접근했으나, 아군이 감제하고 있는 사창천을 도하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고 공격이 좌절되었다. 이후 적은 131고지에 1개 대대규모가 집결해 정면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일부가 계곡을 따라 후방으로 침투하였다.

제2대대는 갑작스럽게 후방에서 출현한 적의 협공을 받고 분산 철수하였는데, 자정이 안 된 시점에서 대대 병력의 대부분이 금매동에 집결하였다. 제7연대는 이처럼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방어지대 좌측이 돌파되자 연대본부를 화계동 신월마을로 이동시켰다.

한편 8월 21일 전투지역의 재조정으로 인해 매봉산 방어를 담당한 제7연대 제3대대는 3㎞의 방어정면을 고려해 3개 중대를 배치하고 중대간 간격에는 국지경계조를 운용하였다. 대대는 다음날 새벽 적의 여명공격을 받고 무기력하게 고지 정상을 빼앗겼다. 그러나 1시간 후 대대는 역습을 단행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고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66]

8월 24일 야간에 대대는 병수동으로 우회한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매봉산 북쪽 능선을 빼앗겼으나, 이어 백병전을 전개해 적을 격퇴하였다.[67] 대대는 03시에 역습을 실시해 5시간 뒤 매봉산 북단까지 완전 장악하고 방어진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인접부대의 상황이 급변하자 제7연대 제3대대는 8월 27일 사단 주저항선의 전체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방어진지 우단을 봉산동 원당이마을로 전환하고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아군의 상황을 파악한 적은 8월 28일 01시 20분 남쪽 능선의 제10중대 정면에 증강된 1개 대대를 투입해 파상공격을 가해왔다. 제10중대는 수류탄 투척전으로 적의 제1공격제대를 격퇴한 데 이어 3차에 걸친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고지를 유지하였다.

(2) 365고지 지역 전투

예상하지 못했던 적의 기습으로 금매동으로 후퇴했던 제7연대 제2대대는 8월 18일 04시를 기해 365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반격을 개시하였다.[68] 제2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과 지속적인 병력증원을 제16포병대대 제2중대의 효과적인 근접지원으로 극복하고 17시 20분경에 365고지를 확보하였다. 고지를 탈환함과 동시에 연대는 제19연대 제2대대를 서쪽의 무명고지로 이동시켜 2개 대대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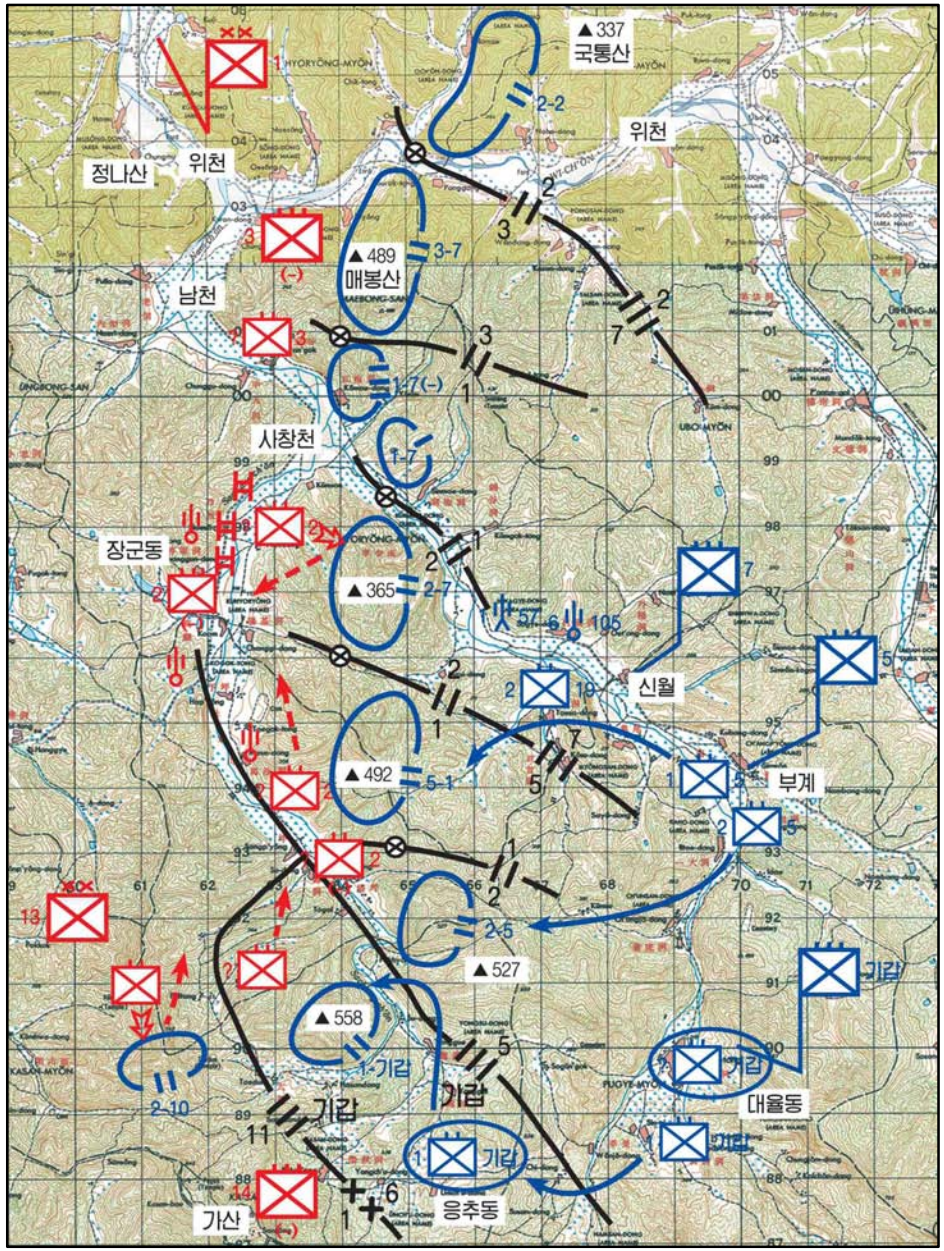
8월 19일 이른 아침 제2대대는 적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적은 제7연대의 주진지를 돌파할 의도로 365고지를 방어중인 제2대대를 목표로 하였다. 제2대대는 우군기의 근접지원을 받으며 완강하게 저항했으나, 계속되는 적의 압력으로 22시경 365고지 남동쪽 1㎞ 지점의 무명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연대는 제2대대가 철수한 후 제19연대 제2대대를 365고지 남쪽 2㎞ 지점의 452고지로 이동시켜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69]

다음날 새벽 제7연대 제2대대는 기습적인 돌격을 감행하여 365고지를 다시 탈환하였다. 그러나 08시 20분경 적 제14연대 예하의 1개 대대는 제19연대 제2대대가 방어중인 492고지와 217고지의 중간으로 침투를 기도하였다. 좌우 양측으로부터 적의 협공을 받은 대대는 10시경 211고지로 철수한 후 역습을 가하였다. 적은 재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북쪽으로 후퇴하였다.[70] 이와 같이 8월 17일부터 이어진 365고지 일대의 쟁탈전은 8월 20일 제2대대가 고지를 장악함으로써 제7연대 좌측방에 대한 적의 위협은 일단 제거되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모든 전선의 전황을 분석하고 적정을 판단한 결과, 다부동~효령 일대에 전투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과 21일 제7사단 제5연대와 육본직할 독립 기갑연대를 제6사단에,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1사단에 각각 배속하였다.[71]

8월 20일 13시를 기해 포항지구전투사령부에서 제6사단으로 배속된 민부대는 신녕에 도착하여 제6사단과 제1사단 사이의 매곡동 계곡에 진지를 점령하였다.[72] 이날 부로 제7사단 제5연대로 개칭된 민부대는 연대전술지휘소를 부계에

<상황도 5-5> 제5연대 및 기갑연대의 증원(1950. 8. 20~21)



설치하였다. 또한 예하의 제1대대는 제19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제2대대는 대율곡동의 655고지를 점령하였다.[73]

452고지에 배치된 제19연대 제2대대는 8월 20일 저녁 진지교대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고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제2대대는 211고지로 철수해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적의 일부가 492고지로 남하해 고지를 무혈점령하였다. 365고지 남쪽 3㎞ 지점의 492고지는 사창천과 남천 일대의 낮은 지대를 감제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였다.

이에 제5연대 제1대대는 8월 21일 이른 새벽 공격을 감행하여 11시 50분에 목표인 492고지를 탈환하고 우측의 제7연대와 연결하였다. 이 무렵 제5연대 제2대대는 492고지와 1.5㎞ 떨어진 527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74]

한편 기계-안강전투에 참여한 후 대구에서 재편성 중에 있던 기갑연대는 명령에 따라 제6사단에 배속되어 8월 20일 22시에 대율동에 집결하였다.[75] 다음날 기갑연대 예하 제1대대는 558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고지를 선점한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응추동으로 철수해 부대를 정비하였다.

제5연대와 기갑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한 제2군단은 제1사단 우측방 방어정면을 약 2㎞ 축소해 사창천 계곡 일대를 제6사단이 담당하도록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① 기갑연대 : 연대본부, 대율동
- 제1대대 : 응추동에 집결(558고지 공격준비)
- 제2대대 : 연대본부 지역에 집결

② 제5연대 : 연대본부, 부계
- 제1대대 : 492고지
- 제2대대 : 527고지

③ 제7연대 : 연대본부, 부계
- 제1대대 : 매봉산 진지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남쪽 176고지~매봉산 남단으로 이동하여 좌우 인접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
- 제2대대 : 365고지

- 제3대대 : 매봉산, 제1대대 방어지역을 인수하고 방어진지를 재편성

이와 같이 전투지역이 재조정된 이후 적은 사창천 계곡 일대에 형성된 돌파구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차후 작전을 위한 중요 지형의 사전확보를 기도하였다. 8월 21일 아침에 적은 365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증강된 1개 대대를 투입, 파상공격을 개시하였다. 제7연대 제2대대는 전날 보강한 방어진지를 활용해 강력하게 저항하였다.[76]

연대는 365고지가 피탈될 경우 제5연대와의 전투지경선상에 돌파구가 형성되어 신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연대 수색대를 주력으로 예비대를 편성하는 한편 사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해 적의 증원을 차단하였다.

다음날 적 제1사단은 아군의 항공지원을 피해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일몰과 함께 적은 공격준비사격을 365고지에 집중한 후 고지 정상을 향해 돌진하였다. 제2대대는 예비대를 투입해 6~7부 능선에 산개한 적을 격퇴하였다. 또한 제2대대 우측 167고지의 제1대대도 적의 야간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응추동에 집결한 기갑연대 제1대대는 8월 22일 새벽녘에 적 제14연대의 일부 병력이 배치된 558고지를 공격하였다.[77] 이 고지는 사창천 상류 협곡과 가산산성으로 연결된 계곡 접근로는 물론 그 남쪽의 가산동 일대를 감제하며, 가산~팔공산으로 이어진 횡격실 능선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발판이 되는 전술적 요지였다.

대대는 북쪽 능선으로 접근해 기습적인 돌격으로 적을 격멸하고 목표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전과확대로 전환한 대대는 잔적을 소탕하고 적의 역습을 수차례 격퇴한 후 고지를 완전 장악하였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병사들은 적의 야간기습을 받고 크게 패해 고지 남쪽의 기슭으로 후퇴하였다.

전술적으로 중요한 558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피아는 쟁탈전을 수없이 반복하였다. 8월 24일 아침 기갑연대는 제2대대마저 투입해 여덟 번에 걸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병력의 50% 손실을 입고 실패하였다. 다음날 연대는 병력보

충과 재편성을 실시한 후 공격을 재개해 5시간의 교전 끝에 18시 30분경 고지를 탈취하였다.[78]

한편 제6사단은 다부동 전투가 일단락된 8월 26일 전차를 앞세운 적 제8사단이 의성~의흥~신녕 접근로를 따라 제19연대 방어정면을 돌파하고 화산~조림산 선까지 진출함에 따라 주저항선의 재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제2연대는 8월 28일 370고지~상동 선에 지연진지를 급편하였고, 우측의 제19연대는 갑령 일대에서 적을 지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연대는 8월 29일 이른 새벽 217고지~284고지 간으로 이동하였다.

다부동 지역을 방어하던 제1사단 또한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8월 29일 작전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다음날 신녕으로 이동하였다.[79] 그리고 예하의 제15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는 한편 기갑연대와 제5연대, 제7연대의 3개 연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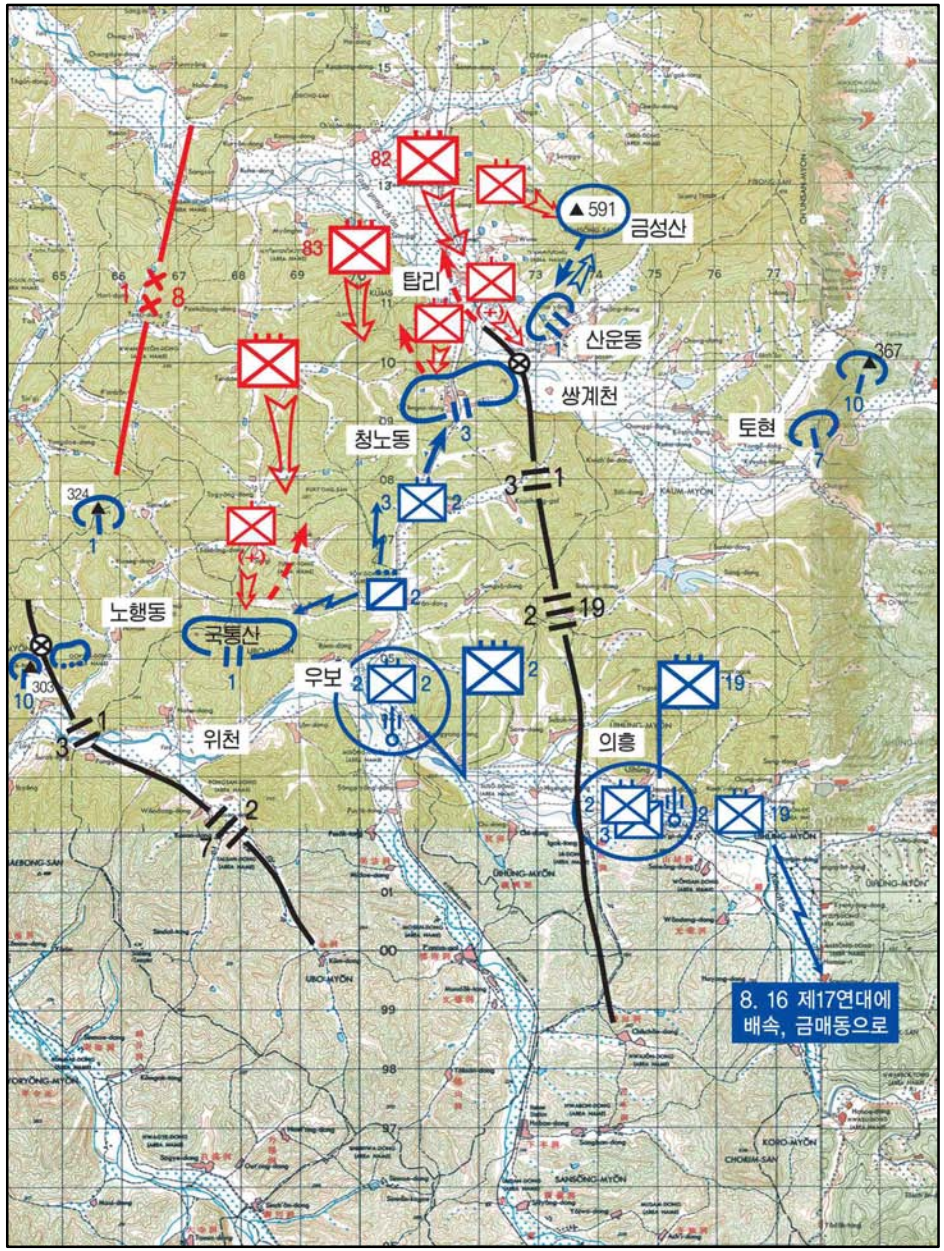
(3) 주저항선상의 공방전

8월 13일 오전 사단 선발대로 우보에 도착한 제2연대는 적의 주요 접근로로 예상되는 의성~우보~신녕 축선의 방어를 위해 위천 북방에 주저항선을 설치하고 2개 대대를 전방에, 1개 대대를 연대 예비로 두었다.[80]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위천 북쪽 2㎞ 지점의 국통산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제3대대는 청노동에서 전투전초임무를 수행하면서 제19연대와 협조를 유지하며, 연대 수색대는 국통산과 청노동간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사단 우전방의 제19연대는 8월 13일 이른 새벽 제1대대를 탑리 남쪽에, 잔여 2개 대대를 의흥 부근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우측 제8사단 정면의 적정을 고려해 제2대대와 제3대대에서 1개 중대씩을 차출해 토현과 367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81]

제2연대 제1대대장은 국통산에 2개 중대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서쪽 2.5㎞ 지점의 324고지에 제1중대를 배치하였다. 사단 주저항선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국통산은 의성~271고지~320고지~우보간 능선 접근로를 통제하고, 위천 일대를

<상황도 5-6> 국군 제6사단 주저항선상의 공방전 상황(1950. 8. 13~16)



감제하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이었다.

8월 13일 저녁 제2연대 제1대대는 1개 중대의 적으로부터 양동공격을 받고 두곡동까지 후퇴했으나, 대대의 일부 병력으로 반격을 단행해 11시 50분경 국통산을 점령하였다.

제2연대는 전술적 요지인 청노동을 확보해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하기로 계획하고 예하의 제3대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3대대장은 적정을 분석한 결과 적 역시 청노동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기동으로 목표 선점에 나섰다. 목표로 접근하던 제3대대는 도중에 청노 터널 인근의 93고지에서 적과 조우전을 전개하였다.[82] 이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한 대대는 청노동까지 진출해 북쪽의 무명고지에서 쌍계천변 175고지 간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8월 13일 오후 탑리 남동쪽 산운동 뒷산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제19연대 제1대대는 좌인접 제2연대 제3대대와 전투지경선이 설정된 쌍계천 일대에 대한 화력의 상호지원을 협조하였다. 15시경 대대편성을 완료한 대대장은 금성산을 점령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행동을 개시해 교전 없이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약 2시간이 경과하고 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할 즈음, 적의 공격준비 사격이 고지에 집중되었다. 대부분이 신병으로 구성된 대대는 통제불능상태가 되었고, 결국 산운동으로 분산 철수하여 사주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이날 23시경 적은 다시 아군 진지에 포격을 가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고, 대대장은 약 20분간의 진내사격으로 이를 저지하였다. 이 전투 이후 제19연대 방어정면은 접전 없는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었고, 연대는 진지보강에 주력하였다.

(4) 주저항선의 재편성과 고지쟁탈전

8월 17일 아침 적은 우보~의흥간 제2연대와 제19연대의 방어정면에 공격을 재개하였다.[83] 이에 앞서 제6사단은 제2연대의 좌측인 제7연대 제3대대가 매봉산으로 철수하자, 제7연대와 제2연대의 협조점을 병천동 배외골에 설정하였다.[84]

한편 제19연대는 좌전방인 제1대대가 산운동에서 철수한 후 324고지로 철수하였고, 인접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이 설정된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해 제2

연대와 제19연대는 방어진지를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였다.[85]

① 제2연대 : 연대본부, 우보역 부근 다리밑
- 제2대대(제9중대 배속) : 284고지~국통산
- 제1대대(제10중대 배속) : 두북동~169고지
- 제3대대(2개 중대 결) : 연대 예비, 우보에 집결

② 제19연대 : 연대본부, 의흥초등학교
- 제1대대 : 324고지~구천동
- 제2대대 : 순호동

제19연대 제1대대는 8월 16일 저녁 무렵 탑리에서 제8사단 지역으로 연결된 도로상에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이 아군 방어정면으로 접근중인 것을 목격하였다. 대대는 포격을 요청해 대부분의 적을 격멸하였고, 일부는 금성산으로 도주하였다.

다음날 04시경 적은 아군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다시 공격을 전개하였다. 기습을 받은 아군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구천동으로 철수해 324고지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19연대는 제1대대가 후방으로 철수하자, 의흥에 배치된 제3대대를 순호동 횡격실 능선에 급파해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토록 하는 한편 신병을 제1대대에 긴급 보충해 재편성과 방어진지 구축을 병행하였다.

이날 저녁 아군은 324고지에서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적의 공격을 받고 순호동으로 철수해 부대를 정비하였다. 제1대대는 다음날 여명공격으로 방어진지를 탈환하고, 16시에는 공격을 재개한 적을 인접 제3대대와의 협조로 진전에서 격퇴하였다.[86]

주저항선 방어진지의 재편성을 완료한 제2연대 제2대대는 8월 18일 03시 무렵 적의 여명공격을 받고 13시간 동안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다. 병력의 열세와 탄약보급의 지연으로 16시경 철수를 개시한 대대는 나호동에서 재보급을 받고 역습으로 전환하여 20시에는 주저항선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날 제2연대 정면에는 적 전차 3대가 출현해 개일동까지 남하하였으나, 아군 전폭기의 네이팜탄

공격으로 격파되었다. 이어 국통산과 324고지, 169고지 일대에서 중요 지형의 쟁탈전이 연일 계속되었지만, 제2연대는 공세적인 방어로 진지를 확보하였다.[87]

한편 제2연대 우측의 제19연대는 8월 19일 방어정면에 출현한 적 제83연대와 총격전을 실시하여 진전에서 저지하였고, 선암산 일대로 침투를 기도하는 적에 대비해 제3대대의 일부 병력을 364고지에 추진 배치하였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적은 예비대인 제81연대와 배속된 제103치안연대를 국통산으로 이동시켜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88]

신임 연대장으로 김익렬 대령이 부임한 8월 21일 이른 새벽에 적 제83연대의 2개 대대가 제19연대의 방어정면에 파상공격을 가해 하루 종일 교전이 전개되었다. 저녁 무렵 적의 기세가 약화되자, 연대장은 반격을 위해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양 대대는 진지 전방에서 공격에 실패한 적을 무찌르고 원진지로 복귀해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다음날 연대는 2개 대대가 구천동 무명고지에 파쇄공격을 감행하였다.[89] 그러나 대대 병력의 대부분이 전투경험이 일천한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대대가 제7연대에 배속되어 공격부대를 지원할 예비 병력이 부족해 결국 실패하였다. 8월 24일 제2대대의 원대복귀와 동시에 연대는 324고지 북쪽의 무명고지를 공격했으나, 이마저도 적의 맹렬한 포격으로 실패하고 순호동으로 복귀하였다.[90]

(5) 적의 기습공격과 제19연대의 철수작전 실패

제6사단은 8월 24일 인접 제8사단과의 접경지대 방어태세 강화를 위해 제2연대 방어지대를 324고지까지 확장해 연대 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19연대 병력을 북두산 일대까지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사단은 적의 주 접근로인 탑리~의흥~갑령 축선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축선에 돌파구를 형성하려던 적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주저항선이 붕괴되었다.

8월 25일 03시에 적 제8사단은 전차로 증강된 3개 연대를 제2연대 정면에 투입해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청노동~우보 접근로에 돌파구를 형성하려는 적 제8사단은 예하의 제83연대 일부 병력을 아군 제19연대와 제2연대 전투지경선

상의 공간지대를 통해 주저항선 후방으로 침투시켜 아군의 측후방을 공격토록 하였다.

제19연대는 적의 좌측방을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북두산에 배치된 제3대대를 의흥 동쪽으로 우회시키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접적을 유지하며 의흥 북쪽의 240고지~232고지로 철수해 적을 저지 견제토록 하였다. 하지만 야간전투에 미숙한 각 대대는 연대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연대는 8월 25일 09시경 240고지~232고지간 지연진지를 확보하고 적 측방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다.

이날 낮에 항공지원을 받으며 의흥 북쪽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던 제19연대는 적의 공격이 둔화되기 시작한 20시 40분에 반격을 단행하여 수북동 북쪽의 237고지~287고지선까지 진출하였다.[91] 그러나 연대는 무리한 공격으로 인한 병력손실과 재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단행된 적의 반격으로 점점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더구나 제2연대 정면을 돌파한 적 전차 3대가 의흥으로 접근해 연대 후방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다. 이에 연대는 각 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26일 24시를 기해 연대본부를 갑령 고개 정상으로 이동시켰다.[92]

237고지~287고지 일대에서 교전을 전개하던 각 대대는 이미 병력의 일부가 분산되고 지휘계통이 와해된 상태에서 철수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연대가 지시한 지연진지로 이동을 시작하였으나, 통신 두절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였다.

조림산 북쪽 화전동 부근의 무명고지에 대한 확보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는 철수 도중 대대장이 부상을 입고 후송되는 혼란상황이 발생해 목표와 다른 방향인 화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제1대대 또한 중대별로 분산된 채 목표인 228고지가 아닌 갑령 정상 서쪽의 332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계획대로 화수동 북쪽의 각석산을 점령한 후 28번 도로를 차단하고 적의 추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19연대의 철수작전 실패는 사단의 방어 작전 전반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특히 제1대대와 제3대대가 확보하지 못한 조림산 북쪽의 지연진지를 적이 무혈점령하고, 일부가 화산까지 침투함으로써 신녕은 피탈위기에 처하였다.

사단은 8월 26일 사단전술지휘소를 화수동으로 이동하고, 항공기의 근접지원 우선권을 제2연대와 제19연대 정면에 부여하였다. 또한 화산~갑령~봉림동을 연하는 최후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해 화수동과 봉림동에 지뢰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다음날에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신녕으로 이동시켜 화산에 투입하였다.

신녕지구의 위급상황을 인식한 제2군단은 이날 제1사단 제15연대 제2대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였다.[93] 이로써 제6사단은 위기 상황을 일단 극복하고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6) 지연전의 전개와 방어진지의 재편성

한편 사단의 방어계획에 따라 324고지를 인수한 제2연대는 방어정면이 약 3㎞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연대 예비인 제3대대를 324고지에 배치함으로써 청노동~우보 축선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반면에 적 제8사단은 제103치안연대를 심원에, 제82연대를 국통산 북쪽에 각각 전개하면서 전차로 증강된 제81연대를 청노동~우보 접근로에 투입해 아군 방어선의 돌파를 획책하였다.

8월 25일 03시에 적은 40여 분에 걸쳐 강력한 포격을 아군 방어진지에 실시하고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 제103치안연대는 제2대대 주저항선 북쪽 2㎞ 지점의 324고지 정면을 주력으로 공격하였다. 이들이 진지 전방 50m 지점에 도달하자, 아군은 기습적인 사격을 집중해 격퇴하였다.

적은 사격과 기동을 연결시키며 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왔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제2대대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다. 제2대대장은 일출에 앞서 324고지에 추진 배치되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제7중대를 3㎞ 남쪽의 284고지로 철수시켜 좌인접의 제7연대 제3대대와 협조를 유지시켰다.[94]

이 무렵 적 제82연대 또한 국통산 정면에 대한 파상공격을 쉴 새 없이 반복하였다. 새로운 부대까지 투입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친 공격이 모두 좌절되자, 적은 일단 공격을 중단하였다. 또한 청노동~우보 접근로에서는 전차로 증강된 적 제81연대가 제1대대를 공격하였고, 현격한 전투력의 격차로 제1대대의 방어진지는 결국 돌파될 수밖에 없었다.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적정과 아군 상황을 판단한 후 주저항선의 사수 대신 축차적인 지연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사단장에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연대장은 방어진지가 돌파된 제1대가 철수하자 국통산의 제2대대에 엄호임무를 부여하였고, 324고지의 제3대대를 위천 남안의 감제고지~203고지에 배치시켜 국통산 일대에서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토록 하였다.

이에 적은 28번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진출해 철수중인 제1대대의 후미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미 공군기의 항공지원과 우보에 배치된 연대 대전차중대의 근거리 포격으로 적은 더 이상 추격이 어려워졌다. 제1대대는 17시에 철수를 완료하고 우보 동쪽의 무명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함으로써 위천 북쪽에는 제2대대만 잔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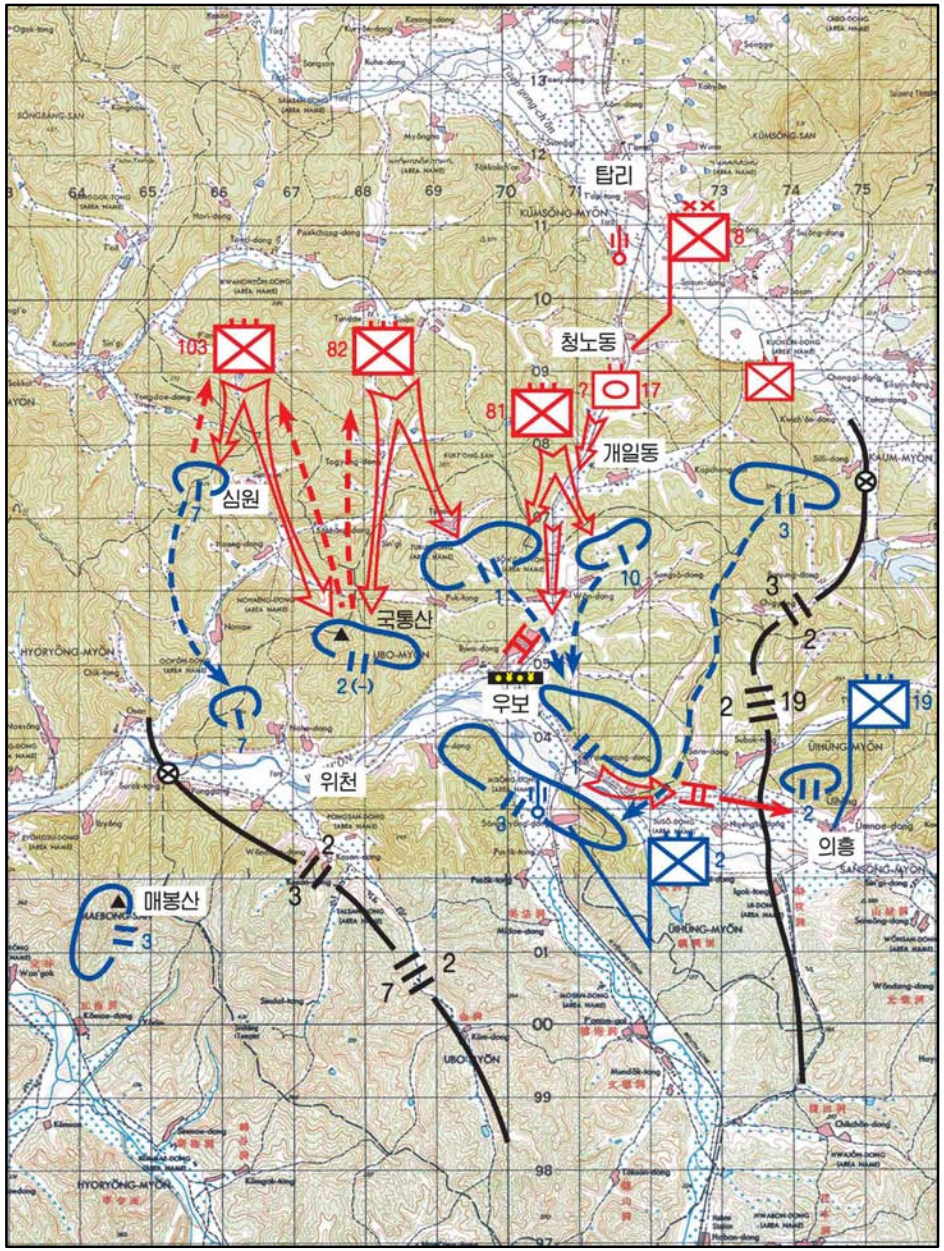
연대장은 이날 밤 단행하려던 제2대대의 철수계획을 잠시 연기하고 각 대대가 보유한 81밀리 및 60밀리 박격포를 연대본부가 있는 우보역 부근에 집결시켰다. 이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화력을 집중운용하려는 조치였다.

8월 25일의 주간공격에서 아군 방어진지 돌파에 실패한 적 제82연대는 야간에 보다 강력한 공격을 가해왔다. 적의 야간공격을 예측한 제2대대는 5시간에 걸쳐 혈전을 계속하였고, 다음날 03시경 적이 노매실로 침투해 좌측방을 위협하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아군은 비축한 탄약이 모두 소모되자, 적을 진내로 끌어들여 백병전까지 전개하였으나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대대는 먼저 위천을 건넌 병력이 후속하는 병력을 엄호해 적을 대안에 고착시킴으로써 일출 이전에 269고지에서 재편성을 실시할 수 있었다.[95]

8월 26일 이른 새벽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우보 일대의 제1대대 지연진지 정면으로 접근하며 아군을 견제하고, 주력은 연대본부 지역과 제3대대가 배치된 무명고지 일대를 포격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동시에 적의 일부는 사라동 일대에서 연대 우측의 후방에서 포위를 시도하였다.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3대대장은 병력을 우보역 부근의 제방으로 추진 배치해 동쪽의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28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적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203고지에는 병력을 증원해 측후방의

<상황도 5-7> 국통산-우보 일대 공방전 상황(1950. 8. 25)



적 위협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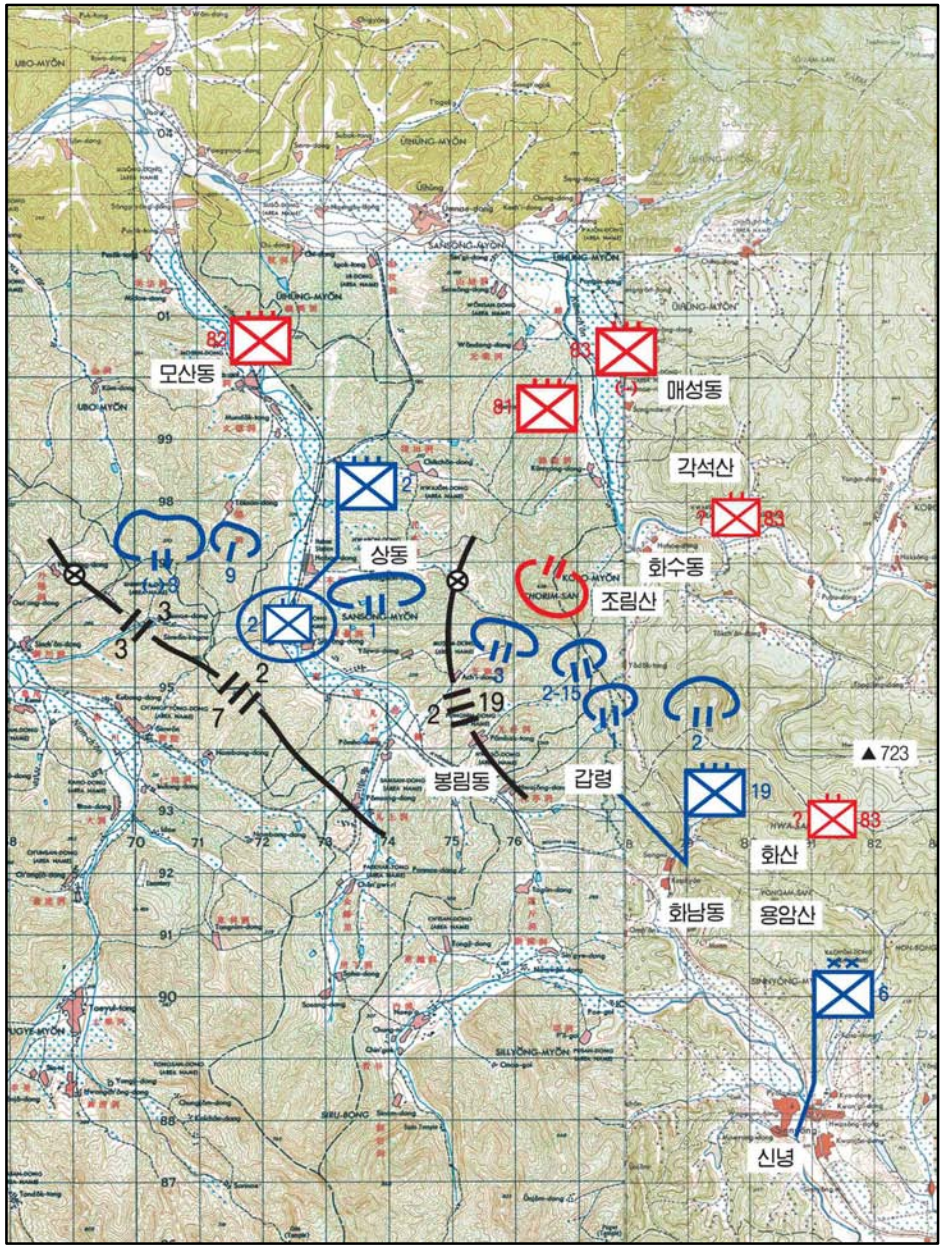
이와 함께 연대장은 우보 남쪽 28번 도로상에 밀집대형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면공격하기로 작정하였다. 8월 26일 06시경 적이 200~300m 전방에 도달할 무렵 연대장은 돌격을 명령하였고, 우보역 부근에 방렬해 둔 박격포와 57밀리 대전차포가 적 대열의 후방을 강타하였다. 아군의 기습적인 정면공격에 적은 분산되어 북쪽으로 도주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아군의 탄막에 걸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 전투로 위기를 타개한 연대는 제3대대를 우보 뒷산에 배치해 청노동~우보 접근로에 대비하면서 제1대대를 203고지로 철수시켰다.

적 제8사단 주력은 15시경 다시 제2연대 지연진지 정면에 출현하였고, 한 시간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6사단은 제19연대의 철수작전 실패로 야기된 방어계획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2연대를 활용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연대는 위천 남쪽 강변의 무명고지~203고지 일대에서 17시까지 적 제8사단의 주력을 지연시킨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96]

① 연대 수색대는 우보 일대에서 잔류접촉분견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2대대는 인접 제7연대와 연결을 유지하고, 명령에 따라 269고지에서 370고지로 철수한다.
③ 제1대대는 203고지에서 연대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 명령에 따라 제3대대 엄호하에 177고지로 철수한다.
④ 제3대대는 최초 철수로를 개척하고, 264고지~모산동 새터마을 일대에서 제2대대 철수를 엄호한다.

한편 아군은 철수와 방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을 지연시키는 수단의 일부로 많은 장애물을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육군 총참모장은 훈령을 하달해 전선지구의 장애물 설치작업은 현지에서 보병과 포병, 공병장교의 공동정찰로 장소를 선정하고 해당지구 부대장의 승인 하에 설치하도록 명령하였다.[97]

<상황도 5-8> 제2연대와 제19연대 방어진지 재편성(1950. 8. 28)



그러나 일부 공병부대는 이 훈령을 위반하고 현지 지휘관과의 사전 협조 없이 제2연대 및 제7연대지역의 후방도로에 지뢰를 임의로 매설하였다. 이로 인해 8월 25일과 26일 양일 사이에 많은 사고가 발생해 8월 25일에 제5연대장 이영규 중령 이하 5명이 전사하고 공병 장병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8월 26일엔 제2연대 제3대대장 이운산 소령 등 7명이 전사하고 12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제2연대장은 작전계획상의 차질은 있었지만, 조림산의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해 370고지~화본동~각석산을 연결하는 선에서 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하지만 연대본부가 산성에 도착한 얼마 후 조림산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연대장은 충격을 받았다.

8월 26일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제19연대의 지연작전 실패와 제2연대의 지뢰사고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단 주저항선을 370고지~갑령~화산을 연결하는 선에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전면적인 방어진지의 재편성을 단행하였다.[98]

① 제2연대의 전술지휘소는 산성에 위치한다.
- 제2대대 : 269고지(29일 산성으로 철수)
- 제3대대 : 370고지
- 제1대대 : 상동 남쪽 무명고지
- 제16포병대대 제1포대 : 산성

② 제19연대의 전술지휘소는 갑령에 위치한다(제15연대 제2대대 배속).
- 제3대대 및 제15연대 제2대대 : 320고지~갑령
- 제1대대 : 332고지
- 제2대대 : 723고지
- 제16포병대대 제3포대 : 화남동

③ 제7연대 제1대대 : 사단 예비

이와 같은 방어지대의 재편성으로 전투는 주로 조림산~화산 일대에서 전개되었고, 사단 방어지역의 좌측 일부를 제1사단에 인계한 후 제6사단은 적 주공이

투입된 의흥~갑령 축선에서 마지막 결전을 전개하였다.

3) 조림산 부근 전투(8월 30일~9월 4일)

(1) 828고지~637고지 전투

제6사단 방어지역 우측의 화산 일대에 적 제83연대가 침투하고 조림산이 피탈되어 신녕 지구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육군본부와 제2군단은 8월 28일 제1사단 제15연대 제2대대를, 다음날 제15연대 주력과 신편부대인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였다.[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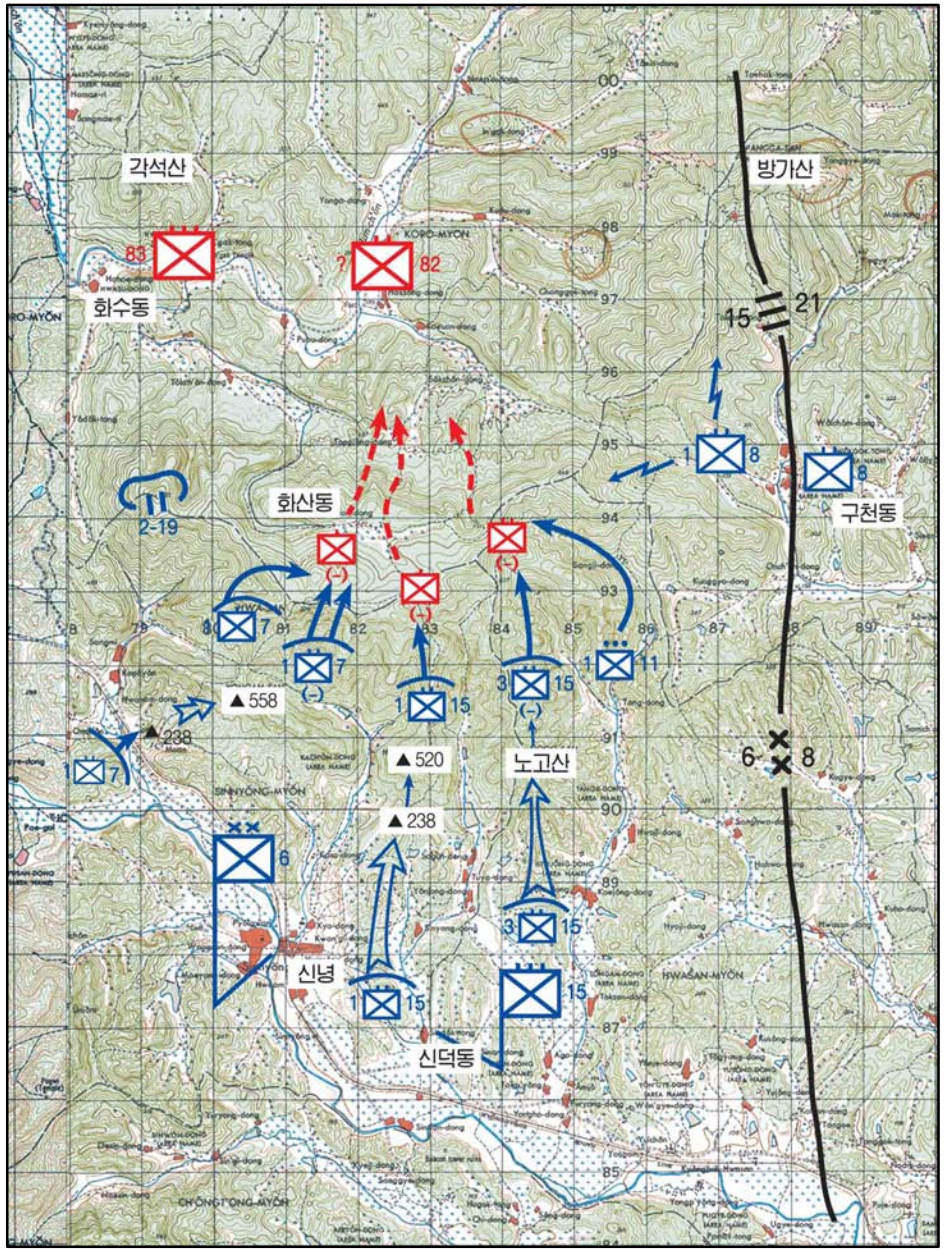
이처럼 상급부대의 병력증원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6사단은 8월 29일 배속부대와 제7연대 제1대대를 사단 방어지대 우측방에 투입해 화산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녕 북쪽 5㎞ 지점에서 횡격실을 이룬 표고 828m의 화산은 북고남저 현상의 고지로 신녕 일대를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형이다.

8월 29일 오전 신녕에 도착한 제7연대 제1대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화산을 탈취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 약 30분 후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대대는 중간목표인 228고지를 점령하고, 다음날 용암산을 탈취해 이를 발판으로 최종목표인 828고지를 공격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대대는 목표 남사면 7부 능선에서 총격전만 반복하였다. 대대장은 공격에 나선 3개 중대를 일단 적의 직사화기 사정권 밖으로 철수시킨 후 차후공격을 위해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100]

8월 31일 제1대대는 지형과 적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야간공격을 전개하였다. 공격계획은 선봉부대가 일몰 직전에 목표 서쪽으로 우회하여 다음날 03시에 돌격을 개시하면, 18시부터 목표 정면에 대해 양공을 실시하던 대대 주력이 선봉부대의 돌격과 함께 일제히 공격하는 것이었다.

자정이 지날 무렵 목표 좌측방의 8부 능선에 도달한 공격선봉부대는 약정된 공격개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주간 전투에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분산되었고, 대대는 예상외로 손쉽게 목표를 탈취하여 방어진지 편성에 착수하였다.[101]

<상황도 5-9> 화산탈환작전 상황(1950. 8. 29~9. 1)



9월 1일 14시 사단에 배속된 제1사단 제15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제7연대 제1대대 우측방에서 주봉 동쪽 봉우리~637고지를 연결하는 지역을 확보하였고, 제8연대 제1대대는 인접 제8사단과 부대배치 간격에 형성된 공간지대를 경계하기 위해 646고지 북쪽 무명고지 일대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연대 제2대대는 9월 2일 화산 주봉 북서쪽 1.7㎞ 지점의 725고지를 탈환함으로써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상호지원이 가능한 방어진지를 편성할 수 있었다.[102]

8월 29일 오전 제2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제6사단에 배속된 제8연대 제1대대는 방가산~화산으로 연결된 능선상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제6사단과 제8사단 전투지경선상에 형성된 공간지대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103]

이날 08시 신덕동으로 이동한 제15연대(-1)는 제1대대를 좌일선, 제3대대를 우일선으로 전개해 2개 대대 병진기동으로 화산 주봉 동쪽의 무명고지와 637고지를 탈취하고 화산동으로 전과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38고지~520고지와 노고산(일명 세미산)을 각각 중간 목표로 선정한 제1대대와 제3대대는 8월 29일 정오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고 다음날 오후에 최종 목표의 남사면에 도달한 양 대대는 지형 정찰과 적정 수색을 실시하였다.

8월 31일에 실시된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여명공격은 적의 집중적인 수류탄 투척으로 적진 50~60m 전방에서 돈좌되고 병력손실만 커져가자, 양 대대장은 주간공격을 일단 중단하였다. 이어 제3대대는 작전회의를 통해 목표의 정면공격과 함께 일부 병력을 우회기동시켜 적의 배후를 공격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공격개시시간인 9월 1일 04시, 대대 주력이 목표인 637고지의 남사면을 공격하는 동안 적진 후방으로 침투해 있던 병력은 일제히 고지 정상으로 치달으며 적을 공격하였다. 앞뒤로 협공을 받은 적은 분산되어 도주하였고, 제3대대는 약 30분 만에 목표를 탈취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한편 인접 제1대대의 공격을 측방에서 엄호하였다. 제1대대는 우측의 제3대대가 측방에서 엄호사격을 개시함과 동시에 돌격을 감행해 적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다.[104]

637고지 북사면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한 제15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제7

연대 제1대대가 828고지를 점령한 것이 확인되자 화산동까지 진출해 잔적을 소탕하였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인근에 출현한 적 1개 대대를 치열한 교전 끝에 섬멸함으로써 화산 일대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2) 조림산~갑령 공방전

화산 일대의 중요 지형을 탈환한 다음날인 9월 2일 18시를 기해 적은 9월 공세를 개시하였다.[105] 적 제4공격집단은 주공인 제8사단을 전차 21대로 증강시켜 의흥~갑령~신녕~하양 축선에 투입하고, 조공인 제15사단에 전차 5대를 배속해 죽장~영천 축선에서 공격을 가해왔다. 지금까지 전개된 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은 의흥~신녕 축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다.

아군 제6사단은 8월 28일 제2연대와 제19연대를 재배치한 후 화산탈환작전을 전개하였고, 조림산을 점령한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상동~갑령간 5㎞ 지역에 4개 대대를 배치해 조림산을 서쪽과 남쪽에서 포위하는 방어선을 형성



신녕지구 전승비

하였다.[106] 이런 가운데 제19연대는 예하의 제3대대와 배속된 제15연대 제2대대를 투입하여 조림산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신녕 북서쪽 10㎞ 지점의 표고 200~400m 야산지대의 중앙에 위치한 해발 638m의 조림산은 사방 10여㎞ 지역의 감제와 중앙선 및 28번 도로의 통제가 가능하며,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이 화산과 이어져 있었다. 따라서 신녕 방어에 있어 화산에 못지않은 전술적 요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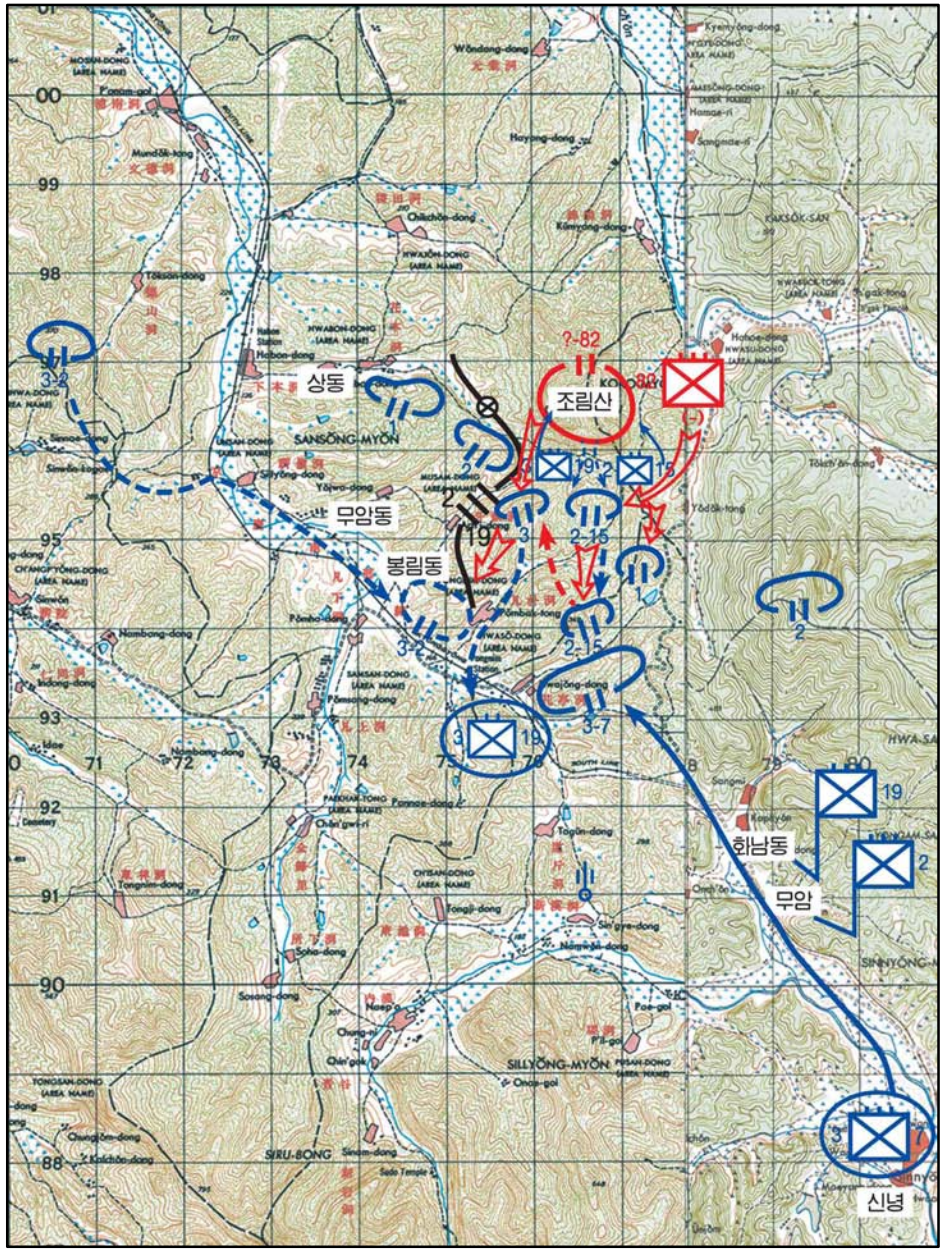
아군의 공격대열이 경사도가 급변하는 고지 4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고지 정상을 점령하고 있던 적이 투척한 수류탄이 주변에서 폭발해 더 이상의 진출이 불가능하였다.[107] 뿐만 아니라 제19연대 제3대대는 이날 22시경 적의 야간공격을 받고 분산 철수함으로써 포위망 일부가 와해되었다. 또한 피탈된 방어진지의 적정을 수집하기 위해 투입한 대대 수색대마저 적에게 발각되어 역습의 기회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320고지에 배치된 제15연대 제2대대는 적 측방에 반격을 가해 적을 격퇴하고 제19연대 제3대대의 방어진지를 탈환하였다.

한편 사단은 조림산을 탈환하기 위해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포위망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제2연대는 8월 29일 산성에 집결시킨 제2대대(-1)를 무암동 북쪽에 배치하였고, 제19연대는 다음날 재편성을 완료한 제3대대를 다시 제15연대 제2대대 좌측에 배치하였다.[108]

8월 31일 제19연대는 제3대대를 좌일선, 제15연대 제2대대를 우일선에 전개한 2개 대대 병진기동으로 조림산을 다시 공격하였다. 전투경험이 많은 병사들과 편제상의 주요 화기를 모두 장비한 제15연대 제2대대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였으나, 경사도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이틀 전의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공격은 일시 중단되었다.

항공 및 포병화력의 강력한 지원에도 적의 저항에 변함이 없자, 대대장은 특공대를 편성해 우회 침투시키고, 가용한 화력을 총동원해 적과 대치하였다. 얼마 후 적이 병력을 이동시키는 사이 제2대대는 공격을 재개해 13시경에는 목표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고, 제19연대 제3대대 또한 이에 호응해 제2대대의 좌측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때 적은 강력한 사격과 끊임없는 수류탄의 투척으로 아군을

<상황도 5-10> 조림산 공방전 상황(1950. 8. 28~9. 1)



공격하였으며, 지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점에 있던 아군은 사상자가 속출해 부득이 후퇴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109]

한편 조림산 남쪽의 아군 포위망을 돌파할 기회를 노리던 적 제82연대는 조림산 공격에 실패한 아군 2개 대대가 지쳐있는 사실을 감지하고 9월 1일 02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110] 적 2개 대대가 방어진지로 쇄도하자, 불의의 공격을 받은 제19연대 제3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는 좌우 인접대대의 지원하에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두 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방어진지를 빼앗긴 제19연대 제3대대는 봉림동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로 인해 좌측방이 노출된 제15연대 제2대대는 축차적으로 철수해 우측의 갑령 332고지의 제19연대 제1대대와 연결한 후 남서쪽 342고지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였다.

한편 제19연대 제3대대의 방어진지를 점령한 적은 조림산 남사면을 확보하고 10시경에는 무암동~화서동 일대까지 남하해 봉림역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전개되자, 사단장은 제1사단 제12연대와 진지를 교대한 후 신녕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7연대 제3대대를 갑령 서쪽의 화서동 뒷산에 급파해 방어종심의 증가와 적의 사단 주보급로 차단기도에 대비하였다.[111]

또한 370고지에서 철수한 제2연대 제3대대를 봉림동에 투입해 적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제15연대 제2대대와 제19연대 제1대대는 342고지~332고지에 상호지원이 가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협조된 반격을 감행해 무암동 일대에 적을 고착시켰다.

8월 30일 370고지에서 철수한 제2연대 제3대대는 산성 서쪽의 무명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9월 2일 새벽 제2연대 제3대대는 제19연대 제3대대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무암동~화서동 일대에서 봉림동으로 남하중인 적을 포착 섬멸하라는 연대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대는 수색대를 급파해 적정을 수색하는 한편 대대병력을 범하동 남쪽의 317고지로 이동시켰다.

이 무렵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서쪽 능선을 따라 제2연대 제3대대가 점령한 317고지를 향해 접근하였다. 이에 제2연대 제3대대는 급히 317고지 북쪽 능선과

계곡 길목에 화염방사기 2개조와 기관총 2개 소대로 증강된 1개 중대를 매복시키고, 대대 주력을 166고지 일대에 배치하였다.

적의 주력이 통과한 후 제3대대가 후미에서 집중사격을 개시하자, 배후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적은 전면의 317고지로 질주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곳에 매복중인 아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거의 섬멸되었으며, 후속하던 1개 중대병력도 무암동 계곡입구로 후퇴했으나 아군이 설치한 지뢰지대에 걸려 몰살되었다. 이로써 조림산 남쪽으로 침투한 적은 완전 격멸되었고, 제2연대는 교전을 마친 제3대대를 산성 서쪽의 원진지로 복귀시키는 한편 제1대대를 중동 뒷산의 횡격실 능선에 배치하였다.[112]

한편 제15연대와 제7연대 제1대대가 화산탈환작전에 성공한 9월 1일 저녁, 723고지와 화산 주봉 중간지점의 725고지로 침투한 적 제83연대 예하의 1개 중대가 밤사이에 1개 대대규모로 증강되었다. 그리고 725고지를 발판으로 화남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725고지의 적정을 예의 주시하던 사단장은 이를 탈환하기로 작정하고 사단 예비인 제7연대 제2대대에 이를 지시하였다. 제2대대장은 지형과 피아 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469고지~723고지 남쪽의 8부 능선으로 진출해 목표를 좌측방에서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9월 2일 이른 새벽 723고지에 도착한 제2대대는 2개 중대의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전개하였다. 대대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적과 총격전만 계속하였다. 더 이상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대장은 공격제대를 723고지의 남사면으로 일단 철수시키고 작전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때 적이 발사한 82밀리 박격포탄이 회의 장소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불발하였다.

대대는 계획대로, 목표 북쪽으로 우회기동한 1개 중대가 적을 후방에서 교란하는 한편 이에 호응한 대대 주력의 과감한 돌파로 725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갑자골 북쪽까지 전과를 확대하면서 잔적을 소탕한 후 좌우 인접부대와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113]

이 무렵 갑령에 투입된 제7연대 제3대대도 좌측 320고지의 방어진지를 탈환함

으로써 사단은 적이 공격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형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적의 주접근로인 28번 도로의 완전 통제가 가능하였다.

한편 제19연대장은 8월 31일 입원가료중인 허용우 소령을 제1대대장에 보임하였다. 대대장은 지형과 피아의 배치현황을 분석한 후, 갑령 첫째 고갯마루와 332고지 일대가 조림산 감제하에 있지만 좌측방에는 제15연대 제2대대가 배치되어 있어 조림산의 적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측방은 제19연대 제2대대가 약 2㎞ 떨어진 723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어 적이 고갯마루에서 넌덧 마을로 이어진 골짜기를 통해 침투할 경우 대대 방어지역의 후방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대대 방어진지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다.[114]

대대 관측소(전술지휘소) : 갑령재 첫째 고갯마루
제1중대 : 28번 도로 좌측방 50m 지점
제2중대 : 제1중대 방어진지 후방 200m 지점에 종심 배치
제3중대 : 332고지 북사면

9월 1일 21시경 적은 전차 2대를 앞세운 보·전 협동부대로 공격을 개시했으나, 아군의 포화가 집중되자 철수하였다. 대대장은 교전상황을 분석한 결과 적의 차기작전을 위한 위력수색으로 판단하고 적정 수집을 위해 대대 수색대를 적 지역에 침투시켰다. 그러나 대대 수색대는 적의 공격징후 포착에 실패하였다.

수색활동을 마치고 귀대하던 수색대는 넌덧 마을 뒷산에서 만난 마을 주민으로부터 이날 밤 적이 보·전 협동공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첩보를 들었다. 대대장은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강구하였다.[115]

① 적 전차가 갑령 고갯마루에 설치된 대전차지뢰지대에 들어설 때까지 사격을 엄금한다.
② 적 선두전차가 파괴되면 즉시 넌덧 마을~갑령 고개 중턱 일대에 지원포병의 화력을 집중하며, 대대내의 모든 화기도 일제히 사격한다.

③ 전차특공대는 갑령 고개의 두 번째 도로, 굴곡지점 서쪽 능선에서 매복 대기할 것이며, 아군의 포병지원사격이 끝나는 즉시 적 후미의 전차부터 먼저 공격한다.
④ 각 중대는 전차특공대가 적 전차를 공격할 때, 이를 엄호한다.
⑤ 사격개시 신호 : 예광탄 3발.

이날 20시 무렵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아군 방어진지를 강타한데 이어 넌덧 마을 부근에는 수 미상의 적 전차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약 30분간의 적의 포격이 대대 방어지역 후방으로 연신된 후, 적의 선두 전차가 나타나 고갯마루 20m 전방까지 접근하였다. 그리고 지뢰지대 전방에서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적의 선두전차가 기동을 하자 2번 전차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적의 선두전차가 길옆으로 전복되었다. 이어



갑령 고개

대대 관측소에서 3발의 예광탄이 발사됨과 동시에 대대의 모든 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넌덧 마을~갑령고개 중턱에는 제16포병대대의 일제사격(TOT)이 집중되었다.

약 20분이 경과한 후 전차특공대는 두 번째 굴곡 지점에서 후진하고 있는 적의 후미 전차에 3.5인치 로켓탄을 집중 사격하였고, 이어 고개 아래에서도 적 전차 7대를 파괴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 전장을 정리하던 대대장은 갑령 고개 북쪽에도 적 전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06시경 갑령 고개 상공에 우군기가 나타나 갑령 고개~화수동과 북쪽 28번 도로상의 적 전차에 네이팜탄을 투하해 파괴하였다. 적은 이 일대에서 21대의 전차가 파괴됨으로써 보·전 협동공격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신녕~하양~대구로 진격하려던 계획마저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4) 화산 부근 전투(9월 5일~9월 15일)

(1) 적의 9월 공세와 방어진지의 재편성

9월 2일 저녁 적의 9월 공세가 개시되자, 육군본부는 제2군단에 제한된 반격작전을 명령하였다.[116] 이에 따라 제2군단은 'Y선'의 회복을 결정하고 제1사단과 제6사단으로 9월 3일 05시를 기해 공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17]

그러나 우인접의 제8사단이 적의 선공으로 방어지대의 좌측방이 돌파되어 다음날 주저항선에서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제8사단이 방어선을 포기함에 따라 적 제15사단이 영천을 침공하였고, 제2군단장은 'Y선'의 회복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신편연대인 제7사단 제8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해 제15연대와 진지를 교대시키고, 제15연대는 원대복귀 조치하였다.[118] 그러나 9월 5일 영천 정면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제2군단은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을 차출해 영천전투에 투입하도록 명령하였다.[119] 그리고 군단의 방어선 편성에 있어, 방어력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예비를

보유하도록 지시하였다.[120] 제1사단과 제6사단이 단행한 방어진지의 재편성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 전술지휘소는 애련동 하계 마을에 위치한다(9월 6일 이동).
② 좌전방인 제2연대의 전술지휘소는 신녕에 위치한다.
- 제3대대 : 317고지
- 제2대대 : 화서동 남쪽 능선~갑령
- 제1대대 : 갑령

③ 우전방인 제7연대의 전술지휘소는 화남동 무암 마을에 위치한다.
- 제3대대 : 723고지~725고지(제19연대 제2대대와 제7연대 제2대대 방어진지 인수)
- 제2대대 : 화산 주봉(9월 4일 제7연대 제1대대와 제15연대 제1대대와 진지교대)
- 제1대대 : 637고지~646고지(9월 4일 제15연대 제3대대와 진지교대, 9월 5일 제8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방어진지의 일부를 인수)

④ 제19연대(제16포병대대 제2포대 배속)는 9월 5일 저녁 신당동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 영천 전투에 참가한다.
⑤ 제15연대(-1)는 9월 4일 배속 해제되어 제7연대와 진지교대 후 대율동으로 이동한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9월 5일 배속 해제되어 원대로 복귀한다.
⑥ 제8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는 9월 5일 배속 해제되어 제7연대 제1대대에 방어진지를 인계하고 영천으로 이동한다.
⑦ 제1사단의 주저항선은 755고지~394고지~573고지~백학동을 연한다. 9월 5일 제11연대(포병 1개 포대 배속)는 군단 예비로서 금호로 이동, 다음날 영천 전투에 참가한다.

한편 육군본부는 9월 5일 10시 30분부로 제1군단에 예속되었던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 예속을 변경하는 한편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을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 책정하였다.[121]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3사단, 제2군단은 제1사단과 제6사단, 제8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제7사단은 육군본부 예비대로서 각 사단을 증원토록 하였다.

(2) 적의 마지막 총공격

제1사단의 우측에 진지를 점령한 제6사단은 지휘소를 계포동에 두고 제2연대와 제7연대를 각각 사단의 좌·우 전방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는 군단의 명령에 따라 영천의 제8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곡상동으로 이동하였다.[122]

이에 앞서 방어진지 재편성에 대한 준비명령을 사단으로부터 받은 제2연대는 9월 4일 야간에 산성 북쪽의 무명고지에 있던 제3대대를 371고지로 이동시켰다. 다음날에는 제3대대의 엄호 하에 제1대대와 제2대대가 화서동과 갑령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

9월 5일 저녁, 제2연대 제3대대 방어지역 전방인 산성~운산동 일대에는 증강된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집결하였고, 운산동에는 2대의 전차가 출현해 대대 방어진지에 전차포를 사격하는 등 전운이 포착되었다. 9월 6일 이른 새벽에 적 제15사단이 영천을 점령하자, 돌파구 확대를 위해 적 제8사단은 07시 30분을 기해 제6사단 지역에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특히 적의 주공은 제2연대 제3대대의 방어정면인 산성~봉림동 간을 지향하고 있었다.

적은 구름이 많이 낀 기상조건으로 인해 공군기의 출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주간공격을 단행하였다. 아군의 방어진지에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적은 전투대형으로 산개해 공격을 가해왔다. 아군은 계속되는 적의 남진을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저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흐리던 날씨가 점차 맑아지면서 구름 사이로 아군 B-26 폭격기와 전폭기 혼성편대가 출현해 운산동~봉림동~조림산~갑령 고개 일대의 적을 30~40분 동안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기회를 포착한 제2연대는 방어진지 전방으로 반격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날 적 제8사단이 전개한 공격은 적의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었다.[123]

한편 제8연대는 9월 7일 06시에 적 2개 대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방어진지를 약간 후방으로 이동한 후 24시까지 모든 화력, 즉 포병의 지원화력과 각 대대의 박격포는 물론 미 공군 전

폭기의 근접지원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124]

다음날 제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전방의 적을 공격해 17시 50분에 원진지인 723고지와 우측의 제2대대 진지를 다시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7연대는 1,000여 명의 적을 격퇴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9월 9일 23시경 제7연대 제3대대는 723고지로 침투해 온 2개 중대규모의 적을 포위 공격해 격퇴시켰다.

이에 앞서 제2연대 제1대대는 이날 15시에 469고지 전방의 무명고지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과 교전을 전개해 격퇴시킨 후 전방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20시경 적 2개 대대로부터 반격을 받고 다시 469고지로 후퇴하였다. 이 무렵 우측에 있던 제3대대는 짙은 안개를 이용해 일부 병력으로 적 진지를 기습공격하는데 성공하고 복귀하였다.

9월 10일 제2연대 제1대대는 적이 점령한 469고지 북쪽의 무명고지를 다시 공격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제3대대는 이날 적 1개 대대병력의 공격을 받고 2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비대인 제2대대도 전방에 배치된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중간지역으로 진출해 진지를 확보하고 방어준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8시 무렵 2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받고 약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격퇴하였다.[125]

사단 방어진지 정면의 적은 9월 12일 이후부터 공세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피아간의 산발적인 정찰전을 제외하고는 전선은 대체로 평온을 유지하였다.

4. 전투 결과

8월말부터 적 제8사단은 인접사단인 적 제13사단 및 제15사단과 서로 호응하면서 신녕 지구를 돌파한 다음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하지만 국군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과 반격, 유엔 공군의 공중폭격

으로 전투력의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적의 공격은 결국 실패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공세적인 방어 작전으로 전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적 제8사단은 조림산~화수동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한편 9월 6일 총반격작전계획을 완성한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도로망이 양호해 기갑부대 운용에 유리한 경부국도 축선에 주공인 미 제1군단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는 신속한 기동으로 진격해 인천상륙을 완료한 미 제10군단과 연결함으로써 낙동강 전선에 전개한 적을 포위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반해 국군 2개 군단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동서 양측방에서 병진해 퇴각하는 적을 섬멸하고 38도선으로 진격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중동부 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 제6사단은 신녕~도원동~함창~예천 축선으로의 진격을 담당하였다.

9월 16일 국군 제2군단은 육군본부의 총반격명령에 따라 군단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126] 여기에는 제6사단이 군단의 주공으로 제1차 진출예정선인 도원동으로 진격하고, 공격 도중 중간 목표인 청노동을 탈환하면 금성산과 271고지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명기되었다. 또한 군단 예비로 영천에 집결 대기중인 제19연대를 원대복귀 조치하였다.[127]

하지만 제6사단의 반격작전은 조림산 일대에 있는 적이 제2연대의 공격에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지연되고 있었다. 사단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림산을 양익포위하고, 제2연대는 양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마침내 목표를 탈환하였다.

육군본부는 9월 22일 국군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우보, 구산동, 기계, 흥해를 탈환하자, 전황을 종합 분석한 다음 국군 각 부대에 총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하였다.[128] 이에 사단은 9월 23일을 기해 공세작전으로 전환해 북진을 개시하였다.

제 3 절 의성-보현산지역 전투

1. 전투 개요

의성~보현산지역 전투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과 수도사단이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의성~신녕~영천을 점령하고 대구를 공격하기 위해 남진하던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 및 제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안동~의성간 축선과 보현산 일대에서 수행한 방어 작전을 일컫는다.

1950년 7월 31일 19시 제1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안동 일대에서 힘겹게 낙동강을 도하한 제8사단은 낙동강 남안에 약 20㎞의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하지만 불리한 지형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제1군단장은 의성 북방 10㎞ 지점의 향로봉과 그 일대로 방어진지를 이동하도록 제8사단장에 명령하였다.

한편 안동에서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8사단은 중동부 전선에 전개한 적 제2군단 예하 2개 공격제대 중 주공으로서 대구를 최종목표로 안동~의성~신녕~대구 축선을 따라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적 제8사단은 의성을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주공을 안동~의성~군위~대구 도로에 투입하여 남진을 시작하였다.

8월 4일 14시부터 적 제8사단과 교전을 개시한 국군 제8사단은 의성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향로봉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이며 8월 12일까지 의성을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을 조기에 점령하고 대구를 향해 남진하려던 적은 전투력을 재정비해야만 했고, 의성 남쪽 매봉산~탑리 일대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은 주저항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의성 전투를 종결한 국군 제8사단은 제1군단의 방어정면 재조정계획에 따라 8월 13일 의성에서 벌전으로 이동한 후 보현산 일대에 이미 투입되어 교전중이던

아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면서 'Y선', 즉 매봉~노고령~보현산~봉화봉을 연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주저항선에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한 제8사단은 적의 공격을 진전에서 저지하였다.

그러나 좌인접 사단인 제6사단이 화산~갑령~370고지 선으로 철수한데 이어 우측의 수도사단마저 적 제12사단의 기습공격으로 다시 기계를 피탈당하고 안강으로 철수하였다. 이로 인해 제8사단은 방어지역의 좌우 양측방이 노출되었다.

한편 적 제15사단은 운주산과 봉화봉 사이에 형성된 공백지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죽장~자양~영천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9월 2일 저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어 돌파구를 형성한 적은 그 여세를 몰아 공격 개시 이틀 만에 영천 북방의 자양을 점령하고 영천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제8사단은 배속된 제5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기룡산과 자양에 투입해 적을 저지하는 한편 분산 철수하는 제16연대 병력을 수습하였으나, 강력한 기세로 진격하는 적의 남진에 결국 영천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점령을 목표로 강압을 계속하던 적은 이 전투에서 보급로 신장으로 인한 지원부진과 이로 인한 사기저하로 점차 공격속도가 둔화되어 당면 목표인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반면에 아군은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대를 재편·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아군이 대구를 고수하고 차기의 공세작전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안동철수작전의 실패로 낙동강~반변천 연변에 방어선 형성이 어렵게 된 국군의 취약점을 간파한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8월 2일부터 예하의 제8사단을 안

동~의성 축선에 투입하여 최종목표인 대구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적 제15사단은 보현산 일대의 공백지대를 통해 죽장~자양~영천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여 돌파구를 형성하고 영천을 위협하였다.

한편 의성 및 보현산 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은 제2군단 예하의 제8사단과 제15사단으로서, 약 2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 제8사단의 전투서열은 오백룡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한청 총좌, 제81연대장 이학래 대좌, 제82연대장 사생 대좌, 제83연대장 윤기근 대좌와 포병연대장 김명할 중좌였다. 또한 제15사단은 사단장 박성철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김연 대좌, 제45연대장 이철룡 대좌, 제48연대장 김치규 대좌, 제50연대장 이을설 대좌와 포병연대장 김연섭 대좌였다. 그리고 독립유격부대인 제766부대장은 오진우 총좌였고, 배속부대인 제73독립연대장은 이주원 중좌, 제103치안연대장은 전윤필 대좌였다.

이들이 보유한 무기 및 장비는 전차 5대를 비롯해 장갑차 3대, 122밀리 곡사포 18문, 76밀리 곡사포 30문, 45밀리 대전차포 39문, 82밀리 및 120밀리 박격포 60문 등이었다.

이 무렵 적은 동원 가능한 인력과 물자를 전선으로 보내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는 남침 초기에 비해 전투부대의 전투력이 50~60% 수준으로 격감된 적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따라서 적의 전력은 더 이상 공세작전을 펼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국군 상황

국군 제8사단은 의성지역 전투를 종료하고 보현산 일대로 이동해 1950년 8월 16일을 기해 매봉~노고령~보현산~봉화봉을 연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좌측방의 제6사단과 우측방의 수도사단이 철수함으로써 제8사단은 방어지역 좌우 양측방이 노출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였다.

한편 의성~보현산지구 전투에 참여한 제8사단은 배속된 제18연대를 포함하여 8,1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제8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을 비롯해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 제16연대장 김동수 중령과 후임인 유의준

중령, 제21연대장 김용배 대령이었고, 배속부대인 제18연대장은 임충식 대령이었다.

<표 5-4> 국군 수도사단 및 제8사단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홍일(金弘壹)	
수도사단	사단장	대령	백인엽(白仁燁)	'50.8.7 이후
			송요찬(宋堯讚)	'50.9.2 이후
	제1연대장	대령	윤춘근(尹春根)	
		중령	한 신(韓 信)	'50.8.7 이후
	기갑연대장	대령	유흥수(劉興守)	
			백남권(白南權)	'50.8.13 이후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8사단	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최덕신(崔德新)	'50.8.2 이후
	제10연대장	중령	고근홍(高根弘)	
	제1대대장	소령	박치옥(朴致玉)	
	제2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3대대장	소령	하병래(河炳來)	
	제16연대장	중령	김동수(金東洙)	
			유의준(兪義濬)	'50.8.11 이후
	제21연대장	대령	김용배(金容培)	
	제1대대장	소령	임익순(林益淳)	
	제1대대장대리	대위	채명신(蔡命新)	'50.8.8 이후
	제2대대장	소령	이원익(李源益)	
	제3대대장	소령	이창률(李昌律)	
	제50포병대대장	중령	정인완(鄭寅皖)	
	공병대대장	소령	김 묵(金 默)	
육본직할	제17연대장	대령	김희준(金熙濬)	
	제25연대장	중령	유해준(兪海濬)	
	제1유격대대장	소령	정 진(鄭 震)	
	제2유격대대장	중령	김용주(金龍周)	
	건설공병대대장	중령	윤태일(尹泰日)	

장비는 107밀리 유탄포 18문, 57밀리 대전차포 4문, 2.36인치 로켓포 201문, 60밀리 박격포 27문, 0.5인치 기관포 20문, 공랭식 기관총 21정, 수냉식 중기관총 23정을 각각 보유하였다.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현지 관서의 협조와 후방으로부터의 추진으로 충족하였으며, 탄약의 보급도 대체로 원활하였다.

3. 전투 경과

1) 의성지구 전투

(1) 국군 제8사단의 주저항선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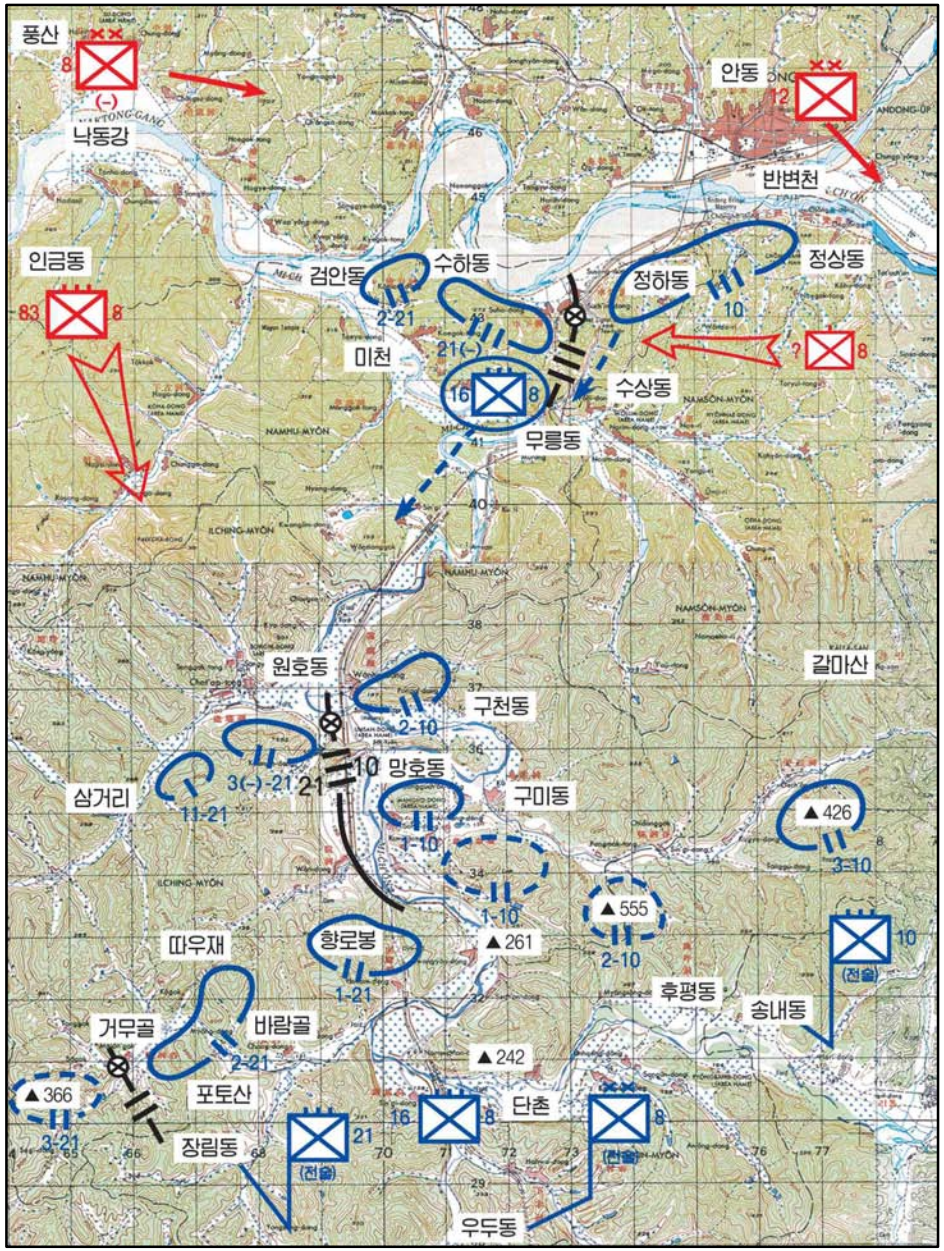
제8사단은 군단작명에 따라 8월 1일 02시를 기해 낙동강 남안으로 이동해 안동 남쪽 12㎞ 지점의 운산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고 부대를 새롭게 정비 배치하면서 적의 낙동강 도하에 대비하였다.[129]

이에 따라 안동 서남방 5㎞ 지점의 서원리에 지휘소를 개설한 제10연대는 주력을 북방 1㎞ 지점의 무주무로부터 우측 고지 일대에 배치해 적 사단의 주력과 대치하였다. 또한 제21연대는 지휘소를 고하동에 설치하고 예하의 제1대대를 제10연대의 좌익에 연결시켜 계곡동까지 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제1대대의 좌익과 연결해 26고지를 연하는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낙동강 남안의 천연적인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도하과정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제16연대는 부대를 수습한 후 신기동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군단 예비가 되었다.[130] 그리고 105밀리 유산포를 장비한 제50포병대대는 월리동에서 사단 전면을 일반 지원하였다. 또한 미 전폭기 편대가 안동 지역의 적에 대해 수차에 걸친 강력한 폭격으로 사단을 지원하였다.[131]

한편 7월 29일 안동 서방 10㎞ 지점의 하리와 안동 북방 12㎞ 지점의 옹천동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재개한 북한군 제12사단은 8월 1일 새벽에 안동을 점령하고,

<상황도 5-11>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 편성(1950. 8. 3)



안동 남쪽의 낙동강과 신덕동 지역의 반변천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132] 이러한 공로로 '안동사단'이라는 칭호를 얻은 적 제12사단은 다음날 도하정찰전만을 시도할 뿐 대체로 평온한 전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예천을 침공한 적 제8사단 제83연대는 풍산 지역까지 진출한 후 야간에 낙동강을 도하하였다. 아군 방어선의 공백지대로 침투한 적은 인금동 부근까지 진출해 좌측방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아군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진지로 후퇴해 방어진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8월 2일 20시에 제1군단장은 낙동강~반변천 연변의 방어선 편성계획을 포기하고 제8사단과 수도사단에 향로봉~길안~청송을 잇는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133]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안동~의성 축선 일대의 지형과 북한군의 동정, 그리고 아군 사단의 전투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방어선 편성에 착수하였다.

사단장은 5번 도로와 중앙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인 향로봉과 동쪽에서 북쪽으로 횡격실을 이루는 미천 북쪽의 261고지, 등운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주저항선 전방 3~4㎞ 지점의 운산과 구천동에 있는 무명고지에 일반 전초선을 설치하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주저항선이 돌파될 경우의 역습에 대비해 미천 남쪽의 318고지~396고지간 횡격실 능선에 제2선인 예비진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어 개념에 따라 사단은 8월 3일 이른 새벽에 부대의 이동배치를 단행, 오전 중에 일반 전초선과 주저항선상에 좌우 인접부대를 연결하는 다음과 같은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134]

① 사단 전술지휘소는 우두동(의성 북쪽 3.5㎞)에 위치하고 사단 방어정면은 16㎞이다.

- 일반전초 : 운산 서쪽 무명고지~원호동~구천동 간 4.5㎞
- 운산 서쪽 무명고지 : 제21연대 제3대대, 의명 366고지로 철수
- 원호동·구천동 : 제10연대 제2대대, 의명 268고지로 철수

② 좌전방인 제21연대의 방어정면은 366고지~향로봉 간 8㎞이다.
- 연대 전술지휘소 : 장림동
- 제3대대 : 366고지(일반전초임무를 수행 후 의명, 연대 좌전방대대로 주저항선에 배치)
- 제2대대 : 거무골~따우재
- 제1대대 : 향로봉

③ 우전방인 제10연대의 방어정면은 망호동~등운산 간 8㎞이다.
- 연대 전술지휘소 : 송내동
- 전투전초 : 간음동 부근 구릉지대(제1대대가 전투전초임무를 수행한 후 의명, 망호동으로 철수하여 연대 좌전방대대로 주저항선에 배치)
- 제2대대 : 268고지(일반전초임무를 수행한 후 의명, 연대 중앙대대로 주저항선에 배치)
- 제3대대 : 426고지(등운산에 증강된 1개 소대병력을 배치, 주저항선 우단을 경계)

④ 사단예비인 제16연대는 단촌에 집결 대기한다.

국군 제8사단이 주저항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동안 북한군 제8사단의 일부 병력이 인금동과 구미동으로 남하했으나, 별다른 접촉 없이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소강상태를 최대로 활용한 아군은 제2선의 예비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사단공병대는 주저항선 전방의 교량을 폭파하고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제8사단은 좌측에 있는 제6사단이 의성에서 20여 ㎞ 떨어진 안계 부근에 주력을 집결시키고 있었고, 우측의 수도사단과도 약 5㎞에 달하는 병력배치 간격이 형성되는 등 좌우 인접사단과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없었다.

(2) 향로봉 전투와 주저항선의 붕괴

북한군 제8사단은 예천 지역으로부터 의성 방면에 투입되어 8월 4일 01시경 안동 서쪽의 마애동과 계평동 일대에서 은밀하게 도하를 개시해 04시 무렵 무릉동에 집결을 완료하였다.[135] 이어 예하의 제83연대를 투입해 의성 방면으로 철수

하고 있는 수도사단 제1연대를 추격하면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한편 국군 제8사단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점령중인 진지로부터 물러나 새로운 방어진지 편성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 제3대대는 05시경 못거리~운산을 연하는 선을, 그리고 제10연대 제3대대는 구미동~토산 남방 1㎞ 지점의 고지를 연하는 일대를 점령하고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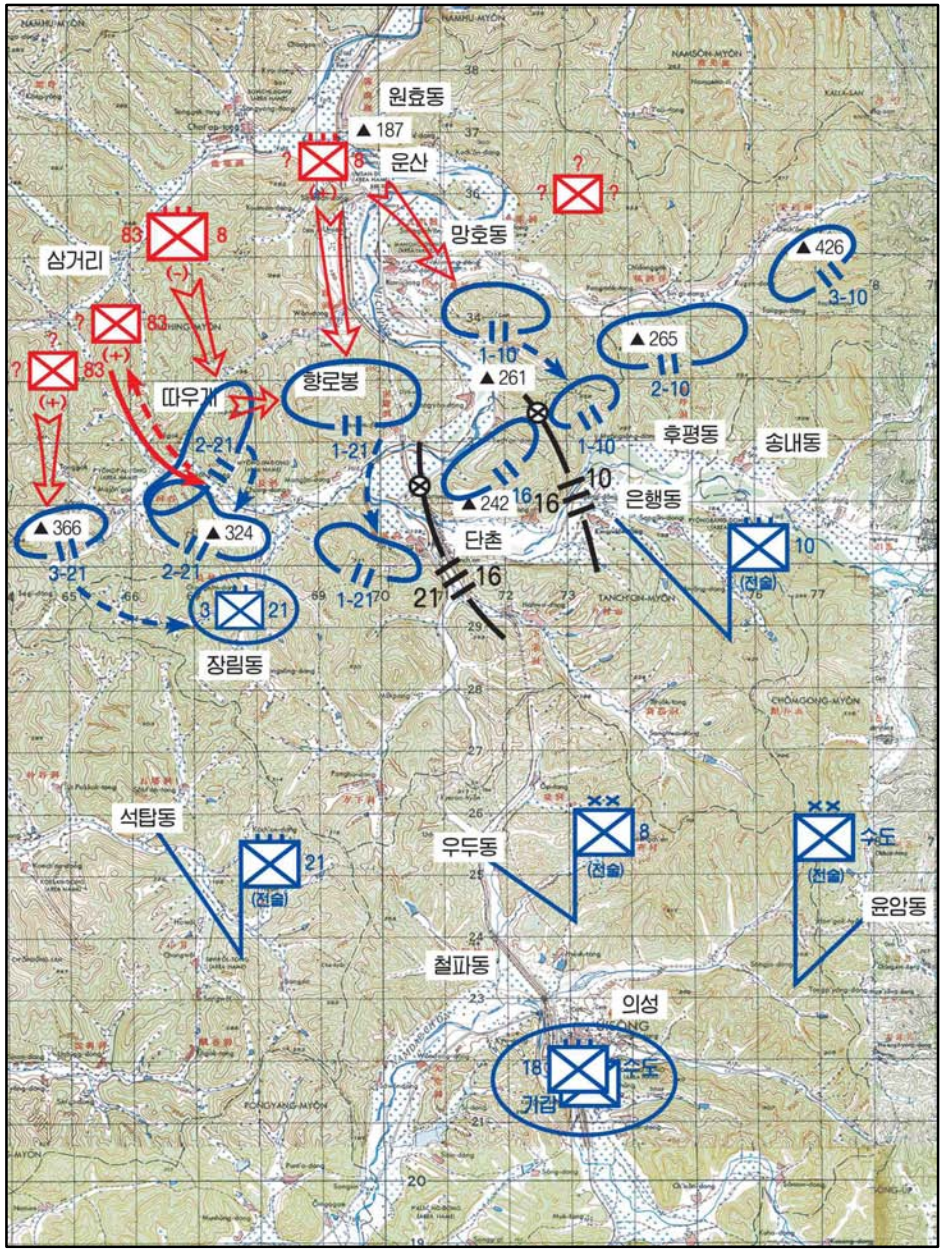
무릉동과 수상동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한 적 제8사단은 05시를 기해 아군 제8사단의 일반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136] 08시경에는 한골에 침입한 적 제83연대 예하의 1개 대대가 아군 제21연대 제3대대 정면을 공격,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또한 인금동에 침입한 또 다른 1개 대대규모의 적이 14시 무렵 못거리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아군 제3대대는 적의 양면공격 상황에 처하였다. 그리고 18시경에는 적 1개 대대가 원호동~구천동 간에서 일반전초임무를 수행하던 제10연대 제2대대 정면을 공격하였다. 이들 아군 2개 대대는 적의 공격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전초진지를 지탱한 후 어둠이 내리자, 사단의 명령에 따라 주저항선에 준비된 방어진지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안동-의성 축선에서 적의 강력한 공격이 개시되어 악전고투하고 있던 아군 제8사단에 8월 4일 오후를 기해 사단장 교체가 단행되었다. 지금까지 부대를 지휘해 온 이성가 대령이 군단 참모장으로 전보되고, 군단 참모장으로 있던 최덕신 대령이 신임 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137]

8월 5일 02시경 모든 부대는 적정에 따라 엄호진지 선에서 새로운 주저항선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우전방을 담당한 제10연대는 예하의 제1대대를 신기~노래골을 연하는 능선에 배치하면서 제3대대를 제1대대의 우익으로 425고지~524고지 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07시 무렵에는 엄호대대인 제2대대를 이동시켜 송내동 북방의 339고지에 배치하였다.

반면에 사단의 좌전방을 담당한 제21연대는 연대 우익으로 제1대대를 326고지(향로봉)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거무골~따우재 일대에 배치해 중앙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연대의 좌전방대대로 제3대대가 366고지를 점령 중이었다.

<상황도 5-12> 국군 제8사단의 향로봉 피탈 및 재배치 상황(1950. 8. 4~7)



그러나 날이 밝을 무렵 제21연대는 삼거리로 남하한 적 제83연대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여 연대 주저항선이 돌파되었다. 326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대대는 10시경 못거리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약 1시간에 걸친 완강한 저항에도 끝내 고지를 빼앗긴 제1대대는 부대를 재편성하고 반격을 실시, 피탈된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적 제83연대는 366고지의 제3대대를 측면에서 기습하여 고지를 점령함과 동시에 제2대대 방어진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좌측 방어지역이 노출된 향로봉의 제1대대는 더 이상 진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연대의 주저항선이 완전 붕괴되었다.[138]

분산되어 철수하는 연대병력을 주저항선의 남쪽에 있는 포토산에서 수습한 제2대대장은 고지의 북쪽 기슭에 이들을 배치하고 적의 남진에 대비하였다. 잠시 후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삼거리~벼랑골 간의 계곡로를 따라 밀집상태로 남하중인 것을 목격한 제2대대는 행군대형이 벼랑골에 다다르자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앞선 전투의 승리로 방심하고 있던 적 제83연대는 아군의 기습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국군 제21연대는 포토산~218고지 간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군단은 적의 전면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단 예비인 제16연대를 16시를 기해 중앙지대인 신기와 세촌 선으로 진출시켜 새로운 반격진지를 점령하였다.[139]

한편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는 제21연대의 주저항선이 붕괴된 직후에 적의 공격을 받고 망호동, 261고지 일대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방어진지를 고수하고 있던 제1대대는 향로봉으로 집중되는 적의 측면공격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인접한 제2대대의 엄호 아래 261고지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261고지가 향로봉을 점령한 적의 감제하에 놓이자 제1대대는 다시 후평동 명성마을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연대는 제1대대를 세촌~262고지 간에 배치해 제16연대와 연결된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3) 259고지 기습전과 아군의 파쇄공격

제8사단장 최덕신 대령은 의성 방어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술적 요지인 향로봉을 탈환하기로 결심하였다. 8월 7일 08시에 사단장은 제21연대(-)를 좌일선에, 제16연대(-)를 우일선에 각각 전개시켜 향로봉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는 신기동 서쪽 약 1㎞ 지점의 318고지에서 그리고 제16연대는 세촌에서 향로봉을 공격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에 부딪쳐 고지를 탈취하는데 실패하였다.[140]

당시 아군의 전황은 길안~청송 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수도사단이 8월 6일 의성으로 철수함에 따라, 제1군단 작전뿐 아니라 중동부전선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의성의 고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런 전황을 감안한 사단장은 8일 여명을 기해 역습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제16연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6연대는 제21연대 제1대대를 새로 배속 받은 후 03시 30분에 제10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공격을 감행하였다. 아군은 강력한 포격을 적에 가했으나, 적 또한 계속적인 포격으로 대응함으로써 아군 공격부대의 진출이 여의치 않았다. 연대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완강해지는 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백병전까지도 불사했으나, 결국 역습에 실패하고 분산 철수하였다.[141]

한편 적 제8사단은 아군의 역습이 실패하자 전면 공세로 전환하여 제21연대와 제10연대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전차 1개 소대로 증강된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안동~의성간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남하함으로써,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의성이 피탈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의성 북쪽 4㎞ 지점의 재랫재로 철수하고 있던 제10연대 제1대대장은 259고지 일대에서 남하중인 적에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고지 오른쪽의 하화터널 입구 양쪽에 로켓포소대를 배치하고 81밀리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비롯해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 화망을 구성하였다.

잠시 후 적은 예상한 대로 터널입구로 접근해왔고, 제1대대는 모든 화력을 총집중하여 적을 공격하였다. 아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진격을 중지하

자, 제1대대는 과감하게 반격을 실시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제1대대에 의해 격퇴된 적의 공격제대는 더 이상의 공격을 중단하고 단촌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반변천을 도하한 적 제12사단은 길안~청송 지구를 방어하던 수도사단이 의성으로 철수하면서 공백지대가 된 안동~길안~청송 축선을 따라 남하하여 8월 9일 기계를 점령하였다. 이는 동부전선의 방어선에 큰 돌파구가 형성되어 경주가 위협받는 위급상황을 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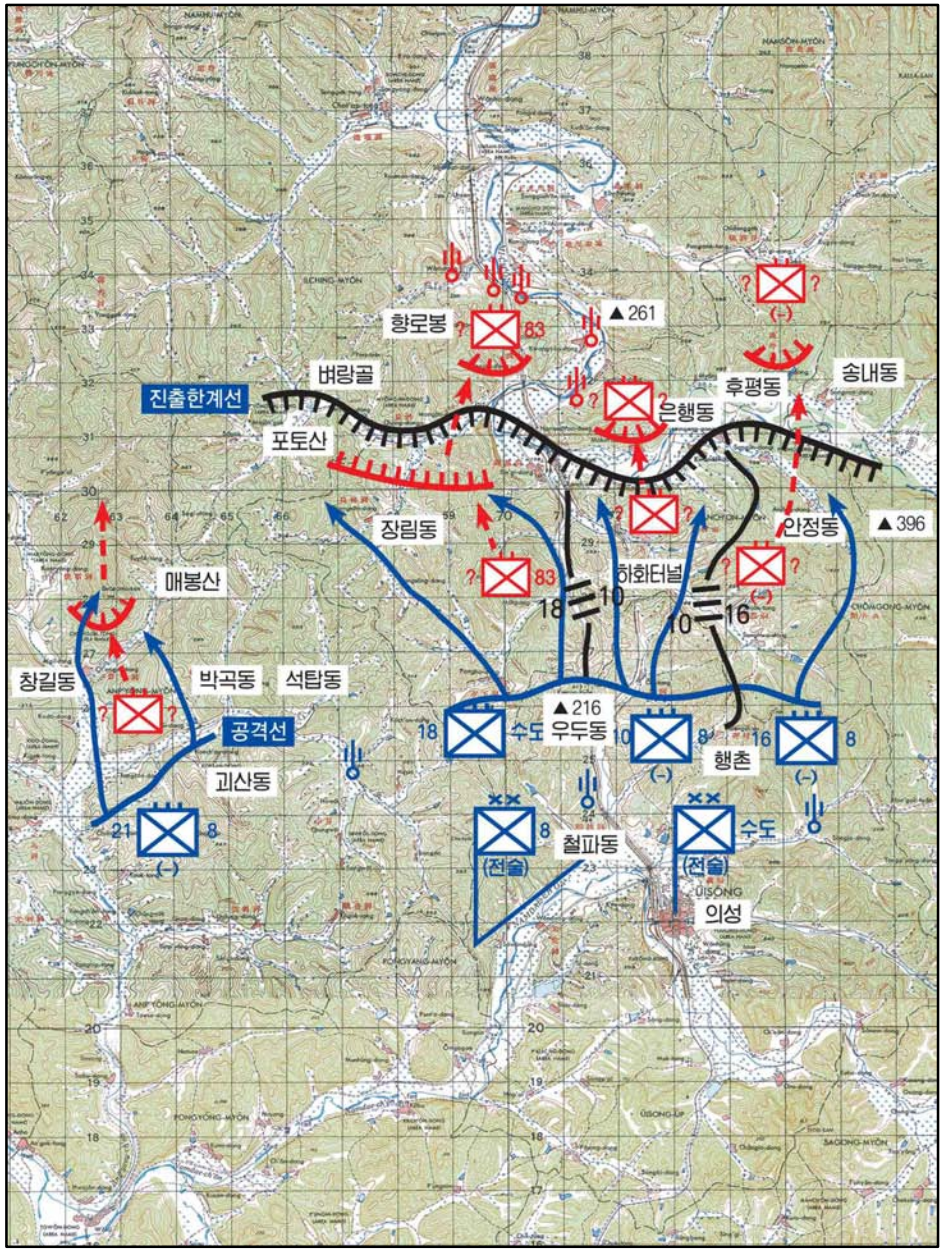
제1군단장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1군단이 동부전선을 전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의성 지구의 2개 사단이 새로운 방어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랫재에 형성된 방어선을 단촌 북쪽으로 밀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군단장은 제8사단에 반격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수도사단 제18연대를 8월 10일 제8사단에 배속하였다.[142]

제8사단은 다음날 01시까지 작전배치를 마쳤고, 모든 부대는 제2선 진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화력의 집중발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사단장은 사단 전술지휘소를 의성에 두고 다음과 같은 공격계획을 작성하여 하달하였다.

① 좌일선의 제21연대는 매봉산을 목표로 괴산동을 출발하고, 목표를 탈취한 후 명령에 따라 방어로 전환한다.
② 좌중앙의 제18연대는 벼랑골~명지동 선까지 진출한 후 제10연대에 전투지대를 인계한다.
③ 우중앙의 제10연대는 단촌~은행동 선까지 진출한 후 제18연대의 전투지대를 인수하며, 포토산~단촌을 연하는 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한다.
④ 우일선의 제16연대는 은행동~병방동 선까지 진출한 후 단촌~은행동을 연하는 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한다.

8월 10일 18시를 기해 사단의 공격제대는 현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고, 쌍방간에 일진일퇴의 격전이 다음날까지 전개되었다. 제18연대는 제1대대를 주공으로 그리고 제3대대를 조공으로 장림동을 공격해 8월 11일 05시 무렵에 이를 탈환하였다.

<상황도 5-13> 국군 제8사단의 파쇄공격 상황(1950. 8. 10)



제21연대는 제3대대를 주공, 제1대대를 조공으로 285고지를 공격해 09시경에 점령하였다. 이어 계속된 진격으로 제18연대는 16시경에 323고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제21연대 역시 매봉산에 육박하였다. 또한 17시 무렵에는 제10연대가 신기동과 은행동까지, 제16연대가 안정동과 395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제18연대는 장림동까지 진출한 후 군단 명령에 따라 19시에 수도사단으로 원대복귀하였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가 제18연대의 전투지역을 분할해 인수하였다.[143] 그리고 사단은 인사이동을 실시, 제16연대장 김동수 중령이 기갑연대 부연대장으로 전보되고 후임으로 같은 연대의 제1대대장 유의준 중령이 부임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매봉산 탈환에 실패한 제21연대는 8월 12일 09시를 기해 예하의 제3대대가 공격을 재개하여 13시경 마침내 목표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285고지를 출발하여 사기동 북쪽의 366고지를 공격하였고, 제2대대는 302고지에서 323고지를 향해 전진하였다.

8월 13일 02시 30분 무렵 제21연대의 진격을 완강하게 저지하던 적은 366고지와 323고지에서 각각 1개 대대병력으로 반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무렵 3대의 전차를 앞세운 적 1개 연대가 제10연대 정면을 공격하였고, 제16연대 정면의 송내동에서도 적 2개 대대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144]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 각 연대는 사력을 다해 대응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결국 저지에 실패하였고, 05시경 전황은 아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적의 포탄이 의성에 집중되었고, 사단은 각 연대와의 통신마저 두절되어 전반적인 상황판단이 쉽지 않았다.

사단장은 06시를 기해 부대를 의성 동남방의 구산동을 경유해 벌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145] 이는 군단의 방어정면 재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구산동-도평동 선에 2개 연대를 배치하고 보현산 일대에 투입되어 교전중인 아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2) 보현산지구 전투

(1) 도평동 쟁탈전

1950년 7월 중순 국립경찰 강원도경찰 비상경비사령부 예하의 전투경찰 제3대대와 제6대대는 청송과 도평동 일대에서 청송~기계 및 의성~기계로 통하는 도로 교차점인 도평동을 점령하고 아군 전방부대의 주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군 제766부대와 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전투경찰 제3대대가 도평동을 탈환하고 일대에 분산·은신한 잔적소탕작전을 실시하자, 잔적 중 일부는 보현산 북쪽의 산악지대에 거점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증원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청송 방면으로 침입한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이 제766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평을 거쳐 입암으로 남하함에 따라 보현산 일대의 잔적도 이동하여 8월 7일 본대와 합류하였다.[146]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공격으로 보현산 주변의 아군 방어진지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였다.

한편 의성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한 국군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보현산 일대의 피아 상황을 분석하고 경찰병력만으로는 적 제766부대를 소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 군단에 배속된 제1201건설공병단[147]을 구산동에 투입한데 이어 29일에는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148]를 보현산에 투입하였다.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는 제3사단 제22연대에 배속되었으나,[149] 제3사단과는 거리와 통신관계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제1유격대대는 기룡산과 보현산 일대에서 주야간에 걸친 수색정찰로 적을 견제하고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8월 4일 제1201건설공병단의 임무와 장비를 인수하고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150] 8월 6일 이른 새벽에 제1유격대대는 주력을 보현산 남쪽의 818고지에 전개해 공격하는 것처럼 적을 기만하는 동안 2개 중대가 측면공격을 실시해 적 제766부대의 본거지인 보현산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보현산에서 물러난 적은 도평동에서 죽장을 경유해 기계로 연결된 도로 양쪽의 중요 지형을 점령하고, 다음날인 8월 7일 도평동에 진출한 적 제12사

단의 선발대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기계 방면으로 향하는 중간의 무명고지에 머물며 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8월 8일 05시경 적 제12사단의 주력부대가 도평동을 거쳐 남하하는 동안 입암에서 합류한 적 제12사단 선발대와 제766부대의 1개 대대는 이곳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151] 그리고 1개 대대를 내동 전방의 602고지에 배치하고 4문의 야포로 보현산 남쪽에 포격을 가하였다. 기계에 배치된 해군육전대와 제1201건설공병단의 수색대는 아군을 공격하기 위해 602고지로부터 충효동 부근의 428고지로 남하하던 약 1개 중대규모의 적과 조우하면서 교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자천에 머물고 있던 제1유격대대장은 8월 9일 10시경 육군본부로부터 적 정통보와 함께 작전을 지시받았다.[152] 지동에서 영천 방면으로 남하중인 적 1개 연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대대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한 끝에 기습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2개 중대를 이끌고 정오 무렵 일견동에 도착해 도로 좌우능선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약 1시간이 지날 무렵 적의 행군대열 중앙이 아군의 매복지점을 통과하기 시작하자, 매복하고 있던 450명의 아군은 일제히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불의의 기습으로 혼란에 빠진 적은 선두부대가 반격을 시도했으나 아군의 협격을 받고 산속으로 도주하였으며 후속부대는 충효동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제1유격대대는 적을 계속 추격해 충효동의 고지를 점령한 후 잔여부대의 도착과 동시에 입암 방면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1유격대대는 죽장 남쪽의 봉화봉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봉화봉은 청송~죽장~기계로 통하는 31번 도로와 441고지 논골~자양~영천으로 이어진 도로를 통제하는 전술적 요지였다. 8월 10일 이른 새벽에 공격을 개시한 제1유격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중간목표인 428고지를 탈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계속된 돌격을 감행한 끝에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153]

이어 봉화봉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였으나 봉화봉~수석봉간의 능선에 배치된 적의 측면 사격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1유격대대는 공격방향을 549고지에서 수석봉으로 전환한 후 2일간의 격전 끝에 8월 11일 18시 무렵 수석봉을

점령하였다.

8월 12일 아침 제1유격대대는 봉화봉 공격에 앞서 항공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화력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목표내의 남쪽 고지인 441고지에서 치열한 근접전을 전개하고 있던 10시경 미 전폭기 1개 편대가 출현하여 교전현장에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어 피아간에 많은 희생이 발생하였다. 이러는 동안 아군 1개 중대가 목표 우측으로 우회해 폭격이 끝남과 동시에 적진으로 돌진, 441고지를 탈취하고 계속하여 봉화봉 서쪽의 536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봉화봉을 점령한 후 제1유격대대장은 육군본부로부터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기갑연대의 일부 병력이 도평동에서 기계로 진출할 예정이니 제1유격대대는 현지에서 이들과 접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54] 이날 밤 수많은 차량이 라이트를 켜고 입암 방면에서 논골 방면으로 남하중인 것을 목격한 제1유격대대장은 이 차량들이 우군일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대에 확인을 지시한 결과, 적의 차량으로 판명되었다. 제1유격대대는 모든 차량이 아군의 화력권내에 들어오자 일제사격으로 공격하였으며, 다음날 탄약과 무기를 비롯한 각종 보급품을 만재한 12대의 트럭과 야포 2문이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화봉을 빼앗긴 적은 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8월 13일 04시경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좌우에서 협공을 가해왔다. 제1유격대대는 우군의 지원 없이 고립된 상황에서도 완강히 저항했으나, 야포화력의 근접지원 아래 강력하게 공세를 가하는 적에 밀려 428고지로 물러나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2) 주저항선 편성과 입암 점령

입암에 진출한 적 제12사단이 기계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자 국군 제1군단장은 8월 9일 의성에서 재편중인 기갑연대를 구산동으로 진출시켜 적정을 수색하는 등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다.[155] 또한 8월 12일에는 제8사단에서 배속이 해제된 제18연대를 도평동에 투입해 지역을 확보하면서 기갑연대를 지원하였다.[156]

이 무렵 피아의 전황은 적 제5사단이 포항을 점령한데 이어 영덕에서 철수를 시작한 제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적 제12사단 주력이 기계에 진입해 국군 제17연대 및 수도사단 제1연대와 기계-안강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950년 8월 13일 벌밭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한 국군 제8사단장은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보현산지구의 모든 작전부대에 관한 통합지휘권을 부여받았다.[157] 사단장은 구산동~명당동~도평동을 연하는 선상에 주저항선을 설정하기 위해 예하의 3개 연대 중 좌전방인 제21연대를 구산동에, 우전방인 제10연대를 도평동에, 사단예비인 제16연대를 모계동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증원부대인 제2유격대대[158]는 수석봉의 제1유격대대와 서로 협력해 영천지구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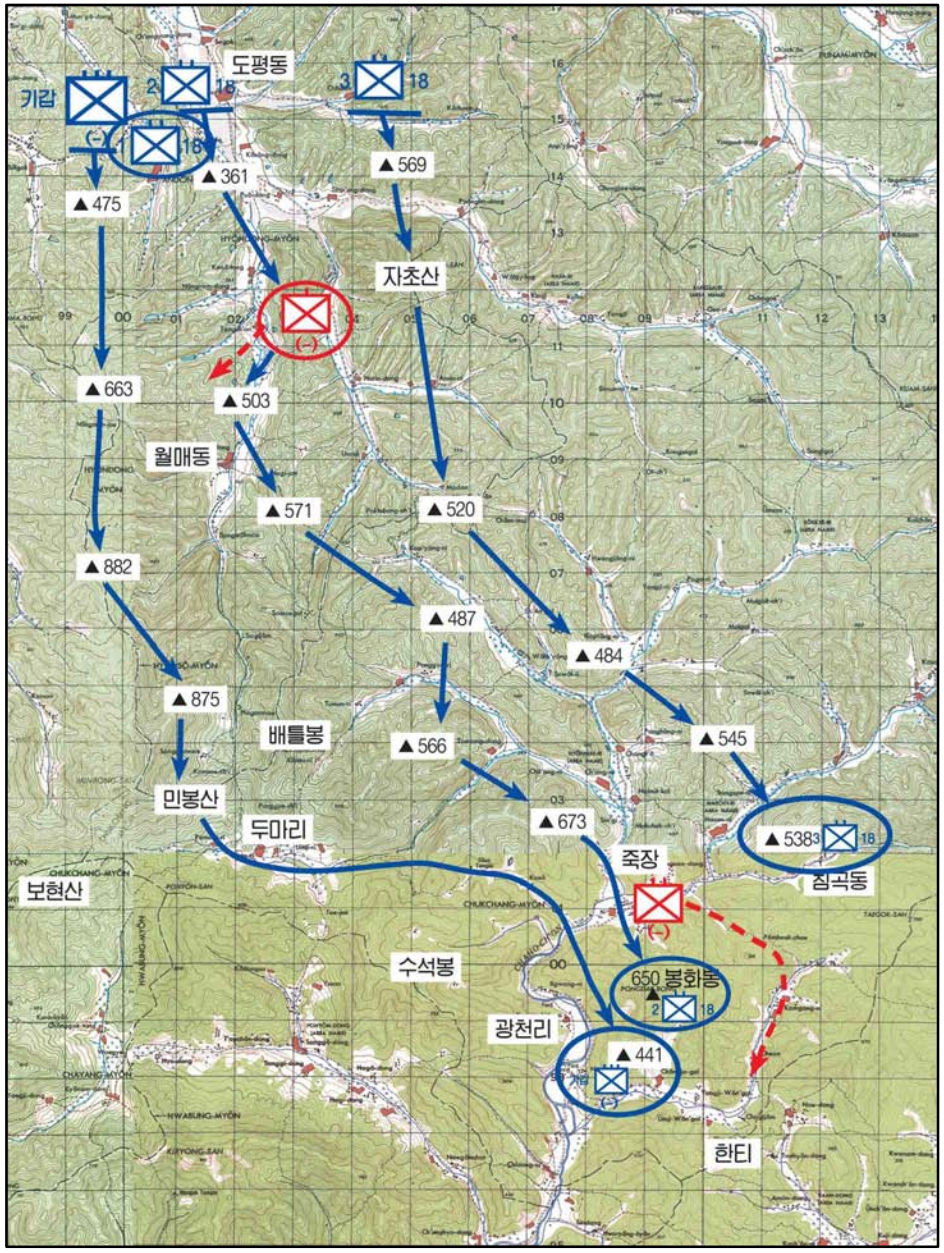
또한 도평동 서쪽 감은동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한 제10연대는 20시를 기해 제2대대를 도평동 북쪽 청송가도에 연한 408고지 및 동서 능선 일대에, 제3대대를 청송 남쪽 무명고지 및 능선 일대에, 그리고 제1대대를 예비대로 연대지휘소 부근에 각각 배치하였다.[160]

구산동에 연대지휘소를 둔 제21연대 또한 의성 부근에서 남하하는 적 제8사단에 대비하기 위해 제2대대와 제3대대를 구산동 서북쪽에 배치하였다. 모계동에 집결한 제16연대는 제1대대에 벌밭의 사단지휘소 경비임무를 부여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적 유격대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원거리 수색전을 전개하도록 사단지휘소 주변에 배치하였다.

한편 보현산지구 방어임무를 제8사단에 부여한 제1군단은 기계로 진출한 적 제12사단을 남북에서 협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좌일선인 기갑연대는 475고지에, 우일선인 제18연대는 361고지와 569고지에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전개하는 한편 제1대대는 예비로 문거동에 집결시켰다.

8월 14일 이른 아침, 부군단장의 지휘를 받는 기갑연대와 제18연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충효동 북쪽 428고지 일대에 배치된 제1, 제2유격대대는 504고지에서 예상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상황도 5-14> 제18연대 및 기갑연대 기동축선(1950. 8. 14)



361고지와 569고지를 출발한 제18연대는 도평동~입암간 무명고지 능선 일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1개 중대규모의 적을 제압하고 입암 서남쪽과 동남쪽 능선지대를 목표로 나아갔다. 569고지를 출발해 763고지를 탈취한 제3대대는 520고지와 483고지, 545고지를 연속적으로 점령하고 18시 무렵에는 537고지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361고지를 출발한 제2대대는 도평동~입암간 도로 우측을 따라 717고지~862고지~899고지를 거쳐 수석봉과 751고지, 544고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161]

이로 인해 제1유격대대 및 제2유격대대와의 연결이 가능해진 제18연대는 2개 중대규모의 적이 점령중인 입암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162] 이에 제2대대가 화력이 약한 적의 우측면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가하자, 적은 기계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8월 14일 20시경 입암 전면의 봉화봉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제18연대는 부근의 능선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계속하여 입암을 공격하였다.[163]

537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는 입암 우측에, 봉화봉의 제2대대는 좌측을 목표로 공격을 전개하여 야간에 입암을 완전 점령하였다.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기계 방면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제18연대가 입암을 점령하고 남하하자, 475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기갑연대는 663고지를 돌파하고 다음 목표인 899고지를 공격하였다. 약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던 적은 점차 아군의 공격에 밀려 분산 철수를 시작하였다. 적을 추격한 기갑연대는 최후 목표인 논골의 440고지에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440고지에서 기갑연대를 지원하고 있던 제1유격대대와 제2유격대대는 기계로 이동하는 적을 포착해 가안동 북쪽에서 섬멸하였다.[164] 이날 밤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본부를 입암으로 이동해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1950년 8월 15일 14시 제8사단은 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Y선'으로 이동을 단행하여 다음날 저녁 무렵에 다음과 같이 방어진지의 재편성을 완료하였다.

① 사단의 전술지휘소는 자천에 위치하며, 방어정면은 동평동~죽장간 26㎞이다.

② 좌전방 제21연대의 전술지휘소는 하송동에 위치하며, 방어정면은 동평동~보현산간 14㎞이다.
- 제2대대 : 동평동~594고지
- 제1대대 : 621고지
- 제3대대(전투전초) : 어봉산~516고지

③ 우전방 제16연대의 전술지휘소는 정각동에 위치하며, 방어정면은 보현산~죽장간 12㎞이다.
- 전투경찰 제5대대(제16연대에 배속) : 보현산
- 제1대대 : 839고지
- 제2대대 : 수석봉
- 제3대대 : 연대 예비로 정각동에 집결

④ 군단 예비인 제10연대는 충효동에 집결하여 운주산 공격을 준비한다.

한편 기계-포항지구는 아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적이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전황은 호전되고 있었다. 이에 제1군단은 기계-포항지구 전투를 조속히 종결한다는 계획 아래 8월 17일 제8사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제1유격대대와 제2유격대대, 사단 예하의 제10연대를 기계 전투에 투입하였다.

제1유격대대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에 편입되어 도덕산을 거쳐 기계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65] 제1유격대대와 제2유격대대는 제25연대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참전하였으며, 제1유격대대가 20시에 출발해 다음날 07시에 기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17연대가 점령한 이후였다.

8월 17일 23시에 제10연대 주력은 군단작명에 따라 대구방어전에서 아군 지원부대로 일견동에 집결해 김백일 준장의 지휘 아래 대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운주산을 공격하던 제1대대는 적을 격퇴하고 구지동으로 진출하였다.[166]

8월 18일 우측의 수도사단이 육본 명령에 따라 비학산을 공격하면서 제8사단 예하의 제16연대는 방어진지를 재편성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167] 제16연대장은 새로 보충된 1개 대대를 제3대대에 편입해 수석봉~광천동간 방어진지 구축을 지시하였다. 또한 788고지~839고지간을 점령한 제2대대는 수석봉을

점령한 제1대대와 교대시킨 후 예비대로써 충효동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15시경에는 연대지휘소를 일견동에서 충효동으로 이동해 설치하였다.[168]

한편 남하를 시도하던 적 제8사단 예하의 1개 연대는 구산동에서 우회, 제21연대 제3대대가 점령중인 633고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제3대대는 집중사격으로 적을 구산동 북쪽으로 격퇴시켰으나, 물러났던 적이 1개 대대를 투입해 용마산 우측지구로 침투하였다.[169]

8월 19일 적의 남하에 대비해 주저항선에서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구지동 일대에서 수색전을 전개하던 제10연대 제1대대는 대구방어전에 참여하기 위해 원대로 복귀하였다.[170] 그리고 운주산을 공격하던 제1유격대대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에서 제8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운주산에서 자천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음날 제2유격대대와 함께 대구로 이동하였다.[171]

(3) 고모산과 봉화봉 공방전

8월 22일 이른 아침 제8사단 방어정면에 단대호 미상의 적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포항지구전투사령관에서 제8사단장으로 다시 부임한 이성가 대령은 정면의 적을 격퇴하기 위해 예하 연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진지강화를 위해 공병 및 후방인원을 동원하고 주저항선 전면에 장애물 설치 및 지뢰를 매설하였다.

제21연대는 적의 주접근로로 예상되는 917번 도로를 주저항선 전방에서 통제할 목적으로 중리 서쪽의 무명고지와 569고지를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임무를 예하의 제3대대 제10중대와 제11중대에게 부여하였다. 13시에 공격을 개시한 양 중대는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고 목표인 569고지와 515고지를 각각 점령하였다.[172] 그러나 569고지에 배치되었던 적은 모래실로 철수한 후 남쪽의 고모산을 점령하고 양 중대의 퇴로 차단과 배후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제3대대는 대대 예비인 제9중대를 투입해 고모산을 남쪽에서 공격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리 서쪽의 무명고지를 확보해 구산동

에 집결중인 적을 교란하고 기만하려 한 대대의 계획을 변경하여 무명고지를 점령한 제11중대를 야간에 어봉산으로 철수시켰다.[173]

8월 23일 12시 50분경 제21연대장은 재랍재의 제10중대를 증원시켜 제9중대와 함께 고모산을 협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들 양 중대는 16시경 적진 300m 전방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함에 따라 재랍재로 철수해 야간전투를 준비하였다. 22시경 공격을 재개한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1시간에 걸친 치열한 백병전 끝에 고지를 완전 점령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174]

다음날인 8월 24일 13시 30분경 1개 대대규모의 적이 515고지와 569고지를 넘어 진격해오자,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치열한 화력전과 백병전으로 격퇴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적의 역습을 강력한 저항으로 격퇴하고 8월 27일까지 고모산을 확보하였다.

한편 제16연대는 8월 21일부터 입암 북쪽 방흥리 610고지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출현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개양재~수석봉간 능선 접근로에 있는 610고지는 적이 확보할 경우 공격에 유리한 발판이 되는 감제고지였다. 따라서 연대는 적이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격퇴하기 위해 연대지휘소에 대기하고 있던 제2대대를 보현동을 거쳐 대재로 투입하였다.

8월 22일 정오경 제16연대 제2대대는 사단 포병의 화력지원과 제1대대 및 제3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유리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아군은 6~7부 능선에서 진출이 저지된 채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약 4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적은 고지에서 분산 철수하였다.

전날의 전투에서 격퇴된 적이 593고지에 다시 진지를 구축중인 것을 발견한 제16연대 제2대대는 8월 23일 09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30분간 실시된 공격준비사격의 종료와 함께 전개된 공격은 11시 30분경 치열한 교전 끝에 제2대대가 고지점령에 성공하고 전과확대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적은 457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제2대대는 불리한 지형적인 여건과 아군 주저항선에 대한 적의 공격발판 구축을 거부하는 파쇄공격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596고지에 방어진지를 편

성하였다. 이후 제2대대는 596고지 부근에서 잔적격멸과 수색전을 감행하였다.

한편 제1군단은 1950년 8월 25일을 기해 제8사단과 수도사단간의 전투지경선을 확정하였다.[175] 침곡동~감곡동~점말~528고지를 연결하는 전투지경선의 확정으로 봉화봉에 대한 방어는 제8사단이 담당하고, 운주산의 방어는 수도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1군단의 전투지대 재조정으로 제8사단은 방어정면이 약 3㎞ 확대되어 방어배치의 전면적인 재편성이 불가피하였다.[176]

① 사단 전술지휘소는 자천에서 영천으로 이동한다.
② 좌전방인 제21연대의 방어정면은 동평동~838고지간 18㎞이다.
- 제2대대 : 매봉~594고지
- 제3대대 : 621고지(일부 병력으로 어봉산~고모산을 계속 확보, 전투전초임무 수행)
- 제1대대 : 621고지~788고지
- 전투경찰 제5대대 : 788고지~838고지(제21연대로 예속 변경)

③ 우전방인 제16연대의 방어정면은 838고지~봉화봉간 11㎞이다.
- 제3대대 : 839고지~수석봉
- 제2대대 : 596고지~593고지에서 전투전초임무를 수행하고 명령에 따라 광천동 북쪽의 무명고지로 철수 후 주저항선을 방어
- 제1대대 : 봉화봉(우인접 수도사단 제18연대 677고지~340고지와의 부대배치 간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봉화봉 서쪽 봉우리인 516고지에 일부 병력을 배치)
- 전투경찰 제3대대 : 연대 예비, 검단마을에 집결(제16연대에 배속)

이와 같이 제8사단이 방어지역 재편성에 주력하는 동안 청송 방면에서 남하한 적 제15사단은 이 부근의 적과 함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177] 적 제15사단의 투입은 기계 방면의 적 제12사단과 동해안의 적 제5사단의 상호 협공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전력을 강화하여 일거에 영천 방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였다.

국군 제1군단은 이러한 적정의 변화를 포착하고 8월 25일 강원도 경찰 제3대대 560명을 전선 중원에 배치하면서 이에 대비하였다.[178] 또한 아군 공군은 06시

30분부터 07시 15분까지 대대적인 공중폭격을 실시해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였다. 그러나 적 제15사단은 10시 무렵 제16연대의 방어정면인 보현산~입암간 일대로 진출해 침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제8사단은 적을 저지할 목적으로 일부 부대를 이동시켜 재배치하고 강력한 방어진지를 새롭게 마련하였다.[179]

즉 제16연대는 8월 25일 정오를 기해 강원도 경찰 제3대대를 예속하고, 제21연대 제2대대는 문봉산 방어정면을 제3대대 제1중대에 인계하는 대신 보현산 최고봉의 진지를 제16연대 제1대대로부터 인수받았다. 제21연대는 경찰 제5대대를 직접 지휘해 839고지까지 담당지역을 확대하였고, 제16연대 제1대대는 입암 남쪽 봉화봉 일대의 능선으로 이동해 진지를 점령하였다.

적은 13시 30분경 제21연대 제1대대 정면인 594고지와 문봉산 일대에 집결해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지동 일대에 배치된 아군 포병대는 제16연대와 제21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충효동으로 이동한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였다.[180]

공격준비를 완료한 적 제15사단은 8월 26일 05시에 2개 대대병력으로 제21연대 제2대대가 점령한 보현산 우측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치열한 전투 끝에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596고지로 우회한 적이 제16연대 전면인 봉화봉을 공격해왔다.

정오경에는 596고지 정면의 적이 공격을 재개하면서 497고지에서 남하한 1개 연대규모의 적이 봉화봉 동쪽으로 우회해 침공할 기세를 보였다. 제16연대 제1대대는 봉화봉 동쪽으로 이동해 진지를 점령하고 측면 방어태세를 강화했으나, 적은 봉화봉을 공격하는 대신 인접 제18연대의 정면으로 우회하였다.

적의 작전행동을 관찰한 제1대대장은 제1중대와 제2중대에게 적의 측면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명령을 하달하고 지원포병에게 일제사격을 요청하였다. 잠시 후 아군의 포격이 적의 대열에 집중되자, 제1대대는 죽장 동쪽 어귀로 진출한 다음 혼란한 틈을 타 적을 무찌르고 497고지를 탈취하였다. 고지를 빼앗긴 적은 많은 피해를 입은 채 합덕동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이어 497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한 제1대대는 일부 병력을 잔류시키고 봉화봉으로 복귀하던 중 연대명령에 따라 596고지를 공격하고 있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해 격퇴시켰다. 하지만 계속된 무리한 공격과 적의 반격 및 포격으로 적지 않은 병력의 손실을 입고 야간에 봉화봉의 방어진지로 복귀하였다.[181]

제1대대는 재편성을 마치고 방어태세의 강화에 주력했으나, 8월 27일 03시경 적의 공격을 받았다. 적은 일부 병력으로 입암을, 주력으로 봉화봉을 공격하였다. 연일 계속된 진지구축 작업과 주간 전투로 지쳐 있던 장병들은 불의의 야습으로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검단마을로 분산 후퇴하였다. 봉화봉의 피탈로 제16연대는 방어지대 좌측 전방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이에 사단은 8월 27일 18시를 기해 군단명령으로 배속된 제3연대 제1대대를 제16연대의 작전통제 하에 두었다.[182] 그리고 제16연대장의 지휘 아래 검단마을에 집결 대기하고 있던 전투경찰 제3대대는 봉화봉 남쪽의 602고지에서 기계지구의 제18연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다.[183]

8월 28일 04시경 제16연대 제1대대와 제3연대 제1대대는 역습을 개시하였고,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06시 무렵 봉화봉 남쪽의 441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의 맹렬한 포격으로 전방으로의 진출에는 실패하고 부득이 602고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184]

한편 제16연대장의 지휘를 받던 제3연대 제1대대는 20시 무렵 봉화봉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을 전개하였다. 증강된 1개 연대규모의 적과 두 시간에 걸친 혈전 끝에 목표인 봉화봉을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적의 측면공격은 물론 공격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병력손실로 인해 더 이상 고지를 지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3연대 제1대대는 8월 29일 이른 새벽 제16연대장의 승인 아래 504고지로 철수하였고, 적 제15사단은 봉화봉을 완전히 장악하였다.[185]

(4) 수석봉 공방전과 주저항선의 붕괴

8월 26일 새벽부터 제16연대 방어정면에서 시작된 공방전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갔다. 주저항선 전방 596고지에 배치된 제16연대 제2대대는 05시경 진지를 향해 접근하는 적과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던 중 497고지를 점령한 제1대대의 지원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이른 새벽에 재개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제3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주저항선 방어진지로 철수하였다.

반면에 596고지를 점령한 적은 주저항선에 대한 공격보다는 봉화봉을 점령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제16연대장은 봉화봉에 투입된 적의 일부를 수석봉 정면으로 유인하기로 작정하고 27일 오후에 596고지에 대한 공격을 제3대대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목표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철수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하였다.

8월 27일 15시에 제3대대 예하의 1개 중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의 6~7부 능선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 사격전을 전개했으나, 적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으로 저항하므로 원진지로 복귀하였다.

다음날 정오경 봉화봉을 다시 점령한 적은 공격의 방향을 수석봉으로 전환하고 공격준비사격을 강력하게 실시하였다. 이어 566고지를 발판으로 공격을 개시해 약 40분 만에 제3대대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수석봉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제3대대는 지휘계통이 마비된 채 수석봉 남쪽의 보현동으로 분산 철수하였다.[186]

이때 제16연대 제2대대는 수석봉을 점령한 적이 흥분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해 남쪽의 754고지를 확보하고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방어지대의 전면적인 붕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을 극적으로 모면한 제16연대는 제3대대를 재편성해 제2대대 좌측방인 너름산에 배치하는 한편 연대전술지휘소를 충효동 일견마을로 추진하고 예하 각 대대를 독려하였다. 또한 연대를 직접 지원하던 제50포병대대 제1포대도 일견마을에 포를 방렬하고 일선부대의 지원요청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6연대는 504고지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3연대 제1대대를 수석봉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29일 14시 제3연대 제1대대는 751고지의 제16연대 제2대대를 경유하여 역습을 전개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제3연대 제1대대는 약 4시간에 걸친 혈전 끝에 목표의 8부 능선까지 도달했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끊임없는 저항에 결국 고지점령에 실패하였다.

야간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제1대대장은 병력을 적의 직사화기 사정권 밖으로 후퇴시켰다. 그리고 어둠이 내린 후 공격을 재개한 대대는 자정이 지난 8월 30일 01시경 목표인 수석봉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적의 역습을 격퇴한 다음 동이 트자, 수석봉을 제16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충효동으로 이동하였다.[187]

제3연대 제1대대의 선전으로 수석봉 전방의 주저항선을 회복한 후 진지보강에 주력하던 제16연대는 8월 31일 미명에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봉화봉 남쪽의 정자동으로 진출한 적은 죽장~자양~영천 축선과 봉화봉에서 운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는 602고지를 공격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은 제16연대 제1대대는 뿔뿔이 흩어져 지동으로 철수하였고, 이로써 602고지는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188] 그러나 제16연대장은 제3연대 제1대대를 602고지에 투입해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 한편 분산 철수중인 예하 제1대대를 수습하려 하였다.[189]

사단전술지휘소를 입암에 설치한 적 제15사단은 9월 1일 이른 아침을 기해 아군 정면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적은 제16연대 제1대대 정면의 봉화봉 및 602고지와 수도사단 제18연대 정면의 구지동, 그리고 제16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정면인 수석봉에 각각 1개 연대를 투입하였다.[190] 적은 제16연대 제3대대 방어정면을 돌파했으나, 지원포병의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받은 제16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예비진지인 752고지 전방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한편 제16연대 제1대대와 제3연대 제1대대는 16시를 기해 602고지를 목표로 역습을 감행해 고지 정상 100m 전방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적의 강력한 진내사격으로 더 이상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고지 좌측으로 우회한 제3연대 제1대대가 돌격선에 전개하고 있는 동안 미 전폭기가 출격해 폭격을 개시하였다. 폭탄과 네이팜탄이 제3연대 제1대개가 산개한 지역에 투하되어 막대한 희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군은 602고지의 탈환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428고지와 467고지로 철수하였다.[191]

한편 제1군단은 날로 증가되는 적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제8사단의 진지 정

리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하외산 능선 일대와 727고지 일대에 각각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제2대대 우측에서 기룡산 일대를, 경찰 제1대대는 839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수석봉 남쪽~지동선에는 제16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가, 428고지에는 제1대대가 배치되었다.[192]

602고지에 대한 역습 실패로 방어지역의 우전방의 중요 지형을 상실한 제8사단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포항전투에 참가한 제10연대의 원대복귀를 제1군단에 건의하였다. 하지만 군단은 포항지구의 전황이 위급하다고 판단, 제8사단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현산 일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상황판단이 있었다.[193]

① 죽장~자양~영천 접근로는 공격에 불리한 협곡지대를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동함으로 사단급 부대가 공격축선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② 만약 적이 이와 같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이 축선에 공격부대를 투입하더라도 신장된 보급로와 불량한 도로 상태로 인해 공격 기세를 유지할 수 없다.
③ 적이 봉화봉과 602고지에 전투력을 집중해 이를 점령한 것은 안강~경주 축선에서 작전 중인 적 제12사단의 주보급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형을 분석한 합리적인 상황판단으로서, 죽장~자양~영천 접근로는 제1군단의 작전지역 내에서 전투력 투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반면에 적 제15사단은 악조건을 무릅쓴 모험으로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사전에 확보하고 총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적 제15사단은 그들의 군단작전계획에 따라 전 전선에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194] 9월 2일 18시 적 제15사단 제50연대는 수석봉과 428고지 일대에 약 40분에 걸친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제16연대의 정면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제16연대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다음날 이른 아침 제3대대가 너름산으로, 그리고 제1대대는 467고지로 물러나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좌우 양측에서 적의 압력을 받은 제2대대는 752고지에서 504고지

로 진지를 전환하고 수석봉과 광천동에서 파상공격을 가하는 적과 교전을 전개하며 가까스로 방어선을 지탱하고 있었다.[195]

9월 3일 아침 적 제15사단은 사단전술지휘소를 602고지에 설치하고 전차 5대로 증강된 주력부대인 예하의 제50연대를 죽장~자양간 도로와 좌우 능선에 투입해 강력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공은 제21연대를 견제하기 위해 노고령과 보현산 정면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전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전력을 다해 진전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하지만 467고지의 제1대대가 9월 3일 오후 배후로 우회한 적의 기습으로 분산 철수함으로써 제2대대와 제3대대도 부득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인접의 수도사단 예하 제18연대는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남북으로 협공을 받고 운주산 남쪽으로 우회하여 영천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8사단 방어지역은 우전방의 수석봉에서 남동쪽 운주산까지 약 8㎞ 구간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제16연대의 주저항선이 붕괴될 위기상황인 것을 인식한 제8사단장은 9월 3일 오후 제16연대장에게 기룡산으로 철수해 742고지~333고지~352고지 선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모든 화력으로 제16연대를 지원하도록 제50포병대대에 지시하는 한편 제1군단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안강-포항지구 전황처리에 급급한 제1군단은 제8사단의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한편 보현산의 전술·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육군본부는 죽장~영천 축선상의 전황에 비추어 병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천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7사단 제5연대(-1)를 9월 3일부로 제8사단에 배속하는 한편 우발사태시 제8사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2군단에 명령하였다.[196]

제16연대는 사단의 진지전환명령에 따라 9월 3일 오후 각 대대에 축차적인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지정된 방어지역에 진지를 편성토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자양에 집결한 제3연대 제1대대를 철수부대 엄호 및 좌측방 제1연대와의 전투지경선에 형성된 공백지대 경계를 위해 기룡산 북쪽 기슭의 435고지로 이동시켰다.

제16연대의 진지전환은 제3대대가 제3연대 제1대대의 엄호 아래 742고지로 철수하고, 제2대대는 지원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549고지와 351고지를 경유해 333고지에 진지를 편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1대대는 지원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352고지로 철수하도록 계획되었다.

제16연대의 진지전환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철수작전 초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제3연대 제1대대가 435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한 무렵, 제16연대 제3대대는 적과의 접촉을 끊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 시기에 보현동 서쪽 2.2㎞ 지점의 818고지로 침투한 적이 제3대대를 측방에서 협공함으로써 철수병력은 일시에 분산되었다. 더구나 상황보고를 받은 제16연대장이 818고지 탈취를 제3연대 제1대대에 명령함에 따라 우군의 엄호를 받지 못한 제3대대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인접부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제16연대 제2대대는 측후방으로 우회한 적에게 포위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전방의 적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에 지원포병화력이 적에게 집중되는 즉시 철수를 개시하였다. 하지만 측방에서 가해진 기습적인 사격으로 지휘체계가 순식간에 와해되어 분산철수할 수밖에 없었다.[197]

이로 인해 대대는 333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지연되었고, 간신히 고지 부근에 도달한 일부 병력도 고지를 선점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333고지는 죽장~자양, 자천~보현동~자양으로 연결되는 두 갈래의 길을 통제하고, 자호천 건너편의 352고지와 함께 자양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지형이었다.

467고지에 배치된 제16연대 제1대대는 계획된 시간 이전에 우회한 적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철수해 군평 마을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352고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증원을 위해 도착한 제5연대 제1대대에 고지를 인계하고 자양을 거쳐 384고지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제16연대의 주력 2개 대대가 진지전환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T-34 전차 5대로 증강된 적 제15사단 주력은 일견마을 부근까지 진출하고 일부 병력은 자양 북쪽 용산동 부근에서 아군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 따라서 제16연대의 방어선은 완전 와해되었고, 제8사단 방어지역 우전방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5) 제5연대의 증원과 적의 최후공세

제6사단에 배속되어 318고지와 655고지 일대에서 교전을 전개한 제5연대는 9월 2일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대구로 이동하였다.[198] 제5연대는 장병들의 피로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제8사단에 배속되어 9월 3일 오후 자양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연대본부와 함께 이동한 제1대대는 일몰 전에 352고지에 진출해 제16연대 제1대대로부터 고지를 인수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신녕 지역 572고지 전투에서 격전을 전개한 제5연대 제2대대는 병력보충이 지연되어 9월 3일 20시 무렵에야 자양초등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199] 이와 동시에 제2대대장은 333고지로 진출해 방어진지를 편성하라는 연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생소한 지형과 불투명한 적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대장은 다음날 이른 새벽에 목표를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이날 밤 대대장은 불길한 예감에 2개 중대를 자양 북서쪽 도로변 능선에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예비로 자양초등학교에 집결시켜 긴급출동태세를 갖추었다.

자정 무렵 적의 기습공격이 시작되자, 어둠 속에서 당황한 아군은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200] 제50포병대대 제1포대는 105밀리 곡사포 4문을 방치한 채 철수하였고, 제16연대와 제5연대 본부는 삼매동 용천마을로 이동하였다. 제5연대 제2대대장은 적의 사격이 시작되자 즉시 자양 북서쪽 도로변에 배치한 2개 중대로 적을 저지하는 한편 예비로 대기시킨 1개 중대로 연대본부와 지원포병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9월 4일 이른 아침 자양을 방어하던 제5연대 제2대대는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저항할 겨를도 없이 분산되어 철수를 시작하였다. 적과 격전을 벌이며 후퇴한 대대장은 자양 서쪽 1.2㎞ 지점 성곡동 부근의 무명고지에서 흩어져 내려오는 병력을 수습하였다.[201]

한편 352고지에 배치된 제5연대 제1대대 역시 9월 3일 자정 무렵에 적의 기습을 받고,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해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의 파상공격이 반복되자, 대대는 노항동을 경유해 용천동으로 철수하여 연대본부와 합류하였다.

제5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직접 지휘하여 자양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적지 않은 병력을 손실했을 뿐 아니라 적 주력부대의 강력한 반격으로 자호천을 건너 372고지로 철수하였다.[202]

한편 제8사단장은 818고지에서 후퇴한 제3연대 제1대대에게 사단 예비대와 함께 9월 3일부로 기룡산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아군은 기룡산에 제21연대와 제16연대 예하의 1개 중대씩을 배치하고 있었다. 제3연대 제1대대장은 "제가 판단하기엔 적의 주공은 전차부대를 선두로 하고 있는 한 산악지대보다는 양호한 기동로인 충효동~영천간 도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6연대가 기룡산을 담당하고 저의 대대는 도로를 맡아 적을 저지하겠습니다."라고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203]



기룡산 전경

제16연대의 전투력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던 제3연대 제1대대장은 자기 대대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의 남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하지만 사단장은 이런 건의를 묵살한 채 앞선 지시를 이행할 것을 다시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연대 제1대대는 기룡산으로 이동했으나, 적이 이미 정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시경 제3연대 제1대대는 어쩔 수 없이 고지 중턱에 병력을 배치하고 밤새도록 적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9월 4일 741고지~충효동 333고지간 능선에 배치된 제16연대는 진지가 와해되어 후퇴하고 있었고, 제2대대와 제3대대 300여 명의 병력만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제3연대 제1대대와 제16연대의 일부 병력이 적의 포위망에 놓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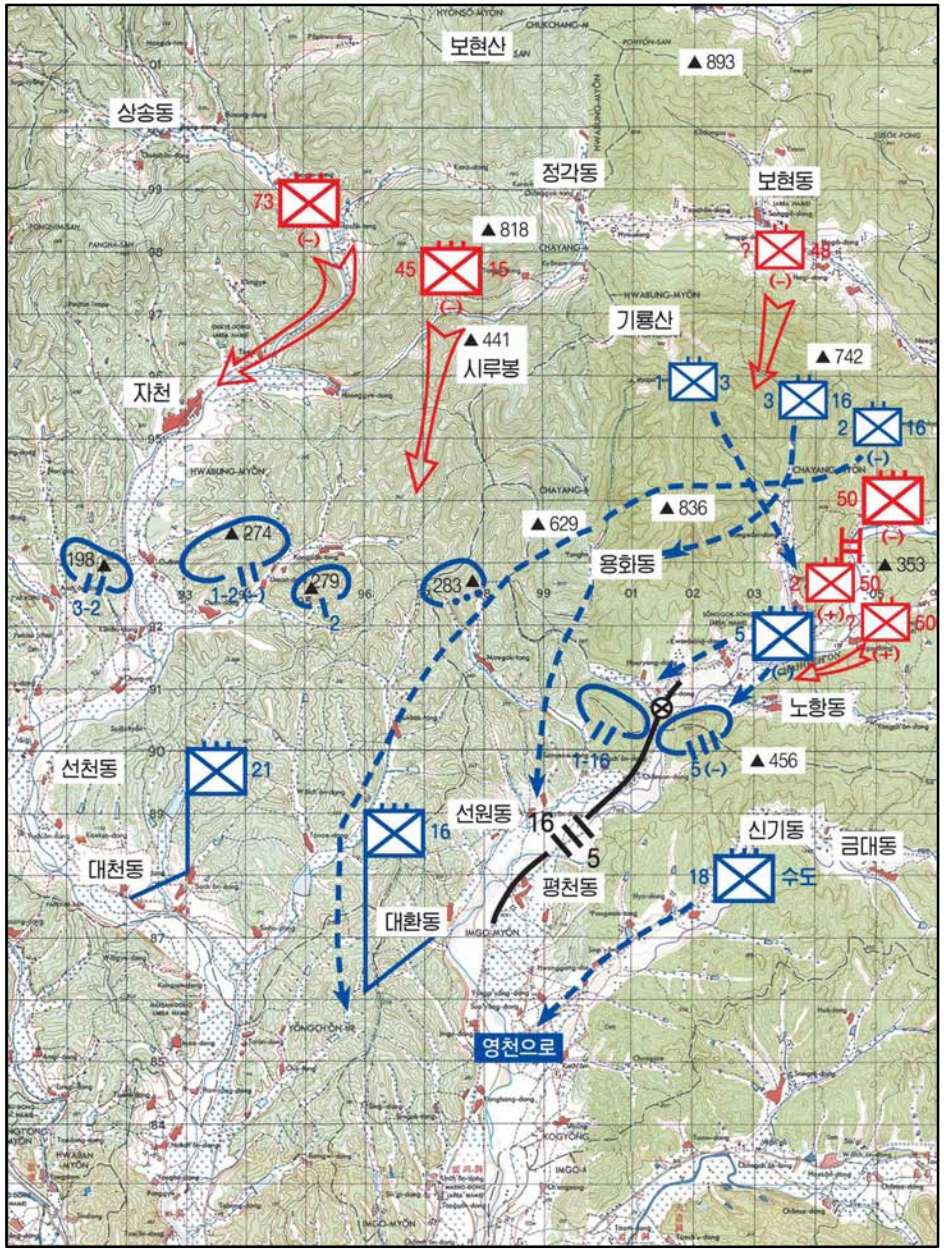
제3연대 제1대대장은 제16연대 제3대대장과의 협의를 통해 선임지휘자가 되어 포위망을 돌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는 제16연대 제2대대 병력 100여 명이 앞장서고, 제3대대가 중간 그리고 후방에는 제3연대 제1대대가 뒤따르며 선두부대를 엄호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405고지 능선과 충효동의 양 능선에서 집중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아군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선두에 섰던 제16연대 제2대대는 적의 포위망을 뚫는데 성공했으나, 탈출시 통로상의 적을 저지하지 않고 평천 방면으로 그대로 이동함으로써 뒤따르던 제3대대는 200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적에게 포위된 제3연대 제1대대장은 사단장에게 "우리 대대는 인구동 북쪽 405고지에 포위되었고, 현재 이곳엔 아군 포병대대의 105밀리 포가 유기되어 이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퇴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지원을 요청하였다.[204]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즉시 지원부대를 파견하려 했으나, 적의 공격을 받은 예하 각 부대는 이에 응할 여력이 없었다.

적은 사방에서 포위망을 압축해왔으나, 포위망에 갇힌 아군은 육박전 등 모든 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망정동 삼거리에서 재집결해 병력을 점검한 결과, 제3연대 제1대대는 1,800명이던 총원이 800명에 불과하였다.

<상황도 5-15> 제8사단 제16연대의 포위망 돌파상황(1950. 9. 3~4)



한편 노고령과 보현산 일대를 방어하던 제21연대는 제16연대 방어지역이 돌파되는 것에 대비해 보현산에 배치된 전투경찰대대를 9월 3일 자천으로 철수시켰다. 그리고 보현산 동쪽에 1개 중대를 증원해 노출된 우측방을 경계하도록 조치하였다.

9월 4일 오후에 제21연대는 사단 작전명령에 따라 노출된 중앙과 우측방에 대비하고, 방어선의 균형유지를 위해 자천 남쪽으로 철수하였다.[205] 그리고 2개 대대를 오동 좌우측의 횡격실 능선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연대전술지휘소를 선천동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아군 제8사단은 결국 보현산을 포기하고 영천 북쪽에서 적 제15사단을 저지하게 되었다.

4. 전투 결과

국군 제8사단은 낙동강 도하로부터 의성 철수시까지 13일간 병력 및 장비의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지연작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국군 제8사단은 안동~의성간 주보급로를 중심으로 축차적인 방어진지를 형성,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여 적 제8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지연시켰다.

이 전투로 적은 동부전선의 진출이 지연되어 왜관 북방에 위치하고 있던 적 제15사단을 청송지역으로 이동시켜 전투력을 보강하게 하는 한편 목표로 한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전반적인 전쟁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왔다. 반면에 아군은 부대를 재편하고 정리하는 한편 보현산과 기계지역 정면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획득하였다.

한편 보현산 일대에 이동해 주저항선을 형성한 제8사단은 험준한 지세를 적극 활용해 22일간 우세한 전력의 적 제8사단과 제766부대를 억류하고 견제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신편으로 인한 훈련부족과 병력 및 장비의 열세에 따른 전력 차는 결국 국군 제8사단을 기룡산 방어선으로 철수하게 작용한 요인이었다.

8월 15일 이후 적 제2군단은 예하의 제8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제15사단을 투입함으로써 국군 제8사단은 방어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보현산지구 전투는 영천지구 전투를 위한 전초전으로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전투였다.

다시 말해, 적이 총력을 집중한 9월 공세로 부득이 제8사단 예하 제16연대와 제21연대, 그리고 제7사단 제5연대와 독립 제1, 제2유격대대, 강원경찰대대 등이 9월 4일을 기해 인접부대와 연결 작전을 위해 다음 진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모든 병력을 집중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천 일대에서 결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제 4 절 영천지역 전투

1. 전투 개요

영천지역 전투는 국군 제2군단 예하 제7사단과 제8사단이 9월 공세로 보현산 방어선까지 진출해 영천 점령을 기도한 북한군 제15사단을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의 공방전을 통해 격퇴하고 영천을 확보한 전투이다.[206]

이 전투에서 국군 제2군단은 기룡산 저지선에서 철수한 예하의 제8사단을 영천 동남쪽의 금호강변에 배치해 영천 지역으로 침공한 적 제15사단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제7사단 및 증원된 2개 연대를 투입해 3일 동안의 교전 끝에 영천을 탈환하고, 이어 영천 동북방의 자천과 372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적 제2군단은 8월 공세에서 구미~다부동~대구 축선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자, 8월 20일 다부동 방면의 공격에 실패한 예하의 제15사단을 의성을 거쳐 영천 동북방 입암리로 이동시켜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제73독립연대 및 제103치안연대와 함께 전차 12대 및 각종 포 166문의 지원 아래 최후 공세를 준비하였다.

적 제15사단은 영천을 점령한 후 대구 또는 경주로 진격한다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연대 병진공격을 전개하였다. 즉, 서측 전방의 제45연대는 대천동에서, 중앙의 제48연대는 평천동에서, 그리고 동측 전방의 제50연대는 상리동에서 각각 영천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제73독립연대와 제103치안연대는 예비로 두었다.

반면에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8사단은 보현산과 입암리 선에서 9월 2일까지 적을 저지하고, 9월 4일 기룡산 일대로 철수해 서로부터 제21연대, 제16연대, 제7사단 제5연대를 배치하는 한편 제21연대와 제16연대 사이의 공백지대

에는 제7사단 제3연대 제1대대를 배치해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영천에 대한 점령전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3회의 공방전만 전개되었고, 대부분의 전투는 주로 영천 북쪽과 남쪽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영천 북쪽에 배치된 제21연대는 적 2개 연대의 공격을 저지 및 견제하고, 제19연대는 적의 후방부대와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영천 남쪽에 진지를 점령한 제5연대와 제10연대는 적의 남침을 저지하고 적 제15사단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북쪽 선천리의 제21연대로부터 남쪽 아화리의 제5연대까지 낚시바늘 모양의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9월 10일 영천~경주간 도로 남쪽에서 반격을 시작한 국군은 9월 13일 구전동~자천동~삼매동 북방~인구동 남쪽을 연결하는 9월 공세 이전의 제8사단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이로 인해 적 제12사단과 제8사단은 후방과 측면을 위협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적 제8사단은 진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영천은 대구와 포항의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적이 영천을 점령할 경우 국군 제1군단과 2군단의 분리뿐 아니라 아군 유일의 동서보급로 차단이 가능하였다. 또한 적이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면 왜관과 다부동 일대의 국군과 미군 방어선의 후방이 차단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적이 경주 방면으로 진출해 제12사단과 제15사단이 합세할 경우 부산에 이르는 통로가 개방되어 부산교두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5개 연대를 투입해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한 적 제2군단에 맞서 국군은 제8사단은 물론 신편된 제7사단의 3개 연대,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차출한 2개 연대를 투입해 방어조치를 취하는 등 육군본부와 군단의 시의적절한 지휘조치로 위기를 극복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할 수 있었다.

아군이 수세에서 공세로 이전하는 전국(戰局)의 전환점이 된 영천지구 전투는 적 제15사단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이 예정한 작전계획의 골간을 분쇄하고 전략의 근본방침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아군은 국군 단독으로 전개한 군단 반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총공세를 단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전투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950년 9월 1일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의 제15사단을 수도사단 정면에 투입하여 최후의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들은 영천을 점령한 후 경주 또는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영천을 점령하면 적은 융통성 있는 공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군 유일의 동서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이에 아군 제8사단은 보현산과 입암리 선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기룡산 좌우 능선의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였다.

영천지역 전투에는 북한군 제15사단과 배속된 제73독립연대 및 제103치안연대가 참여하였다. 이들 부대의 주요 지휘관은 제15사단장 박성철 소장과 후임인 조열광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김연 대좌, 제45연대장 이철룡 대좌, 제48연대장 김치규 대좌, 제50연대장 이을설 대좌, 포병연대장 심운경 대좌였다. 배속부대인 제73독립연대장은 이주원 중좌, 제103치안연대장은 전윤필 대좌였다.

한편 적 제15사단은 12,000명의 인가 병력 중 8월말에는 보충병을 포함해 약 4,200명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보유 장비는 122밀리 곡사포 12문과 76밀리 곡사포 24문, SU-76 자주포 16문 등 낙동강 중동부지역 전선에 투입된 인접 사단과 비슷한 수준의 주요 장비를 보유하였으나, 9월초의 보유량은 122밀리 곡사포 8문, 76밀리 곡사포 15문, SU-76 자주포 3문 등 50%이하로 감소되었다.[207]

2) 국군 상황

영천 정면의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은 1950년 9월 4일 예하 2개 연대와 배속된 1개 대대로써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제8사단은 기룡산 좌우 능선의 새로운 방어선으로 후퇴해 오른쪽에 제7사단 제5연대, 중앙에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 왼쪽에 제21연대 순으로 배치하였고, 제8사단 오른쪽에는 제7사단 제5연대가 372고지~489고지간 능선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8사단의 왼쪽에는 제6사단이, 우측에는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운주산에 배치된 제18연대가 9월 5일 제12사단의 공격을 받고 기계 방면으로 철수함에 따라 14㎞의 간격이 발생하였다.

한편 영천지역 전투에 참전한 제8사단은 약 8,100여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을 비롯해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 제16연대장 유의준 중령, 제21연대장 김용배 대령이었다. 또한 제7사단은 사단장 신상철 대령을 비롯해 제5연대장 최창언 대령, 제8연대장 박승일 중령이었다. 제8사단 및 제7사단, 그리고 배속부대의 지휘관 현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영천지역 전투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2군단	군단장	준장	유재흥(劉載興)	
제8사단	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제10연대장	중령	고근홍(高根弘)	
	제1대대장	소령	박치옥(朴致玉)	
	제2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3대대장	소령	하병래(河炳來)	
	제16연대장	중령	김동수(金東洙)	
			유의준(兪義濬)	'50.8.11 이후
	제1대대장	중령	유의준(兪義濬)	
	제2대대장	중령	김 헌(김 헌)	
	제3대대장	소령	김영철(金永哲)	
	제21연대장	대령	김용배(金容培)	
	제1대대장	소령	임익순(林益淳)	
	제1대대장대리	대위	채명신(蔡命新)	'50.8.8 이후
	제2대대장	소령	이원익(李源益)	
	제3대대장	소령	이창률(李昌律)	
	제50포병대대장	중령	정인완(鄭寅院)	
	공병대대장	소령	김 묵(金 默)	
제7사단	사단장	대령	신상철(申尙澈)	
	제3연대 제1대대장	소령	정 진(鄭 震)	
	제5연대장	대령	최창언(崔昌彦)	
	제8연대장	중령	박승일(朴昇日)	
배속부대	제1사단 제11연대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제6사단 제19연대장	중령	김익렬(金益烈)	
	제26연대 제3대대장	소령	신건선(申健善)	

제8사단이 보유한 무기 및 장비는 편제상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현지 관서의 협조와 후방으로부터의 추진으로 충족하였으며, 탄약의 보급도 대체로 원활하였다.

3. 전투 경과

1) 영천 북방 기룡산 방어선 전투

(1) 기룡산 방어선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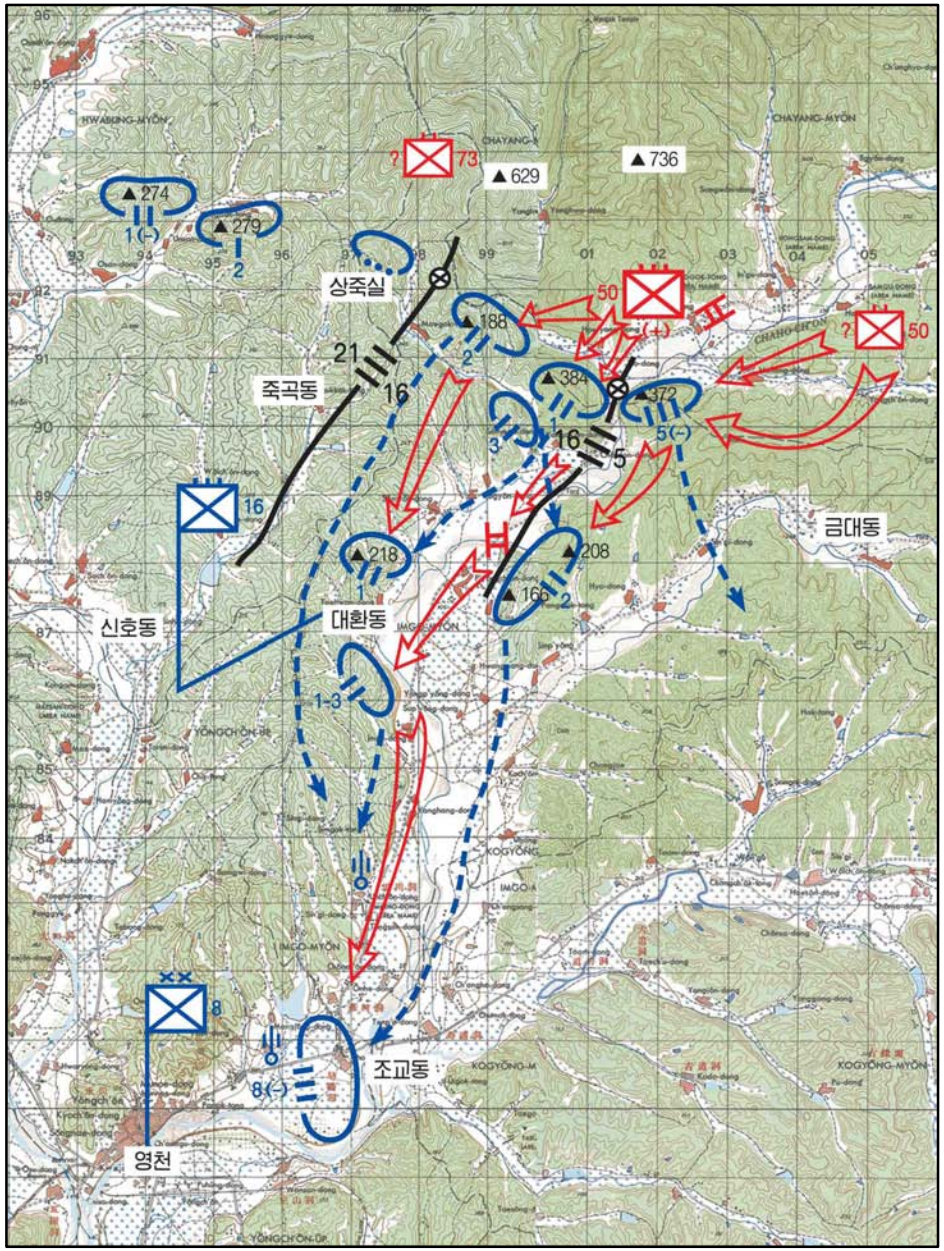
보현산 지구를 방어하던 제8사단은 9월 2일 야간에 적 제15사단의 공격을 받고 분전했으나, 다음날 주저항선상의 우일선인 제16연대의 방어진지가 붕괴되면서 영천 북방의 기룡산 일대로 철수하였다.[208] 그리고 9월 4일 오후에 이곳의 횡격실 능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진지의 편성에 착수해 좌일선에 제21연대, 중앙일선에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 우일선에 전날 배속된 제7사단 제5연대를 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은 이날 24시부로 배속된 제7사단 제8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편성[209]하는 한편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영천 동북쪽 조교동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도록 제8사단 및 제7사단 공병대대에 지시하였다.[210]

한편 적 제15사단장은 "제12사단은 안강을 돌파하고 경주 점령을 목전에 두었는데, 귀 사단은 왜 영천을 점령하지 못하느냐"는 군단장의 심한 질책을 받고 전차 12대와 각종 포 166문의 지원으로 영천을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하였다.[211] 9월 5일 01시 적 제15사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입암과 영천 사이의 도로를 따라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212]

적의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이 방어진지에 가해지자, 진지구축이 허술한 아군은 작렬하는 적의 포탄에 희생자가 늘어갔다. 교전을 개시한지 30~40분이 경과할

<상황도 5-16> 제8사단 제16연대의 384고지-372고지 방어상황(1950. 9. 4)



무렵 좌측방으로 우회 침투한 적의 일부가 방어진지의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진내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불리한 상황에도 끈질기게 저항하던 아군은 결국 지휘체제가 와해되어 분산 철수를 단행하였다.

중앙에 배치된 제16연대는 736고지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해 공격해오는 적과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하였고, 전방 2개 대대의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직전 철수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예비 병력인 제3대대를 용천동 서쪽의 188고지로 급파하였다. 그리고 양항동 북쪽의 277고지를 점령한 제3연대 제1대대가 엄호하는 동안 분산되어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였다.

연대는 이어 제1대대를 218고지에, 제2대대를 자호천 동쪽 건너편의 166고지~208고지에 각각 배치해 이 선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연대 제1대대는 제16연대의 철수로 측면이 노출됨에 따라 부득이 4㎞ 후방의 대환동~평천동 선으로 철수하였다.[213]

적이 사단 방어선의 중앙을 돌파하자, 우일선을 점령하고 있던 제5연대는 적지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제5연대는 372고지에서 육박전을 펼치는 등 치열한 교전을 전개해 적의 첫 번째 공격을 저지하였고, 이후에도 반복된 적의 파상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제16연대 제1대대가 384고지로부터 철수한 후 금대동으로 우회기동한 적의 협공을 받고 분산되었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21연대는 02시경 우측의 제3연대 제1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현 전선으로부터 약간 물러나 2개 대대병력의 적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03시경 1개 중대규모의 적이 우측의 공간지대를 통해 218고지를 점령하자, 연대 후방에 위협을 느낀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2대대를 투입해 06시경에 고지를 탈환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적의 선봉대가 평천동~대환동 선에서 병력을 수습중인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공격함으로써 우측방이 노출된 연대는 부득이 선천동~대환동 선으로 철수하였다.[214]

한편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던 적은 9월 5일 아침에 용천동 일대에서 공격을 일단 중지하였다. 이때 분산 철수하던 제16연대는 낙오병을 수습하고 각종 보급품을 추진하며 전투력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지원포병의 화력을 제16연대



선천동 전경

방어정면에 지향하고, 사단 직할대 병력으로 예비대를 편성해 영천 동쪽 외곽선에 배치하였다.

이날 08시 15분에 3대의 전차를 앞세운 2개 대대규모의 적은 자양~영천간 도로를 따라 양항동까지 진출해 도로 양쪽의 218고지와 208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6연대는 강력한 화력과 전차로 증강된 적의 공격에 압도되어 교전 2시간 만에 단포동~언하동 선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양항동 뒷산에 배치된 제3연대 제1대대 또한 13시까지 제16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사단장의 승인 아래 조교동에 배치된 제8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영천으로 철수하였다.[215]

이에 앞서 육군본부는 제8사단의 방어선 중앙이 돌파됨에 따라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위해 9월 5일 10시 30분을 기해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제8사단의 배속을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사단 전투지경선을 군단 전투지경선으로 변경하였다.[216]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영천경찰서에 설치된 전술지휘소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사단장은 모든 가용 병력을 영천 외곽에 배치해 적을 저지한 후 시가

전을 전개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무렵 적 제48연대와 제50연대는 대구~영천간 도로를 통해 영천 동북방 3㎞ 지점의 언하동과 창하동 일대까지 접근하였고, 22시경에는 이 선을 돌파해 영천 동쪽 1㎞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사단장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전차대대와 배속부대인 제7사단 제8연대의 2개 대대를 출동시켰다. 이들 증원부대는 약 5시간에 걸친 화력전과 백병전을 전개해 적을 조교동 방면으로 격퇴하였다.

(2) 군단장의 방어 작전과 고수 의지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안강이 다시 피탈되고 제8사단 제16연대가 영천 동북쪽 11㎞ 지점까지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본부 및 사령부를 부산으로 이동하는 대신 작전지휘는 대구의 전방지휘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9월 5일 오전에 대구를 떠나 부산 동래로 이동하고, 대구 방어임무는 제7사단에 부여하였다.[217]

육군본부는 영천 북방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교통 및 통신의 제한으로 제1군단이 영천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9월 5일 10시 30분을 기해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 배속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영천과 아화 일대를 제2군단 작전지역에 포함시켜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218]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보현산 일대의 전황을 예의 주시하던 중 영천의 피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대책 마련에 몰두하였다. 9월 5일 아침 신녕 부근의 제6사단 전선을 시찰하고 하양의 군단사령부로 복귀한 군단장은 제8사단의 방어진지가 돌파되었다는 급보를 받았다.

군단장은 영천 전선이 붕괴되면 적은 대구나 경주 방면으로 진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적이 대구 방면으로 진격할 경우 제2군단뿐 아니라 미 제1기병사단의 후방까지 차단될 것이고, 경주 방면으로 진격하면 그들의 제12사단과 합세해 직접 부산을 지향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영천 방어선의 붕괴는 모든 전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219]



제2군단사령부가 설치되었던 하양초등학교

이에 따라 군단장은 적의 남진을 일단 저지한 후 우세한 병력과 화력으로 적을 영천 방어선에서 섬멸하기로 결심하고,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 그리고 군단 참모장 이한림 대령과 군단 작전참모 이주일 대령을 불러 급히 군단작전회의에 들어갔다.

군단장은 영천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을 차출해 병력을 집중 운용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사단장들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군단장의 구상에 반대하였다.

군단장은 "적의 주공이 영천 정면인 것은 이미 명백해졌다. 영천을 확보해야만 제1사단과 제6사단의 전선도 견제할 수 있다. 적은 이번 공세에서 이미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을 전용해 중점적으로 집중 사용한다면 적을 격파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이에 사단장들은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병력 차출에 응하기로 하였다.[220]

한편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차의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군

단장은 미 고문관 락크웰(L. H. Rockwell) 중령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 인접한 미 제1기병사단 지휘소를 방문해 사단장 게이(Hobert R. Gay) 소장에게도 전황을 설명하며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게이 소장은 자신들의 방어정면도 상황이 불안정해 전차지원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귀하의 군단은 계속 후퇴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였다. 군단장은 "더 이상의 후퇴는 없습니다. 전차지원이 곤란하다면, 나는 전차 대신 직접 선두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결연하게 답하였다. 이에 게이 소장은 전차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 지휘소를 떠나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에 도착한 군단장은 사령관 워커 중장을 만나, "현재 제2군단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차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전차의 지원이 없을 경우 영천 방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전황보고를 듣고 난 워커 사령관은 게이 소장과 다시 협조하라고 말하였다.[221]

군단장은 곧바로 하양의 군단사령부로 복귀하였으나 전황은 여전히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군단장은 다시 제8사단사령부로 나가 전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9월 6일 아침을 기해 미 제1기병사단이 전차 1개 소대를 직접 지원한다는 미 제8군사령부의 통보를 받았다.

2) 영천지구 공방전

(1) 영천 피탈과 아군의 반격

영천 동쪽 외곽에 배치된 아군은 강력한 저항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조교동 방면으로 물러나 영천 시가지에 포격을 가하던 적의 주력은 9월 6일 03시를 기해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병력을 증원한 적이 전차를 앞세우고 영천을 향해 진격하자 영천 동북방에서 격전을 벌이던 제16연대와 제8연대 그리고 제3연대 제1대대와 대전차대대는 금호강 남안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02시 30분경 제8사단 작전참모 권태순 중령은 대전차대대와의 통신

이 두절됨에 따라 전황파악을 위해 조교동으로 향했다.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적의 습격을 받은 작전참모가 사령부로 복귀해 사태의 긴급함을 보고하자, 사단장은 사단지휘소를 오수동으로 이동시키고 사단본부중대를 금호동 제방에 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각 연대장에게 오수동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군단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증원부대를 요청하도록 작전참모에게 지시하였다.

사단 좌일선의 방어를 담당한 제21연대장은 사단사령부와 통신이 두절되면서 현 진지를 사수하도록 각 대대장에게 명령하였다.[222] 또한 사단 우일선의 제5연대도 통신두절로 인접부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오무렵 제21연대와 사단사령부간의 통신은 개통되었지만, 적은 이미 07시경에 영천 시가지를 점령한 후 남하하고 있었다.[223] 그리고 일부는 조교동에서 금호강을 도하해 철로를 따라 경주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적의 기도를 간파한 사단장은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철수부대를 즉시 금호동 북안에 배치하고 반격준비를 명령하였다. 08시경 적은 완산동의 155고지 일대와 금노동 고지에 병력을 배치하고 임포동을 향해 남진을 계속하였다.

한편 영천이 함락된 후 제2군단장은 오수동의 제8사단사령부에 도착해 전황을 보고받았다. 이때 5대로 편성된 미군 전차 1개 소대가 제1사단 제12연대의 전차 엄호부대와 함께 도착하였다. 군단장은 이들을 직접 지휘하며 영천 시가로 진입했으나, 적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224]

전차소대는 영천역을 지나 도동에 진출한 공병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제8사단 공병대대는 2개 중대를 일선 배치하고 대대본부는 1개 중대의 예비대와 본부중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든 병력을 성내동의 낮은 고지로 이동해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대대장 김묵 소령은 부사단장 윤춘근 대령으로부터 영천 시가지의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대장은 작전과장과 공격계획을 세우고 대대본부의 병력 가운데 선참 부사관 위주로 공격중대를 편성해 08시에 영천 시가지로 돌진하였다. 적의 저항을 받지 않은 대대는 사단사령부를 탈환하고 영천역을 향해 진격하였다. 대대는 영천역

을 경비하고 있던 적을 기습공격해 완산동의 155고지로 격퇴시키고, 10시경에 영천역을 점령하였다. 또한 영천역 남쪽의 130고지에서 적이 사격을 개시하자 이를 공격해 점령함으로써 공병대대는 영천을 탈환하였다.[225]

적은 130고지에서 작산동으로 물러나 155고지와 139고지, 금노동 고지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작산동 남쪽의 과수원에 전차 2대와 대전차포, 차량 등을 은폐시켜 아군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대대는 미군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으며 고지를 공격해 일대를 점령했으나, 21시에 조교동 방면의 적의 공격을 우려해 관정동으로 내려와 경비태세에 돌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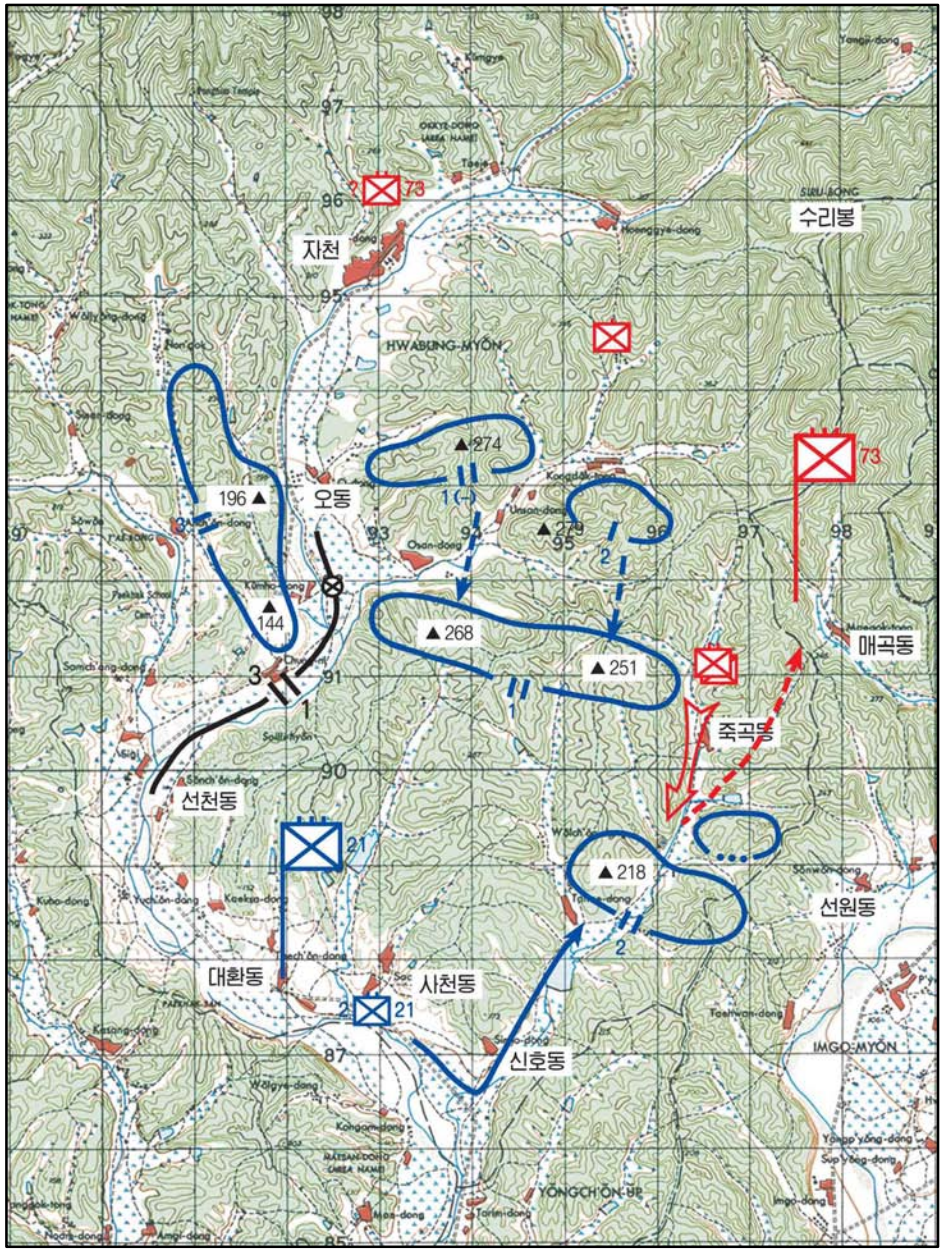
적의 중앙돌파로 고립된 제8사단 우측의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산악지대를 이용해 경주 방면의 건천으로 철수했으나 연대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연대장 최창언 대령은 연대본부요원 및 제3대대와 제16연대의 일부 병력을 직접 이끌고 적진을 돌파해 영천 시가지로 돌입했으나, 아군이 이미 영천 시가지를 탈환한 후였다. 연대장은 지휘소를 지소동에 설치하고 향내동과 야사동에 부대를 배치해 영천 외곽지대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2) 218고지~208고지 공방전

한편 9월 5일 아침 제8사단의 좌일선인 제21연대는 제16연대의 철수로 우측방이 노출됨에 따라 예하의 제1대대를 현 방어선 남쪽 1㎞ 지점의 268고지 선에 재배치하였다.[226] 그리고 포로의 진술을 토대로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 전방의 2개 대대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천동에 집결 대기하고 있던 제2대대를 사천동으로 이동시켜 방어지대 우측방에서 발생되는 우발사태에 대비토록 지시하였다.

제2대대장은 9월 6일 야간에 대대 수색대를 죽곡동 일대에 침투시켜 적정 수색을 전개하였다. 수색대는 마을 주민을 통해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대대는 지대내 중요 지형인 218고지 점령에 착수하였다. 기룡산 남사면 중턱에서 신호동으로 연결된 능선과 계곡 접근로에 있는 218고지는 적이 점령한 후 신호동으로 진출해 의성~구산동~영천으로 연결되는 917번 도로를

<상황도 5-17> 218고지 전투상황(1950. 9. 7)



차단하면 제21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수 있고, 적 제15사단은 917번 도로를 주보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제2대대는 9월 7일 04시에 218고지를 목표로 진출해 동이 트기 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얼마 후 적 제73독립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가 밀집대형으로 접근하였고, 대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해 사격을 가하는 한편 지원포병은 탄막포격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적은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궤멸되다시피 하였고, 일부 살아남은 병력은 분산되었다.

대대는 전과확대로 전환해 상죽실 마을의 적 제73독립연대 본부를 습격해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적 제73독립연대는 2개 대대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제21연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917번 도로를 확보하려던 기도가 실패하였다. 이후 대대는 연대의 명령에 따라 1개 중대를 218고지에 배치하고 주력은 대천동으로 이동해 연대 예비로 집결 대기하였다.

268고지~251고지 간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21연대 제1대대는 9월 6일 16시 방어정면인 오산동에 출현한 적 제45연대 예하의 1개 대대와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선천동 북쪽 능선으로부터 신기동 서남쪽 181고지에 이르는 선에 고립되어 있던 제21연대는 적 제45연대의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9월 6일 오후 적 제45연대가 영천 방면으로 남하하면서 제21연대에 대한 정면 공격임무는 제103치안연대와 제73독립연대가 담당하였다. 적 제103치안연대는 제21연대의 좌측을 계속 공격했으나 우측방의 공격을 담당한 적 제73독립연대는 제21연대 제1대대와의 교전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제21연대의 좌측에 배치된 제2대대는 9월 7일 미명에 적 제103치안연대로부터 전면공격을 받았다. 후퇴하던 대대는 약수탕 북쪽의 310고지에서 적이 8부 능선에 도달하자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해 적을 격퇴하였다. 이후 적은 고지 점령을 위해 파상공격을 가해왔으나, 대대는 진전에서 이를 저지하고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적 제103치안연대는 이 전투에서 주력이 거의 전멸되어 전투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적 제73독립연대 주력은 9월 8일 제21연대의 우측 정면인 대환동 후방능선~208고지 선에 공격을 단행해 208고지를 점령하였다. 208고지는 기룡산에서 영천으로 뻗어 내린 능선 접근로의 길목으로 영천~자천간 917번 도로와 영천~자양간 도로를 감제하고, 181고지에서 179고지와 156고지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영천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요 지형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208고지를 탈환한 후 양항동까지 방어지역을 확대해 적 제15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제21연대에 지시하였다. 연대는 제3대대의 제9중대와 제11중대를 차출해 제1대대에 배속하고 목표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해질 무렵 방어진지를 제2대대에 인계한 제9중대와 제11중대는 20시경 목표의 남쪽 1.5㎞ 지점의 181고지로 진출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수색대를 208고지 부근에 침투시켰다.

이 무렵 감소된 1개 대대규모의 적은 208고지를 점령한 후 능선을 타고 남진하였는데, 이를 탐지한 아군은 181고지 북쪽 600m 지점의 무명고지에서 매복 대기하다 기습공격을 실시하였다. 208고지를 탈환한 아군은 제9중대를 208고지에서, 제11중대를 동쪽의 무명고지에서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23시경 적은 208고지를 포위하고 사격과 기동을 연결시키며 접근해왔으나, 아군은 진내 백병전까지 전개하며 적을 격퇴하였다.

제21연대장은 208고지와 북쪽 지역의 적정을 보고받고 제1대대 방어지역을 양항동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대대는 제1중대를 영천~자양간 도로를 통제하는 180고지에 배치함으로써 영천~자양간 도로는 망정동의 100고지와 180고지에서 종심 깊게 차단되었다.

적 제103치안연대와 제73독립연대는 전열을 정비해 9월 9일 11시에 제21연대 정면에 최종공격을 감행했으나, 이미 전의를 상실한 적은 진전에서 격퇴되었다. 3개 연대로 제8사단 방어선의 중앙을 돌파하고 24㎞나 전진했던 적 제15사단은 우일선에서 2개 연대가 제21연대에 의해 궤멸됨으로써 영천 남쪽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227]

(3) 제2차 영천 공방전과 아군의 반격

9월 6일 정오경 적 제50연대는 영천에서 반격을 시도하는 아군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완산동 155고지에 배치한 채 임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 제48연대의 2개 대대도 제50연대를 계속 후속했으나 1개 대대는 영천을 점령하기 위해 방향을 선회하였다.[228]

한편 제8사단에 배속된 제6사단 제19연대는 이날 18시에 영천 서북쪽 4㎞ 지점의 신당동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1연대의 우측방 엄호를 위해 집결지를 출발하였다. 이때 각 대대의 목표는 제2대대가 영천 서부 입구 삼거리~125고지, 제3대대가 야사동 일대 야산 지대, 그리고 제1대대가 156고지~100고지였다.

9월 6일 야간에 연대 선봉대대로 신당동을 출발한 제2대대는 야산 지대의 능선을 타고 진출하던 중 방향을 잃고 주민의 도움으로 다음날 04시경 영천 중심부의 삼거리로 진입하였다. 잠시 후 동쪽의 조교동 방면에서 전조등을 켠 적의 보급품 수송 차량대열이 접근하는 것을 목격한 대대장은 적소에 병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통과하길 기다렸다.

마침내 차량대열이 중간쯤 통과할 무렵 대대는 모든 화기를 집중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일대에 배치된 병력과 합세해 응전하였으나, 연대의 57밀리 대전차포의 집중포격에 거의 전멸하였다. 이 교전에서 제19연대 제2대대는 30여 대의 적 보급차량을 파괴함으로써 영천 남동쪽 일대로 진출한 적 제15사단의 작전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왔다.[229]

제19연대장은 이어 금호강으로 진격하려는 제2대대를 만류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목표를 점령하고 방어진지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제1대대는 망정동 100고지 일대에 주력을 배치해 28번 도로를 통제하도록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9월 7일 181고지와 176고지의 적을 공격한 제2대대는 08시 30분경 고지를 점령한 후 영천 시가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4시경에는 영천 시가에 침입한 적을 몰아내고 영천을 탈환하였다.[230] 또한 망정동으로 이동한 제1대대는 적의 전방지휘소를 공격해 점령하였고, 동산동 방면으로 물러났던 적은 전방지휘소를 대의동에 설치하였다.

제19연대의 공격에 대환동 방면으로 후퇴한 적은 22시 30분경 신기동 방면으로 반격을 시작했으나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역포위 작전에 걸려 실패하였다. 영천 시가와 뒷산 일대를 완전 장악한 제19연대는 망정동 남쪽 어귀 100고지의 전술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날 저녁 고지 좌우 능선과 정상에 제1대대 예하의 1개 중대씩을 배치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에 대비하였다. 100고지는 부근 일대의 개활지를 감제하고 28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이었다.

9월 8일 04시 제1대대는 제16포병대대 제2포대의 일제사격(TOT)을 비롯해 대대의 모든 화력을 살상지대에 집중하였다. 포격이 종료된 후 살상지대를 수색한 대대는 수많은 적의 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대의 살상지대 포격과 방어진지의 재편성이 완료되고 잠시 후 적 제45연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주력을 단포동에 전개해 대의동과 완산동으로 진출시키고, 언하동에 산개한 조공 병력은 망정동으로 접근해왔다. 개활지를 횡단한 적은 아군의 포격에 노출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일부 병력은 100고지에 있는 제19연대 제1대대의 화망 속에서 격멸되었다.

이처럼 적은 많은 병력을 손실한 후에 공격 방향을 변경하였다. 완산동으로 진출한 적 제45연대는 제50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병력과 합세해 139고지와 130고지 쪽에서 저항하는 아군 제11연대를 포위하고 영천을 남쪽에서 공격하였고, 100고지 정면에 투입된 일부 병력을 북쪽의 179고지~177고지 방향으로 우회시켰다. 이에 연대장은 제2대대의 방어지역을 인수해 영천 북쪽의 고지군을 방어하도록 제3대대에 지시하고 제2대대를 177고지로 급파해 우회침투하는 적을 격퇴하였다.

적 제15사단은 공격을 개시한 지 6시간이 지나도록 영천을 점령하지 못하자, 공격부대에 전차 2대를 증원하고 영천 뒷산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금호강을 건너 11시 30분에 영천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전투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 추가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없었다.

이를 포착한 제19연대는 역습을 단행해 약 1시간 만에 적을 금호강 남쪽으로 격퇴시키고 영천을 탈환하였다. 전술지휘소에서 상황 추이를 지켜보던 사단장은

적을 포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에 따라 15시부터 각 부대별로 총공격을 지시하였다.[231]

① 사단사령부를 오수동에서 금호로 이동한다.
② 제21연대는 전술지휘소를 대천동에 두며, 현 방어지역을 계속 확보하고 명령에 따라 208고지~양항동으로 진출한다.
③ 제19연대는 전술지휘소를 오수동에 두며, 조교동~단포동으로 진출해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
④ 제16연대는 전술지휘소를 신월동에 두며, 유봉산~금호강변 방어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명령에 따라 작산동~완산동으로 진출한다.
⑤ 제11연대는 전술지휘소를 봉죽동에 두며, 188고지로 진출해 영천, 임포를 양단한다.
⑥ 제8연대(-1)는 전술지휘소를 대창동에 두며, 채약산에 출현한 수 미상의 적을 격멸하고, 유하동~304고지로 진출한다.
⑦ 제5연대(-1)는 전술지휘소를 아화에 두며,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임포 동쪽 방산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15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19연대 제2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목표를 탈취하는데 실패하고, 연대의 승인 하에 156고지로 복귀해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9월 9일 제19연대는 어제 저녁 제1대대가 점령한 망정동 10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단행한 적을 격퇴하고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야사동으로 진출해 야간에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는 영천 방면에서 퇴각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기 위해 요지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4) 155고지 전투와 적의 역습

제1사단 제11연대(-1)는 9월 6일 정오경 제8사단으로의 배속명령을 받고 영천 서남방 6㎞ 지점의 금호로 이동해 연대지휘소를 설치하는 한편 주력을 봉정동

175고지와 150고지의 능선에 배치하였다. 제11연대에 배속된 제17포병대대 B포대 역시 도동 방면에서 출현하는 적을 포격하기 위해 원제동(신흥동)으로 이동해 6문의 57밀리 대전차포를 봉정동 140고지에 배치하였다.[232]

9월 7일 정오 무렵 제11연대는 금노동 후방에서 남진하고 있는 적에 대한 기습공격을 계획하였다. 연대는 유봉산에서 금호강을 도하해 완산동 155고지에서 저항하는 적을 제17포병대 B포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격퇴하고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조교동 방면에서 철로를 따라 남진한 적 제45연대로부터 고지 좌우측에서 공격을 받았다. 즉시 대응에 나선 연대는 불리한 전세로 부득이 금노동~작산동 선으로 후퇴하고 사주방어에 돌입하였다.

어둠을 틈타 포위 공격을 가하던 적은 9월 8일 06시에 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포병의 강력한 화력지원 아래 영천을 향해 진격하였다. 약 1개 대대의 적은 대의동에서 공격을 가해왔고, 또 다른 1개 대대규모의 적은 제11연대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하며 화력을 집중하였다. 제11연대는 짙은 안개 속에서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탄약과 보급품의 소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08시경 연대장 김동빈 대령은 포위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전방지휘소를 관정동으로 이동한 후 신병 1개 중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보급로를 타개하기 위해 죽방동과 도남동을 연하는 선에서 반격을 실시했으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적의 포위망 돌파에 실패한 제2대대장은 15시경 제3대대장을 만나 타개책을 숙의하였다. 그 결과, 제2대대는 도남동 일대의 논으로 그리고 제3대대는 좌측 능선을 타고 돌파하기로 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 제2대대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적의 완강한 포위망을 뚫고 105고지로 탈출했으나, 능선을 타고 경주 방면으로 철수하던 제3대대는 도중에 적의 저지공격으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병력을 수습한 후 관장동에 집결해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다.

제11연대는 9월 9일 08시 30분 105고지와 구암동 163고지의 적을 격파하고 진지를 점령하였고, 13시에는 유하동 서쪽 130고지의 적을 격퇴한데 이어 18시에

는 유하동 일대를 확보하고 반격준비에 착수하였다. 제17포병대대 제B포대는 제11연대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해 금노동과 유하동 그리고 채신동과 송포동 일대의 적 진지에 포격을 가해 적을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5) 적의 남하와 제7사단의 저지

9월 6일 08시에 제3연대 제1대대는 미군 전차소대의 지원 아래 영천 시가에 진입해 적을 몰아내고 영천을 점령하였고, 다음날인 9월 7일 새벽에 영천 남쪽의 과수원에 다시 침입한 적을 격퇴하고 지역을 확보하였다. 아군의 총반격과 함께 동북방으로 북상하던 제3연대는 9월 10일 경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따라 원대로 복귀하였다.[233]

한편 군단 예비대인 제7사단 제8연대(-1)는 9월 5일 야간에 영천 동북쪽의 단포동~언하동 선에서 방어하던 중 오수동으로 후퇴해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9월 8일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던 적은 제5연대에 의해 임포 부근에서 저지되자, 채약산으로 침투해 아군의 양분을 기도하였고, 1개 대대 병력이 채약산을 거쳐 대구 남쪽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제8연대는 지휘소를 대창동으로 이동하고 연대 주력을 채약산에 배치해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적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18시 30분경 고지 일대에 침입한 적은 마침내 물러나 시화동 일대의 병력과 합세하였다. 이날 아군은 북쪽의 제21연대로부터 낚시 바늘 모양의 방어선을 형성해 적 제15사단을 압박하였다.

9월 9일 14시 30분에 제8연대는 제11연대와 함께 일부 병력으로 채약산에서 진격을 개시해 괴연동을 거쳐 유상동으로 진출, 영천~경주간 도로 남쪽에 침입한 적을 물리쳤다. 또한 19시 15분에는 유상동 우측의 303고지를 확보하고 반격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5연대장 최창언 대령은 9월 6일 정오경 제3대대 병력을 수습해 영천 시가로 진입했으나, 9월 4일 야간전투 이후 통신이 두절된 제1대대와 제2대대는 행방이 묘연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영천이 함락되어 퇴로가 차단되자, 372

고지에서 흩어진 병력을 창평동 일대에서 수습한 후 경주를 목표로 야산 지대를 통해 이동하였다.

9월 7일 오후 공군 정찰비행부대 소속의 L-5 정찰기는 소속 미상의 부대가 건천 방면으로 남하중인 것을 발견하고 제2군단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에 보고하였다. 제2군단장은 이들이 제5연대 병력인지 확인할 것을 제7사단장 신상철 대령에게 지시하였다. 제5연대장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행방이 묘연했던 자신의 연대 주력인 것을 확인하고 아화로 이동시켰고, 21시경 아화 지서에 도착해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육군본부는 영천에서 경주 방면으로 이동한 적이 임포까지 진격하면서 경주 좌측방이 노출되자, 안강 방면에서 전투중인 제26연대 제3대대를 9월 7일 18시에 아화 서북쪽 2.5㎞ 지점의 295고지로 급파하였다. 이들은 고지를 점령하고 적의 남하에 대비했으나 접적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월 8일 제26연대는 아화 방면으로 남하하던 적이 임포 남쪽에서 병력을 집결하고 재정비중인 것을 알고 기습을 감행하였다. 한편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08시경 아화를 출발해 295고지에 도착, 제26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적의 진격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제5연대 제3대대는 9월 8일 아침 야사동을 출발해 지소동 선에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였다.

9월 9일 아침 방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5연대 제1대대는 3시간의 치열한 교전을 전개해 목표를 점령하고 임포를 북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무렵 213고지 건너편 임포터널의 무명고지로 진출한 제2대대는 제1대대의 공격을 측면에서 엄호하였고, 제3대대는 남서쪽의 245고지를 점령해 임포를 포위하였다.

제2대대는 무명고지 일대에 대한 수색에 나서 임포터널 속에 은신해 있는 적의 포병부대를 발견하자, 제17 및 제18포병대대에서 차출된 2개 포대와 공군의 공중지원 아래 임포 남쪽에서 기습공격을 실시하였다. 제2대대장은 제3대대장과 협조하여 터널의 양쪽 입구에 1개 중대씩을 배치한 후 집중사격을 가해 적을 섬멸하였다.

이들은 적 제15사단 포병연대로서 임포 남쪽 고지동의 철도터널 속에 은폐하고 있던 포를 보병의 경계 없이 방렬해놓고 주간포격을 실시하던 중 아군의 기습을 받았다. 아군은 이 전투에서 120밀리 곡사포와 76밀리 곡사포 16문, 차량 59대를 파괴하고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234]

(6) 제10연대의 복귀와 139고지 점령

제1군단 제3사단에 배속되어 8월 30일부터 포항지구 전투를 전개하던 제8사단 제10연대는 9월 6일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영천의 함락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곧바로 제3사단장 이종찬 대령에게 원대복귀를 건의해 9월 8일 정식으로 복귀명령을 받고 형산강 방어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한 후 영천을 향해 이동하였다.[235] 제10연대는 경주를 경유해 9월 9일 11시 30분경 도계리에 도착한 다음 제7사단 지휘소에서 부대 정비에 착수하였다.

원대복귀한 제10연대는 제26연대 제3대대로부터 아화에서 적을 저지하는 임무를 인계받았고, 제26연대 제3대대는 제1군단 예비대가 되어 경주로 이동하였다. 제10연대는 14시 30분경 아화로 전진해 제5연대의 좌측방을 점령하고 영천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의 배후를 공격하면서 임포 방면으로 적을 추격하였다.[236]

한편 제16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원제동 일대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9월 6일 09시경 영천 동북쪽의 156고지와 179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는 179고지를 점령해 적이 제21연대 후방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였다.

제16연대 제1대대는 9월 7일 18시를 기해 제19연대 제1대대와 함께 망정동의 적을 공격해 단포동 방면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237] 9월 8일 제16연대는 전방어지역을 제19연대에 인계하고 유봉산(241고지)으로 철수하였다.[238]

제16연대의 주력은 9월 9일 미명에 공격을 개시해 금호강을 건너 작산동의 139고지를 점령하고 후퇴하는 적을 추격했으며, 일부 병력은 대의동 동쪽 2㎞ 지점의 못밑까지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중대는 완산동의 155고지를 치열한 교전 끝에 점령했으나, 물러났던 적이 자정 무렵에 병력을 증강하여 반격해 옴으로써 부득이 철수하였다.

3) 영천지구의 반격전(9월 10일~13일)

(1) 아군의 반격계획과 제8사단의 포위작전

제8사단의 중앙을 돌파한 후 영천~경주간 도로를 따라 진격하던 적 제15사단은 아화 북쪽에서 제5연대에 의해 저지되었고, 영천 북쪽에서는 제21연대와 제19연대에 의해 후방보급로가 차단됨으로써 괴멸상태에 처하였다. 이에 앞서 적 제2군단장은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5사단장을 9월 5일부로 군단포병부군단장인 조열광 소장으로 경질하였다.

영천~경주간 도로를 확보한 아군 제2군단은 영천 방면의 적을 포착 섬멸하기 위해 9월 10일을 기해 반격작전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239] 이에 따라 제8사단은 적 제15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차기 작전에 유리한 공격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를 예하 연대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1연대와 제16연대는 완산동 188고지를 탈환해 적 제15사단 주력이 전개한 영천~임포지역을 양단하고, 제19연대는 금호강 북쪽에서 영천역과 완산동을 협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1연대는 자천을 탈환해 보현산 일대에 전개한 적 제103치안연대의 일부 병력을 고착시키며, 제10연대는 208고지~218고지 사이에 투입되어 기룡산 남사면의 적 제73독립연대를 견제하고 384고지~372고지를 점령하도록 계획되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예하 연대는 작전의 전개를 위해 병력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240]

① 제21연대 : 약수탕~선촌동 208고지 우측
② 제19연대 : 208고지~155고지
③ 제16연대 : 완산동~작산동 일대
④ 제11연대 : 유하동 130고지~유상동 일대
⑤ 제8연대 : 유상동 우측지구
⑥ 제10연대 : 아화에서 이동하여 대환동 서쪽

한편 제8사단과 제7사단은 작전계획에 따라 9월 10일 새벽에 공격을 개시해

영천과 임포 일원으로 진출한 적 제15사단을 격퇴하고 자천~372고지~금대동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해 총반격작전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반격작전의 주공인 제8사단은 배속된 제11연대와 제19연대를 포함한 5개 연대로 적 제15사단의 주력부대가 전개한 완산동~대의동 일대를 남·서·북쪽의 3면에서 포위해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241] 그리고 영천 남동쪽으로 진출한 적의 모든 화포와 전차 및 기동장비를 파괴하고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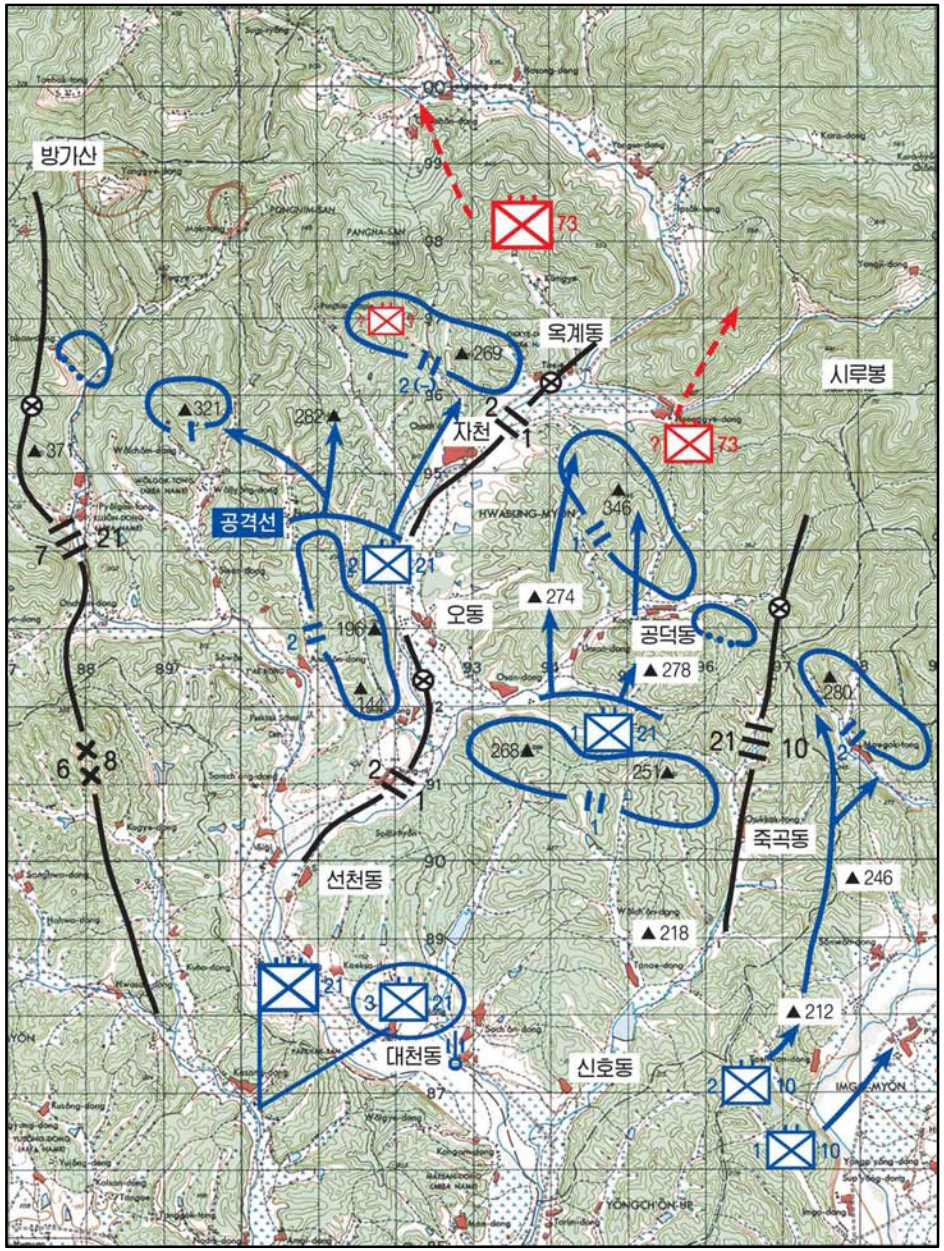
조공으로 임포와 304고지에서 적의 우측방을 공격한 제7사단(-1)은 군단에서 지정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중간목표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공격 개시 2일 만에 영천~안강 도로에 도달하였다.[242] 성공적으로 작전을 종료한 제7사단은 영천 반격작전이 종료된 9월 13일 경주로 이동해 군 예비로 전환하였다.[243]

아군은 제2군단의 강력한 반격작전에 궤멸적 타격을 입은 적 제15사단이 대폭적인 병력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격작전을 단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장은 9월 13일 13시를 기해 사단 전술지휘소를 영천경찰서로 이동시키고 영천 전투를 종료하였다.



영천지구 전적비

<상황도 5-18> 자천탈환 상황(1950. 9. 12~13)



(2) 제10연대의 증원과 제21연대의 반격

9월 9일 10시경 제11연대와 제16연대가 완산동과 옥포동 일대로 진격, 영천~경주간 도로가 소통됨에 따라 제2군단은 제7사단의 통제 하에 임포지구에서 작전 중인 제10연대를 원대복귀 조치하였다.[244] 이에 따라 11시 30분경 아화 남동쪽 2.5㎞ 지점의 월하동에 도착한 제10연대는 오후에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야간을 이용해 아화로 이동하였다.

제10연대는 9월 10일 03시 40분경 제5연대와 협조된 공격작전을 전개해 임포를 탈환하고 적 제50연대의 일부 병력이 영천 방면으로 후퇴하자 이를 추격하였다. 적을 추격하던 연대는 명령에 따라 아화에 집결하여 원제동으로 이동하였다.

제8사단장은 보다 강력하게 적을 공격하기 위해 제10연대를 제21연대와 제19연대 사이에 투입하였다. 9월 11일 정오를 기해 제10연대는 208고지 일대의 제21연대 제3대대 방어지역 일부와 서쪽의 제19연대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진지를 인수한 제10연대가 208고지와 181고지 동쪽의 신기동 일대에 잔류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자, 적은 전의를 상실하고 저항을 포기한 채 후퇴하였다. 추격에 나선 연대는 평천동 서원을 거쳐 운천동으로 진출해 일대를 점령하였고, 일부 병력은 고천동 선까지 적을 추격하였다.[245]

제10연대는 예하의 제2대대를 248고지를 거쳐 280고지로 진출시키는 한편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영천~자양간 도로상의 전술적 요지인 384고지~372고지로 진출시켜 반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9월 12일 정오 무렵 제10연대 제2대대는 인구동 서남쪽 371고지의 적을 공격해 일대를 확보하고 진지를 점령했으며, 제2대대는 용화동 북쪽 고지에서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담당 전선을 제16연대에 인계하고 제21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한 직후 삼매동 서남쪽 188고지상의 적을 공격해 격퇴하고 진지를 점령하였다.[246]

한편 제8사단의 우일선인 제21연대는 9월 10일 새벽 군단의 반격작전에 따라 공세작전으로 전환해 약수탕~자천동~대환동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제21연대와 대치하고 있던 적 제73독립연대는 전술지휘소를 옥계동 느른 마을 계곡

으로 이동해 예하 병력을 321고지~364고지에 재배치하고, 일부 병력은 2~3㎞ 후방 지점에서 지연진지 구축을 실시하고 있었다.

연대장 김용배 대령은 영천~자천간 도로를 타고 북상중인 적의 전차를 파괴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이를 제2대대장에게 하달하였다. 대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제5중대 제2소대장은 3.5인치 로켓포 1문을 자천동 남쪽 3㎞ 지점의 149고지에 배치하고 적 전차가 출현하기를 기다렸다.

10시 30분경 적 전차 1대가 고지를 향해 접근하자 소대장 김재의 상사는 로켓포를 발사해 전차를 격파하였다. 이때 전차에 타고 있던 적 군관 1명과 전차병 4명을 사로잡았는데, 적 군관은 자신의 사단장이 군단장에게 영천 전황을 보고하며 신속한 증원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247]

이날 20시경 제21연대의 반격으로 물러났던 적이 전열을 정비해 345고지와 삼매동에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나섰다. 다음날인 9월 11일 제21연대는 우측의 일부 지역을 아화 방면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온 제10연대에게 맡기고 적과 치열한 교전을 실시, 선천동 북쪽 능선에서 월곡동까지 진출하였다. 이어 적정을 수집한 제21연대는 제3대대를 연대 예비로 확보하면서 제1대대와 제2대대로 반격을 감행해 자천을 탈환하고 옥계동과 346고지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해 인접 제10연대와 협조된 공격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었다.[248]

(3) 제19연대의 반격과 적 사단사령부 공격

9월 10일 적은 제19연대의 조직적이고 과감한 반격을 받고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날 새벽 제19연대는 금호강변으로 진출해 영천역과 완산터널에 제2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고, 적을 측후방에서 교란하기 위해 제1대대를 영천비행장에서 조교동으로 진출시켰다. 하지만 제19연대 예하의 3개 대대는 금호강을 이용해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맞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남쪽에서 진격한 제11연대와 제16연대가 4번 도로를 횡단한 이후부터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점차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호강 도하에 성공한 제2대대는 영천역을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완산터널을 수색해 많은 양의 무기와 장

비를 노획하였다. 반면에 제16연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은 적은 단포동과 조교동에 집결해 황급히 동북방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적 제15사단 사령부가 대의동 입구의 과수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제8사단은 다음날 새벽 제19연대를 조교동에서 단포동을 거쳐 대의동으로 기동시키고, 제16연대를 188고지에서 170고지로 투입해 목표를 좌측방에서 협공하도록 계획하였다.[249]

9월 10일 밤 사단 공격명령에 따라 제19연대는 제16연대와 함께 대의동을 포위할 태세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의동 부근에 포탄이 작렬하는 것과 동시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제16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188고지 일대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적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제2대대를 대의동 남쪽 무명고지에 침투시키고 잔여 2개 대대를 조교동에 전개한 제19연대는 지원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다음날 07시경 제1대대는 단포동의 18고지로, 제3대대는 임고 남쪽의 180고지로 진출해 제21연대 제1중대의 방어진지를 인수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제19연대 제2대대는 우측방의 제16연대가 대의동 서쪽으로 진출할 무렵 적의 사단사령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사단사령부가 공격을 받자 적은 지휘체계가 일시에 마비되었고, 일부 병력은 혼란 속에서 포위망을 돌파해 영천~포항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철수해 상리동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항공관측에 따라 아군 전폭기가 출격해 적의 집결지 일대를 폭격하고, 제16연대는 상리동으로 진출해 적을 추격하였다. 제19연대의 주력은 16시경 운산동 제방과 단포동 선으로 진출한 후 372고지와 상리동에서 적을 추격하였다. 특히 조교동에서 추곡동으로 진출한 제1대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해 격퇴한 후 원진지로 복귀하였다.

제19연대는 아군의 반격이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전개됨에 따라 9월 12일 10시를 기해 영천으로 철수한 다음 군단 예비대로 대기하였으며,[250] 이어 용평동으로 이동해 사단에 복귀하였다.

(4) 제7사단의 반격과 후방보급로 탈환

제7사단은 9월 8일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되었고,[251] 예하 제3연대 제1대대와 제5연대, 제8연대가 9월 10일부로 제8사단에서 원대복귀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8사단 제10연대를 포함한 임포지역의 3개 연대를 지휘할 태세를 갖추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8연대는 유산동 304고지를 확보하고 공격준비를 완료한 후 9월 10일 04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는 내포동 서북쪽의 169고지를 공격해 점령하고 북진을 계속하였고, 제2대대는 내포동 북쪽 능선을 점령하였다. 연대는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연대지휘소를 임포동으로 이동하였다.

제8연대는 군단의 명령에 따라 금호로 이동한 제11연대의 일부 정면을 인수해 우측의 제5연대와 협동으로 진격을 실시하였다. 제11연대는 동북쪽으로 진출해 9월 10일 10시경 대의동 동쪽 3㎞ 지점의 187고지를 공격하던 중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다.[252] 9월 11일 이른 아침에 연대는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며 심곡동 북쪽 3㎞ 지점의 관산까지 진출하였고, 15시 30분경 오류동 북방의 211고지와 삼귀동 일대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일대를 점령한 후 진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9월 12일 11시경 동도동과 해선동 일대에 집결해 있던 적의 병력 중 1개 대대가 연대 정면에 공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연대를 후속하던 공격부대가 곧바로 적의 측방에서 포위태세를 갖추자, 퇴로차단을 우려한 적은 저항을 포기한 채 즉시 후퇴하였다.

한편 임포 남쪽에서 적 포병연대를 섬멸한 제5연대는 9월 10일 04시에 제10연대와 함께 임포의 적을 공격하였다. 제5연대 주력은 이어 10시 30분에 임포 남쪽에서 적 제50연대본부를 공격해 적 전차 2대를 격파하고 임포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5일간 차단되었던 영천~경주 사이의 후방보급로가 개통되었다.

전선의 북상에 따라 제5연대는 9월 11일 02시에 연대지휘소를 도계리에서 아화로, 이어 18시에는 재현으로 이동해 반격작전을 지휘하였다. 연대의 주력은 퇴각하는 적을 추격해 관산을 탈환하고 일대의 적을 섬멸하였다.

다음날 연대는 기계~안강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덕암리 남쪽 2㎞ 지점의 무학산(450고지)을 거쳐 282고지 북방으로 진격하였다. 15시 무렵 연대는 무학산과 청정동 남쪽 1.5㎞ 지점 384고지의 적을 섬멸하였고, 일부 병력은 기계 방면으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해 타격을 가하였다.

제5연대는 제8연대가 점령중인 309고지 남쪽의 206고지로 진출해 기계 방면으로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이로 인해 적 제15사단은 영천을 점령한 후 경주로 진출해 부산을 공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8일 만에 영천 지구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4. 전투 결과

6·25전쟁의 전환점을 이룬 영천지구 전투는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서로 증강된 2개 사단이 첨예하게 대립한 공방전이었다. 이 전투에서 적은 5개 연대 12,000명으로 추산되는 병력과 전차 12대, 그리고 76밀리 곡사포 38문과 122밀리 곡사포 18문을 투입하였다. 반면에 아군의 병력은 7개 연대 15,000명과 105밀리 곡사포 26문, 57밀리 대전차포 6문이었다. 따라서 병력면에서는 아군이 다소 우세한 반면 화력은 적이 월등히 우세하였으며, 아군은 열세한 화력을 공군력으로 보충하고 있었다.

보현산 일대에 대한 아군의 방어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점을 간파한 적 제2군단은 죽장~영천 축선에 예하의 제15사단을 투입해 기습적으로 공격, 영천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아군은 데이비드 선으로의 철수를 거론하고,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를 부산으로 이동할 만큼 대구 전선 일대는 개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반면에 8월 공세에서 전투력을 과도하게 소모한 북한군은 제공권과 해상 통제권의 상실로 지상군 작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한 적의 보급추진 능력

에 비해 지나치게 신장된 병참선은 아군의 항공폭격과 해상봉쇄로 보급 부진의 악순환을 불러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전황을 파악한 아군이 반격준비에 주력하는 동안 적은 9월 공세를 전개해 작전 초기단계에 낙동강 돌출부, 왜관~다부동, 영천, 안강~포항 등에서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할 후속 전투력이 부족하고 보급이 미진해 최종 목표인 부산으로의 진격은 실패하였다.

영천을 점령한 후 경주 방면으로 진출한 적 제15사단은 목표에 불과 20㎞를 남겨놓은 임포에서 진격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보급의 추진과 병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적은 의성~구산동~영천 축선에 대한 작전이 미흡해 제21연대의 방어정면 돌파에 실패하였고, 영천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영천 북쪽의 감제고지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 과오를 범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천지구 전투의 승리는 적의 작전계획을 분쇄하고 전략의 근본방침을 전면적으로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영천을 점령한 적 제15사단이 경주 방면으로 진출해 제12사단과 합세할 경우 동부전선의 제1군단 전선은 와해될 수 있었고, 공격방향을 대구 방면으로 전환할 경우 대구 북방에서 작전중인 제1사단과 제6사단은 물론 미군 전선에도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적 또한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이를 상실하자 패배하였다"라고 자평할 정도로 전국(戰局)의 일대 전환점이 된 영천 전투는 6·25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253] 아군은 이 전투에서 3,799명의 적을 사살하고 309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전차 5대와 장갑차 2대, 각종 화포 14문 및 소화기 2,327정, 차량 85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254] 반면 아군은 전사 29명과 부상 148명, 실종 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255]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중동부지역 작전은 1950년 8월 1일 이후 국군 2개 군단, 4개 사단(제6사단, 수도사단, 제7사단, 제8사단)이 낙동강~반변천 연변에 방어선을 형성한 이후 의성, 신녕, 보현산, 영천 등지에서 기계화부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4개 사단(제1, 제8, 제13, 제15)의 공격을 9월 14일까지 저지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방어 작전이었다.

작전기간 중 북한군 제2군단은 주공 방향을 대구로 지향하는 한편 예하 사단을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 전개시켜 대구와 영천, 포항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군단은 제8사단과 제15사단으로 편성된 제4공격집단에게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해 하양과 영천을 점령한 후 대구 또는 경주로 진출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북한군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8월 공세와 9월 공세를 단행하였다. 이 공세는 한반도 최남단에서 포위망을 압축해 일격에 부산까지 점령하려는 적의 마지막 공격이었다.

적은 이 공세에서 아군 방어선에 대한 최초 돌파에 성공하였으나, 제공권 및 제해권의 상실과 병참선의 과도한 신장(300㎞ 이상)에 따른 보급의 부진, 무리한 공세의 지속으로 인한 병력 손실과 전장피로의 누적 등으로 전투력이 50% 이하로 감소하는 등 작전한계점에 도달해 전과확대에 실패하였다.

반면에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된 전력의 보충과 증원부대의 도착으로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기습공격으로 개시된 적의 남침공격은 낙동강 방어선, 특히 신녕과 영천 일대에서 아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대구 점령에 실패한 채 공세가 좌절되었다.

특히 중동부지역 작전 중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전개된 영천지구 전투는 6·25전쟁의 전환점을 이룬 의미 있는 전투였다. 이 전투의 패배로 작전계획의 골간이 와해된 적은 전략의 근본방침을 바꿔 전면적인 철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적 제15사단이 영천 전투에서 승리한 후 경주 방면으로 진출해 동부지역으로 진출한 적 제12사단과 합세하였을 경우 동부지역의 제1군단 전선은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승리한 여세를 대구 방면으로 전환할 경우 대구 북방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은 물론 미군의 퇴로를 위협할 수 있어 부득이 부산교두보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동부지역 작전의 군사적인 의의는 의성~신녕~영천 축선으로의 축차적인 철수와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군이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적이 낙동강 방어선 돌파에 총력을 경주, 작전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모든 전력을 소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제고하였다는 점이다.

2. 적시적절하고 과감한 지휘관의 지휘결심

중동부지역 작전에서 나타난 교훈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지휘관의 적시적절하고 과감한 지휘결심을 들 수 있다. 전장에서 지휘관의 역할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의 판단과 신속하고 과감한 지휘조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작전기간 중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제1군단 담당지역인 안강 정면이 돌파된데 이어 영천지역이 돌파되자, 안강 정면은 제1군단장이 그리고 영천 정면은 제2군단장이 담당하도록 군단 전투지경 및 작전지휘체계를 신속히 조정하였다. 또한 제2군단장인 유재흥 준장은 영천지구의 중요성과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상급 및 인접부대의 전투력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군단장은 예하의 제1사단과 제6사단으로부터 1개 연대씩을 차출하여 전투력을 집중 운용하였다. 제5연대장 최창언 대령은 상급 지휘관의 지휘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지휘조치를 통해 통신두절 및 고립상태에서 예하의 2개 대대를 조직적으로 철수시키는가 하면 잔여 병력 및 인접부대의 철수 병력에 대한 전투력 보존으로 신속하게 영천 외곽지대 방어에 투입하였다.

이와 같이 부대가 위기에 처하였어도 지휘관의 냉철하고 침착한 상황판단과 상황의 추이에 따른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은 전승과 직결된다 할 수 있다.

3. 전투력의 집중운용과 증원부대의 중요성

전투력의 집중운용으로 전쟁의 궁극적 목적인 적의 부대와 전의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해야 한다. 작전기간 중 제2군단장은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영천지역을 결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예하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전투력을 절약하는 한편 동해안에 전용된 제8사단 제10연대를 원복시켜 방어정면에 집중 운용함으로써 적 부대의 격멸이 가능하였다. 영천지역에서 아군이 인접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의 제4공격집단 주력이 공격한 신녕 축선에서 제6사단이 효과적인 방어, 특히 대전차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의 기도를 조기에 좌절시킨데 있었다.

한편 적시적절한 증원부대의 투입은 영천전투의 성공적인 작전요인중의 하나였다. 제8사단 우일선의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9월 3일에 제7사단 제5연대를 투입하였고, 다음날에는 제2군단에 배속된 제7사단 제8연대를 다시 영천지역으로, 그리고 9월 5일엔 제7사단 공병대대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적의 선두부대가 경주 방면으로 지향하여 아화 부근에 진출하자, 안강 정면의 제26연대 제3대대를 차출해 투입하고 건천 방면으로 남하중인 제5연대와 제10연대를 급파해 진출을 저지하였다.

4. 전쟁군기 확립의 필요성

1950년 8월 하순,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받고 신녕지구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던 제6사단장은 보전협동에 의한 적의 근접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지

뢰지대의 설치를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제9야전 공병대대는 작전지역 내의 연대 및 대대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지뢰를 매설하고 지뢰지대 양단에 경계병을 배치하였다. 8월 25일 새로 부임한 제5연대장 이영규 중령은 부대복귀를 위해 경계병의 강력한 저지를 강압적으로 무시하고 지뢰지대를 통과하던 중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여 전사하였다.

한편 8월 25일 오후 이화동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공병중대는 아군이 안전통로를 따라 철수하도록 2명의 경계병을 입구에 배치하고 우군의 철수가 완료한 후 복귀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중대 숙영지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경계병들은 우군의 철수가 완료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때 종심 저지진지로 철수하던 제2연대 예하 제2대대는 다음날 미명에 지뢰매설 사실을 모른 채 지뢰지대에 진입함으로써 대대장 등이 전사하였다.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는 전쟁군기의 해이가 가져온 사건이었다. 8월 25일의 사고는 공병부대 지휘관이 훈령을 위반하고 급변하는 전황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경계병들을 배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대장 이영규 중령은 경계병의 경고를 일축하고 스스로 지뢰지대에 들어감으로써 지휘관들도 전장군기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편 8월 26일의 사고는 보초가 부여된 경계임무를 져버리고 초소를 이탈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였다. 만일 소대장이 함께 현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보초들은 초소를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휘관이 먼저 철수하고 2명의 보초만을 남겨둠으로써 이들은 전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임무를 져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장교가 임명되어 지휘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장병들은 부여된 제반 임무를 목숨을 걸고 완수할 수 있는 철저한 군인정신의 함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5. 포병화력 지원요청의 적절성

각 단위부대장이 포병의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시기는 적정이 분명하고 포병

화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작전기간 중 제6사단은 각 연대에 사단포병인 제16포병대대 예하의 1개 포대씩을 배속하여 작전지원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야간에 적정 확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포병지원을 요구함으로써 포탄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포병대대가 1일 탄약 소모량에 대한 통제를 받고, 탄약 수송차량의 부족으로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포탄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는 실제로 적이 공격을 가해 왔을 때, 포병의 적시 지원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 공지 합동작전의 필요성과 공지 연락의 긴밀성

공지합동작전은 작전기간 동안 전쟁의 국면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동부지역 작전에서 북한군 제1사단은 8월 15일에 전차를 선두로 아군 제7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 사이의 제한점을 돌파하였고, 8월 26일에는 장군동과 고곡동 동쪽 고지에 각종 포 16문을 배열하여 포격을 가해왔으나 아군은 적의 포진지를 격파하지 못해 많은 병력 손실은 물론 작전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적의 목표물은 항공기의 지원으로 제압할 수 있었으나 공지합동작전기구의 미비 또는 운용절차의 미숙 등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작전기간 중에 미 공군기의 출격은 우기로 인해 활동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출격하였을 경우에도 때때로 우군진지에 오폭을 가해 포진지와 차량 그리고 일선의 아군 진지 등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다. 이는 적 진지에 대한 계획된 폭격이 아니라 비행중인 조종사가 우군의 진지를 적의 진지로 오인하고 임의로 폭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공중정찰활동의 부진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런 경우 조종사들이 폭격금지선을 확인함에 있어 피아 진지가 서로 비슷비슷한 산악능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따라서 항공기와 지상군간의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집필 : 손규석)

주 (註)

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서울: 보진재, 1970), p. 18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255-256.
2)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GPO, 1961), p. 334.
3) 사회과학출판사, 「조국해방전쟁사 Ⅰ」(동경: 구월서방, 1972), p. 35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p. 272;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p. 213.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서울: 교학사, 1984), pp. 19-21.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pp. 31-32.
6) 1950년 7월 6일 신의주에서 창설된 북한군 제73독립연대는 3명(중령 2명, 소령 1명)의 소련 군사고문관이 배치되어 작전 전반을 관장하였다. 약 2,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이 연대는 최고의 중장비가 82밀리 박격포(9문)일 정도로 소총 위주의 경장비로 무장하였고, 장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력은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772, 775, 780, 781, 784.
7) 북한군 제103치안연대는 제101치안연대, 제107치안연대, 제108치안연대와 함께 1950년 8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되었다. 이 연대는 병력의 95%가 반강제적으로 징집된 남한출신으로서 군사훈련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나머지 5%는 북한군으로 구성되었다.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1427, 1452, 1571.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90.
9) 북한군 제2군단 전투서열은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FBIS, Daily Report: East Asia, North Korea, Biographic Information on 100 Official(Washington, D.C.,: 1989); 국토통일원, 『북괴인물』, 1971;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10)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오비기획, 2002), p. 47.
1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31.
12) 위의 책, pp. 244-245.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5.
14)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1970, p. 199.
15) 사회과학출판사, 『조국해방전사 Ⅰ』, 1972, p. 351.
1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74.
17)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1970, p. 213.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7.
19) 낙동강 전선에 투입될 당시 제2군단 예하의 각 사단은 약 300대의 수송차량을 보유하였으나, 유엔 공군기의 폭격과 보급의 지연으로 실제 가용한 차량은 대폭 감소하였다. 일례로, 9월 중순경 적 제13사단은 30대만을 운용하였으며, 차량교체율 또한 수요를 충당하기엔 너무나 저조하였다.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73, 771, 1468.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7.

21)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852, 1405.
22)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90, 12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 지연작전』 [4], 2008, p. 225.
23)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771, 895, 1468.
24)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79, 688, 777, 924, 1087.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59.
26) 일례로, 북한군 제13사단은 편성 당시부터 병력의 약 80%가 남한 출신으로 편성되었고, 제103치안연대의 경우 장교 및 하사관은 북한군으로 나머지 사병은 남한에서 징집한 병력으로 편성하였다.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서울: 천세, 2006), pp. 87-88. 이 책에 수록된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95, 문서철 122, 352~355쪽에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전선 상황에 대한 북조선정부의 정보보고와 중국의 참전문제에 대한 조중 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No. 649, 1950년 7월 20일 20시 30분'에 따르면, 김일성은 전선 상황을 말하며 분개한 어조로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전선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아마도 파국적인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미 공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7;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771, 1468.
2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7. 31).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4호」(1950. 8. 2).
3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9호」(1950. 8. 11).
3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 3. 25).
33) (Ed.) 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9(Univ. Press of Kansas, 1988), p. 296;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of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1990, p. 507.
3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7. 31); 「작전명령 제94호」(1950. 8. 2).
3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84.
36) 1950년 7월 5일 국군 전력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제5사단과 제7사단이 해체되자, 육군본부는 이틀 후 해체된 2개 사단을 재창설하기 위해 창설요원을 호남지방으로 보내 제5사단은 전남, 제7사단은 전북에서 각각 모병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민기식 대령이 제7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전세의 악화로 사단 재창설계획은 일단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이미 부대편성의 일부를 끝마친 이 부대는 이후 민부대로 불리웠으며, 남원·진주·함안전투에 참가한 후 8월 12일 금호에서 오덕준 부대와 이영규 부대 그리고 이창범 부대를 흡수해 연대규모(부대본부 및 2개 대대)로 재편성되었다.
37)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1994, pp. 89-97.
3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88; GHQ, FEC,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p. 3, 1955, p. 25.
39) GHQ, FEC,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p. 4, 1955, p. 38; Vol. 4, chp. 8, 1955, pp. 19, 21.
40)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p. 257.

41)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24-25. 수도사단 제17연대는 1950년 7월 29일 안동지구에서 낙동강지구 권빈리로 이동함으로써 여기에 기술된 인원수는 2개 연대(제1, 18연대) 병력이다.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p. 24-25.
43) GHQ, FEC,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6, chp. 4, 1955, p. 21.
4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349.
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75.
46)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100.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10.
4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p. 77-78.
49) 위의 자료, p. 80.
50)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103.
5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81.
52)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호」(1950. 8. 11).
53)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3(1950. 8. 8).
54)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호」(1950. 8. 11).
5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12.
5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65.
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13.
58) 위의 자료, p. 213.
59) 위의 자료, p. 213.
60)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힘든 작전을 전개할 때마다 병사들, 특히 의용군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전장에 투입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35.
61)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4호」(1950. 8. 15).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39.
6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p. 214-215.
64) 위의 자료, p. 215.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43.
6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p. 220-221.
67) 위의 자료, p. 222.
68) 위의 자료, p. 217.
69) 위의 자료, p. 217.
70) 위의 자료, p. 218.
71)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09(1950. 8. 20).
72)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6호」(1950. 8. 20). 포항지구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작명 제116호(1950. 8. 10)에 따라 포항, 기계, 안강 일대에서 적의 공격을 격파하기 위해 설치되어 사령관에 이성가 대령이 임명되었다. 사령부 예하에는 제25연대, 제17연대, 제1유격대대, 제2유격대대, 해군 육전대와 경찰부대 및 75밀리 곡사포 1개 중대가 배속되었으며, 8월 11일 대구에서 새로 편성된 제26연대도 사령부에 편입되었다.
73) 제7사단 제5연대는 지연작전 기간 중 호남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진출을 지연시킨 민부대를 모체로 창설되었다. 1950년 8월 20일 제6사단에 배속될 당시 제5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로 편성되었고, 1,200명 내외의 병력도 대부분이 신병과 학도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대장에는 이영규 중령이 임명되었으나 부임이 지연됨에 따라 제7연대장의 지휘를 받았다.
7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20.
7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44호」(1950. 8. 20);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7호」(1950. 8. 20).
7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19.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59.
7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22.
7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51호」(1950. 8. 27).
8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12.
81) 위의 자료, p. 250.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72.
83) 위의 책, p. 373.
8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15.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p. 128-130.
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52.
87) 위의 자료, pp. 252-253.
88) 위의 자료, p. 254.
89) 파쇄공격이란 방자(防者)가 공격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주 방어지역 전방의 적에게 실시하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이다. 적은 공격준비를 위해 집결지에서 장시간 지체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에 대해 파쇄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적 부대의 일부를 격멸하고 공격의 균형을 와해시키며 적 공격의 발판이 될 지형을 일시적으로 탈취해 적의 지상관측과 감시를 거부할 수 있다. 파쇄공격은 통상 전투지역 전방 지원거리 내에서 작전을 실시한다. 또한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는 전투력의 제한으로 지형탈취를 위한 파쇄공격을 통상 실시하지 않는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61-100: 보병사단』, 1990, pp. 336-337.
9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57.
91) 위의 자료, pp. 258-259.
92) 위의 자료, p. 261.
93)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1호」(1950. 8. 27).
9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68.
95) 위의 자료, p. 259.
96) 위의 자료, p. 260.
97) 육군본부, 「훈령 제33호」(1950. 8. 14).
98)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35(1950. 8. 28).
9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53호」(1950. 8. 28);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4호」(1950. 8. 3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74.
10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p. 276-277.
101) 위의 자료, p. 283.
102) 위의 자료, p. 286.
103)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3호」(1950. 8. 29).
10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83.
1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73.
106) 위의 자료, pp. 272-273.

107) 위의 자료, p. 325.
108) 위의 자료, p. 324.
109) 위의 자료, p. 325.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2.
11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327.
112) 위의 자료, p. 324.
113) 위의 자료, p. 286.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161.
115) 위의 책, pp. 162-163.
11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57호」(1950. 9. 1).
117)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8호」(1950. 9. 1).
118)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9호」(1950. 9. 3).
119)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0호」(1950. 9. 4).
120)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1호」(1950. 9. 5).
12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6호」(1950. 9. 5).
12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 296.
123) 이후 적은 주로 야간에 중대규모의 병력을 침투시켜 전초진지를 습격하는 정도의 소부대 작전 행동을 반복하였다.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7(1950. 9. 8), No. 173(1950. 9. 10), No. 176(1950. 9. 11).
1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3.
12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pp. 297-300.
126)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4호」(1950. 9. 16).
127)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5호」(1950. 9. 17).
12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91호」(1950. 9. 22).
129)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0호」(1950. 8. 1).
13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1987, p. 985.
131)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51.
132)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222, 373.
133)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2호」(1950. 8. 2);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9호」(1950. 8. 2).
13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단양-의성전투」, 1987, pp. 178-180.
13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1.
136) 위의 책, p. 221.
137)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8호」(1950. 8. 2).
1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단양-의성전투』, 1987, pp. 182-183.
139)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53.
1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221-222.
141) 이 전투는 역습의 선두부대 지휘관인 제21연대 제1대대장 임익순 소령과 부대대장 허순오 대위가 부상을 입어 제2중대장 채명신 대위가 대대장에 임명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55-56.
142)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3호」(1950. 8. 10).
143)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8. 12).
1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221-222.
145)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6호」(1950. 8. 12).
14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990.
147) 제1201건설공병단은 1948년 2월에 창설된 제1공병대대를 모체로 하였으며, 보현산 지구에 투입될 당시에는 제109건설공병대대와 제201건설공병대대, 그리고 5개의 직할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부대가 보유한 장비는 일본제 99식 소총과 CAR소총이 전부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187.
148)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는 6·25전쟁 당시 육군본부가 동해안과 중부전선 사이에 발생한 허약지대를 메우기 위해 편성되었다.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예비군의 편성을 지시받은 정진 소령은 대구지구의 방위군 지대 요원과 일부 학생지원병 200명을 인수해 대구 복명초등학교에서 6개 소총중대와 본부중대로 이루어진 제1유격대대를 편성하였다. 참모 겸 중대장 요원은 현지임관한 최주종 중위, 박준호 중위, 최창륜 중위 등으로, 소대장과 분대장은 호국군 배속장교와 방위군 장교 등 120명으로 충원되었다. 일제 99식소총을 장비한 이들은 대구에서 각개훈련을 마친 후 신녕으로 이동해 처음으로 소총과 카빈소총을 지급받고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8월초 M1 소총을 조작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보현산지구에 투입되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63.
14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27).
15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1950. 8. 3).
15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998.
152)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64.
15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01.
154)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66.
155)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1호」(1950. 8. 9).
156)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8. 12).
157)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6호」(1950. 8. 13).
158) 제2유격대대는 1950년 7월 하순 남원에서 편성되었다. 대대장 김용주 중령은 남원 군수의 협조하에 이 지방의 청년과 학생, 피난민 중에서 자원한 1,000여 명을 모집, 진주여자중학교에서 1주일간 목총으로 기초훈련을 실시한 후 김해를 거쳐 구포초등학교로 이동하여 유격대대로 잠정 편성하였다. 그러나 무기도 없고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대대는 부산에서 이북 출신 1개 중대병력을 다시 모아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고 1개 대대를 완전 편성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67-68.
159) 제8사단의 구산동~도평동간 방어진지 편성은 육본 작전명령에 따른 'Y'선 보다 12~15㎞ 북쪽에 편성됨으로써 좌우 인접부대와의 상호지원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평동 방면에 방어중점을 둔 제1군단 작전명령 제56호(1950. 8. 12) 때문이었다.
16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04.
161) 위의 자료, p. 1005.
162)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69.
16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07.

164) 위의 자료, p. 1008.
165)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8호」(1950. 8).
16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12.
16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8호」(1950. 8. 17).
16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13.
169) 위의 자료, p. 1014.
170) 위의 자료, p. 1014.
171)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66호」(1950. 8. 19).
17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17.
173) 위의 자료, p. 1017.
174) 위의 자료, p. 1018.
175)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2호」(1950. 8. 24).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사』, 1984, pp. 217-218.
1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18.
178)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3호」(1950. 8. 2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19.
179)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2호」(1950. 8. 25).
18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21.
181) 위의 자료, p. 1023.
18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52호」(1950. 8. 27).
1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p. 1024-1025.
1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222.
1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1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28.
1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27.
187) 위의 자료, p. 1031.
188)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84-85.
18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32.
190) 위의 자료, p. 1033.
191) 위의 자료, p. 1034.
192) 위의 자료, pp. 1034-1035.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p. 229-230.
19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79.
19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36.
19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6호」(1950. 9. 5).
1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p. 1040.
19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57호」(1950. 9. 1).
199)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6호」(1950. 8. 31).
200) 이 상황에 대해 당시 제2대대장인 이창범 대위는 "그날 밤 적의 기습은 주간에는 산악지대로, 야간에는 개활지를 따라 공격하는 북한군의 전형적인 전법이고 개전 이래 그런 형태의 공격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하지만 자양초등학교의 아군은 병력구성상 90% 이상이 학도병 아니면 신병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울려 퍼진 총성에 당황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241.
20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1987, pp. 1040-1041.
202) 위의 자료, p. 1041.
203)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90.
204) 위의 책, p. 91.
20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80.
206) 육군본부는 제8사단의 방어선 중앙이 돌파되자,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위해 작전명령 제168호(1950. 9. 5)를 통해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을 제2군단에 배속하였다.
207)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79, 688, 777, 924, 1087.
2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67.
20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4호」(1950. 9. 4); 제2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0호」(1950. 9. 4).
21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5호」(1950. 9. 4).
211) 북한군 제15사단은 영천을 점령하기 위해 제73독립연대와 제103치안연대를 배속받았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365.
2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67.
21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 454.
214) 위의 자료, p. 950.
215) 위의 자료, p. 454.
21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8호」(1950. 9. 5).
21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8호」(1950. 9. 5).
218)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58(1950. 9. 5).
219) 육군본부, 『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p. 193.
220) 유재흥, 『격동의 세월: 유재흥 회고록』(서울: 을유문화사, 1994), p. 178.
221) 위의 책, pp. 180-181.
22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 951.
223) 적측자료에 의하면 영천을 점령한 시점은 9월 6일 01시 무렵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19.
224)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563.
225)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4(1950. 9. 7).
22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 950.
227) 위의 자료, pp. 950-953.
2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19.
2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p. 264-266.
230)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7(1950. 9. 8).
2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p. 286-287.
232)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569.
233) 제3연대의 이동배경은 본대가 경주 방면에서 고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제3연대 제1대대 박준호 중위가 사단장에게 원대복귀를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3연대 제1대대는 제1유격대대의 후신으로 그동안의 전투과정에서 병력이 400여 명으로 감소되었을 뿐 병력은 보충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1개월 이상의 실전경험으로 상당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34)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69(1950. 9. 9).
23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0호」(1950. 9. 8).

23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p. 21-22.
237) 위의 자료, pp. 454-455.
238)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573.
239) 제2군단사령부, ' 작전명령 제35호 '(1950. 9. 6).
240)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574.
2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68.
242)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73(1950. 9. 10).
243) 육군본부, ' 작전명령 제180호 '(1950. 9. 13).
244) 제2군단사령부, ' 작전명령 제35호 '(1950. 9. 10).
2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p. 21-22.
2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68.
247) 당시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예비역 소장)의 증언. 1965년 9월 17일 자택; 당시 제5중대 제2소대장 김재의 상사 증언.
24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p. 950-953.
2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신녕·영천전투』, 1984, p. 313.
250) 제2군단사령부, ' 작전명령 제38호 '(1950. 9. 12).
251) 육군본부, ' 훈령 제58호 '(1950. 9. 7); 제2군단사령부, ' 작전명령 제35호 '(1950. 9. 6).
252) 육군본부, ' 작전명령 제170호 '(1950. 9. 8).
253) 만포진 북방 35㎞ 지점의 별오리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1950. 12. 4) 당시 6·25전쟁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
254) 적측 문서에 의하면, 북한군 제15사단은 9월 12일까지 반(半) 포위상태에서 격렬한 전투를 전개해 자주포 100%, 포(박격포 포함) 85%, 병력 50%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19.
25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7), pp. 21-22, 455, 953.



제 6 장 동부지역 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기계-안강 전투
제 3 절 영덕-포항 전투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동부지역 작전은 국군이 계획된 철수작전을 통해 낙동강 연안에 방어선을 형성한 1950년 8월 1일부터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반격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9월 14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상의 동부전선인 영덕, 포항, 기계, 안강 등에서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육군본부 직할의 제3사단[1]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과 제12사단, 독립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의 최후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방어 작전을 일컫는다.

개전초기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북한군은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7월말에는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선의 북쪽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적은 최종목표인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8월 공세와 9월 공세를 전개해 아군의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기도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8월 5일부터 개시된 8월 공세에서 주공 방향을 대구로 지향하고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 공격을 담당해 대구와 영천, 포항 점령을 시도하였다. 특히 동부지역에서 적 제2군단은 예하 제12사단과 제5사단을 청송~현동~죽장~기계 축선 및 영덕~포항을 연하는 동해안 축선에 각각 투입해 경주~울산~부산 축선으로 진격할 발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현산 일대에 전개한 적 제766부대는 그들의 침투기도를 은폐하기 위해 의성~구산동~자천 축선에서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국군은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육군본부 직할인 제3사단으로 낙동강 남안의 상아동~구수동~진보~영덕을 연결하는 주저항선의 형성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철수작전의 실패로 낙동강 남안의 방어선 대신 양호한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진 안동~의성 축선과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 방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길안과 청송 일대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한 수도사단이 부대 간격으로 침투한 적 제12사단의 포위공격에 의성으로 철수함에 따라 의성~영덕간 방어정면 중 주저항선이 형성된 지역은 의성 북방 제8사단의 약 10㎞와 영덕 및 강구 일대 제3사단의 약 10㎞에 불과하였다.

적 제12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인 청송~죽장~기계~안강~경주 축선으로 침투해 8월 9일 경주 방어의 요충지인 기계를 점령한데 이어 11일에는 포항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강구 부근에 배치된 국군 제3사단이 고립되고 경주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국군 제1군단은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와 함께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안강으로 급파해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또한 8월 14일 수도사단 주력을 현동~죽장~기계 축선에 투입해 포항 일대에 전개한 적을 북쪽에서 협공함으로써 8월 18일 기계와 포항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제1군단은 보현산~침곡산~도음산~93고지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고 반격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기계·포항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적 제12사단은 비학산에서 제766부대를 흡수해 전투력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8월 24일 야간 기습공격으로 수도사단의 주저항선 좌측을 돌파, 8월 27일 기계를 재점령하였다. 이날을 전후하여 총공세를 위한 발판을 확보한 적 제5사단과 제12사단은 9월 2일 03시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였고, 5일에는 안강과 포항을 점령한 후 일부 병력은 경주 북서쪽 4~5㎞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9월 5일 무릉산~곤계봉~형산강 선에 최후의 방어선을 형성해 11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확이를 지킴으로써 공세 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동부지역은 남북으로 이어진 태백산맥으로부터 동쪽의 해안에 이르는 지역으로 전술적 요지인 포항을 비롯해 영덕, 경주, 안강 및 기계와 같은 주요 거점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태백산맥이 포항 부근까지 뻗어 내려 대둔산과 대궐령, 향로봉, 비학산 및 운주산과 같은 표고 800m 내외의 준봉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으로 뻗어 있는

종격실의 산줄기는 공자(功者)에게는 유리하고 방자(防者)에게는 불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 내의 형산강과 오십천 등 크고 작은 계곡과 하천은 피아 공방전에서 자연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작전지역의 도로망은 동해안을 따라 울진~영덕~포항~경주에 이르는 7번 도로와 안동~청송~기계~안강에 이르는 31번 도로가 남북으로, 중부 지역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안동~진보~영덕간 34번 도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태백산맥 남단은 형산강 유역을 따라 개활지가 형성되어 영천~죽장~기계~포항간 도로와 영천~안강~포항간 28번 도로, 대구~영천~건천~경주간 4번 도로가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영천~경주와 포항~안강~경주~울산~부산으로 연결된 동해남부선 철로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2)]

한편 작전기간의 기상은 극심한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지속되었고, 강우량도 8월에는 13.3밀리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9월 초순에 110.4밀리의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는 국군에게 유리했으나, 9월 초에 집중된 10일간의 폭우는 국군의 작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심한 안개는 수색활동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많은 지장을 불러왔다.

동부지역에서 방어 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좌측에는 국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을 비롯한 배속부대가 안동~의성~영천 축선상의 의성과 보현산 그리고 영천 일대에서 북한군 제8사단 및 제15사단과 배속부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 북한군 전투편성

국군 제1군단이 방어를 담당한 낙동강 방어선 동부방면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5사단과 제12사단, 그리고 독립 유격부대인 제766부대가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5사단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하여 3개 보병연대(제10연대·제11연대·제12연대)와 예하에 3개 포병대대를 둔 포병연대, 그리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로 편성되었다. 대대 및 중대편성은 3개 중대와 3개 소대로 이루어졌다.

제12사단은 3개 보병연대(제30·제31·제32연대)와 1개 포병연대 등 편제는 제5사단과 동일하였고, 독립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는 3개 보병대대로 이루어졌다.[3] 이와 같이 낙동강 동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은 포병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2개 보병사단과 1개 독립유격연대였다.

북한군 각 사단의 포병은 보병에 배속되어 운용되었다. 주공 방면에서 활동하는 보병연대는 2개 포병대대와 2개 76밀리 자주포대대, 1개 독립대전차대대를, 조공 방면의 보병연대는 1개 포병대대와 1개 76밀리 자주포포대를 배속받아 운용하였다.[4]

한편 동부방면에 투입된 북한군 제2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김무정 중장과 후임인 최인 소장, 문화부군단장 임해 소장, 참모장 최인 소장이었다. 또한 각 사단의 주요 지휘관을 보면, 제5사단은 사단장 김창덕 소장을 비롯해 문화부사단장 장복 대좌, 포병부사단장 박송파, 참모장 조관 총좌가 지휘부를 구성하였으며, 각 연대장은 제10연대장 박정덕 대좌, 제11연대장 김봉문 대좌, 제12연대장 왕휘 대좌, 그리고 포병연대장 차균섭 대좌였다.

<표 6-1> 동부지역 북한군 전투서열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2군단	군단장	중장	김무정(金武亭)	
		소장	최 인(崔 仁)	'50.9.10 이후
	문화부군단장	소장	임 해(林 海)	
	참모장	소장	최 인(崔 仁)	
제5사단	사단장	소장	김창덕(金昌德)	
	문화부사단장	대좌	장 복(張 福)	
	포병부사단장		박송파(朴松波)	
	참모장	총좌	조 관(趙 寬)	
	제10연대장	대좌	박정덕(朴正德)	
	제11연대장	대좌	김봉문(金奉文)	
	제12연대장	대좌	왕 휘(王 輝)	
	포병연대장	대좌	차균섭(車均燮)	
제12사단	사단장	소장	최춘국(崔春國)	
			최 인(崔 仁)	'50.8월말 이후
	문화부사단장		김 강(金 剛)	
	포병부사단장		최아립(崔阿立)	
	참모장	총좌	지병학(池炳學)	
	제30연대장	대좌	최학훈(崔學勳)	
	제31연대장	대좌	이원성(李原城)	
			이성진(李成鎭)	'50.8.1 이후
	제32연대장	대좌	황동화(黃東華)	
	포병연대장	대좌	마동결(馬東結)	
제766부대	부대장	총좌	오진우(吳振宇)	
	참모장	중좌	김 연(金 演)	

제12사단의 전투서열은 사단장 최춘국 소장을 비롯해 후임인 최인 소장과 문화부사단장 김강, 포병부사단장 최아립, 참모장 지병학 총좌가 지휘부를, 각 연대장은 제30연대장 최학순 대좌, 제31연대장 이원성 대좌와 후임인 이성진 대좌, 제32연대장 황동화 대좌, 그리고 포병연대장 마동결 대좌로 편성되었다. 또한 독립 유격부대로 활동 중 제12사단에 편입된 제766부대는 부대장 오진우 총좌와 참모장 김연 중좌가 지휘부를 구성하였다.[5]

(2) 공격준비태세

북한군은 국군 및 유엔군의 방어선을 종심 깊이 침투해 남동해안으로 신속하게 진출한 후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을 점령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낙동강을 도하한 후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해 온 북한군은 제5차 작전방침을 수립, 적 제2군단 예하에 3개 공격집단을 편성하였다.

이들 중 적 제5사단과 제12사단으로 구성된 제5공격집단은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돌파해 포항을 점령하고 경주를 경유해 최종 목표인 부산으로 진출한다는 세부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6] 그리고 공세에 앞서 기존의 '정면 견제 후 일부 또는 주력으로 배후를 공격'하는 전법을 포기하고 모든 접근로로 공격을 개시해 성공하면 그 지역에서 돌파구를 확장해 전과를 확대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한편 과도한 공세 및 보급선의 신장으로 보급 및 물자 면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북한군은 1950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작전준비기간을 설정하고 병력과 장비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포병은 물론 탄약, 소총, 전차 등의 부족은 결정적이었으며, 식량과 연료, 피복, 수송수단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7] 따라서 적은 공세에 대비해 사단 전투력과 기술병과를 강화하고 충분한 물자를 보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3) 전투력 수준

북한군은 낙동강 선에 도달하기까지 남진과정에서 손실된 병력과 장비를 북한이나 남한의 점령지역으로부터 징집과 조달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전투력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군과 유엔군의 포격과 공중폭격으로 보급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왔으며, 포병의 경우 50%의 물적 손실로 효율적인 화력운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

작전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은 개전 초기 약 10,000명의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제5차 작전이 끝날 무렵인 9월 10일경 제5사단의 병력은

인가 병력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8] 제5사단의 화력지원은 개전 초기에 122밀리 곡사포 12문, 76밀리 사단포 및 연대포 36문, 76밀리 자주포 16문, 45밀리 대전차포 48문 이외에도 120밀리 박격포 18문을 별도로 보유함으로써 총 130문의 포를 운영하였다.[9]

그러나 적이 제5차 공격을 전개할 무렵인 9월 초순에는 122밀리 곡사포 4문, 76밀리 포 12문, 45밀리 대전차포 12문, 120밀리 박격포 12문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사단에 배치된 SU-76 자주포 16문은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과 유엔 공군의 공중폭격으로 모두 파괴되어 화력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다.[10]

같은 시기 청송~기계~안강 방면의 공격임무를 담당한 적 제12사단 역시 다른 북한군 사단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공세와 국군 및 유엔군의 포격과 공중폭격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장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적 제12사단은 전력보강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았고, 또한 남한에서 의용군을 징집함으로써 총 병력은 약 10,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적 제12사단의 가용 화력은 122밀리 곡사포 20문, 76밀리 사단포 및 연대포 22문, 45밀리 대전차포 44문, 120밀리 박격포 22문과 82밀리 박격포 89문이었으며, 전차 및 장갑차 각 10대씩이 사단을 지원하였다.[11]

한편 북한군 지휘부는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결정적인 공격 전개를 위해 후방의 5개 사단을 추가 배치했으나, 이들 사단은 전쟁 도중에 편성되어 훈련은 물론 무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작전 전개과정에서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투입된 보충병 역시 남한 지역에서 징집된 후 단기간의 기본훈련만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수행 능력이 낮았다.

적은 유엔 해군 및 공군의 해상 작전과 공중작전으로 보급의 차질이 불가피하였고, 따라서 무기와 탄약은 물론 식량마저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식량의 보급은 8월 중순 이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고, 점령지역 내에서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2]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과 무리한 공격은 병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전개하는 심리전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왔다.[13]

(4) 인접부대 상황

1950년 8월 초 동부지역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 사단을 좌측(동쪽)에서 우측(서쪽)으로 제5사단과 제12사단 순으로 전개하였다. 작전지역의 동쪽을 담당한 제5사단은 동해안의 영덕~포항 축선의 공격을 담당하였고, 서쪽을 담당한 제12사단의 우측에는 안동~의성~영천 방면의 공격을 맡은 제8사단이었다.

2) 국군 상황

(1) 국군의 일반 현황

북한군이 국군을 추격하며 낙동강 외곽선까지 진출하자, 육군본부는 국군 제1군단 및 제2군단에 낙동강~반변천 연변의 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함께 육본직할의 제3사단은 오십천 연변 영덕~강구지구의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14]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안동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길안~청송 방면으로 이동해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새로운 방어선의 편성에 따라 동부지역의 제1군단은 약 40㎞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수도사단이 구미동~청송간 24㎞를, 제3사단이 영덕 정면의 16㎞에 이르는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국군이 담당한 방어정면을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보현산을 연결하는 수정된 방어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무렵 동부지역의 전황은 포항 점령을 목표로 한 적 제2군단 예하 제5사단이 영덕을 점령한 후 장사동의 국군 제3사단을 압박하고 있었다. 또한 기계부근에 출현한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포항에 침입하고 있었고, 유격 독립연대인 적 제766부대도 영덕에서 안강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동부지구의 전황이 새롭게 전개되자, 육군본부는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병력의 투입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로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8월 10일부로 편성해 안강지구에 투입하는 한편 수도사단도 급파하였다. 포항이 피탈되고 영일비행장과 경주가 위협을 받는 등 동부지역에서 위기상황이 전개

<표 6-2> 동부지역의 국군 전투서열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홍일(金弘壹)	
		준장	김백일(金白一)	'50.9.1 이후
	부군단장	준장	김백일(金白一)	
	참모장	대령	최덕신(崔德新)	
			이성가(李成佳)	'50.8.2 이후
			임선하(林善河)	'50.8.7 이후
제3사단	사단장	준장	이준식(李俊植)	
			김석원(金錫源)	'50.8.7 이후
		대령	이종찬(李鍾贊)	'50.9.1 이후
	참모장	중령	공국진(孔國鎭)	
			정래혁(丁來赫)	'50.9.1 이후
	제22연대장	중령	강태민(姜泰敏)	
			김응조(金應祚)	'50.8.18 이후
	제23연대장	중령	김종원(金宗元)	
			김종순(金琮舜)	'50.8.12 이후
	공병대대장	소령	박기석(朴基錫)	
배속부대	제10연대장	중령	고근홍(高根弘)	'50.9.6 복귀
협동부대	민부대장	대령	민기식(閔機植)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김석원(金錫源)	
		대령	백인엽(白仁燁)	'50.8.8 이후
			송요찬(宋堯讚)	'50.9.2 이후
	참모장	대령	최경록(崔慶錄)	
			윤춘근(尹春根)	'50.8.8 이후
		중령	이상근(李尙根)	'50.8.31 이후
	제1연대장	중령	한 신(韓 信)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기갑연대장	소령	백남권(白南權)	
포항지구 전투사령부[15]	사령관	대령	이성가(李成佳)	
	제17연대장	대령	김희준(金熙濬)	
	제25연대장	중령	유해준(兪海濬)	
		대령	이기건(李奇建)	'50.8.11 이후
	제26연대장	중령	이백우(李白雨)	
		대령	이치업(李致業)	'50.9.2 이후
	해군육전대장	소령	정 진(鄭 震)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브래들리·잭슨·처치 특수임무부대를 차례로 편성해 포항과 경주지구에서 적의 남침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동부지역의 방어임무는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육군본부 직할의 제3사단이 담당하였다. 수도사단은 제1·제18연대·기갑연대, 제3사단은 제22·제23연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김홍일 소장과 후임인 김백일 준장, 부군단장 김백일 준장, 참모장 최덕신 대령과 후임인 이성가, 임선하 대령이었다.

그리고 예하 수도사단의 지휘부는 사단장 김석원 대령과 후임인 백인엽, 송요찬 대령, 참모장 최경록 대령과 후임인 윤춘근 대령, 이상근 중령으로 구성되었다. 제3사단의 지휘부는 사단장 이준식 준장과 후임인 김석원 준장, 이종찬 대령, 참모장 공국진 중령과 후임인 정래혁 중령으로 이루어졌다.

수도사단 예하의 연대장은 제1연대장 한신 중령과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 기갑연대장 백남권 대령이었고, 제3사단은 제22연대장 강태민 중령과 후임인 김응조 중령,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과 후임인 김종순 중령이었다.

또한 수도사단에 배속된 포항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 이성가 대령을 비롯해 제17연대장 김희준 대령,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과 후임인 이기건 대령, 그리고 제26연대장 이백우 중령과 후임인 이치업 대령, 해군육전대장 강기천 소령이 지휘부를 편성하였다.

(2) 전투준비태세와 전투력 수준[16]

동부지역의 국군 제1군단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부대기동이 제한되고, 특히 보급로가 빈약하므로 북한군이 지역내 청송~현동~죽장~기계 축선으로는 사단단위 전투부대를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군 제1군단은 양호한 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안동~의성 축선과 영일비행장이 있는 포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포항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육군본부는 개전 이전부터 공비들이 준동한 보현산과 구암산 일대에 적 제766부대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독립 유격 제1대대와 제1201

<상황도 6-1-1> 동부지역 작전(1) (1950. 8. 1~9. 14)

A3

<상황도 6-1-2> 동부지역 작전(2) (1950. 8. 1~9. 14)

A3

건설공병단을 투입해 소탕작전에 착수하였다.

한편 전투력 수준에 있어, 금강~소백산맥 선에서 이동해 낙동강 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 제1군단의 병력은 여러 보충원(補充源)에 의해 대체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될 무렵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병력은 각각 약 5,780명과 6,470명이었다. 국군은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많은 전투경험과 숙달된 전투기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활한 보급과 항공기의 근접지원으로 병력의 열세를 상쇄할 수 있었다.

(3) 인접부대 상황

국군 제1군단 방어 정면 중 우측(동쪽)의 제3사단은 주로 영덕~포항 축선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를, 좌측(서쪽)의 수도사단은 청송~기계~안강 축선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수도사단 좌측의 부대는 국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으로서 안동~의성~영천 축선의 의성과 보현산, 영천 일대에서 북한군 제8사단 및 제1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 2 절 기계-안강 전투

1. 전투 개요

기계-안강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기계와 안강, 포항 및 경주 북부 일원에서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이 북한군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로 증강된 제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1군단은 적의 주력이 안동~의성~영천 접근로에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하 제8사단을 의성 일대에, 수도사단을 길안 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단이 8월 5일부터 단행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방어선이 와해됨에 따라 제1연대는 의성 일대로, 퇴로가 차단된 제18연대와 독립 기갑연대는 구수동을 경유해 의성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청송~기계 축선은 무방비상태가 되었고, 적 제12사단은 이 공백지대를 통해 저항 없이 남하하여 8월 9일 기계를 점령한 후 포항으로 진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육군본부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급편하여 제25연대와 함께 기계에 투입하고 제17연대와 민부대, 그리고 신편부대인 제26연대를 배속하였다. 아울러 의성에 집결한 수도사단(-)을 안강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를 현동으로 진출시켜 기계 일대의 적을 남북 양쪽에서 포위하였다.

8월 13일 제1군단의 명령에 따라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안강지구로 이동시켰고, 제18연대와 독립 기갑연대는 구산동에서 동남진하였다. 8월 16일 제17연대가 기계 남쪽 고지를 탈환한 후 기계로 전진하고, 기계 북쪽에서는 제18연대가 용기동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후 측방을 위협하였다. 퇴로차단의 위협을

느낀 적이 비학산 일대로 퇴각함으로써 수도사단은 18일 오후 기계를 탈환하였다.

비학산 일대에서 제766부대를 해체해 병력보충과 부대를 재편성한 적은 8월 26일 야간에 대규모 공격을 재개해 새벽 무렵에 기계를 재점령하였다. 전황 보고를 받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동부전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잭슨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고, 수도사단과 잭슨 특수임무부대는 기계를 점령하기 위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수도사단이 기계 남쪽 고지에 제18, 제17, 제1연대순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9월 2일 적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차를 선두로 기계~안강 도로를 따라 주공을 투입한 적은 일부 병력으로 제18연대를 우회공격함으로써 아군 방어선의 서측이 위태롭게 되었다.

수도사단장은 사단의 좌측 방어선이 돌파되자 안강 남쪽의 곤계봉~호명리 일대로 철수를 명하였다. 그리고 무릉산~곤계봉 간에 기갑연대와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안강에 집결한 적은 전차를 선두로 경주를 향해 남진을 시작하였고, 무릉산~곤계봉 일대에 병력을 집중해 공격하였다.

수도사단은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수시간만에 진지가 돌파되었으나, 즉시 기갑연대 제3대대와 제17연대로 역습을 전개해 진지를 회복하고 적의 돌파구 확대를 봉쇄하였다. 하지만 양측은 곤계봉 확보에 전체작전의 성패를 걸고 치열한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적 제12사단은 폭우로 인해 유엔 공군의 폭격이 중단된 틈을 타 공격을 재개해 곤계봉을 다시 장악하였고, 이어 옥녀봉과 운제산까지 진출하였다. 워커 중장의 운제산 탈환명령에 따라 제18연대는 운제산 서남쪽에서 적의 경주 진출을, 그리고 제26연대는 운제산 우측에서 적의 비행장 방면 진출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제18연대를 운제산 북쪽 197고지와 옥녀봉 서측고지 일대로 진출시켜 적의 후방을 차단한 후 공격을 가해 운제산을 탈환하였다. 이어 형산을 탈환한 수도사단은 제17연대가 9월 12일 야간에 곤계봉 탈환에 성공함으로써 안강 남쪽의

주저항선을 회복하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전투로 적 제12사단은 낙동강 전선의 동부지역 돌파작전에 실패하였고, 국군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적을 추격해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이행하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950년 8월 3일 청송을 출발한 북한군 제12사단은 도평동을 경유하여 입암리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766부대는 향로봉과 비학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를 타고 남하하여 기계와 안강 부근에 출현하고 있었다. 적 제12사단과 제766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남진한 적 제5사단과 호응하여 아군의 방어력이 미약한 기계와 안강, 경주 등을 점령한 후 최종 목표인 부산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북한군의 전투력 수준은 낙동강 선까지의 남진과정에서 손실된 병력을 남한의 점령지역에서 징집하여 충원하였다. 그러나 적은 제공권 및 제해권의 상실로 보급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개전 초기 전투력의 약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청송~기계~안강 방면으로 진출한 적 제12사단은 제766부대 병력을 포함하여 약 15,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제12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최춘국 소장과 후임인 최인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지병학 총좌, 제30연대장 최학훈 대좌, 제31연대장 이성진 대좌, 제32연대장 황동화 대좌와 포병연대장 마동결 대좌였다. 또한 제766부대의 부대장과 참모장은 오진우 총좌와 김연 중좌였다.

적 제12사단의 장비는 전차 10대와 장갑차 10대를 비롯해 122밀리 곡사포 20문, 76밀리 사단포 및 연대포 22문, 120밀리 박격포 22문, 82밀리 박격포 89문, 45밀리 대전차포 44문을 보유하였다.

2) 국군 상황

청송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1950년 8월 5일 의성으로 철수중에 있었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강구에서 적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적의 대규모 병력이 기계와 안강지역으로 남진을 시작하자, 즉각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는 한편 수도사단을 이 지역으로 기동시켜 이들의 공격을 저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일대에서 계속 남하를 시도하던 적 주력부대의 기도를 와해시켜 동해안선에 따르는 아군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기계~안강지역 전투에 참전한 수도사단의 병력은 포항지구전투사령부의 병력을 포함하여 약 10,000명 수준이었다. 또한 이들 부대가 보유한 무기 및 장비는 105밀리 유탄포 10문, 81밀리 박격포 64문, 60밀리 박격포 92문, 57밀리 대전차포 28문과 3.5인치 로켓포 105문 등이었다.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다른 사단과 마찬가지로 현지 관서의 협조와 후방으로부터의 추진으로 충족하였으며, 탄약의 보급도 대체로 원활하였다.

수도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백인엽 대령과 후임인 송요찬 대령을 비롯해 제1연대장 한신 중령,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 기갑연대장 백남권 대령이었다. 포항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인 이성가 대령을 비롯해 제17연대장 김희준 대령,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 제26연대장 이백우 중령, 해군육전대장 강기천 소령이었다. 수도사단 및 포항지구전투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현황은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3> 수도사단 및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주요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수도사단	사단장	대령	백인엽(白仁燁)	
			송요찬(宋堯讚)	'50.9.2 이후
	제1연대장	중령	한 신(韓 信)	
	제1대대장	소령	김황목(金煌穆)	
	제2대대장	소령	유항박(柳恒博)	
	제3대대장	소령	강완채(姜琓采)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1대대장	소령	장춘권(張春權)	
	제2대대장	소령	정승화(鄭昇和)	
			김봉상(金鳳翔)	
	제3대대장	소령	박철용(朴喆用)	
			안민일(安旼一)	
	기갑연대장	대령	백남권(白南權)	
	제1대대장	소령	정세진(丁世鎭)	
	제2대대장	소령	박도경(朴道璟)	
	제3대대장	소령	임관묵(林觀默)	
포항지구 전투사령부[17]	사령관	대령	이성가(李成佳)	
	제17연대장	대령	김희준(金熙濬)	
	제1대대장	소령	전우영(全禹榮)	
	제2대대장	중령	조영구(趙榮九)	
	제3대대장	소령	유창훈(柳昌燻)	
	제25연대장	중령	유해준(兪海濬)	
		대령	이기건(李奇建)	'50.8.11 이후
	제1대대장	소령	유정탁(柳貞鐸)	
	제2대대장	소령	최재홍(崔在鴻)	
	제3대대장	소령	이방우(李芳雨)	
	제26연대장	중령	이백우(李白雨)	
		대령	이치업(李致業)	'50.9.2 이후
	제1대대장	소령	정 진(鄭 震)	
	제2대대장	소령	김용주(金龍周)	
	제3대대장	소령	은석표(殷碩杓)	
	해군육전대장	소령	강기천(姜起千)	

3. 전투 경과

1) 기계방어전(8월 9일~12일)

(1) 길안~청송 방어전과 구수동 철수작전

8월 1일 안동을 점령한 적 제12사단은 다음날 야간을 이용해 안동 동쪽의 송천동에서 반변천을 도하하였다.[18] 이들은 신덕동~길안 축선에 주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동쪽의 산악지대로 산개시켜 수도사단의 관심을 산악지대로 유인하기 위한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신덕동~길안~청송 통로를 확보해 청송~현동~기계 축선으로 남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적의 계책이었다.[19]

따라서 적은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는 국군을 제766부대와 함께 동서 양쪽에서 포위하려고 기도하였다. 적 제66부대는 남한내 후방지역의 주요 시설과 교통망을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진보 및 청송 일대는 물론 일부 병력은 구산동과 구암산 및 보현산 등지에서 준동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영양~청송 축선에서 준동하는 적 제766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영동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있던 독립 기갑연대(이하 기갑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해 진보로 진출시켰다.[20] 7월 26일 기갑연대장은 이 지구에 배치된 강원경찰 제5대대장 김인호 총경으로부터 적의 동정을 확인한 후 진보~영덕~강구간 도로의 소통작전을 계획하였다.

기갑연대는 전투정찰대를 편성해 다음날부터 8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도로 소통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기갑연대와 강원경찰 제5대대는 반변천 연변의 261고지~월전동~273고지에 방어선을 형성해 적 제766부대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진보 정면에 위치하고 있던 적은 시량동에 대대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킨 후 8월 2일을 기해 비봉산 동쪽으로 우회를 시도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적 제766부대가 청송을 포위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375고지~375고지 동쪽 1.5㎞ 지점의

무명고지~비봉산~666고지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는 지세가 험한 고지의 8부 능선이나 정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함으로써 인접부대간에 상당한 간격이 발생하였다. 이는 침투와 야간전투에 능한 적 제766부대의 작전을 저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8월 4일 이른 새벽 기갑연대는 전날 밤에 방어선 후방으로 침투한 적의 기습으로 방어선이 붕괴되고 병력이 분산되었다. 기갑연대는 제3도보대대를 354고지에 배치하고 강원경찰 제5대대를 방광산에 재배치해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던 중 8월 5일 05시에 구수동으로 철수하라는 수도사단의 명령을 받았다. 철수준비에 착수한 기갑연대는 야간에 적의 공격을 받고 강원경찰 제5대대와 함께 구수동 송토산 마을로 철수하였고, 전날 새벽부터 통신이 두절되었던 제1장갑대대와 제2기병대대도 오전에 연대에 합류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제1군단의 명령에 따라 8월 2일 길안으로 진출해 추목동 다리골~426고지 간에 새로운 방어선을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다.[21]

① 사단 전술지휘소 : 길안초등학교
② 좌전방인 제1연대의 방어정면 : 추목동 다리골~새터간의 6.5㎞
- 연대 전술지휘소 : 동변동 걸미골
- 제1대대 : 추목동 다리골, 384고지
- 제2대대 : 새터
- 제3대대(연대 예비) : 걸미골에서 집결 대기

③ 우전방인 제18연대의 방어정면 : 390고지~426고지간의 8㎞
- 연대 전술지휘소 : 구수동
- 제3대대 : 390고지, 약산
- 제1대대 : 와룡산, 426고지
- 제2대대(연대 예비) : 구수동에서 집결 대기

이 밖에도 수도사단은 기갑연대를 배속받고,[22] 이어 호림부대를 길안 북쪽 1㎞ 지점의 무명고지에 배치해 길안의 경계임무를 부여하였다.[23] 그러나 이러한 방

어배치는 신덕동~길안 축선에 대한 방어책이 미약해 적이 이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할 경우 방어선의 중앙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24]

수도사단이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할 무렵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금소동과 추목동으로 은밀히 침투하였지만, 아군은 이러한 적의 행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8월 5일 03시경 규모 미상의 적이 제1연대 방어지역의 384고지와 321고지로 침투해 측후방에서 아군을 공격하였다. 갑작스럽게 방어진지의 측방과 후방에서 기습을 받은 제1연대의 2개 대대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병력이 분산되었고, 이로써 사단의 좌전방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07시경에는 신덕동~길안간 도로를 따라 남하한 적이 사단 전술지휘소와 인근의 사단직할대를 공격하였다. 개활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던 아군은 북동쪽 감제고지로부터 집중되는 적의 사격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가까스로 철수를 단행, 12시경 길안 남서쪽 13㎞ 지점의 윤암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사단은 각 연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 무렵 제1연대는 적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 예비인 제3대대를 성황고개에 배치해 철수중인 제1대대와 제2대대의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는 08시경 구수동에 있는 전술지휘소가 소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으나, 반격을 가해 격퇴하였다. 제18연대장은 사단과의 연락유지 및 적정 파악을 위해 연대 수색대를 길안~구수동간 양곡재로 급파하였다. 이때 적은 이미 구수동에서 의성과 청송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914번 도로상의 양곡재는 물론 구수동 동쪽의 가산재마저 점령함으로써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퇴로가 차단되었다.[25]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구수동에 포위된 2개 연대의 퇴로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재 공격에 제1연대를 투입하였다. 연대는 성황고개를 공격개시선으로 제1대대와 제2대대로 병행공격하였다. 하지만 적이 이미 성황고개 북동쪽 1.5㎞ 지점까지 진출해 있어 아군은 더 이상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제18연대는 구출작전이 전개되었으니 의성으로 철수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예하 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작전이 실패한 것을 확인한 연대는 연대 예비인 제2대대로 양곡재를 공격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장의 재량에 따라 의성으로 철수해 집결하도록 제18연대와 기갑연대에 명령하였다. 이에 각 연대와 예하 부대는 모든 중장비와 탄약, 보급품을 파괴하거나 소각한 후 20시 30분에 구수동과 송토산 마을에서 철수를 개시해 계명산~고란동~송제~구산동을 거쳐 8월 6일 19시 30분부터 22시 30분 사이에 의성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8월 5일 이후 청송 일원에는 광대한 공백지대가 형성되었고, 청송~기계 축선에는 국군 병력이 거의 배치되지 않았다.

수도사단은 다음날 제1연대를 성황고개~460고지~만음동을 연하는 선에 배치해 적의 측방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제18연대를 의성으로 이동시켜 기갑연대와 함께 부대정비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기갑연대는 보병연대로 개편되었고, 8월 9일 군단명령에 따라 수도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구산동으로 이동하였다.[26]

국군 제1군단은 8월 12일 육군본부 계획에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예하 사단에 하달하였다.[27]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8월 12일 제8사단의 엄호하에 사단 주력은 안강 지구로, 제18연대는 구산동으로 각각 이동해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와 기계·안강 일대에서 교전중인 적 제12사단을 역포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다.

(2) 기계 피탈과 포항지구전투사령부의 편성

북한군은 7월 중순 보현산과 구암산 일대로 침투한 제766부대의 정찰활동으로 청송~현동~죽장~기계~안강 축선에 대한 국군의 방어태세가 무방비 상황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적 제2군단은 증강된 1개 사단을 국군의 방어선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시켜 기계와 포항을 기습 점령함으로써 경주와 부산 방면에 대한 공격 발판을 마련하려 하였다.

한편 국군은 수도사단이 청송 전투 이후 의성으로 철수함에 따라 청송 일원은 공백지대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적 제12사단은 국군의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청송~현동~죽장~기계 축선으로 남진할 수 있었고, 동시에 적 제766부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성~구산동~자천 축선에서 양공작전을 단행하였다.

8월 5일 청송~현동 축선으로 남하를 개시한 적 제12사단 예하의 1개 연대는 전차와 장갑차 등을 앞세우고 청송과 입암을 거쳐 8월 7일 오후 도평동에 도달해 적 제766부대와 합세한 후 남진을 계속해 다음날 죽장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국군과 미 제8군사령부는 적의 공격목표가 기계와 안강, 그리고 경주인 것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하였으나, 적의 돌파구 형성을 저지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위기를 직감한 육군본부는 8월 8일 기계와 안강을 거쳐 경주지구로 남하하려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에서 새로 편성된 제25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해 급파하였다.[28] 그러나 제25연대는 병력 수송차량이 부족하였고, 특히 재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력의 축차투입이 불가피해 전투력의 발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8월 9일 기계 북쪽까지 남하한 적은 부근에 배치된 아군을 격파하고 기계를 무혈점령한 다음 진출을 일시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시경 선발부대로 안강에 도착한 제25연대 제1대대는 안강 북쪽 6㎞ 지점의 노당리 445고지 능선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 약 300명은 기계 북쪽에서 적과 지연전을 전개하고 후퇴해 안강 북쪽 5㎞ 지점의 다산동 북쪽의 145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29] 8월 6일 옥산동과 안강, 기계에 각각 1개 중대씩을 배치하고 있던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는 이틀 후 적 제12사단이 죽장에서 기계로 진출하자, 구지동 부근에서 적과 접촉하며 수집된 첩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8월 9일 이른 아침 적 제12사단이 기계를 점령한 것을 확인한 해군육전대는 기계 동쪽 3㎞ 지점의 달성동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11시경 현지에 도착한 제25연대와 협조하여 다산동의 145고지에서 포항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다음날 포항지구전투사령부에 편성되었다.



기계 시가 전경

제25연대장은 해군육전대장을 통해 적이 이미 기계를 점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미 공군기가 기계 시가에 기총소사를 가하는 등 적정이 불투명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전투정찰대를 편성해 기계 부근으로 침투시켰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 무렵 열차편으로 포항에 도착한 제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대대본부와 제9중대를 포항 북쪽의 소티재에, 제10중대를 대대 예비로 효자역에 집결시켰고 잔여 병력은 안강으로 이동시켰다.

정확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대장이 조속한 병력증원을 요청하기 위해 포항의 사단사령부로 떠난 후 16시경 병력 미상의 적이 제25연대 관측소를 기습 공격하였다.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펼쳐진 가운데 연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이 불리해져 445고지 하단으로 방어선을 조정하였다. 다음날 제25연대장은 새로 도착한 제3대대에 445고지를 점령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제1대대를 안강에 집결시켜 재편성을 완료한 후 외곽지역에 배치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제25연대의 급파에 이어 8월 9일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해 기계·포항지구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30] 포항지구전투사령부는 제17, 제25, 제26연대와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 제1유격대대와 제2유격대대, 그리고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 및 미 제18야전포병대대 C포대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제17연대와 해군육전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 신편된 부대로서 부대원들은 야간전투에 미숙하고 적의 측후방 침투나 교란행동에 취약해 전투임무 수행능력이 매우 낮았다.

(3) 제17연대의 반격과 445고지 탈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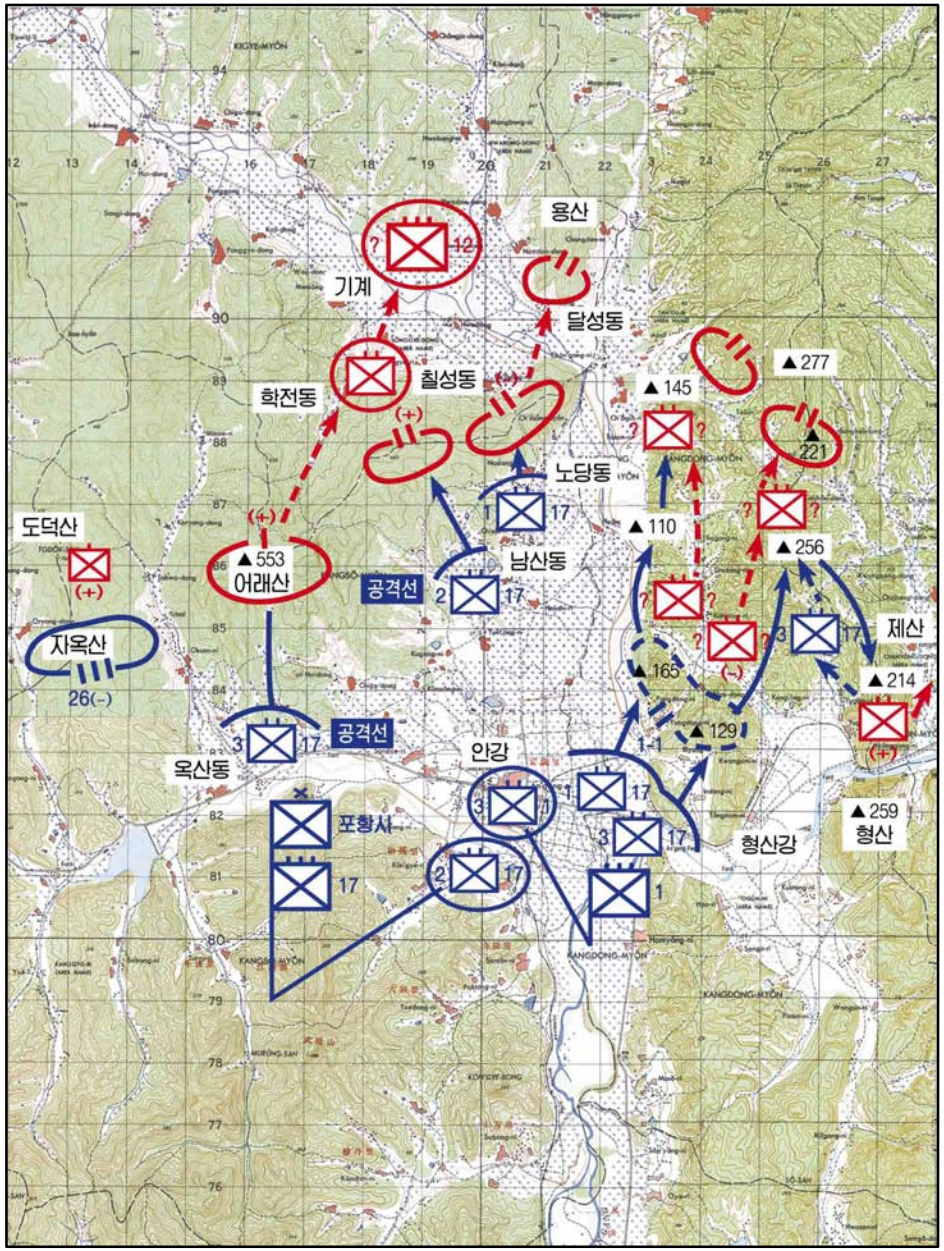
8월 7일 미 제8군의 예비로서 마산 전선으로 행군하던 중 수도사단에 배속된 제17연대는 군단의 명령에 따라 8월 9일 야간에 구산동으로 진출하였다.[31] 그러나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이 포항 북방의 소티재에서 포항으로 진입할 태세를 보이고, 도음산~236고지~227고지~경주로 연결된 능선 축선을 지향한 1개 연대의 적이 양동 부근까지 진출하는 등 기계지구의 전황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제17연대를 8월 10일을 기해 포항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하고 안강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32]

8월 11일 아침 안강에 도착한 제17연대장은 적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신장비의 미비로 포항지구전투사령부와도 교신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을 분석한 연대장은 해군육전대가 방어중인 양동 일대가 가장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양동 일대의 적을 우선 격퇴한다는 작전복안을 포항지구전투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① 연대 전술지휘소 : 안강
② 좌일선 : 제1대대, 목표 145고지
③ 우일선 : 제3대대, 목표 236고지
④ 연대 예비 : 제2대대, 안강에 집결 대기[33]

제17연대는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와 협조하여 10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앞선 전투에서 터득한 전투기량을 발휘해 목표내의 적을 격퇴한 제17연대는 다음날 아침 최종 목표인 145고지와 236고지를 탈환하고 기계~포항간 도로를

<상황도 6-2> 제17연대 공격상황(1950. 8. 11)



제압하였다.

8월 11일 포항을 점령한 적 제12사단은 제5사단의 일부 병력으로 증강한 후 안강과 경주로 남하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제17연대는 145고지와 236고지 선에서 일단 진출을 중단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한편 제3대대를 이날 오전 터널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도로를 따라 전술행군 대형으로 접근하는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근거리로 유인해 일제사격으로 격멸하고 236고지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17연대의 기계~포항간 도로 차단은 적 제12사단에 충격을 주었다. 적은 8월 공세의 최종목표인 경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기계~안강~경주 축선으로 기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강지구의 국군이 증강되기 이전에 적 제5사단과 연결해 남하하려던 적 제12사단은 제17연대의 신속한 증원과 반격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아울러 적은 의성과 구산동 일대에 위치한 수도사단이 자신들의 병참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적 제12사단은 기계의 확보가 국군의 포위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기계 남쪽의 구련봉, 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445고지의 탈취에 주력하였다.

8월 12일 적 제12사단은 445고지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 고지를 방어중인 제25연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고지 일대에 배치된 제25연대 제1대대와 제11중대는 이날 오후부터 강력해진 적의 공격을 받았다. 온갖 힘을 다해 저항하던 제1대대는 계속된 적의 공세에 밀려났지만, 어래산에 배치된 제11중대는 치열한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에 앞서 제17연대는 적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기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445고지의 확보가 선결문제라 판단하고 연대 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하였다. 하지만 제2대대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제25연대 주력이 분산되어 제2대대는 445고지 4부 능선에서 다음날의 공격에 대비하였다.[34] 제17연대장은 지형과 적정을 감안해 145고지의 제1대대를 노당동으로 이동시키고, 236고지의 제3대대를 145고지에 재배치함으로써 제17연대가 제25연대의 전투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35]



기계 시가에서 본 구련봉 전경

공격준비를 완료한 제17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8월 13일 미 제18포병대대 C포대와 연대 57밀리 대전차포중대의 근접지원 아래 445고지와 노당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양 대대는 8부 능선까지 진출했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또한 145고지를 방어중인 제3대대는 전날 밤부터 가해진 적의 역습을 진전에서 저지했으나, 탄약의 부족으로 양동 북쪽 165고지 일대로 철수해 수도사단 제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안강에 집결하였다.

안강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3대대는 8월 14일 어래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36]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목표 점령에 실패한 대대장은 정면 공격을 지양하고 1개 중대를 좌측방으로 우회시켰다. 아울러 결사를 다짐하는 의미로 흰 수건을 머리에 맨 특공대를 편성해 대대장의 진두지휘로 공격을 전개해 어래산 정상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때까지 후미진 능선에 고립되어 있던 제25연대 제11중대를 구출하였다.

또한 제17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 옥산동으로 진출해 자옥산과 어래산 서쪽 능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제26연대에 방어지역을 인계하고 연대 예비로 안강에 집결하였다.[37]

한편 제1군단은 적의 남하를 저지해 기계~포항선 일대에 고착시키기 위한 포위작전의 일환으로 제1연대를 안강지구로 이동시켰으며, 제17연대를 수도사단으로 배속시켜 안강·기계지구작전을 수도사단이 관장하도록 조치하였다.[38] 이에 따라 8월 12일 오후 열차편으로 의성을 출발한 수도사단 예하 제1연대는 경주에서 야영을 한 후 다음날 안강으로 행군하였다.[39]

2) 기계탈환전(8월 13일~18일)

(1) 역포위 작전과 제18연대의 남진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이 도평동에 출현한 상황을 보고받은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즉시 독립기갑연대를 구산동에 투입해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다. 다음날인 8월 8일 적은 죽장으로 남하해 기계로 진출하였다.

육군본부는 동부전선의 전반적인 전황을 분석한 후 8월 11일 오후 제1군단과 제2군단간의 작전지역을 일부 재조정하였다.[40] 이에 따르면, 제1군단은 계획된 방어선으로 철수하면서 제8사단이 수도사단의 방어지역인 보현산지구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제1군단의 작전지역을 기계·안강·포항지구까지 확대해 제3사단을 제1군단에 배속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제2군단은 화산 동쪽 일대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어 자칫 잘못하면 경주를 상실하는 상황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제1군단장은 수세일변도의 작전에서 탈피해 기계 일대로 진출한 적을 역포위할 작전을 구상하였다.

전반적인 전황을 종합 분석한 제1군단장은 기계 및 포항으로 진출한 적의 공격지속능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제1군단장

은 수도사단을 안강으로 이동시키고, 제17연대를 수도사단장이 통합 지휘해 적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사단 예하의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를 구산동~현동에 전개시켜 적 제12사단의 주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북에서 남으로 진격토록 함으로써 기계지구의 적을 포위 공격하는 역포위작전을 계획하였다.[41]

하지만 역포위작전의 성패는 도평동 부근에서 남진하는 국군 2개 연대의 배후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달려 있었다. 따라서 제1군단장은 제8사단을 보현산지구로 이동시켜 구산동~도평동 선에 임시방어선을 편성해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의 공격을 엄호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42]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12일에, 제8사단은 다음날에 각각 행동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명령에 따라 안강에 도착한 제1연대는 8월 13일 저녁 제17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한 후 제1대대를 양동 주변의 165고지와 129고지에, 제3대대를 유금동 동쪽의 제산에 각각 배치하고 제3대대를 예비로 안강에 집결 대기시켰다.[43] 반면에 적 제12사단은 8월 13일을 전후해 도음산~236고지~양동~227고지 방향에 주공을 지향하는 한편 기계~445고지~무릉산 방향으로 조공을 투입하기 위해 병력을 2개 접근로에 분할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연대가 양동~유금동 선상에 방어선을 형성한 13일부터 이 일대는 적의 활동과 압력이 급격히 증강되었다. 이로 인해 피아간의 격렬한 공방전이 3일간 계속되었고, 기계~포항 도로선까지 진격하려던 제1연대의 계획은 작전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했다.

한편 8월 12일 구산동을 거쳐 실곡에 집결한 수도사단 제18연대는 독립기갑연대와의 협조하에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44] 그러나 실제 작전은 8월 14일에 개시되었는데, 이는 양 연대의 후방을 엄호할 제8사단의 지원태세가 지연되었고, 안강 부근의 제17연대 반격이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8월 14일 이른 아침 부군단장 김백일 준장의 지휘하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8연대는 361고지~자초산~520고지~죽장~기계를 연하는 축선에 2개 대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기갑연대는 475고

지~847고지~441고지~운주산 축선에 1개 대대를 공격부대로, 1개 대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을 전개하였다.[45]

양 연대는 거의 교전이 없는 상태에서 31번 도로를 중심으로 한 보현산 북쪽과 구암산 서편의 산악지대를 따라 20여 ㎞를 남하해 20시 무렵 죽장은 물론 봉화봉과 538고지까지 탈환함으로써 다음날 기계 및 운주산으로 남진할 공격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죽장에 위치하고 있던 적 제12사단의 2개 대대와 후방지원부대는 급히 비학산으로 철수하였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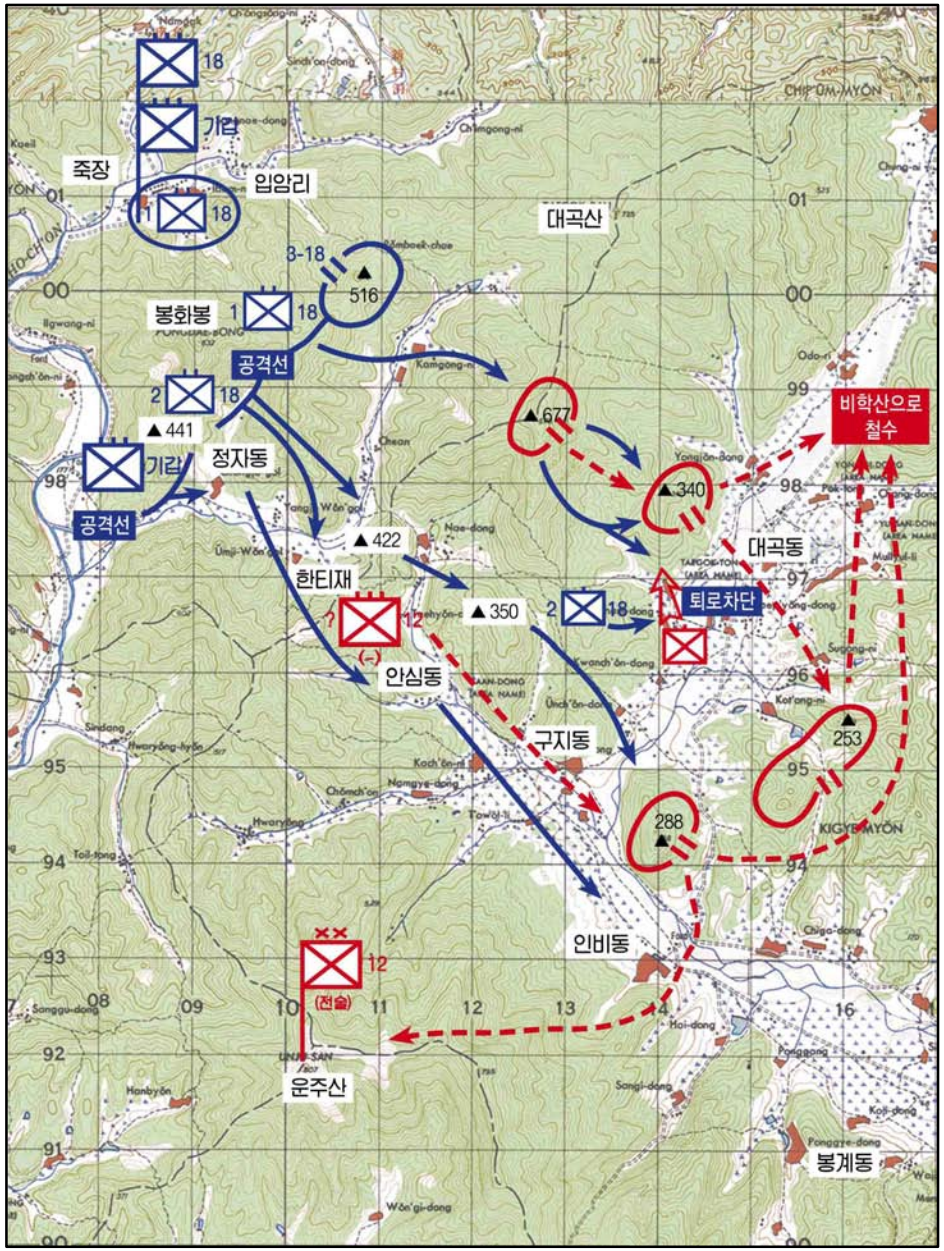
이번 작전을 진두지휘하던 부군단장이 죽장을 탈환한 직후 군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독자적인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갑연대는 재편성을 완료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편성 또한 2개 대대에 불과해 전투력은 증강된 1개 대대에 불과하였다. 이에 제18연대가 죽장~기계 진격에 주공을 담당하고, 기갑연대는 잔적소탕과 측방엄호 임무를 맡았다.

제1군단장으로부터 "단시일 내에 기계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8연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작전지역내의 적정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해 8월 15일 2개 대대로 여명공격을 감행하기로 계획하였다.[47]

① 좌전방 제1대대 : 516고지~677고지~340고지~253고지~기계
② 우전방 제2대대 : 441고지~한티고개~350고지~238고지(238고지를 탈취한 후 명령에 따라 기계로 진출)
③ 연대 예비 제3대대 : 제2대대를 후속

한편 제18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기갑연대는 441고지~정자동~안심동~인비동 축선으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기계 일대의 적 제12사단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제1연대와 제17연대를 저지하고 있던 중 배후로부터 위협받고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보급로가 차단되어 보급이 두절된 상태에서 전투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상황도 6-3> 제18연대 및 기갑연대의 공격상황(1950. 8. 15)



(2) 253고지~288고지 전투와 기계 탈환

연대 예비로 죽장에 진출한 제18연대 제1대대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연대의 좌전방 대대로 행동을 개시해 공격개시선인 516고지로 이동하였다. 04시 30분을 기해 기계를 목표로 진격을 시작한 제1대대는 약 2시간 후 670고지로 접근해 방어진지를 편성하지도 못한 적을 격퇴한 후 여세를 몰아 340고지를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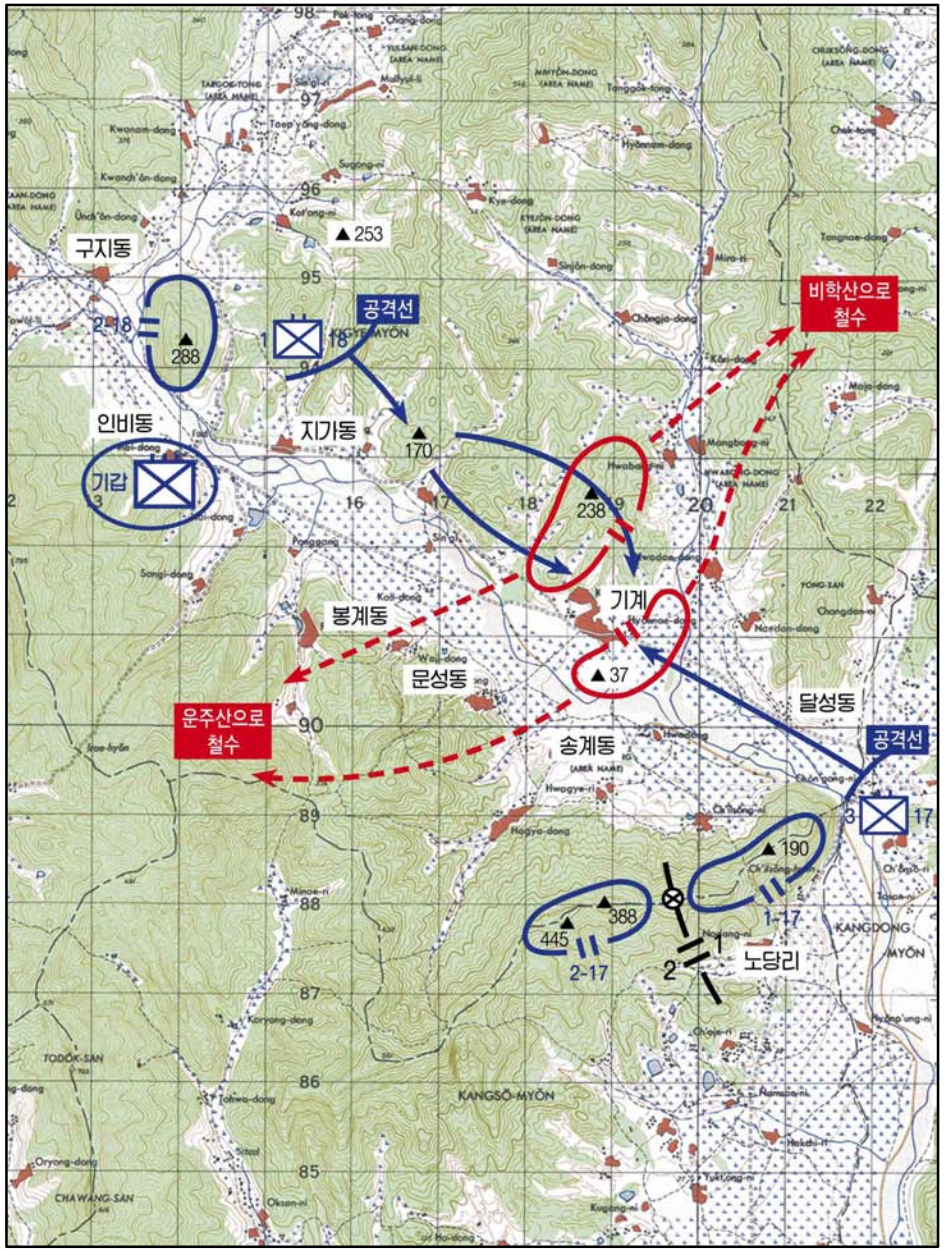
하지만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고지 확보에 실패한 제1대대는 우측방으로 우회공격을 시도하던 중 대곡동에서 1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공격을 일시 중단하였다. 제1대대장은 적 주력부대의 방어진지 편성을 위한 파쇄공격으로 판단하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 예비인 제2중대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가해 적을 격퇴한 다음 340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연대 우전방인 제2대대는 연대 57밀리 대전차포중대의 근접지원 아래 31번 도로 좌측으로 진출해 중간목표인 한티재를 탈환하고 동쪽의 350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1시간 후 고개 남쪽 계곡에서 밀집대형으로 북상하고 있는 적을 포착하고 기습사격을 가해 격퇴하였다. 또한 제2대대의 우측에서 기동한 기갑연대도 정자동에 진입하였다.[48]

제18연대는 8월 16일 공격을 재개해 253고지~288고지 선상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 제12사단의 1개 연대와 육박전을 포함한 치열한 공방전을 종일 전개했으나 목표를 탈취하는데 실패하였다. 적 제12사단은 기계 남쪽 445고지와 동쪽 145고지, 제산 일대를 힘겹게 방어하면서 북쪽에서 제18연대와 기갑연대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력을 기계 북방의 253고지~288고지 선에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방어력이 약화된 적은 결국 445고지와 236고지를 상실하였다.[49]

8월 17일 이른 새벽 공격을 개시한 제18연대는 이날도 혈전을 반복하였다. 특히 제2대대는 야간을 이용해 288고지의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저항하는 적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으나, 고지의 8부 능선에 형성된 수류탄 탄막지대를 극복하지 못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상황도 6-4> 제18연대의 기계탈환 상황(1950. 8. 18)



이에 대대장은 대대 예비인 제7중대를 측방으로 우회시켜 공격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적의 방어진지 일부를 돌파한 제2대대는 돌격을 감행해 백병전을 전개하며 목표를 탈취하였다. 또한 제1대대가 이에 앞서 253고지와 무명고지를 점령하자, 적 제12사단은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소부대단위로 분산된 채 비학산으로 철수하며 국지적인 저항을 지속하였다.

반면 전과확대로 전환해 수많은 전과를 거둔 제18연대는 기계를 탈환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제1대대에 기계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8월 18일 0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기계 북쪽의 무명고지와 238고지 일대에 배치된 적을 격멸하고 13시경 기계로 돌입해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소탕하였다.[50]

이와 동시에 기계 남쪽의 445고지와 190고지를 장악하고 있던 제17연대는 제18연대의 공격에 맞춰 연대 예비인 제1대대를 기계 남쪽에 투입해 협공을 가하였다.[51] 기계 부근의 적은 대부분이 격멸되고 일부 병력만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로써 적에게 피탈되었던 기계를 성공적으로 탈환한 아군은 이 전투에서 적 사살 1,245명, 포로 17명, 무기 및 탄약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고, 전사 92명, 부상 171명, 실종 500여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기계를 탈환했다는 보고를 받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제1군단장에게 격려의 전문을 보내는 동시에 8월 19일에 직접 제1군단을 방문해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였다.[52]

(3) 제1연대의 반격과 운주산 포위작전

적 제12사단 주력이 기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8월 16일 도음산~236고지~227고지 선상에 투입된 예하 1개 연대가 남진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적정을 확인한 제1연대는 110고지~236고지에서 경계를 강화하였다.

다음날 제1연대는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집중해 공격을 개시한 적을 맞아 방어진지를 고수하면서 진전에서 격퇴하였다. 전투를 진두지휘한 연대장 한신 중령은 적의 공격이 돈좌된 호기를 포착하고 제1대대와 제2대대로 반격을 단행해 방어진지 전방의 감제고지를 확보하였다.[53] 제1연대는 이어 08시에 반격을 개

시해 145고지와 221고지를 탈환하였고, 연대 수색대는 토성동 일대까지 침투하였다.

제1연대와 교전하던 적은 방어거점이 피탈되자, 저항을 포기하고 비학산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는 적의 후미를 따라 추격에 나서 8월 19일 도음산에 제1대대, 341고지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3대대를 연대 예비로 양동리에 집결시켰다.[54] 8월 20일 사단 명령에 따라 전투지역을 제26연대에 인계한 제1연대는 화대동에 집결해 사단 예비로 전환하였다.

연대 예비인 제3대대는 8월 16일 미 제18야전포병대대 C포대의 근접지원 아래 제산(터널고지)을 점령한 적을 공격해 격퇴한 후 20시에 연대 명령에 따라 고지를 민부대에 인계하였다. 대대는 이 과정에서 적중에 고립되어 잠복하고 있던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 소속의 미군 병사 3명을 구출하였다.

한편 제18연대가 253고지~288고지선에서 격전을 전개할 무렵 적 제12사단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운주산에는 기계 부근에서 철수한 적 전방부대의 일부 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한 국군 제1군단은 운주산의 적을 포위해 섬멸하기로 계획하고, 8월 17일 이른 새벽 제8사단 예하 제10연대와 배속된 제1유격대대 및 제2유격대대를 다음과 같이 운주산 포위작전에 투입하였다.

① 제10연대 : 정자동~운주산 정상(운주산을 북쪽에서 공격)
② 독립 제2유격대대 : 구만동~운주산(운주산을 남쪽에서 협공)
③ 독립 제1유격대대 : 강교동~자옥산~도덕산(도덕산~자옥산 일대로 침투한 적 소탕임무 수행)

그러나 운주산 포위작전은 목표내의 적이 공격 당일을 전후해 죽장과 비학산 방면으로 탈출함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리고 다부동지구와 보현산 일대의 전황이 병력증강이 요구될 정도로 급변하면서 제10연대는 다부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독립 제1유격대대는 제8사단에 배속되고, 독립 제2유격대대는 제8사단 제16연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8월 19일 기갑연대는 제6사단에 배속되었고, 포항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도 원대복귀하였다.[55]

3) 비학산 전투(8월 18일~26일)

(1) 전과 확대와 주저항선의 형성

적 제12사단은 8월 14일부터 감행한 국군 제1군단의 기계탈환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8월 17일 밤부터 비학산 지역으로 총퇴각을 시작하였다. 8월 19일 사령부를 영천에서 경주로 이동한 제1군단장은 전과확대와 차기 작전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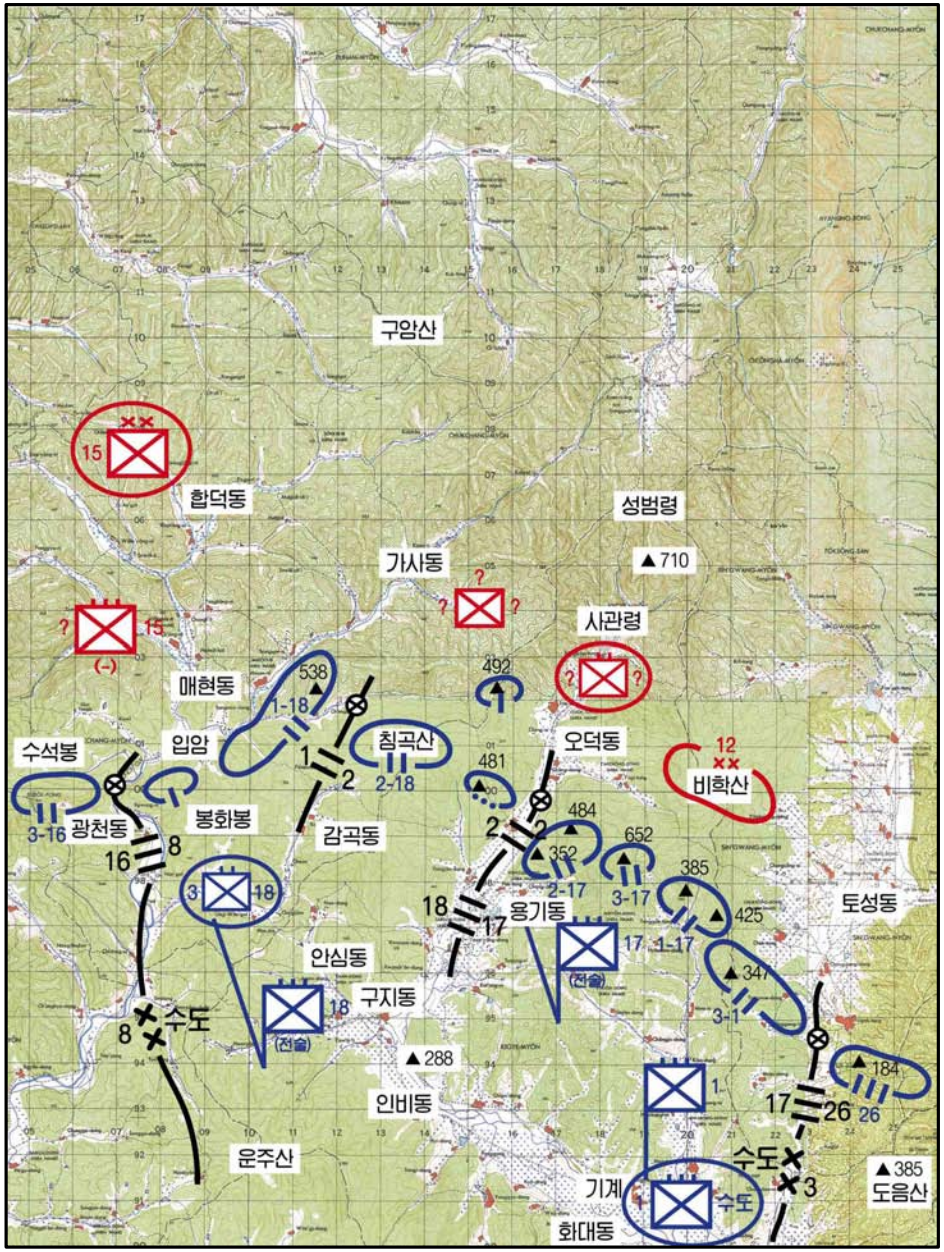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제18연대를 좌일선, 제17연대를 우일선으로 각각 전개하고 제1연대를 예비로 편성해 8월 20일 06시에 공격을 단행하였다. 전과확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작전에서 제18연대는 516고지~538고지~492고지 선으로 순조롭게 진격한 반면에 비학산을 목표로 진출한 제17연대는 384고지~625고지~425고지 선을 연하는 유리한 지형을 점령한 적의 강력한 방어로 많은 병력손실이 가중되었다.[57]

제17연대는 공격개시 3일째인 8월 22일 3㎞ 정도를 진출한 후 공격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학산 남사면의 352고지~652고지~385고지 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좌일선인 제18연대의 진출선보다 약 4㎞ 정도 뒤쳐짐으로써 측방이 노출되었고, 이는 적의 측면 침투에 대한 위험부담을 초래하였다.

8월 21일 제1연대는 군단으로부터 단구동 부근의 도음산에 대한 공격명령을 받고 고지 공격에 나섰으나, 1개 연대규모의 적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진출이 봉쇄되자 원진지로 복귀하였다. 이어 연대는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사단 예비로 화봉리 일대에 집결해 방어선 우측 부근의 적에 대비하였다.[58]

한편 비학산 점령을 이번 작전의 완료 시점으로 간주한 제1군단장은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던 적 제12사단이 예상외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비학산을 목표로 공격중인 제17연대의 피해가 속출하자 8월 22일을 기해 좌우 인접부대간에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동부전선에는 다음과 같이 주저항선이 형성되었다.[59]

<상황도 6-5> 수도사단 주저항선 형성(1950. 8. 22)



① 사단 전술지휘소 : 안강초등학교
② 좌전방 : 제18연대
- 연대 전술지휘소 : 정자동
- 제1대대 : 봉화봉~538고지
- 제2대대 : 침곡산~492고지
- 제3대대 : 연대 예비로 정자동에 집결 대기

③ 우전방 : 제17연대
- 연대 전술지휘소 : 용기동
- 제1대대 : 385고지~425고지
- 제2대대 : 352고지~484고지
- 제3대대 : 625고지

④ 사단 예비 : 제1연대, 화대동 일대에 집결 대기(제1연대 제3대대는 8월 23일 374고지를 확보해 우인접의 제26연대와 연결)
⑤ 좌인접부대 : 제8사단 제16연대, 보현산~수석봉에 주저항선 설치
⑥ 우인접부대 : 제3사단 제26연대, 도음산에 주저항선 설치

(2) 적의 재편성과 주저항선의 붕괴

미 제8군과 국군 제1군단은 기계탈환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적 제12사단이 능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적 제12사단의 마지막 거점인 비학산을 목표로 일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적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수도사단의 공격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적이 새로운 공격을 도모하기 위해 부대 재편에 착수해 전투력을 보강하였기 때문이었다.[60]

적 제2군단장은 제766부대를 해체한 후 부대원 1,500여 명을 극심한 타격을 받고 괴멸상태에 처한 제12사단에 분배하는 한편 신병 2,000명을 보충 받아 총 병력 5,000명의 전투부대로 개편하였다. 또한 장비와 탄약의 보급은 좌인접부대인 적 제5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예정보다 신속하게 부대 재편을 완료한 적은 8월 24일을 기해 수세에서 국지적인 공세로 전환하였다.

적 제12사단의 전체 병력 중 절반을 상회하는 약 3,000명은 야간전투와 침투전술, 비정규전 등 전투경험이 풍부한 병력이었다. 반면에 국군 수도사단은 계속된 전투로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병의 대부분을 잃었고, 나머지 병력도 심신의 피로가 가중된 상태였다. 또한 보충된 병력도 짧은 시간에 기초훈련만 겨우 터득한 학도병이나 신병들로 이루어져 전투력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한편 제17연대는 많은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 11시에 다시 비학산을 공격했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부득이 현 전선을 유지한 채 적과 대치하였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현 전선을 고수하던 아군은 다음날 제17연대를 투입해 적에 대한 정면공격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적이 예비 병력까지 동원해 완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제17연대의 공격은 좌절되었다.[61] 8월 25일 제17연대는 우측부대인 제18연대와의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 북쪽 2㎞ 지점의 345고지까지 물러나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62]

제17연대의 좌인접부대인 제18연대는 계속된 적의 압력으로 현 전선의 남쪽 약 2㎞ 지점으로 후퇴해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8월 24일 방어진지를 재편성한 제18연대는 우측방 제17연대와의 전투지경선 일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제3대대에 지시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은 대대 방어진지 전방의 오덕동에 적이 빈번하게 출몰하자,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무명고지를 야간공격으로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날 22시를 기해 행동을 개시하여 4차에 걸친 교전 끝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8월 25일 01시경 대대관측소에 적이 출현해 대대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1개 중대규모의 적이 관측소 전방으로 돌격을 감행해 638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대대장이 납치된 제3대대는 지휘체계가 와해된 가운데 진내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해 분산 철수하였다.

그러나 638고지 정상을 점령한 적이 재편성하는 틈을 타 역습을 감행, 고지를 탈환하였다. 하지만 잠시 후 적의 증강된 1개 대대가 다시 638고지 정상으로 쇄도해오면서 제18연대의 방어선은 와해되었다. 따라서 제18연대는 이날 밤 350고지~369고지~대곡동 선까지 후퇴해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한편 주저항선상의 우인접부대인 제3사단 제26연대는 도음산 전방에 방어진지를 편성했으나, 다음날 적의 야간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후퇴해 도음산 정상을 중심으로 8부 능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학도병으로 신편된 제26연대가 4㎞에 달하는 산악지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또한 사단사령부와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해 사단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독자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은 사단간의 전투지대를 재조정하는 한편 제26연대를 수도사단으로 배속 변경하였다.[63] 재조정에 따른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은 침곡동~감곡동~점말~282고지를 연하는 선으로 봉화봉이 제8사단 방어지역에 포함되어 방어정면이 5㎞ 확장되었다.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은 정수장~157고지~유금동을 잇는 선으로 제3사단의 방어지역이 4㎞ 축소되었다. 8월 24일 방어진지를 자체 조정한 수도사단은 제18연대를 침곡산~638고지 일대에 그리고 제26연대를 냉수동~도음산~천곡사를 연하는 선상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제17연대와 제1연대의 경우 8월 22일의 배치상황과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제1군단은 8월 18일 기계를 탈환한 이후 계속하여 비학산 점령을 시도함으로써 일선의 방어선은 우로부터 단구동~625고지~오덕동~725고지를 연하는 선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대 재편을 완료한 적이 8월 24일을 기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국부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8월 26일에는 단구동~현내동~인비동~지가동 선까지 전선이 수축되었다. 이로써 본래 계획했던 비학산 점령기도는 실패하였고, 전선의 양상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4) 제2차 기계~안강 방어전(8월 27일~9월 4일)

(1) 제2차 기계 피탈과 작전지휘체제의 일원화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통해 국지적으로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전술적인 성

과를 거두었으나 예비 병력과 보급의 차질로 전과확대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적은 8월 중순경 마지막 공세인 9월 공세를 계획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적은 최종 목표인 부산으로 진출할 수 있는 5개의 축선에 따라 5개의 공격집단을 편성해 1개 축선당 1개 공격집단씩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의 안강~경주~부산 축선은 적 제5사단과 제12사단으로 편성된 제5공격집단이 공격을 담당하였다. 적 제5사단은 흥해~포항 축선을 따라 남진해 포항을 점령한 후 전황에 따라 경주로 진출하고, 제12사단은 기계~445고지~안강~곤계봉~261고지를 따라 남하해 경주로 진출하도록 계획되었다.

적 제2군단 예하의 공격집단은 9월 2일 공격을 개시하였고, 모든 공격은 야간전투 위주로 전개하였다. 또한 적은 공격개시시간을 전반야로 정해 날이 밝을 무렵에는 공격부대가 아군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거나 최소한 아군의 방어진지 전방 100~150m 지점까지 접근해 유엔군의 공중폭격과 포병화력을 피하는 전법을 사용하였다.[64]

한편 8월 24일을 기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적 제12사단은 기습적인 야간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수도사단은 주저항선의 여러 지점에 돌파구가 생겨났다. 방어진지를 회복하기 위한 아군의 역습과 적의 재공격이 반복되면서 전세는 점차 아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8월 27일 새벽 적은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기계를 다시 점령함으로써 9월 공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65]

제1군단 작전지역의 전황을 보고받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약 30분에 걸쳐 상황 설명을 듣고 난 워커 중장은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동부전선에 투입하도록 콜터(John B. Coulter) 소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울러 그를 미 제8군부사령관으로 임명해 동부전선의 미군은 물론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동부전선에 배치된 각급 부대의 작전지휘체제에 대한 일원화를 중요시하였다. 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고, 국군 제1군단을 잠정적으로 미 특수임무부대의 작전통제 하에 편입하였다.

콜터 소장은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66]라 칭한 특수임무부대의 편성을 미 제8군사령부에 위임하고 이날 저녁 경주의 국군 제1군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잭슨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영일 비행장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제29사단 제9연대 제3대대 및 미 제73전차대대(-1)로 편성되었다.[67]

잭슨 특수임무부대의 임무 중 하나는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 방어지역 좌단의 죽장과 포항 북쪽 19㎞ 지점의 월포동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격해 좌우 측방부대와 연결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8월 27일 국부적인 반격을 전개해 기계를 탈환하고 인비동~238고지~단구동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68]

다음날 반격작전을 계획하고 있던 콜터 소장은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한 미 제21연대 제3대대를 안강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1군단장은 콜터 소장의 반격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손실이 크고 전투력도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며, 적 2개 사단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반격작전을 실시하기보다는 적의 공격 기세를 꺾은 후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밤 제17연대는 기계 정면에 투입된 적 제12사단의 증강된 1개 연대와 5시간에 걸친 근접전 끝에 기계를 내어주고 445고지로 철수하였다. 콜터 소장은 이러한 전황과 쌍방의 전투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후 반격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방어 작전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적의 침투기도와 아군의 반격

8월 27일 밤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은 국군 방어선을 돌파해 차기작전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적은 침투부대를 편성해 국군 방어부대간의 간격이나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공백지대로 침투시켰다.

이 무렵 도음산에 배치된 제1연대는 제26연대 방어지역을 인수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우측의 제22연대는 128고지~우현동 선에서 강력한 적의 공격을 간신히 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 연대는 상호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

지 못해 협조된 방어 작전을 전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에 달하는 간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적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은 8월 28일 새벽에 학전동 송학 마을로 침투해 남하태세를 갖추었다. 항공관측으로 이를 확인한 제1군단은 제8연대 제3대대를 자명동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제3사단에 재배속하였다.[69] 제3대대는 학전동~연화봉 능선상의 145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3대대는 약 1시간 후 1개 중대규모의 적이 접근해 공격해오는 것을 격퇴시켰으나, 곧이어 송학 마을에 출현한 1개 연대의 적으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았다. 보고를 받은 제3사단은 제26연대의 1개 대대를 145고지 동쪽의 무명고지로 이동시켜 제3대대와 함께 협조된 방어 작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이 일대에 침투한 적의 남진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콜터 소장에게 미군 전차부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적의 주공이 안강~경주 축선으로 남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 제73전차대대를 7번 도로상에 재배치할 것을



145고지 전경

피력하였다. 하지만 콜터는 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군단장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이 8월 30일 새벽을 기해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제1군단은 기선을 제압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국부적인 반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17연대는 8월 29일 새벽 미 잭슨 특수임무부대의 전차와 포병의 근접지원 아래 기계를 공격해 탈환하였다. 이날 오후 기계 북쪽의 238고지~용산동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17연대는 22시부터 5회에 걸쳐 가해온 적의 공격을 진전에서 격퇴하였다. 또한 우측의 제1연대도 단구동 북서쪽 2㎞ 지점의 무명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무렵 제3사단은 유엔 해·공군과 미 제73전차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냉천동과 93고지를 공격했으나, 적 제5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목표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작전기간 중 포항 앞바다로 진출한 유엔군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은 흥해 일대의 적 방어진지에 1,500여 발의 함포사격을 가해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제17연대는 다음날 04시에 적의 강력한 포격과 방어진지 후방으로 침투한 일단의 적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방어진지의 일부가 와해되었으나, 연대 예비대의 즉각적인 역습으로 방어진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측방의 제1연대 역시 밤새도록 적의 파상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단 좌전방연대인 제18연대는 인비동 서쪽 582고지에서 144고지까지 약 4㎞에 달하는 운주산 서쪽 기슭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중 이 일대에 출현한 적 제15사단의 일부 병력과 10시부터 교전을 전개했으나 역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처럼 거점 방어가 현 전선에서는 적의 침투만 용이할 뿐 큰 의의가 없음을 알게 된 사단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제18연대가 적의 공격으로 고전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70] 마침내 수도사단 방어진지 전면에 걸쳐 적의 공격은 시작되었고, 최선을 다한 아군의 저지에도 적의 압력은 계속 증가되어 갔다.

급박해진 상황에 따라 사단장은 철수명령을 하달했으나, 제1연대장 한신 중령을 비롯한 각 연대장의 건의에 따라 야간철수로 변경하였다. 제17연대와 제1연대는 유엔 해·공군의 화력지원 아래 적의 공격을 저지한 후 야간을 이용해 현 진지에서 철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18연대는 인비동 일대에, 제17연대는 382고지~445고지~190고지를 잇는 선에, 제1연대는 145고지~277고지를 연하는 선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기계는 또 다시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8월 31일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은 공격을 재개해 일진일퇴의 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유엔 해·공군의 치열한 포화가 적이 전개한 기계 일대와 홍해, 냉천동에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진격을 지속하는 적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제1군단장은 국지적인 반격을 계획하고 군단 예비인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해 효자동으로 진출시켰다.[71] 그리고 아직도 재편성 중인 제26연대를 효자동 남쪽으로 이동시켜 부대정비를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9월 1일 04시를 기해 도음산~효자동~포항에 전개한 국군 4개 연대(제1, 제10, 제22, 제23연대)는 미 잭슨 특수임무부대의 근접지원 아래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72] 좌일선연대인 제1연대는 295고지를 탈환하고 천곡사를 목표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나머지 3개 연대는 공격 초기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좌절되었다. 특히 93고지를 목표로 진격한 제23연대는 적의 치열한 집중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제1군단의 반격작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한편 9월 1일 육군본부는 일부 지휘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해 제1군단장에 부군단장인 김백일 준장을, 수도사단장에는 헌병사령관인 송요찬 대령을, 그리고 제3사단장에 이종찬 대령을 각각 임명하였다.[73] 새로 취임한 제1군단장은 적의 9월 공세를 예상하고 현 방어선에서 적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신임 수도사단장에게 포항~안강~영천 선을 사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전선을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제17연대장에게 445고지의 사수를 지시하였고, 이 명령은 곧바로 각 대대에 하달되었다.

(3) 9월 공세와 수도사단의 철수

9월 2일 03시를 기해 적 제5공격집단은 총공격, 이른바 9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적 제5공격집단의 주공인 제12사단은 제1단계 제5차작전인 9월 공세를 위해 8월 21일부터 준비에 돌입하였다.[74]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격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전초전을 전개하였다.

총공격을 개시한 적 제12사단의 목표는 안강을 경유해 경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적 제12사단은 기계~안강간 도로의 양쪽에서 남북으로 연결된 두 줄기 능선에 전투력을 분할 투입하였다. 즉 기계~445고지~안강~곤계봉~216고지~경주를 연하는 축선과 도음산~236고지~성주봉~호명리~194고지~272고지~경주를 잇는 축선에 병력을 투입하였다.

운주산 기슭에 배치된 제18연대는 8월 30일 야간에 기계 남쪽의 334고지~445고지~190고지 선으로 철수한 제17연대의 방어지역에 적이 진출함으로써 주보급로인 31번 도로가 차단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다음날 저녁 우측방의 제17연대와 연결할 수 있는 방어진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편성해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

① 전술지휘소 : 상이동
② 좌전방, 제1대대 : 인비동
③ 중앙전방, 제3대대 : 144고지~하이동
④ 우전방, 제2대대 : 봉계동
⑤ 좌인접부대, 제8사단 제16연대 제1대대 : 467고지

9월 1일 제18연대의 방어정면은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적 제15사단 예하 연대의 일부 병력은 좌측의 제8사단 제16연대 방어선을 돌파해 운주산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18연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9월 2일 새벽 9월 공세의 일환으로 적 제12사단은 수도사단의 방어정면에 공격을 단행하였다. 제18연대는 인비동~봉계동의 방어정면으로 접근하는 적을 일단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0시경 적의 일부 병력이 운주산으로 침투해

제18연대 방어진지의 측후방에서 압력을 가해왔고, 이와 동시에 방어지역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던 적도 공격을 개시하였다.[75]

적의 협공에 당황한 제18연대는 자정 무렵부터 소부대단위로 분산되어 운주산 남쪽 기슭의 수성동 방향으로 후퇴를 시작하였다. 이때 하이동 서쪽의 144고지에 배치된 제10중대는 적과 백병전을 전개해 격퇴시킴으로써 대대 및 연대 전술지휘소가 피해 없이 철수할 수 있게 하였다. 날이 밝으며 구만동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18연대는 서쪽으로 통하는 소로를 따라 금대동~영천~건천을 거쳐 9월 5일 아침에 경주에 도착하였다.

9월 2일 03시 제18연대와 마찬가지로, 382고지~445고지~190고지선에 배치된 제17연대도 약 30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적의 공격을 받았다. 04시경 노당재 하단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2대대 제5중대는 서측방에서 4대의 전차가 다가오자 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 전차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적의 전차로 판명되자 제5중대는 즉각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전차가 근거리에 도달하길 기다렸다. 마침내 적 전차가 진지 전방 30m 지점까지 접근하자 선두전차의 우측부에 로켓포를 발사하였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적의 전차는 정지되었고, 전차병이 탑문을 열고 좌우를 살피는 순간 소총수가 이를 사살하였다. 이어 후속하던 전차들도 선두전차가 파괴되는 순간 방향을 전환해 후방으로 도주하였다. 하지만 도주한 적 전차들은 08시경에 미 공군의 공중폭격으로 모두 격파되었다.

이로부터 약 1시간 후 국군 복장에 장비를 한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행군종대로 제2대대 전면에 다가왔다. 제5중대장 유홍식 대위가 이 상황을 대대본부에 보고하자, 대대장은 봉계동 부근에서 안강으로 후퇴중인 제18연대 병력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병력은 전차를 후속해 남하한 적병이었다.

진지 전방 300m까지 접근한 적은 급히 대오를 산개시키고, 고함과 함께 일제 사격과 수류탄을 던지며 돌격해왔다. 상황이 급해진 제2대대는 진내전까지 전개하며 적을 저지했으나,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결국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좌측의 445고지에 배치된 제3대대 또한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아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3대대는 많은 병력손실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끝까지 저지했으나, 대대장이 부상을 입고 연대본부와도 통신이 두절되는 등 고전 끝에 육통동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은 봉계동에서 철수한 제1대대와 안강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제2대대로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연대작전주임 유창훈 소령을 지휘관으로 한 특공대를 편성해 고지 좌측방에서 협공을 가함으로써 445고지~노당재~190고지를 탈환하였다.

한편 9월 2일 새벽에 운주산으로 침투한 적 제15사단 예하의 증강된 1개 중대는 천장산~도덕산~자옥산으로 연결된 능선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다. 항공관측으로 적정을 확인한 제1군단장은 효자동 남쪽에서 재편성중인 제26연대를 제3사단에서 수도사단으로 배속 변경하고,[76] 안강으로 이동시켜 옥산동 일대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천장산~도덕산에서 남하한 적이 자옥산을 점령할 경우 군단의 주보급로인 대구~영천~안강~포항으로 이어진 28번 도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안강에 도착한 제26연대가 옥산동에 병력을 배치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적이 자옥산을 선점하였고, 28번 도로의 차단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뒤늦게 옥산동 일대에 진출한 제26연대의 일부 병력은 어쩔 수 없이 적의 감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적과의 교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군에게 불리해졌다.[77] 상황을 보고 받은 육군본부는 제26연대장 이백우 중령을 해임하는 대신 이치업 대령을 급파해 연대를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밤사이에 병력을 증강한 적은 9월 3일 새벽에 28번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동부전선의 전황은 국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급변하였다. 육군본부는 안강지구의 위급상황을 확인하고 군 예비인 제7사단 제3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하였고,[78] 정오 무렵 산전동에서 집결 대기시켰다.

이 무렵 적 제12사단의 1개 연대가 445고지의 서쪽으로 우회해 어래산을 점령함으로써 안강은 위기를 맞았다. 이에 제17연대장은 정오를 기해 연대 예비인

제3대대를 어래산 남동쪽의 117고지로 급파하는 한편 445고지~노당재에 배치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안강 북쪽의 28고지로 철수시켰다.[79]

이로써 안강은 수도사단 전술지휘소와 사단 직할대, 제17연대 및 제26연대 전술지휘소, 제1연대 보급부대가 위치해 매우 혼잡하였다. 22시경 적의 편의대가 아군 진지를 교란하기 위해 안강읍내로 침투해 사격을 가했으나, 아군이 침착하게 대응해 격퇴하였다.

전세가 아군에 불리해짐에 따라 제1군단장은 9월 4일 10시를 기해 전선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 우측의 제1연대를 형산강 이남의 호명리 선으로, 중앙부대인 제17연대를 갑산리 선으로, 좌측부대인 제26연대를 경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02시경 사단 연락장교가 안강역의 제17연대 지휘소에 찾아와 사단 작전명령을 전달하였다. 투명지 한 장뿐인 사단 작전명령은 목표를 기입하고 안강에서 목표까지 화살표로 표기한 말미에 "전진하라. 송요찬 이상"이라는 서명이 있었다.[80] 5만분의 1 지도에 작명 투명도를 맞춰본 연대장은 목표가 안강 남쪽 4㎞ 지점의 곤계봉이고, 이날 밤 안으로 철수해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라는 의미로 판단하였다.

제17연대장은 마미산에 배치한 제1대대의 엄호 아래 연대 주력을 철수시켜 15시경 곤계봉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81] 이 무렵 165고지의 미 제21연대 제2대대도 이날 밤 경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철수명령을 받지 못한 옥산동의 제26연대는 9월 4일 낮에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많은 병력을 손실한 후 16시경 경주 동부리에 집결해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아군의 철수로 안강을 점령한 적 제12사단은 증강된 1개 연대로 구련봉을 점령한 다음 능선을 따라 남하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일부 병력은 경주 북서쪽 5㎞ 지점의 안태봉과 소현동, 구미산까지 침투해 경주를 위협하였다.[82]

한편 145고지~277고지~295고지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1연대는 9월 2일 03시에 개시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다음날까지 이 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적 제12사단의 증강된 1개 연대는 제1연대 방어진지 돌파에 실패하고, 동쪽 145고지에 배치된 제8연대 제3대대 방어진지를 돌파해 자명동으로 진출하였다.[83] 이 무렵 적은 이미 안강을 점령한 이후라서 제1연대는 퇴로가 차단될 위급상황에 직면하였다.

9월 4일 새벽에 제1연대는 호명리 남쪽 2㎞ 지점의 모서동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수령하고, 아침에 철수를 개시해 호명리에 집결하였다. 호명리는 주변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낙산이 북쪽에 위치하고, 형산강이 고지 서쪽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감돌고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또한 도음산~236고지~성주봉~호명리~272고지~경주 축선상에서 형산강에 가설된 낙산교와 도하지점, 안강~포항 및 포항~경주간 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였다.

이날 오후 지형상의 중요성을 인식한 제1연대장은 만약 호명리를 포기하고 모서동으로 철수할 경우 경주로 직결된 능선 접근로의 관문을 적에게 내주어 작전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전황과 연대가 보유한 탄약 및 식량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형산(호명리 인근)

모든 여건을 고려한 제1연대장은 호명리와 낙산에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9월 4일 20시경 낙산에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2시경 제1연대는 성주봉 남쪽 기슭의 형산강변에서 도하를 시도하는 적 1개 대대와 낙산 동쪽 3.5㎞ 지점의 부조 나루터에서 형산강을 도하해 우측방으로 우회공격을 기도하는 증강된 1개 대대의 적을 격퇴하였다.[84]

그러나 9월 4일 저녁 안강에서 모아동으로 이동한 수도사단 전술지휘소와 경주의 제1군단사령부는 제1연대와의 교신이 두절된 관계로 제1연대의 방어계획을 알지 못하였다. 제1연대가 적에게 포위될 것을 우려한 사단장은 철수작전명령을 L-5 연락기를 통해 제1연대 전술지휘소에 투하시켰다. 하지만 제1연대장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적 지역에 고립된 제1연대가 낙산을 확보함으로써 적 제12사단은 작전상 큰 차질이 초래되었다. 반면에 국군 제1군단과 수도사단은 무릉산~곤계봉~형산강선을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5) 경주 북부 전투(9월 4일~9월 9일)

(1) 제1군단의 방어배치와 곤계봉 전투

수도사단이 무릉산~곤계봉~호명리 선으로 철수한 9월 4일 적 제12사단은 주력을 안강에 집결시키고 있었다.[85] 이들은 포항지역의 적 제5사단과 협조해 전략적 요지인 경주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포위망을 동쪽에서 급격히 압축, 단시일 내에 부산을 점령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적 제12사단은 445고지~곤계봉~경주 및 성주봉~호명리~경주의 2개 축선에 각각 증강된 1개 연대를 지향하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일부 병력은 대구~영천~경주 도로와 동해남부선을 차단할 수 있는 구미산을 점령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의 작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경주~울산~부산 축선의 관문인 경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미 제8

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날 밤 미 제24사단을 경주로 이동시켜 이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5일 경산에서 이동을 개시한 미 제24사단은 다음날 7시에 경주에 집결하였다. 사단장 처치(John J. Church) 소장은 잭슨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권을 콜터 소장으로부터 인수하는 한편 부대명칭을 처치 특수임무부대로 개칭하였다.[86]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제7사단에 배속된 기갑연대를 9월 4일부로 제1군단으로 배속을 변경하였고,[87] 다음날 제1군단 통제하의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 배속하였다.[88] 이로써 제1군단의 방어정면은 약 20㎞가 축소되었고, 아화 일대가 제2군단 작전지역에 포함되었다.

한편 제1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경주 부근으로 침투한 적을 저지하면서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주저항선을 연결하기 위해 전투지경선을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방어중점을 수도사단 방어지역, 특히 445고지~경주 축선상의 요지인 곤계봉 사수에 두었다.

① 군단 전술지휘소 : 경주
  ※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 : 유금리~부조~화산동~갈곡동
  ※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 : 282고지~차당동~아화~중리
② 좌전방부대 : 수도사단
  - 사단 전술지휘소 : 모아동
  - 기갑연대 : 검단동~무릉산 정상
  - 제7사단 제3연대(-) : 무릉산~사방동
  - 제17연대 : 곤계봉
  - 제1연대 : 호명리~낙산
  - 사단 예비 제18연대 : 동산동에 집결 대기
③ 우전방부대 : 제3사단(부조~연일~송정동간 형산강변을 연해 방어진지 편성)
④ 군단 예비 제3사단 제26연대 : 경주에 집결 대기

수도사단은 경주 방어의 성패가 달린 무릉산과 곤계봉간 약 5㎞ 정면에 기갑

연대와 제3연대, 제17연대의 3개 연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처치 특수임무부대는 곤계봉 남쪽 2㎞ 지점의 무명고지에 미 제17연대 제3대대를 배치해 방어종심을 증가시켰다.

수도사단과 처치 특수임무부대의 이러한 전투력 집중배치는 무릉산~곤계봉 사수에 중점을 둔 결과였다. 경주 북방 12㎞ 지점의 높이 293m인 곤계봉은 형산강변의 개활지와 안강 일대의 감제가 가능하고, 고지 동쪽에서 남북으로 연결된 안강~경주 도로와 동해남부선을 제압할 수 있으며, 서쪽의 무릉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북쪽을 향해 횡격실을 이룸으로써 방어에 유리한 중요지형이다.

따라서 수도사단과 적 제12사단은 남북간 거리가 2.5㎞, 동서간 폭이 2㎞인 곤계봉 확보에 전체 작전의 성패를 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며, 주로 야간에 수류탄과 총검으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전투기간 중 15회 이상의 공방전을 펼친 쌍방은 막대한 병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9월 6일 04시 적은 약 2개 중대를 무릉산과 곤계봉 중간의 계곡으로 침투시킨 후 곤계봉 정면에 2개 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침투한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제3연대는 혼란이 발생해 사방동 일대로 분산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무릉산~곤계봉 방어진지의 중앙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검단동에 집결 대기하고 있던 기갑연대 제3대대가 즉각 역습을 실시해 피탈된 방어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무렵 곤계봉의 제17연대 제2대대는 적의 정면공격을 저지하며 방어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약 30분이 지나면서 적은 좌인접부대가 철수한 공백지대를 이용해 곤계봉의 방어진지로 몰려와 백병전이 전개되었고, 제2대대는 부득이 철수를 단행하였다.

곤계봉이 피탈된 상황을 확인한 제17연대장은 적이 정상 부근에서 재편성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연대 예비인 제3대대로 역습을 가하였다. 하지만 제3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지 5부 능선에서 진출이 중단되어 그 선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을 전개하던 9월 11일 제17연대 제2대대는 다섯 번째로

곤계봉을 빼앗기고 사방동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전투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제2대대장 조영구 중령을 해임하고 제3대대장 유창훈 소령을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새로 보임된 제2대대장은 특공대를 편성해 9월 12일 20시경 직접 지휘 하에 곤계봉을 공격해 고지를 탈환하였다. 하지만 연대를 지원하던 제10야포대대가 특공대를 적으로 오인해 포격을 가함으로써 특공대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9월 13일 15시에 제17연대 제2대대는 곤계봉을 다시 공격해 2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목표를 탈환하고, 이어 북쪽 끝에 있는 봉우리마저 점령하였다. 적은 이날 밤 역습을 전개했지만 진전에서 격퇴된 후 곤계봉에 대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제17연대는 곤계봉 전투의 최후 승자가 되었다.

(2) 군단의 방어선 정리와 호명리 방어전

제1연대가 호명리 선으로 철수하고 있던 9월 4일 17시경 호명리에서 5㎞ 후방의 모아리에 위치한 수도사단 전방지휘소가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사단 참모장 일행이 다음날 06시경 제1연대 지휘소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무렵 제1연대는 적이 북쪽의 양동리와 동쪽의 홍계동, 그리고 서쪽의 나원리 및 남쪽의 모아리까지 진출함으로써 고립상태에 처해 있었다.

제1연대장은 용당 부락 고지를 중심으로 제1대대, 제3대대, 제2대대 순으로 배치해 사주방어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10시경 제1군단장은 L-19 비행기로 제1연대 상공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명령의 통신통을 투하하였다.[89]

제1연대장 앞

적은 경주를 향해 계속 남하하고 있다. 전세가 불리하므로 현 위치에서 방어하다 적당한 시기에 모서리 선까지 철수할 준비를 갖추라.

제1군단장 육군준장 김백일

명령을 확인한 제1연대장은 대대장과 참모를 소집해 작전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정리하였다.

① 현 호명리 선에서 3㎞ 후방인 모서리 선으로 철수한다면 그 지역이 구릉지대로서 야산 개활지이므로 방어진지로 부적합하다.
② 철수를 단행할 경우 적전(敵前)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식량은 건빵과 백미를 각각 1일분씩 보유하고 있어 2일간의 전투는 가능하다. 그러나 탄약은 전투의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하루 동안의 전투에도 미흡하다.
④ 제17연대 정면이 돌파되어 생긴 수도사단의 돌파구에 다른 부대를 투입해 역습을 감행하고 안강 선까지 진출할 때 제1연대가 지원을 한다면 그 성과는 클 것이다. 따라서 상급 제대에서 속히 반격을 시도한다면 제1연대는 현 방어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군 작전에 유리하다.

제1연대장은 회의를 마친 자리에서 "제1연대는 이 이상 철수하지 아니한다. 우리 연대 전 장병이 죽을 곳은 현재 이 진지 외에는 없다. 모두 철수를 원하지 말라. 전승은 기필코 우리가 이곳을 지킴으로써 올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90]

적 제12사단 주력은 9월 4일 안강에 집결해 제1연대 서측의 무릉산을 향하고 있었고, 동측에서는 적 제5사단의 1개 연대가 9월 5일 유금리에서 형산강을 도하한 후 홍계동을 거쳐 운제산으로 향하였다.[91] 하지만 적 진로의 중간에 위치한 제1연대의 호명리 방어진지는 소규모의 정찰전만 있었을 뿐 한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9월 6일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의 전방사령부가 적의 기습을 받고 경주로 이동했다는 보고를 받고 병력을 증강하기 위한 방책으로 현 방어선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9월 5일 경주에 도착한 기갑연대는 수도사단 제17연대 좌측방의 무릉산을 점령해 제3사단과 협동으로 남하하는 적을 섬멸하라.

② 경주에 집결중인 군단 예비대인 제26연대는 경주에서 영천가도를 따라서 건천리에 이르러 북방 구미산에 침입한 적을 격퇴하라.
③ 9월 3일 영천에서 경주로 이동한 제18연대는 수도사단 좌측방 홍계동 197고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의 적을 섬멸하라.

이러한 부대배치로 제1군단장은 동쪽의 홍계동 부근에서 서쪽의 곤계봉~무릉산을 연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일대 반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제1연대장은 모서리 선까지 후퇴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받았으나, 현 방어진지의 필요성을 역설해 허락을 받고 호명리 진지를 계속 유지하였다.

9월 7일 09시경 제1군단 작전참모 김종갑 대령이 L-4 연락기로 제1연대의 상공에 나타나 "우측 제17연대가 곤계봉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고, 제3연대가 분산되어 전세가 불리한 상황이므로 제1연대는 속히 예정된 진지로 철수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통신통으로 투하하였다.

이날 수도사단 방어선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양상이 전개되었다. 9월 7일 02시경 적 제12사단의 1개 연대가 제17연대 제3대대의 방어정면을 공격하였고, 아군은 적을 맞아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04시경 적의 일부 병력이 산전리에서 아군의 간격을 뚫고 침투했으나, 10시경 제17연대 본부요원이 주축이 된 아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주력은 제3연대 정면의 무릉산을 향해 공격을 개시해 전투는 17시까지 계속되었다. 제3연대의 일부 진지를 돌파해 대동리에 침입한 적은 일부 병력으로 산전리 북쪽에 배치한 제17연대의 좌측후방을 우회공격하였다. 이에 제17연대는 급히 부대를 이동시켜 곤계봉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3연대는 분산 병력을 수습한 후 검단리 일대에 배치해 적을 저지하려 하였다. 우측의 제18연대는 홍계동 197고지에 침입한 적 1개 대대와 교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군단 예비대로서 경주에 대기하고 있던 제26연대는 경주 서북쪽 구미산에 적정이 나타나자 급히 출동해 9월 8일 오전에 고지를 완전 확보하였다. 이날 제26연대는 군단의 지시로 9월 9일 포항지구로 이동해 제3사단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92] 또한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9월 5일 경주에 도착한 기갑연대는

제3연대 점령지역인 검단리 부근에 위치해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였다.[93]

이와 같이 제1연대는 좌우 양쪽에 적정이 있었는데, 군단장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 제1연대장은 일시적 후퇴로 인한 이점과 진지를 고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을 감안해 현 방어선을 끝까지 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적은 수도사단 전면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강우로 인해 아군의 공군활동이 제한을 받자, 적은 경주~안강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선 적 제12사단이, 그리고 동쪽에선 적 제5사단이 공격을 감행하였다.

9월 8일 15시경 제1연대 제1대대는 적 제5사단 제10연대의 일부 병력이 감행하는 정면공격을 받았다. 이에 제1대대는 적이 접근하길 기다리다 일제 사격으로 격퇴하였다. 적은 수십여 구의 시체를 남기고 홍계동 방면으로 퇴각하였다.[94]

9월 9일 제1연대는 운제산에 적이 침투함에 따라 노출된 우측방을 보강하기 위해 낙산~222고지에 병력을 배치해 방어진지를 재조정하고, 연대 전술지휘소를 모서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11시경 제1군단장은 제1연대 전술지휘소를 순시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미군의 지원부대가 경주에서 모서동까지 주보급로를 개척할 것이라 말하였다. 이로서 제1연대의 호명리 사수전은 종료되었다.

4. 전투 결과

총공세를 위한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동부전선의 북한군은 9월 2일 03시 일제히 공격을 재개해 9월 5일에는 안강과 포항을 점령하고 일부 병력은 경주 북서쪽 4~5㎞ 지점까지 육박함으로써 동부전선엔 최대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런 위급상황에서도 동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9월 5일 무릉산~곤계봉~형산강 선에 최후의 방어선을 형성, 11일간의 격전 끝에 이 선을 확보함으로써 공세 이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곤계봉 탈환을 계기로 급반전된 전황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연결

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8월 30일에 하달된 인천상륙작전명령에 국군 제1군단 또한 반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17연대는 수도사단에서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을 변경하는 한편 9월 14~15일 야간에 부산으로 이동해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도록 조치하였다.[95]

한편 수도사단은 제17연대의 예속이 변경된 직후 전투지대를 자체 조정하며 반격태세를 갖추었다. 재조정된 전투지대를 보면, 좌전방 기갑연대는 무릉산~곤계봉 일대에 배치되었고, 중앙전방인 제1연대는 낙산에 배치된 1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를 호명리에 집결시켜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우전방인 제3연대는 형산~중단동 일대에 배치되었고, 사단 예비인 제18연대는 호명리 남쪽에 집결해 9월 16일에 실시될 반격작전을 준비하였다.

수도사단의 반격작전은 주공인 제18연대를 호명리에서 인비동으로 우회기동시켜 마미산~양동~유금동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한 적 제12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며, 조공인 기갑연대와 제1연대는 안강~양동 일대의 적 방어진지를 돌파해 안강과 기계를 탈환한 후 추격으로 전환하는 개념이었다.

9월 16일 반격을 개시한 수도사단은 주간 도하작전에 실패한 후 야간 도하작전으로 전환해 다음날 형산강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양동 북쪽 165고지와 129고지를, 제18연대는 마미산을 각각 탈환하였으며, 기갑연대는 무릉산 남서쪽에 출현한 적을 공격해 격퇴시켰다.

수도사단은 9월 18일 안강을 탈환하고 어래산~445고지~145고지~236고지를 연하는 선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적 제12사단은 방어에 유리한 어래산~445고지~236고지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양측은 이 선상의 중요 지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제18연대는 어래산 점령을 시도한 지 여섯 번 만에 고지를 탈환하고 북쪽의 봉계동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퇴로가 차단된 445고지와 190고지의 적은 저항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따라서 445고지를 공격하던 기갑연대는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기계를 탈환하였다.

제 3 절 영덕-포항 전투

1. 전투 개요

영덕~포항 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동해안의 영덕~포항 일대에서 국군 제3사단이 증원부대와 함께 영덕과 포항을 점령한 후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의 기도를 저지하고 반격작전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이다.[96] 이 전투에서 적 제5사단은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주일이 넘도록 영덕지구에서 지체함으로써 그들이 기도하던 작전계획의 이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적 제2군단은 8월 공세의 주공을 대구로 지향하는 한편 적 제5사단을 조공으로 동해안 축선에 투입해 7월말까지 포항을 점령한 후 경주~울산~부산 축선으로 진격할 발판을 확보하려 하였다.

포항은 항만과 철도, 육로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병참기지일 뿐만 아니라 포항 남쪽 6㎞ 지점의 영일비행장은 미 제40전투비행대대가 주둔해 지상부대를 근접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포항에서 북쪽으로 45㎞ 지점에 위치한 영덕은 횡격실 능선이 북쪽에, 하천장애물인 오십천이 남쪽에 형성된 포항방어의 전초기지였다.

제3사단은 7월 중순부터 적 제5사단과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해 영덕을 장악하고 있던 중, 8월 8일 야간에 감행한 적의 파상공격으로 방어선이 와해되어 남쪽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제22연대장은 임의로 오십천교를 폭파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영덕~강구전투도 종료되었다.

제3사단은 제23연대로 오십천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제22연대를 남호동으로 철수시켰으나, 홍해 남쪽 냉천동에 적이 출현해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포

항이 피탈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워커 중장은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영일비행장 방어임무를 지시하였고, 육군본부도 민부대를 출동시켰다. 8월 11일 아침 포항 시내로 진입한 적은 학도의용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포항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후방이 차단된 제3사단은 장사동 일대에서 교전을 반복하였고, 홍해 북쪽에서 적이 출현함으로서 협공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3사단은 육군본부의 해상철수명령에 따라 8월 17일 06시에 작전을 전개해 성공적으로 구룡포에 도착하였다. 또한 민부대는 형산강 남쪽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미 전차소대의 지원 아래 포항 시가로 진입해 포항을 탈환하였다.

제26연대를 배속 받은 제3사단은 법천동~양덕동을 연결하는 주저항선을 형성한 후 93고지에 대한 적의 반복된 공격을 물리치고 포항을 재점령하려는 적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제3사단은 9월 공세시 적 제5사단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중앙의 주저항선이 와해되어 효자동~두호동 선으로 후퇴하였다. 사단은 최초의 주저항선을 탈환하기 위해 역습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포항의 위기가 계속되었다. 이에 제3사단은 형산강 남쪽으로 이동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제10연대의 작전상 과오로 인해 방어선의 일부가 와해되었다.

사단장은 적의 후속병력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형산강 방어선에서 송정동~장동 선으로 물러나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어 사단이 옥녀봉을 탈환하고 운제산의 적 후방을 차단하자, 적은 진지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7월 하순에 포항을 점령한 후 부산으로 진출하려던 적의 기도는 유엔해군과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은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이로써 적 제5사단은 낙동강 전선의 동부지역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고, 국군 제3사단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적을 추격해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1950년 8월초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던 북한군 제5사단은 영덕 남쪽 강구 일대에서 국군 제3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전진이 교착되고 있었다. 적 제5사단은 다른 북한군 사단에 비해 진출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는 미 공군의 근접지원과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주로 야간에 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8월 9일 강구를 점령한 적 제5사단은 미 공군의 강타와 미 해군의 함포사격, 그리고 아군 제3사단의 완강한 반격으로 더 이상의 남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적 제12사단은 8월 9일 입암에 진출하였고, 다음날에는 선두부대가 흥해 서쪽 6㎞ 지점까지 침입하고 있었다. 8월 11일 미명에 적 제12사단의 1개 대대 이상의 병력과 제766부대 일부 병력이 포항시가에 진입함에 따라 동부전선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편 영덕~포항 방면으로 진출한 적 제5사단의 병력은 약 8,500명 수준이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장비와 무기는 전차 5대를 비롯해 122밀리 곡사포 12문, 76밀리 곡사포 26문, 45밀리 대전차포 24문, 120밀리 박격포 12문, 82밀리 박격포 54문 등이었다.

적 제5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김창덕 소장을 비롯해 참모장 조관 총좌, 제10연대장 박정덕 대좌, 제11연대장 김봉문 대좌, 제12연대장 왕휘 대좌와 포병연대장 차균섭 대좌였다.

2) 국군 상황

1950년 8월초 동부지구의 전황은 적 제12사단이 안동 동남쪽 산악지대를 이용해 기계 및 안강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고,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는 영덕에서 안강 일대를 향해 서남진하고 있었다. 동해안에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던 국군 제3사단은 영덕 남쪽 10㎞ 지점의 장사동 일대로 후퇴하여 적 제5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1950년 8월 11일 적의 일부 병력이 포항에 진입하자 제3사단은 후방이 차단되었고, 측면으로부터 적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에 제3사단은 독석동에서 해상철수를 단행하여 구룡포에 상륙한 후 포항지구에 배치되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3사단과의 협조하에 안강과 포항 일대로 침투한 적을 격퇴하려 하였다. 또한 민부대와 수도사단의 일부 병력을 포항지구로 출동시켜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와 함께 적의 침입을 저지하려 하였다.

<표 6-4> 국군 제3사단 주요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홍일(金弘壹)	
		준장	김백일(金白一)	'50.9.1 이후
제3사단	사단장	준장	김석원(金錫源)	'50.8.7 이후
		대령	이종찬(李鍾贊)	'50.9.1 이후
	제22연대장	중령	강태민(姜泰敏)	
			김응조(金應祚)	'50.8.18 이후
	제1대대장	중령	이소동(李召東)	
	제2대대장	중령	정영록(정영록)	
	제3대대장	중령	정순민(鄭淳珉)	
	제23연대장	중령	김종원(金宗元)	
			김종순(金琮舜)	'50.8.12 이후
	제1대대장	소령	김우영(金尤榮)	
	제2대대장	대위	최상준(崔尙俊)	
	제3대대장	대위	박종병(朴鍾秉)	
	제26연대장	중령	이백우(李百雨)	
		대령	이치업(李致業)	'50.9.2 이후
	공병대대장	소령	박기석(朴基錫)	
배속부대	제10연대장	중령	고근홍(高根弘)	'50.9.6 복귀
협동부대	민부대장	대령	민기식(閔機植)	
	제1대대장	소령	손관도(孫官道)	
	제2대대장	대위	이창범(李昌範)	
	제1연대장	중령	한 신(韓 信)	

영덕~포항 전투에 참여한 국군 제3사단의 병력은 배속 및 협동부대를 포함하여 약 12,600명이었다. 또한 보유 장비와 무기는 81밀리 박격포 80문과 60밀리 박격포 128문, 57밀리 대전차포 25문, 3.5인치 로켓포 47문, 2.36인치 로켓포 265문 등이었다.

제3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김석원 준장과 후임인 이종찬 대령을 비롯해 제22연대장 강태민 중령과 후임인 김응조 중령,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과 후임인 김종순 중령, 제26연대장 이백우 중령과 후임인 이치업 대령이었고, 배속부대인 제10연대장은 고근홍 중령이었다. 제3사단 및 참전부대의 주요 지휘관 현황은 <표 6-4>와 같다.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다른 국군의 사단과 마찬가지로 현지 관서의 협조와 후방으로부터 추진하였으며, 탄약의 보급은 대체로 원활하였다.

3. 전투 경과

1) 영덕 탈환전과 독석동 철수작전

(1) 영덕 탈환전과 오십천교의 폭파

영덕 북방의 영해 부근에서 적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던 제3사단 제23연대는 전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며 철수하였다. 제23연대는 7월 16일 영덕 북쪽 4㎞ 지점의 활인산~237고지~매정동을 잇는 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해 적과 대치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제23연대는 적의 야간기습을 받고 혼란 상황이 발생해 어이 없이 영덕을 상실하였다.[97] 이후 쌍방이 영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제3사단장은 원대복귀한 제22연대를 통해 역습을 실시해 207고지~181고지를 점령하였다.[98] 제3사단장은 강구 방어에 유리한 중요지형이자 영덕 탈환의 공격발판인 207고지~181고지를 확보한 후 다음과 같은 영덕탈환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제23연대 : 제22연대를 초월공격해 영덕을 탈환한 후 220고지~180고지 선을 확보
② 제22연대 : 207고지~181고지 선에서 일선에 투입될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
③ 독립 제1대대 : 삿갓봉으로 진출해 사단 방어지대 좌측방을 경계
④ 공병대대 : 사단 예비로 150고지에서 대기
⑤ 전술지휘소 : 강구
⑥ 작전기간 중 유엔 해군 및 미 제40전투비행대대가 사단을 근접지원

사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제23연대는 7월 29일 06시를 기해 유엔 해군과 공군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08시경 제23연대는 영덕을 탈환하고 최종 목표인 220고지~180고지로 진출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하지만 이날 밤 제23연대는 적의 공격으로 공격개시선으로 철수하였고, 다음날 새벽 제22연대가 재공격을 개시해 영덕을 탈환하였다.

쌍방은 8월 2일 제3사단이 220고지~180고지 선을 확보할 때까지 격렬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독립 제1대대는 208고지에 일부 병력을 남겨둔 채 대대 주력으로 삿갓봉을 점령해 사단 방어지역의 좌측방과 신양동~진동재~오포동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제하게 되었다.

8월 3일 제3사단은 2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투입해 활인산~매정동 선에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제11야전포병대대와 독립 제2대대가 7월 30일부로 제3사단에 배속됨으로써 사단의 전투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99]

① 좌전방, 제22연대 : 삼화동~활인산
② 우전방, 제23연대 : 237고지~매정동
③ 독립 제1대대 및 독립 제2대대 : 320고지~208고지, 측방경계임무 수행

④ 사단 예비, 공병대대 : 150고지에 집결 대기

반면에 적 제5사단은 소규모적인 수색정찰 외에는 공격행동을 취하지 않고 차기 작전을 준비함으로써 8월 5일 낮까지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적이 영덕지구에서 제3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주 이상 지체함으로써 군단 작전계획, 즉 7월 하순에 포항을 탈취하려는 계획 전반에 차질이 초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과 유엔 해군 및 공군의 함포지원과 근접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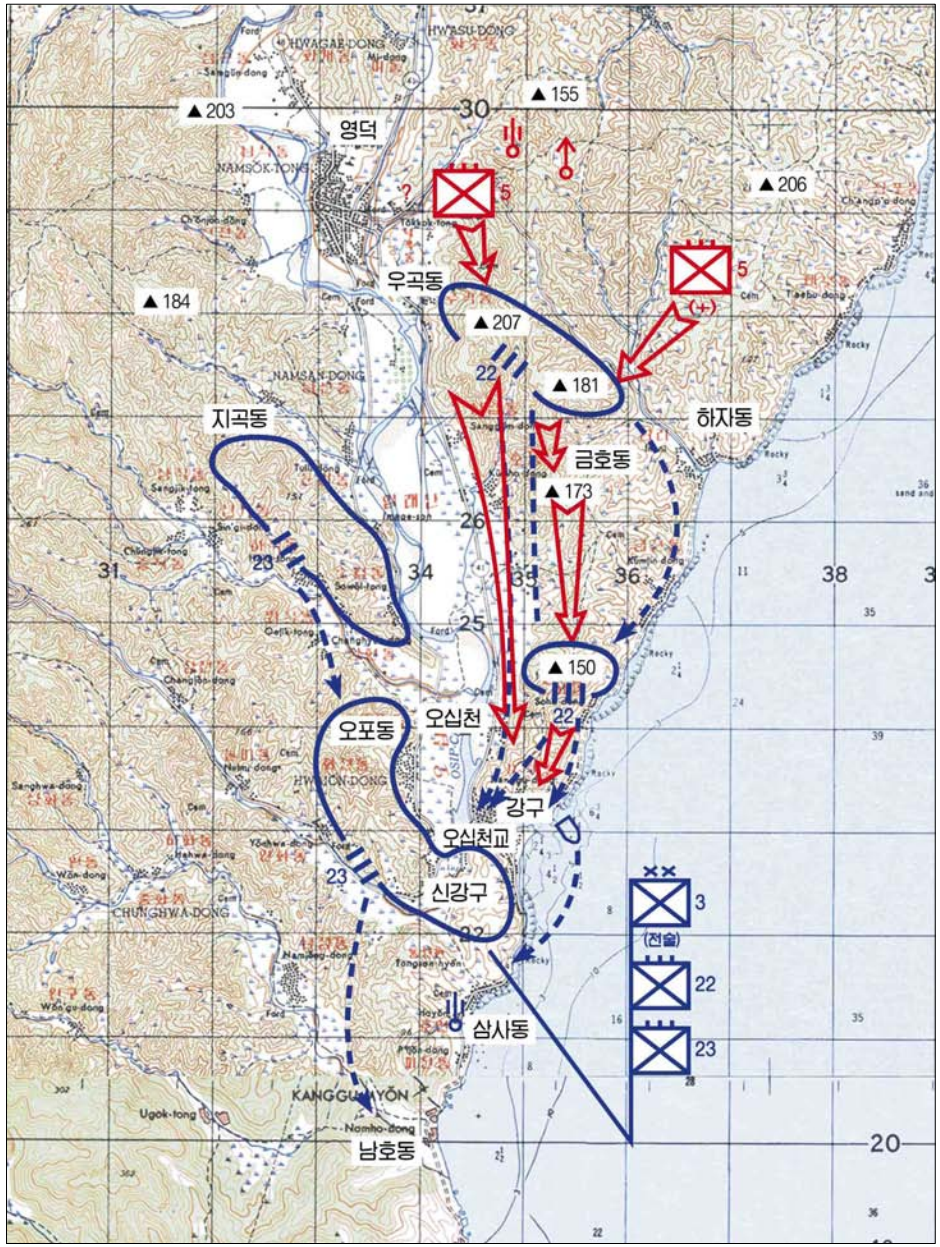
적 제2군단은 예하의 각 사단이 국군의 저항에 봉착해 진출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동해안 축선을 통한 남진이 계획대로 진척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안동을 점령한 제12사단을 청송~기계 축선으로 침투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5사단은 전투력 회복을 위해 부대정비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활인산~237고지~매정동 선상에 배치된 제3사단은 8월 5일 밤 적의 공격을 받고 진내전을 전개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군은 지휘계통이 마비되어 일부는 분산되고, 일부는 국지적인 역습으로 적을 격퇴시키기도 하였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져 방어선이 일시에 붕괴되었다.

사단장 이하 각급 지휘관들은 분산 철수중인 병력을 수습해 전열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사단은 적의 남진을 207고지~181고지 선에서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3.2㎞ 지점의 150고지에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100]

8월 6일 제3사단장은 207고지~18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비교적 손실이 적은 제22연대를 투입하였다. 제22연대는 유엔 해군과 공군의 지원 아래 반격을 개시했으나 치열한 근접전으로 병력 손실만 증가될 뿐 목표탈환에 실패하였다. 이어 야간공격으로 전환한 제22연대장은 19시 30분 미 제40전투비행대대 전폭기편대의 공중공격 직후 공격을 감행해 목표를 점령하였고, 이어진 적의 수차례에 걸친 역습을 격퇴시켰다. 이날의 전투는 특히 181고지 공방전이 치열해 쌍방 모두 많은 병력손실이 있었다.

<상황도 6-6> 제3사단(영덕-강구) 철수상황(1950. 8. 8~9)



한편 제3사단 전술지휘소는 181고지를 공격하던 적의 일부가 박격포 사격을 가하자 당황해 한동안 지휘체계가 마비되었다.[101] 이로 인해 제3사단장 이준식 준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김석원 준장이 임명되었다. 또한 독립 제1대대가 제23연대에 흡수되고,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도 김종순 중령으로 교체되었다.[102]

제22연대가 207고지~181고지 선을 다시 확보하자 제3사단장은 재편성을 완료한 제23연대를 지곡동~151고지에 배치해 적의 측방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제3사단은 오십천을 사이에 두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 1개 연대씩을 배치하게 되었으나, 사단의 방어 중점은 207고지~181고지에 있었다.

8월 8일 적 제5사단은 어둠을 틈타 181고지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파상공격을 가해왔다. 181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22연대 제2대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교전이 거듭될수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탄약마저 떨어져 도저히 고지를 지탱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대는 연대장의 승인을 받고 철수를 단행하였다.

얼마 후 적이 207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방어선이 와해된 제2대대는 한밤중에 분산된 채 남쪽으로 후퇴를 시작하였다. 후퇴를 개시하고 난 8월 9일 05시 무렵 엄청난 불기둥과 함께 굉음이 치솟으며 오십천교가 폭파되었다. 사단장의 승인도 없이 제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이 독단적으로 명령한 결과였다.

제22연대의 1개 대대 병력이 오십천교 북쪽 150고지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퇴로인 오십천교가 폭파되자, 충격과 함께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일부 병력은 오십천을 헤엄쳐 건너다 익사하였고, 나머지는 강구에서 어선을 이용해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오십천교는 영덕에서 포항으로 진출할 경우 건너야 하는 강구에 가설된 교량이고, 일대의 오십천은 수심이 깊어 도섭이 불가능해 전술적으로 중요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제22연대장의 오판은 작전에 결정적인 차질을 불러왔고, 또한 제3사단의 반격을 차단함으로써 이 전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103]

(2) 제3사단의 고립과 독석동 철수전

강구를 점령한 적이 기세를 올리던 8월 9일 아침에 유엔 해군은 강구와 150고지 일대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어 제3사단은 오포동~오십천 하구 남안을 잇는 선상에 제23연대를 재배치하는 한편 연대의 엄호 아래 제22연대를 남호동으로 철수시켜 부대정비를 지시하였다.[104]

그러나 8월 10일 저녁 흥해 남쪽 3.8㎞ 지점의 냉천동 일대에 출현한 적 제12사단의 1개 연대가 다음날 포항을 점령함으로써 퇴로가 차단된 제3사단은 구계동~월포동 일대에 고립되었다.[105] 심각성을 인식한 사단장은 제23연대를 봉황산~구계동 선에 재배치하고,[106] 제22연대를 하송동에 집결 대기시켰다. 그리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월포동으로 이동해 포항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제3사단이 포위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흥해 일대의 증강된 적 1개 연대를 공격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제3사단이 포항으로 진출할 경우 강구에 있는 적이 배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한 사단장은 적의 포위망 돌파계획을 일단 보류하였다.

한편 제3사단의 상황을 보고 받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8월 10일 제3사단에 배치된 미 고문관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중령에게 영일비행장에서 만나자고 타전하였다. 워커 중장은 에머리치를 만나 제3사단은 장사동을 사수해 포항으로 남침하는 적 전차와 포병의 이동을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에머리치 중령은 즉시 장사동으로 복귀해 신임 사단장인 김석원 준장에게 워커 중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제3사단은 강구 남단에서 장사동 남쪽 11㎞ 지점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교두보 진지를 구축하고 적에 대비하였다.[107]

8월 11일 아침에 제3사단장은 포항의 후방지휘소가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항이 실함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단장은 참모장 공국진 중령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대 병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용 병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1개 연대와 2개 75밀리 포대로 포항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지시하였다.

사단장의 작전의도를 참모장으로부터 들은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즉각 "전면의 적을 저지하기도 역부족인데 병력을 빼서 후방으로 이동해 적을 공격한

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의견차이로 30분 동안 논란을 거듭한 사단장은 결국 진지를 사수하라는 워커 중장의 명령에 따라 장사동에서 방어전을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무렵 적 제5사단은 제3사단이 고립 상태에 처한 것을 알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국군은 미 순양함 헬레나(Helena)호와 3척의 구축함 그리고 미 전폭기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2대의 헬리콥터가 헬레나호에서 부상자를 위한 약품을 보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야간을 이용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의 진지는 점차로 축소되어 갔다.

강구를 점령한 적은 유엔 해·공군의 강력한 화력집중으로 동해안 도로 대신 해안에서 2~8㎞ 떨어진 야산지대를 따라 침투하였다. 이에 제3사단은 8월 13일 아침에 하송동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22연대의 2개 대대를 제23연대 방어지역의 좌측방에 있는 462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사단 예비로 집결 대기시켰다.[108]

이날 국군 부상자 313명은 장사동 해안에 정박해 있는 LST로 이송되었으나, LST가 저녁 무렵 독석동 부근의 해안에서 심한 파도로 인해 암초에 걸려 선체에 큰 구멍이 생겼다. 따라서 부상자들은 해상에 가설된 도보교를 건너 다른 LST로 바꾸어 탔고, 중상자 86명은 수륙양용차량에 실려 부근의 국군 병원선으로 이송되어 부산으로 급송되었다.[109]

한편 462고지~봉황산~구계동 방어선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 15일 새벽 홍해 북쪽에 적이 출현하자, 사단장은 적의 협공이 곧 개시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이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협조 하에 제3사단의 해상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110]

철수명령을 하달 받은 사단장과 참모들은 해안선을 답사하였다. 그 결과, 독석동~조사동간 1㎞ 해안이 선박 접안에 적합하고 승선을 위한 해두보 확보에 유리한 점을 확인해 이를 육군본부에 통보하였다. 이날 저녁 제3사단은 지경동~화진동에 배치한 제23연대의 엄호 아래 제22연대를 화진동~독석동에 배치하였다.



해상철수가 단행된 독석동 해변

다음날 제3사단은 21시에 LST 4척이 독석동 해안에 접안할 것이라는 육군본부의 전문을 받았다. 곧바로 사단장은 각 연대장과 참모들을 긴급 소집시켜 해상철수작전을 설명하고 일체의 기밀유지를 엄명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철수계획을 하달하였다.

① 각 연대 주력 : 각 대대별로 1개 중대규모의 잔류접촉분견대를 편성한 후 8월 16일 21시에 일제히 공격을 가해 대치중인 적을 격퇴한 직후 지정된 해안지대로 철수한다.

② 잔류접촉분견대 : 8월 17일 04시에 약정된 신호탄이 발사되면 지체 없이 철수한다.

③ 기타 병력과 장비 : 일선연대가 승선하기 이전에 병력승선과 장비탑재를 완료한다.

④ 기만대책 : 트럭 6대를 동원해 8월 17일 자정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독석동~방화동간 2㎞ 구간을 왕복 운행하면서 국군 증원 병력이 상륙한 것처럼 가장한다.

⑤ 제11야전포병대대의 1개 중대는 잔류접촉분견대가 철수할 때까지 독석동 해안에서 요란사격을 계속한다.

제3사단은 철수계획이 주효해 순조롭게 병력 승선과 장비 탑재를 완료할 수 있었다. 8월 17일 06시 부상자 125명을 포함한 사단 병력 9,000여 명과 경찰 1,200명, 그리고 지방공무원 및 반공투사, 노무자, 피난민 등 1,0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던 LST에 승선하였다. 모든 차량과 포 등 각종 장비는 물론 심지어는 송아지까지 탑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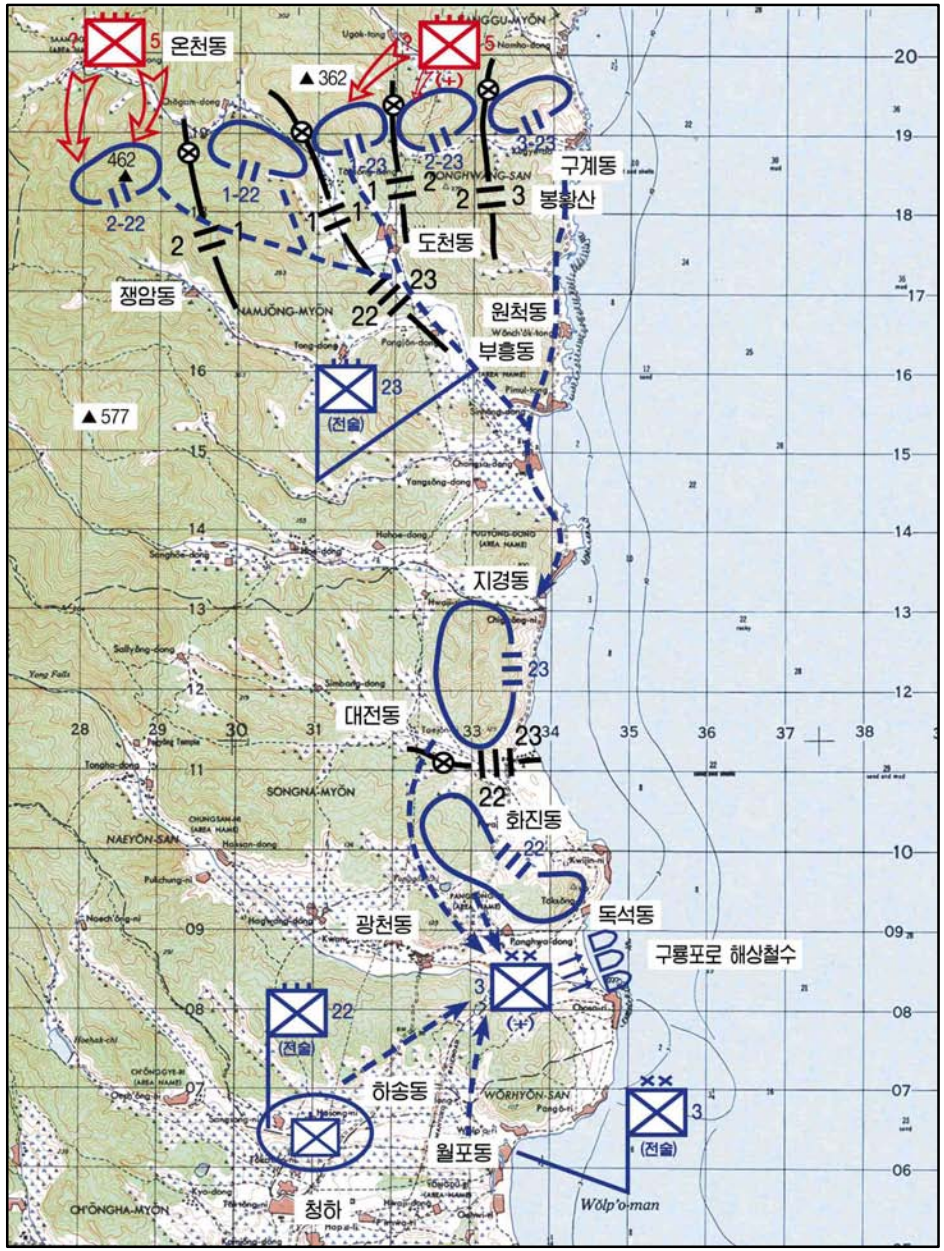
한편 제3사단의 철수작전 기도를 알지 못한 적은 날이 밝으면서 LST가 해안에 접안한 사실을 목격하고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해왔다. 하지만 3척의 LST는 이미 해안을 출발한 상태였으나, 나머지 1척은 사단장 이하 참모들 그리고 잔류접촉분견대를 승선시키기 위해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 박격포탄이 작렬하기 시작하자, LST 선장은 황급히 배를 출발시켰다. 이에 당황한 참모장은 LST를 되돌리기 위해 몇 명의 헌병을 보냈다. 수영으로 LST로 건너간 헌병들은 선장을 설득시켰고, 해안으로 되돌아온 LST가 사단장 이하 계획된 인원을 극적으로 승선시킬 수 있었다.

철수작전 동안 미 함정들은 함포사격으로 적진을 강타하였고, LST가 해안을 떠날 무렵에는 함재기가 기총소사를 가함으로써 적은 해안선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마지막 LST가 8월 17일 07시 독석동 해변을 떠남으로써 철수작전은 완료되었다.

LST가 해안을 출발한 즉시 제3사단장은 성공적인 작전완료를 육군본부에 무전보고하였다. LST선단은 순양함 헬레나호와 구축함의 호송을 받으며 8월 17일 10시 30분 영일만을 우회해 목적지인 구룡포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제3사단은 상륙과 동시에 다음 작전에 대비하였다.[111]

<상황도 6-7> 제3사단 해상철수 상황(1950. 8. 17)



2) 포항 방어전

(1) 포항 피탈과 학도병의 용전

북한군 제12사단의 증강된 1개 연대는 기계를 점령한 후 흥해 남쪽의 냉천동 일대로 진출해 다음날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포항을 점령하였다. 반면에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포항지구의 국군은 구룡포 및 감포 일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포항에는 제3사단 후방사령부와 보급 및 근무지원부대, 해군 포항경비부와 공군 포항지부대 1개 중대, 그리고 경찰과 청년방위대 등 9,000여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112] 따라서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영일비행장이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제3사단이 구계동~월포동 일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8군사령부는 영일비행장 방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를 급파하였다. 또한 포항지구전투사령부는 민부대를 투입해 포항탈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제25연대 제3대대는 열차편으로 대구를 떠나 8월 9일 09시경 포항역에 도착하였다. 약 1시간 후 제3사단사령부를 방문하고 귀대하던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은 포항역에 집결한 제3대대장 이방우 소령에게 포항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1 및 제12중대의 2개 중대를 전황이 위급한 안강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1개 중대를 연대 예비로 효자역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제3대대장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 병력은 1개 중대에 불과하였다.

제3대대장은 제10중대를 예비 병력으로 남겨둔 채 대대 전술지휘소 요원과 제9중대를 지휘해 소티재, 일명 우현으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제3대대는 통신장비의 미비로 사단사령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소티재는 포항 북서쪽 2㎞ 지점에 위치한 흥해~포항 축선상의 포항 방어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대대장은 7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105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제9중대에 지시하고, 대대관측소를 방어진지에 함께 설치하였다. 제9중대는 전체 180여 명의 인원 중 장교는 중대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하였고, 대다수가 학도병으로서 전투경험이 전무하거나 일천하였다.

이날 밤 적의 정찰대와 소규모 전투를 치룬 제9중대는 다음날 자정 무렵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이 고지의 북쪽 기슭에 출현하자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다. 하지만 물러났던 적은 대오를 갖추고 공격을 단행하였고, 약 2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을 벌인 제9중대는 병력의 50%가 손실을 입었다. 이에 중대장은 대대 관측소 부근에 대기시켜 둔 1개 소대의 예비 병력을 일선 산병호에 배치하고 방어진지를 재조정하였다.

이러는 동안 적의 주력이 아군 방어진지 전방에 나타나 105고지를 향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약 3시간의 처절한 근접전 끝에 결국 진내 백병전까지 전개하였다. 아군의 병력이 소수인 것을 파악한 적은 진내 백병전을 전개한 직후 105고지로 철수해 포항으로 남하하였다.

전투 직후 아군 방어진지에 남아있는 병력은 대대장과 대대 지휘부를 포함해 20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은 지리에 익숙한 제9중대장에게 철수로를 개척할 것을 지시하였고, 철수로가 개척되자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포항 시내를 우회하여 다음날 오후 경주에 도착하였다.

한편 8월 10일 제3사단 후방지휘소가 설치된 포항여자중학교에는 전날 저녁 의성지구로부터 도착해있던 71명의 학도병이 있었다.[113] 이 무렵 적 제12사단의 1개 연대 병력은 소티재의 제25연대 제9중대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포항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제3사단 사령부는 포항 외곽에 대한 경비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에 대한 정보도 단대호 미상의 적이 포항으로 접근 중에 있다는 정도 밖에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령부는 소티재에서 전개된 전투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적이 소티재에 나타났다는 소문만 시내에 무성하였다.

8월 11일 04시경 소티재 방향에서 예광 신호탄과 함께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이는 제25연대 제9중대와 적 제5사단 1개 연대의 교전에 의한 것이었다.

제3사단 후방지휘부는 71명의 학도병에게 사령부 방어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작전처 보좌관 김치련 대위에게 행정요원 60여 명으로 편성된 2개 소대를 지휘해 학교 뒷산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일부 병력으로 보급품과 기밀문서를 후송하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아오며 적이 포항여자중학교 정문을 향해 진격해 전방 50m 지점까지 도달하자, 학도병들은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였다. 기습사격을 받은 적은 2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나 나머지는 흩어진 후 증원 병력과 함께 공격을 재개하였다. 얼마 후 적은 박격포 공격을 학교 주변에 집중한 후 공격을 계속하였다.

15시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학도병들은 갖고 있는 실탄과 수류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교전을 전개해 50~60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나, 47명이 전사하는 인명손실이 있었다. 이때 후방지휘소 요원들은 이미 철수를 완료한 상태였고, 실탄마저 고갈된 학도병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114]

이와 같이 학도병들이 적의 포항 시내 진출을 저지하는 동안 제3사단 사령부와 기타 지원부대 및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은 무사히 안전지대로 철수할 수 있었다. 특히 병참부는 대부분의 군수품을 민간선박을 이용해 피해 없이 후송하였고, 병기부는 보유중인 노획무기 중 일부는 땅에 묻고 나머지는 휴대해 구룡포로 철수하였다. 이처럼 군 보급품의 후송이 손실 없이 이루어져 아군의 차기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후방지휘소 감찰참모인 손창규 소령은 후퇴하는 병력을 형산교에서 수습해 전투중대를 편성한 후 형산강 제방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해군 포항경비부는 적의 침입과 동시에 경비부 뒤편의 고지에 병력을 배치하고 잔류병으로 철수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무방비상태에 놓인 포항 시가지는 적에게 피탈되었다.[115]

(2) 미군의 증원과 민부대의 포항탈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기계가 피탈되고, 흥해 부근의 냉천동에 상당수의 적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영일비행장의 방어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는 적의 기습적인 출현으로 포항이 피탈되고, 이어 영일비행장을 빼앗겨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유엔군과 국군의 작전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8월 10일 워커 중장은 영일비행장에서 제3사단 수석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을 만나 구계동~월포동 일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후 대구에서 미 제8군 예비대인 미 제2사단장에게 특수임무부대를 급편해 영일비행장을 방어할 것을 지시하였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미 제2사단장은 부사단장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준장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영일비행장의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브래들리 준장은 미 제2사단 제9연대 제3대대를 주축으로 미 제15야전포병대대 C포대와 4.2인치 중박격포 1개 소대, M-16 고사기관총 1개 소대 및 공병 1개 소대를 배속 받아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날 저녁 경산을 출발해 경주를 거쳐 한밤중에 영일비행장에 도착해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부대 주력보다 늦게 출발한 미 제9연대 제3대대 K중대와 미 제15야전포병대대 C포대의 일부 병력은 자정이 지난 8월 11일 01시 20분경 유금동 남쪽 터널고지 남단을 통과할 때, 매복중인 적 제766부대의 기습을 받고 70여 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자 경주로 철수하였다.[116]

영일비행장에서 보고를 받은 브래들리 준장은 즉시 미 제3대대 I중대를 출동시켰으나, 이들도 적의 매복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아 그곳에 고착되었다. 이에 브래들리 준장은 M-16 장갑차 2대를 파견해 I중대를 증원하였다. 그럼에도 I중대는 결국 터널고지의 적을 격퇴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 포항이 피탈됨에 따라 영일비행장으로 복귀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포항의 피탈에 따른 전세 변화와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 후속제대의 피습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 즉시 그는 경주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 제9연대의 전차 1개 소대를 영일비행장으로 진출시켰다. 그리고 안강에 투입되어 반격을 개시한 국군 제17연대에 터널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항공정찰 결과 터널고지에 적이 배치되어 있는 적정을 확인한 미 제40전투비

행대대는 P-51 전투기 1개 편대를 출격시켜 터널고지를 강타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 제17연대의 미 고문관 다리고(Joseph R. Darrigo) 대위가 지휘하는 전차소대는 터널고지 부근까지 진출해 목표지점에 기관총사격을 가해 7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20시 30분경 영일비행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영일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한 미 제8군사령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 미 제40전투비행대대와 미 공군의 지원부대는 지상군과의 아무런 사전 협조도 없이 일본 스즈키 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 이들이 철수한 이후인 8월 20일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는 해체되고, 대신 미 제9연대 제3대대가 영일비행장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117]

한편 기계와 포항지구에 침공한 적 제12사단과 제766부대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예하 제25연대와 제17연대 그리고 해군육전대가 반격을 실시하자 북쪽으로 일시 물러나 있었다.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안강 북쪽 3㎞ 지점의 165고지에서 제17연대의 반격을 받고 동북방의 236고지와 터널고지로 퇴각해 안강지역 북쪽과 포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8월 15일 군단예비대로 확보하고 있던 민부대를 영천에서 포항 방면으로 이동시켜 포항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118][119] 따라서 민부대는 이날 영천과 경주를 거쳐 경주 동북방 12㎞ 지점의 화산동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어 민부대 제2대대를 터널고지가 있는 형산강 남쪽의 256고지에, 제1대대를 대각동에 이르는 지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다음날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가 영일비행장과 형산강 남쪽 언덕에서 적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는 동안 화산동에 집결하고 있던 민부대는 점령진지를 보강하면서 포항을 탈환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화산동에서 전투준비를 완료한 민부대는 이날 20시에 제1연대 제3대대의 터널고지를 인수하고 8월 17일 효자동으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의 적정은 8월 11일 포항에 침입한 적 제12사단이 이날 포항에서 일단 철수하였고, 이틀 후 다시 1개 연대가 포항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포항 북쪽에 진출해 있던 적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이 8월 15일 포항에 도달하자, 적 제12사단

의 1개 연대는 포항 서측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적은 포항과 안강 사이의 북방지대를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화산리에 집결하고 있던 민부대는 포항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포항 외곽까지 진출한 민부대 제2대대장 이창범 대위는 포항 시내의 적정을 탐색하기 위해 8월 17일 14명으로 편성된 전투정찰대를 피난민으로 가장해 주간에 침투시켰다. 수색 결과, 시내에는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포항 시내로 진입하던 적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이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포항 외곽의 야산지대로 숨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 탈환의 호기를 포착한 제2대대장은 8월 18일 04시에 256고지에 1개 소대만을 잔류시킨 채 형산강을 건너 대대 단독으로 포항 시내에 진입하였다. 부대를 순찰 중 보고를 받은 민기식 부대장은 제2대대장이 호기를 포착해 포항으로 진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제1대대를 차량기동으로 제2대대를 후속시켰다.

포항시내 서쪽 2㎞ 지점까지 진출한 제2대대는 늦은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후속해 온 제1대대와 조우하였다. 제2대대장의 보고를 받은 부대



전쟁 당시의 포항시가 모습

장은 제1대대는 포항 시내로 돌입하고, 제2대대는 시가 능선지대에 진출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에 따라 제1대대는 접적이 없는 상태에서 포항 시내에 돌입하였고, 동시에 제2대대도 능선지대에 있는 소수의 적을 격퇴시키고 시가에 진입하였다.[120] 이때 포항 시가의 모습은 폭격과 포격으로 폐허가 되어 앙상한 건물만 눈에 띄었다.

민부대는 포항을 탈환한 즉시 북으로 퇴각하는 적의 추격에 나서 천마산을 목표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민부대가 적을 추격할 무렵 미 전차소대가 지원에 나서 아군의 사기를 제고하였다. 일몰과 함께 이인동~두호동 선을 점령한 민부대는 부근 능선에 각 대대를 배치하였다. 이때 민부대의 좌측에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제26연대가 기계 부근에서 221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다음날 민부대는 적의 정찰대와 가벼운 교전을 전개하였고, 221고지를 공격하던 제26연대는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과 치열한 교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제3사단이 해상철수를 단행함에 따라 적 제5사단은 거칠 것 없는 남진을 거듭해 흥해에 주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로써 적의 목표는 포항을 다시 점령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8월 19일 22시에 민부대와 제3사단간의 임무교대를 지시하였다.[121] 따라서 제3사단은 도구동에서 행동을 개시해 포항에 진출한 후 제23연대가 민부대 배치선에서 진지를 인수하였고, 제22연대는 예비대로 포항에 잔류하였다. 그리고 진지교대를 완료한 민부대는 신녕 지구로 전진해 8월 20일 제5연대로 개편되었다.

(3) 제3사단의 반격과 주저항선의 형성

8월 17일 10시 30분 제3사단이 구룡포에 상륙함으로써 해상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122] 이날 제3사단은 독립 제2대대를 제22연대 제1대대에 편입시키고 신병을 보충해 부대 재편성과 정비에 착수하였다.

다음날 구룡포를 출발한 제23연대는 11시경 도구동에 진출해 자체 경계에 돌입하였고, 부산에서 새로 도착한 신병 500명과 영등포학원 소속 장교 25명 및

사병 394명을 보충 받아 부대병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제22연대와 사단사령부도 도구동 일대로 집결해 부대정비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제3사단은 도음산에 배치된 제26연대를 배속 받아 3개 연대 편성의 사단이 되었다.[123]

이후 사단은 포항 북쪽에서 작전 중 신녕 지구로 이동한 민부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8월 20일 새벽 제23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행동을 개시해 약 2㎞ 북쪽의 냉천동~장흥리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221고지를 확보하고 정면의 적과 교전을 계속하였다.

8월 21일 제3사단은 인접한 수도사단과의 협조 아래 포항 북부지역에서 국부적인 반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제23연대는 93고지 일대에 침입한 2개 대대규모의 적을 격퇴시키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고, 다음날에도 공격을 개시해 고지를 점령하였다.[124]

221고지의 제26연대도 8월 21일 진출을 계속해 295고지를 탈취한 후 천곡사가 있는 385고지를 향해 공격을 계속하였다.[125] 다음날 제26연대는 385고지에서 약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우측에서 공격중인 제22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22연대 정면의 적을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한편 예비대로 있던 제22연대는 8월 21일 06시에 행동을 개시해 사단의 중앙부로 전진하였다. 이어 제1대대는 학천동으로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128고지를 확보해 적을 북쪽으로 격퇴시키고 있었다. 다음날 제1군단장은 제3사단의 반격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현 진출선을 주저항선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사단장에게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다음과 같이 방어 편성을 완료하였다.

① 전술지휘소 : 포항여자중학교
② 좌전방 : 제26연대
- 전술지휘소 : 단구동
- 제2대대 : 184고지
- 제3대대 : 제2대대 우측의 무명고지

- 연대 예비, 제1대대 : 단구동에 집결 대기

③ 중앙전방 : 제22연대

- 전술지휘소 : 우현동
- 제1대대 : 149고지
- 제2대대 : 옥성동 남쪽 능선
- 연대 예비, 제3대대 : 냉천동에 집결 대기

④ 우전방 : 제23연대

- 전술지휘소 : 우현동
- 제1대대 : 93고지
- 제3대대 : 양덕동 북쪽 무명고지
- 연대 예비, 제2대대 : 창포동에 집결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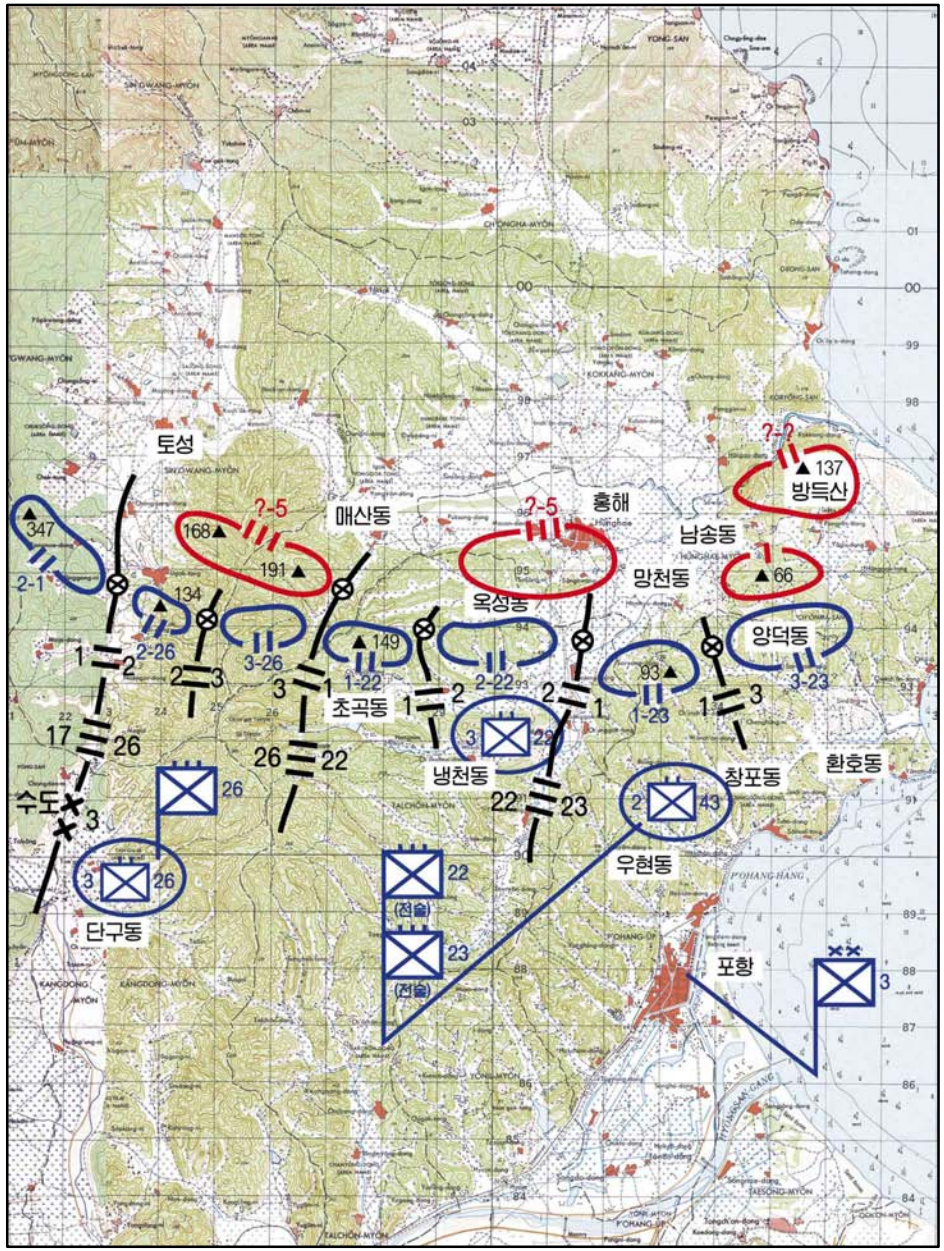
⑤ 좌인접부대 : 수도사단 제17연대

그러나 적 제5사단은 제23연대 제1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한 93고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야간공격을 가해왔다. 이로 인해 93고지는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적이 점령하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93고지는 표고는 낮아도 주변 일대의 야산지대와 개활지에 대한 감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흥해~창포동~포항으로 연결된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지형이었다. 따라서 포항을 재점령하려는 적 제5사단에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고지였다.

제23연대는 8월 23일 밤 93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적의 공격을 받고 자정 무렵까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후퇴하였다. 다음날 제23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93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적과 격전을 전개하였다.

187고지와 흥해 남쪽 1㎞ 지점의 능선을 점령한 제22연대는 8월 23일 일부 병력을 흥해로 진출시켰으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적의 반격을 받고 원지점으로 복귀하였다. 제22연대는 다음날 03시 50분에 제26연대와의 연결지점으로 적이 침투해 제1대대 진지가 돌파되자, 과감한 역습을 단행해 침입한 적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적의 일부 병력이 아군 후방으로 계속 침투함으로써 제22연대 제1대대는 초곡동 후방 능선으로 이동해 병력을 수습하였다.

<상황도 6-8> 제3사단 주저항선 형성 상황(1950. 8. 21)



385고지 전방 2㎞ 지점까지 전진해 제22연대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던 제26연대는 8월 24일 밤에 385고지 좌우 능선으로 이동해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다.[126] 이와 같이 전세가 아군에 불리해지자 제1군단장은 전투정면을 축소하기 위해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도사단 제1연대 병력을 제26연대 좌측으로 진출시켜 전선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127]

초곡동 후방 능선으로 후퇴한 제22연대 제1대대는 8월 25일 12명으로 편성된 특공대를 조직해 적이 점령한 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때 특공대원들은 배낭에 수류탄을 넣고 적진으로 돌진하며 투척하였고, 이어 제1대대장이 대대 병력을 이끌고 특공대를 후속함으로써 마침내 적의 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수일에 걸쳐 공격준비를 완료한 적은 8월 27일 새벽 제26연대와 제22연대, 그리고 제23연대 정면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파상적인 적의 공격을 진전에서 전력을 다해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좌측 산악지대의 제26연대 방어선을 돌파한 적은 계속 남진하여 선봉부대가 295고지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제26연대는 형산강 북쪽의 효자동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재편성에 들어갔다.

좌측 전선이 돌파된 후 중앙부대인 제22연대는 배후로 진출한 적의 압력으로 연대 지휘소가 설치된 128고지 선으로 후퇴하였고, 제23연대도 93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채 두호동 북쪽 1㎞ 선으로 이동해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제26연대 진지가 돌파되자 제1군단장은 제1연대로 돌파구를 저지하는 동시에 제1연대와 제22연대의 간격을 연결하기 위해 제1군단에 배속된 제8연대 제1대대를 16시에 자명동 북쪽의 145고지에 투입하였다.

다음날 제3사단에 배속된 제8연대 제1대대는 자명동 북쪽의 145고지에서 1개 중대규모의 적과 교전하던 중 06시경 1개 연대규모의 적이 파상적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전세는 낙관할 수 없었다. 이에 제3사단장은 효자동에 집결중인 제26연대 1개 대대를 학천동 우측 능선으로 진출시켜 제8연대 제1대대와 협동하여 적의 남하에 대비토록 하였다. 제1군단장은 이날 13시에 적이 자명동 부근으로 진

출해 발생한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3사단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기 위해 제8연대 제1대대를 송학동까지 진출시켰다.[128]

제1군단장은 현 주저항선에서의 반격을 위해 8월 31일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3사단으로 배속해 효자동에서 준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투력을 상실한 제26연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재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129]

이날 포항의 제3사단사령부를 방문한 부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도착하고 얼마 후 자신이 통과한 형강리의 터널고지가 적에 피탈되어 도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부군단장은 와병중인 제3사단장을 위문하면서 터널고지의 적을 격파하기 위한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 결과, 제23연대에서 2개 중대를 차출해 출동하기로 결정하고 박종병 대위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105밀리 곡사포 1문과 장갑차 1대를 배속 받은 공격부대가 현장에 도달했을 때, 고지는 이미 미군 전차부대가 적을 격퇴하고 점령한 후였다. 따라서 공격부대는 안강교로 진출해 보급로를 개통하고 원대 복귀하였다.

9월 1일 새벽에 제3사단은 사단 정면에 대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였다. 제23연대는 장흥리와 충곡동 99고지를 목표로 전진하였고, 제22연대는 128고지를 그리고 제1연대는 295고지를 점령한 후 천곡사를 향해 전진하였다. 제10연대 또한 제1연대 우측에서 이들과 함께 진격하였고, 제8연대 제1대대는 자명동과 달전동에 침투한 적을 공격하였다.[130] 하지만 이러한 제1군단의 반격에도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따라서 전세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제3사단장의 교체가 이루어져 김석원 준장의 후임으로 이종찬 대령이 부임하였다. 그리고 와병중인 제3사단 참모장 공국진 중령을 대신해 정래혁 중령이 참모장으로 전보되었다.

(4) 제3사단의 철수와 형산강 방어선의 형성

9월 공세 당시 제5공격집단의 조공으로 흥해 지구에 전개한 적 제5사단은 포항과 영일 비행장을 목표로 기동하였다.[131] 이들은 포항을 점령한 후 별도의 명령에 따라 포항~연화봉~운제산~503고지~갈곡동~활명산~경주 축선으로 진출

하거나 포항~세계동~양포동~감포~울산 축선을 따라 남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군 제1군단은 적 제5사단이 포항~울산간 해안 축선으로 남하할 경우 유엔해군의 함정으로부터 집중적인 포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이 축선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9월 2일 03시 흥해 지구의 적 제5사단도 9월 공세에 맞춰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사단 방어지역은 좌전방에 사단에 배속된 제10연대가 수도사단 제1연대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중앙에 제22연대가 128고지~105고지 북방에, 우측의 제23연대는 93고지~환호동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132] 그리고 포항과 영일 비행장에는 미 제21연대와 미 제9연대 제3대대가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사단의 주저항선은 적의 공격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제10연대와 제22연대의 접경인 128고지~163고지의 중간지대에서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10연대는 제8연대 제3대대가 배치된 145고지 북동쪽의 116고지로, 제22연대는 포항 뒷산으로 철수하였다. 제23연대는 93고지를 놓고 16회의 공방전을 전개하고 두호동~환호동 선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사단은 포항방어에 필요한 128고지와 105고지, 93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이날 10시에 투입해 역습을 감행하였다. 제22연대는 미 제73전차대대로 증강된 미 제21연대 제3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해 정오 무렵 중간목표인 105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하여 128고지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자 연대는 105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반면에 93고지를 공격한 제23연대 제2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자 목표 하단에서 공격을 중단하였다. 이때 제22연대를 지원하고 있던 미 제21연대 제3대대장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K중대에 전차 1개 소대를 배속해 제23연대 제2대대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K중대 역시 목표의 8부 능선까지 접근했으나 많은 병력 손실로 인해 공격을 중단하였다.

국군과 미군의 지속적인 공격과 미군 전폭기의 공중폭격으로 적 또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한 제23연대장은 제3대대장 박종병 대위에게 고지

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은 앞선 공격의 실패를 고려해 특공대를 편성해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편성된 특공대원 각자에 10여 발의 수류탄만 지급해 목표 좌우로 우회기동하도록 지시하였다. 특공대는 대대 주력이 정면을 공격하는 동안 적의 측방으로 침투해 목표를 탈환하였다.

9월 3일 전날 밤에 빼앗긴 105고지의 탈환작전에 실패한 제22연대 제1대대는 제23연대 제3대대의 93고지 탈환사례를 참작해 동일한 방식의 작전을 전개해 목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날 밤 적의 파상공격에 고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소티재 정상으로 철수하였다.[133]

이러한 상황에 따라 9월 4일 제3사단은 방어지역의 재조정을 단행하여 자명동~111고지~96고지~소티재~두호동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134] 하지만 좌인접부대인 수도사단이 곤계봉~호명리 선으로 철수함으로써 성주봉과 자명동 간에는 3㎞에 달하는 간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제3사단은 노출된 측방으로 침투한 적으로 인해 자명동~두호동 간 방어선마저 위협을 받았다.

한편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9월 4일 오후 L-5 연락기를 타고 포항~안강~경주 일원의 피아 대치상황과 지형을 정찰한 후 포항지구는 지형이 종격실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방어에 유리한 형산강변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해 적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군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때 제3사단은 26척의 어선을 이용한 해상수송으로 모든 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산강 남쪽으로 후퇴하더라도 구룡포항을 이용할 수 있어 보급에는 지장이 없었다.[135]

9월 5일 2시 30분에 적 제5사단은 96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2연대는 약 3시간에 걸쳐 완강히 저항했으나, 결국 방어진지의 한편이 와해되어 진내전이 전개되었다.[136] 이때 영일 비행장을 경비하고 있던 미 제9연대 제3대대는 비행장내의 각종 보급품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제3사단장은 두호동에 배치한 제23연대의 일부 병력을 96고지 남쪽의 죽림산~연화봉으로 급파해 제22연대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적을 저지토록 하였다. 잠시 후 포항시 외곽에 적의 SU-76자주포 5대가 나타나 미군 전차에 포격을 가

함으로써 사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적의 자주포는 포항 상공에 출격한 미군 전폭기의 로켓포탄에 모두 파괴되었다.[137]

이러한 상황에서 제3사단은 14시 30분에 유엔 해·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형산강변으로 철수를 개시해 다음과 같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138]

① 전술지휘소 : 도구동
② 좌전방, 제10연대 : 부조~연일(생지동), 방어정면 5㎞
③ 우전방, 제23연대 : 연일~송정동, 방어정면 6㎞
④ 사단 예비, 제22연대 및 제8연대 제3대대 : 도구동과 용덕동에 각각 집결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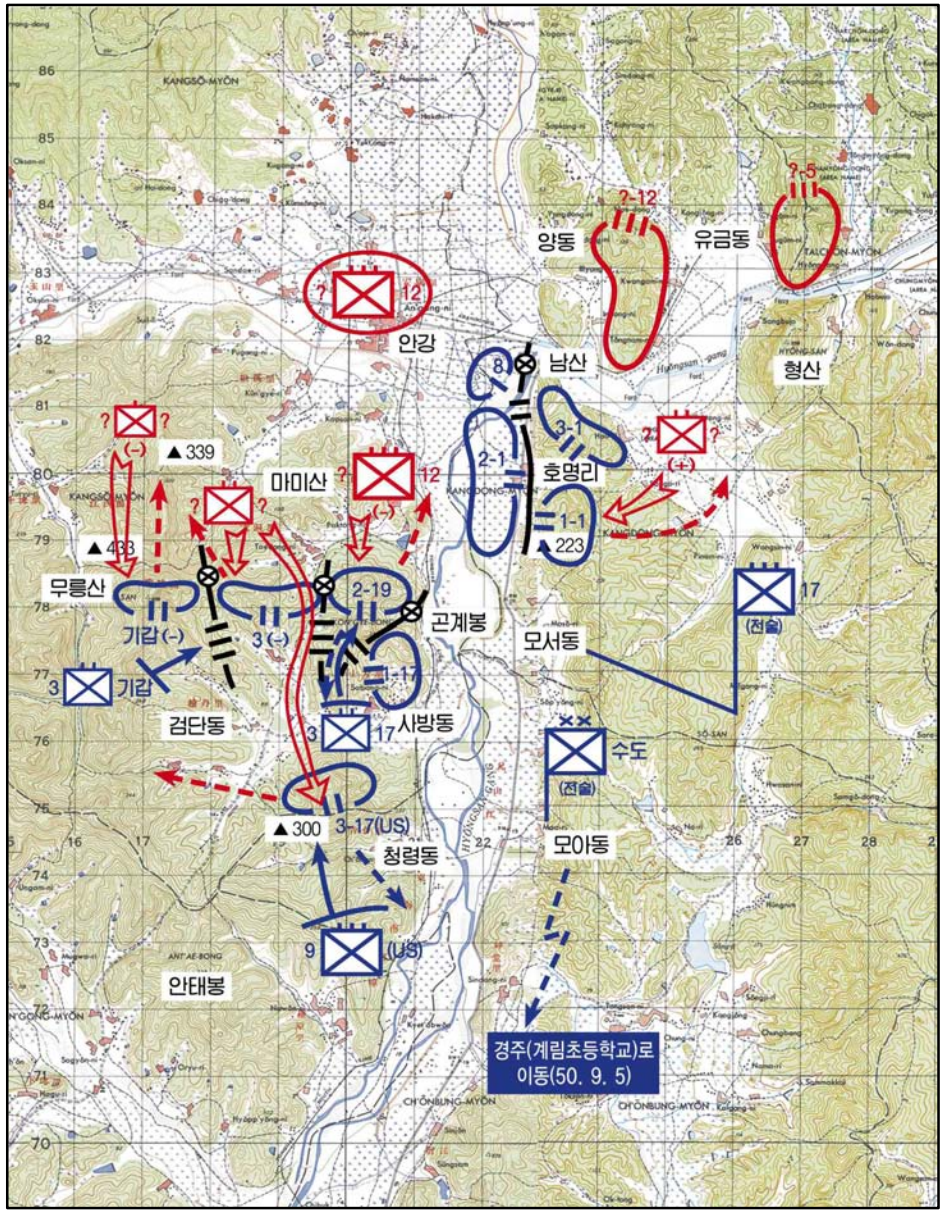
9월 5일 저녁 형산강변의 방어지역으로 철수를 완료한 제3사단은 방어진지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원해 경주를 거쳐 포항 남쪽의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길이 62㎞의 형산강은 하류의 폭이 400m인데 비해 형산교 부근은 200m, 터널고지 부근은 100m였다. 강의 양쪽에는 제방이 있고, 제방간의 거리는 400m로서 유수면이 아닌 곳은 모래밭이었다. 평상시의 수위는 0.88m로서 도섭이 가능하지만 강우시에는 최고 수위가 3m 이상이며, 하류의 평균 수위도 1.62m에 달해 천연장애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5) 형산강 방어선의 붕괴와 홍계동 부근 전투

9월 6일 오후 제3사단은 형산강을 연한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형산 우측의 중단동에서 연일에 이르는 3㎞ 구간의 방어선은 지형이 대안보다 저지대로 적의 감제하에 들어 모든 행동이 노출되었다.

제1군단은 영천 피탈에 따른 병력 증원이 요구됨에 따라 제8사단 제10연대를 원대복귀시키기 위해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139] 이에 제3사단장은 방어진지를 편성한지 얼마 안되고, 또한 제10연대의 방어지역인 부조~연일 구간이 적의 감제에 노출됨에 따라 이날 야간을 이용해 제22연대와 진지를 교대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제22연대가 도착하기 전에 임의로 철수해

<상황도 6-9> 곤계봉·호명리전투 상황(1950. 9. 6~13)



형산~연일간 5㎞의 방어정면이 공백상태로 남겨졌다.

한편 형산 맞은편 제산 일대에서 형산~운제산~경주 축선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던 적 제5사단은 이런 정황을 포착한 즉시 증강된 1개 대대를 남하시킨데 이어 후속 병력을 부조 나루터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또한 효자동 부근의 적도 중단동 일대로 진출해 제10연대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140]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제22연대의 선발대가 제10연대 방어지역으로 진입한 직후 적의 사격을 받고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에 제22연대장 김응조 중령은 적정 탐색을 위해 수색대를 파견하였고, 그 결과 형산~중단동 일대에 적이 이미 진출해 있음을 확인하고 사단장에 보고하였다.

사단장은 적의 후속병력의 형산강 도하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노출된 좌측방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형산 일대의 적정을 수색하도록 제23연대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옥녀봉으로 진출해 형산에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저지하도록 제22연대에 지시하고, 이러한 상황을 군단장에 보고하였다.

9월 7일 적은 운제산으로 남하하였고, 부조 나루터 부근에서 도하한 적의 일부가 옥녀봉과 197고지로 진출해 제23연대의 진지를 배후에서 공격하자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141] 이 무렵 제22연대는 197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병력의 열세와 지형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공격은 실패하였고, 오히려 후방에 있는 남성동 부근의 80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형산강 방어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9월 8일 저녁 송정동~장동~우복동 간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처럼 제10연대의 임의 철수는 제1군단의 주저항선 일부를 붕괴시켰고, 경주를 또다시 위태롭게 하였다.

한편 제1군단장은 미 처치 특수임무부대장과 함께 제3사단 방어지역에 침투한 적을 섬멸할 대책을 강구하였다. 미 처치 특수임무부대는 운제산 탈환임무를 수행하고, 제1군단은 형산강 남쪽으로 침투한 적의 퇴로차단과 소탕작전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제1군단은 9월 7일 아화에 배치된 제3사단 제26연

대의 원대복귀를 위한 준비명령을 하달하고,[142] 이날 제26연대 제2대대를 사단 방어지역으로 차량행군시켰다.

이 무렵 제1군단장은 운제산의 적이 남서쪽 2㎞ 지점의 503고지로 진출하자, 적의 목표가 경주라고 확신하였다. 이어 동산동에 집결한 수도사단 제18연대를 군단 예비로 전환한 후 503고지의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제18연대는 503고지 남서쪽의 438고지~392고지 간에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원대복귀를 지시받은 제26연대는 9월 9일 건천을 출발해 경주~감포~양포동을 경유해 세계동으로 이동하였다. 제3사단은 제26연대에 제8연대 제3대대를 배속해 다음날 131고지에 배치하였다. 131고지는 제23연대의 2개 중대가 이 고지로 남하한 적을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로써 미 처치 특수임무부대는 운제산을 공격할 때 공격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 처치 특수임무부대장은 미 제24사단 부사단장 데이비슨(Garrison H. Davidson) 준장에게 운제산 탈환임무를 부여하고 미 제19연대(-), 미 제9연대 제3대대 및 미 제9연대 전차중대, 미 제13야전포병대대 및 미 제15야전포병대대 C포대, 미 제3야전공병대대 A중대, 미 M-16 고사기관총 2개포대로 구성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143]

미 데이비슨 특수임무부대는 편성 후부터 2일이 지난 9월 10일 이른 아침에 경주를 떠나 19시에 오천 비행장 남쪽의 용덕동에 도착하였다. 이 부대는 9월 11일 아침 미 제19연대 제1대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 미 공군 전폭기의 지원을 받아 운제산을 점령한 후 제26연대에 고지를 인계하였다.

한편 9월 8일 제1군단은 미 데이비슨 특수임무대의 공격개시일이 연기되자, 197고지와 옥녀봉을 탈환해 운제산에 진출한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제3사단에 명령하였다. 또한 392고지~438고지에 전개한 제18연대에 197고지 공격을 위한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144]

제18연대장은 9월 9일 이른 새벽에 연대 수색대를 운제산에 침투시켜 적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아 상황을 종합 분석한 연대장은 적이

보급과 병력 증원의 차질로 경주 진출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은 197고지를 탈환해 운제산으로 진출한 적의 퇴로를 차단할 계획하에 제1대대장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대대장 장춘권 소령은 이날 저녁 화산동 동쪽 1.5㎞ 지점의 263고지로 진출하였고, 다음날 06시에 공격을 개시해 6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공수동에 전개한 제3사단 제22연대는 제18연대가 197고지를 점령하자 옥녀봉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145]

9월 11일 미 데이비슨 특수임무부대의 운제산 공격을 확인한 제18연대는 제2대대를 새터 마을로 이동시켜 제3사단 제22연대와 함께 옥녀봉을 협공하였다. 다음날 16시에 제22연대는 옥녀봉을, 제18연대 제2대대는 235고지를 각각 점령함으로써 운제산의 적은 완전 고립되었다.[146]

9월 12일 오후에 제18연대는 마침내 형산을 탈환하고 형산강변의 방어진지 일부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적은 제18연대와 좌측방 낙산에 배치된 제1연대의 중간지역으로 후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제18연대와 제1연대의 기관총의 차단사격을 피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다 결국 지원포병의 포격과 보병의 일제 사격으로 전멸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은 2,000여 명이 사살되고, 5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한편 적은 운제산과 형산 및 곤계봉을 빼앗긴 9월 12~13일에 이르러 공세작전에서 수세로 전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일에 배치되어 있던 증강된 1개 대대의 적은 완강하게 저항을 계속하였다.

9월 13일 오후 제23연대는 운제산의 적을 소탕하고 청림동으로 이동한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제2대대 및 제3대대로 연일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적의 감제하에서 목표로 접근하는 동안 많은 손실이 발생해 공격은 실패하였다. 이에 제23연대장은 주간공격 대신 증강된 1개 소대로 특공대를 편성해 9월 14일 01시에 연일로 침투시켰다. 이때 특공대는 형산강변을 따라 목표 북쪽으로 진출, 적의 방어진지를 배후에서 기습 공격하였다.

기습공격을 받은 적은 혼란에 빠졌고, 기회를 포착한 제23연대 특공대는 진내

로 돌진해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목표의 남쪽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제23연대의 2개 대대는 돌격을 감행하여 9월 14일 05시에 연일을 탈환하였다.

제3사단은 9월 6일 방어선이 돌파된 이후 8일 만에 형산강변의 방어진지를 전부 회복하고 반격을 위해 진지를 재편성하였다.[147]

① 좌전방 제23연대 : 방어정면, 중단동~연일간 4㎞
- 전술지휘소 : 남성동
- 제1대대 : 중단동
- 제3대대 : 연일
- 제2대대 : 연대 예비, 남성동에 집결 대기

② 우전방 제26연대 : 방어정면, 연일~송정동간 5㎞
- 전술지휘소 : 청림동
- 제1대대 : 연일~형산교 좌측
- 제2대대 : 형산교~송정동
- 제3대대 : 연대 예비, 괴정동으로 침투한 적을 격멸한 후 그 곳에서 집결 대기

③ 사단 예비 제22연대 : 장흥동에 집결 대기

반면에 포항지구의 적은 더 이상의 공세를 중단하고 패잔 병력의 수습 및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이어 북쪽과 동쪽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4. 전투 결과

동해안 축선을 따라 남진하는 임무가 부여된 북한군 제5사단은 영덕지구에서 국군 제3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2주일이 넘도록 지체함으로써 적 제2군단의 작전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적 제5사단은 국군 및 유엔군이 방어선을 형성하기 이전인 7월 하순까지 포항을 점령하고 안강~경주 축선으로 남하해 울산을 거쳐 최종 목표인 부산에 진출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기도는 유엔 해군 및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은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제산과 형산, 그리고 곤계봉을 빼앗긴 적은 공격에 한계를 느끼고 공세작전에서 수세로 전환하였다. 경주 북방까지 진출해 동부전선의 위기를 조성했던 적은 더 이상의 공세를 중단하고 병력을 수습하여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유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공세로 전환하였고, 육군본부는 8월 30일에 하달된 유엔군사령부의 인천상륙작전명령에 따라 중·동부전선의 반격계획을 작성해 각 군단 및 사단에 하달하였다.[148]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주공인 미 제1군단의 조공으로 동부전선의 반격에 참여하였다.

특히 형산강 방어전에서 적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던 제3사단은 9월 14일 형산강 방어선을 재편성하고 반격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9월 17일 반격을 개시한 제3사단은 형산강 도하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에 직면해 실패하였다. 다음날 형산강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한 사단은 9월 19일 형산강 도하에 성공하였고, 다음날 포항을 탈환한 후 포항~청하~영덕 축선을 따라 북진을 개시하였다.

반격명령이 하달된 후 1주일째인 9월 22일 당시 적 제5사단은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고, 제3사단의 각 연대는 8월 하순 이래 적의 사령부가 위치했던 흥해 선을 탈환하였다. 반격에 나선 제3사단은 사기가 충천했으나, 전투능력 및 사기가 완전히 상실된 적은 동해안 혹은 일부 산악지대를 통해 도주하는데 급급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동부지역 작전은 1950년 8월 1일 이후 국군 2개 사단(수도사단, 제3사단)과 배속부대가 태백산맥 남단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계, 안강 및 영덕, 포항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2개 사단(제5사단, 제12사단) 및 1개 유격연대의 공격을 9월 14일까지 저지하여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방어 작전이었다.

작전기간 중 북한군 제2군단은 주공 방향을 대구로 지향하면서 예하의 사단을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 전개시켜 대구와 영천, 포항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의 제12사단과 제5사단을 청송~도평~입암~기계 축선과 영덕~포항을 연하는 동해안 축선에 각각 투입해 경주를 거쳐 최종 목표인 부산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이러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8월과 9월 공세를 단행하였다. 적은 이 공세에서 아군 방어선에 대한 부분적인 돌파에 성공하였지만, 산악지대에서의 야간 행군과 유엔 공군의 공습으로 인한 전장피로의 누적, 전차 및 야포 등 중장비 지원 결여, 8월 중순 이후 보급이 중단된 식량의 부족 등 몇 가지의 제한적인 요인에 의해 전과확대에 실패하였다.

반면에 국군 제1군단은 계속된 전력 보충과 증원 병력의 도착, 한미 양군의 유기적인 협력과 유엔 해·공군의 효율적인 지원 등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형산강 방어선에서 적의 최후 공세를 저지한 국군과 유엔군은 안강 및 포항 등을 탈환하고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동부지역 작전은 작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 작전이었다.

첫 번째는 유엔군의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화력의 통합으로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이자 한미 연합작전 체제의 터전을 마련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육·해·공군의 효율적인 합동작전은 작전지역이 바다와 비행장, 도로망 등 합동작전을 전개하기에 용이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유엔 해군과 공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하게 확보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들 화력을 조직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유엔 해군 및 공군의 적극적인 화력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두 번째는 적시적인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지휘 및 전투노력을 단일화한 점이다. 미 제8군사령부는 포항 및 연일비행장의 피탈위협 등 작전기간 중 위기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브래들리, 잭슨, 처치부대와 같은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즉시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육군본부는 제3사단이 고립되고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해 전선의 원상회복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임무부대의 구성부대들은 모두가 상이한 지휘계통의 부대들이었기 때문에 특수임무부대의 구성으로 지휘체제를 단일화할 수 있었으며, 제한된 기간에 특정임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었다.

결론적으로 포항을 점령한 후 안강~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작전기도는 국군 수도사단 및 제3사단이 전개한 형산강 방어전의 종료와 함께 완전 좌절되었다. 이로서 국군 및 유엔군의 낙동강 동부지역 작전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국(戰局)이 전개되었다.

2. 명확한 전투 목적의 설정과 제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전투는 실패와 좌절을 초래하고 사기만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작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군 제12사단이 비학산에서 재편성을 실시하고 있던 8월 22일, 국군 제17연대와 제1연대 제3대대가 이들을 공격하여 실패한 비학산 공격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아군은 지형이 험준한데다 기상마저 불량하여 항공지원이 전혀 불가능하였고, 사단의 지원포병도 시계 불량으로 관측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공격병력도 대대당 400여 명 수준의 제17연대와 제1연대 제3대대를 합쳐 1,600여 명으로 적을 공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공격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였다. 결국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제17연대와 그 밖의 공격부대들은 피해만 입고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제17연대는 차후 작전수행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 군사작전 수행시 사전 협조의 중요성

한 부대의 군사활동은 그 부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대와 인접부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협조하고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덕-강구 전투 당시 영덕~포항간 도로를 잇는 오십천교는 군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이를 폭파할 경우에 상급부대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3사단 제22연대장은 경황 중에 상부보고나 허락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폭파함으로써 예하의 수많은 병력이 도하 중에 익사하고 중요 장비를 유기한 채 철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반격작전을 통해 빼앗긴 진지를 회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후 계속하여 수세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연일비행장을 이용하여 적시적인 항공지원을 제공하던 미 제5공군 전투비행대가 지상경계에 위협이 있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아무런 협조나 통고도 없이 철수한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미 제5공군은 맥아더사령부도 모르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철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상군의 근접지원뿐 아니라 국군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사례는 타군과의 합동작전에서 상호협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지기 위해서는 육·해·공군부대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통합기구 및 단일 지휘체제의 유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전시 국지경계의 중요성

국지경계는 가장 작은 경계대책에 불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전체 작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폴레옹은 "병사 한 명이 통과한 곳에서는 전군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국지경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청송 구수동지구 전투시 제18연대 주력이 포위되어 모든 차량과 보급품을 포기하고 철수한 근본원인은 경계소홀에 있었다. 두 개의 고지를 연해 2개 대대가 배치되었으나, 소총병의 경계 소홀로 적의 침투부대가 진지 후방으로 은밀히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기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안강~포항 전투시 노당리 부근에서 제25연대는 경계 소홀로 인한 적의 기습으로 방어선이 와해되었다. 또한 9월 4일에는 수도사단의 전방지휘소가 소수 병력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혼란 상태에 빠졌던 일은 국지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경계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투력을 보존하고 절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것이 없다. "지휘관은 모름지기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대책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경계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5. 적극적인 후방지역작전과 군수지원의 중요성

동부지역 작전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전훈은 적극적인 후방지역작전의 실시와 군수지원의 중요성이다. 8월 10일 태백산맥을 통해 침투한 북한군 제766부대는 연일가도를 차단하였다. 연일가도는 포항지역 국군의 중요 보급로일 뿐만 아니라 연일비행장 경계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 도로로써 장기간 차단될 경우 아군의 군사작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지체 없이 예비로 보유한 보병 1개 대대와 포병 1개 포대, 전차 1개 중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연일로 급파하고 포항지역의 국군 제17연대까지 전환하여 신속히 보급로를 소통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 조치는 전방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방지역작전은 가용한 수단을 통합하여 공세적으로 신속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작전기간 동안 국군과 유엔군은 군수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적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데 반해 북한군은 식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급을 현지조달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전투지속력 유지에 큰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북한군 포로에 의하면, 이 지역의 북한군은 8월 12일 이후 한 톨의 쌀도 보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첩첩산중의 현지에서 식량을 징발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례는 이와 같이 전투에서 군수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노력까지 통합할 때 승리가 보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훈이다.

6. 예비대 활용과 시의적절한 배속부대의 원대복귀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예비대의 보유는 지휘관에게 작전의 융통성을 기할 수 있게 하므로 비록 한 전투에 예비대가 투입될 때에는 즉시 새로운 예비대를 편성하는데 유념하여야 한다. 국군 제3사단이 장사동에서 방어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포항에 위치하고 있던 사단 후방지휘소가 북한군의 침입으로 위급상황에 처하였으나,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한편 피배속부대가 배속 지휘관의 명령으로 일선 방어진에 배치하고 있을 때, 원대복귀명령이 하달되었을지라도 배속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부대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9월 초순 국군 제3사단이 형산강 남안에서 방어에 임하고 있을 때, 제3사단에 배속되어 좌일선을 방어하고 있던 제8사단 제10연대는 상부의 원대복귀명령이 하달되자 진지 교대 병력인 제3사단 제22연대가 도달하기도 전에 원대로 복귀하였다. 당시는 적과 대치중인 상황이었고, 이를 간파한 적의 일부 병력이 터널고지를 타고 홍계동에 이르는 산악으로 남침함에 따라 부득이 사단지휘소를 도구동으로 이동하는 등 형산강 방어선의 일부가 일시나마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배속 지휘관의 승인을 무시한 제8사단 제10연대의 원대복귀는 동부지역 주저항선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사례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단행된 피배속부대의 원대복귀가 전쟁 전체의 국면을 위험상태로 몰아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필 : 손규석)

주 (註)

1) 국군 제3사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4호(1950. 8. 15)에 따라 육군본부 직할에서 국군 제1군단으로 편입되었음.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p. 11-12.
3)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38, 641.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90.
5) 북한군 제2군단 전투서열은 GH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FBIS, *Daily Report: East Asia, North Korea, Biographic Information on 100 Official*(Washington, D.C.: 1989); 국토통일원, 『북괴인물』, 1971;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 1970, p. 213.
7)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73, 771, 1468.
8) 일례로 북한군 제5사단 예하 제10연대의 경우 9월 14일 현재 2,000명 정원 중 700~800명 수준이었다.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1154, 1185.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290.
10)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604, 1154.
11)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417.
12) FEC GHQ, ATIS, *North Korean Forces Interrogation Report*, Nos. 1154, 1185.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7.
1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7. 31).
1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29호에 의거 1950년 8월 14일부로 수도사단에 배속됨.
16) 낙동강 동부지역의 국군 전투준비태세와 전투력 수준에 관한 내용은 제5장 낙동강 중동부지역의 국군 전투준비태세와 전투력 수준을 참고할 것.
1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29호에 의거 1950년 8월 14일부로 수도사단에 배속됨.
1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52.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단양-의성전투』, 1987, p. 199.
2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 7. 22).
21)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39호」(1950. 8. 2).
2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02호」(1950. 8. 5).
23) 수도사단사령부, 「일반명령 제5호」(1950. 8. 2). 수도사단은 8월 2일 사단장 김석원 준장을 흠모해 각처에서 모여든 학도병과 청년 400여 명을 대대규모의 단위부대로 잠정 편성, 이를 호림부대(虎林部隊)로 칭하였다.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단양-의성전투』, 1987, p. 205.
25) 위의 책, pp. 208-209.
26)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9호」(1950. 8. 9).
27)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6호」(1950. 8. 12).
2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6호」(1950. 8. 10).
2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1986, p. 600.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6호」(1950. 8. 10).
31)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1호」(1950. 8. 9).
3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6호」(1950. 8. 10).
3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p. 599-600.
34) 위의 자료, p. 600.
35) 1950년 8월 7일 대구에서 편성된 제25연대는 기계 남쪽 445고지 전투에서 과감한 전투력을 발휘해 남진하는 적과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1개 대대병력 정도만이 남게 되었다. 제1군단은 8월 16일부로 제25연대 잔존 병력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제26연대에 편입시켰다.
3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1.
3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20호」(1950. 8. 11);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1.
38)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8. 12).
3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2.
4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4호」(1950. 8. 15), 구두명령은 사전에 하달됨.
4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599.
42)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8. 12), 「작전명령 제56호」(1950. 8. 12).
43) 8월 13일 현재 안강 지구에는 제17연대와 제26연대, 그리고 제1연대 및 제17연대 잔류병 등 4개 연대와 해군육전대 1개 대대가 집결하고 있었다. 각 부대는 기존 시설의 이용과 보급품 집결의 편의성으로 인해 안강 읍내에 각각 지휘소를 개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혼잡이 가중되었으나, 신속한 부대배치로 곧 질서를 회복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420-421.
4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2.
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1986, pp. 664-665;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8(1950. 8. 13), No. 91(1950. 8. 14).
46)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95(1950. 8. 15), No. 100(1950. 8. 17), No. 101(1950. 8. 17).
4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665.
4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3.
4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p. 666-667.
50) 위의 자료, p. 669.
5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5.
52)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쟁 1년지』, 1951, p. B34;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423.
5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4.
54) 위의 자료, p. 606.
55)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64호」(1950. 8. 16).
56)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64호」(1950. 8. 16).
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669.
5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07.
59) 위의 자료, p. 608.
6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74.
6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p. 608-609.
62)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24(1950. 8. 25).

63)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2호」(1950. 8. 24).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 129.
65)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29(1950. 8. 27).
66) 미군의 특수임무부대 편성시 통상 명칭은 부대장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잭슨특수임무부대 또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진격을 저지한 '돌벽의 잭슨(Stone Wall Jacson)'이라는 전사적 사실을 원용하였다.
6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98.
6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10.
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 142.
70)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 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426-427.
71)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84호」(1950. 8. 31).
7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400.
73)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3호」(1950. 9. 1).
7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74.
7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p. 611-612.
76)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88호」(1950. 9. 2).
7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12.
7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0호」(1950. 9. 3).
7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14.
80)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430.
81) 위의 자료, pp. 612-613.
82)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80.
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수도사단 전투상보』(41), p. 614.
84) 위의 자료, pp. 615-616.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223, 374.
8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405.
8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3호」(1950. 9. 4).
8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6호」(1950. 9. 5).
89) 한신, 『한신 회고록: 신념의 삶 속에서』(서울: 명성출판사, 1994), p. 160.
90) 위의 책, p. 161.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374-375.
92) 제1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4호」(1950. 9. 9).
9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63호」(1950. 9. 4).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 181.
9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9호」(1950. 9. 14).
96) 영덕 전투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영덕 북쪽 4㎞ 지점에 주저항선을 형성한 다음날인 7월 17일 야간에 적 제5사단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8월 1일 이후의 작전상황을 수록하였으며, 이전 상황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2008, pp. 382-421을 참고할 것. 또한 포항 전투는 9월 14일까지의 작전상황만을 기술하고, 이후의 반격상황은 6·25전쟁사 제6권(2009년 발간 예정)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50), p. 137.
9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89.
9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50), pp. 155-156.
100) 위의 자료, pp. 157-158.
1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24.
102)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5호」(1950. 8. 1).
10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24.
104)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82(1950. 8. 11).
10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65.
10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50), pp. 163-164.
10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24.
10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p. 975-979.
10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30.
11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4호」(1950. 8. 15).
11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31.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 98.
113) 안동전투 당시 수도사단에는 김석원 준장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수백 명의 학도병이 종군하였는데, 김석원 준장이 제3사단장으로 전임하자 이들 중 희망학도병 71명이 자체 선출한 중대장 김용섭의 지휘 아래 포항으로 찾아와 사단에 합류하였다. 제3사단 후방지휘소 작전처는 8월 10일 영일비행장에 있는 미 해병대에서 M1소총을 수령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p. 389-390.
114) 제3사단 학도의용군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1994, pp. 89-97을 참고할 것.
11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65.
11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25.
117) 위의 책, pp. 329-330.
11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1호」(1950. 8. 15).
11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1호」(1950. 8. 15).
120)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01(1950. 8. 17).
12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40호」(1950. 8. 19).
12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31.
12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177.
124) 위의 자료, pp. 982-984.
12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67.
12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179.
127)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2호」(1950. 8. 24).
12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181.
129) 위의 자료, p. 182.
130) 위의 자료, pp. 183-184.
131) 사회과학연구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65.
1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p. 164-165.
1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398.

13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185.
135) 국방부, 『한국전쟁사: 낙동강방어작전기』 제3권, 1970, p. 405.
13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81.
13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404.
13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p. 186-189.
13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0호」(1950. 9. 8), 준비명령은 9월 6일에 이미 하달됨.
14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p. 223-224.
14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1981, p. 283.
142)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89호」(1950. 9. 10).
14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 406.
14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 225.
145) 위의 자료, p. 226.
1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pp. 188-190.
14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3사단 전투상보』(49), pp. 228-229.
14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0호」(1950. 9. 13).



제 7 장 해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본장은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전쟁 초기부터 확보한 해상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인천상륙작전 이전단계인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한 제반 해군작전을 기술하였다.

적은 1950년 6월 25일 공격개시 이후 많은 피해를 무릅쓰고 남진을 계속하여 8월 1일 현재 전선은 남북으로 사천(泗川), 진주(晋州), 거창(居昌), 지례(知禮), 김천(金泉), 상주(尙州)를 연결하는 선이었으며, 동서로는 함창(咸昌), 예천(醴泉), 영주(榮州)남방, 진보(眞宝), 영덕(盈德)선까지 진출하였다.

현 전선에 이르기까지 적은 약 반수 이상의 병력 및 장비를 손실하였으나 손실된 병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최후 공격을 실시하여 잔여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다.[1)]

동해안을 공격한 적은 6월 25일 06시에 동해안 옥계(玉溪), 임원(臨院), 삼척(三陟)에 일부 병력을 상륙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후 한국해군 및 유엔해군의 해안봉쇄작전으로 해상에서 적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었고, 반면에 아군은 적의 후방을 해상으로부터 압박하고 있었다.

아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의 지연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이 기간에 유엔군 병력과 장비가 더욱 강화된 아군은 전반적인 공세행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은 한반도 주변해안의 수로특성에 따라 아군 세력을 구분하여 배치되었는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다수의 섬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저수심이 많은 서해안 연안에는 한국해군, 서해안 외해에는 영국 및 캐나다 해군이 배치되었으며, 해안선의 형태가 직선으로 단조롭고 해안이 급경사이며 수심이 깊어서 육지에 가까이 대형함정이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할

수 있는 동해안에는 미군해군이 배치되었다.

북한군의 해양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해군의 해양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 봉쇄작전이 수행되었다.

남·서해안에서는 수로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북한선박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이 기간중에 적병 약 200명, 선박 50여척을 격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동해안에서는 8인치 함포를 보유한 중순양함이 도착하여 강화된 전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봉쇄작전을 실시하여 해안선에 배치되어 있는 적 병력, 철도, 차량 및 보급소 등을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세우기도 하였다.

북한군이 통영을 점령하여 진해와 부산지역을 위협하기 위하여 거제도로 침입하려는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해군과 해병대로 편성된 병력으로 최초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승리함으로써 작전상 후퇴만 거듭하던 국군 장병들에게 승리의 신념을 심어 주었다.

전쟁지휘부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실시전에 인천수로 입구에 위치한 영흥도와 덕적도를 점령하여 상륙작전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인천지역 주둔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전쟁기간중의 해군의 모항으로 함정전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진해를 방어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사안이었다. 그리하여 진해군항방위를 위하여 기존 방어조직을 재편성하여 진해 전역에 대한 방어책임을 일원화함으로써 육상 및 해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엔해군 4척의 항모가 배치되어 지상군 작전지원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하였다.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481소티[2]의 항공지원을 실시하여 적의 병력, 전차, 차량 그리고 군수물자에 대하여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3]

개전초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상이한 절차와 합동훈련 부족으로 원활한 지원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작전으로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북한군의 공격기세를 둔화시켜 부산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서는 8월 중순 북한군에게 측면을 돌파당한 한국군 3사단이 동해 청하에서 전멸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은 육로를 통한 철수가 불가능하여 해상철수만이 유일한 방안이었는데, 해상철수를 위해 LST 3척이 지정되었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함포지원사격과 77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이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여 8월 17일 새벽 한국사단 병력 5,800명, 한국군사고문단 연락단 인원과 1,200명의 민간피난민을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이것은 우세한 해군전력을 보유한 우리 해군이 완벽하게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1. 부대편성 및 운용

북한 지상군의 계속적인 남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해군 주요 임무는 지상군 철수 지원과 안전한 전쟁물자 수송 그리고 해상봉쇄를 통하여 적의 해상침투와 보급물자 수송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 전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동·서해상에서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였고, 차후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한 적 지상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인천수로 입구에 위치한 덕적도 및 영흥도 탈환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군본부는 8월 4일 해본작명갑 제80호로 LST 온양호를 포항으로 보내어 미군 수품 수송하라고 명령하였으며, 8월 5일 해본작명갑 제81호로 진해방위를 위하여 부산경비부 사병 140명을 진해로 보내어 배속시켰다.[4]

해군본부는 8월 6일 함안, 마산방면의 전황에 대비하고자 해본작명갑 제82호로 포항병력 300명을 진해로 이동시켜 배치시켰다. 또한 동해 제2정대 운영에 관한 회의에 참석차 제2정대사령관과 포항경비부사령관이 8월 6일 09시에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해군본부에서는 포항경비부사령관으로 하여금 제2정대사령관을 겸직시키고 제2정대사령관 김충남(金忠南) 중령은 진해군항방위 및 지구경비를 위하여 진해로 전속되었다

남해안 각 지구의 적을 무차별 대량 공중폭격을 실시하여 22시 30분에 삼천포(三千浦), 진동(鎭東), 여수(麗水) 해상봉쇄를 하고 있는 전 함정을 긴급하게 현임무에서 이탈하여 진해로 항해하도록 하였다. 14시 YMS 518정은 삼천포근해에서 미비행기로부터 기총사격을 받아 함정운용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전사 2명 및 부

상 2명 등의 아군피해가 발생하였다.[5]

통영(統營)지역 방위를 위하여 진해통제부지구 방비대 제1대대는 JMS 303, 518호정으로 8월 11일 03시 05분에 마산항을 출항하였으며, 06시 45분에 통영에 도착, 통영초등학교에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지구방위를 위한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6]

해본작명편 제18호로 부산경비부에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였으며, 해본작명갑 제86호로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적은 해로를 이용하여 점령지구로부터 병력 및 군수품을 수송하려고 기도하고 있음.
② 일부 함정을 횡간수로 부근에 파견하여 동일 지구 해상에 위치하여 적의 해상이동을 봉쇄하려함.
③ YMS 503, 514정은 8월 12일 06시 부산을 출항, 횡간수도 동방 입구에 도착하여 해당 수로를 봉쇄하라.

PC 704함은 11시 안마도(鞍馬島)에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13시에 JMS 309정의 지원으로 도내 치안을 확보하였다.[7]

해군본부는 8월 12일 해본작명갑 제90호로서 영덕지구 전상자를 병원선으로 부산에 수송하도록 지시하였으며, 8월 13일 교통부 부산해운국으로부터 LT 1호(260톤급)를 군적에 편입시켰다.[8]

북한 지상군이 주로 서해안에 산재한 도서지방으로 침투를 시도함에 따라 한국해군은 8월 16일을 기하여 서해의 제1정대를 제1함대로 증편하고 해군 총참모장의 직접 지휘 아래 서해 봉쇄작전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해본작명갑 제9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함대편성 및 경비담당구역을 획정하게 되었다.

① 제1, 3정대를 개편하여 제1함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함대 및 정대 구분 경비담당구역을 새로 획정함.
- 제1함대는 해군 총참모장의 직접 지휘하에 들어가라.

- 제3정대는 진해사령장관의 직접 지휘하에 들어가라.
- 함대 및 정대의 함정배치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제1함대

    PC 701, 702, 703, 704, YMS 501, 502, 503, 505, 513, 514, JMS 303, 304, 306, 308, 309, 310, 313, 22LT1-호
  - 제2정대

    YMS 506, 509, 510, 516
  - 제3정대

    YMS 504, 507, 512, 515, 518, JMS 301, 302, 307, LCI 105, 106, LST 801, AKL 901
- 제1, 3훈련정대사령은 그 직무를 해임함.
- 함대 및 각 정대의 경비담당구역은 상황도(상황도 7-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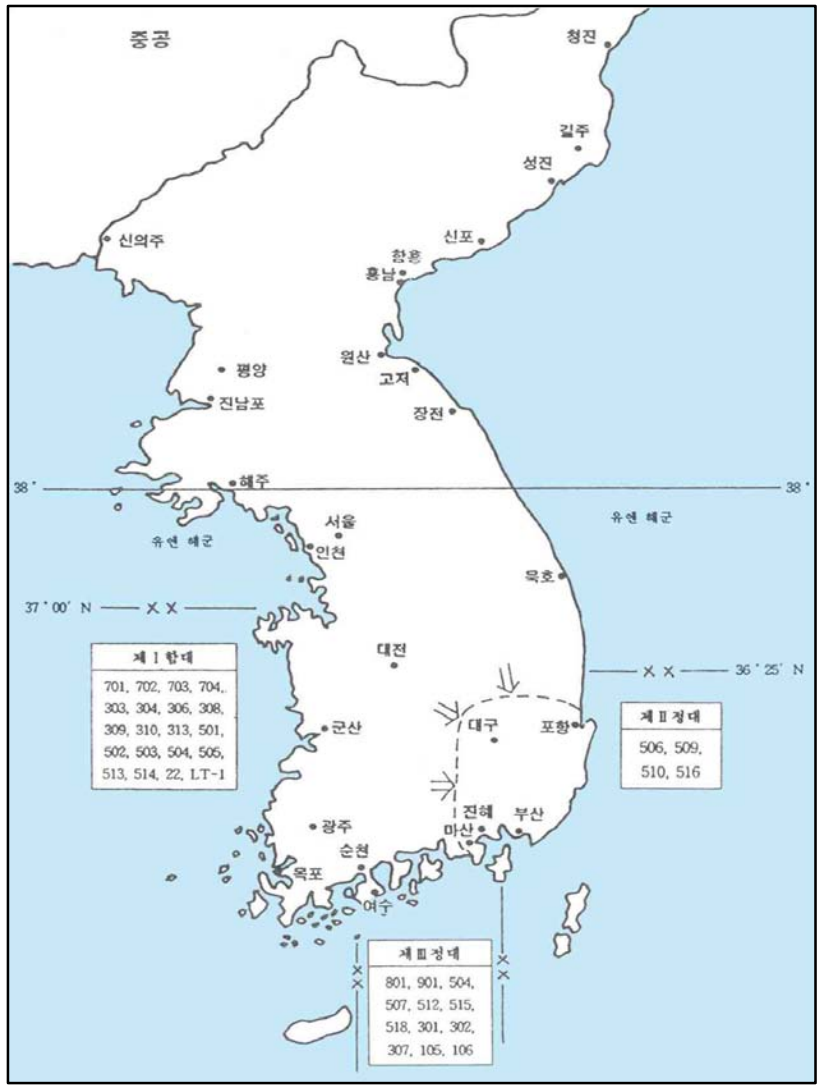
인천상륙작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한국해군 및 KLO첩보대[9]는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차 8월 17일 정보공작선에 편승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였고, 해본작명갑 제93호로서 인천항 입구의 거점인 덕적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탈환할 것을 지시하였다.[10]

해본작명갑 제102호에 따라 일부 함정에 대한 경비지시를 실시하였고 해본작명편 제24호에 따라 선박경호대를 해군본부 직할로 변경지시하였으며 해본작명갑 제104호에 따라 제주해병대를 진해로 이동시켰다.[11]

구암포(九菴浦) 전방해상에서 JMS 308정이 좌초되어 8월 31일 YMS 509, 516정이 구출작전을 실시하였으며,[12] 9월 1일 병원선을 포항에 파견하여 육군부상자를 부산까지 수송하였다.[13]

차기작전을 위하여 해군본부는 9월 4일 해본작명갑 제119호로 해병대 주력을 부산에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9월 12일 15시 부산을 출항할 때까지 약 1주일간 장비보강 및 보급지원을 받았다.[14]

<상황도 7-1> 한국해군의 봉쇄작전(1950. 8. 1~9. 14)



2. 서해안 작전

1) 서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1) 참가부대 및 함정

○ 1함대 해군 총참모장 소장 손원일(孫元一)
○ PC-701, 702, 703, 704
○ YMS 501, 502, 503, 505, 513, 514
○ JMS 303, 304, 306, 308, 309, 310, 313
○ LT-1

(2) 작전 경과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강력한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자, 적은 해상을 통해 북으로부터 남으로 보내는 군수물자의 수송을 포기하였지만 남·서해안에서는 여전히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물자와 병력의 전방 이동을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해안선이 외해로 노출된 동해안과는 달리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도서가 많아 적이 은밀하게 해상활동을 하는데 적합하였다. 북한군은 점령지에서 강제로 동원한 선박을 이용하여 도서지방을 점령하고 남한 현지에서 강제 동원한 보충병과 군수물자의 전방 이동을 통해서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고자 줄기차게 기도하였던 것이다.[15]

한국해군은 서해안의 봉쇄작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8월 8일 해본작명갑 제83호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PC 701함장은 인천해상으로 출동하여 당해 지구를 경비중인 YMS 502, 505정을 통합지휘하여 인천해상봉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송선단을 포착하고 격멸하라.
② PC 704함장은 군산해상으로 출동하여 당해 지구를 경비중인 JMS 309, 301정을 통합지휘하여 군산-목포해상을 초계하면서 해상봉쇄를 더욱 강화하라.
③ 통제부사령장관은 예하 함정 3척을 즉시 출동시켜 동경 128도로부터 진해담당 구역해상내의 적 정보수집과 게릴라 부대의 해상이동을 봉쇄하라.[16]

그리고 해본작명갑 제84호로 이동기지를 대흑산도(大黑山島)로부터 어청도(於靑島)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17]

한국해군은 8월 10일 군산에서부터 인천까지의 해상봉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본작명갑 제85호로 PC 702함을 어청도로 파견하고 YMS 513정을 인천해상에 파견하여 701함장의 지휘를 받게 하며, JMS 313정을 군산해상에 파견하여 704함장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18] 이 기간에 한국해군이 서해안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하면서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았다.

안면도 근해를 초계중이던 YMS 502정은 8월 3일 안면도항에서 군수품을 적재중인 적 기범선 7척을 발견하여 침몰시켰으며, YMS 509정은 8월 6일 인천근해에서 적발동선 60톤급과 범선 5척을 격침시켰다. 또한 8월 7일에도 인천근해에서 경비중이던 JMS 301, YMS 502, 505정은 100톤급의 적 발동선 1척을 비롯하여 적화물선 2척을 격침하였고, 적범선 13척을 격침하거나 격파하였다.

PC 701함은 8월 10일 덕적도에 집결한 적진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가하여 적 70여명을 사살하였고, PC 704함은 8월 11일 11시에 안마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13시 JMS 309정의 지원으로 적 11명을 사살하였으며 섬내부 치안을 확보하였다.

안면도근해를 초계중이던 JMS 301정은 8월 12일 12시 적 보급선단 4척을 발견하여 침몰시키고 적 70명도 사살하였다. 24시 덕적도근해를 초계중이던 PC 702함은 군량미를 적재한 적선을 침몰시켰다. 13일에는 PC 704함이 또다시 안마도에서 12명의 적을 사살하였다.

덕적도부근 해상을 초계중이던 JMS 313정은 8월 14일 08시 소형의 적 연락선을 발견하고 이를 격침하는 동시에 적 4명을 사살하였으며, 15시 횡견수도를 초계중이던 YMS 514정은 적 대형발동선을 발견하여 격침시켰다.

JMS 309, 301정 및 PC 704함은 서해 낙월도(落月島)에서 8월 15일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경찰관 4명을 구출하고 JMS 309정과 301정은 안마도근해에서 적 28명을 사살하였다.[19]

이상에서 8월 1일 이후 9월 14일까지 한국해군의 전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적 병	발동선	화물선	범 선	연락선
사살적병 및 격파선박	195	3	7	42	1

(3) 작전 결과

서해안은 동해안의 특성과는 달리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다수의 섬들이 연근해에 산재하고 있어, 대형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저수심 지역이 많은 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군이 동해안에서 적병력 지원과 전쟁물자 수송에 제한을 받게 되자 아군에게 노출되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가 용이한 서해안에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해군은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1정대를 제1함대로 증편하여 해군 총참모장이 직접적으로 지휘하여 해상봉쇄작전을 강화함으로써 적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한국해군의 함정들은 유엔해군 함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형으로 흘수가 낮아 저수심 지역 및 연안 가까이에 접근하여 병력 및 군수물자를 적재한 적의 선박들을 격침 및 나포시키기도 하고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서해안을 통한 적의 침투를 사전에 봉쇄하였다.

서해안 봉쇄작전에서 한국함정에 의해 무려 적병 약 200명, 선박 50여척을 격침한 것은 대단한 성과로서 서해안의 좁은 수로와 낮은 수심을 최대한 이용하여 침투하려는 북한해군의 의도를 저지시키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2) 덕적도(德積島)·영흥도(靈興島) 상륙작전

(1) 덕적도(德積島) 상륙작전

① 참가부대 및 함정

직 책	참 가 부 대
부대장	중령 이희정(李熙晶) / PC 702 함장
함 정	PC 701, 704, YMS 513, JMS 301, 307, 309, 313
중대장	중위 장근섭 / PC 702 항해장
상륙반	1개 중대 111명
유엔 함정	영국 순양함 Kenya함, 캐나다 구축함 Athabaskan함

② 작전 경과

북한 지상군이 남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연안 부근의 도서들까지 점령하였다. 한국해군은 전해안을 완전하게 봉쇄하였으나 적의 지상포의 사정거리내에 있는 해안에 가까운 도서는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적은 연안도서를 확보하고 범선 및 발동선 등으로 보급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 해군의 정보를 입수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20]

한국해군은 적정과 지형에 대한 정찰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서해안의 주요 도서를 탈환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본부는 8월 16일 PC 702함을 기함으로 PC 701, 704함, YMS 513, JMS 301, 307, 309, 313정의 함정들을 편성하여 작전에 참가토록 명령을 내리고 PC 702함장 이희정(李熙晶) 중령의 성을 따서 「李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21]

적은 서해안 각 도서에서 무고한 섬주민들을 학살 또는 청년 장정들을 강제로 모병하여 남침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특히 덕적도는 인천항입구에 위치하여 우리 군은 인천 상륙에 있어서 전략상 덕적도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었다.

서해경비중 덕적도 점령의 명령을 받은 제1함대는 8월 16~17일에 걸쳐 어청

도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도록 1개 중대를 편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원을 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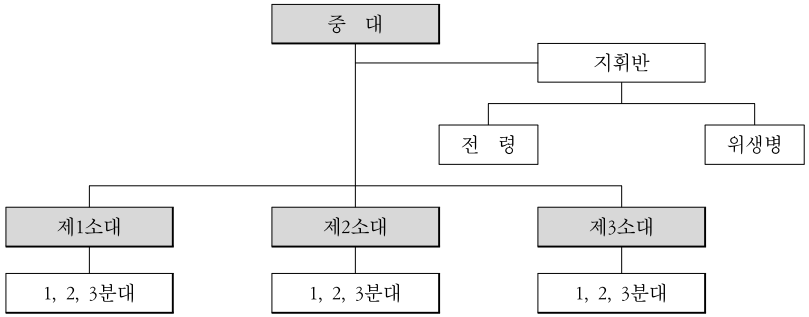
PC 702함정 40명
PC 701, 704함, YMS 513, JMS 309, 307, 301, 313함 각 10명씩 선발
총인원 111명[22)]

덕적도 탈환작전에 앞서 YMS 513정은 8월 16일 13시 선갑도 부근에 투묘하고 15시 구명정으로 문갑도 후면에 상륙하여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고 간부전원을 나포하였다.

문갑도 인민위원의 자백으로 8월 17일 덕적도에는 의용군 약 100명과 유격대원 4~50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PC 702함에 보고하였다(표 7-1 참조).

상륙 각 소대는 8월 18일 06시 15분에 PC 701, 702함과 유엔함정의 함포지원 사격하에 상륙지점인 덕적도로 향하였다. 덕적도의 서부해안은 절벽으로 되어 있어 약 500미터까지 함정이 접근 가능하였고, 서남부 해안의 반포리 부근은 평탄한 지역이므로 선박이 약 1,600미터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남부 진리부근도 평탄한 지대로써 약 1,000미터까지 접근할 수 있었으며 북리 부근에는 약 300미터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표 7-1> 상륙반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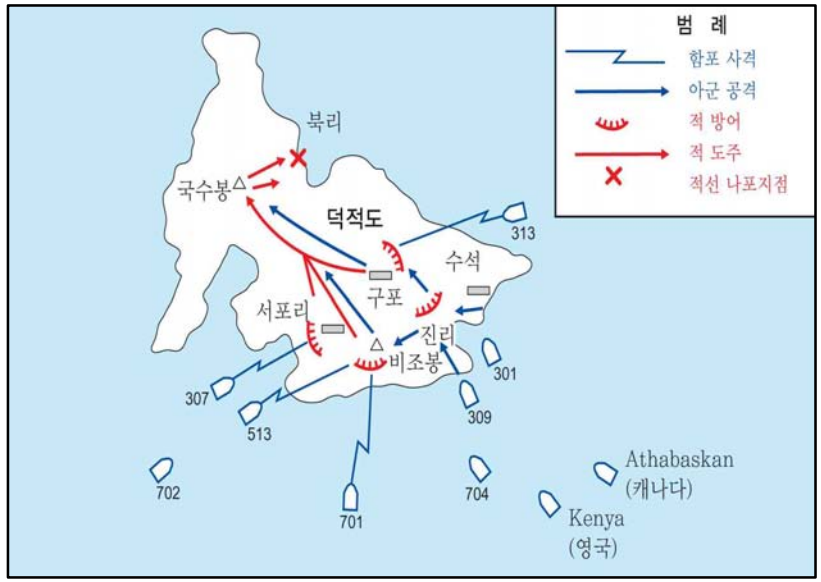


덕적도의 적병력은 1개 소대 약 3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무장은 M1 99식 등 소총과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통신대가 있어 인천 지상군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좌익청년으로 조직된 자위대가 해상 감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성동맹 치안대 등의 기관도 적에게 협력하고 있었다.

상륙주력부대를 탑재한 JMS 301, 309정은 8월 18일 덕적도 동남방 진리 전방을 목표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상륙을 지원하는 PC 701, YMS 513, JMS 307, 등 함정은 덕적도 남방 서포리 비조봉을 목표로 하여 JMS 313정은 북방 구포를 공격하게 하고 PC 702, 704함과 캐나다 구축함, 영국 순양함은 상륙 지점 후방 2마일 지점에서 지원사격을 하여 상륙부대를 탑재한 상륙정을 전진하게 하는 동시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사격을 개시하였다.[23)]

<상황도 7-2> 덕적도 상륙작전(1950. 8. 18~8. 19)



상륙부대를 탑재한 함정은 진리남방 3킬로미터(제1상륙지점)까지 접근하여 영국 해병대 장교 1명, 사병 2명과 함께 적의 저항없이 점령하고 제3소대는 06시 35분에 제2상륙지점인 진리 북방 3킬로미터 지점에 상륙한 즉시 남쪽으로 진출하여 07시 30분 진리외곽에 도착하였을 때는 적은 이미 진리를 포기하고 산악고지로 도주하였다.

적은 상륙부대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서포리 비조봉과 북부고지로부터 중화기와 소총으로 맹렬히 사격해 왔으나 적은 아군의 함포 사격으로 인하여 진지를 포기하고 다시 서북방 국수봉으로 도주하였다.

아군이 07시 35분에 진리에 진입하여 08시 진리를 완전 점령하고 인민위원회 건물과 분주소(分駐所)[24]에서 중요문서를 압수하고 문석수(文錫守) 소위 지휘하에 7명을 경비세력으로 남겨두고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함정의 지원사격과 함께 구포 및 서포로 진격하였다. 제1, 2소대는 10시 30분에 구포를 점령하고 중대본부를 구포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



중대본부가 설치되었던 구포초등학교(덕적도)

적은 국수봉으로 도주하여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함정의 지원사격과 함께 계속적인 추격을 실시하였다. 적은 드디어 발동선 1척에 편승하고 북리로부터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아군은 이를 나포하고 14시 덕적도를 완전 점령하게 되었다.[25]

덕적도내의 적을 소탕한 아군은 부락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청년단을 재조직하여 섬 자체 방위와 치안을 담당케 한 후 문석수(文錫守) 소위 이상 2명을 잔류시키고 19일 21시 상륙본대는 덕적도를 떠났다.

전과는 사살 26명, 포로 7명, 99식 소총 7정, 통신기 4대, 수류탄 13개, 선전삐라 다수, 구금 도민구출 9명이었으며 아군의 피해는 1명도 없었다.

해군은 덕적도를 점령하고 또 한편 JMS 313정은 20일 08시 30분 선갑도, 이작도, 선미도 해상을 초계중 소이작도(小伊作島)의 적 세력을 발견하고 황정연(黃汀淵)소위 외 8명으로 편성한 작전대를 조직한 후 해상 경비를 계속하여 이작도 동방 2마일을 북진중 13시 대이작도(大伊作島) 산정의 적군 1개 소대 병력을 발견하였다.



상륙지점(덕적도 진리 남방)

이작도를 함포로 위협하면서 대이작도와 소이작도와의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 산정에 함포사격하면서 상륙하였다. 아군이 상륙하자 산정의 적 일부는 남단으로 도주함에 따라 추격하여 24명의 인민의용군을 생포하고 산정에서 대항하는 적 70명을 사살하였으며 21일 01시 이작도를 완전 점령한 후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청년단을 조직케 하였다.[26]

(2) 영흥도(靈興島) 상륙작전

① 참가부대 및 함정

직 책	참 가 부 대
부대장	중령 이희정(李熙晶) / PC 702함장
함 정	PC 701,704, YMS 513, JMS 301,307,309,313
중대장	중위 장근섭 / PC 702 항해장
상륙반	1개 중대 102명
유엔 함정	캐나다 구축함 Athabaskan

② 작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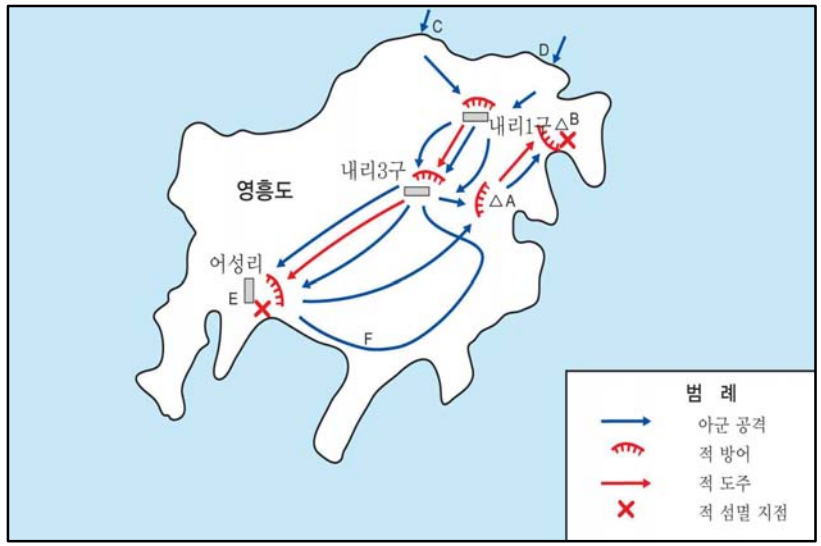
덕적도와 인천의 교량이 되는 영흥도는 인천 상륙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므로 한국해군은 덕적도를 완전하게 점령하자 곧 이어서 영흥도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영흥도의 해안선 일대는 비교적 평탄하며 지질은 대체로 점토질이었다. 섬은 동부와 남부 및 내리 등 세 구역으로 분할되어 동부에 해발 약 100미터의 고지가 있고 서남방 어성리 북방에도 같은 고지가 있었다.

적은 여기에 정규병력 약 30명 내외로서 좌익계열 청년을 동원하여 M1, 99식, 칼빈, 38식 등 소총으로 경무장을 갖추고 주로 내리 1구와 2구로부터 어성리 일대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덕적도를 확보하고 지상전투 경험을 가진 아군은 사기 왕성하였다.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장 중위 장근섭(張瑾燮) 이하 90명으로 편성하고 각

<상황도 7-3> 영흥도 상륙작전(1950. 8. 20~8. 21)



소대는 제1, 2분대에 각각 8명, 제3분대에 9명으로 편제하고 자동소총 20정과 탄약 500발을 캐나다 구축함 아싸바스칸(Athabaskan)에서 차용하였고 그 외에는 덕적도 상륙당시의 소총을 사용하였다. 소총 실탄은 칼빈 약 30발, 99식 약 150발, M1 100발, 수류탄 2개씩을 준비하였다.

아군 함정의 함정지원하에 06시 주력부대(제1소대, 제3소대)는 중대장 지휘하에 옥도환에 탑승하여 D지점으로 향하고, 제3소대는 C지점으로 향하였다. 각각 PC 702함을 떠나 영흥도 북방 2개 돌출지점에 상륙을 감행하였다. 이 때 해상으로부터 함정은 적의 집결지인 내리 1구를 맹렬히 포격하여 적은 근거지를 내리 3구로 옮겼다. 그리하여 상륙부대는 적의 큰 저항없이 목적지인 C, D 양지점에 상륙한 후 각각 계속 진격하여 08시 20분 내리 1구에서 상봉하였다.

중대장은 각 소대에 공격방향을 하달하여 08시 30분 척후병을 선두로 적이 잠복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중대장은 연락병을 통해

각 소대간에 연락을 유지하면서 점차 공격방향으로 진격하였다. 11시 제1소대는 내리 3구 후방 고지에 도달하였다.

해상의 함정은 상륙부대와 긴밀한 연락하에 육전대가 내리 3구에 도달하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저항하는 적을 견제하였으므로 적은 내리 3구의 본거지를 포기하고 서방으로 도주하였다.

상륙부대는 11시 30분 적의 분주소(分駐所)에 진입하여 11시 45분 내리 3구를 완전 점령하고 적 2명을 나포하였고, 분주소(分駐所)에 감금되어 있는 한국 육군 4명을 구출하였다. 육전대는 중대본부를 내리 3구에 두고 각 소대는 14시 30분 다시 소탕되지 않은 지역으로 추격을 개시하여 제1소대는 좌측에서 동남방 해안선을 따라 적을 추격하고 제2소대는 중앙으로 제3소대는 우측으로부터 추격하여 어성리에 접근하였다.

이때 내리 2구를 탈출한 약 15명의 적이 내리 남방 고지에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중대장은 이를 소탕하기 위하여 곧 지휘반과 함께 전진하는 제1소대의 지원으로 A고지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여기에 있던 적 약 20명은 아군의 접근을 알고 사격을 시작하였고 아군은 즉시 반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고지를 포기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도주하여 농가에 진을 치고 다시 저항하였는데 JMS 301승조원인 분대장 이등병조[27] 박동진(朴東鎭)은 수류탄을 가지고 적지 3미터 지점에서 적탄에 쓰러지고 PC 704 승조원인 부분대장 삼등병조 이삼재(李三宰)도 적탄을 맞아 전사하였다. 적의 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적을 공격하여 가옥을 전소시켰다.

적은 시체 1구를 버리고 다시 동방 돌출부 B고지방면으로 패주하였다. 공격부대는 적병 2명을 생포하고 M1, 99식 소총 각 1정을 획득하였다.

제3소대는 제1소대와 함께 내리 3구로 돌아와 어성리를 진격하고 점령한 제2소대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2소대는 해상으로 선저도(船底島)로 도망하려는 적을 감시하였다. 24시경 적은 해상으로 도주를 기도하고 야음에 적 3명이 습격하여 수류탄을 던져 아군 1명을 전사시키고 1명은 부상하였으므로 제2소대장은 반격하여 2명을 사살하고 1

명을 생포하였다.

남아있는 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PC 702함으로부터 12명의 지원을 얻어 B지점으로 파견시키고 제2소대를 어성리에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20~21일 양일간에 걸쳐 남아있는 적소탕 작전을 완료하고 영흥도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청년단을 재조직케 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23일 남아있던 적 15명을 생포함으로써 치안은 확보되었다.

이에 영흥도 탈환전에 일단락을 지은 육전대는 23명의 경비원을 남기고 24일 PC 702함으로 귀함하였다.

전과는 사살 6명, 포로 33명, M1소총 19정(탄약 600발), 99식 소총 4정(탄약 350발), 칼빈 4정(탄약 85발), 38식 소총 1정(탄약 10발), 적선 2척 격파 등이었고, 아군피해로는 전사 4명(분대장 기관 이등병조 朴東鎭/301정, 부분대장 삼등병조 李三宰/704함, 일등수병 金在慶/513정, 일등수병 洪熙均/513정), 경상 7명이었다.[28]

한편 영흥도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써 첩보활동이 쉴 새 없이 이루어졌다. 해군 총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함명수 소령(당시 해군본부 정보국장)을 지휘관으로 장교, 하사관이 포함된 17명으로 첩보대를 구성하고, KLO 대장인 최규봉 대령 일행과 함께 부산에서 영흥도로 이동하였다.

8월 18일 부산을 출항한 첩보선(백구호, 80톤급 철선)은 8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영흥도 북쪽해안에 위치한 십리포에 상륙을 하여 인근에 위치한 영흥초등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인천지역 북한군 병력 및 포진지, 보급로, 기뢰부설현황, 상륙지점의 지형과 안벽의 높이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상륙작전 수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특히 상륙지점의 안벽높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첩보대원들을 직접 현장에 잠입시켜 자기 키를 기준으로 하여 상륙에 필요한 사다리의 높이를 보고하는 등 죽음을 무릅쓴 적극적인 첩보수집활동을 실시하였다.



한국 해군 첩보대가 주둔했던 영흥초등학교(영흥도)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9월 1일 영흥도에 상륙한 미극동군사령부 정보국 소속의 클라크(Eugene F. Clark) 해군대위를 통해 맥아더사령부로 송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군 첩보대는 맥아더사령부에 직접적으로 송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클라크 대위는 전 서무상사였으며 그는 1949년 이래 맥아더 사령관의 일반 참모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의 범상치 않았던 군대생활은 그로 하여금 정보수집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서 선발되기 이르렀다. 그는 지난 8년간에 있어 4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동양에 근무하였으므로 오랫동안 동양생활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생리와 사고방식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일본어와 중국어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극동군사령부로부터 "9월 15일 00시에 인천 팔미도 등대를 밝히고, 성조기를 게양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임무는 인천 인근의 도서지역에 아군

이 점령해 있다는 신호와 공격부대 함정들이 팔미도 등대의 위치를 참고하여 인천 협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었다.

9월 14일 인천상륙작전의 모든 준비를 끝낸 극동군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 D-데이가 임박함에 따라 영흥도에 있던 첩보대에 "모든 임무를 끝내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전 2시, 첩보대가 한창 철수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바로 옆 대부도로부터 북한군 1개 대대가 기습해 왔다. 북한군은 이날에야 비로소 영흥도에 한국군 및 미군이 상륙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부도에 병력을 집결하여 영흥도로 공격해 온 것이었다.

미군 첩보대는 영흥도를 탈출했고, 영흥도에는 한국 첩보대 소속 임병래 소위와 해군 첩보대원 6명 그리고 영흥도 의용대원 30여 명만이 남아 상륙하는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미 해군 첩보대(클라크 대위 일행)가 주둔했던 십리포 해안(영흥도)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임병래 소위와 6명의 해군첩보대원들은 퇴로가 차단된 채 적으로부터 전멸될 위기에 처했다.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3등병조(지금의 하사)가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십리포 해안에 있는 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위된 두 대원은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하고 말았다. 체포될 경우 기밀이 누설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 한·미 첩보작전의 결과로 클라크 대위는 공로를 인정받아 미 해군 십자훈장을 받았으며,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3등병조는 1953년 7월 6일 미국으로부터 은성훈장을 수여했고, 한국정부도 1954년 1월 4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3) 작전 결과

인천 접근수로 입구에 위치한 덕적도 그리고 이 덕적도와 인천 중간에 위치한 영흥도는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의 전초전으로서 한국해군이 수행한 작전이었으며, 해군은 이들 도서를 성공적으로 탈환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들 도서의 탈환작전은 전술적으로는 비록 소규모 작전이었지만, 인천 접근수로의 측방 위협을 제거하고 정보획득의 거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의가 크다.

함정 상륙반은 소규모 상륙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덕적도·영흥도 상륙작전에서 「李작전」부대는 함정 승조원에서 선발한 장병으로 상륙반을 편성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시의 전황이 지상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병대는 통영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李작전」부대가 경비중인 함정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을 수행한 것은 시의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李작전」에서 알 수 있듯이 함정요원으로도 소규모 상륙작전과 지상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와 같이 소규모 작전에서 함포지원은 적을 제압하고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덕적도·영흥도 상륙작전에서 「李작전」부대는 육전에 경험이 없는



해군 영흥도 전적비

소규모 함정요원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작전의 성공은 물론 함정요원의 왕성한 사기와 투철한 사명감에 힘입은 바 컸다고 보겠으나, 우군의 우세한 함포지원은 함정요원의 공격정신을 더욱 진작시키고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함포지원의 보장은 특히 중요하다.

3. 남해안 작전

1)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1) 참가부대 및 함정

○ 3정대사령관

○ YMS 504, 507, 512, 515

○ JMS 301, 302, 307
○ LCI 105, 106, LST-801, YMS-518, AKL-901

(2) 작전경과

7월 20일 미 제24사단이 대전에서 철수할 무렵부터 북한군 제6사단은 전주(全州)-남원(南原)-광주(光州)-순천(順天) 축선을 따라 놀라운 속도로 남진을 계속하여 목포(木浦), 보성(寶城), 여수(麗水)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남서부로부터 부산을 우회 공격하기 위하여 7월 31일 진주(晋州)를 함락시키고 부산으로부터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마산(馬山)을 향해 동진하였다. 지상전의 상황이 이렇듯 급박해짐에 따라 남해안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하는 한국해군 함정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 기간에 남해안 봉쇄작전에서의 작전경과는 다음과 같았다.

남해에서는 8월 3일 진동(鎭東), 통영(統營), 삼천포(三千浦)의 봉쇄작전에 참가중인 JMS 307정, YMS 512정은 피난하고 있던 발동선 행복환(幸福丸)을 수색하고 있다가 10시 15분부터 20분까지 미 공군기의 오인으로 기총사격을 받았으며 그 당시 우리 함정에서는 유엔 항공기가 오인하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피해상황으로는 JMS 307정 승조원 부상 2명, 행복환(幸福丸)에 있던 경찰관 10명 전사, 경찰관 가족 10명 사망 및 경찰관 부상자는 20명 등이었다.[29]

한국해군은 진해방위를 위하여 8월 5일 해본작명갑 제81호로써 부산경비부 사병 140명을 진해에 전속시키고 포항경비부 병력 300명을 진해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2정대사령부 김충남(金忠男) 중령을 진해군항방위 및 지구경비를 위하여 진해로 전속시키고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南相徽) 중령으로 하여금 제2정대사령관을 겸무케 하였다.

유엔군이 8월 6일 남해안 각 지구에 침입한 적진지에 대해 폭격을 실시하였으므로 삼천포, 진동, 여수해상에서 봉쇄작전 임수를 수행중인 전함정에게 22시 30분 임무지역을 이탈하여 진해에 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30]

완도 근해를 초계중이던 YMS 503정이 8월 13일 22시 적병을 탑재한 대형범선을 발견하고 이를 격침하였다. 다음날 15시에 횡견수도를 초계중이던 YMS 514정은 적 대형발동선을 발견하여 함포사격으로 격침시켰다. 그리고 15일 12시 YMS 503정이 해남도(海南島) 남단을 초계중에 군수품을 적재한 적 소형선박 15척을 발견하고 전부 침몰시켰다.[31]

YMS 503정은 진도외해에서 8월 20일과 21일 30톤 내지 100톤에 이르는 적 발동선 3척과 교전하여 1척을 나포하고 1척을 격침하였으며 나머지 1척을 파손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YMS 512정은 8월 25일 진도 동방에서 100톤급 발동선 1척과 70톤급 선박 1척을 격침하고 탑승하고 있던 적 병력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날 남해도 외해에서 YMS 504정이 14~15척의 소형선박과 교전하여 이들에게 손상을 주었다. 이날 가장 큰 전과는 YMS 514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YMS 514정은 고흥반도 남방 해상에서 3차에 거쳐 3시간 동안 교전하여 3척의 선박을 격침하고 8척을 파손시켰다. 그 후 며칠 동안 소강상태를 이루다가 8월 31일 PC 702함이 진도 근해에서 대형 발동선 2척을 격침시키고 수척에 손상을 가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3) 작전 결과

남해의 해안특성도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다수의 섬들이 산재하고 있어 아군에게 적의 해상활동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은폐된 해상교통로를 제공해 주었다.

북한은 동해안에서의 해상활동이 봉쇄되자 서해안과 연결된 남해안에서 해상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려 하였으며, 소형함선(발동선, 범선 등)을 이용하여 군수물자의 수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마산 인근까지 침투한 북한군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해상봉쇄작전의 최대 관건이라고 판단한 해군지휘부는 배속된 함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북한군 소형함선들을 격침, 나포 또는 파손시킴으로써 측

방을 통한 후속군수지원의 의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진해 통제부방위대 작전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	성 명	직 책	계급	성 명
해군 총참모장	소장	손원일 (孫元一)	진해방위사령부 제1대대장	중령	김충남 (金忠男)
진해 통제부사령장관	대령	김성삼 (金省三)	진해방위사령부 제3대대장	소령	김광옥 (金光玉)
진해 통제부방위대사령	대령	김석범 (金錫範)	선박중대장	소령	백기조 (白基祚)
진해 통제부방비대사령	중령	송인명 (宋寅明)	창원지구주둔부대장	소령	백남표 (白南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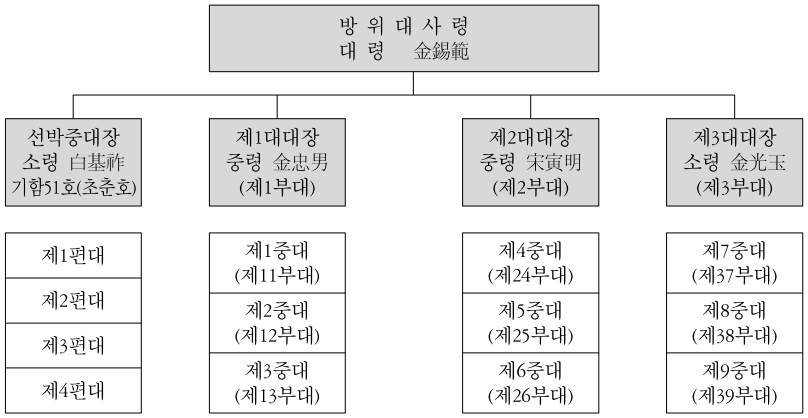
(2) 작전경과

통제부는 8월 11일 전투상황의 긴박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비대를 <표 7-2>와 같이 방위대로 개편하여 강화하였다.

방위대 제1대대(대대장 중령 金忠男) 제1중대(중대장 중위 金錫根)는 8월 18일 통영전투의 지원부대로 파견되어 PC 703함의 엄호하에 21시 25분 장자도(長子島)에 상륙하여 점령한 후 22시 05분 남망산(南望山)을 점령하고 19일에는 해병대와 합류하여 통영시내의 잔적 소탕작전에 투입되었다.

또한 20일 원문고개로 전진하여 해병대 제2, 7중대를 지원하여 적 1개 대대와 교전하였고, 22일에는 적 1개 소대와 23일에는 적 1개 중대와 24일에는 적 2개 분대와 교전하여 격멸하였고, 27일에는 중대장 이하 30명이 리도(狸島)에 상륙하여 적 70명을 사살하였고, 28일에는 적 1개 소대와 9월 2일에는 적 1개 중대와 교전하여 적 전부를 섬멸시키거나 패주시켰다.

<표 7-2> 통제부방위대의 편성표(1950년 8월 11일 현재)



제3대대(대대장 소령 金光玉) 예하의 창원파견대는 9월 1일 17시 30분 창원북면(昌原北面) 구룡산(九龍山) 부근에 잠입한 적 편의대(便衣隊)[32]와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하였고, 구룡산봉에 잠복한 적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하였다.

창원이남에 침입한 적 게릴라부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9월 4일 제2대대(대대장 중령 宋寅明)와 제1대대에서 4개 소총소대와 3대대에서 5개 소총소대를 동원하여 각각 내동리(內洞里)-차룡리(車龍里)-주점(酒店)-서곡(西谷)-퇴촌(退村)-용지(龍池)-정리선(井里線)과 수동(水東)-남지(南支)-상남(上南)-우곡리(牛谷里)-태전리(泰田里)-불모산(佛母山)-애미고개線 및 웅천(熊川)고개-마산수원지(馬山水源池)-팔파산(八坡山)-니동리선(泥洞里線)內의 각 지역을 순찰하여 치안을 확보하며 게릴라부대를 소탕하였다.

창원지구에 주둔중인 白부대(대장 해군소령 白男豹)는 동면지서 서방 1킬로미터 지점에 잠입한 적 15명을 격멸하기 위하여 소위 우조도(禹照道) 예하 28명을 파견하여 3시간동안 교전, 적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발총 1정, 기관소총 2정, 소련식장총 1정, M1소총 1정 및 각종 실탄 380발을 획득하였다.

선박중대(중대장 소령 白基祚)는 8월 14일 수우리(水隅里) 피난민 406명을 수송하고 15일, 16일에는 진동면 고현리(古縣里) 피난민 6,360명을 장승포(長承浦)로 수송하였다.

통영작전에 출동한 선박중대의 62호정(병조장 강원중)은 16일 16시 해병대를 견내량 잔교에 상륙시키고 18일, 19일은 PC 703함의 지시를 받아 척후부대와 포탄의 보급을 하고 야간에는 연안해상을 경비하였다.

제52호정은 8월 21일 수정리(水晶里) 피난민 2,602명을 장승포로 수송하였으며, 제54, 56호정은 9월 2일까지 구산면(龜山面) 학도(鶴島) 피난민 291명을 거제도로 수송하였다.

통제부사령장관은 8월 29일 아래 해상로에 군항초계소(현재의 해상검문소 개념)를 설치하고 선박중대장으로 하여금 출입선박을 검색하였다.[33]

담 당 구 역	초계소 위치	선박 수
거제도 와우암말(臥牛岩末)~ 가덕도등대線 사이의 해상항로	가덕도 천성항(天城港)~ 저도항(猪島港) (제1초계선)	2척
웅동(熊東)~용원리(龍院里)~ 가덕도 북단(가덕수도)線 사이의 해상항로	용원리항 (제2초계선)	1척
구산면 설진(設津)~ 거제도 사월말선(沙月末線) 사이의 해상항로	잠도항(蠶島港) (제3초계선)	1척

(3) 작전 결과

지금도 진해지역은 해군의 모항으로써 여러 유형 및 다수의 함정들이 전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출동대기, 정비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적자원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다.

6·25전쟁 기간에도 진해지역은 해군 총참모장이 위치하여 전해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함정들의 작전을 지휘하고 군수적재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진해육상방위를 위한 통제부 등이 있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7월말 이후에는 북한군은 남서쪽의 진주까지 함락시키고 마산을 향해 동

진하고 있었는데 마산~창원선이 무너지면 해군의 최후의 전략기지인 진해의 함락이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러한 긴급한 상황하에서 완벽하게 진해군항방위를 위하여 기존 방비대 조직을 재편성하여 방비대 사령에게 육상 및 해상을 포함한 진해전역에 대한 방어책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하세력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월 중순 지상전선의 긴박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비대를 방위대로 개편시켜 세력을 강화시킨 것은 전투상황에 부합한 시의적절한 조치였으며, 방위대 예하 제1대대를 통영지구 전투에 해병대 지원부대로 참가시켜 상당한 전과를 올린 것은 전시 해군육전대가 지상전선을 방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해병대 작전

1) 통영상륙작전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부 대 장	대령	김성은 (金聖恩)	PC-703함장	중령	이성호 (李成浩)
제2중대장	대위	김광식 (金光植)	T-6비행대장	소령	신유협 (申攸浹)
제3중대장	대위	이봉출 (李鳳出)	병 력	500명	
제7중대장	대위	안창관 (安昌寬)	함 정	7척(AKL 901, YMS 504, YMS 512, JMS 302, JMS 307, FS 평택호)	
적 군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 (李益成)	제104치안 연대장	미상	
제51연대장	대좌	강치복 (姜致福)	병 력	약 650명	

(2) 작전 경과

아군은 8월 중순까지 진동리로부터 낙동강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북한의 침공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은 이 방어선의 돌파가 불가능함을 알고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고성(固城) 이남의 통영지역으로 남하하여 8월 17일 01시 야포 등 중화기 지원 하에 약 350명이 통영에 침입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부대 300명도 축차적으로 도착하여 통영반도를 점령하였다.

북한은 견내량(見乃粱) 수로를 건너 거제도를 확보함으로써 마산과 부산간 중요한 해상보급로를 차단하고 사정권내에 있는 진해를 위협하면서 부산에 압력을 가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북한군은 8월 16일 새벽에 약 370명의 병력으로 고성으로부터 통영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왔다. 17시경 북한군의 선두는 통영북방 3킬로미터에 위치하는 원문(轅門)고개에 도착하여 박격포 및 기타 중화기 지원 하에 원문고개에서 방어중인 아군 경찰과 교전하고 있었다. 약 100명의 경찰과 해군파견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적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어서 야간에 통영을 포기하고 선박으로 한산도로 철수하였다. 적은 8월 17일 01시에 통영시내에 침입하고 그 후속부대 300명도 도착하여 통영연안을 경비 중이던 AKL 901, JMS 302정과 교전하고 있었다.[34]

이러한 상황 하에서 8월 16일 17시 해군 총참모장으로부터 "거제도 서해안에 상륙하여 통영방면으로부터 거제도에 침입하려는 적을 저지 섬멸하라"는 명령이 김성은 대령에게 하달되었다. 김성은 부대는 즉시 YMS 512정과 FS 평택호에 인원과 보급물자를 적재완료하고 22시경 출동하였다.

통영반도 동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도(紙島)동방에 8월 17일 03시에 도착하여 선체를 은폐하고 새벽을 기다린 다음 소형선박으로 견내량과 통영반도 북동쪽에 있는 장평리(長坪里)에 척후병(斥候兵)을 파견하여 적정을 탐색하였는데 약 650명의 적이 이미 통영시내에 침입하였고 박격포 및 기타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김성은 부대장은 척후병과 통영 해상의 아군 함정으로부터 입수한 적정을 분석하고 작전회의에서 토의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계획을 해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하였다.

통영에 침입한 적은 완편된 1개 대대로 추산되며 통영반도로부터 거제도에 상륙할 기도가 농후하므로 본 부대는 거제도 서안을 방어하는 것보다 통영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고 원문(轅門)고개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니 통영공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35]

PC 703함 이성호 함장으로부터 적정을 상세히 보고받은 해군 총참모장은 17시에 통영부근에 있는 PC 703함, AKL 901, YMS 504, JMS 302, 307정 및 FS 평택호를 김성은 부대장이 통합지휘해서 통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김성은 부대장은 상륙에 앞서 JMS 307, 302정 및 PC 703함의 함포로서 통영 정면의 북한군의 거점고지를 사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아군이 통영항 정면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도동방에 대기 중인 해병대 주력부대를 수송선 FS 평택호, AKL 901, YMS 512정으로 견내량 수로 입구로 이동시켜 제2, 3, 7중대 및 중화기중대, 본부중대 순으로 19시까지 야음을 이용하여 상륙을 완료하였다.

부대를 상륙시킨 AKL 901정은 통영북방으로 진입하여 고성-통영간의 도로를 계속적으로 포격하고 YMS 512정과 FS 평택호는 통영으로 이동하여 함포사격 지원하였다.

북한군은 아군이 통영정면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야간에 매일봉(每日峯) 고지에 배치하였던 병력을 남망산(南望山) 및 해안선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제2중대는 상륙즉시 제1교두보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9시부터 전진하여 21시까지 예정하였던 목표지점에 교전없이 도착하였다.[36]

북한군은 통영읍(統營邑) 일대에서 아군 해군함정과 맹렬하게 교전하고 있었으나 이는 아군의 기만작전의 일환이었다. 통영탈환의 공격명령이 8월 18일 05시에 하달되었다. 즉 제2중대는 목표 2, 3, 4, 5를 점령 후 원문(轅門)고개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고성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고 통영으로부터 도주하는 적

을 섬멸하며, 제7중대는 예비대로서 지시에 따라 목표 9, 10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중화기중대는 제3중대와 제7중대의 통영공격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일부 함정들은 통영 남북방 해상에 대기시켜 해상으로부터 도주하는 적을 섬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김성은 부대는 05시 30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07시 30분경에는 제2중대는 이미 목표 4, 5를 점령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며, 제3중대는 목표 8에 진출하였다. 제7중대는 목표 9를 점령 후 이어서 목표 10에 진출하고 부대본부도 동대리(東大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제7중대는 매일봉 고지를 점령하고자 진격을 개시하였고 동시에 적도 약 300명이 고지를 향하여 공격하였으나 아군부대가 먼저 고지정상에 도달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적은 정량리(貞梁里) 방면으로 도주하였는데 추격하여 병력의 절반을 사살하였다.[37]

이 전투에서 적의 대대장 및 대대 작전참모가 사병 2명을 데리고 지프차로 120밀리 박격포 2문을 끌고 원문고개 북방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한 제2중대는 이를 추격하여 4명 전원을 사살하고 포와 장비를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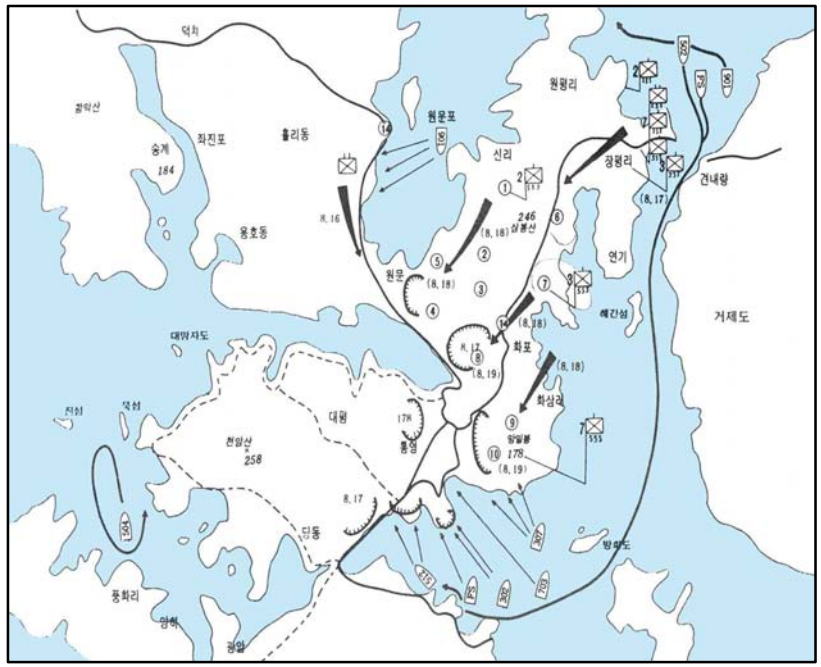
중화기중대 박격포를 이용하여 정량리 일대에서 도주 중에 있는 적 머리에 정확한 사격을 실시하여 적을 유린하고 또한 통영 서북방에 있는 178고지를 공격하였다.

PC 703함은 지상부대를 지원하여 도주하는 적의 퇴로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포를 퍼부었다.

그리하여 정량리에 있는 적진지에는 박격포와 함포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고 그 남방 해안일대도 화재에 휩싸여 적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었다.

PC 703함, JMS 307, 302정은 8월 18일 12시 20분경 남망산과 시내일대에 잠복한 적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개시하자 적은 기관총으로 저항하였으나 아군의 압도적인 위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시내의 중앙고지에 잠복 중이던 적도 완강히 대항하였으나 PC 703함의 포탄으로 인해 적은 후퇴를 하여 민가에 침입하여 양민을 가장하고 도피하려고 기도하였다.

<상황도 7-4> 통영상륙작전(1950.8. 17~8. 19)



한국 해병대의 일부가 14시 통영시내에 진입하여 시가전을 전개하자 적의 주력은 서북방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여 14시 20경에는 적의 저항은 급속도로 저하되었다.[38]

이때 부대장은 제 3중대에 대하여 즉시 178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PC 703함에도 적에 사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아군은 포탄의 잔량이 적어서 즉시에 적극적인 공격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석근(金錫根) 중위가 지휘하는 1개 중대와 탄약이 장평리(상륙지점)에 도착하였고 부대장은 이를 장자도(長子島)로 회항할 것을 명령하고 18시 50분 지휘소를 매일봉 정상으로 이동하였다.

지원중대가 23시 장자도 부근에 도착하자 부대장은 우선 탄약을 전마선(傳馬船)으로 제7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양륙시키어 각 부대에 보급하도록 명령하고 지원중대는 남망산에 상륙하여 대기케 하였다. 또한 제3중대와 제7중대로 하여금 적의 퇴로를 감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군은 8월 19일 08시 전투지휘소를 매일봉에서 시내 통영경찰서로 이전하였으며 지상공격을 지원하던 PC 703함도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원문고개의 제2중대는 09시 고성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과 교전 중에 있었고 적의 박격포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지자 아군은 우군비행기를 이용하여 폭격하였다. 제3중대와 지원중대는 통영반도 서쪽으로 적을 압박하면서 추격을 계속하였다.


통영상륙작전 기념비

제7중대는 8월 19일 정오에 고성에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원문고개로 출발하였다. 제1중대(중화기중대)는 제2, 7중대의 방어를 지원하게 되었다.

통영반도 서쪽으로 파견된 YMS 504정 및 512정은 소형 선박으로 도주하는 적 목선 3척을 발견하여 격침시켰다.

통영상륙작전과 원문고개 방어전에서 아군은 적 사살 469명, 포로 83명 그리고 많은 포와 화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아군의 피해는 전사 15명, 부상 47명이었다.[39]

(3) 작전 결과

통영상륙작전은 미군이나 한국육군 등 아무데도 배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해군과 해병대가 최초로 단독으로 수행한 상륙작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전은 부산 교두보의 측방인 마산, 진해 등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제거했다는 점과 작전상 후퇴만 거듭하던 국군 장병들에게는 승리의 신념을 심어 준 전투다. 특히 전술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의 중요성이다. 북한군이 통영을 점령하고 부산, 마산, 진해를 위협할 수 있는 거제도로의 전진을 방어하고자 해군본부는 거제도 서해안에 상륙하여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상륙부대가 통영반도 근해 도착하여 척후병(斥候兵) 및 함정을 이용하여 적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적은 통영 북동쪽에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소수의 병력으로 거제도 서해안을 방어하는 것보다 원문고개에 진출하여 적의 후속부대를 저지하는 한편, 주력으로서 통영시내에 침입한 적을 격파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책이라고 판단하여 해군본부에 보고하고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작전의 성공여부는 작전계획을 수립시에 정확하고 치밀하게 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로 상륙작전에 있어서의 상륙양동 작전의 유용성이다. 부대장은 통영 동북방 장평리에 상륙하기에 앞서 통영항 정면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함정들에게 통영항 정면에서 통영항과 북한군의 거점고지에 대하여 함포사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하여 적의 주력은 통영부두 쪽으로 배치됨으로써 상륙부대가 적과 교전없이 무혈상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양동작전으로 적의 배후를 기습하여 작전성공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해주는 군수지원의 중요성이다. 통영시내의 적의 주력을 소탕한 상륙부대는 제3중대에게 함정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178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적의 우세한 화력과 필사적인 저항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고, 함포지원함인 PC 703함 및 각 중대에서도 탄약을 대부분 소

모하여 잔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다행히 지원병력 1개 중대와 보충탄약이 장평리에 도착하여 각 중대에 탄약을 보급함으로써 잔적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영상륙작전을 취재하러 왔던 미국 뉴욕 타임즈지의 종군기자는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적군을 기습적인 양동작전으로 공격해 적의 점령지를 탈환한 한국 해병대의 전공을 '귀신잡는 해병(They might capture even the devil)'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후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말은 한국해병대의 영원한 별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원문고개 방어전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부 대 장	대령	김성은 (金聖恩)	해군방위대장	소령	백남표 (白南豹)
제2중대장	대위	김광식 (金光植)	병 력	약 300명	
제3중대장	대위	이봉출 (李鳳出)	함 정	PC 702, 703, 704	
제7중대장	대위	안창관 (安昌寬)	공 군	T-6편대	
적 군					
제104치안연대	연대장	미 상	병 력	약 1,000명	

(2) 작전 경과

고성쪽에서 사격하는 적의 포탄이 원문고개의 아군 방어지역에 8월 19일 15시 40분경 떨어지기 시작하여 3시간 동안에 걸쳐 580발의 포탄이 작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중대장들은 즉시 지원사격을 요청하였고 이 연락을 받은 부대장도 지체없이 진해 통제부사령장관(대령 金省三)에게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통제부사령관은 K-10(진해 비행장)의 우리 공군에 요청하였고, 진해

기지에서는 T-6기 4대의 편대가 출격하여 원문고개 서북쪽에 있는 제석봉(帝釋峰) 뒷면에 위치한 적의 포진지를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한편 해상의 해군 함정들도 이에 호응하여 동시에 포격하였으므로 적과 아군 사이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계속되었다. 적의 포사격이 중단되면서부터 약 1,000명의 적 병력이 제2중대와 제7중대 진지 전면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해병대 2개 중대는 적이 300미터의 사격권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다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였고 박격포와 PC 703함에서도 동시에 포문을 열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희생을 무릅쓰면서 공격하여 왔으며 서로 간의 사격전은 4시간이나 계속되었고 적의 공격은 23시 50분 쯤 되어서야 겨우 약화되기에 이르렀다.[40]

3시간 뒤인 8월 20일 02시 40분쯤에 적은 재차 반격을 가하여 왔는데 이때에 병력 증원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중대와 부대 지휘소간의 통신이 두절되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부대본부에 전령을 보내서 병력증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령은 부대지휘소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적은 야음을 타서 침투하는데 성공하였고 수류탄전이 벌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적의 필사적인 공세로 말미암아 제2중대의 진지 일부가 돌파되자 진지내에서 혼전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진지내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적은 우리 진지 양쪽의 해안선을 따라 침투하여 약 80명이 양쪽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이를 발견한 중대의 예비소대와 중대본부 그리고 해군방위대의 제1중대가 제2선에서 이들을 협공하여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김성은 부대장은 원문고개 전황을 알 수는 없었으나 계속되는 상황으로 미루어 해군본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날이 밝은 뒤 공군의 T-6기 편대가 출격하여 적의 주력과 포진지를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고, 20일 아침 08시 20분에는 북한군은 많은 시체를 남긴 채 퇴각하고 말았다. 적은 21시부터 10분간에 걸쳐 포사격을 실시한 후 또 다시 공격을 해왔으나 약 2시간의 교전 끝에 해병대는 이를 격퇴시켰다.

8월 21일에는 제3중대와 해군방위대의 제1중대가 원문 고개에 제2선에 배치되어 종심을 증강하였는데 이때에 해군의 김석근(金錫根) 중위는 중대장 조정우(趙丁右) 소령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적은 예상한대로 22시경에 야간공격을 또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는 그간에 치른 야간전투의 경험을 살려 적의 반복되는 공격에 대하여서도 침착하게 적을 격퇴하였다. 이때에 이러한 치열한 야간전투에 좀 더 사기를 올리기 위하여 진지안에서 "나가자! 해병대"라는 군가를 높이 부르면서 적을 맞아 잘 싸웠고 이번에도 적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기관총 사수는 250발이 들어 있는 탄통 25개를 전부 소모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였다.

8월 22일 아침에 진지 앞에는 적의 시체 62구가 흩어져 있었으며 더구나 적의 중대장과 병사 3명을 동시에 포로로 잡았고 우리 해병대에서는 2명의 전사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당시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申鉉俊) 대령은 연전연승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왔다.

낮에는 진지 보수와 탄약 보급, 그리고 사선정비 등으로 다음 전투에 대비하던 중 적은 21시경에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왔지만 한국해군 PC 702와 704함이 지원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포진지와 공격부대를 강타하자 여기에 견디지 못하게 된 적은 한 시간 뒤에 드디어 퇴각하고 말았다.

해군방위대 제1중대장 조정우(趙丁右) 소령과 염봉생(廉鳳生) 소령은 8월 23일 교대하고 20시에는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소장은 통영부두에 도착하여 김성은 부대 지휘소를 방문하여 부대장 예하의 모든 장병들에게 승리를 축하하고 더욱 분투해 줄 것을 당부한 다음 21시에 부산으로 돌아갔다.

원문 고개를 점령한지 1주일이 되는 8월 24일에는 처음으로 대인지뢰가 보급되자 이 지뢰를 진지 앞 적의 접근로에 매설하여 방어진을 한층 더 강화토록 하였으며, 8월 26일 김성은(金聖恩) 부대는 사령부로부터 해병대 제161부대 제1대대라는 건제부대 서열 통보를 받았다. 이제까지 제7중대였던 안창관(安昌寬) 대위의 중대는 제1중대로 개칭되고 제1중대는 제4중대로 개편되었다.

또한 통영을 탈환한 다음 이 지구의 청년방위대원 33명이 참전하기를 지원해 왔는데 방위군 중위가 지휘하는 이들은 부대장의 승인을 받고 이 지역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청년방위대원은 8월 27일 17시에 처음으로 全중위(중대장)의 지휘로 원문고개 서쪽 8㎞ 지점에 있는 수월리 양지동(水月里 陽地洞)과 그리고 거기에서 1.5㎞ 북쪽 해안에 있는 가오치에서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기습대를 지원한 PC 704함은 이에 호응하여 동시에 포격을 시작하여 적을 북쪽으로 격퇴시킨 다음 기습대는 지방공산분자 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몇 명의 적도 사살하였다. 이날 밤 23시 30분경 적은 원문 고개 진지를 중대병력으로 공격하였으나 진지 전방에 묻어 놓은 지뢰와 아군사격으로 또 다시 적은 격퇴되었다.

김성은(金聖恩) 부대장은 8월 28일 15시 30분에 PC 704함을 타고 수월리(水月里) 방면으로 이동하여 북쪽 고지대에 대한 포격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청년방위대 전원은 PC 704함의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범선으로 적전 상륙을 감행하여 중대병력의 적과 교전 끝에 14명을 사살하고 포로 1명을 잡았다. 이날 밤에는 적의 공격은 없었으나 적은 24시부터 죽림리(竹林里)의 광산 갱도에 확성기를 걸어놓고 아측에 대하여 귀순하라고 방송함으로써 심리전 공세를 펴오기도 했다.

한편 청년방위대는 범선 몇 척으로 8월 29일 14시에 적지에 상륙하여 적을 교란시키고 돌아왔으며, 또한 수월리(水月里) 뒷산 325고지(봉화산)와 300고지(매봉산)를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한 다음 어둠을 이용하여 철수하였다.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은 적은 전 중위부대가 은밀히 철수한 것을 모르고 좌우고지에서 그들끼리 서로 치열한 사격전을 계속하면서 밤을 새웠다.

미 항공기 6대는 8월 30일 적이 원문 고개의 해병대 진지를 계속 돌파하려고 제석봉(帝釋峰)과 죽림리(竹林里)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지 공격을 실시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김성은(金省恩) 부대장은 8월 31일 아침 수월리(水月里) 뒷산의 능선일대에서 준동하는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방위대의 전 중위로 하여금 부하를 이끌고 10시

수월리(水月里)에 다시 상륙시켰는데 이 부대는 20분 동안에 걸쳐 적과 교전하였다. 이날 밤에도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원문 고개를 또 다시 공격하여 왔으나 아측의 화력으로 말미암아 곧 격퇴되고 말았다.

(3) 작전 결과

한국 해병대는 북한군 보다 상대적으로 병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거제도로 가는 최후 방어선인 원문고개를 점령하고 사수함으로써 측방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였는데 원문고개 방어전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작전에서의 함포지원사격과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의 유용성이다. 북한 지상군의 화력과 병력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시의 적의 공격세력에 대한 해상에서의 강력한 함포지원과 주간에는 항공기로 집결지 및 포진지를 공격하여 적의 전투력을 와해시킴으로써 지상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부대본부와 전투지역간의 통신체계 유지의 중요성이다.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지원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중대와 부대 지휘소간의 통신이 두절되어 병력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원문고개가 적에게 피탈될 뻔한 상황까지 갔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투상황에서는 부대본부와의 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통신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전투상황을 부대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1. 부대편성 및 운용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함으로써 미국 극동해군의 전력이 증강되어 제96기동부대의 편성에 변화가 생겼다. 즉 제3순양함분대 사령관 하트만(Charles C. Hartman) 해군소장이 지휘하는 중순양함 헬레나(Helena)함과 제111구축함분대가 7월 23일 극동해역에 도착하였다. 7월 25일 호송전대와 지원전대가 하트만(Charles C. Hartman) 제독의 지휘 아래 제96.5기동전대(TG 96.5)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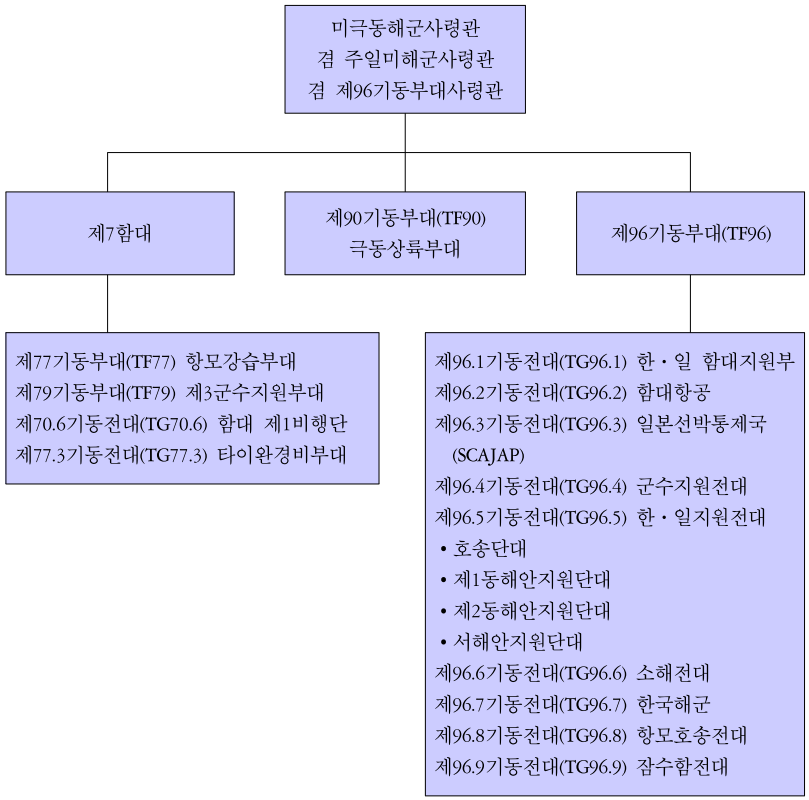
제96.5기동전대는 4개의 예하 단대(Task Element : TE)로 구성되었다. 즉 2개의 동해안 기동단대가 구성되었는데, 그 중 1개 단대(TE 96.51)는 하트만 제독의 지휘 아래 헬레나(Helena)함과 제111구축함분대가 배속되었고, 다른 1개 단대(TE 96.52)는 히긴스(John. M. Higgins) 제독의 지휘 아래 중순양함 톨레도(Toledo)함과 제91구축함분대가 배속되었다. 또한 4척의 호위함이 호송단대(TE 96.50)로 지정되었다.

서해안 지원단대(TE 96.53)는 앤드류(William G. Andrews) 제독의 지휘 아래 영연방 함정과 새로 도착한 네덜란드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서해안에 대한 작전임무가 부여되었다. 코머스(Comus)함과 함께 공창에서 수리를 마친 트라이엄프(Triumph)함이 8월 8일에 합류함으로써 독자적인 항공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서해안은 수로조건 때문에 대형 함정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는 관계로 트라이엄프(Triumph)함의 항공기가 매우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었다.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된 헬레나(Helena)함과 톨레도(Toledo)함은 13,600톤급 중순양함으로서 속력 33노트, 주포로서 8인치 포 9문과 부포로서 5인치 양용포 12

문을 장비하고 있었다. 5인치 포가 철교와 콘크리트 교량에 대하여 별효과가 없었던 중에 이제 유엔해군은 포격과 화력지원에 있어서 위력적인 8인치 포를 장비한 중순양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7-3> 미극동해군의 기동편성(1950. 7. 21~9. 11)[41]



2.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	성 명
미 7함대 사령관	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미 96기동부대사령관	중장	조이(Turner C. Joy)
미 태평양함대 해병사령관	중장	쉐퍼드(Lemuel C. Shepherd)
미 항모 15분대 사령관	소장	러블(R. W. Ruble)
미 77기동부대사령관	소장	어윈(Edward. C. Ewen)
미 77.4항모전대 사령관	소장	호스킨스(John. M. Hoskins)
미 톨레도(Toledo) 전대장	소장	히긴스(John. M. Higgins)
미 헬레나(Helena) 전대장	소장	하트만(Charles C. Hartman)
영 91기동함대 사령관	소장	앤드류(William G. Andrews)
미 필리핀시(Philippine Sea) 함장	대령	굿니(Willard K. Goodney)

3. 작전 경과

1) 해상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극동군사령부에서 전쟁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유엔해군과 공군은 북한의 신장된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 해안초계, 해안봉쇄, 함포지원사격 및 공중공격을 통하여 적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다.

공군세력 뿐만 아니라 해군세력이 증원되고 있었고, 극동공군사령부의 일일 항공기 출격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7월말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 장군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지상작전 지원을 위하여 일부 폭격기를 38도 이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서해안에서는 8월 5일 유엔해군의 입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체리티(HMS Charity)[42]함 및 코사크(HMS Cossack)함의 호위로 벨파스트(HMS Belfast) 및 케냐

(HMS Kenya) 순양함은 인천의 위험한 협수로를 항해하였다. VP6[43] 부대 넵춘(Neptune)기가 탄착수정을 하면서, 우군 함정들은 유류저장소, 공장, 창고 및 포대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하였다.

동해안에서는 7월 26일 히긴스(Higgins) 제독이 중순양함인 톨레도(Toledo)함과 함께 포항에 도착하였을 때, 포항탑재 최종제대가 하륙을 완료하고 있었다. 중순양함이 포항에 도착함에 따라 해상에서 함포사격하고 있던 구축함과 포병대대 및 F-51 전폭기의 임무는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7월 27일 톨레도(Toledo)함은 적부대의 집결지 및 보급품 집적소를 향하여 주간에는 8인치 함포로 포격을 가하는 한편 야간에는 조명탄을 발사하여 지상군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함포지원사격은 탄약 재고량을 고려하면서 11일간 계속되었다. 순양함과 구축함은 미 제24사단의 화력통제반 및 항공통제에 따라 효과적인 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지상군의 전선이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히긴스(Higgins) 제독 예하의 함정들은 해안에서 약 7,000미터 떨어진 해역을 항해하면서 지상부대 연락요원을 교환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지상부대의 보급지원을 엄호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8월 4일에는 로켓을 발사하는 미 공군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영덕지역에서 교전하고 있는 지상군을 지원하여 대성과를 거두었다.

전선상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8인치 함포로 적을 교란했던 히긴스(Higgins) 제독은 다른 목표물을 찾기 위해 이동하였다. 8월 17일에는 북쪽 해상으로 이동하여 삼척 근해에 도착한 다음 해안으로부터 25마일 거리에서 항공사진으로 선정된 목표에 대해 일제포격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1개의 교량이 파괴되고 2개의 터널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를 파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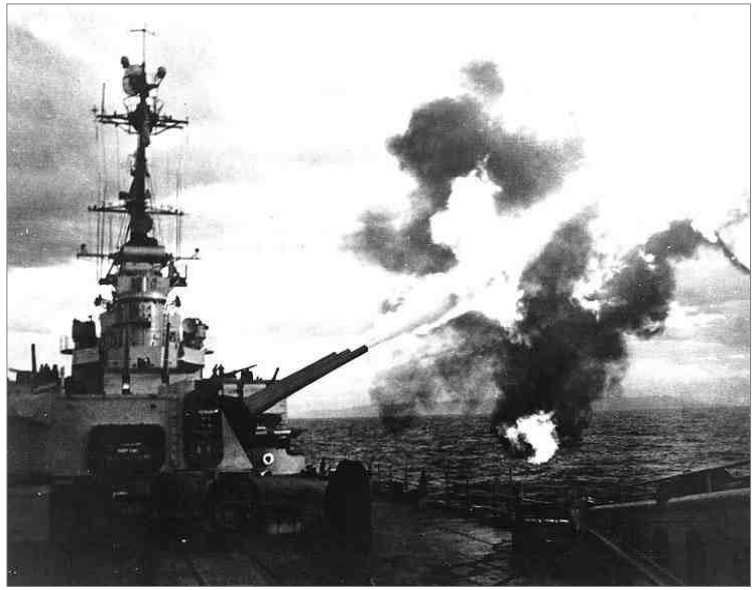
8월 1일 하트맨(USS Hartman) 제독은 일본 사세보에서 재보급을 받은 다음 한국의 북동부 지역으로 항해하였는데, 항공관측으로 북위 40도 및 42도 사이의 해안에 많은 기차가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한국전쟁 초기에 주노(USS Juneau)함이 북위 40도 28분에 있는 단천지역에 최

초포격을 가한 이후, 8월 7일 헬레나(USS Helena)함 및 구축함(111전대)이 포격을 가하였으며, 이것이 유엔군 해상부대가 한반도의 해상봉쇄구역의 최북단에 포격한 것이다. 단천지역에는 함포사격의 표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철교와 교량 그리고 철도역 및 일부 산업시설들은 좋은 목표가 되었다. 함정들은 VP-6 통제기와 협동하여 목표물의 75%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천지역 등 북동쪽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공격을 실시한 이후 헬레나(USS Helena) 함대는 야간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항해하였고, 다음날은 38도선 부근 속초 인근지역의 도로와 철로에 포격을 가했다.

그 후 하트맨(USS Hartman) 제독은 영덕근해에서 군수지원을 하기 위해 일본 사세보로 갔었던 히긴스(Higgins) 제독의 톨레도(Toledo)함대에게 임무를 인계하였다.



헬레나(Helena)함의 8인치 함포사격(1950년 8월)

그러나 남해안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다. 7월 28일 극동사령부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형함정의 집결을 명령하였는데, 그 이유는 8월 1일 하동에서의 북한군과의 전투결과로 극동해군사령관은 히긴스 제독의 기동부대와 한국해군에게 남해인근 해상에서 적을 교란할 것을 지시하였다. 적의 병참선이 너무 길어서 탱크와 트럭용 휘발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상으로부터 군수지원을 기도하고 있었다.

한국해군이 한국근해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연방 해군은 남해에서 자유롭게 세력을 운용할 수 있었다. 8월 2일과 3일에는 구축함 히그비(Higbee)가 남해해역을 초계했으나 적정은 발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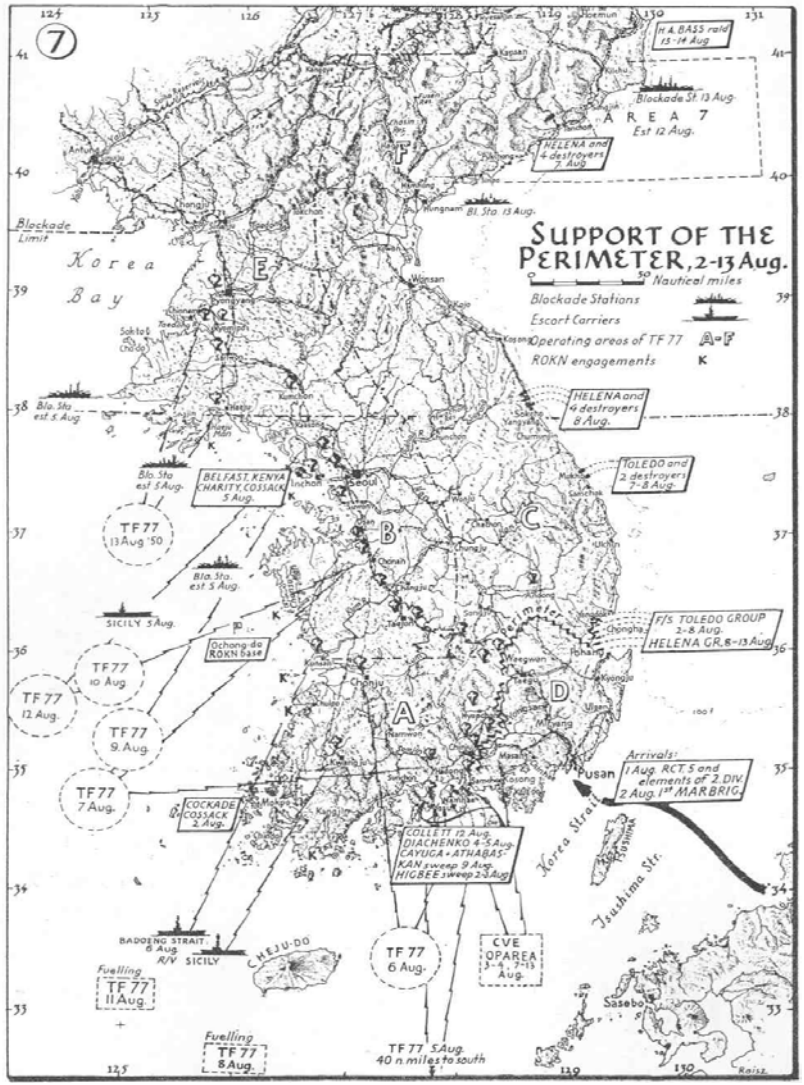
8월 4~5일 야간에는 고속수송함 티아첸코(Diachenko)함의 수중폭파팀(UDT)이 여수지역의 북쪽 철교를 폭파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형차로 도착한 북한 정찰대가 육군을 격퇴하여 티아첸코(Diachenko)함은 철교지역에 40분 동안 함포사격만을 해야 했다.

4일후에 B-29가 여수인근에 대형범선이 있다는 정보를 보고함에 따라 캐나다 구축함 케이유가(Cayuga)와 아싼바스칸(Athabaskan)함이 확인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12일에는 히긴스 제독의 기동부대 소속인 구축함 콜레트(Collett)함이 함포사격을 하기 위해 여수만으로 기동했다.[44]

낙동강 전선에서는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봉쇄임무를 수행중인 기동부대의 작전은 계속되었다. 포항전선 외해에서의 함포지원은 계속 실시되었는데 중순양함 1척과 구축함 1개 분대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야간에는 구축함 1척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후방에 있는 병참선에 포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연안의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2척의 구축함이 북쪽 봉쇄작전 위치에 있었으며, 적 병참선 중심지역에 대한 해상공격은 철강산업 중심지인 청진 방면까지 북으로 확장하였다.

봉쇄구역 북방 한계선에서 50마일 떨어져 있고 또 소련 국경과도 50마일 거리에 있는 인구 20만의 청진시는 동해안 중요 전략 요충지의 하나이었다. 남쪽 방면으로 개방된 만을 끼고 있는 청진시는 방파제로 보호된 내항을 가졌으며,

<상황도 7-5> 함포지원사격, 항공강습(1950. 8. 2~8. 13)



철도, 크레인 및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 1945년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중에 소련 해병이 단 한 번의 돌격상륙을 실시하여 청진시를 점령하였으며, 소련 해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8월 19일 극동공군사령부의 B-29기는 청진을 폭격하였으며 20일에는 구축함 스웬슨(Swenson)함이 청진항 외항에 도착하여 제철소, 항만시설, 철도, 통신소 등에 102발의 포격을 가함으로써 18마일 떨어진 외해에서도 화염을 볼 수 있었다.

8월 21일 구축함 맨스필드(Mansfield)함은 북위 41도 바로 남방의 성진항을 포격하였으며, 야간에도 포격을 실시하여 광물과 목재 수출중심부인 항만, 철도, 교량 등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 8월 23일 맨스필드(Mansfield)함은 청진 근해에서 8월 20일 스웬슨(Swenson)함이 이미 공격했던 곳에 5인치 포탄 180발을 포격하였다.

8월 24일 하트만(Hartman) 제독은 헬레나(Helena)함과 4척의 구축함을 지휘하여 7일 톨레도(Toledo) 전대가 포격한 이래 공격을 받지 않았던 단천 근해에 도착하였다. 헬리콥터의 탄착관측 지원하에 기차와 창고를 파괴한 후 하트만(Hartman) 전대는 성진을 향해 북상하였으며 다음날 그곳에서 조차장(操車場)[45]과 기차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포항전선은 비교적 조용하였으나 8월 22일에는 북한군의 압력이 증가되었다. 다음날 톨레도(Toledo) 함상에서 항공 탄착수정 절차 개선을 위한 육군대표와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결과는 8월 24일에 나타났는데, 순양함은 보급품의 집적소로 알려진 터널 한쪽 끝에 8인치 포탄을 퍼부어 터널 반대편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8월 25일에는 적 탱크와 야포를 포격하자 북한군은 발동선과 범선을 이용하여 포항에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상륙작전은 한국해군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다음날 하트만(Hartman) 제독과 헬레나(Helena) 기동전대가 임무교대를 위해 도착했을 때 포항은 유엔군 점령하에 있었다.

이 기간중 서해에서는 앤드류스(Andrew) 제독의 전대가 지속적으로 서해안 방어지점에 함정을 배치하여 섬과 만 주위를 이용하여 침투하려는 적활동을 저지

하였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건은 2대의 적기 출현이었다. 최근 한달만에 처음 있는 일로 8월 22일 적기 1대가 내습하여 영국 구축함인 코머스(Comus)함에 손상을 입혔으며, 8월 23일 출현한 적기가 한국선박에 공격을 실시하였다. 코모스(Comus)함에 대한 북한 항공기의 공격은 호위항모에 대한 항공엄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서해의 불리한 수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봉쇄는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영국 함정들이 초계중인 해안선을 따라 남으로 이동하는 적의 해상수송을 저지시켰으며, 8월 28일 앤드류스(Andrew) 제독은 적 점령하의 모든 해안의 사진정찰을 실시한 결과 만족스런 성과를 얻었다.

남쪽 전선에서 적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의도는 진동리와 마산으로 연결되는 진해만에 새로운 화력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낙동강전선의 남쪽 끝에 해상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8월 26일에는 구축함 윌트시(Wiltsie)함이 제25보병사단 지원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화력지원임무를 위하여 9월 말까지 여러 함정이 교대로 배치되었다. 제25사단에서 화력통제반들을 훈련시켰으므로 포항전선에서와는 달리 진해에서는 훌륭하게 작전이 수행될 수 있었다.

2) 항모 항공기 작전

항공모함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이 8월 1일에 한국연안에 도착하여 항공모함 밸리 포지(Valley Forge)함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8월 5일 2척의 항공모함은 부산지역 근접항공지원을 위하여 동해로 항해하였다.

항공통제 통신소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각 항모에서 연락장교가 대구 합동작전통제소(JOC)에 항공기 편으로 파견되었다. 이 파견장교들은 매일 한명씩 함대로 복귀하여 지상작전 현황과 정보보고를 하였다.

항공통제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항공기 5대를 공군으로 파견보냈고, 합동작전통제소와 협의한 결과 전장을 4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해·공군 통제기를 별도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들은 항공기 통제의



항해중인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1950년 8월)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였다.[46]

8월 5일 최초로 작전에 참가한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의 함재기 조종사는 남서쪽에 있는 목표물 공격의 임무를 받았다. 전북 이리에 있는 철교와 도로에 대한 공격으로, 북한군의 남쪽측방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목표물이었다.

밸리포지(Valley Forge)함 항공기들은 근접항공지원임무에 할당되었으며, 공격목표물은 적 병력, 보급 및 철교 등이었다. 2대의 코사르(Corsair)기가 대구 서쪽의 적 병력에 대하여 공격을 했으며, 낙동강 중앙전선에 인접한 적 병력에게도 공격을 실시하였지만 항공기통제는 효과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했다.

8월 6일 기동부대는 남해지역에 위치하면서, 항공통제반이 지정한 황간북쪽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였다. 한편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은 수송시설 공격에 집중하였고, 반면 밸리포지(Valley Forge)함은 합동작전본부 통제하에서 코사르(Corsair)

24소티와 스카이라이더(Skyraider) 22소티를 이륙시켰다.

진주지역 적 집결지와 보급선에 대해 타격을 실시했으며, 왜관지역과 김천 인근지역에 있는 적 병력 집결지와 수송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보급소, 트럭 5대, 지프차 2대와 탱크 1대를 무력화시키고, 철교파괴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한 함재기 조종사의 임무종료 보고를 기초로 스트러블(Struble) 제독과 항모전대사령관이 전투상황과 관련하여 회의를 실시하였는데, 근접항공지원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호스킨스(Hoskins) 제독은 합동작전본부의 중앙통제가 비효율적이며, 목표물을 식별하고 확인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소비한다고 판단하였다.

8월 7일 야간에는 항모세력은 서해로 이동하였으며, 목포서측 해역에 위치하면서 38도 남쪽에 있는 철교, 창고, 철도 및 차량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였다. 전선지원에 대한 비효율적인 결과와 호위 항모의 가용성 문제를 고려하여, 극동해군사령관과 7함대사령관은 한반도 북쪽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세력운용을 변경했다. 조이(Joy) 제독은 청진과 흥남 인근에 있는 목표물에 대하여 근접항공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그곳에는 다수의 열차와 다량의 군수물자가 집결되고 있었다.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 소속 항공기가 공군요청에 따라 한강의 폭 25미터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 인천-서울지역 상공 비행중 북한군의 대공사격을 받았으나 요청받은 교량에 1,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하여 명중시켰다.

또한 밸리포지(Valley Forge)함에서 전선으로 보내진 4대 항공기가 대구서방에서 탱크 한 대를 격파시켰고, 경계진 구축함은 해상에서 5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그중의 한명은 미국인이었다.

항공지원은 8월 10일 인천-서울지역의 시설에 대한 차단작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의 24대 항공기들이 3시간 간격으로 출격했지만 통신망의 폭주로 인해 항공작전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구에 파견되었던 연락장교의 보고서를 통하여 호스킨스(Hoskins) 제독은 항

공모함능력에 대한 제5공군의 이해부족과 비효율적인 통신망 등에 대하여 인식하였으며, 무선침묵유지 등과 관련된 7함대 요구사항을 제5공군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공모함과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지정해 줄 것을 5공군에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통신망 설정과 확증절차, 지속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2개의 통신망 설정 등을 요구했다. 다음 날 어윈(Ewen) 제독은 항공모함과 합동작전본부간에 신뢰성이 있는 통신망이 없다는 것과 현장에서 항공기와의 통신망 폭주로 인해 통신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했다. 근접항공지원에 있어 함대능력의 30% 수준이하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망 확보와 공중지원반의 효과적인 운용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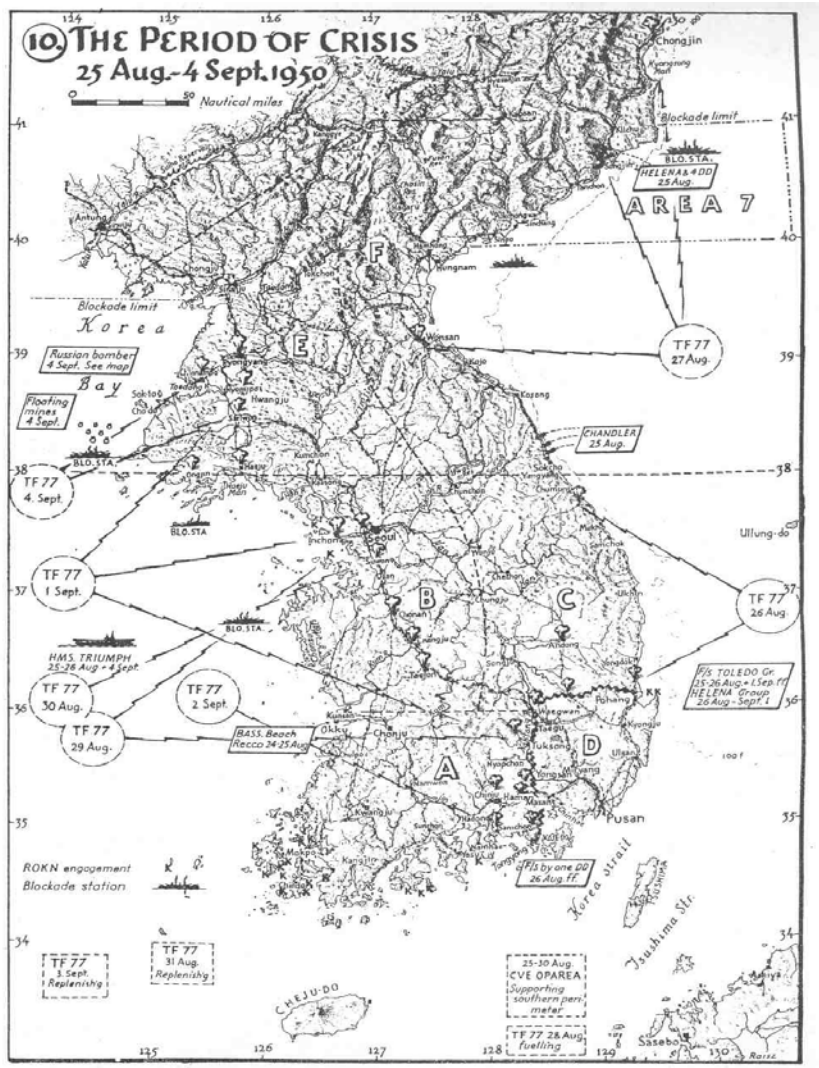
밸리포지(Valley Forge)함의 코르세이어(Corsair)기와 스카이레이더(Skyraider)기로 구성된 3개 편대는 적 병력, 탱크, 차량 등에 대하여 공격하였으며 통신망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통제관의 통제업무가 만족스러웠다고 보고하였다.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의 제11비행대대는 그날 포항 북쪽 터널에 있는 적 병력에 대한 공격을 시발점으로 낙동강 서측에 있는 차량 집결지에 코르세이어(Corsair)기와 스카이레이더(Skyraider)기로 공습을 실시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비행대대장 웨이마우스(Ralph Weymouth) 중령이 지휘하는 제트기 편대의 공격을 끝으로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날의 공격성과는 대단히 훌륭하여 포항 북서쪽 구릉지대에 있는 대대규모의 적 병력에 기총소사 공격을 실시하여 전멸시켰으며, 포항 서방에서는 유능한 항공통제관이 우군 100야드 전방 지점까지 로켓과 기총소사 공격을 유도하였다.

야간을 이용하여 북상한 항공모함 세력은 8월 27일 원산, 청진 연안지역의 수송시설과 다른 표적 및 원산항의 선박에 공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공습은 전날의 지상군 지원작전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기동부대사령관은 평가하였다. 조종사의 보고에서 비록 일상적인 지원임무는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한 통신과 훈련부족 및 통제미숙 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

<상황도 7-6> 항공강습, 함포지원사격(1950. 8. 25~9. 4)



제77기동부대는 8월 28일 남해안에서 유류수급을 받고 일본에서 온 항공기로 교체되었으며, 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새로운 교량 목록과 극동해군사령부로부터 장차의 작전계획을 접수하였다.

서해안에서의 작전계획은 다르게 수립되어 31일에 유류수급 후 2일간 공습작전, 1일간 유류수급, 9월 4~5일 공습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극동공군사령부는 4대로 구성된 비행편대를 하루 종일 매 20분 간격으로 출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통신전달의 지연으로 출격지원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8월 30일에는 극동해군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고속항모부대는 진남포와 평양 근방의 교량, 도크, 선박 등과 평양 북방의 도로와 철도를 공격하고 유류수급과 재무장을 위하여 한국 남서해로 이동하였다.[47]

낙동강 전선에서 8월 31일 작전은 소규모였으며 양측은 앞으로 있을 작전에 계속 대비하고 있었다. 아군세력의 증강과 적의 압박 감소로 워커(Walker) 장군은 제24사단을 교대시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미 해병여단은 마산전투가 일시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열흘간 재정비중이었으며 한국 해병대를 훈련시키는 임무와 차후 작전의 준비로 분주하였다.

해상에서는 일상적인 작전이 수행되어 포항과 진해에서의 함포지원작전과 같은 한국해군의 임무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상전선 지원을 위한 항공세력은 적의 압박이 감소되고 인천 상륙작전계획에 필요한 소요에 따라 점차로 축소되었다. 제5공군은 아직도 일본기지를 거점으로 작전중에 있었으며 일일 출격회수는 8월 초보다 다소 감소되었다.

포항에서 4일간의 지원임무를 마친 항공모함 시실리(Sicily)함은 사세보로 향하였으며,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함은 먼저 사세보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에서 두 함정은 9월 5일까지 대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어윈(Ewen) 제독의 제77기동부대는 장차작전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북서쪽 철도 표적에 대해 4일간의 공격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되어 있었다.

3) 해병여단 전투

8월 16일 77기동부대의 근접항공지원이 동부축선에 집중되었을지라도, 대구 서북쪽의 왜관전선에도 동일한 규모의 근접항공지원이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극동공군사령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융단폭격작전으로 적 집결지역에 85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8월 17일 강력한 적공격으로 대구북쪽 전선이 돌파되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속한 반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병여단은 오봉리 능선에서 17일 08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송장비의 부족으로 해병여단의 도착이 지연되었으며 포병도 전투준비에 지장을 받았다. 또한 우측에 있는 미 육군부대와의 견해차이로 측방지원이 미약하였으며, 호위항모로부터의 공중강습이 15분간 지연되어 18대의 코샤르(Corsair)기는 적 상공에서 작전하는 시간이 예정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였다.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참호 속에 있는 적을 향해 매우 용감하게 돌진하였으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즉 공격을 주도했던 제2대대 240명 가운데 정오경에는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적도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13시경에는 제1대대가 임무를 인수받아 계속 진격하였다. 저녁 무렵 고지 북쪽 끝단을 탈환하고, 반격해오는 적 탱크는 격파시켰다.

북한군의 강력한 야간반격으로 오봉리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나 북한군은 더 이상 전과를 얻지 못하였고, 아침이 되자 우군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방 100야드도 안 되는 거리에 중기관총에 의해 전진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해병여단은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상통제하에 가상공격에 이은 항공강습은 9분만에 완료되었으며, 500파운드 폭탄이 기관총을 강타하여 장애물이 제거되고 적은 혼란에 빠졌고, 08시 30분 고지는 점령되었다.

야간반격에 실패한 적의 지휘관은 도하 철수를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적의 철수로 서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고지인 제2목표를 해병대가 정오 조금 지나서 점령하였다. 북한군이 무질서하게 철수함에 따라, 포병사격

은 낙동강 도하지점으로 전환되었으며 호위항모로부터 출격한 전투기는 강변 둑과 강에 있는 적군에 기총을 발사하여 낙동강은 피로 물들었다.

이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은 동안 제3사단은 낙동강전선에서 우뚝 솟은 최종 목표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순조로운 공격은 야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었고 새벽에 다시 공격이 시작되었다.

8월 19일 06시 45분에는 고지가 점령되어 낙동강전선이 확보되었다. 반면 낙동강 서쪽에서 이러한 패퇴소식을 접한 적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에서 출격한 강습 항공기는 합천과 낙동강 사이에 집결한 적 병력과 보급품 집적소를 집중공격하였다. 해병여단은 그 임무를 종료하고 8군 예비대로 전환되어 다음날 마산으로 이동하였다.

낙동강전투에서 3일 동안, 해병여단은 22문의 포와 다수의 물자를 노획하였고, 적 병력손실은 2,500~4,500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해병여단은 실종을 포함하여 3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승리의 결과는 전문화된 전투요원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또한 일원화된 공지(空地)세력을 잘 활용해서 성취할 수 있는 제공권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낙동강 전투에서의 패배와 그들 4사단이 입은 참패는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큰 패배였다. 유엔군으로서는 이번 전투에서 얻은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으로서 적은 낙동강의 교두보를 복구하기까지 열흘이나 걸렸다.[48]

4) 한국군 제3사단 철수 지원작전

8월 10일 한국 제3사단이 내륙쪽에서 측면을 돌파당하여 포항 북쪽 10마일에 위치한 청하에서 고립되어 전멸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8월 11일에는 영덕남쪽에서 함포지원함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8월 12일 탱크를 이끄는 북한 5사단은 시내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다.

해군함포지원과 공군기 폭격기로 포항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하였다. 비록 화력통제반의 철수로 인해 해군함포지원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했고, 공군 폭격

기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8월 13일 오후에는 아군의 반격으로 일시적으로 적이 후퇴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북한군의 위협은 매우 강력해서 병력증원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군탱크, 포병 그리고 한국연대는 신속하게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주요 돌파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 8군의 예비병력은 경주로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피난민으로 위장한 적군에 의해 차단을 당하여 이동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았다.

포항에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동해안 철도에 대한 공격은 매우 중요하였는데, 헬레나(Helena)와 2척의 구축함은 북쪽지역 신창에서 철교와 터널에 대한 함포사격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8월 14일에는 헬레나(Helena)와 챈들러(Chandler)함은 8인치 170발과 5인치 100발을 발사하여 기차와 2개의 다리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포항에서의 상황과 구룡포에 적이 상륙했다는 정보 때문에 하트만(Hartman) 제독은 25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8월 15일 한국 제3사단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한국군사고문단(KMAG)에 의해 보고되어 워커(Walker) 장군은 해상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병력탑재가 완료될 때까지 화력지원은 필수적이었다. 헬레나(Helena) 기동부대에 의한 함포지원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부산에서 구축함과 소형함정도 지원하였다.

77기동부대는 포위된 사단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8월 15일 오후에 사세보에서 출항하였다. 예정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 북쪽까지 야간에도 계속 항해하였다.

8월 16일 오전에 계획대로 철교와 보급창고에 대해 첫 공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구 주변의 전선에 대한 압박과 청하지역의 전선에 대한 압박으로 근접지원임무로 전환되었다.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 소속 8대의 스카이레이더(Skyraider)기와 7대의 코사르(Corsair)기의 오전 공격이 통신문제로 지상군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했다. 11시 15분에는 5공군의 요청에 따라 모든 공격임무는 근접항공지원임무로 할당되었다. 비록 밸리포지(Valley Forge)함의 소속 비행기가 대구지역에서 트럭, 병참

선과 유류저장소를 파괴하였지만, 14시 45분 청하에서의 정보를 입수하여 철수작전의 주목표는 한국사단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 소속 15대의 비행기가 북한병력 중심세력에 대해 폭격 및 기총사격을 하였으며, 12시 30분과 17시 30분 사이에는 밸리포지(Valley Forge)함은 12대의 스카이레이더(Skyraider)기와 11대의 코사르(Corsair)기를 포항지역으로 발진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항공기통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오후 늦게 필리핀시(Philippine Sea)함의 18대 비행기가 항공통제반으로 인해 출격계획이 취소되었으며, 포항에서 복귀한 밸리포지(Valley Forge)함 조종사가 항공통제사의 통제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함포지원이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한국사단은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구조함정이 제시간에 청하지역에 도착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하트만(Hartman) 제독은 소형함정인 구명정을 사용하여 한국병력을 해안근처에 있는 해군함정으로 이송하려는 철수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방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부산에서 루시(Luosey) 중령은 한국인이 조함하는 1척과 일본인이 조함하는 3척의 LST 함정을 어렵게 준비하고 있었다. 이 함정은 구축함 윌시(Wiltsie)함의 호송하에 8월 16일 야간에 철수지역에 도착하였고, 상륙지역에 접안시에는 해안에 있는 지프차 전조등을 활용하였다.

야간에 탑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지원함정은 계획된 교란사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8월 17일 04시 15분에 LST 함정은 해안에서 이탈하였다. 오전까지 한국사단 병력 5,800명, 한국군사고문단(KMAG) 연락단 인원과 1,200명의 민간 피난민 그리고 차량 100대가 철수하였다.

한국전쟁의 지상군 철수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한국 제3사단은 어려운 시련을 겪은 이후 도일(Doyle) 제독의 예하 LST 함정을 타고 한달 전 기갑사단을 상륙시켰던 구룡포까지 30마일 항해하면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부대는 공격진형을 갖추기 시작했고, 8월 18일 적은 다시 포항외곽에 대해 압박을 했다.

이러한 모든 작전이 포항에서 진행되는 동안, 북쪽지역에서의 작전도 진행되고 있었다. 8월 17일 한국사단이 청하에서 철수하였을 때, 바스(Bass)함은 세 번째의 함포사격을 완료하고 그 지역을 이탈한 반면, 피커렐(Pickerel)함은 사진촬영을 위해 도착하였다. 포항인근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하던 중 톨레도(Toledo) 전대는 함포지원을 준비하였고, 77기동부대는 북동쪽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계진 세력인 맨스필드(Mansfield)함과 스웬슨(Swenson)함은 초계비행기, 기동부대 소속 전투항공초계 지원하에 항해하였으며, 톨레도(Toledo)함은 철도가 해안에 근접해있는 성진부터 이원지역까지 40마일을 이동하였는데 다수 표적을 발견하여 세 개의 철교에 대하여 8인치 297발을 발사하였다.

같은 시각에 77기동부대의 항모 두 척은 38도와 42도에서 발견된 철도시설과 군수물자를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공강습을 실시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1대의 항공기가 탄약을 탑재한 기차를 공격하여 완벽하게 파괴시켰다. 이 작전이 종료될 즈음에 항모와 함포사격 함정은 남쪽으로 침로를 돌렸다. 히긴스(Higgins) 제독은 포항인근에서 함포지원임무를 교대했고, 항모전단은 쓰시마 해협을 통하여 한국남쪽에 있는 재급유 지점으로 이동하였다.[49]

4. 작전 결과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유엔해군의 지원작전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동・서・남해안의 함포사격, 한국군 제3사단의 해상철수, 77기동함대와 96.8기동전단의 항공공격과 1해병여단의 반격은 부산지역을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간 병력과 전쟁물자를 수송했던 함정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해상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이 기간에 유엔해군의 봉쇄부대는 미국본토로부터 중순양함을 비롯한 증원세력이 도착함에 따라 전력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동·서·남해안에서 보다 강력한 봉쇄작전을 수행하여 해양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군의 해상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함포지원사격은 북한군의 주요 군수시설 파괴로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켰음은 물론 아 지상군의 측방지원으로 지상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특히 봉쇄부대는 동해안에서 남으로는 영덕 부근의 지상전선에서부터 북으로는 해상 봉쇄구역의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우군 지상군을 위한 화력지원과 적의 육상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한 함포사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북한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2) 항모 항공기 작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군과 해병 항공기들이 부산지역 방어에 기여한 것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77기동함대가 합동작전통제소의 통제하에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한 것은 총 2,481회였으며 그 중 공중통제기의 통제로 583회, 나머지 1,898회는 직접 북한군, 탱크와 보급물자를 공격 및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해군 항공기의 2,481회의 공격과 해병 항공기의 1,359회의 출격은 적군과 장비에 큰 손상을 주어 부산으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적군을 제지하였다. 적군은 이러한 항공기 공격으로 주간에는 활동을 중단하여야만 했다.

3) 해병여단 전투

해병여단의 지상군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과 낙동강 전선에서의 승리는 전선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8월 2일 해병여단은 부산으로 이동하여 8월 7일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8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주지역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병여단은 진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6일 동안의 전투에서 30킬로미터를 전진했다. 이것이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성공한 반격이었다. 이때 해병여단은 적의 기동화부대를 전멸시켰으며 대부분의 차량과 무장들을 노획하거나 파괴시켰으며 1,900여명의 적군을 죽였다. 이것은 부산지역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투를 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뒤로 낙동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북한군 2개 연대를 격퇴시켜 북한군 4사단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2,500여명의 전상자가 있었으며 또한 9월 3일에는 적 방어선 중심을 공격하여 적군의 전상가가 4,500명이 넘는 전승을 거두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시점이 다가와지자 해병세력을 상륙세력의 주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에는 육군지휘부에서 반대를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군 수뇌부에서는 해병대체 세력으로 7사단 1연대를 선정하고 부산으로 철수시켜 인천상륙작전 부대로 편성될 수 있었다.

4) 한국군 제3사단 철수 지원작전

8월 16일 동해안 청하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는 한국군 제3사단 구조작전의 성공은 6·25전쟁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5일 동안 헬레나 순양함과 호위구축함의 함포사격으로 적군이 해안도로로 전진하는 것을 제지하고 상륙함 4척이 철수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철수작전은 지상군이 내륙에서 고립되었을 때 해상철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만약 동해안의 해상통제권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한국군 제3사단의 철수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여 17연대가 상륙함에 의해 해상철수를 한 것처럼 비상시의 이러한 철수작전으로 지상군을 보호하고 추후 병력을 재편성하여 전선에 재

투입하여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상철수를 통하여 LST들은 군사자문요원 23명과 한국군 제3사단 장교 327명과 사병 5,480명, 피난민 1,260명 그리고 차량 100대를 무사히 해상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기간에 해군의 작전목표는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으로 구축된 낙동강전선을 유지하면서 차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해상작전으로 해상봉쇄작전, 근접항공지원, 항공강습 및 소규모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중에 한국해군의 주요임무는 북한 지상군의 남진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군의 안전한 철수와 전쟁지속물자 수송 및 해상봉쇄를 통하여 해상으로 우회하는 적을 격퇴시키는 것이었다.

북한군의 주요 해상침투로가 도서가 산재한 서해안임을 고려하여 해군본부는 서해함정세력을 강화하여 증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근해에 위치한 덕적도 및 영흥도에 상륙작전을 해군 단독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천 접근수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해군과 해병대의 단독세력으로 실시한 통영상륙작전에서의 전승으로 부산교두보의 서측방에서 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점은 작전상 후퇴만 거듭하던 한국군에게 승리의 신념을 심어 준 전투였다.

유엔해군 세력 가운데 미군세력은 주로 동해안, 영국 등의 세력은 서해안에 위치하여 함포지원사격 및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기간에 8인치를 보유한 중순양함이 도착함으로써 함포지원을 더욱 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해군·해병 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은 초기에 지휘통제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으나 적의 병력과 장비 및 군수물자에 심각한 손실을 주어서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낙동강 전선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8월 중순 북한군에게 측후방을 돌파당하여 동해안에서 고립됨으로써 전멸의 위기에 있었던 한국군 제3사단을 안전하게 해상철수작전을 완수하여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해군전력을 보유한 우리 해군이 지속적으로 해양통제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병여단은 창원 서쪽에 배치되어 낙동강 서부전선을 방어함으로써 부산지역으로 진격해 오는 적을 저지하였으며 이후 낙동강전투에 참전하여 공지협동공격을 통해 북한군 지상군의 전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과를 가져온 것은 전쟁에서 근접항공지원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 해상봉쇄작전

해양통제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적에게 해양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측에게 해양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며,[50] 봉쇄는 이러한 전략개념을 수행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에도 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북한 해상봉쇄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인 제해권을 확보하였다.

해상봉쇄작전은 크게 한국해군이 담당한 남·서 해안 봉쇄작전과 유엔해군이 담당한 동해안 봉쇄작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전구역을 할당한 이유는 작전해역의 수로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남·서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다수의 섬들이 연근해에 산재하고 있으며 대형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저수심지역이 많은 것이 특성이다.

한국해군 함정은 주로 소형함정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해역에서 활동하기가 용

이하므로 남·서해역의 복잡한 수로를 이용하여 전쟁물자를 수송하려는 북한군의 소형함정을 사전에 격퇴시키는 등 봉쇄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동해안은 해안선의 형태가 단조롭고 해안선의 근접된 위치까지 산으로 구성되어 해안이 급경사이며 수심이 깊어서 육지근해까지 대형함정이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할 수 있는 해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엔해군은 이 기간중에 8인치 함포를 보유한 중순양함이 도착하여 전력이 크게 강화되어 더욱 강력한 봉쇄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확보함에 따라 함포사격, 한국 제3사단의 해상철수, 기동함대의 근접항공지원과 해병여단의 반격 등이 가능하였다.

3. 근접항공지원작전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77기동함대가 합동작전통제소의 통제하에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한 것은 총 2,481소티였으며 그중 공중통제기의 통제로 583소티, 나머지 1,898소티는 전선주변 상공을 비행하면서 무장정찰의 형태로 적의 병력, 전차, 차량 그리고 군수물자에 대하여 공격을 실시했다.[51]

합동작전을 위한 해군과 공군의 교리와 훈련부족으로 원활한 지원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 항공력 운용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공군은 지상군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전쟁수행물자에 대한 공격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는 항공기 통제기법의 차이로 해병의 항공기통제사는 지상에서 위치하여 지휘관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즉시 사용했었으나 공군·육군은 항공기통제사가 연락용 항공기에 상주하여 하늘에서 통제하였기 때문에 지상과의 밀접한 연락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부산지역을 방어하는데 4척의 항모가 작전에 참가하여 항모 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으로 북한군은 주간작전은 거의 수행할 수 없었으며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적의 공격기세를 둔화시킴으로써 부산교두를 확보하는데 대단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의 저지는 차후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상륙작전(통영, 덕적도, 영흥도)

통영 상륙작전은 미군이나 육군 등 아무데도 배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해군과 해병대가 최초로 단독으로 수행한 상륙작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 교두보의 측방지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제거하여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승리의 신념을 심어 준 역사적인 전투였다.

한국 해군·해병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 적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적인 판단을 하여 상륙지점을 변경·선정하여 무혈상륙할 수 있었고, 둘째, 상륙양동작전을 통하여 적의 주력을 통영부두쪽으로 배치됨으로써 작전성공에 기여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해주는 군수지원의 중요성이다. 탄약의 소모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후방지역에서의 군수지원은 지속적인 전투를 가능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당시 이 작전을 취재하러 왔던 미국 뉴욕 타임지의 종군기자에 의해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낳게 한 작전이었다.

인천 접근수로 입구에 위치한 덕적도 및 영흥도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이에 대한 사전확보는 작전상 매우 중요했다.

즉 이에 대한 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전초전으로서 한국해군이 성공적으로 탈환함으로써 인천접근수로의 측방위협을 제거하고 인천지역 주둔 북한군에 대한 정보획득을 가능케 하는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었다.

(집필 : 최권삼)

UN 함정 주요제원

1. 미 국

함정명	유 형	제 원	그 림
Valley Forge	항공모함 (CV-45)	• 톤수 : 27,100톤, 전장 : 271미터, 전폭 : 28미터, 속력 : 33노트, 승조원 : 3,448명 • 무장 : 5인치 8문, 40미리 8문, 20미리 46문, 항공기 90~100대	
Philippine Sea	항공모함 (CV-47)	• 상기 동일	
Badoeng Strait	항공모함 (CVE-116)	• 톤수 : 10,330톤, 전장 : 169.8미터, 전폭 : 32.1미터, 속력 : 19.1노트, 승조원 : 1,072명 • 무장 : 5인치 2문	
Helena	중순양함 (CA-75)	• 톤수 : 13,600톤, 전장 : 674피트 11인치, 전폭 : 70피트 10인치, 속력 : 33노트, 승조원 : 1,142명 • 무장 : 8인치 9문, 5인치 12문, 40미리 48문, 20미리 22문	
Toledo	중순양함 (CA-133)	• 상기 동일	
Higbee	구축함 (DD-806)	• 톤수 : 2,425톤, 전장 : 390.6피트, 전폭 : 41.1피트, 속력 : 35노트 • 무장 : 5인치 6문, 40미리 12문, 20미리 11문, 어뢰	

함정명	유 형	제 원	그 림
Wiltsie	구축함 (DD-716)	• 톤수 : 3,460톤, 전장 : 119미터, 전폭 : 12.5미터, 속력 : 35노트, 승조원 : 336명 • 무장 : 5인치 6문, 40미리 12문, 20미리 11문, 21인치 어뢰관 10문	
Mansfield	구축함 (DD-728)	• 톤수 : 2,200톤, 전장 : 114.8미터, 전폭 : 12.4미터, 속력 : 34노트, 승조원 : 336명 • 무장 : 5인치 6문, 40미리 12문, 20미리 11문, 21인치 어뢰관 10문, 폭뢰 6문	
Diachenko	고속 상륙함 (APD)	• 톤수 : 2,200톤, 전장 : 115미터, 전폭 : 13미터, 속력 : 34노트, 승조원 : 336명 • 무장 : 5인치 6문, 40미리 12문, 20미리 11문, 21인치 어뢰관 10문, 폭뢰 6문	
Perch	잠수함 (SS-313)	• 톤수 : 1,550(수상)/2,463톤(수중), 전폭 : 95미터, 전폭 : 8.3미터, 속력 : 20.25(수상)/8.75노트(수중) • 무장 : 21인치 어뢰관 10문(어뢰 24발 적재), 5인치 1문, 25미리 기관총	
Pickerel	잠수함 (SS-524)	• 톤수 : 1,900(수상)/2,480톤(수중), 전폭 : 94미터, 전폭: 8.3미터, 속력 : 13.5(수상)/3.5노트(수중), 승조원 : 85명 • 무장 : 21인치 어뢰관 10문	
Cacapon	유류 지원함 (A0-52)	• 톤수 : 7,236톤(25,440톤/만재), 전장 : 553피트, 전폭 : 75피트, 속력 : 18노트, 승조원 : 314명 • 무장 : 5인치 1문, 3인치 4문, 40미리 4문, 20미리 4문	
Monut Katmai	탄약 지원함 (AG-6)	• 전장 : 140미터, 전폭 : 19.2미터, 속력 : 16노트, 톤수 : 7,700톤, 승조원 : 267명	

2. 영 국

함정명	유 형	제 원	그 림
HMS Triumph	항공모함	• 톤수 : 13,400, 전장 : 211.8미터, 전폭 : 24.4미터, 속력 : 25노트, 승조원 : 1,300명 • 항공기 : 48대	
HMS Charity	구축함 (R-19)	• 톤수 : 1,710(2,520)톤, 전장 : 111미터, 전폭 : 10.9미터, 속력 : 37노트, 승조원 : 186명 • 무장 : 4.5인치 4문, 40미리 6문, 20미리 2문 폭뢰	
HMS Cossack	구축함	• 톤수 : 1,870톤, 전장 : 364피트 8인치, 전폭 : 36피트 6인치, 속력 : 36.2노트, 승조원 : 219명 • 무장 : 4.7인치 8문, 어뢰, 폭뢰	
HMS Belfast	순양함 (C-35)	• 톤수 : 11,553톤, 전장 : 187미터, 전폭 : 21미터, 속력 : 32노트, 승조원 : 750~850명 • 무장 : 4인치 6문, 40미리 12문	
HMS Kenya	경순양함	• 톤수 : 10,450톤, 전장 : 169.3미터, 전폭 : 18.9미터, 속력 : 33노트, 승조원 : 730명 • 무장 : 6인치 12문, 4인치 8문, 40미리 8문, 20미리 12문, 어뢰	

3. 캐나다

함정명	유 형	제 원	그 림
HMCS Athabaskan	구축함 (R-79)	• 톤수 : 1,850톤, 전장 : 114.9미터, 전폭 : 11.4미터, 속력 : 36노트, 승조원 : 219명 • 무장 : 4인치 8문, 40미리 4문, 어뢰관, 폭뢰	

주 (註)

1)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09.
2) 소티(sortie) : 항공기 출격 횟수
3) Malcom W. Cagle &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1957), p. 67.
4)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18.
5)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19-120.
6)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27.
7)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27-128.
8)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30-131.
9) 켈로(KLO : Korean Liaison Office)는 미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로 1945년 8·15광복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한국정부 수립 후 철수하면서 설립한 맥아더사령부 예하의 대북첩보수집 전담기구였다. 6·25전쟁 때 대북·대중공군 첩보수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10)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39.
11)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63-165.
12)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68.
13)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69.
14)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72.
15) 해군대학, 『한국해전사』, 2004, p. 270.
16)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22.
17)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22-123.
18)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25.
19)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87-89.
20)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108.
21)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108-109.
22)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109.
23)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44.
24) 북한 사회안전기관의 하위 말단단위의 하나(예: 농촌리 분주소).
25)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45.
26)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113.
27) 1946년 6월 1일 미해군의 계급을 참고로 하여 사병의 계급을 병조장으로부터 견습수병에 이르는 7계급의 계급을 명명 부여하였다.
    -병조장(상사), 일등병조(중사), 이등병조(하사), 삼등병조(병장), 일등수병(상등병), 이등수병(일등병), 견습수병(이등병)
28)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113-118.
29)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13-114.
30)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84.
31)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88-89.
32) 사복차림으로 적지역에 들어가서 후방을 교란하고 적정을 탐지하던 부대.
33)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100-104.

34)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89-90.
35)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90.
36)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91.
37)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92.
38)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93.
39)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97-98.
40)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95-96.
41) Jame A. Field,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Wac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1962), http:// www.history.navy.mil/books/field/index.html.
42) HMS(Her Majesty's Ship) : 영국 군함앞에 붙이는 명칭.
43) VP(Patrol Squadron) : 초계 전대.
44) Jame A. Field,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Wac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1962), http:// www.history.navy.mil/books/field/index.html.
45) 객차와 짐차를 조절하는 곳. 철도에서 열차를 잇거나 떼어내는 곳이다.
46) Malcom W. Cagle &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US Naval Institute, 1957), p. 73.
47) Jame A. Field,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Wac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1962), http:// www.history.navy.mil/books/field/index.html.
48) Jame A. Field,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Wac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1962), http:// www.history.navy.mil/books/field/index.html.
49) Jame A. Field,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Wac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1962), http:// www.history.navy.mil/books/field/index.html.
50) 강영오,『해양전략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 149.
51) Malcom W. Cagle &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US Naval Institute, 1957), p. 135.



제 8 장 공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한국공군 작전
제 3 절 유엔공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950년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북한군은 여세를 몰아 서부전선에서는 7월 23일 영광과 광주, 7월 27일 여수를 점령했으며, 중·동부전선에서는 7월 24일 영주를 점령하고 안동으로 진출하는 등 점차 낙동강전선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하였다.

이에 유엔지상군은 낙동강을 최전선으로 북으로는 왜관, 동으로는 영덕(포항), 남으로는 마산을 연결하는 궁형(弓形)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유엔지상군이 강력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여 저항하자, 단숨에 남한을 점령하려고 했던 김일성은 초조한 나머지 8월 2일 북한군 총사령부가 있는 수안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모두 남해바다에 처넣고 조국 땅을 완전히 해방해야 한다"며 독전(督戰)하였다.[1] 이러한 독전에 따라 적은 8월 초부터 대구정면에 병력을 집결시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한다는 목표 하에 총공세를 감행하였고, 마산과 포항지구에서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군 비행단은 제5공군 전방부대에 대구기지를 인계하고 차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진해기지로 이동, 8월 1일부터 미 제6146기지부대(부대장: Dean E. Hess 소령)로부터 비행훈련과 정비교육을 받았다. 그 후 적의 공세로 낙동강방어선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비행단은 8월 15일부터 낙동강방어선 사수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유엔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작전을 감행하였다.

한국공군 비행단의 출격작전은 주로 낙동강 남부 방어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적과 경부선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이 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된 최초의 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작전[2]으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중 F-51전투

기는 총 93회를 출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고, F-51전투기의 대지공격작전을 지원한 T-6기는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256회를 출격하였다.[3] 또한, 정찰비행대(T-6, L-4/5기)는 적정정찰 및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며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유엔지상군은 압도적인 적의 공격에 대해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후방 병참지원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얻는데 노력하였다. 적은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고 단숨에 부산을 공략하여 유엔군을 남해로 몰아내려 하였으나, 미 지상군의 증원과 유엔 해·공군의 맹활약에 의한 반격으로 적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유엔공군은 북한의 군수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과 보급수송로 등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투력과 보급수송체계를 마비시키고, 유엔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8월 16 유엔공군은 왜관지역에 B-29중폭격기 98대를 투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융단폭격을 감행함으로써 왜관지역의 적에게 타격을 주었다. 또한 적은 유엔공군의 지속적인 항공공격으로 야간에만 전투와 기동을 하였으며, 그마저도 아군의 야간출격이 강화 되면서 더욱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한국전 발발 초기부터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극동군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의 구체적인 계획 및 준비에 착수하여 D-day를 9월 15일로 확정하고, 8월 30일 작전명령 제1호를 마련하였다. 이 작전의 주력은 미 제1해병사단 및 제7보병사단, 한국군 제17보병연대 및 해병대 등으로 편성된 제10군단이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목표는 인천항을 감제하고 있는 월미도 일대에 산재된 적의 포진지를 격파하고 인천상륙을 감행하여 김포비행장을 장악하고 서울을 탈환하는 것이었다.[4]

이에 유엔공군은 인천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후방차단작전을 강화하고, 북한지역 전략표적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는 한편, 근접지원과 사진정찰 및 심리전 일환으로 전단 살포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륙작전 초기에 일일 보급소요량 700~1,000톤의 물자와 미 제187연대전투공수단 공수수요 충족을 위해 C-119

수송기 등을 확보하고, 9월 10일에는 전구공수임무를 담당할 전투공수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상륙을 위한 준비작전 종료 후, 제10군단은 9월 15일 새벽에 역사적인 상륙작전에 성공하였고, 제8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되었던 지연작전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총공격을 하게 되었다. 기간중 국군 및 유엔공군 지휘관은 <표 8-1>과 같다.

<표 8-1> 국군·유엔 공군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한국공군	총참모장	준장	김정열
	비행단장	대령	장덕창
	정찰비행대장	대위	오점석
유엔공군	극동공군사령관	중장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극동공군부사령관	소장	웨이랜드(Otto P. Weyland)
	극동공군폭격사령관	소장	오도넬(Emmett O'Donnel, Jr)
	제5공군사령관	소장	파트리지(Earle E. Partridge)
	제5공군부사령관	소장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제20공군사령관	소장	스티어리(Ralph F. Stearley)
	전투공수사령관	소장	터너(William H. Tunner)

제 2 절 한국공군 작전

1. 전투비행부대 훈련 및 작전

한국공군 비행단(비행단장: 장덕창 대령)[5]은 제5공군사령부 전방부대에 대구기지를 인계하고 미 제6146기지부대와 함께 진해기지로 이동하였다. 진해기지로 이동한 비행단은 그 동안 해군에서 보관해 왔던 7.7밀리 기관포를 7월 29일 T-6기에 장착한 후 8월 1일 15시부터 17시 사이에 시험사격을 실시하였다.[6]

한편 김정렬 총참모장은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10대의 F-51전투기를 인수할 당시 한국공군 조종사들에게 실시한 1주일 동안의 기종 전환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종사의 희생과 전투기의 손실을 방지하고 전투조종사들의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6146기지부대장 헤스(Dean E. Hess) 소령에게 요청하였다.[7]

당시 한국공군 전투조종사들은 아직 F-51전투기의 특성과 조작방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짧은 진해기지에서 비행훈련을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적지 않았다. 이에 김정렬 총참모장은 조종사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 향상될 때까지 비행여건이 좋지 않은 진해기지에서의 이·착륙을 금지하는 한편, 김해기지에서 비행훈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비행단이 전개한 진해기지는 해방 전 일본의 제51해군항공창이 자리했던 곳으로 부대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지역이 협소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2,750피트(약 833미터)의 짧은 활주로는 그 동안 사용한 적이 없어 잡초가 무성하였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중암산(中岩山, 706고지)의 능선은 서북과 남쪽으로 뻗어 있어 분지와 같은 형상이며, 남쪽 끝은 진해만이 접하고 있어 최소한 3,200피트(약 970미터)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F-51전투기의 훈련에는 부적합하였다.

반면에 훈련기지로 사용할 김해기지는 역시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이며, 해방 이후 민간항공인 한국항공사(KNA)가 부산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비행장은 8,250피트(약 2,500미터)의 콘크리트 활주로가 있어 F-51전투기 비행훈련에는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대시설은 당시 민간항공기인 스틴슨(Stinson) 항공기 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 하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8]

F-51전투기 조종사들은 8월 1일부터 모기지인 진해기지에서 숙식하면서 김해기지를 오가며 비행훈련을 시작하였다. 비행훈련은 제6146기지부대 비행교관 1명과 한국공군 조종사 2명을 한 개 편조로 구성하여 공중조작과 사격훈련을 실시한 다음 하루일과가 끝나면 한국공군 조종사들은 T-6기 혹은 자동차 편으로 돌아오고, 미 공군 조종사들은 F-51전투기를 조종하여 진해기지로 돌아왔다.

제6146기지부대 비행교관들은 한국공군 조종사들이 F-51전투기의 성능과 조종기술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자 이어서 통신기술 교육을 하였다. 이 훈련은 손으로 보내는 수신호, 비행기 날개를 위 아래로 움직여 보내는 '집합' 신호, 비행기 꼬리날개를 움직여 보내는 '일렬종대로 사격준비' 신호 등을 교육하였다. 훈련초기에는 이륙할 때 실수로 추락하는 위험 때문에 전투기에 폭탄을 탑재하지 않았지만 기총에는 실탄을 장전하여 지상 표적에 대한 사격훈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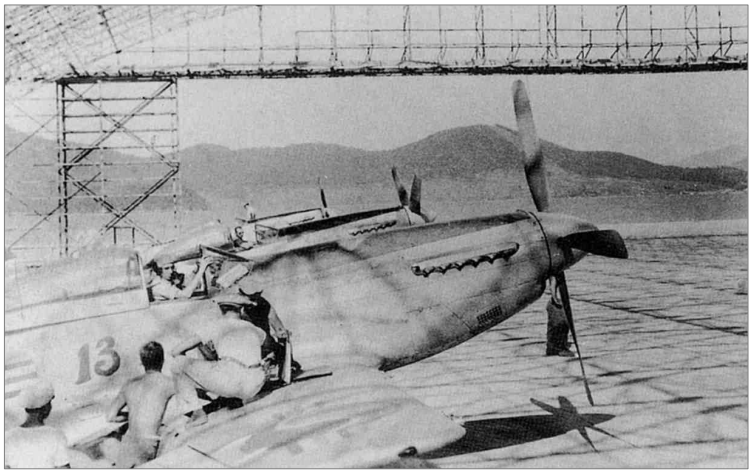
훈련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감에 따라 공중에서 적기와 우군기의 식별법, 편대장을 따라 적 표적을 폭격할 때의 폭격 각도와 고도 측정법, 표적 공격 후 이탈방법, 은폐된 적의 표적을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적 대공화기 회피법 등을 훈련하였다.[9] 이렇게 하여 한국공군 조종사들의 조종술이 점차 향상되자 김정렬 총참모장은 진해기지에서의 이·착륙 금지명령을 일부 해제하였다.

한편 적 제6사단은 진동리 및 마산지구 공격에 실패한 후 병력과 장비를 보충받아 8월 13일부터 미 제25사단(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의 정면(마산방면)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는 서북산(西北山), 전투산(戰鬪山), 필봉(筆峰) 쪽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였다. 제25사단은 진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공군 비행단에 항공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 당시 제25사단은 전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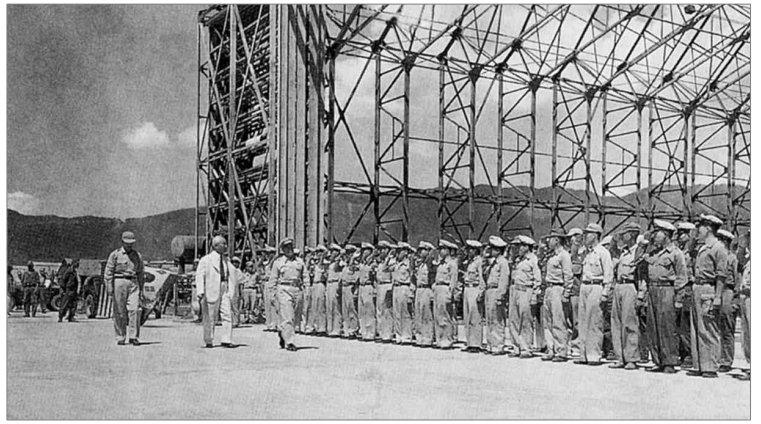
매우 위급한 상황이어서 하루에 6차례의 항공지원을 요청할 정도였다.[10]

한국공군 비행단은 진해기지가 제25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적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지원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8월 14일 비행훈련을 중지하고 출격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헤스 소령은 제25사단의 항공지원요청이 쇄도하자 사단소속 연락장교로부터 표적위치를 확인한 후 마산방면으로 단독 출격하여 적병 3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기록하였으며, 이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항공지원요청에 따라 하루 평균 6회 정도의 출격을 계속하였다.

표적지역은 진해기지로부터 불과 수마일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이륙하면서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넣고 계기점검 및 사격통제장치를 확인한 후 제25사단의 연락장교와 표적지점에 대한 무선교신을 하는 사이에 이미 적 표적상공에 도달하였다.[11] 비행단 정비사들도 마산방면으로 출격한 F-51전투기가 이륙하지마자 곧 바로 적진을 향하여 급강하와 공격 후 급상승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임무를 마치고 착륙한 전투기를 유도, 급유, 기체점검, 무장탑재 등을 하여 재 출격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였다.[12]



출격준비 중인 한국공군 F-51전투기(1950. 8. 15~9. 11)



진해기지 공군장병을 시찰하는 이승만 대통령

2주일 동안 비행훈련을 받은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정영진 대위, 이상수 중위, 장동출 중위, 김성룡 중위 등 F-51전투기 조종사들도 유엔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출격을 개시하였다.[13] 그러나 출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비행단은 전투조종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T-6기 기종에서 선발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김해기지에서 기종 전환훈련을 하도록 F-51전투기 3대를 배정하고, 나머지 6대로 지상군 지원 및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14]

한편, 제6146기지부대장 헤스 소령은 한국공군 조종사가 미 공군 조종사와 같은 편조로 출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한국공군 조종사는 진해기지 활주로가 짧아 이·착륙이 어렵기 때문에 미 공군 조종사 1명과 한국공군 조종사 2명을 1개 편대로 구성하였으며, 3기 편대가 김해기지에서 출격하여 임무를 마친 후 미 공군 조종사는 진해기지에 착륙하고, 한국공군 조종사 2명은 김해기지에 착륙하게 하였다. 그 다음 진해기지에서 미 공군 조종사 2명이 T-6기에 동승하여 김해기지로 가서 T-6기는 한국공군 조종사 2명이 동승하여 진해기지로 돌아오게 하고, 미 공군 조종사는 F-51전투기를 진해기지로 가져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15]

이 방법이 현 상태에서는 가장 최선이었지만 번거롭고 시간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정렬 총참모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원하여 진해기지 활주로 확장공사를 할 수 있었다. 공군본부는 지난 7월 초 김천 간이비행장 건설공사에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 고급부관 한해남 소령[16]을 진해기지 확장공사 시설책임관에 겸직 임명하는 동시에 진해기지의 확장공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진해기지 활주로 확장공사는 9월 1일부터 약 90일간에 걸쳐 국고 약 3,000만원, 동원인력 약 9,000명, 트럭 2대, 미 제25사단이 지원한 페이로더 1대 등을 투입하여 진행되었다. 이 기간 중 매일매일 활주로 길이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진해와 김해기지를 오가던 F-51전투기 조종사들은 진해기지에서 직접 출격하게 되었으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길이 1,060미터, 넓이 70미터로 확장되었다.[17]

F-51전투비행부대는 미 공군 조종사와 함께 주로 낙동강 방어선 후방에 있는 적의 병력과 보급품집적소 등을 공격하였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하동, 광양, 함양, 순천, 통영(현재 충무), 장성 등 주로 적 제6사단과 제7사단[18]의 후방을 공격하여 차량 5대, 야포진지 5개소 등을 파괴하고 병력 70여명을 살상하였다.[19]

특히 적 제6사단과 제7사단은 8월 16일 마산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는 동시에 제7사단의 일부병력을 우회시켜 통영방면으로 진출시켰는데, 그 의도는 통영반도와 거제도를 점령한 후 아군의 주요 해상보급로인 마산과 부산 간의 해로를 차단하고, 진해를 위협하는 동시에 부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성과 통영반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적 제7사단 병력 370명은 8월 17일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영시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20]

적이 통영방면으로 남진하는 보고를 받은 해군통제부사령관 김성삼(金省三) 대령은 8월 16일 24시에 진해기지를 방문, 익일 전개할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공군의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비행단은 7.7밀리 기관포 2문을 장착한 T-6기를 주축으로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병대는 통영상륙을 위해 통영 동북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신유협 소령은 8월 17일 T-6기 후방석에 김성삼 대령을 탑승시켜 해병대의 상륙지점을 정찰하였고, 다른 T-6 4기 편대는 14시에 고성과 통영 일대를 정찰하였다. 이때 정찰기 편대는 야포를 앞세워 통영으로 진입하는 적을 발견하고 즉시 진해기지와 해군통제부에 연락하였다. 비행단은 즉시 F-51전투기 3기 편대를 출격시켜 T-6기 유도 하에 통영으로 진입하던 적을 공격하였다. 적은 갑작스런 항공공격에 혼비백산하여 망일봉(望日峯)과 남일봉(南日峯) 방면으로 후퇴하였으며, T-6기 편대는 퇴각하는 적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잔여 병력은 인근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21]

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은 해병대는 8월 17일 18시부터 통영에 상륙한 다음, 익일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여 통영 시내를 탈환하였다. 통영시내 탈환작전에 성공한 해병대는 8월 18일 11시 적의 후속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고성에서 통영으로 통하는 원문고개에 일부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주력부대는 동북고지를 공격하여 피·아간에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이날 12시에 해병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내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하였으며, 공군은 T-6기 4기 편대와 F-51전투기 3기 편대를 투입하여 적 주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큰 손상을 입은 적은 14시 경에 서북방으로 후퇴하였다.[22]

또한 이날 T-6기 편대는 통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천비행장을 중심으로 마산, 진동리, 고성, 삼천포, 진주 등지에 있는 적의 지원부대와 보급로 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삼천포 상공에서는 적이 4척의 범선에 보급품을 만재하고 통영방면으로 항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격침시켰다.[23]

비행단은 8월 19일 원문고개의 해병대 진지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T-6기 편대를 09시 20분에 출격시켰다. T-6기 편대는 원문고개 서북방의 적진을 공격한 후 F-51전투기 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포병진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해병대는 통영시내 잔당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주변의 전술고지를 점령한 다음 원문고개 방어에 주력하였으나 적은 8월 20일 새벽에 다시 원문고개 남방 해안선을 따라 해병대 진지에 침투함으로써 피·아간에 격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T-6기 편대가 출격하여 적의 주력부대를 공격하는 등 해병대를 지원하여 적을 격멸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T-6기 편대는 선무공작(宣撫工作)의 일환으로 수천 매의 전단을 살포하여 적병 다수가 귀순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통영상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최초의 해·공·해병대간의 합동작전이었으며, 이 작전에서 적병 400여명을 살상하고 적의 야포 10문과 차량 5대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하였다.[24]

한편, F-51전투비행부대의 출격작전은 계속되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동, 옥천, 김천, 상주 등 주로 경부간선도로 지역에 출격하여 전차 9대, 차량 4대, 건물 5개동 등을 파괴하였다. 8월 22일에는 군산, 이리(현재 익산), 목포방면에서 적 해안방어진지 5개소, 차량 4대를 파괴하고, 적병 20여명을 살상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거창과 진주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왜관, 김천, 선산, 청송, 안동 등지의 한국군 제2군단 지역으로 출격하여 적의 보급차량 32대, 보급품집적소 2개소, 연료창고 2개소, 전차 7대 등을 파괴하고, 적병 70여명을 살상하였다.[25]

적은 항공후방차단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전선에 대한 병참수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적은 항공공격으로 병참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항공공격이 뜸한 야간에 차량 또는 우마차 및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여 릴레이식으로 운송하였다. 이러한 릴레이식 운송방법은 한 지점에서 동원된 민간인이 적병의 감시 하에 보급품을 짊어지고 다음 날 해뜨기 전까지 이동하여 도로변에 은폐해 두면 그 지점의 다른 민간인들을 동원해 그 다음 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이었다.[26] 이와 같이 적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급물자를 낙동강 전선으로 수송하였다. 그러나 수송도중 항공공격으로 손실도 많았기 때문에 전선에서는 적시에 충분한 양의 병력과 전투장비, 유류 및 양식 등을 공급받지 못하였다.[27]

한편 북한군 지휘부는 8월 20일 남한지역을 신속히 점령하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이 날부터 8월 31일까지 부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각 부대별로 임무를 부여하였다. 적 제1군단 예하 5개 사단(제6, 제7, 제9, 제4, 제2사단)은 대구와 부산의 주요통신망 파괴와 삼랑진 지역의 남쪽 측면을 타격

하고 대구지역을 포위 섬멸하는 제2군단과 협동작전을 실시하며, 적 제2군단은 예하 4개 사단(제3, 제13, 제1, 제8사단)으로 대구, 울산, 부산의 주요통신망을 파괴하고 영천 및 양산 방향으로 공격하여 적 제1군단과 협동작전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서 적 제1군단은 8월 30일까지, 제2군단은 9월 1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제1군단이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제2군단이 공격하도록 하였다.[28]

북한군 제1군단은 8월 31일 21시를 기해 함안과 부곡리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고, 다음 날 새벽에는 낙동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어 적 제2군단이 포병사격과 함께 9월 2일 18시에 미 제1기병사단과 한국군 제1, 제6사단의 방어선을 공격하였다.[2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군 비행단은 주로 적의 후방에서 병참수송을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F-51전투기 편대가 9월 2일 의성, 함창, 상주 등의 지역에 출격하여 차량 18대, 보급품집적소 1개소 등을 파괴하고 적병 20여명을 살상하였다. 9월 4일에는 무주와 대전 지역, 5일에는 논산, 6일에는 공주, 10일에는 청주와 온양, 11일에는 김천 등지로 출격하여 적의 차량, 보급품집적소 및 병력 등을 공격하였다.[30]

특히 9월 10일 11시에는 장동출 중위, 이상수 중위, 윌슨(Harold Wilson) 대위가 청주지역으로 출격하기 위해 진해기지를 이륙하던 중 장동출[31] 중위가 활주로를 이탈하여 진해 앞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편대원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청주지역으로 출격하여 적의 건물 3동과 차량 6대 등을 파괴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김정렬 총참모장은 한국공군 F-51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진해기지에서의 출격을 중지하고 김해기지에서 출격하도록 명령하였다.[32]

이와 같이 한국공군 비행단 전투비행부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작전기간 중 F-51전투기 출격은 미 제6146기지부대 조종사와 합동으로 출격한 횟수 30회를 포함, 총 93회를 출격하여 <표 8-2>와 같은 전과를 기록하였으며, F-51전투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T-6기는 <표 8-3>과 같이 총 256회를 출격하였다.[33]

<표 8-2> F-51전투기 작전전과 종합(1950. 8. 1~9. 15)

타격 표적	파괴/살상	타격 표적	파괴/살상
병 력	약 262명	철도조차장	2개소
전 차	24대	연료창고	2개소
트 럭	87대	보급품집적소	6개소
건 물	19개소	진지(포병진지 등)	10개소
교 량	6개소		

<표 8-3> F-51전투기 지원을 위한 T-6기 작전종합(1950. 8. 1~9. 15)

작전 기지	정 찰	연 락	계
진해기지(K-10)	124회	132회	256회

2. 정찰비행대 작전

정찰비행대(비행대장: 오점석 대위)는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7월 26일 의성으로 이동하였다. 그 동안 항공기 손실이 적지 않아 단 4대(L-4기 2대, L-5기 2대)[34]의 연락기로 작전을 수행하던 정찰비행대는 8월 1일까지 중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한국군 제2군단의 눈과 귀가 되어 괴산, 제천, 영월방면과 동해안 지구에 대한 적정정찰을 실시하고 영덕, 안동, 신녕, 대구간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35]

북한군의 공세로 유엔지상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형성하자 정찰비행대는 8월 3일 신녕으로 이동, 영덕-영주-문경-김천 일대의 적정을 정찰하였다. 항공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찰비행대는 항공기 당 하루에 5~6회의 정찰임무를 수행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전선 상황을 육·해·공군 본부와 제5공군에 보고함으로써 유엔공군의 항공력 운용 및 지상군 작전수행에 기여하

였다. 특히 정찰비행대의 적정을 보고받은 제5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적 표적의 대부분을 파괴함으로써 지상군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36]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이 포항, 기계 및 안강지구를 공격하자 정찰비행대는 8월 13일 신녕에서 대구경마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공군본부는 그 동안 통신통(通信筒)에 의존하던 정찰기의 공-지간 연락방법을 개선하고자 공-지간 연락을 8월 14일 24시를 기해 SCR-300 무선통신기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37]

공군본부는 8월 14일 군수국장 박두선(朴斗先) 소령에게 미 제8군으로부터 무선통신기재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대장 이복현 대위에게 이날 18시까지 비행단 소속 정찰기에 무선통신기를 장착하도록 지시하였다.[38] 이 지시에 따라 군수국장 박두선 소령은 제8군으로부터 SCR-300 무선통신기를 인수하였고, 통신대장 이복현 대위의 지휘 하에 처음으로 L-형 항공기에 장착[39]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도 정찰기와의 공지통신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사용하였다.[40]

① 사용무전기는 SCR-300 무선통신기로 한다.
② 통신제원(<표 8-4> 참조)에 의하여 지상부대는 항공기를 호출하고, 항공기는 지상부대를 호출한다.
③ 항공기와 지상부대 간에 먼저 공동주파수로 호출하고 항공기가 해당 지상부대의 호출부호를 부르면 해당 지상부대는 할당된 주파수띠로 변경하여 교신한다.
④ 항공기 호출부호는 처녀 1, 처녀 2, 처녀 3 등으로 한다.
⑤ 연대 이하 부대에서는 소속사단에 할당된 주파수띠를 사용한다.
⑥ 할당된 주파수띠로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주파수띠에서 1을 감한 주파수띠로 교신한다. 즉 제3사단에서 항공기와 19주파수띠로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18주파수띠로 교신한다.
⑦ 위 규정은 통신규정 항목번호로 후에 하달하며 기타 변경에 관해서도 통신규정으로 하달한다.
⑧ 위 규정은 8월 14일 24시부터 시행한다.

<표 8-4> 공지간 통신제원표(1950. 8. 24)

부 대 명	주파수띠(단축번호)	호출부호
제1군단	5	철모
제2군단	9	사과
제1사단	14	배나무
제1사단 포병대		나비 1
제3사단	19	모자
제3사단 포병대		나비 2
제6사단	25	책상
제6사단 포병대		나비 3
제8사단	31	안경
제8사단 포병대		나비 4
수도사단	35	도장
수도사단 포병대		나비 5
포항전투사령부	39	구두
포항전투사령부 포병대		나비 6
공동용	2	토끼
항공기	1	처녀

이러한 통신방법의 개선으로 정찰비행대는 적정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었고, 이 정보를 접수한 지상군은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한 예로 8월 15일을 전후하여 왜관 북방 300고지에서는 한국군 제1사단 제13연대와 북한군 제3사단 간에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때 L-4기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천봉식(千奉植) 중위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유엔공군 F-51전투기 1개 편대를 300고지로 유도하여 적진을 강타하게 함으로써 한국군 제13연대 제3중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제13연대 제3중대장이었던 이신국(李信國) 중위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지합동작전이 잘 되었다. 연대장이 항공지원을 요청하자 한국

공군 정찰기 2대가 상공에 도착하였고, SCR-300 무선통신기로 적군과 아군의 위치를 정찰기에 알리자 10분 후에 F-51전투기 4대가 300고지를 강타하였다. 이를 본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8월 15일 17시 30분에 300고지를 점령하였다."[41]

대구경마장에 기지를 두고 정찰작전을 수행하던 정찰비행대는 한국군 제1군단 방어지역에 적 제5사단과 제12사단 등의 공세가 거세지자 8월 15일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김신(金信) 소령 지휘 하에 L-4기 2대를 경주(제1군단사령부)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군 제2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 대구경마장에 일부 병력만을 남겨놓고 영천중학교로 이동하였다.

영천으로 이동한 정찰비행대 본대는 의성-청송-영덕 일대에 대한 정찰작전을 전개하다가 포항과 영천지구에 대한 적의 공세가 강화되자 8월 23일 부득이 영천에 파견대를 남겨놓고 다시 대구로 이동하여 9월 17일까지 정찰작전을 계속하였다. 영천파견대는 적 제15사단이 영천지구를 공격하자 8월 30일 영천주둔지를 폐쇄하고 대구경마장으로 이동하여 정찰비행대 본대와 합류하였다.

정찰비행대는 낙동강방어 작전기간 중 매일 왜관, 다부동, 영천, 포항, 영덕, 낙동강 일대를 정찰하여 한국군 작전지원은 물론 포 관측을 위한 협력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적의 대공화기 등에 의한 조종사 및 항공기 손실도 적지 않았다.

구선진(具仙鎭) 소위는 8월 24일 L-4기로 정찰비행 중 의성방면으로 이동하는 적 2개 대대를 발견하고 합동작전본부에 보고한 다음 임무지역 상공에 도착한 유엔공군 전투기 편대를 유도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선진 소위가 탑승한 L-4기는 적의 지상화기에 피격되어 추락하였으나 조종사는 다행히 경상을 입었고 항공기는 전소되었다. 또한 천봉식(千奉植) 중위는 9월 1일 07시 30분 L-4기에 육군포병단 소속 신정현(申貞鉉) 중위를 탑승시켜 다부동 및 의성지구에 대한 정기정찰 및 포 관측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신화동(新花洞) 부근 상공에서 적의 쌍발기 1대와 전투기 2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우측 날개가 절단되면서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였고, 천봉식 중위와 신정현 중위는 전사하였다.[42]

한편 적의 9월 공세가 시작되자 적 제2군단 예하 제8사단, 제15사단 등은 9월 2일 18시를 기해 하양과 영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 제8사단은 한국군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저지되었으나, 적 제15사단은 9월 5일 밤 영천을 목표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군 제8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6일 03시에 영천을 점령하였다. 영천은 대구, 포항, 경주, 안동으로 통하는 도로의 분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였다. 최대의 위기를 맞은 한국군 제2군단은 영천을 점령당하자 영천-포항 도로 남방까지 철수하였고, 한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에 각각 1개 연대씩 2개 연대를 증원하는 한편 공군에 영천지구 정찰비행을 요청하였다.[43]

비행단은 9월 6일 7.7미리 기관포 2문을 장착한 T-6기 4대를 출격시켜 영천시 일대에 대한 정찰비행 결과 영천시에서는 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은 자양(紫陽), 자천(慈川), 신녕(新寧)을 연하는 선에 주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그 후방의 보현산(普賢山) 남방에 있는 적 포병부대가 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6기 편대는 즉시 한국군 제2군단에 긴급 연락하는 한편 적에게 기총공격을 하였다. T-6기 편대가 적을 공격하고 있는 동안 유엔공군 전투기 편대가 도착하자 전투기 편대를 유도하여 적 지상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한국군 제2군단은 이날 정찰비행대에 영천지구 전황정찰을 요청하였다. L-5기로 출격한 전구서(田龜書) 이등상사는 더 자세한 정찰을 위해 적의 대공포 화망을 뚫고 영천기지로 사용하였던 영천중학교에 착륙하였다. 전구서 이등상사는 약 1시간 동안 적정을 확인한 후 이륙하여 경주에 있는 한국군 제2군단에게 적 주력이 영천에서 경주방면으로 계속 남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긴급히 보고하였다.

정찰비행대는 9월 7일 오후 L-5기로 정찰 중 건천(乾川)방면에서 소속 미상의 부대가 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한국군 제2군단과 미 제8군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한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준장은 즉시 국군 제7사단장 신상철(申尙澈) 대령에게 제5연대 병력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연대장 최창언(崔昌彦) 대령이 직접 자신의 연대임을 확인하였다.

최창언 대령은 곧 연대 주력을 돌려 21시에 아화(阿火) 경찰지서 부근에서 부대를 재정비 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적의 주력이 영천에서 경주 방면으로 계속 남하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안강 방면에서 전투 중인 국군 제26연대를 급히 아화 북쪽으로 전진시켰으며, 제26연대는 아화 북쪽의 295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였다.[44]

국군 제26연대는 9월 8일 아화 방면으로 남하하는 적이 임포동(林浦洞) 남쪽에서 병력을 집결하여 재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을 기습 공격하였다. 한편 이날 08시에 아화를 출발하여 북상한 국군 제5연대 제1, 제2대대는 제26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한 다음 295고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진출로를 차단하였다. 그 결과 국군 제2군단은 영천전투에서 적 제15사단을 포위섬멸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L-5기의 정찰보고는 적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놓여있던 제2군단이 영천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45]

한편, 적은 영천전투를 한국전쟁에서 승패의 관건으로 보았다. 북한의 전쟁지휘부는 1950년 12월 4일 별오리(別午里, 만포진 북방 3㎞ 지점)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전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발표 내용에서 “인민군의 영천점령이 남한에서 승리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영천전투의 실패로 인민군이 패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영천전투가 북한군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투였음을 시사한 것이었다.[46]

이 기간 중 정찰비행대 작전은 <표 8-5>와 같이 L-4기는 316회의 정찰 및 127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고, L-5기는 36회의 정찰 및 12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T-6기는 <표 8-6>과 같이 영천전투 등 지상군의 낙동강방어 작전지원을 위해 88회의 정찰 및 53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47]

전쟁발발 당시 한국공군이 보유한 L-형 항공기가 12대(L-4기 8대, L-5기 4대)[48]에 불과하였으나, 그마저도 유엔지상군 작전을 지원하는 동안 많은 항공기 손실이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항공기 손실과 소모된 부속품을 보충할 대책이 없어 정비사들이 파괴된 항공기에서 필요한 부속품을 빼내어 재활용하거나 미 제8군

에서 얻어 쓰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항공기 부족으로 정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제5공군 및 제8군과 교섭하여 손실된 항공기를 보충 받아왔다. 그 후에도 9월 16일 미군 측으로부터 L-4기 4대를 양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정찰비행대장 오점석 대위 등 4명의 조종사가 수영비행장에서 이를 인수함으로써 총 14대를 보유하게 되어 유엔 지상군의 반격작전을 지원하게 되었다.[49]

<표 8-5> 낙동강방어 작전기간 중 정찰비행대 작전 종합(1950. 8. 3~9. 30)

부대별	작전기지	작전기간	기종별			
			L-4		L-5	
			정찰	연락	정찰	연락
본 대	신녕	8. 3~8. 13	12	4		
	대구	8. 13~8. 17	18	5	4	2
	영천	8. 17~8. 23	32	6	8	1
	대구	8. 23~9. 17	124	57	14	4
파견대	경주	8. 15~9. 30	83	38		
	대구	8. 17~8. 23	19	7		
	영주	8. 23~8. 30	28	10	10	5
계			316	127	36	12

<표 8-6> 낙동강방어 작전지원을 위한 T-6기 출격종합(1950. 8. 1~9. 23)[50]

작전 기지	정 찰	연 락	계
대 구	88회	53회	141회

제 3 절 유엔공군 작전

1. 지상군 지원을 위한 협조 및 조정

파트리지(Earle E. Partridge: 공군 소장) 미 제5공군사령관은 일본영공방위와 주일 미 공군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책임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국전을 수행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전에 보다 더 전념하면서 전술항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후방사령부로 나누어 기능을 분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5공군사령관은 대구의 전방사령부에게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을 전담하게 하고, 나고야(Nagoya)의 후방사령부에게는 일본영공방위와 군수지원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8월 10일부터 제5공군부사령관 스피베이(Delmar T. Spivey) 준장에게 후방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51]

제5공군사령관은 지상군의 전황이 어려웠던 7월 중에 전술항공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지 합동작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공-지 작전교리에는 전술항공통제반(TACP : Tactical Air Control Party) 배치에 관하여 규정된 정원(定員)이 없었으나 한국전 초기부터 미 보병연대 및 한국군 사단급 이상에 전술항공통제반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투기를 적 표적에 유도하고, 합동작전본부(JOC : Joint Operations Center)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했던 T-6기 공중통제부대를 비공식적으로 운용해오다가 8월 1일 제6147전술공중통제대대로 정식 창설하였다.[52]

또한 제5공군사령관은 장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험 있는 장교들을 해군 제77특별기동부대, 미 보병사단 및 한국군 군단에 파견하여 연락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하였다. 공군연락장교(ALO : Air forces Liaison Officer)는 교리 상 전술항공통제체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적

으로 공군사령관을 대표하고, 항공기 공격표적으로의 타당성 여부 등 공군문제에 관하여 지상군 부대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전술항공통제반의 활동도 감독하였다.[53]

이와 같이 제5공군은 효과적인 공-지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전본부,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 Tactical Air Control Center) 등 전술항공통제체제에 공군관련 요원을 보임, 운용하는 한편, 원거리 정찰활동 시 무선중계기를 체공시키는 등 모스키토 공중통제기(T-6기) 운용방식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제8군은 공-지 작전체제상 있어야 할 합동작전본부의 공-지 작전과에 정보 및 작전장교의 충원과 항공지원요청을 위한 전용통신망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제5공군사령관은 전술항공통제전대에 기술요원과 장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체계를 개선하였다. 제5공군사령관은 공-지 연락임무를 담당할 제20통신중대가 미 본토에서 도착하지 않아 제8군이 마련할 수 없는 공-지 연락통신을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공군 중장) 극동공군사령관은 8월 13일 한국에서 취해진 현재까지의 조치를 파악한 후, 제8군이 합동교리 상에 있어야 할 공-지 합동작전체제를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극동군사령부에 항의하였다. 극동군사령부는 제8군도 이 결함을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병력과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54]

한편 웨이랜드(Otto P. Weyland: 공군 소장) 극동공군부사령관은 해군 측으로부터 근접항공지원을 더 많이 획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8월 2일 "제8군에 대한 제77특별기동부대의 근접항공지원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중요한 때에 합동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조이(C. Turner Joy: 해군 중장) 극동해군사령관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웨이랜드 장군은 항공모함 함재기도 극동공군과 제7함대 간의 원활한 협조 하에 지상군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에서 제7함대참모장은 해군기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은 극동해군과 극동공군간의 운용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맥아더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55]

이어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은 8월 3일 항공작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해군함재기의 임무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첫 번째 임무는 합동작전본부의 표적지시에 따른 유엔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 두 번째 임무는 제5공군과의 협조 하에 38도선 이남에서 후방차단작전 수행, 세 번째 임무는 폭격사령부와 협조하여 38도선 이북에서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는 것 등이었다.[56] 이와 같이 8월 초에는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이 한국에서 마찰 없이 작전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다.

제5공군사령관은 효과적인 공-지 합동작전이 야전군과 전술공군간의 상호신뢰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제8군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5공군사령관과 참모들은 매일 08시에 열리는 제8군 참모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워커(Walton H. Walker: 육군 중장) 제8군사령관은 그날 전개할 작전을 설명하였고, 제5공군사령관은 제8군의 작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항공임무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매일 18시에 열리는 제5공군의 작전회의에서 제8군사령관과 주요 참모들에게 익일의 공군작전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제8군과 제5공군은 지상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군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였다.[57]

대구에서 공-지 합동작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동안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공군 소장) 제5공군부사령관은 제8군 참모부가 제5공군을 대등한 협조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전 초기에도 제8군이 제5공군과의 협조과정 없이 작전을 계획함에 따라 항공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8군이 또 사전예고 없이 작전을 진행함으로써 제5공군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8월 3일 참모회의를 마친 후 제5공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작전상황실로 안내하여 제8군은 지체 없이 낙동강방어선의 서쪽으로 철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만일 워커 사령관의 말대로 제8군이 철수한다면 대구와 포항기지에서 작전 중인 전투비행부대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제8군은 사전에 아무런 협조도 없었던 것이다.

제8군의 철수계획을 들은 제5공군사령관은 8월 4일 새로운 공군병력의 대구전개를 모두 중단시키는 한편, 대구와 포항기지에서 작전 중인 전투비행부대는 최소한의 장비와 작전병력만을 남기고 모두 일본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한국으로 이동하던 제8전폭전대 지상근무부대는 쯔이끼(Tsuiki)기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워커 사령관은 전세가 악화될 경우 제8군사령부를 울산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5공군은 전방사령부를 울산으로 이동할 수송수단이 여의치 않아 부산으로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전방사령부의 주력과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는 8월 4일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제5공군사령관과 기간참모들은 합동작전본부가 있는 대구에 잔류하였다.[58]

제5공군사령관은 제8군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효과적인 공-지 합동작전을 위한 협조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8월 4일 제8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서한에서 제5공군사령관은 공군과 지상군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협력부족으로 생긴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전계획에 대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구기지는 공-지 합동작전에 매우 중요한 곳이며, 만일 대구가 상실되면 이어서 포항기지도 상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영비행장만 남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제5공군사령관은 위태로운 현 전국을 우세한 공군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한국내의 비행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 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만일, 대구를 상실한 대신 서남부에서 현저한 승리를 거둔다 해도 실질적인 결과는 비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제8군은 8월 4일부터 지상군의 모든 작전계획을 제5공군에 계속 알려준 것으로 미루어 제8군사령관이 제5공군사령관의 충고를 받아들였음이 분명하였다.[59]

한편, 고속항모인 「Philippine Sea」호가 7월 31일 제77특별기동부대에 합류함으로써 함재기의 수가 배가되었으며, 재보급을 마친 제77특별기동부대는 8월 초 지상군 지원임무에 복귀하였다. 해군은 2척의 고속항공모함이 서로 엄호하면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전에 투입된 해군 조종사들은 멜로우 통제소와 접

촉하기 위해 대기하였는데, 이들은 전선에서 접촉한 모스키토 공중통제관에게 너무 많은 항공기가 몰려들어 표적을 배당받기가 어렵다고 불평하였다.

해군 연락장교인 머취(James A. Murch) 중위가 8월 초 합동작전본부 전투작전과에 파견됨으로써 제5공군은 이러한 해군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의 전술항공통제체제로서는 대규모의 함재기 편대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제5공군은 함재기가 출격하는 동안에 제5공군 전술항공기를 지상에 대기시켜 두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합동작전본부와 제77특별기동부대 간에 직통 통신망이 없었기 때문에 제5공군 측의 통제소에서는 해군함재기가 언제 날아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60]

조이(C. Turner Joy) 극동해군사령관은 8월 6일 극동공군사령관과의 회의에서 작전수행에 문제가 있고, 함재기가 지상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극동공군사령관은 모스키토 공중통제관의 유도능력을 초과하는 함재기는 지상군 지원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제5공군 조종사들도 근접지원 표적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송차단표적을 공격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선과 서울 사이에 있는 100개 이상의 수송차단표적을 극동해군을 통해 이미 함재기 조종사들에게 통보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극동해군은 이러한 함재기의 사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에도 많은 함재기들이 멜로우 통제소나 모스키토기(機)와 접촉할 수 없게 되자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해군 중장) 제7함대사령관은 8월 9일 극동해군사령관에게 함대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극동해군은 극동공군과 사전협의 없이 함재기의 북한지역 공격권한을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극동공군과의 8월 3일자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나, 제7함대는 그 합의가 공식적인 약정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제1해병비행단 선발대가 7월 19일, 후속부대가 8월 1일 일본에 도착하여 이타미(Itami)기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참전한 미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8월 5일 한국수역으로 이동하였다. 72대의 F-4U전투기를 보유한 제1해병비행단은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9월 10일까지 매일 약 45회를 출격하였다.[61]

당시 미 해병대의 항공지원교리와 편제는 상륙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륙작전 시 조직적인 포병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포병지원 부족을 해병항공대로 보완하도록 되어있었다. 따라서 편제상 제1해병비행단은 해병사단의 필수 구성요소이자 제1해병사단을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자체 지상요격통제 및 전술항공통제대대를 운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전술공군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62]

마찬가지로 해병비행단 선발대인 제33해병비행전대는 제1해병여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었으나, 해병여단이 제8군과 함께 전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병비행전대도 제5공군의 조정통제를 받았다. 제1해병비행단은 제5공군사령관의 요청으로 합동작전본부 전투작전과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 해병비행전대는 자체 작전지원 외에는 합동작전본부의 지시에 따라 지상군을 지원하였으며, 제5공군은 일일작전명령에 해병비행대대별로 임무를 명시하였고, 해병 조종사들은 임무종료 후 귀환하면서 제5공군에 임무결과를 보고하였다.[63]

한편 제5공군과 해병비행전대가 진주지역의 킨(Kean) 특수임무부대[64]를 지원하고 있을 때 제5공군과 해병의 항공지원방식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해병대를 취재한 한 종군기자는 제1해병여단이 해병비행전대의 근접항공지원으로 4일 동안 27마일을 진격하면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반면,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은 지상군 부대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한 일이 있었다.[65]

해병대 항공기는 항공지원교리 상 근접지원작전만을 담당하도록 되어있고, 표적을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항상 해병부대 상공에서 체공하였으며, 근접지원 전용통신망으로 지상과 공중 간에도 훌륭한 협조가 이루어져 해병여단에 근접지원을 성공적으로 제공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보도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병편제의 유리한 점만 부각되고 그렇지 않은 점들은 극소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군사령관을 비롯한 지상군 부대 지휘관들은 해병 항공기의 근접지원방법을 선호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당시 지상군 부대 지휘관들은 항공기를 단지 포병화력의 부족에 대한 보충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1개 해병사단에 1개 해병비행단을 운영하는 경우를 지상군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미국의 경제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하도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비행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전력의 낭비인 것이다.[66]

2. 미 극동공군의 인천상륙작전 준비

1) 인천상륙작전 계획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극동군사령관은 6월 29일 오후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아더 장군은 과거 일본과의 전쟁에서 수륙양면전략의 대가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전략적인 문제해결에 수륙양면전략을 구상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67] 그러나 사실 인천은 상륙지점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 당시 서해의 특성상 간만의 차 때문에 상륙정이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해안에 닿을 수 있는 것은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뿐이었다. 따라서 맥아더 장군은 상륙지점을 결정하는 문제보다 상륙작전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68]

맥아더 장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적의 진격이 저지되면 언제든지 유엔 해·공군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이용, 상륙전으로 적의 배후를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4개 이상의 완편(完編)된 보병사단, 연대규모의 공정단, 포병, 기타 근무부대 및 1개 기갑부대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 합참의장은 7월 초 맥아더 장군에게 제1해병사단과 제1해병비행단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69]

극동공군도 맥아더 장군의 상륙작전구상에 부응하여 신속한 공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병력수송비행전대를 요청하였으며, 미 합참은 극동에서 잠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314병력수송비행전대를 대기시키는 한편, 이들 해병부대가 한꺼번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1해병여단을 임시로 편성하고 여기에 제1해병비행단의 일부를 동반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70]

제1해병여단과 제33해병비행전대는 7월 19일 상륙작전 준비를 위해 선발대로 일본에 도착 직후 심각한 전황으로 인해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해병사단과 해병비행단 주력은 8월 1일 일본에 도착하였다.[71] 또한 맥아더 장군의 방대한 전략구상에 부응하기 위해 미 합참은 제2보병사단을 전개시키는 한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에 해외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제2사단이 극동에 도착하는 즉시 제8군이 맡고 있는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 때문에 미 합참은 제3보병사단을 극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병력이 감축되어 있는 제3사단은 인천상륙작전 개시일인 9월 15일에 임박해서야 한국에 도착하였다.[72]

상륙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미 합참에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난 7월 23일 맥아더 장군은 제8군이 바다로 밀려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자신의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미 합참에 제시하였다. 상륙작전 개시일은 8월 중적의 움직임과 미 본토로부터의 추가병력 도착에 달려있지만 극동군은 9월 중순경 2개 사단규모의 1개 군단을 적 배후에 상륙시킨 다음, 남으로부터 제8군의 반격에 맞추어 남한 내의 적을 포위, 격멸할 계획이었던 것이다.[73]

인천상륙작전 구상이 구체화되자 맥아더 장군은 이날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이 단장으로 있는 합동전략기획단에 인천상륙작전의 구체적인 계획 및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합동전략기획단은 최종적인 결정을 8월 23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전반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미 합참은 맥아더 장군의 요구에 따라 극동에 병력을 보내기는 했어도 그의 계획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대표인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 에드워드(Idwal H. Edwards) 공군중장 등을 동경에 보냈다. 맥아더 장군은 8월 23일 오후 집무실에서 각 군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만조일인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맥아더 장군만 인천상륙작전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해군의 상륙전 전문가인 도일(James H. Doyle) 제독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콜린스 장군과 셔먼 제독은 적의 측면인 군산에 상륙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이들의 반대를 설득하며, 적 병력의 대부분이 제8군 교두보 주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남한지역의 북한군을 포위, 격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74]

미 합참은 맥아더 장군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참모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8월 23일을 최종결정일로 잡고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진행시켰다. 극동군은 작전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8월 30일에는 인천상륙작전 개념을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1호를 마련하였다.[75]

① D일에 맥아더 장군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이 지휘하는 제10군단[76]이 인천을 점령, 확보한다.
② 첫 공격에 이어 제10군단은 김포비행장과 서울을 점령한다.
③ 제10군단은 제1해병사단, 제7보병사단 및 병력이 모자라는 일본주둔 1개 사단으로 구성하며 부족한 병력은 한국군 보병 및 해병대로 구성한다.
④ 극동해군은 상륙부대를 해상수송하며, 인천일대에 공중교두보를 확보하고, 제10군단장이 해안에 지휘소를 설치하면 해군지원부대를 편성하여 항공지원, 함포지원 및 상륙부대에 대한 초기 병참지원을 담당한다.
⑤ 제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과 때를 같이하여 제8군은 D+1일 대구-대전-수원을 축선으로 북진을 시작한다.
⑥ 극동공군은 지시된 일반항공지원은 물론이고 목표지역의 고립화와 제8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극동공군이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수송, 엄호 및 공중투하를 실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김포에, 그 후에는 수원비행장에 화물을 공수한다.

1950년 여름, 극동군 정보장교들은 만주에서 증강 중에 있는 중공군의 반갑지

않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상륙전을 준비하던 작전계획장교들도 인천상륙 시에 중공군이 참전하면 유엔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이건 중공군이건 간에 양자에게 충격이 될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사실 그는 자신이 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지상군과 공군을 각각 분할, 운용할 생각이었다. 알몬드 소장이 지휘하는 제10군단은 제8군에 예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두 지상군 지휘관은 맥아더 장군에게 각각 별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극동공군사령관은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경우 공군이 먼저 참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과연 그가 추측한대로 중공공군의 개입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두 가지 징후를 들 수 있었는데, 8월 22일과 24일 중공군은 한만국경지역을 정찰하던 RB-29정찰기에 국경 너머에서 대공사격을 가해왔다. 당시 북한군은 한반도내 비행장 보수와 활주로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고, 공군의 정보보고에는 중공이 항공기를 만주, 특히 안동의 2개 비행장에 옮기고 있음이 자주 지적되었다.[77]

중공 외무성은 8월 28일 그 동안 미군기가 다섯 차례나 만주영공을 침범하였다고 공식 항의하였다.[78] 극동공군사령관은 중공 외무성의 항의각서는 중공이 북한을 원조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제5공군사령관과 폭격사령관에게 중공의 지상군과 공군이 북한군을 원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중공공군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극동공군사령관은 항공작전에 대한 단일 지휘체제와 조정통제의 원칙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8월 30일 합동계획회의에서 극동군의 항공조정정책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조정통제원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극동해군사령관과 제7함대사령관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이날 열린 합동회의 의제는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함에 있어 항공작전의 조정통제 문제를 확정하고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해군 함재기가 D-3일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인천반경 150마일 이내의 모든 비행장(평양, 신막, 평강,

옹진, 해주, 수원, 김포, 대전, 군산 등)을 소탕하기로 하였으며, 제5공군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해군지원부대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해군 함재기가 상륙부대에 대한 항공지원을 하기로 하였다.[79]

제10군단이 상륙한 후에는 제1해병비행단의 각 대대가 김포비행장에 기지를 두고 해병대 방식으로 제10군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군은 공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포를 왕래하는 공군 수송기를 위해 공중교두보를 마련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김포 공중교두보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해병비행단의 시설규모에 관해서는 극동해군과 극동공군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상호지원을 위한 긴급요청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5공군 합동작전본부와 해군 전투정보부 간에 유기적인 통신망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공군 측 제안을 극동해군이 수락하였다.

극동공군 작전부장 크랩(Jarred V. Crabb) 소장은 8월 31일 제10군단 전술항공지휘관으로 임명된 쿠슈맨(T. J. Cushman: 해병 준장) 제1해병비행단장과 회합을 갖고 기본합의사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토의하였다. 쿠슈맨 장군은 공군 전술기가 D일 이후부터는 상륙목표지역에서 작전할 필요가 없으며, 항공공병이 공사를 마치는 대로 제33해병비행전대가 김포기지 및 호위항모에서 떠나 해변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극동공군은 김포비행장 복구를 위한 항공공병 지원, 김포지역 공중교두보 유지, 최단 시일 내에 제5공군 1개 전투비행전대를 목표지역으로 이동, D-10일부터 D-3일까지 B-29기를 서울에서 북으로 연결된 철도요충 폭격에 투입하는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극동공군의 후방차단작전과 이와 같은 폭격작전으로 서울-인천 지역을 철저히 고립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0군단은 상륙지역 외곽 반경 25마일 내의 모든 교량을 B-29기로 파괴하겠다는 극동공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0]

많은 문제가 충분히 협의되었기 때문에 과오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9월 2일 발행된 유엔군사령부 작전계획의 항공부록은 1950년 7월 8일자 항공조정통제 합의서나 8월 30일자 특별결정서와는 그 내용이 크게 달랐다. 극동공군사령관은

9월 4일 맥아더 장군에게 항공부록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신이 없었다. 이에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항공부록에 관한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작전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그 후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해명서가 극동공군에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천상륙작전에 있어 극동공군사령관의 반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항공부록이 배부되기 전에 이미 모든 지휘관이 승인한 바 있고, 무엇보다도 이미 실행에 옮겨진 작전계획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극동군의 해명서가 도착되기 전인 9월 10일 오후 극동군에서 최근 발행된 항공부록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맥아더 장군에게 전하고, 극동해군이 상륙목표지역 내에서의 항공작전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하여도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항공작전은 단일 공군지휘관이 통제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맥아더 사령관은 항공작전의 책임이 극동공군사령관의 소관임을 인정하였다.[81]

하지만 최근 발행된 항공부록에는 9월 2일부터 인천반경 150마일 이내의 모든 적 비행장을 무력화시키라는 임무가 극동해군에 별도로 부여되어 있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제77특별기동대가 주로 일본 사세보(Sasebo) 항에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해군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극동공군이 한반도에서 제공권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 비행장 공격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고 반문하였고, 맥아더 사령관은 이를 수락하였다.[82]

그 외에도 극동해군은 극동군으로부터 공군 수송기가 상륙목표지역으로 왕래할 공중교두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방적으로 인가받고 있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해군지휘관들이 공군기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비행통로는 상호간의 이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맥아더 장군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해군 및 해병 항공기 모두 해상작전임무가 끝나면 마땅히 자신의 조정통제 하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고 반문하면서 동감을 표시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로 돌아온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은 참모들에게 항공작전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자 문서에서 합의한 정책지침을 따르도록 당부하고, 항공작전운용에 있어서는 극동공군과 극동해군 간에 협력관계가 보장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이 한국에서의 항공작전을 통합 운용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극동공군은 예하 제5공군에게 한반도 제공권 유지, 전투지역 후방차단 및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제10군단 전술항공지휘관의 긴급 항공지원요청 시 지원, 김포와 수원비행장 복구 및 개설, 전술지원비행단 이동준비, 김포-서울지역에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 설치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83]

2) 전력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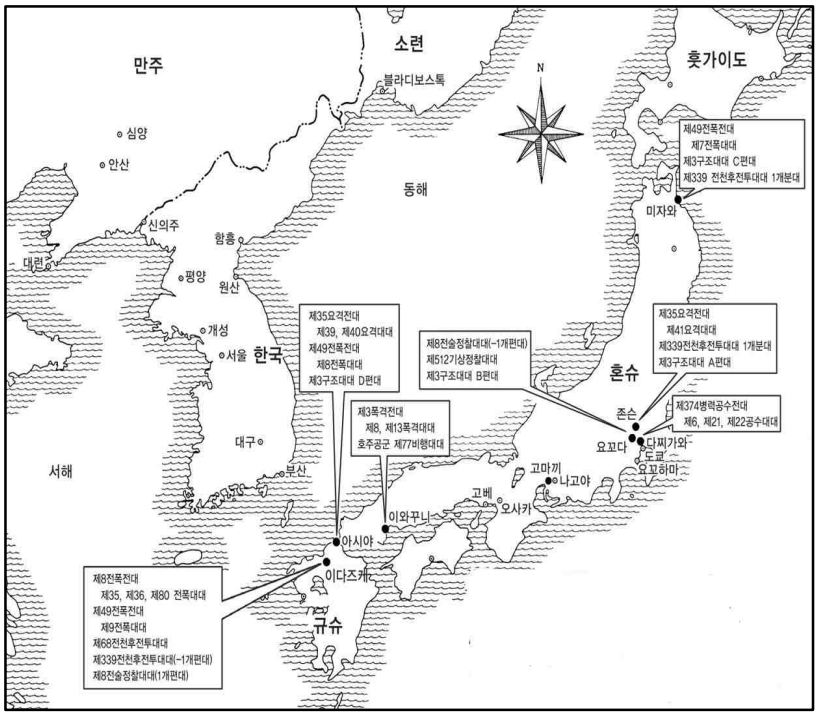
미 공군은 합동참모본부가 7월 7일 부대전개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예비군 소속인 제437병력수송비행단 및 제452경폭격비행단을 극동에 배치하기 위해 60일간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야간촬영대, 제1위치측정항로표식대, 제162전술정찰대대, 제363정찰기술대대 등을 극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437병력수송비행단과 제452경폭격비행단은 인가된 병력을 제대로 갖춘 1급 예비부대로 8월 10일 현역복귀 후, 제437병력수송비행단은 일리노이(Illinois)州 오헤어(O'Hare)기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州의 샤우(Shaw)기지로 이동하여 C-46 수송기 보수교육훈련에 들어갔으며, 제452경폭격비행단은 캘리포니아(California)州 롱비치(Long Beach)기지에서 조지(George)기지로 이동하여 B-26경폭격기 보수교육훈련에 들어갔다.[84]

한편 제1위치측정항로표식대는 8월 9일 일본 존슨(Johnson)기지에 도착하였고, 항공기와 선박 편으로 이동한 제363정찰기술대대는 8월 18일 이다즈께(Itazuke)기지에 도착하였다. 제162전술정찰대대의 지상근무요원들은 선박 편으로 8월 19일 이다즈께기지에 도착하였고, 정찰기 승무원들은 RB-26기에 신형플래쉬 축전조명기재를 장착하기 위해 유타(Utah)州의 오그덴(Ogden)기지로 갔다. 그러나 RB-26기가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까지 비행하기에는 조명장비가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선박 편으로 보내기 위해 분해하였다. 결국 이러한 시행착오 때

문에 조명장비를 선적한 배는 8월 26일에 도착하였다.[85]

제5공군사령관은 7월 18일 제502전술항공통제전대의 제2무선중계대대 및 제934통신대대, 제3903레이다폭격기록대대에서 3개의 전자폭격통제반을 미 공군에 추가 요청하였고, 미 공군은 7월 28일 승인하였다. 제502전술항공통제전대의 제2무선중계대대 및 제934통신대대 등은 파손되기 쉬운 대형 전자장비를 다량 보유하였다. 그러나 장비들을 선박에 선적, 이동하는 과정에서 준비상의 혼란으로 계획보다 8주나 지연된 9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에도 수송 중 파손된 장비를 정비하느라 10월 10일까지는 운용할 수 없었다.[86]

<상황도 8-1> 미 극동공군의 일본기지 현황



미 합참은 7월 29일 북한의 산업시설을 적시에 전략폭격 하도록 전력증강차원에서 B-29기 2개 전대를 30일간 극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307폭격전대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가데나(Kadena)기지로, 제98폭격전대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요꼬다(Yokota)기지로 이동하였다.

미 공군은 극동공군의 병력증원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현역 및 예비역을 증원하였다. 이로써 극동공군의 병력은 <표 8-7>과 같이 9월 1일 현재 인가병력 46,233명에 보유병력 45,991명으로 전쟁발발 당시의 기준 병력에 비해 상당히 증가되었다.[87] 그러나 극동공군은 이러한 병력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격수, 항법사, 통신사, 항공사진판독, 항공공병 등 특수전문분야 병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한편, 제5공군사령관은 동경에서 금후의 작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제5공군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해군과 해병 항공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고, 제5공군은 공중경계와 제8군에 대한 항공지원을 담당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극동공군전력 중에서 6개 전투비행대대가 일본본토를 방위하고 있고, 5개 전투비행대대가 필리핀과 오끼나와를 방위하고 있으며, 자신은 8개 전투비행대대로 한국전선에서 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공군력을 한국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제51전투요격비행단을 오끼나와에서 한국 또는 일본 규슈로 이동시키고, 제18전폭비행단의 잔류부대를 한국에서 작전 중인 제18전폭전대와 합류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존슨기지의 전천후요격대대(F-82) 만으로 방위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불과 몇 시간 내에 모든 전투비행대대를 일본과 오끼나와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국전 발발 초에도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표 8-7> 미 극동공군의 인가 및 보유병력 현황(1950년 5월~9월)

구 분	전쟁발발 당시 기준	9월 1일 기준
인가병력	39,975명	46,233명
보유병력	33,625명(84.1%)	45,991명(99.5%)

맥아더 장군의 참모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이제야 인정을 받게 되었다.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9월 1일 일본영공방위임무 전투비행대대들을 한국전선에 투입하고, 이다즈께기지의 제8전폭전대 소속 제80전폭대대를 곧바로 전술항공작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9전폭대대는 9월 4일 미자와(Misawa)기지를 떠나 본대인 제49전폭전대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존슨(Johnson)기지의 제35전투요격전대 소속 제41전투요격대대는 영공방위의 주력으로써 미자와기지로 이동하였다. 제20공군사령관 스티어리(Ralph F. Stearley) 소장은 F-80전투기 1개 대대를 제외한 제51전투요격비행단 전부를 제5공군에 제공할 생각이었으나 제49전폭전대가 이다즈께에서 한국기지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88]

인천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극동공군사령관은 상륙지역에 대한 차단작전 강화, 북한 내 전략표적에 대한 계속적인 폭격, 전술항공지원, 항공사진 촬영과 육안정찰, 전단살포 등의 특별임무를 수행하도록 예하사령부에 지시하였다. 8월 30일 폭격사령부가 할당된 교량표적차단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자 극동공군은 차단작전 제2호를 수립하여 9월 2일 폭격사령부에 제공하였다. 새로운 철교 및 교량 56개의 파괴표적 목록이 담긴 이번 차단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수립되었다.

당시 적 1개 사단이 하루에 50톤 정도의 보급품을 지원받아야만 전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량 등 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해서 곧바로 적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작전계획관들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중공 및 소련군의 개입을 대비하여 병력의 전선진출 방해, 재보급의 차단, 중공 및 소련군의 대병력 집결방해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에 인천상륙작전 계획관들은 극동공군의 차단계획 제2호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D-10일부터 D-3일까지 서울에서 북으로 연결된 주요 철도 요충에 B-29중폭격기의 집중적인 폭격을 요구하였다.[89]

폭격사령부는 전략폭격과 차단작전을 계속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맥아더 장군의 참모들은 제8군이 반격하는 동안 B-29기 5개 전대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육군 측의 요청에 대해 항공기 정비,

폭탄적재 및 기타 준비를 위해 폭격사령부에게 5일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융단폭격의 실시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제8군, 제5공군 및 폭격사령부의 대표들은 9월 8일 크랩 장군 집무실에 모여 B-29기의 지상군지원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제8군 대표는 D+1일 아군 수개 사단이 대구-김천-대전 축선으로 총공격할 것이며, 다른 수개 사단은 적을 현 위치에 붙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8군이 융단폭격의 정확한 지점을 정하지 않아 이론적인 토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격사령부는 제5공군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여 B-29기 투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극동공군은 D+1일 B-29기 3개 전대를 제8군이 이용하게 하는 한편, D+10일까지는 매일 B-29기 40~50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90]

3) 공수작전 준비

극동공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주한외국인 철수작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술공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수송기들은 한국의 비행장에 병력, 장비 및 물자 등을 공수함으로써 전투지역에 있는 아군에 식량, 무기 및 탄약 등을 보급하고, 전투 중 부상한 환자들을 한국의 후방기지 혹은 일본으로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극동공군은 전쟁발발 시부터 이 기간까지 총 5,267소티의 전술공수임무를 수행하여 7,975명의 환자를 수송하고, 16,743명의 인원공수와 13,512.8톤의 화물공수 그리고 1,099만장의 전단을 공수하였다.[91]

한편, 극동공군은 일본-한국 간의 공수임무와 점증되는 공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8월 중 내내 공수능력의 확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병력수송기가 모두 미 본토에 있기 때문에 작전계획관은 공정작전을 다루는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당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켄터키(Kentucky)州 캠벨(Campbell)기지에서 편성 중이었고, 제314병력수송전대는 테네시(Tennessee)州 세워트(Sewart)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미 공군은 공정대원 2,700명을 공수할 수 있는 제314병력수송전대의 C-119수송기 64대가 8월 15일 이후에야 극동공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런데 바로 그 후 육군성으로부터 공정대원 3,500명과

중장비를 동시에 공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92]

이 일을 위해서는 C-119수송기 140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많은 수송기가 필요하였다. 미 공군은 제314병력수송전대에 계획된 대수보다 많은 96대의 수송기를 배치하기로 하고 부족한 것은 극동공군에서 해결하라고 하였다. 제5공군은 7월 초 제374병력수송전대 소속 제21병력수송대대를 C-47수송기로 기종을 전환했기 때문에 공정대도 사용할 수 있었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인천상륙작전 개시 일까지 도착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은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계획대로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에서의 공정작전을 위해 공정연대전투단을 가능한 속히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 상당기간 동안 하루 700 ~1,000톤의 물자공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제5공군은 8월 22일 아시야(Ashiya)기지에 제1병력수송기동부대(1st Troop Carrier Task Force)를 잠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수송기를 확보하고자 제374수송비행단에서 기간요원을 차출하고, 행정직에 있는 조종사를 투입하는 한편, 극동전구에 흩어져 있는 C-46수송기를 모두 모아 8월 26일 다찌가와(Tachikawa)기지에서 제47 및 제48병력수송대대를 잠정 편성하였다.[93]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은 가능한 한 유능한 인물이 공수작전을 지휘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인도차이나의 험프(Hump)작전과 베를린(Berlin)의 공수작전을 지휘했던 터너(William H. Tunner) 소장을 내정하였다. 극동공군 작전회의에 참석한 터너 장군은 제314병력수송전대의 인수절차를 조정하였으며, 처음 C-119수송기 64대만을 요청했다가 나중에는 C-119수송기의 월간 200시간 비행요구 충족을 위해 두 배의 승무원과 정비사를 요청하였다. 이것은 부품과 엔진 부족으로 C-119수송기가 월간 100시간 이상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터너 장군은 C-119수송기 64대를 9월 10일까지 일본에 보내줄 것과 신형연료탱크가 부착 되는대로 추가로 30대를 늦어도 9월 21일까지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정을 마친 터너 장군은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참모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귀환하였다. 그 후 터너 소장은 9월 3일 다시

동경으로 온 즉시 전구공수임무를 담당할 조직편성에 착수하였다. 이때까지는 병력 및 화물공수와 공중투하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그는 단일공수사령부에서 공수와 공중투하 등의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1950년 9월 10일 극동공군 예하에 전투공수사령부를 편성하고 제1병력수송전대, 제314병력수송전대 및 제374병력수송비행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였다.[94]

전투공수사령부의 주 임무는 한국 전역에서의 공수작전을 통제하는 것과 새로 도착하거나 편성되는 수송기부대로 하여금 전구에서 공수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터너 장군은 공수임무가 어떤 특정 군부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구에서의 표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까지 극동군, 제8군 및 극동공군의 항공수송요청 채널은 극동공군 수송운용관을 통하여 제5공군병력수송과에 요청하면, 70(지상군) 대 30(공군)의 비율로 제374수송비행단에 톤수를 할당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항공수송을 필요로 하는 각 군 부대의 요청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터너 장군은 육·해·공군대표가 참여하는 공수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극동군사령부 내에 설치하여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에 수송임무를 할당하는 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리고 전투공수사령부는 톤 단위로 산출된 공수능력한도를 매주 극동군사령부 공수우선순위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이 위원회는 전투상황을 고려, 맥아더 장군을 대리하여 항공수송을 이용하는 관계부대에 공수물량 톤수를 할당하기로 하였다.

아시야기지의 전투공수사령부는 합동공수통제기구의 구성원이며 제8군과 극동공군으로부터 연락장교를 파견 받아 이들을 통해 각 군의 공수요청을 접수하는 한편, 승인받은 톤수 범위 내에서 순위별, 품목별로 공수 처리하였다. 한편, 극동해군은 해군항공대를 이용한 독자적인 공수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투공수사령부에 지원요청을 별로 하지 않았으며, 해군의 공수요청업무는 합동공수통제기구에 배치된 제8군 연락장교가 대행하였다. 이와 같이 터너 장군의 조치로 전투공수사령부는 공수할당의 책임을 벗어나는 한편, 공수사령부의 공수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그는 베를린 공수작전 때의 절차와 방법도 도입하였다.

전투공수사령부의 수송통제본부는 비행시간 계획수립, 수송비행부대에 대한 비행명령 하달, 이·착륙 기록유지, 필요 시 무선통신에 의한 비행취소 또는 변경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제원칙을 제정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공정작전을 위해 제187공정연대전투단 투입준비도 진행하였다. 공정작전에 필요한 터너 장군의 수송기 지원정책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공정투하를 하루에 완료할 경우 C-119수송기 87대와 C-47수송기 40대를 투입하는 것이었고, 둘째, 이틀 동안 투하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C-119 수송기 모두를 투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9월 13일 전자를 채택하였으며, 전투공수사령부는 공정투입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9월 15일까지 작전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3. 전술부대의 한반도 전개 및 작전

유엔지상군이 퇴각하여 낙동강 동안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할 무렵 극동공군에서는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한 전술비행부대를 한국으로 진출시키는 등 주한 미 제5공군 전력을 강화시켰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제18전폭전대 제12 및 제67전폭대대를 필리핀에서 일본의 존슨기지로 이동[95]시켜 7월 30일까지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한 후 8월 3일 대구로 이동시켰다. 이어 8월 4일 대구에서 작전 중인 제51전투비행대대를 본래의 단대호인 제12전폭대대로 환원하고, 대구기지의 제6002기지대대를 제6002전투비행단으로 증편하여 제18전폭전대를 예속시켰다.[96]

포항기지에는 제35전투요격전대의 일부 병력 및 장비로 지난 7월 12일 잠정 편성된 제6131기지부대와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여 7월 16일 이동한 제40전투요격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야기지에 있는 제35전투요격전대본부와 제39전투요격대대는 8월 7일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 8월 8일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제5공군은 포항기지에 작전부대가 증가되자 이날 제6131기지부대를 증편하여 제6131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97]

이와 같이 제5공군은 예하 전술비행부대들을 대구와 포항기지로 진출시켜 작전하는 동안 병력과 장비를 증강시켜 2개 전투비행단(제6002 및 제6131전투비행단)으로 부대를 증편하는 등 항공작전을 위한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적이 8월 1일 낙동강 도하준비를 완료하고 대구를 위협하는 등 전황이 긴박하자 제5공군은 중장비와 대부분의 병력을 안전한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대구기지의 제18전폭전대는 8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최소한의 작전부대만을 남겨두고 아시야기지로 철수하였고, 제6002전투비행단도 8월 8일 작전지원요원으로 제6149기지부대를 편성하여 작전부대를 지원하도록 잔류시키고 아시야기지로 철수하였다. 대구기지에 잔류한 부대는 대구를 위협하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필사의 출격을 단행하였으며, 8월과 9월 초까지 모두 2,368회를 출격하였다.[98]

한편, 적 제5사단은 동부지역의 험준한 산악과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7월 20일 영덕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피·아 간에 공방전이 계속된 이 전투에서 한국군 제3사단은 제5공군의 전투기와 제7함대의 함포지원을 받으며 저항하였으나 전세는 기울어지고 말았다. 적 제5사단은 함포와 항공공격을 극복하며 8월 9일 영덕을 재탈환하고[99] 포항방면으로 남진하였다. 이에 앞서 적 제5사단의 일부부대는 8월 1일 청하지역으로 진격하였다.[100]

제5공군사령관은 8월 4일 워커 제8군사령관에게 만약 포항기지를 상실하면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나, 낙동강 방어에 전념하고 있던 제8군은 포항기지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당시 포항기지는 제5공군의 전방기지로 대단히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 보병대대와 포병중대, 1개 전차중대 등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101]

포항지역을 위협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브래들리특수임무부대(증강된 대대규모)를 8월 8일 급파하였으나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전력도 빈약하여 적의 포화에 곧 분산되고 말았다. 포항기지의 지상근무요원들은 며칠 동안 낮에는 F-51전투기의 출격을 지원하고 밤에는 적 유격대의 활주로 침투를 경계하였다. 그

러나 적 제5사단이 포항을 위협하자 제6131전투비행단장 위티(Robert W. Witty) 대령은 8월 8일 포항기지에 있던 항공공병부대에게 중장비를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102]

항공공병부대는 중장비를 철수하는 한편, 지상전투에 대비하였다. 포항기지의 지상근무요원들은 8월 11일까지 주간에는 항공기 정비에 전념하고 야간에는 항공공병대와 지상군의 지원을 받아 기지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8월 12일 적이 포항 만에 침투하자 제35전투요격전대는 그 다음 날 포항기지를 포기하고 쓰이끼(Tsuiki)기지로 철수하였다.[103]

제35전투요격전대가 도착한 쓰이끼기지에는 제8전폭전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었다. 제8전폭전대는 한국전 참전 첫날부터 F-80전투기로 출격하였고, 제5공군에서 가장 늦게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한 부대였다. 제8전폭전대는 한국에 전개할 비행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 본토로부터 도착한 다른 부대에게 이다즈께기지를 내주고, F-51전투기를 인수한 예하대대(제35, 제36전폭대대)와 함께 8월 11일 쓰이끼기지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 공군이 전투작전 중에 비행기지도 옮기고 기종도 바꾸는 두 가지 일을 항공기 손실 없이 동시에 수행한 특이한 경우였다.[104]

이로써 제5공군은 8월 11일까지 계획대로 예하 6개 전투비행대대에 대한 F-51 전투기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는 전술능력 면에서 볼 때 F-51전투기는 제5공군에 적지 않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F-51전투기는 한국 내의 어느 곳으로도 비행할 수 있었으며, 조잡한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F-51전투기의 항속거리와 폭탄탑재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포항기지의 제6131전투비행단 예하부대는 8월 15일 상륙함(LST) 편으로 일본으로 철수하여 쓰이끼기지에 있는 제35전투요격전대와 합류하였다. 비상착륙장으로만 생각했던 쓰이끼기지에 여러 전술비행부대가 주둔하게 되어 매우 혼잡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들은 9월 말까지 매일아침 일찍 쓰이끼기지를 출발하여 대구기지에서 임무 후 저녁 늦게 귀환하는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였다.[105]

제5공군이 포항기지에서 철수한 며칠 후에 브래들리특수임무부대가 그 지역의 한국군을 재규합하여 적을 포항에서 격퇴하였으나, 제5공군 전술비행부대는 낙동강 방어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포항기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군 전술비행부대가 주둔하기에는 적 유격대로 인한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106]

한편 제5공군은 항공공병장비들을 전방기지로부터 부산동쪽 9마일 지점에 있는 수영비행장으로 철수시켰다.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비행장은 그 동안 작전기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공군기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5공군은 한국정부와 수영기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공군은 탄약저장소를 임시로 이동시키고 지질조사를 마친 후 8월 24일경 하수도시설과 6,000피트의 PSP활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완성된 활주로는 9월 4일까지 연락기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9월 12일부터는 C-54수송기가 사용하였다.[107]

제8군이 9월 중순까지 낙동강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극동공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곤란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1주일 동안 태풍「케지아」(Kezia)호가 일본남부를 강타하여 그 여파로 남한에는 많은 호우가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악천후에도 제5공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18전폭전대를 9월 7일 수영기지(K-9)로, 제8전폭전대를 대구기지로 이동시켜 태풍으로 항공작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108]

또한 일본 중부와 오끼나와기지에서 출격하는 B-29중폭격기는 태풍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지역에 있는 제5공군 전술비행부대는 9월 13일 밤 큐슈(九州)지역 상공에 중심을 둔 태풍「케지아」(Kezia)호 때문에 출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극동공군은 총 3,257회의 출격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9월 11일에는 개전 이래 최대출격으로 미 공군 634회, 호주공군 38회, 미 해병항공대 11회로 총 683회를 출격하였다.[109]

4. 항공작전

1) 제공작전

극동공군은 전쟁초기부터 북한공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전술공군의 최우선 임무인 제공작전을 전개함으로써 7월 20일 한국전역에서 실질적인 제공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극동공군은 7월 22일 북한공군기가 아직도 65대정도 남아있으며, 그 중에서 약 30대 정도가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110]

유엔공군의 강력한 항공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북한공군은 위장 및 분산을 통해 잔여항공기의 생존성 증대와 항공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낙동강선 방어 작전기간 동안 제11항공사단 소속 추격기연대를 김포 개화리(開花里)에, 습격기연대와 항공사단 기술대대를 방화리에, 통신대대를 김포비행장 내에 배치한 것은 물론, 전선남하에 따라 공병 및 기술 병력들을 군산, 광주, 사천비행장 등으로 진출시켰다.

북한 공군부대들의 이동경로를 보면 7월 20일 항공사단 제877군부대 병력 300명이 평양을 출발, 평강을 경유하여 8월 18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고, 항공사단 공병대대 제3중대는 해주비행장에서 8월 5일 출발, 기차 편으로 개성을 경유하여 8월 6일 서울에 도착한 다음 8월 8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공병대대 병력 900명이 8월 6일 해주비행장을 출발, 8월 11일 서울에 도착한 다음 8월 19일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111]

또한 항공사단 제855군부대 제1유선통신중대 병력 20명이 8월 21일 평양을 출발하여 8월 28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고, 제855군부대 공병대대는 8월 1일 원산을 출발하여 8월 4일 서울 신흥사(新興寺)를 경유, 8월 8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항공사단 기재공급과도 8월 30일 기차로 연포비행장을 출발, 원산을 경유하여 9월 15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특히 8월 중순에는 김포비행장에서 활동하던 항공사단 공병대대와 기술대대의 일부병력이 평양의 항공사단본부의 참모들과 합류하여 9월 초순에 군산비행장, 지상군 전세추이에 따라서 광주 및

사천비행장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다.[112]

사실 북한공군은 압도적인 유엔공군력 때문에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적 공군 IL-10 등의 전폭기는 6월에 44회, 7월에 46회 출격하였고, 제공권이 상실된 8월과 9월에는 각각 4회씩 출격함으로써 약 100시간의 비행시간과 총 98회를 출격하였으며, YAK-9 등의 전투기는 전쟁초기부터 8월까지 총 222회의 공중전을 실시하여 약 45대의 유엔공군기를 격추하였다.[113]

북한공군은 잔여항공기와 소련 및 중공으로부터 보충될 항공기를 투입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8월 초 김포와 수원비행장 활주로를 보수하고 격납고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는 북한공군이 전방기지를 활용하여 유엔지상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114]

폭격사령부의 B-29중폭격기들이 8월 4일 서울조차장을 폭격하면서 북한공군 전투기가 김포비행장에서 이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제5공군 전투기들이 8월 5일 김포비행장을 폭격하여 적 전투기 9대를 파괴하고 다른 9대를 파손시켰다. 이어 제5공군 F-51전투기들은 8월 6일 평양비행장을 폭격하여 적기 9대를 파괴하고 다른 7대를 파손시켰으며, 이 전투기들은 귀환하면서 김포비행장에 기총공격을 가하였으나 피해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극동공군 정보부는 적 항공기의 손실을 분석하고 아직도 35대 정도의 항공기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비행장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실제보다 더 많은 항공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북한공군이 모형 또는 파괴된 항공기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비행장에 늘어놓고 남아있는 소수의 항공기들을 여러 비행장에 수시로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극동공군 정보부는 북한공군이 운용 가능한 항공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다만 아직도 은밀한 기습공격능력이 있다고만 판단할 뿐이었다.

그 후에도 북한공군은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적 LA-5기가 8월 15일 미 제307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를 공격하였으나 폭격기 후미의 기관포사수가 단 2회의 사격으로 격추시켰고, 8월 23일에는 YAK기 2대가 서해상의 영국구축함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115]

적 전투기가 영국구축함을 공습했다는 보고를 접한 맥아더 장군은 북한공군의 잠재력이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북한의 항공시설들에 대한 수시정찰과 의심스러운 적 공군시설에 대한 즉각 공격을 지시하는 한편, 적 공군이 이용하고 있거나 39도선 이남에 있는 비행장을 적 공군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엔공군 정찰기들은 주기적으로 북한 비행장들을 정찰한 후,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적기를 발견하는 즉시 제5공군 전투기들이 그 지역으로 출격하여 파괴하였다.[116]

또한, 제5공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잠재위협이 될 만한 한반도 내 적 비행장들을 일소하기 위해 무장정찰기를 출격시켜 표적을 발견하는 대로 공격하였다. 제5공군 전투기들은 9월 11일 북한 신막비행장을 공격하여 YAK전투기 1대를 파괴하고 기종미상의 항공기 1대를 파손시켰다. 이어 다음날 평양에서 위장된 YAK 전투기 4대를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3대를 파괴하고 다른 1대를 파손시켰다. 이처럼 적 항공기를 남김없이 파괴하는 것은 인천상륙작전 시 적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117]

유엔공군은 한국전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제공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 항공기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북한공군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간헐적인 활동이 있었을 뿐, 이미 아군작전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유엔공군은 북한지역으로 출격하는 B-29중폭격기의 호위전투기를 다른 임무로 전환할 수 있었고, 해군은 항공모함 및 소형 호위함도 적기의 공습위협이 없기 때문에 적 해안 가까이에서 마음 놓고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엔지상군도 일방적인 근접항공지원으로 주간에 이동 및 기동이 자유로웠으며, 상대적으로 적 지상군은 밤에만 이동과 기동을 할 수 있었다.[118]

이처럼 전쟁에서의 제공권 장악여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느 전쟁에서도 공군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공군에서도 전술항공작전의 최우선 순위는 제공 작전이다. 따라서 한국전에서 제공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의 노력과 항공기 및 조종사 등의 값진 희생에 의한 대가(代價)로 얻어진 결과인 것이다.

2) 후방차단작전

(1) 폭격사령부

극동공군은 정보 및 작전부서의 대표들로 구성된 표적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27일까지 철도차단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날 폭격사령부에 하달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도로차단계획도 수립하였다. 이로써 극동공군은 한국전 발발 이래 처음으로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폭격사령부에 하달된 차단작전 표적은 모두 44개이며, 이 중 13개는 남한지역에 있고, 나머지 31개는 북한지역에 있는 표적이었다.[119] 폭격사령부는 표적목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8월 2일 표적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표적, 2차표적 및 예비표적으로 재분류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철도차단작전을 폭격사령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5공군에게는 8월 3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차단표적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5공군사령관과 폭격사령관은 서울지역 표적차단을 위한 임무분담협의를 통해 B-29기들은 서울의 철도조차장과 한강철교를, 전술 공군기는 임시부교를 파괴하기로 합의하였다.[120]

극동공군사령관은 8월 2일 스트러블 제7함대사령관에게 동·서해안에서 15마일(24킬로미터) 이내의 교량차단을 제의하였다.[121] 특히 한강에 놓여있는 철교와 인도교를 차단하는데 동참하도록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이 철교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는데 해군 함재기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122]

극동해군은 8월 3일 공군과의 항공작전 통합조정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후방차단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해군 함재기의 임무우선순위를 첫째, 합동작전본부 통제하의 근접지원, 둘째, 제5공군과 협조 하에 38°선 이남 차단작전수행, 셋째, 폭격사령부와 협조 하에 38°선 이북 차단작전수행 등에 합의하였다.[123]

극동공군 작전장교들은 한강에 설치된 적의 부교와 같은 차단표적 공격을 제5

공군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극동공군 대표가 38선 이남의 차단표적을 선정하여 제5공군과 해군 측에 제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서둘러 표적목록 사본을 해군 제7함대에도 제공하였다.

맥아더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이때까지 극동공군의 후방차단작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8월 3일 저녁에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날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긴급 소환된 극동공군사령관과 웨이랜드 부사령관은 맥아더와 참모들이 제8군으로부터 적의 열차 및 트럭들이 전선으로 병참수송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후방차단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후방차단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중폭격기 3개 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124]

폭격사령관은 서울조차장에 집적하는 적의 보급품과 철도수송차량 등을 차단하기 위해 8월 4일 제19폭격전대를, 8월 5일에는 제22 및 제92폭격전대를 출격시켰다. 폭격사령부는 이 두 차례의 폭격으로 서울의 수송시설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폭격사령부는 제22 및 제92폭격전대와 미 본토로부터 5일 전에 도착한 제98폭격전대를 출격시켜 8월 7일 평양근교의 조병창과 철도조차장을, 8월 8일에는 극동에 추가로 도착한 제307폭격전대가 함흥조차장 등을, 8월 10일에는 제22, 제92 및 제98폭격전대가 원산 조차장과 정유소 등을 폭격하였다.[125]

이와 같은 공격으로 북한 내의 주요 교통요충에 집적된 대량의 보급물자를 파괴함으로써 폭격사령부는 요청된 주요 교량표적의 차단임무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다. 8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매일 B-29중폭격기 3개 전대가 교량차단임무에 투입되었다.[126]

중폭격기 승무원들은 구름이 덮여서 교량식별이 어려우면 2차표적인 철도조차장을 폭격하였기 때문에 파괴를 면한 교량이 간혹 남아 있었다. 그러나 폭격사령부가 8월 중에 북한지역 내의 2차표적을 공격함으로써 진남포(鎭南浦), 길주(吉州), 고원(高原), 오노리(五老里), 청진(淸津), 신안주(新安州), 사리원(沙里院) 및 천궁리 조차장에 비축된 병참물자와 철도차량을 파괴할 수 있었다.[127]

폭격사령부에 부여된 교량표적은 거의가 일본 강점기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축조된 것으로 파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폭격기 조종사들은 교량차단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다. 조종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폭격전술은 각 폭격기가 시간차를 두고 1만 피트 상공에서 40도 각도로 표적에 진입하면서 일시에 4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제22 및 제92폭격전대에서는 표적을 확인하고 고도를 취하기 위해 2회 진입을 해서 1개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개의 폭탄으로 완전 파괴되는 교량도 있었으나 어떤 교량은 여러 개의 폭탄이 명중되어야만 파괴되었다.

이와 같이 B-29중폭격기가 교량 한 곳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동일기의 중복진입횟수를 모두 포함, 평균 13.3회의 진입이 요구되었다. B-29중폭격기 교량폭격에 주로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폭격기가 다른 무거운 폭탄을 적재하는 것보다 500파운드 폭탄을 적재하는 것이 총 적재량으로 볼 때 더 많이 적재할 수 있고, 평면 콘크리트 경간 파괴에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조교량을 파괴하는 데는 1,000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대형 폭탄이 필요하였다.[128]

한편 극동공군이 8월 2일 마련한 차단작전계획은 적의 보급수송체계를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성된 것이었지만, 해군 측을 주저하게 하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 8월 초 차단작전을 수행한 해군 함재기 조종사들은 교량표적 대부분이 징검다리이거나 오솔길에 놓인 나무다리여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합동작전본부의 공군장교들도 함재기 조종사들의 불평을 인정하였다.[129]

해군 제77특별기동부대가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과 차단표적 공격에 불만을 표하자 조이 극동해군사령관은 8월 12일 항공모함을 서해로 이동시키고,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북한지역 내의 차단표적을 공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극동공군사령관은 해군 함재기가 북한지역에서 작전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후방차단작전 계획에 따른 B-29기의 교량폭격에 함재기들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그 후 제5공군 로저스(Turner C. Rogers) 대령이 8월 24일 항공모함 「Philipp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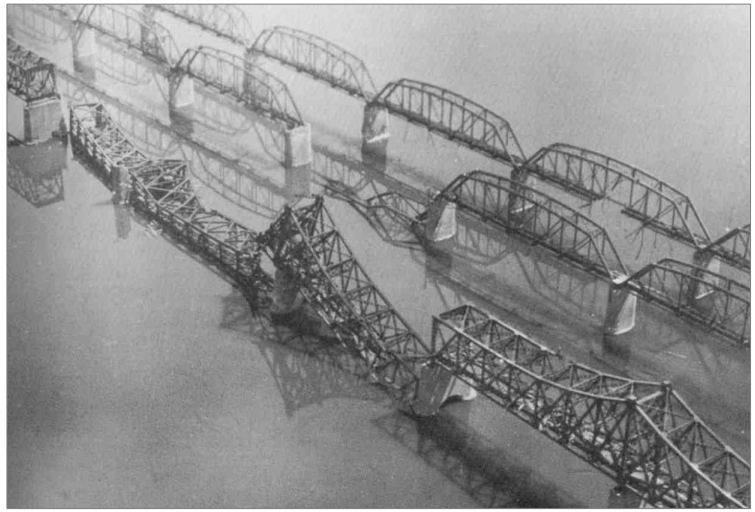
Sea」호를 방문하자 함재기 조종사들은 극동공군과 제5공군이 제공하는 표적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극동공군은 해군의 도움 없이 B-29 중폭격기만으로도 북한의 교통망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다.

폭격사령부에 부여된 교량표적 가운데 한강철교만큼 강한 교량은 없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이 철교가 파괴되지 않고 완강히 버티고 있어 '오뚜기 철교'라는 별명을 붙였다. 제19폭격전대만이 2,000파운드 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폭탄걸이가 있기 때문에 한강철교 파괴임무를 부여 받아 약 4주 동안 매일 1,000파운드, 2,000파운드 및 4,000파운드 다목적 폭탄으로 철교를 폭격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철교를 건설한 일본인으로부터 설계도를 입수하는 한편, 교각과 상부구조를 파괴하기 위해 폭탄의 기폭장치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러 차례 폭탄을 명중시켰지만 한강철교는 역시 파괴되지 않았다.

한강철교 파괴문제는 맥아더 장군이 이를 파괴하는 부대에게 특별포상을 하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극동공군사령관도 이 철교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스카치위스키 한 상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여러 지휘관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폭격사령부는 8월 19일 낮 제19폭격전대 B-29중폭격기 9대를 출격시켜 한강철교에 1,000파운드 폭탄을 무려 54톤을 투하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았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이날 폭격에서 많은 폭탄이 명중되었기 때문에 약해진 철교를 다음 날 재출격하여 파괴하기로 하였다.[130]

제77특별기동부대 조종사들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강철교를 폭격한 경험이 있었다. 제77특별기동부대의 콜세어(Corsair)기와 스카이라이더(Skyraiders)기 37대가 8월 19일 15시경 항공모함 「Valley Forge」와 「Philippine Sea」호에서 출격하여 한강철교를 폭격하였다. 해군 함재기들은 경간 높이의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8번을 명중시켰어도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31]

8월 20일 한강철교 폭격을 위해 표적상공에 도착한 제19폭격전대 승무원들은 한강철교 경간 2개가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경간들은 전날 밤에 붕괴된 것이 분명하였다. B-29기들은 계획대로 폭격을 가하여 세 번째 경간을



파괴된 한강복선철교(1950. 8. 20)

파괴하였다. 한강철교를 파괴했다는 보고를 받은 맥아더 장군은 이 임무에 참가한 제19폭격전대와 해군 제11항공전대에 트로피를 수여하고 치하하였으며, 극동공군사령관도 약속대로 스카치위스키 한 상자씩을 수여하였다. 폭격사령부는 그 동안 한강철교를 차단하기 위해 총 86회를 출격하여 643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132]

한편, 극동공군은 B-29기에 무선유도 방향, 거리 가변폭탄(Radio-Controlled RAZON Bombs)의 적용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7월 초 미 공군에 레이존폭탄 보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8월 초 파견대를 오끼나와로 보내 레이존폭탄을 공급하였으며, 이 폭탄은 제19폭격전대가 8월 23일부터 실전에서 시험하기 시작하였다.[133]

무선유도 레이존폭탄은 그 동안 B-17폭격기에 사용하였던 것인데 B-29기에 사용하게 되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B-29기 3대가 8월 23일 대동강철교 차단을 위해 무선유도 레이존폭탄 15발을 투하하였는데 그 중 1발만이 명중하였다. 이 폭격에서 폭격수가 표적을 조준하는데 무려 40분이 소요되었고, 표적상공

에서 40분간 체공하는 동안 적 대공포에 폭격기 1대가 희생되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평양북방의 교량차단을 위해 투하한 레이존폭탄 2발 중 1발이 명중하여 경간 1개를 파괴하였다.[134]

제19폭격전대가 무선유도 레이존폭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폭탄의 수신기 성능불량이었다. 극동공군은 초기시험의 전과로는 다소 실망이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경험과 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교량폭격에는 무선유도 레이존폭탄이 효과적인 무기라고 기대하였다.

오도넬 폭격사령관이 8월 30일 부여받은 44개의 교량표적을 차단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극동공군은 차단작전 제2호를 수립하게 되었다. 극동공군은 9월 2일 폭격사령부에 새로운 파괴표적으로 철교 및 교량 56개의 목록을 제공하였는데 이번 차단계획은 신중하게 수립된 것이 분명하였다.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9월 4일 제1차 차단작전 결과를 최종 결산한 후, 44개의 교량표적 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완전 파괴하였으며, 완파를 면한 7개의 교량도 심한 손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135]

계속해서 폭격사령부는 9월 9일 서울 북쪽의 적 주요철도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한 마디로 철도수송차단 특별작전이라고 집약할 수 있는 극동공군의 계획은 기발한 것이었는데, 날마다 1개 폭격전대가 적의 철도조차장에 최대의 폭격을 가하는 한편, 다른 2개 폭격전대는 각각 8대의 B-29중폭격기를 투입하여 수리가 힘들고 인구가 희소한 지역의 철도를 연이어 파괴하였다. 이들 8대씩으로 이루어진 2개 B-29기 편대는 서울부터 원산 및 평양에 이르는 삼각지역 내의 철로, 철둑, 철교, 터널 등을 폭격하였다.[136] 특히 9월 10일에는 서울, 원산 및 평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터널 10개소, 교량 2개소, 철교 8개소, 조차장 2개소와 기타 다수의 철도를 폭격하였다.[137]

폭격사령부는 9월 13일까지 모두 46개소의 철도를 차단하였다. 특히 이날에는 태풍이 일본 남부를 강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29중폭격기 60대를 투입하여 안주(安州)-흥남(興南)선 이남의 곽산(郭山), 순안(順安), 황주(黃州), 재령(載寧), 청주(淸州), 김천(金泉), 남원(南原) 등지의 철도조차장과 철도궤도를 파괴하

였다.[138] 이어 폭격사령부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 전력을 투입하여 주요 후방보급로를 차단하였다.[139]

(2) 제5공군

극동공군은 차단작전계획에 따라 38도선 이남과 서울 이남으로 진출하는 적을 제5공군이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서울에서 전선까지의 종심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에서 보면 제5공군의 차단임무는 폭격사령부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것이었다.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제8군의 방어진지가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제5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공군기의 3분의 1을 차단작전에 투입하였다. 제5공군에게는 제8군의 근접지원요청이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항공전력 배당은 융통성 있는 조치였다.[140]

제5공군은 전선에 이르는 적 보급수송로상의 주요 교량 및 철교를 가능한 한 파괴함으로써 차단임무에 철저를 기하려 하였다. B-26경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서울 이남의 철도망을 계속 폭격하였는데, 제5공군 전술기는 8월에만도 서울-대전 경부선상의 9개 지점을 포함하여 지선 등 모두 47개소를 차단하였다. 또한 제5공군은 B-29중폭격기와 해군 함재기가 이미 파괴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전선 사이에 있는 교량 147개가 사용불능 되었으며, 주로 낙동강 방어선 주변의 차량통행용 교량 93개소가 파괴되었다고 집계하였다.[141]

북한군은 야간이 되면 한강에 부교를 가설하고 보급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고 있어 제5공군은 이 부교를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적이 낮에는 유엔공군의 항공공격을 피해 부교를 은닉하기 때문에 제3폭격전대의 B-26경폭격기로 야간폭격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이 부교가 가연성 물질로 되어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제5공군사령관에게 네이팜탄 사용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네이팜탄을 사용해본 결과 부교는 불에 타지 않았다. 그 후 항공사진 판독요원들은 이 부교가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부분적으로 램프(Ramp)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42]

B-29조명기가 8월 30일 새벽에 서울 상공에서 조명탄을 투하하여 주위를 밝

히는 동안 B-26경폭격기 8대가 부교파괴를 위한 폭격을 시도하였으나 적이 이미 부교를 철수한 후였다. 제5공군이 부교파괴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에게 지연신관폭탄을 부교가 놓인 곳에 투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전술로 북한군이 방해를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적의 한강도하를 차단하지는 못하였다.[143]

극동공군은 서울 이남의 철교와 교량에 대한 폭격으로 탱크, 야포 등 중장비를 보충하려는 적의 기도를 방해하였으나, 교량파괴로는 부분적인 성과밖에는 없었다. 남한에는 지형 장애물이 너무 빈약했으며, 작은 하천은 너무 얕아서 차량이나 짐꾼이 쉽게 건널 수 있었다. 적은 어떤 하천의 도하가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교량을 유지하는데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적은 유엔공군이 교량을 파괴하면 수송을 신속히 하기 위해 파괴된 다리를 모래주머니와 각목으로 떠받쳐 놓고 소련의 기술을 모방, 수중교량을 가설하였다. 실제로 적은 왜관 근처에 약 2,500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징발하여 700개의 침목(枕木)과 2,800개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길이 160미터, 폭 5미터의 수중교 3개소를 가설하였으며, 이 수중교는 수면 약 25센티미터 밑에 있어 공중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144]

또한 제5공군 장교들은 적이 파괴된 짧은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은 파괴된 철교나 절단된 철로 앞에서 노동자를 동원하여 화차에 실려 있는 보급품을 내려놓은 다음 맞은편에서 대기 중인 화차에 옮겨 실었으며, 낮에는 유엔공군의 항공공격을 피해 기관차와 화차를 터널 안에 숨겼다가 밤에만 운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은 서울-전의 간 철도를 이용하여 보급물자를 수송하고 있었다. 유엔공군이 적의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교량을 파괴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급품을 수송하자 제5공군사령관은 철저한 무장정찰을 통하여 이를 소탕하도록 지시하였다.[145]

제5공군사령관은 F-51전투기에게 근접지원작전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적 보급수송망 공격임무에 대해서는 F-80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F-80전투기는 적의 소화기 및 자동화기에 대한 취약성이 적었으며, 빠른 속도 때

문에 적이 산개하여 대응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적 집결지를 공격할 수 있어 무장정찰임무에 적합하였다.

적은 항상 야간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병력과 장비를 위장, 분산해 놓았으나 8월초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위장도 자주 발견되었다. 제5공군 조종사들은 위장된 표적을 샅샅이 탐색하여 공격하였다. 제67전폭대대 대대장 세빌레(Louis J. Sebille) 소령은 8월 5일 F-51전투기 편대를 지휘하여 함창부근 제방에 숨어있는 적 병력과 야포를 공격하였다. 첫 번째 공격에서 세빌레 소령은 500파운드 폭탄 2발 중 1발이 투하장치 고장으로 투하할 수 없어 표적상공을 한 바퀴 선회비행 후 다른 F-51전투기와 함께 기총공격을 가하였다. 이때 적의 대공포화로 세빌레 소령이 피격되었는데, 그는 대구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다시 표적을 향하여 6문의 50밀리 기관포를 발사하다가 끝내 적진에 추락하여 전사하였다.[146]

극동공군은 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모든 조종사들은 비행 중 적의 이동상황이 목격되면 즉시 무장 정찰기를 호출하여 가장 먼저 응답한 무장 정찰기에게 표적의 위치를 알려주어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8월 25일 평양 동쪽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적 비행장을 공격하고 귀환 중이던 전투기 편대는 마침 터널로 대피하고 있는 열차를 발견하고, 이들 중 1대가 왼쪽 날개에 남겨두었던 네이팜탄으로 공격하여 터널 입구를 차단함과 동시에 급히 무장 정찰기를 호출하였다. 표적상공에 도착한 무장 정찰기는 기관차 2대가 끌고 있는 열차를 공격하여 기관차는 물론 탱크 12대를 실은 무개화차 12량과 유개화차 13량을 파괴하였다.

제5공군은 9월 초에도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전투기 편대가 안동북쪽 13킬로미터 지점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적의 트럭 1대를 발견하고 네이팜탄으로 공격하는 한편, 명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하하면서 터널 반대편 쪽에는 소이탄으로 공격하였다. 이 전투기 편대는 귀환 후, 적의 트럭 1대를 파괴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러나 그 후 진격 중인 유엔지상군 정찰대는 이 터널 안에서 북한군의 많은 장비가 불에 타버린 채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정찰대는 어림잡아 북한군 1개 포병대대와 1개 중박격포중대 규모의 장비에 해당하는 76밀

리 야포 10문, 120밀리 박격포 8문, 트럭 5대 및 지프 4대가 파괴되었고, 네이팜탄의 화염으로 많은 적병이 살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147]

제5공군 무장정찰기의 공격으로 적은 야간에만 파괴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급품을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기상정찰기 조종사로부터 밤중에 적의 트럭 수송대가 라이트를 켠 채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제5공군에게는 야간공격기가 없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8월 8일 제5공군사령관에게 B-26경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매일 밤 50회 이상 출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148]

제5공군은 야간공격작전을 위해 지난 7월에 제68전천후전투기대대 F-82전투기 3대를 야간공격편대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F-82전투기가 적 비행장이나 시가(市街)와 같은 잘 알려진 고정표적을 공격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야간공격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F-80전투기는 이미 야간공격임무에 투입하고 있지만 제트기의 속도로는 달이 밝은 밤일지라도 표적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망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51전투기도 야간에 표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로켓과 기총공격 시 발생되는 섬광(閃光)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비행안전이 우려되었다.[149]

제5공군사령관은 주간작전을 줄이면서까지 야간출격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으나 제3폭격전대 전력의 절반을 야간작전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사실 제5공군은 7월 말 제3폭격전대 B-26경폭격기 몇 대를 야간에 시범적으로 운용하였다. 경폭격기에는 레이더고도계, 단거리항법레이더(Shoran) 및 AN/APQ-13 맹목폭격조준레이더 등이 장착되어 있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용해 본 결과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B-26기 승무원은 적 수송대의 불빛을 볼 수 있으며, 폭격기가 표적에 접근할 때 적의 수송차량들이 라이트를 소등하더라도 폭격기 승무원들은 적 수송대의 위치를 식별하고 제대로 공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3폭격전대의 제8, 제13폭격대대는 1주일씩 교대로 야간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천후전투기대대와 경폭격기대대가 야간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제5공군은 8월 동안 매일 평균 35회의 야간출격기록을 유지하였다. 야간작전에 투입된 항공기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적의 수송대를 위협하여 라이트를 켜

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선의 전투부대에 재보급을 방해하거나 차단시키는 것이었다.[150]

야간작전을 수행하는 B-26기들이 8월 말부터 160파운드 파열폭탄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적 수송대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유엔공군의 야간작전 수행으로 적 수송대는 전선으로의 재보급이 늦어지게 되었고, 주간에 항공공격으로 시달린 적은 야간의 항공공격에도 매우 두려워하였다.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적 호송병들에 의해 북으로 가는 동안 야간에 항공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호송병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피신하였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야간작전 수행 중인 항공기가 적을 강력하게 공격한 적도 있었다. 8월 30일 밤 서울북쪽의 철도조차장을 정찰하던 제68전천후전투기대대의 F-82전투기 편대가 적의 기관차 3대와 많은 화차를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유엔공군의 강력한 항공공격으로 적 수송대의 주간이동을 봉쇄한 것처럼 야간무장정찰임무 수행으로 적의 야간이동을 둔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다.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은 "한국에서 작전하게 된 이래 야간이동표적의 공격문제는 우리가 지닌 커다란 취약점의 하나였다"고 말하였다.[151]

3) 근접항공지원작전

유엔공군이 7월 동안 전선지역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 운용하는 동안 북한군은 수개의 사단을 새로 편성하는 등 지상군의 규모를 확장하여 전선에 투입하였다. 적은 15만 병력으로 구성된 13개 사단, 1개 기계화사단, 1개 전차사단 및 모터사이클연대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적군에 대해 유엔지상군은 미군 4개 사단, 미 해병 1개 여단, 한국군 5개 사단 등이 방어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군의 방어정면이 넓을 수밖에 없었고 예비대도 없었다.[152]

워커 제8군사령관은 8월 말 미 제2사단을 배속 받으면 제24사단을 잠시 쉬게 한 후 재배치하려고 생각하였고, 또한 9월 초에는 영국군 제27여단이 홍콩으로부터 한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적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태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유엔지상군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었다. 제5공군의 항공공격으로 적 기갑부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적은 유엔공군의 항공공격 때문에 탱크를 소규모로 분산하여 전개하였고, 더구나 야간에만 기동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적은 교두보 주변에서 유엔공군력 때문에 아군에게 결정적 공격을 가하기 위한 전투력을 결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의 분산된 전투력은 유엔지상군의 방어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였다.

북한공군의 위협이 없는데다 유엔공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유엔지상군은 위장이나 은폐를 할 필요도 없이 하시라도 부대들을 즉각 이동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 어떤 미 지상군도 받아보지 못한 많은 근접항공지원을 극동공군으로부터 받았다. 유엔지상군이 8월 중 극동공군으로부터 7,397회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루 평균 238회의 근접지원을 받은 셈이다.[153]

한편 미 제25사단장의 이름을 딴 킨(Kean) 특수임무부대는 제25사단의 제35연대, 제5연대전투단 및 제1해병여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킨 특수임무부대가 진주동쪽에서 적 제6사단에 반격을 가하면서 지상전투가 격화되었다. 제5연대전투단과 제1임시해병여단은 미 본토와 하와이에서 도착한 후 처음 겪는 혈투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포병지원의 부족을 공군, 해군 및 해병대의 강력한 항공지원으로 충당하면서 8월 7일 공격을 개시하여 8월 11일 진주동쪽의 전략적 고지를 탈환하였다. 제때에 이루어진 이 역습으로 적 제6사단은 부산에 이르는 서부접근로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다.[154]

진주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군전투사령부는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대구 전면의 방어선에 대해 대공세를 펴기로 결정하였다. 제8군 정보부는 8월 10일 유엔지상군 2개 사단 정면에 있는 적의 증강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적의 움직임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기간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왜관근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은 왜관 부근에 수중교량을 가설하여 교각을 세우는 한편 탱크의 투입을 기도하였다. 적은 낙동강 방어선을 탐색하기 위해 3개 사단이 투입된 취약점을 노려 2개 이상의 사단을 종심배치하고 있었다. 제5공군사령관은 적의 거점에 대한 공격을 지시함으로

써 B-26경폭격기들은 야간에 중장비를 가지고 도하하려는 적을 공격하였다.

적의 총공격이 예상되는 8월 15일 제5공군 전술항공기들은 미 제1기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새벽 출격하여 탐색공격 중인 적 탱크 2대를 로켓탄으로 파괴하는 한편, 약 300명의 적을 기총으로 살상하였다. 또한 제5공군 전술항공기들은 대구북방 15마일 지점에서 한국군 제1사단을 지원하여 방어선을 뚫고 침투하는 적을 타격하였다. 날이 저문 후 제5공군사령관은 적의 공세가 더 이상 확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타전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전황을 보고받은 맥아더 장군은 대구정면에서 적의 증강 움직임에 대한 의도파악에 주력하였다. 그는 8월 13일 적이 집결되고 있는 의도에 대해 극동공군사령관과 토의한 후, 적의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지역에 B-29중폭격기를 전부 투입하여 「융단폭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오후 제8군은 맥아더 장군이 8월 15일을 기해서 B-29중폭격기를 총 동원하여 「융단폭격」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제5공군에 알려왔다.[155]

극동공군은 8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융단폭격」에 대해 협의하였다.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폭격성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면 B-29중폭격기의 「융단폭격」계획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어서 폭격사령관은 보유한 B-29중폭격기를 동원하면 500파운드 폭탄으로 3평방마일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 임무에는 파열폭탄이 적합하지만 이미 B-29중폭격기에 다목적 폭탄이 탑재되어 있어 짧은 시간 동안에 적재된 폭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폭격사령관은 「융단폭격」 임무 시에 꼭 필요한 사항, 즉 육안폭격을 위한 충분한 고도유지 방안, 전선에 평행으로 공격하기 위한 접근방식, 낙동강과 같은 폭격선의 분명한 설정, 표적지역 3평방마일 내에 적이 과연 2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함재기들이 제8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필이면 B-29중폭격기가 지상군 지원에 동원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폭격사령관이 제시한 B-29중폭격기의 작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156]

폭격사령부는 8월 15일 낙동강 상공의 짙은 구름으로 임무를 다음날로 연기하였다. 제8군이 요청한 표적지역은 낙동강에 연한 왜관서북쪽 길이 7.5마일 폭 3.5마일의 좁고 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적 약 4만 명이 미 제1기병사단 등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융단폭격에 투입 가능한 전력은 완편된 B-29중폭격기 2개 전대와 다른 3개 전대에서 차출한 6개 대대뿐이었다. 폭격사령관은 이들 12개 대대 전력으로 27평방마일에 달하는 표적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 전선국면으로 미루어 「융단폭격」은 적에게 심리적 효과에 불과할지라도 그런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57]

폭격사령부 작전계획장교들은 27평방마일의 표적지역을 1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별로 폭격조준점을 설정, 각 대대에 한 구역씩 배당하였다. 모든 폭격기 승무원은 낙동강 동안에 배치된 유엔지상군에게 오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받았다.



B-29중폭격기 98대가 융단폭격한 후의 왜관 서북지역 모습(1950. 8. 16)

8월 16일 아침 날씨는 쾌청하였다. 폭격사령부의 선도 1개 대대가 11시 58분 왜관상공에 도착하면서 「융단폭격」이 시작되었으며, 차례대로 B-29중폭격기 98대가 약 30분 동안 표적지역을 폭격하였다. 이들 폭격기는 5,000~10,000피트 상공에서 500파운드 다목적폭탄 3,084발과 1,000파운드 다목적폭탄 150발을 투하하였다. 이때 제307폭격전대만이 적의 경미한 대공포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표적지역에서 자유롭게 폭탄을 투하하였다고 하였다. 이 「융단폭격」은 지상군에 대한 직접지원으로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래 최대의 공군력을 투입한 것이다. 투하된 폭탄의 위력은 야포의 중포탄 3만발과 비슷한 파괴효과를 가졌다.[158]

폭격이 끝난 후 정찰기가 촬영해온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폭탄의 일부가 빗나가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폭격성과가 훌륭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당시 제8군이 수색대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폭격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폭격지역 상공을 2시간 반 동안 정찰하였는데 적 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 장갑차량, 대공포 등 아무것도 눈에 띠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세가 극히 위태로운 지역의 밀집된 표적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집중공격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건의하였다. 왜관지역 융단폭격이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제8군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주었음은 틀림없었다. 워커 제8군사령관도 이 폭격으로 유엔지상군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된 반면, 적의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말하였다.[159]

제5공군사령관은 "이번 폭격으로 지상군지휘관들은 공군력이 만능은 아니며, 공군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왜관 융단폭격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극동공군사령관은 장차 B-29기의 폭격표적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맥아더 장군에게 건의하였다. 즉 적이 돌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수단으로 B-29기를 동원하는 방안과 아군이 적 점령지역을 침투, 돌파할 경우 적 점령하의 일정지역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어서 B-29기는 북한 산업시설 파괴와 차단작전을 계속 수행하며, 제77특별기동대는 제8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전지역을 남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한편 제8군 정보부는 적의 주공이 왜관으로부터 대구를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군위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공격으로 8월 18일 한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이 돌파되었다. 제5공군사령관은 대구북쪽 12마일 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제5공군 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합동작전본부는 8월 20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160]

군위-대구 회랑을 축으로 하는 적의 공격은 유엔지상군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제5공군사령관은 대구북쪽의 유엔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에서 출격한 F-51전투기들은 공격이 끝나면 대구기지에 착륙하여 재급유와 재무장을 한 다음 다시 출격하였다. 한국군은 유엔공군의 강력한 항공지원으로 방어선을 고수하였으며, 제8군사령관은 진주전선에서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빼내어 한국군을 지원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철저한 방위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8월 19일 적에게 함락될 뻔했던 대구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그 후 이틀 동안 유엔지상군은 적을 격퇴하여 하장남동쪽 고지에 유리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였다. 모든 전선에서 적의 활동은 변함없이 활발하였으나, 8월 중에 더 이상의 큰 공세는 취하지 못하였고 피아간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유엔지상군이 적 점령지에 반격해 들어갈 때 근접항공지원의 진가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8월 26일 한국군 제27연대가 기계부근까지 적을 격퇴하였는데, 그 곳에서 항공공격으로 몰살된 적 시체 600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제5공군 F-51전투기들이 8월 30일 포항서북지역의 적을 공격한 후, 그 곳에 진출한 한국군은 적 시체 약 700구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근접항공지원작전의 성과를 지상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선이 비교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제5공군은 8월 24일 이후 며칠 동안 한국전발발 이후 처음으로 근접지원작전보다 수송차단작전에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였다. 8월 말이 되자 이제 적은 신속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군 지휘관들은 최후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31일 자정 낙동강 교두보의

서남부로부터 적은 5개 사단을 투입하여 미 제25사단 및 제2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161]

다음 날인 9월 1일 제5공군사령관이 인천상륙작전을 협의하기 위해 동경으로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팀버레이크 부사령관이 제5공군사령관 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날 제8군의 오전 회의에서 워커 사령관은 팀버레이크 제5공군부사령관에게 적의 이번 공세는 매우 중요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전 전선이 위태롭다고 말하였다. 팀버레이크는 즉시 동경에 전화를 걸어 웨이랜드(Otto P. Weyland) 극동공군부사령관에게 미 제2사단과 제25사단을 지원하는데 제5공군의 전력을 집중시킬 생각이라고 말하고, 일본에 주둔 중인 F-80전투기 대대들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호위항모 「시실리」(Sicily)호와 「반도엥 스트레이트」(Bandoeng Strait)호가 일본에 가있음을 지적하고 이 항공모함들도 한국에 전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팀버레이크가 제5공군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맥아더 사령관, 극동공군사령관 등과 회의 중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내가 만일 공군을 지휘하는 입장이라면 최후발악으로 모든 전투력을 동원하고 있는 적에 맞서 싸우는 제8군을 위해 B-29중폭격기를 비롯한 모든 보유전력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맥아더 장군의 권고대로 할 생각이라고 대답하고 극동공군사령부로 돌아온 즉시 제5공군사령관 및 폭격사령관과 전화로 협의하였다.[162]

극동공군 작전장교들은 이미 해병비행대대들의 배치를 준비하였다. 항공모함 「시실리」호는 함재기를 탑재한 채 항구에 정박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었으나 「반도엥 스트레이트」호의 함재기들은 이타미(Itami)기지에 있어 아시야(Ashiya)기지로의 비행이 가능하므로 아시야기지에서 급유와 무장을 마치고 9월 2일 아침부터 한국으로 출격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B-29기 2개 전대가 이미 1,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고 있어 수송차단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폭격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폭격전대 B-29기 24대를 투입하여 김천, 고창 및 진주 지역에 있는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제77특별기동대 고속항모들이 제8군을 지원

하도록 명령받은 사실을 9월 1일 아침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날 08시 45분 합동작전본부는 제77특별기동부대에 제8군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들 고속항모는 이미 서해의 동북부에서 서울북방에 대한 차단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작전참모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은 극동공군이 함재기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극동해군사령관에게 지시가 되어 있다고 11시 30분경 극동공군에 통보하였다. 이어 12시 15분에 극동공군 작전차장 프라이스(George E. Price) 대령은 팀버레이크 제5공군부사령관에게 제77특별기동부대가 제8군을 지원할 것이며, 함재기들이 14시 25분경 전투지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합동작전본부는 11시 33분에 제77특별기동부대로부터 긴급전문을 받아 알고 있었다.

제5공군 전술기들은 이날 제2사단과 제25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40마일 정면에 167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에서 진주 남강남쪽에서 전투 중인 제25사단에게만 108회의 근접지원을 하였다. 또한 제77특별기동대의 함재기가 전투지역에 도착하자 합동작전본부는 해군 조종사들을 제2사단을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날 제77특별기동대의 함재기들은 85회를 출격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항공모함들이 진로를 변경하면서까지 함재기를 최대한 출격시켰어도 표적지역으로부터 2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데다 출격한 함재기들이 멜로우 통제소에 도착을 알리면 표적과 방향을 지시받기로 되어 있으나 장거리 비행으로 이미 연료부족 상태가 된 함재기들이 도착을 알린다 해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즉 멜로우 통제소 통신채널의 포화상태로 허용된 비행시간 내에 함재기 모두를 유도할 수가 없었으며, 몇몇 해군기들은 기다릴 시간여유가 없어 귀환을 위해 폭탄을 절차에 따라 자체 투하한 후 항공모함으로 귀환하였다.

북한군은 교두보 주변에 압박을 가하면서 9월 2일에도 공세를 계속하였다. 서남부 전선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 제25사단은 강력한 반격에 성공하였고, 미 제2사단은 적이 낙동강을 도강하여 영산(靈山)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고투 중에 있었다. 이날 전투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5공군은

일본 방위임무로부터 전환된 비행대대들과 해병 비행대대를 활용하여 미 제2사단에 201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163]

제307폭격전대는 B-29중폭격기 25대를 김천, 고창, 진주의 적 보급소에 출격시켜 500파운드 폭탄 863개를 투하, 파괴하였다. 제77특별기동대는 바로 전날 저녁 합동작전본부에 해군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임무를 합동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한편, 비행계획도 마련하였다. 해군 측은 미 제2사단 지역의 모스키토 공중통제기와 협조하기 위해 제77특별기동대 공중통제관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제5공군사령관은 함재기가 근접지원에 나서기 전에 미리 멜로우 통제소에 통보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합동작전은 아주 훌륭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날 제77특별기동대의 함재기들은 127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164]

제5공군 전술기는 9월 3일 미 제2사단과 제1해병여단 등의 근접지원에 249회를 출격하였고, 폭격사령부는 B-29기 35대를 투입하여 전선배후의 9개 촌락에 집결된 적 병력과 장비 등을 폭격하였다. 제1해병여단은 적의 영산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막 전선에 투입된 직후였다. 이날 적은 하장 동남부 전초선 북방에서 새로운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특히 포항내륙 수마일 지점의 기계(杞溪)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공격은 부산으로 이어진 대구의 철도와 국도를 공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합동작전본부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5공군 B-26경폭격기들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한편 제5공군사령관은 9월 3일에도 제77특별기동대 함재기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항공모함의 재급유 문제로 이날 작전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제8군이 동경에 긴급 타전함으로써 제77특별기동대는 재급유를 보류하고 영산의 유엔지상군에게 28회의 근접지원을 하였다. 극동공군, 제5공군 및 합동작전본부는 제77특별기동대가 출격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근접지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재기의 근접지원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77특별기동대가 9월 4일과 5일에는 북한지역 교통망을 공격하고 그 후에는 인천상륙작전 준비관계로 일본 사세보(Sasebo)항으로 철수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제5공군사령관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해군 측이 협력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이어 "제77특별기동대가 작전일정을 사전에 합동작전본부에 통보하거나 전방통제관과의 연결을 위해 멜로우 통제소와 미리 접촉을 가져야 함은 필수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165]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극동공군사령관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제77특별기동대의 항공지원요청일지라도 모두 제5공군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고 제8군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군 함재기 지원요청도 제5공군을 통하여 극동공군에 통보되었으며, 극동해군과의 조정은 맥아더 장군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이 되었다.

적은 낙동강 서쪽의 여러 곳에서 도강하여 제8군의 방어선을 영산까지 밀어냈다. 해병대의 함재기와 제5공군의 전술기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9월 4일 미 제2사단 지역에 43회의 근접지원을 감행하여 영산공격을 선도하는 적 탱크 11대를 파괴하였고, 적의 공격도 주춤하였다. 때마침 쏟아진 폭우는 항공작전에 지장을 주었지만 오히려 낙동강을 격류로 만들어 적의 도강기도를 무산시켰다. 다음 날 미 제2사단은 전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제1해병여단을 구출하게 되었고, 이후 제1해병여단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게 되었다.

적은 남서부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8군 방어선북부에 강력한 공세를 펼쳤다. 왜관과 하장 쪽에서 공격을 개시한 적 2개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한국군 제1사단을 대구 7마일 지점까지 내몰았으며, 기계 쪽에서도 적 2개 사단은 한국군을 영천 및 경주까지 밀어붙였다. 또한 동부에서는 재편성된 적 사단이 포항을 다시 장악하였다.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과 워커 제8군사령관이 9월 4일 적 상황을 전망한대로 적은 교두보 북쪽을 지탱하고 있는 철도지선과 도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경주와 영천을 돌파함으로써 대구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였다. 워커 사령관은 주요 참모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산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제5공군도 대구의 병력을 감축, 최소한의 참모만을 남기고 철수시켰다. 이제 대구기지에 남은 것은 제6149기지부대와 제6147전술통제대대밖에 없었으나, 제6149기지부대장 타이어(Aaron W. Tyer) 대령은 9월 6일 제6147전술통제

대대의 모스키토 공중통제기를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제5공군사령관은 제8군이 대구-포항 선을 지탱할만한 병력을 투입할 수 없는 한, 대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이 가능한 공군력의 융통성을 다시 한 번 발휘하였다. 제5공군이 적의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제8군은 증원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9월 4일 동이 트자 대구동부의 한국군 사단들은 제5공군으로부터 대량의 근접지원을 받았다. 이날 제5공군은 160회를 출격하였으며, 9월 5일에는 비행이 어려운 날씨임에도 51회나 출격하였고, 9월 6일에는 183회의 근접지원을 하였다. 제5공군 전술항공기의 근접지원에 고무된 한국군 사단들은 전세를 만회하고 반격하게 되었다.[166]

한편, 후방에서 휴식을 취한 미 제24사단은 경주와 영천을 방어하기 위해 북상하였다. 이 교통요충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군과 미 제24사단은 제8군 방어선 안으로 침투한 적을 측면공격, 퇴로를 차단하여 격멸하였다. 대구시를 중심으로 축소된 활 모양의 방어선에서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제5공군으로부터 두 번째 순위의 근접지원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의 근접지원 출격회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주도면밀한 통제 하에 매우 적절하게 근접지원이 이루어졌다. 제5공군은 대구에서 8마일 지점의 요새화된 다부동과 폐허화된 왜관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 제27보병여단이 9월 7일 미 제1기병사단 방어선의 남부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미 지상군은 방어선을 축소시켜 대구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다. 제8군은 적에 밀려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었지만 이제 적도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제5공군은 9월 10일 적 전차 10대, 차량 19대, 보급품집적소 3개소, 포대 4개소를 파괴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전차 7대, 차량 22대, 포대 17개소와 기타 전술표적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날 극동공군은 총 683회를 출격하여 전쟁발발 이래 가장 많은 출격회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 제5공군은 유엔지상군 근접지원에 307회 출격하였다.[167]

미 제2사단장 카이저(Lawrence B. Keiser) 소장은 9월 11일 제5공군이 이날 제2사단 지역의 근접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1,500명의 적병살상과 다수의 적 장비를

파괴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극동공군의 항공작전은 전반적으로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아 지상군에 대한 오폭으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F-80전투기 편대가 8월 10일 미 제19연대의 일부에 기총공격을 가하여 3명을 부상시켰고, 8월 29일에는 미 제24연대를 공격하여 미군과 한국군 병력 21명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9월 10일 제68전천후전투대대의 한 중위가 아군 지역 내의 교량을 폭격하였으며, 동 대대 대대장은 대구를 김천으로 착각하고 대구시내에 3회에 걸친 기총공격을 하였다. 이 사고로 중위는 비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대장은 면직되었다.[168]

한편 당시의 적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최후의 공세를 감행했음이 분명하였다. 예를 들면, 9월 9일 적은 영산지역의 미 제2사단에 5차례의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세 번째 공격까지는 병력이 무장을 하였으나 마지막 2차례의 공격에 투입된 병력은 무장 없이 전장에서 무기를 구하거나 전사자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형편이었다. 적의 공격추진은 9월 12일을 기해 완전히 소모됨으로써 드디어 제8군의 반격을 맞게 되었으며, 유엔지상군은 최악의 사태를 넘기면서 낙동강 교두보를 끝까지 고수하게 된 것이다.[169]

4) 전략폭격 작전

폭격사령부가 7월 30일 흥남질소화약공장에 대한 전략폭격(일명 Nannie Able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미 합참은 7월 31일 맥아더 장군에게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대규모 전략폭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하는 한편,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에게 맥아더 장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극동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미 본토로부터 중폭격기 2개 전대의 파견지원을 수락하자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8월 2일 항공작전 관련 협의를 위해 극동군 표적선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회의에 참석한 고위 장성들에게 북한의 5대 산업지역에 대한 극동공군의 전략폭격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계획은 미 전략공군사령부에서 폭격사령관에게 제시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소이탄 공격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170]

또한 육안폭격이 가능한 날씨라면 중폭격기 2개 전대규모로 30일 이내에 북한의 5개 산업지역을 파괴할 수 있지만, 기상예보에 의하면 8월 중 절반은 북한상공에 많은 구름이 덮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웨이랜드는 이러한 기상전망 때문에 중폭격기 3개 전대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극동군 표적선정위원회의 육군 측 대표에 의해 2개 전대규모로도 충분하며, 나머지 3개 폭격전대를 차단작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반론에 직면하였다.

이 회의에서 웨이랜드 장군은 B-29기가 과연 소이탄 사용이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며칠 후 극동공군은 워싱턴 당국으로부터 부정적인 회답을 받았다. 워싱턴 당국은 이러한 폭격이 공산권의 선전에 악용될 수가 있으며, 소이탄 공격으로 민간인의 불필요한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에게 소이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특별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 합참은 북한의 산업시설들을 폭격하기 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98 및 제307폭격전대가 극동에 도착하자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8월 8일 오도넬 폭격사령관에게 2개 폭격전대를 최대로 활용하여 3일에 한 차례씩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미 합참은 8월 15일 북한지역의 전략표적에 청진의 철도조차장 및 철도공작창, 진남포의 동철주물공장 및 삼용산업공장, 성진의 철도창, 조선소 및 연료저장소, 흥남과 해주의 철도창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얼마 후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미 합참에서 새로 선정한 전략표적이 차단표적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략폭격에 3개 폭격전대를 투입하도록 극동군 표적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였으며, 극동공군은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산업지역을 공격하지 않는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이들 3개 폭격전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단표적을 공격하도록 폭격사령부에 지시하였다.

한편, 폭격사령부는 8월 1일 제22 및 제92폭격전대의 B-29기 46대를 출격시켜 흥남 조선질소비료공장에 대한 전략폭격(Nannie Baker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날

은 날씨가 쾌청하여 선도 폭격전대는 「Norden 폭격조준기」를 사용하여 육안폭격을 수행하였지만 후속전대는 연기와 먼지 때문에 표적을 확인할 수 없어 레이다 조준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날 출격한 2개 폭격전대는 500파운드 폭탄을 표적지점에 집중 투하하였는데, 폭격의 규모가 커서 16,000피트 상공에 있는 폭격기에게도 충격이 전해질 정도였다.

폭격사령부는 이틀 후인 8월 3일에도 흥남 본궁화학공장을 표적으로 제22 및 제92폭격전대 B-29기 39대를 출격시켜 제3차 전략폭격(Nannie Charlie 작전)을 수행하였다. 각 폭격대대는 표준고도 16,000피트 상공에서 구름을 뚫고 폭격을 감행하였다. 폭격성과는 매우 훌륭하였으나, 앞서 두 차례의 작전으로 이들 2개 폭격전대는 모든 표적지점을 다 파괴할 만큼 보유전력이 충분하지가 않았다. 폭격사령부가 7월 30일부터 5일 동안 흥남산업시설단지를 세 차례나 폭격한 후 극동공군사령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약공장이 한국전쟁에서 더 이상 큰 요소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171] 이와 같이 흥남산업시설단지에 대한 전략폭격 경험은 8월 10일 원산철도창과 정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전략폭격 실시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동공군의 일상적인 계획수립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극동공군의 표적과로부터 충분히 제공되리라 생각하였으나, 폭격사령부의 정보기능은 작전부에 흡수되고 장교 2명에게 맡겨졌다. 마침내 폭격사령부에 표적선정임무가 추가로 부과되자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작전부·군수부와 동격의 정보부를 편성하고 8월 10일까지 장교 7명과 사병 11명을 보임시켰다. 폭격사령부 정보부는 제31전략정찰대대 및 제548정찰기술대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B-29기 승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표적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46개 전략표적을 폭격하는 동안 단 1개 전대만이 표적에 관한 사진, 레이다 영상자료 등의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육안폭격으로 표적을 훌륭하게 폭격하였다.[172]

폭격사령부는 전략폭격을 위해 출격할 때마다 임무편대군에 앞서 출발하는 기상관측기에 임무지휘관을 동승시키고, 그에게 임무지역의 기상상태에 따라 레이

더 조준폭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2차 표적으로 변경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모든 폭격대형은 레이더 폭격을 위해 적합한 축선을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대대단위의 대형일 경우에는 선도기가 육안폭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레이더 폭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폭격고도에 구름이 덮여 있어 편대공격이 곤란할 경우는 임무지휘관이 각 폭격기를 종대대형으로 해서 1분 간격으로 표적에 레이더 조준폭격을 하는 홈타운(Hometown) 공격을 명령하였다. 홈타운 공격은 산업시설을 폭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각 폭격대대는 표적지역 상공에 대략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도착하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폭격기들을 최단시간 내에 최대로 집중시킬 수는 없지만, 적의 방공망이 허술하여 폭격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적이 민첩한 전투기와 충분한 대공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 폭격기가 규칙적으로 출격하거나 자유롭게 표적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극동공군의 정보장교들은 상세하게 작성된 시가도나 항공사진을 조사했으나 진남포의 동철주물공장과 삼용산업공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B-29기들은 미 합참의 표적목록에 올라 있지도 않은 구 일본 광업제련소와 조선이연금속공장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나진에 있는 해군유류저장소의 폭격은 날씨의 악화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미 합참의 표적목록에 나진의 유류저장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 국무성은 한-소 국경에서 17마일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였다.

미 공군은 나진폭격 시 폭격기의 소련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표적을 명확히 확인한 후 육안폭격을 하도록 극동공군에 지시하였으나 극동공군으로부터 이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폭격사령부는 8월 12일 나진에 레이더 조준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방위각의 편차로 폭격중심이 나진외곽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바뀌어 아무런 손상도 주지 못하고 나진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련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미 공군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나진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육안폭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의를 환기시켰다.[173]

폭격사령부는 8월 22일 B-29기 64대를 출격시켜 나진폭격에 나섰으나 기상관계로 2차표적인 청진을 공격하였고, 8월 28일에는 성진제철소에 326톤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진남포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공장에 284톤의 폭탄을 투하, 파괴하였다.[174] 이 무렵 미 국무성은 나진폭격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미 합참은 9월 1일 나진을 폭격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나진이 적의 보급중심지이기는 하지만 나진을 직접 폭격하지 않더라도 적이 보급품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든지 포착하여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극동공군은 8월 23일 북한 내의 전략표적과 유엔군의 북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미 공군성에 요청하였으나 이렇다 할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허천강 수력발전소 폭격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극동공군은 만일 북한을 점령한다면 산업표적을 파괴하겠지만 북한을 점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대신 만주와 시베리아로 송전하는 수력발전소와 산업원동력을 파괴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싱턴 당국에서도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175]

폭격사령부는 그 동안 표적에 대해 면밀한 정보수집과 분석 작업을 통하여 과도한 전력낭비 없이 전략폭격을 수행해 왔으며, 7월 말부터 9월 초순에 이르러 북한지역 산업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폭격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은 9월 15일 "전략상 중요하며 적의 전쟁수행에 크게 중요시되는 군수산업시설의 거의가 이제 무력화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나진폭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 의회 극동문제청문회에서 맥아더 장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진의 경우가 군사적 결정에 정치가 개입한 사례이며,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176]고 지적함으로써 당시의 한국전이 미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제8군의 공-지 작전체계 지원미흡

제8군은 공-지 작전체제상 있어야할 합동작전본부 공-지 작전과에 정보 및 작전 항공장교 등의 충원과 항공지원요청을 위한 전용통신망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극동공군사령관은 8월 13일 합동작전본부 공-지 작전과에 육군 작전항공장교 9명과 정보항공장교 6명이 결원상태이며, 공-지 작전과의 업무를 수행할 행정요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177]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8군이 공-지 작전체계상 요구되는 전용통신망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지 작전 임무수행의 책임한계를 규정한 문서에는 육군에서 3개 통신망을 운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3개 통신망이란 사단·군단과 합동작전본부간의 전술항공지원요청망, 육군 연락장교가 배치된 전술비행기지와 합동작전본부와의 통신망, 군단 정보항공장교와 합동작전본부와의 통신망 등이며, 그 중에서도 전술항공지원요청망이 가장 중요하였다. 항공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병대대는 이 요청망을 통하여 합동작전본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기로 되어있으며, 당시 긴급항공지원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178]

① 긴급항공지원요청 필요시 대대장은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대를 경유, 사단 작전항공장교에게 요청한다.
② 사단 작전항공장교는 각 대대로부터 요청받은 항공지원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공군연락장교 및 포병연락장교와 협의하여 전술항공지원요청망을 이용, 합동작전본부에 이를 통보한다.
③ 군단 작전항공장교는 전술항공지원요청망을 통해 합동작전본부에 전달되는 긴

급항공지원요청 내용을 모니터하여 이의가 없으면 침묵하고, 만약 포병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면 포병화력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면서 항공지원요청을 기각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상군이 항공지원을 요청하면 공군은 즉시 지상군에 대한 긴급항공지원을 하게 된다. 당시 미 육군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군단과 사단본부에 정보항공반과 작전항공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임시편제에 겸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179] 더구나 제8군은 이 기간 동안 긴급항공지원요청을 중계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전술항공지원요청 통신망을 설치하지 못하여 자체 지상통신망이나 모스키토 공중통제기를 통하여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180]

이 방법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것으로 전술항공통제체제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미 과도한 통화부담을 안고 있는 전술항공지시통신망 통신을 포화상태로 만들었으며, 모스키토기에 의해 전달된 보병연대의 항공지원요청은 상급사령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합동작전본부에 전달되었다. 결국 지상군 부대 지휘관들은 전술항공통제반의 통신망 의존도가 심화되어 전술항공통제반이 없으면 항공지원요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럼으로써 연대장들은 전술항공통제반을 연대본부와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전술항공통제반이 위치해야 할 곳은 연대의 포병화력통제소이며, 전방항공통제관과 포병연락장교는 각각의 지원과 관련하여 연대장에게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술항공통제반에게는 결코 불리한 위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연대지휘소는 흔히 전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그 위치에서 전술항공통제반이 항공공격을 육안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전술항공통제반은 자주 연대지휘소를 떠나 전방대대로 가서 항공공격을 유도해야 했으며, 모스키토 공중통제관에게 표적을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이들이 전투기들을 제대로 유도할 수가 있었다.

지상군이 전술항공지시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속 항공지원요청을 함으로써 제5공군의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제5공군사령관은 각 사단에 배치된 공군연락장교에게 SCR-399 무선통신기를 갖춘 통신파견대를 보내줌으로써 제8군이 미처 마련하지 못한 전술항공지원요청 통신망으로 운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상군 부대 지휘관들은 사단통신망을 경유한 항공지원요청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술항공지시통신망 사용을 고집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181]

2. 근접지원을 위한 해·공군 협조결여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극동해군에게 제5공군과 협력하여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계속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은 8월 3일 항공작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극동해군이 지상군 근접지원, 38선 이남지역 차단작전 시 제5공군과 협조, 38선 이북지역 차단작전 시 폭격사령부와 협조 등 함재기 공격우선순위 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극동공군은 해군대표에게 후방차단표적목록을 제시하였다.

극동해군이 한국수역에 들어오자 항공모함사령관은 제5공군사령관에게 "함재기가 출격 시 대구상공에서 멜로우 통제소에 보고하는 대신 직접 전방통제관과 접촉할 계획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표적상공에서의 전투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선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파트리지 장군은 해군과의 불화를 염려한 나머지 해군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182]

제8군은 9월 초 적의 공격으로 위험에 직면하자 제77특별기동부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제8군은 항공지원요청 시 합동작전본부를 통하여 제5공군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5공군에 연락 없이 해군에 직접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맥아더 장군도 극동공군에게 연락 없이 극동해군사령관

에게 함재기의 근접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극동공군은 지난 8월 3일 극동해군과의 회의에서 항공작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해군 측은 당시의 회의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이다.

극동공군은 북한지역의 후방차단작전을 계속하던 함재기가 근접지원에 투입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제5공군에 통보하였다. 사실 제77특별기동부대는 9월 1일 근접지원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에 시일이 촉박하였고, 더구나 항공모함은 작전에 필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출격한 함재기는 공격표적을 제공받기 위해서 장시간을 소비하였으며, 표적상공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연료부족으로 항공모함에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해군전술항공전대장이 9월 1일 합동작전본부를 방문하고 공격표적의 식별이 곤란하고 통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9월 2일 출격에 필요한 사항과 협력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제5공군과 제77특별기동부대 간에 항공작전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183]

① 해군조종사들은 공군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② 제5공군 통제지역에서 작전하는 기동부대와 상호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③ 다수의 함재기가 출격함으로 지상통제기구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3. 항공작전이 북한군에 미친 영향

북한군이 기습남침 이후 7월과 8월 동안 야전에서 승승장구하며 파죽지세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해 왔지만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력 손실은 커져만 갔다. 당시 엄청난 속도로 진격해오는 북한군의 수적 우세를 제압하는데 있어서 유엔공군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은 항공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유엔공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건하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유엔공군은 주간에 적 지상표적과 부대집결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적의 전술을 와해시켰다. 즉 유엔공군이 적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적으로 하여금 항공공격을 피해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전투 및 기동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적의 야간전투명령서에는 모든 전투행동을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상대방의 진지를 탈취할 것이며, 밤에 100~150미터 이내로 접근, 근접전투를 시작하면 날이 밝더라도 유엔공군기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노획된 북한군 야전명령서에는 항공공격에 대비하여 참호를 파서 철저히 위장하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항공공격의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적은 유엔공군기에 대항하기 위한 대공화기의 이용도 더욱 강조하였다. 적 제25연대장의 낙동강도강 야전명령서에는 대공방어의 중요성과 유엔공군에 대한 두려움이 명백히 나타나 있었다. 이 명령서에는 "대공방어는 각 대대에서 차출된 중기관총분대로 따로 편성되는 연대대공포대에서 담당한다. 유엔공군기가 나타나면 보병화기도 50%를 대공방어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적혀있었다.[184]

한편 적의 사기저하 요인 가운데 유엔공군기에 의한 기총공격과 로켓공격은 특히 효과가 컸다. 북한군포로 심문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기저하 사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약 18%가 항공공격을 제시하였으며, 간접적인 기타 원인으로 약 35%가 유엔공군기에 의한 병력과 장비손실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공격에 의한 병력손실은 지상군 포화에 의한 손실에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장비의 손실은 지상포화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185]

또한 유엔공군기가 적의 주보급로, 시설 및 수송체계 등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적의 보급을 마모시켰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육·해·공군의 화력과 입체적인 합동작전도 중요하지만 보급도 중요하다. 보급의 약화나 두절은 바로 전선에서 전투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은 낙동강까지 진격해옴으로써 보급로가 연장되어 군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급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공군에 의해 북한지역 산업시설과 전, 후방의 보급수송망이 여지없이 파괴되었고, 9월 초가 되자 전술작전에 필요한 보급물자 부족이 심각하였다.

이와 같이 강력한 유엔공군력은 적 지상군의 전술운용에 큰 영향을 주었고, 계속적인 근접지원과 적의 보급수송로 차단작전으로 적 지상군은 야간에만 기동하거나 전투 시 기갑부대와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공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도로가 빈약한데다 기계화수송수단의 마모가 겹친 결과 북한군의 보급체계는 약화를 면할 수 없었고, 급기야 적의 보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그들의 전술에 또 다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적은 보급품의 심각한 공급부족으로 엄격한 배급제가 불가피하였으며, 절약을 통한 비축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기동성을 상실하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유엔공군은 전선배후에 있는 적의 거점을 언제라도 용이하게 공격하여 적을 보급 및 병력공급원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었으며, 적이 거점을 강화하려 한다면 강력한 유엔공군력에 의해 엄청난 인명과 물자의 손실이 뒤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집필 : 이준혁)

주 (註)

1) 사회과학출판사(일본), 『조국해방전사』, 1972, p. 305.
2)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95.
3)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79.
4)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34.
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449. 이근석 대령 전사 이후 비행단장을 겸직해 왔던 김정렬 공군총참모장은 공군본부 및 비행단을 진해기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한편, 7월 28일부로 비행단장에 장덕창 대령을 보임시켰다.
6)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25. 이 7.7밀리 기관포는 1950년 5월 건국기(T-6) 구매 시 탄약 5,000발과 1년분의 부속품을 함께 계약한 것으로 한국해군이 함정 3척(PC702, PC703, PC704)을 도입할 때 함정에 선적하여 7월 17일 진해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동안 해군에서 보관해 오다가 비행단이 진해기지로 이동한 후 T-6기에 장착, 사용하였다.
7)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24, p. 282. 기종 전환훈련기간은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르나 당시의 전투기는 사격훈련까지 마치는데 최소한 50시간 정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전쟁발발 초기에 10명의 F-51전투기 인수 조종사들은 이다즈께(Itazuke)기지에서 1주일 동안의 기종 전환훈련 가운데 지상교육과 더불어 개인당 1회(약 30분 정도)의 관숙비행이 전부였고, 국내 전황이 심각하자 훈련으로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어 7월 2일 10대의 F-51전투기를 직접 조종하여 대구기지로 돌아왔다. 그들은 7월 3일 대구기지에서 첫 출격을 하였고, 7월 4일에는 비행단장인 이근석 대령이 안양지역에 출격하여 작전 중 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비행단장을 겸한 김정렬 총참모장은 더 이상의 조종사 희생과 전투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제6146기지부대에게 비행훈련을 요청하였다.
8)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p. 281-28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0.
9) 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p. 128-129.
1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1.
11) 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p. 118-121.
12)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91.
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1.
14)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83. 한국공군은 F-51전투기 10대를 인수하였으나, 1950년 7월 4일 이근석 대령이 작전수행 중 전사하면서 총 9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15) 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p. 124-125.
16)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76. 공군본부 고급부관 한해남 소령은 대전에서 창설된 정찰비행대가 향후에 대전과 대구비행장 만으로는 지상군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군본부의 재가를 받은 후 김천읍장을 설득하고, 전시동원령에 따른 인원 및 장비 등을 동원하는 등 군·관·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김천역 광장의 대전-김천간 도로에 길이 450미터, 넓이 60미터의 간이비행장을 건설하였다.
17)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93.
18)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6. 북한군은 군산, 목포, 순천지역의 해안방어를 위해 7월 20일 제7사단을 창설하였다.
1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1.

20)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94.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3.
21)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26.
22)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94.
23)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27.
24)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5.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95.
25)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2002, pp. 35-50.
26)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2.
27)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50.
28)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1, pp. 51-52. 북한군은 보다 나은 지휘통제를 위해 7월 13일 총참모부에 전선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2개 군단으로 재편성하였다. 전선사령부와 각 군단 사령관은 광범위한 권한과 계획 및 부대지휘에 대한 독자성을 부여받았으나 전선사령관의 결심은 총참모부의 재가를, 각 군단 사령관은 전선사령관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29)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52.
30)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2002, pp. 51-60.
31) 장동출 중위는 경북 출생, 일본육군 소년비행병 제15기이었으며, 7월 3일 이후 15회 출격하였다.
32)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81, p. 296. 이 기간 중 한국공군 F-51전투기의 총 출격횟수와 종합전과에는 미 제25사단의 항공지원 요청으로 사천지역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헤스 소령이 단독으로 출격한 횟수(약 30회)와 전과는 공군본부의 '전투요보'에 누락되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3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3.
34)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89.
35)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78.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29.
36)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7.
3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7.
38)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46호(1950. 8. 14).
39)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30.
4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2호(1950. 8. 14).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31.
4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8.
4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8.
43)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p. 127-128.
44)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5.
4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6.
46)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29.
4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6, p. 139. T-6기 대구파견대 작전은 한국공군 F-51 전투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진해기지에서의 출격횟수는 제외한 것이다.
4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327.
4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9.
5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36.
5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4.
5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6.

5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7.
5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9.
5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8.
56)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8.
5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9.
5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19-120.
5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0.
6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2.
6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9.
6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0.
6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1.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22일 "특수작전을 명령받은 경우가 아닌 한 해병비행단은 제5공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작전하기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64) 미 제25보병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의 이름을 따서 'Kean 특수임무부대'라고 하였으며, 미 제25사단의 제35연대, 제5연대전투단, 제1해병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무렵 진주지역에서 항공지원을 받으며 북한군 제6사단과 전투를 하였다.
6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3.
66)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0.
6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3.
6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7.
6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3.
7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1.
7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9.
7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7.
7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3.
7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7.
7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p. 60-61.
76) 제10군단(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극동군사령부 일반명령 제24호(1950. 8. 26)에 의해 창설됨.
7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48-149.
7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9.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1950년 7월 3일과 8월 14일 만주나 시베리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당시 미 극동공군은 공산권 측에서 주장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8월 27일 F-51전투기 2대가 한만국경을 월경하여 안동부근 중공공군 활주로를 기총으로 공격하였고, 9월 22일 밤에는 제98폭격전대의 B-29 중폭격기 1대가 비행 중 실수로 월경하여 안동조차장을 폭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극동공군사

령관은 모든 조종사가 출격하기 전에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시키도록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에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였던 것이다.

79)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6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9.
8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49-151.
8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63.
8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1-152.
8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63.
8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5.
8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4.
8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74-75.
87) 공군본부 역,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28.
8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2-153.
8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53.
9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3-154.
91)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9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54.
9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4-155.
9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5-156.
95) 극동공군사령관은 1950년 7월 11일 제13공군의 제18전폭전대 제12 및 제67전폭대대를 제5공군에 파견을 승인하였고, 제5공군사령관은 이들의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았다.
96)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0.
9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2.
98)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0.
99)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00)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8.
10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2.

1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4.
10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0.
10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2.
10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p. 20-21.
10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4.
10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p. 68-69. 제5공군은 1950년 11월 1일까지 수영비행장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으며, 이 비행장을 K-9으로 명명하였다.
10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58.
109)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65.
11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1.
111)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p. 108-109.
112)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10.
113)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57.
11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01-102.
115)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13.
11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2.
11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58.
11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3.
119)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7.
12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6.
12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0.
12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26-128.
12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8.
12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8.

12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1.

12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9.

12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1.

12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0.

12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28-129.

130)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1.

13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0.

13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4.

13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6.

134)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6.

13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53.

13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7-158.

13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65.

13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57-158.

139)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65.

14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1.

14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1.

14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4.

14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31-132.

144)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5.

14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32-133.

14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4.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적 부대 공격에 헌신한 세빌레 소령에게 최고 영예의 훈장이 추서되었다.

14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0.

148)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5.

14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5.

15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5.

15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6.

15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7.

15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7.

15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21-122.

15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8.

15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38-139.

15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7.

158)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7.

15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39.

16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0.

16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1.

16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2.

16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3.

16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43-144.

16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4.

16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5.
16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6.
168)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8.
16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46.
17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86-187.
17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90.
17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91.
17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92.
174)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75) 극동공군은 수력발전소 공격문제에 대한 지침을 미 공군성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지침이 없었고, 그 후 9월 21일 같은 문제를 워싱턴 당국에 요청하였는데도 지침이 없자 9월 26일 맥아더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허천강 수력발전소를 폭격하였다.
17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93.
17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6.
17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107-108.
179) 미 제8군은 공식적인 지시문 하달을 통하여 1951년 봄부터 각 부서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24시간 전담 운용하도록 하였다.
18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8.
18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9.
18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8.
18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9.
18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71.
18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69.



제 9 장 총 평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1. 국군의 준비태세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7월 한 달 동안의 지연작전을 끝내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전선사수(stand or die)' 방침에 따라 적의 남침을 저지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워커 중장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적의 전술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뒷받침할 반격을 위해 천연 장애물인 낙동강을 최후의 교두보로 선정하였다.

1950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점령한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은 육군본부 예하에 2개 군단 5개 사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육군본부 직할로 동해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3사단, 중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중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2군단 예하의 제1사단과 제6사단이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선 방어작전 동안 정부는 5개 사단을 보강하고, 새롭게 사단을 창설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 증강계획을 미군과 합의하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단증편계획에 따라 8월 20일 민부대와 독립유격 제1·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을 재창설하고, 8월 27일에는 제11사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제2사단과 제5사단의 재창설, 그리고 제9사단과 제3군단의 창설이 추진되었다. 특히 임시수도인 대구방위를 위해 대구방위사령부를 창설하여 대구사수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때 국군은 미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작전, 부대재편, 교육훈련, 장비운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았다.

또한 장교충원도 이 무렵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9월 초에 설치된 육군종합

학교를 통해 매주 250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였고, 8월 1일 설치한 육군중앙훈련소를 통해 전선에 병력을 보충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도 일원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병력 보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각 훈련소는 5~6천명을 수용해 1~2주간의 훈련을 실시한 후 배출하였다. 또 하사관교육대를 설치해 화기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군은 1950년 8월부터 미군으로부터 신장비와 보급을 지원받아 공세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3.5인치 로켓포를 지급받아 대전차공격능력을 보유하였으며, 미군으로부터 105밀리 신형야포 30여문을 보급 받아 4개 포병대대를 증편해 기존 6개 포병대대에서 10개 포병대대를 보유함으로써 전투력이 증강되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작전 기간 중 젊고 유능한 장교들을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으로 발탁하였다. 이 때 교체된 지휘관으로 제1군단장에 김백일 준장, 수도사단장에 백인엽 대령과 송요찬 대령, 제3사단장에 김석원 준장과 이종찬 대령, 제8사단장에 최덕신 대령과 이성가 대령 등이었다. 그 가운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장군으로 진급함은 물론 개전 이래 사단장 직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8월 중순 재창설된 제7사단장에는 신상철 대령, 새로 창설된 제11사단장에는 최덕신 대령, 신설된 대구방위사령부 사령관에는 이한림 대령이 임명되었다.

한국 전선의 모든 지상작전에 대한 권한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1950년 7월 17일 「미 제8군 일반명령 제3호」에서 한국 전선에 참가한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이후 지상에서 작전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은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 부대를 직접 지휘하지 않고 육군본부를 통해 간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통제하였다. 즉 미 제8군사령관이 육군총참모장에게 작전내용을 요청하면, 육군총참모장은 이를 육군본부 명령으로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 미 제8군의 작전계획과 명령에 부합된 작전을 하게 하였다.

2. 미군의 준비태세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미군의 전투역량을 시험하고 미국 육군의 명예와 전통을 구현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6·25전쟁에 투입된 미군은 극소수의 예비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여 낙동강선 방어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 제8군으로부터 8월 1일 낙동강 선으로 철수명령을 받은 미군 사단들은 낙동강 방어선상의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이동을 개시하였다. 미 제25사단은 8월 1일 새벽, 남쪽의 신방어진지로 이동하던 중 서남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북한군 제6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8월 3일 마산에 투입되었다. 미 제24사단은 국군 제17연대를 배속받아 창녕과 영산 지역의 낙동강 돌출부로 이동하여 이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3일까지 왜관으로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 제1기병사단은 후미부대의 뒤를 따라 많은 피난민이 쇄도하자 이를 제지하느라 다소 늦게 왜관교를 폭파하였다. 미군 부대는 8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고 차후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으나, 현재의 전투력으로 최후의 저지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지탱하고,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낙동강으로 철수할 무렵 미군은 3개 보병사단이었고, 이들 사단의 각 보병연대는 대부분 2개 대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6개 보병대대를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단 전투력은 2개 연대 전투력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 제8군으로서는 부족한 사단을 완전편성의 사단으로 갖추고, 또 미 본토로부터 증원전력을 보충받아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한국전에 필요한 군비증강을 서두르는 한편 증원부대와 군수물자를 신속히 한국전선에 투입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 정부는 주방위군(4개 사단)의 현역군 편입과 250만 명 동원을 위한 준비,

그리고 국방예산의 증액(13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전투기를 비롯하여 전차부대를 한국전선에 투입하였고, 미 본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1해병여단, 미 제2사단을 파병함으로써 한국에 투입된 미군의 전력은 4개 보병사단에 1개 해병여단으로 증강되었다.

또한 전차 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도 대폭 증강되어 미 제8군의 전투력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향상시켰다.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전차보급으로 한국에 투입된 미군 보병사단은 전차대대(전차 69대 보유)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 미 제714철도수송대대가 한국에 도착해 보급수송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미 제8군은 각 사단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보병대대로 편성된 연대를 3개 대대로 편성시켜 나갔다. 이로써 한국 전선에 투입된 미군 4개 사단의 각 보병연대는 8월 말에 이르러 3개 대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편 미군은 카투사 제도를 도입해 주한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전력을 유지시켰다. 이 무렵 한국전선에 투입되는 주일미군사단은 평시 감소편성으로 병력이 부족한데다 전투손실의 발생으로 병력보충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보충병이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한국군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참가부대인 미 제7사단은 총 8,625명의 카투사를 배속받았고, 한국 전선의 미 제1기병사단·미 제2사단·미 제24사단·미 제25사단도 카투사를 보충받아 충원하였다.

이렇듯 미 본토에서의 증원과 카투사로 병력을 충원해 전투력에 다소 여유가 생기자 1950년 8월 하순 경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전선을 재조정하였다. 이로써 미군은 북한군의 9월 공세를 저지하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수행해 북한군을 추격하게 되었다.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1. 한미 양국의 전쟁목표

6·25전쟁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목표는 한반도 통일이었고, 그 방식은 힘에 의한 북진통일이었다. 그의 이러한 전쟁목표는 전쟁수행방식만 달리했을 뿐 전쟁기간 내내 유지됐다. 전쟁 초기 그는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미국이 참전한 이후에는 전쟁 국면의 변화와 관계없이 북진통일을 위해 매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목표는 미국을 참전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국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북진통일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참전과 유엔의 한국지원을 획득한 다음에는 총력전으로 전쟁을 지도했다. 6·25라는 민족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해 이승만 대통령은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카투사 제도를 설치하여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였고, 노무단·청년단·학도의용군의 자발적인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지원을 적극 장려하였다.

한편 낙동강 방어작전시 미국의 6·25전쟁 목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개전 초기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엔의 목표이자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쟁 목표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전쟁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공군을 파병한데 이어 지상군도 파병하였다. 특히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한국에서의 전쟁을 유엔을 통해 해결할 것을 밝혔다.

한미 양국의 전쟁지도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수행하였다. 특

히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의 의지는 누구보다 더 강하여 전쟁 기간 또는 전쟁 이후에도 이를 계속 추진하였다.

2. 이승만 정부의 전쟁지도

낙동강선 방어작전시 이승만 정부는 전시 전쟁지도본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한미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자 대구와 부산을 번갈아가며 전쟁을 지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정부는 대한민국 수호와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정하고 전쟁을 지도하였다. 정부는 낙동강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총력을 다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국군수뇌부는 전선의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전선의 부대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전쟁수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먼저 전시내각 기능을 수행할 전시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비상시향토방위령,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령, 징발보상령, 육군보충장교령 등 전시에 긴요한 치안·피난민 수용·징발·병력 보충 등을 통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특히 이승만 정부는 미군에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카투사 제도를 도입해 한미연합체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동안 지연전을 통해 부족한 국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경남 및 제주도 지역에 신병훈련소를 설치하여 일선 부대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수도인 대구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도 항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과 워커 장군 그리고 무초 미국대사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정부를 부산으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항상 전선에

서 싸우는 국군 장병과 같이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국민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반공과 국가수호정신으로 뭉친 전 국민은 북한군의 점령지역에서 탈출하여 한국 정부가 있는 경상도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정부는 이 지역에서 전시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온 국민이 동참하는 총력전 체제를 구축해 건국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특히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에 의한 유엔군의 참전은 국군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고, 전의를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 해·공군에 의한 제해권 및 제공권 장악과 북한군 후방지역에 대한 차단작전 및 전략폭격도적의 전쟁지속능력을 마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공세이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의 대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개전 초기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혼란을 겪었으나,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러서는 통수권자로서 또는 전시 전쟁지도본부로서의 역할을 미국 및 유엔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갔다.

3. 한미연합군 수뇌부의 작전지도

낙동강선 방어작전을 앞두고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 참모들에게 한국에서 철수란 있을 수 없으며, 한국 전선에서 제2의 덩커크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맥아더 원수는 그가 준비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륙부대를 선정하는 등 상륙작전을 9월 중순에 실시한다고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 사수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맥아더 입장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이 확보되어야만 인천상륙작전도 가능하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낙동강 방어작전을 지도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유엔군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세이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작전의 주안점을 두고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의 임무는 부산교두보를 확보하며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에 연계하여 즉시 공세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는 공세행동으로 적을 교란하고, 공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군사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교두보내의 국군과 유엔군은 증원부대와 보급수송을 위한 병참선을 확보하고 우세한 포병과 항공기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적극적인 역습으로 전세를 전환하여 장차 반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이러한 작전 개념에 따라 킨(Kean) 특수임무부대 작전을 지휘하였고, 낙동강 돌출부 전투, 왜관-다부동 전투, 안강-기계전투, 영덕-포항 전투 등을 지휘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돌파한 곳에는 반드시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역습을 위한 병력을 차출하고, 공·지합동작전의 통합된 화력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중 내선에 있는 유엔군은 북한군이 돌파한 지역 정면에 예비대를 투입시켜 적의 돌파구를 저지한 뒤 역습하는 형태의 전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 수뇌부들은 전선지역의 부대를 방문하여 격려하거나 군 병원을 찾아 전상을 입고 입원한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다부동·영천 전선을 방문해 일선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신성모 국방부장관도 '최근의 전국과 우리의 각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적을 반드시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이 북한군 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전국에 발표하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한미 양국의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도 전선에서 진두지휘하였다. 그들은 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전선에 위치하며 전선의 긴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적시에 조치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특히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최초로 실시된 한미연합작전에서 미군에게 한국군도 믿고 싸울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게 됨으로써 장차 미 제1군단에 배속된 유일한 한국군 사단의 지휘관이 되어 평양에 첫 번째로 입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영천의 위기를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9월 중순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고, 특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하여 많은 고급 장교들이 장군으로 승진하게 된 것도 모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낙동강선 방어작전의 성공은 정부의 총력전 체제 구축과 전쟁지도, 한미군 수뇌부의 역량 있는 작전지도, 이를 믿고 따르는 국민과 장병들이 하나로 굳게 뭉친 결과의 산물이었다.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1. 지상 작전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위기를 구한 작전이었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일진일퇴(一進一退)의 절박한 상황속에서 전개된 결전의 연속이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병력의 부족·상륙지형의 악조건 등 불비한 여건에도 인천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였고, 미 제8군사령관은 위급한 전선을 방문하며, 부족한 병력에서 예비대를 차출하여 적에게 돌파된 지역에 예비대를 투입하는 과감한 역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 형성 과정부터 시작하여 낙동강선 방어작전 전 기간을 통해 불비(不備)한 전장 환경속에서 적의 끈질긴 동시다발적 공세를 막아내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였다.

낙동강 방어작전은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정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7월 31일부터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한미연합군은 미처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쳤다. 그것은 충청, 전라남도를 거쳐 마산 서부 축선으로 북한군 제6사단의 대우회기동에 따른 부산 서부지역의 위협이었다. 이로 인해 미 제8군은 한 때 긴장하였으나, 미 제25사단을 신속히 전용·배치함으로써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동부전선의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8사단은 안동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엄호부대인 수도사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북한군이 철수하는 제8사단의 뒤를 바짝 추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군이 강을 건너기도 전에 안동 인도교와 철교를 조기에 폭파해 제8사단이 재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미연합군은 이러한

험난한 철수과정을 거치며 8월 4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점령하여 북한군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한편 북한군은 광복 5주년이 되는 8월 15일까지 반드시 전 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동강 전선에 총력을 투입하였다. 북한군은 8월과 9월 2차에 걸쳐 총공세를 실시하였다. 8월 공세시 북한군은 대구에 주공을 지향함과 동시에 전 전선의 가용한 모든 접근로에서 공격을 전개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어느 축선에서든지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대하여 후방 깊숙이 진출해 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13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고, 주력을 대구-부산 축선에 지향한 후 전 전선에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최초 낙동강 연안(X선)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8월 12일에는 축소된 방어선이자 최후의 저항선인 'Y'선으로 철수하여 이곳에서 북한군과의 결전을 통해 대구를 사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 제8군은 적의 주공이 지향된 대구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다부동 일대의 국군 제1사단 방어지대에 미군 2개 연대를 긴급 투입해 적의 보·전·포 공격을 저지하고 대구를 사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대안에 집결된 북한군 병력 및 물자를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 융단폭격을 실시하여 북한군에게 심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그들의 전투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8월 공세가 종반전에 접어들자 마산과 다부동 정면을 제외한 모든 전선에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에 북한군은 8월 20일부터 9월 공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국군과 미군은 병력 충원과 본토의 증원부대와 영국 제27여단이 도착함에 따라 작전운용에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미 제8군은 8월 공세시 적의 주공이 지향되었던 상주-다부동-대구 축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정면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미 제1기병사단의 방어지역을 다부동 동쪽 가산산성 일대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8월 한 달 동안 다부동 일대를 사수한 국군 제1사단은 인접 팔공산 북서쪽의 제6사단 방어지역의 일부를 인수함에 따라 국군 전체의 방

어정면이 20㎞ 정도 축소되었다. 또한 미 제8군은 새로 도착한 영국 제27여단을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하여 미 제1기병사단의 확장된 방어책임을 보완하여 주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9월 공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9월 공세시 북한군은 신편 중인 사단을 제외하고 13개 사단 모두를 5개 공격집단으로 편성하여 대구·영천·경주·창녕·마산 정면으로 각개돌파를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미군이 방어하고 있는 낙동강 서부지역과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낙동강 중동부 및 동해안 지역에 대한 공격에 시차를 두고 실시하였다.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의 주요 지점인 다부동, 마산, 낙동강 돌출부, 영천, 포항 지역이 점령되거나 돌파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막강한 유엔 해·공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미 제8군의 과감한 예비대 투입과 과감한 역습으로 적을 격퇴하고,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총반격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2. 해·공군 작전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해·공군의 역할이 매우 컸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부산교두보 방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해·공군 덕분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해·공군의 지원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리지웨이 장군도 후에 그의 회고록을 통해, 만일 지상군이 공군과 해군의 지원 없이 작전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공산군이 전쟁개시 60~90일 사이에 유엔군을 대한해협으로 밀어냈을 것이라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은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기 전까지 주로 부산에 보급품 수송지원, 동해안 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으로 적의 남진을 지연하였고, 7월 중순 미 제1기병사단을 긴급 수송하여 포항에 상륙시켜 지상전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미 제5공군과의 협력하에 적의 보급선을 파괴시키는 차단작전에 참여하였다.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은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

된 이후에는 해안순찰 및 봉쇄, 해상에서의 적 지역에 대한 포격을 통한 방호 및 북한군의 병참선 차단, 아군 인원 및 물자 수송 등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미 극동해군은 수심이 비교적 얕은 서해 연안에는 한국 해군을 배치하였고, 외해(外海)에는 영국과 캐나다 해군을 배치하여 해상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수심이 깊고 육지 근해에까지 접근이 가능한 동해안에는 미국의 대형 함정을 배치하여 해안선에 배치된 적의 병력, 철도, 차량 및 보급소를 파괴하여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또한 남서 해안에서 북한 해군에 대한 해상봉쇄작전을 실시하여 적의 병력 200명과 선박 50여척을 격침하였다.

한편 인천상륙작전 일환으로 실시된 사전 첩보수집 및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한 영흥도와 덕적도의 점령을 지원하여 인천지역 주둔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해군은 진해 군항에 대한 방위책임을 일원화함으로써 이 지역에 전비태세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낙동강 방어작전간 유엔 해군은 부산교두보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 4척을 한국 해역에 투입하여 함재기를 통해 지상군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유엔 해군 함재기는 총 2,481쏘티의 항공지원을 실시해 적 병력, 전차, 차량, 군수물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한편 한국 공군 비행단은 미 제5공군 전방부대에 대구기지를 인계하고 차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진해기지로 이동하여 비행훈련과 정비교육을 받았다. 그 후 적의 공세로 낙동강방어선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비행단은 8월 15일부터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유엔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작전을 감행하였다.

한국공군 비행단의 출격작전은 주로 낙동강 남부 방어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적과 경부선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이 작전은 한국군만으로 수행된 최초의 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작전으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중 F-51전투기는 총 93회를 출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고, F-51전투기의 대지공격작전을 지원한 T-6기는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256회를 출격하였다. 또한 정찰비행

대는 적정정찰 및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며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유엔공군은 북한의 군수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과 보급수송로 등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투력과 보급수송체계를 마비시키고, 유엔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상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8월 16일 유엔공군은 적 집결지로 판단되는 왜관지역에 B-29전략폭격기 98대를 투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융단폭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에게 물리적·심리적 타격을 주었다. 또한 북한군은 유엔공군의 지속적인 항공공격으로 야간에만 전투와 기동을 하였으며, 그마저도 야간출격이 강화되어 더욱 어려움에 처하였다.

특히 유엔공군은 인천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후방차단작전을 강화하고, 북한지역 전략목표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는 한편, 근접지원과 사진정찰 및 심리전 일환의 전단 살포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9월 10일에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작전에 대비 전투공수사령부를 창설하여 장차 지상군의 총반격작전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다.

(집필 : 남정옥)

부 록

1. 연 표
2. 국군 작전명령

1. 연 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8. 1	군 사	• 안동 철수 • 미 제25사단 왜관에서 마산으로 이동개시 • 미 제24사단 제19연대 진주고개에서 봉방산 능선으로 이동 • 건국호(T-6) 15:00~17:00시까지 진해 해상에서 시험사격 실시 • F-51 비행부대 진해와 김해기지에서 훈련개시(8. 5~8. 14) • 미 제8군 및 한국군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명령
	정·치 경 제	• 긴급국무회의 개최 – 국무원안에 전시대책위원회 설치 – 위원 : 신국방, 조내무, 최재무, 김상공, 김교통 각부장관 • 비상시 향토방위령 폐기 공포
1950. 8. 2	군 사	• 아군 제6사단지휘소 용기동에서 도원동으로 이동 • 미군 김천에서 철수 • 미 해병 제5여단 부산에서 상륙 마산 방면으로 진출 • 아군 제1사단 합창지구에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개시
1950. 8. 3	군 사	• 낙동강 유역의 교량파괴(낙동강 철교, 왜관교, 초계~일녕간 교량, 용포교) • 공군병원 동래로 이동 • 미 해병 제5여단 부산에 상륙완료 • 아군 제1사단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완료 • 적 제13사단 상주에 집결 • 적 제13사단의 선발대(연대병력) 낙동리에서 도하하다가 아군 제12연대에 의하여 섬멸 당함
1950. 8. 4	군 사	• 의령지구 남강교 파괴 • 제8사단장 후임으로 최덕신 대령 취임 • 제1사단 제12연대 상림동으로 철수사단 예비 • 낙동강상의 대부분 교량 완전파괴
	정·치 경 제	• 비상시 향토방위령 긴급 명령 제9호 재차 공포 •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45호) 공포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8. 5	군 사	• 적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공격 개시 • 적 제15사단 구미에 진출 • 적 제3사단 성주 약목일대에 진출 • 뉴질랜드(New Zealand) 의용군 9일간에 6,000여명 지원
1950. 8. 6	군 사	• 적 제4사단 영산정면에서 조항나루터로 침입 • 미 해병 제5여단 미 제25사단에 배속
1950. 8. 7	군 사	• 아군 제17연대 대구로 이동 • 미 해병 제5여단 처음으로 적과 교전 • 캐나다, 한국파견 여단편성 완료
1950. 8. 8	군 사	• 아군 제19연대 적 1개 연대를 석주막 북쪽으로 격퇴하고 36고지 점령 • 아군 제1사단 제11연대 해평지구에서 적 전차 4대를 57㎜ 전차포로 파괴
1950. 8. 9	군 사	• 수도사단, 기계, 안강지구에서 격전(8. 9~9. 5) • 아군 제3사단 강구에서 장사동으로 이동 • 아군 제2연대 지휘소를 청성동에서 안령동으로 이동 • 적 제4사단 영산에 침입 • 적 제12사단 기계 침입 • 아군 제1사단 제12연대 특공대 석적국민학교에서 적 전차 4대 파괴 1대 노획
1950. 8. 10	군 사	• 아군 제17, 제26, 제25연대, 제1유격대대 해군육전대, 미 제18보병대대 C중대로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창설 • 미 브래드리(Bradley) 특수임무부대, 포항에서 전투(8. 10~8. 20) • 아군 제8사단 적에게 반격전 전개 • 미 육군성 한국군 5개 사단편성을 인가 • 미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 창설
1950. 8. 11	군 사	• 제17연대 안강지구로 이동 • 미 해병 제5연대 고성을 탈환후 계속 전진 • 미 제35연대 진주고개 점령 • 아군 제1사단 제13연대 369고지 201고지 완전 점령
	정·치 경·제	• 비상향토방위령세칙 공포 • 공보처 피난민 수용임시조치법 및 징발특별조치령 내용 발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8. 12	군 사	• 아군 제1연대 및 제26연대 안강지구로 이동 • 아군 제1유격대대 입암에서 적 차량대 기습 • 아군 제6사단 매봉산과 산운동선으로 이동 배치 • 아군 제1사단, 11연대, 12연대, 13연대 Y선으로 철수 • 미 공군성 장교급소집 위관급 : 1,762명, 군의관 : 1,532명
	정·치 경·제	• UN한국위원단 인도(India) 대표 나얄 대령 왜관 북방에서 지뢰사고로 순직
1950. 8. 13	군 사	• 아군 제8사단지휘소 의성에서 벌전으로 이동 • 아군 제6사단지휘소 화수동으로 이동 • 미 해병 제5여단 주력 사천 5㎞ 전방까지 육박 • 기갑연대장에 백남전 중령 취임 • 아군 제1사단 주력 Y선상에 전개 그러나 적 이미 수암산, 유학산 점령 • 아군 제12연대 제2대대 수암산 점령 • 아군 제12연대 제1대대 673고지 공격
1950. 8. 14	군 사	• 아군 제18연대와 기갑연대 입암의 적을 공격한 다음 입암에 점령 • 아군 제1사단 제15연대 328고지 피탈후 재점령
	국·제 정·치	• UN경제사회이사회 한국 피난민 구제문제를 결의
1950. 8. 15	군 사	• 제18연대와 기갑연대 기계탈환전에 참가 • 제8사단 사령 벌전에서 자천으로 이동 • UN사령관 카츄사병 증원계획을 승인 • 적 제8사단주력 의성에서 구산동으로 남하 • 공군 F-51비행부대 본격적으로 출격개시 • 아군 제1사단 제15연대 328고지 피탈
1950. 8. 16	군 사	• 미극동공군 폭격사령부 B-29중폭격기 98대 왜관지구 폭격 • 카츄사(KATUSA)병 훈련차 313명 일본으로 이송 • 아군 제15연대 328고지 탈환 • 아군 제12연대 제1대대 837고지 점령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8. 17	군 사	• 아군 제8사단 제10연대 대구에서 보현산지구로 이동 • 수도사단과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안강에서 적 제766부대를 섬멸 • 아군 제3사단 독석동에서 구룡포로 해상 철수 • UN 제77기동부대 청진과 원산지구 폭격 • 공군통신대 주력 진해에서 대구 공군본부로 이동 • 아군 제15연대 제2대대 355고지 점령
1950. 8. 18	군 사	• 미 제27연대 대구에서 다부동지구로 이동 • 민부대 포항 탈환 • 수도사단 기계 탈환 제1사단 유학산부근전투(8. 18~8. 26) • 아군 해병대 통영에 침입한 적 주력을 섬멸 • 아군 해군 덕적도에 상륙 • 적 제15사단 영천정면으로 이동을 시작 • 아군 제12연대 제3대대 517고지 점령 • 아군 제11연대 미27연대와 반격 개시(다부동지구) 2㎞ 전진
	정 치 경 제	• 대구시민 소개 •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천도 • UN군사령부에 150만명의 남한 피난민 원조를 위한 기구 설치
1950. 8. 19	군 사	• 아군 제3사단 포항 탈환, 수도사단 기계 탈환 • 민부대 대구로 이동 • 미 제23연대 주력 밀양에서 다부동 방면으로 이동 • 미 제2사단 제38연대 밀양에 도착 • 미 해병 제5연대 창원에 배치
1950. 8. 20	군 사	• 부산에 제2보충병 훈련소를 설치 • 민부대 제6사단에 배속후 대운동으로 이동 • 제7사단을 재편성(독립유격 1, 2대대 민부대) • 미8군 미 제24사단과 제2사단을 교체, 제24사단 경산으로 이동한 다음 군예비로 함 • 아군 해군 영흥도에 상륙 • 적 전선사령관 김책, 각군에 제5차 작전명령 하달 • 아군 제15연대 328고지에서 적 완전 격퇴 • 제10연대 제2대대 제11연대 2대대와 협동으로 741고지를 점령 • 아군 제11연대 제3대대 673고지를 9차의 공격끝에 완전 점령 • 적 제15사단 유학산 정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이동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8. 21	군 사	• 기갑연대를 아군 제6사단에 배속 • UN군 제10군단을 창설
	정 치 경 제	• 정부 징발보상령 공포
1950. 8. 22	군 사	• 아군 제12연대 1, 3대대 유학산 완전 점령 • 적 제13사단 포병연대장 정봉욱 중좌 귀순 • 영국 해병대 출발준비완료 공수대기중
1950. 8. 23	군 사	• 적 제8사단사령부 의성에서 청로동으로 이동 • 적 1개 연대 가산남방 4㎞ 지점 570고지에 진출
1950. 8. 24	군 사	• 아군 제8사단장에 이성가 대령 임명 • 적 제9사단 협천에 집결. 낙동강 도하 준비 • 아군 제10연대 주력 570고지 공격 점령 • 아군 제11연대 및 미 27연대 신주막선에 진출
	정 치 경 제	• 국무회의에서 피난민구호 5대원칙 결정
1950. 8. 25	군 사	• 아군 제2연대 지휘소 구지동으로 이동 • 미 제27연대 신주막에서 마산으로 전진(轉進) • 적 13사단 신주막 일대에서 큰 솔실을 입고 공격능력 상실, 잔여병력 1,900명, 포 10문, 전차 7대
1950. 8. 26	군 사	• 미 제10군단장에 알몬드(Almond) 소장 임명 • 미 제34연대를 해체하여 제19연대와 제21연대에 편입 • 적 제1사단사령부 구지동으로 이동
1950. 8. 27	군 사	• 아군 제5연대장 이영규 중령 전사, 후임에 최창언 대령 임명 • 미 잭슨특수임무부대 포항, 경주지구에서 전투(8. 27~9. 7)
1950. 8. 28	군 사	• UN군사령부 제10군단을 편성 미 제1해병사단, 제7사단, 한국 제17연대, 한국해병대 • 제12연대 제2대내 수암산 완전 탈환
1950. 8. 29	군 사	• 아군 제6사단 조림산 일대에서 철수 • 영국 제17보병여단 부산에 도착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8. 30	군 사	• 아군 제1사단 다부동지구에서 신녕지구로 이동 • 아군 제6사단 조림산 부근에서 전투(8. 30~9. 4) • 아군 제1사단은 328고지, 수암산, 신주막에 이르는 전선을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신녕지구로 이동
1950. 8. 31	군 사	• 아군 제1사단 가산지구에서 격전중(8. 31~9. 4) • 적 제1군단 23:30 낙동강 서부에서 공격 개시 • 한국파견 오스트레일리아군 제1제대 일본에 도착
1950. 9. 1	군 사	• 제1군단장에 김백일 준장 임명 • 아군 제3사단장에 이종찬 대령 임명 • 수도사단장에 송요찬 대령 임명
	정치·경제	• 이대통령 제2국민병 등록에 관한 담화 발표
1950. 9. 2	군 사	• 미 제1해병여단 밀양에서 영산으로 이동 • 적 제2군단 18:00시에 북부에서 공격 개시
1950. 9. 3	군 사	• 영산정면에서 미 해병대 반격개시(08:55)
1950. 9. 4	군 사	• 아군 제7사단 제8연대 신녕에서 영천으로 이동(제8사단예비대) • 제8사단 제21연대지휘소를 선천동으로 이동 • 적 제2군단장 제15사단장에게 영천 점령을 독전
1950. 9. 5	군 사	• 아군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 영천선방어에 관한 작전회의 개최, 2개 연대 중원을 결정 • 아군 제1사단 팔공산에서 격전중(9. 5~9. 15) • 아군 제6사단 화산부근에서 격전(9. 5~9. 15) • 아군 제3사단 형산강 이남으로 이동 • 적 제15사단 영천북방에서 공격 개시 • 육군본부 부산으로 이동개시
1950. 9. 6	군 사	• 미 8군사령부 부산수산대학에서 업무개시 • 아군 제19연대 18:00시에 영천으로 이동, 아군 제11연대 12:00시에 금호로 이동 • 제8사단사령부 영천읍에서 오수동으로 이동 • 적 제15사단 영천 점령 제8사단 제9공병대대, 제3연대 1대대 영천 탈환 • 미 제24사단 07:00 영산에 경주로 이동 완료 • 미 제5해병연대 영산정면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위하여 부산으로 이동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9. 7	군 사	• 아군 제19연대 적 후방부대를 기습 완전 섬멸
1950. 9. 8	군 사	• 적 총참모장 강건 전사 • 아군 제8사단 제19연대 형산강전선에서 경주를 경유 9일에 도계리에 이동
1950. 9. 9	군 사	• 미합동참모본부 인천상륙작전을 승인
1950. 9. 10	군 사	• 아군 제7사단, 제8사단 영천지구에서 적 제15사단에 반격개시
1950. 9. 11	군 사	• 해병대 인천상륙작전으로 위하여 부산에서 출동준비 완료 • 미 제9군단장에 콜트(Jphn B. Coulter) 소장 임명
1950. 9. 12	군 사	•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편성 착수
1950. 9. 14	군 사	• 아군 제15연대에 가산 점령 •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 570고지 점령 • 장사동 기습 상륙

2. 국군 작전명령

부록 제1호
육본작전 제94호 1950. 8. 2. 03: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一. (1) 미 제1기갑사단은
가. 미 제25보병사단의 8월 1일~3일 3일간의 야간에 있어서의 이동 및 재집결을 원조한다.
나. 미 24보병사단의 이동완료즉시로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선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한다.
다. 동부 및 남동부지구의 적 행동을 계속 저지한다.
(2) 미 제24보병사단은
남부지구 미 제25보병사단과의 교대완료 즉시 지구내 "Y"선상의 선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한다.
(3) 미 제25보병사단은
가. 8월 1일~2일간의 야간에 1개 전투와 사단사령부를 신 담당지구대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제24, 제24사단 전투지경 남방의 미 지상군과 교대한다.
나. 잔여 사단병력은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신 담당지구내 "X"선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한다.
다. 8월 2일~3일까지 "X"선 동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한다.
라. 신 지구동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고 서방에 대하여 공격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한다.
(4) 연합군 공군 변경무
(5) 연합군 해군 변경무
(6) 폐리전투부대 변경무
二. (1) 한국군은 8월 2일~3일 야간까지 "X"선 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Y"선 남부 빛 동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2) 주요보급로 경호에 관한 책임은 계속 담당하라.
三. (1) 제1군단은
가. 현 방어진지(작전요도 "X"선)남부의 적행동을 8월 2일~3일 야간까지 계속 저지하라.

나.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선(작전요도) 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구내 "Y"선 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이동은 제2군단과 협조하여 실시하라.
다. 1개 연대를 군단예비로 보유하라.
(2) 제2군단은
가. 현진지(작전요도 "Y"선) 남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8월 2일~3일간의 야간까지 계속 저지하라.
나.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선(작전요도)상 선정된 진지로 이옹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구내 "Y"선 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이동은 미 보병제25사단과 협조하여 실시하라.
다. 제3사단은 현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3) 가. "Y"선상의 선정된 진지에 대한 수색은 8월 1일~2일간에 실시하라.
나. 전 부대는 접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정찰수색을 실시하라.
다. 담당지구 외의 이동은 해당부대 본부와 협조하여 실시하라.
라. 인접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하라.
마. 이외의 이동은 차 사령부명령이 있을 시에 한하여 실시하라.
바. "Y"선(작전요도)으로서의 이동을 개시한지 50% 완료된 시엔 즉시 차 사령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라.
사. 후송치 못하는 보급품과 물자는 파괴하라.
이하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2호
육본작명 제98호 1950. 8. 3. 20: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명령
一. (1) 영덕방면으로 남진하던 적 제○사단주력은 아군의 맹공으로 남하를 저지당하고 그 일부 병력을 보현산 방면으로 침투 남하시켜 아 후방교란을 기도중임.

(2) 아 유격대 및 정찰대는 해적을 맹공 중임.

二. 군은 일부병력을 교대하려 함.

(1) 제3사단장은 예하 제1유격대대장을 1950. 08. 04, 12:00까지 구산동(1188~149)에 진출시켜 공병단장으로부터 별표 장비를 인수하고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2) 공병단은 별표 제1의 준비를 제1유격대대에 인계하는 동시 당면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 인식시키라.

이하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별표

장비:	0.5인치 기관포 2정	경 기 1정
	60㎜ 박격포 2분	81㎜ 박격포 3분
	경 체코기 4정	

부록 제3호

군단작명 제49호 1950. 8. 8. 13:00

제1군단사령부

一. (1) 청송 방면으로부터 남침 중인 적 약 1개 연대는 계속 남하 중이며 그 일부는 작 8월 7일 16:00 도평에 침입하였음.

(2) 보현산 방면에서 잠동하는 적은 계속 부근촌락에 출몰하고 있으며 아 제1유격대 및 경찰대대는 해적을 공격 중에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구산동 및 도평동에 진출시켜 해지구를 점령, 적의 남침을 저지하려함.

三. 기갑연대는 즉시 구산동에 지하여 정면의 적을 도평 방면으로 압박 공격, 도평을 확보, 남하하려는 적을 저지하여 격멸하라.

이하 생략

제1군단장 육군소장 김 홍 일

부록 제4호

1군단작명 제51호 1950. 8. 9. 20:00

제1군단사령부

一. (1) 적은 도평 방면에 대부대를 집결하여 연천, 대구 방면에 남진을 기도 중에 있음.

(2) 아부대는 적의 남진을 적극 저지하고 있음.

二. 군단은 도평동 방면의 적을 격감하려 함.

三. (1) 수도사단장은 제17연대를 8월 10일 05.00시까지 구산동에 이동시켜 도평 방면의 적을 격멸하라.

(2) 제10포병 대대장은 대대본보의 구 수도사단 배속 포병 1개 중대를 인솔, 수도사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四. 이하 생략

제1군단장 육군소장 김 홍 일

부록 제5호

육본작명 제119호 1950. 8. 11. 11: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1) 군은 차기 적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12~13일 야음을 이용하여 "X"선까지 13일 14일 야간에 "Y"선까지 전진하려 함.

(2) 생략

三. (1) 생략

(2) 제2군단

가. 제1사단은 8월 12~13일간 야음에 동지구 "X"선으로 전진하라. 13~14일간 야음에 "Y"선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각 연대는 증강된 1개 대대를 원효대로서 현재선에 잔치시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라.

나. 항이하 3, 4, 5
四. 생략
五. 생략
기타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6호
2군단작명 제12호 1950. 8. 11. 18:00
경북 군위

제2군단사령부

一. (1) 적은 계속 낙동강을 도하하려 함.
(2) 군은 연합군과 같이 전략적으로 우세한 지형을 확보하려 함.
二. 당군단은 인접부대와 밀접한 협조하에 강력한 엄호부대에 의하여 "Y"선에 진지를 점령하려 함.
三. (1) 제1사단장은 제1기갑사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X일 20:00 행동개시 상림동~다부동을 경유 "Y"선에 진주하라.
(2) 제6사단장은 제1사단 제8사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X일 20:00 행동개시 도원리~군위~의흥을 경유 "Y"선에 진주하라.
(3) 군단본부 및 직할부대는 X일 13:00 행동개시 군위~신녕~영천 경유 하양에 진주하라.
(4) 각 연대는 증강된 1개대대의 엄호부대를 현재선에 잔치하여 후퇴는 사단에서 통합지휘하라.
(5) X일은 차후 지시함.
四.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유 재 흥

부록 제7호
1군단작명 제56호 1950. 8. 12. 15:30

제1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부대를 이동하여 당면의 적을 격멸하려 함.
三. (1) 수도사단장은 사령부 및 제1연대를 즉시 영천으로 이동하라.
(2) 제8사단장은
가. 사령부를 임시 구산동에 설치하여 독립 기갑연대 및 도평·구산동·자천 방면의 경찰부대를 통합 지휘하라.
나. 예하부대를 즉시 철수하여 별지 투명도 MLUR에 8월 14일 06:00까지 배치하여 차선을 확보하라.(중점을 도평방면에 지향하라)
다. 복동(1448. 5~1192. 4) 하송동(1190~1473)간 도로를 정찰보고하라.
(3) 병력철수는 축차 실시하며 소부대로서 엄호하라.
(4) 유격대출몰에 대비하여 특히 사주경제에 유의하라.
(5) 각 대는 최대한도록 예비대를 보유하라.
四. 이하 생략

제1군단장 육군소장 김 홍 일

부록 제8호
1군단작명 제59호 1950. 8. 15. 17:00

제1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작명 제58호 군대 구분으로서 유격연대를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편입하였으나 차명령으로 유격연대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려 함.
三. (1) 유격연대장 중력 김용주는 제1유격대대 및 제2유격대대를 통합지휘하라.
(2) 유격연대는 군단작명 제58호로서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들게 되었으나, 지동지구에 제8사단이 진출할 A지까지 당면의 적을 격멸하고 제8사단의 진지점령을 엄

호한 후 포항지구 전투사령관 지휘하에 들라.
(3) 제1유격대대본부를 즉시 인구동에 이동케 하라.

제1군단장 육군소장 김 홍 일

부록 제9호
2군단작명 제16호 1950. 8. 20. 19:00
경북 하양

제2군단사령부

一. (1) 제1사단 정면의 적은 주력으로 신주막방면으로서 계속 남하를 기도 중 제6사단 정면의 적은 주력으로 효령 방면으로서 계속 남하를 기도 중.
(2) 군은 연합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차후에 반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일부 증원부대를 얻어 효령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선멸하려 함.
三. (1) 육본작명 제140호에 의하여 민부대는 영천, 신녕, 신천동에 진주하라.
(2) 민기식 부대는 예하부대를 총합지휘하에 신천동에 도착 후 제7연대 및 제 11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주력으로서 마사동 373.8고지의 적을 공격 점령 후 효령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라.
(3) 민기식부대는 마사동 373.8고지를 점령후에 제6사단에 배속함.
(4) 제6사단장은 민기식부대를 통합 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유 재 흥

부록 제10호
2군단작명 제24호 1950. 8. 30. 12:00
경북 하양

제2군단사령부

一. (1) 적은 조림산을 거점으로 주력을 제2연대정면, 일부 병력으로 화산(1176.4~1465) 정면에 진출을 기도함.
(2) 군은 남진하는 적은 진전에서 격멸 중임.
二. (1)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2) 전투지경은 별지 투명도
三. (1) 제1사단장은 제15연대를 50. 8. 30. 12:00를 기하여 제6사단에 배속하라.
(2) 제6사단장은 제15연대를 통합 지휘하여 화산 방면의 적을 공격 섬멸하라.
(3) 제11연대는 군 예비대를 해체하는 동시에 원대로 복귀하라.
(4) 제19연대는 제7연대와 점령지역을 교대 즉시 군 예비대로서 반대로 이동 육본의 지시를 받으라.
(5) 포병 제17대대에서 제6사단에 배속한 포병 1개 중대는 제5연대 기갑연대가 제11연대와 교대하는 즉시로 원대복귀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유 재 흥

부록 제11호
2군단작명 제27호 1950. 9. 1. 13:00
경북 하양

2군단사령부

一. (1) 적은 조림산을 거점으로 봉림동을 점령 백학동에 진출을 기도 중임.
(2) 군은 총공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1부전투지경을 변경하려 함(투명도 원문 참조)

三. (1) 제6사단장은 370.3고지(1164.6~1470.4) 부근의 점령구역을 50. 9. 1. 21.00에 제1사단에 인계하라.
(2) 제1사단장은 제6사단장으로부터 370.3고지 부근의 점령구역을 50. 9. 1. 21.00에 교대 인수하라.
(3) 각 사단은 군단작명 25호에 의한 행동을 서면으로 보고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유 재 흥

부록 제12호
육본작명 제165호 1950. 9. 5. 11: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명령
一. 적 제12사단주력 및 제15사단일부는 안강-경주방면으로 강력히 남하중이며 적 제15사단 주력은 영천방면으로 침입 대구방면의 아군 주력을 위협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배속 이동시키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공병대대 사병 200명을 9월 5일 14:00까지 영천에 이동시켜 제1군단장에 배속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배속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3호
육본작명 제169호 1950. 9. 5. 13: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명령
一. (1) 제1군단정면의 적은 유력하고 일부는 영천-포항천을 돌파하고 경주방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영천방면으로서 남진하여 영천이서지구 아군 견제를 기도 중임.
(2) 제2군단방면의 아군은 의연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배속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제1사단 제12연대 제3대대를 9월 5일 14:00까지 신녕(1176~1460)에 집결시켜 육군본부에서 별명이 유할시까지 미군 전차대대장의 지휘하에 임하라.
(2) 배속후의 세부는 미군 전차대장이 지시함.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4호
육본작명 제170호 1950. 9. 8. 11:00
경남 부산

육 군 본 부

명령
一. 적 인민군 제15사단 주력은 아군 제1, 제2군단 중간지구에 침투하여 계속 남진을 기도 중임.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군단장은 육본작명 제166호로 배속함. 예하 제19연대를 즉시 원대 복귀시키라.
(2) 2군단은 원대 복귀한 전기 병력으로써 제1군단과 제2군단의 간격 아화지구(1202~1443)를 연계시켜 적을 저지 섬멸하라.
(3) 제2군단장은 이동완료와 동시에 즉시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부대이동은 자체차량으로 실시하라.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5호
육본작명 제174호 1950. 9. 10. 16: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一. (1) 적 약 2개 사단은 포항(1234~1461) 안강(1220~1455)선을 점령하고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2) 아군 제3사단은 이 적에 대하여 맹렬한 섬멸을 전개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육본 직할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작전을 유리케 하라.
(2) 세부는 작전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지시케 함.
四. 행정사항
(1) 보급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라.
(2) 후송 및 의료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후송 및 의료를 담당하라.
(3) 수송
가. 별도 운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五. 통신사항
(1) 제51통신대대장은 하기인원과 기재를 동유격대대에 파견하라.
1) 인원
암 호 병 1명
선임하사관 1명
무선정비병 1명
무선통신사 2명(SCR 694용)
유선가설병 2명

무선통신사 5명(SCR 200용)
계 12명
2) 기재
SCR 694 1대
(2) 유격대대장은 좌기인원을 장악 지휘하라.
(3) 유격대대장은 제1군단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본과 연락하라. 통신제원은 별도 지시함.
(4) 제1군단장은 위 유격대대와 육군본부와의 무선통신을 군단지휘망을 이용 중계하라(단 현군단지휘망의 변경은 무하며 단지 유격대대의 군단지휘망내 가입분이며) 동대대 호출부호는 XF 2임.
(5) 제4항 실시는 동대대가 P점 도착 즉시로 개시하라.
(6) 유격대대장은 기타 세부지시를 육본 통신감실에서 수령함과 동시에 항공기와 연락규정수령차 장교를 출두케 하라.
(7) 제1항 기입외의 필요통신기재도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6호
육본작명 제176호 1950. 9. 12. 12: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一. 영천을 점령하고 대구방면의 아군을 견제하며 경주방면으로 일거 돌파를 기도하던 적은 아군의 반격으로 패주하여 안강방면에 집결 중임.
二. 군은 일부병력을 진출시켜 당면의 적을 섬멸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아래에 의거 적을 공격섬멸하라.
가. 제8사단은 별지 투명도상에 표시된 목표를 공격확보할 것이며 현재 제8사단 지구에서 작전하고 있는 제6, 제7사단병력을 원대 복귀시키라.
四. 변경사항 없음.
五.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7호
육본작명 제177호 1950. 9. 12. 17: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一. 적 제12사단 제3연대는 대동리(1218.5~1451.4)일대 동 제2연대는 두류리(1214~1452)일대 제1연대는 무능산(1216~1450.5)일대에서 준동하고 있음.
총병력 약 5,000
포 13문
전차 8210대
를 보유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제2연대 제1대대를 서기 1950년 9월 12일 24.00시까지 신당리(1222.2~1444)에 이동시켜 제1군단에 파견한 2연대 주력과 합류하여 제1군단장지휘하에 들어가게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총합지휘하여 당면의 적을 섬멸하라.
(3) 제1군단장은 해병력 도착과 동시에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四. (1) 수송은 육로 자대수송에 의하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1) 제2군단장은 예하 이동부대로 하여금 통신기재 장비를 휴대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부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8호
육본작명 제181호 1950. 9. 14. 20:00
경북 대구

육 군 본 부

一. 적은 좌익 전선의 붕괴 후 태세만회를 위한 반격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사, 12사 주력은 포항 안강정면에서 견고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7사단 제1기갑연대를 9월 15일 24:00까지 경주로 이동시켜 제1군단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2) 제1기갑연대는 경주이동 즉시로 수도사단장 지휘하에 입하라.
四. (1) 수송은 제2군단 및 기갑연대 차량으로서 육로 수송하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1) 제2군단장은 예하 이동부대장으로 하여금 통신기재 장비를 휴대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부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부록 제19호
육본작명 제182호 1950. 9. 14. 18:00
경남 부산

제 1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김백일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송요찬
제1연대
제18연대
제1기갑연대
제 3 사 단 사단장 육군대령 이종찬
제22연대
제23연대
제26연대
제 2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유재흥
제 6 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김종오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제 8 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이성가
제10연대

一. 당면의 적은 12사단 1, 2, 3연대 및 15사단 패잔 일부병력임. 15사단 잔적은 기계방면으로 북상 입암리 부근에 집결 기도중인 것 같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진출시켜 당면의 적을 공격 섬멸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7사단(결 3R, 8R 제3대대)으로 하여금 별지 작전투명도상에 표시된 목표를 1950년 9월 15일 24.00까지 공격 점령하라.
(2) 수도사단장은 기갑연대로 하여금 1950년 9월 16일 24.00까지 제7사단의 임무를 교대케 하고 그 지대를 확보하라.

(3) 제7사단장은 예하 임무를 수도사단에 인계후 1950년 9월 17일 12.00까지 경주에 집결한 후 군 예비대가 되라.

(4) 제7사단장은 경주에 집결 즉시로 육본에 보고하라.

四. 변경없음.

五. (1) 제2군단은 제7사단으로 하여금 통신기재 장비를 휴대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부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참고문헌

1. 公刊資料 및 1차 史料

1) 國文 1次 資料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國防部特命綴,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16권, 1989.
『조선일보』·『부산일보』.
陸軍本部 作戰命令, 1949～1950.
陸本一般命令, 1948～1950.
陸本特別命令, 1948～1950.
將校 任官序列名簿.
將校 自歷表.

2) 國文 公刊資料

강원도, 『江原道史 : 역사편』, 강원일보사, 1995.
경찰청, 『경찰50년사』,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공군본부 정보국, 『북괴 공군』, 1951.
공군본부,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2002.
空軍本部, 『空軍25年史 1948～1972』.
空軍本部, 『空軍發展略史』 第1卷, 1954.
空軍本部, 『空軍史 1945～1953』 第1輯, 1991.

空軍本部, 『航空戰史 : 韓國戰爭』, 공군본부군사연구실, 1989.
공군본부, 『UN공군사』, 1975.
공군분부, 『6·25전쟁 증언록』, 1989.
國防軍史硏究所, 『한국전쟁』(상), 199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 오산－대전전투』, 19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작전』 [2],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建軍史』, 2002.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국방사』 제1집, 국방부, 19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권, 국방부,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19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충주－점촌전투』, 199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제1권,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전투』, 교학사, 19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안강·포항전투』, 1986.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년지』, 1951.
國防部, 『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1954.
國防部, 『韓國戰爭史 : 洛東江防禦作戰期』 第3卷,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국방부, 1981.
국토통일원, 『북괴 인물』, 1971.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Ⅱ, 1977.
內務部 治安局, 『한국경찰사』, 1973.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1969.
陸軍本部, 『북괴군 특수부대』, 1989.

陸軍士官學校,『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법무부,『한국교정사』, 1987.
병무청,『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보병 제6사단,『청성역사(1948. 6. 14～1977. 12. 31)』, 1978.
보병 제7사단사령부,『칠성약사(1949. 6. 10～1969. 12. 31)』, 1970.
보병제3사단,『백골사단역사』, 1980.
북한연구소,『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육군교육사령부,『전장기능별 운용개념(개념530)』, 2005(미발행).
육군대학,『북괴군 공격전술』, 197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공비연혁』, 197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1연대 전투상보」(42), 1986.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전장사례연구(1)』, 1983.
육군본부, 교육참고 7-7-2『전장사례연구(2)』, 1985.
육군본부, 교육참고 7-7-6『전장사례연구(3)』, 1987.
육군본부, 교육참고 7-7-8『전장사례연구(4)』, 1988.
陸軍本部,『北傀의 6·25 南侵分析』, 1970.
육군본부,『戰史』 제7집, 1952.
육군본부,『한국전쟁 사료 : 전투상보(제1군단·제2군단·수도사단)』 제41권, 육본 군사연구실,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 재조명』, 1993.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수도사단 전투상보』(41),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수도사단 포병, 제1사단, 제11연대 전투상보』(43),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55), 1987.
육군포병학교,『포병학교 발자취』, 1963.
전병규,『6·25와 천안』, 인문당, 1988.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교학사, 1984.
합동참모본부,『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존안자료 함적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대한민국해군사』, 1954.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1978.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1950. 6～1951. 6』 제1집, 2002.
해군본부,『해군편제사』 제1권, 1970.
해군본부,『해병약사』, 1985.
海兵隊司令部作戰教育局,『海兵史』 제3집, 1958.

3) 國文 證言 및 回顧錄

6·25 참전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미발간).
강기천,『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具範模 譯,『맥아더 회고록』, 한림출판사, 19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2003.
김상덕·김완식,『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김성칠,『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류형석 편저,『6·25참전소년병 참전수기』, 6·25참전소년병전우회, 2005.
박경석,『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박경석,『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백선엽,『6·25한국전쟁 회고록 : 軍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신현준,『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89.
유성철,「나의 증언」,『한국일보』, 1990.
유재흥,『격동의 세월 : 전 국방부장관 유재흥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4.
유현종,『백마고지 : 김종오 장군 일대기』, 을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의장 안병범』, 1989.
육군본부,『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李應俊,『自敍傳 回顧 90年 1890-1981』, 汕耘紀念事業會, 1982.
李亨根,『軍番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임부택,『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임부택, 『압록강아 말해다오』, 인물연구소, 197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조갑제, 『이용문 장군 평전 :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한 신, 『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4) 北韓 1次 史料 및 公刊資料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북한해군 원산작전기지,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1950. 5. 1～9. 28).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52년편, 1953.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5) 國外 資料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Ⅰ(1948-1950),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1, 1996.
FEC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ssue No.3,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 to 30 September 1950*(1950. 11. 15), SN.1582.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1976.
U. S. 25th Infantry Division,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ision*(Atranta, Georgia: Albert Love Enterprises), 1987.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2권, 200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19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16집, 1997.
大韓民國 外務部, 『韓國戰爭 關聯 蘇聯 極秘外交文書』 (1-4권), 1994.

徐東九 譯, 『美國務省 外交文書가 벗긴 6·25秘錄 : 韓半島의 긴장과 美國』, 대한공론사, 197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
8086th AU(FEC),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Unpublished).
Staff Section Report. G-1, GHQ, FEC, 1 January-31 October 1950.
The New York Times.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SGPO : 1988), p. 31.
U.S. Hous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2. 2次 資料 및 單行本

1) 國內資料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게, 1984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남상선·김민규, 『6·25와 학도병』, 혜선문화사, 1974.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박홍규, 『UN』(서울: 형성사, 1991).
볼코고노프 저, 韓國戰略問題硏究所 역, 『스탈린』 세경사, 1993.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안 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3.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7.

온창일,『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1.
유관종,『한국경찰사』, 현대경찰문고, 1982.
육철식,『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사, 1998.
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8.
임 은,『북한 김일성 왕조비사 : 김일성 정전』, 한국양서, 1982.
장준익,『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戰爭記念事業會,『韓國戰爭史』 1-6, 1991～1993.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1990.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 1973.
韓國弘報協會,『韓國動亂』, 1973.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戰火 속의 대사관』, 한섬사, 1980.
허남성・이종판,『韓國戰爭의 眞實』, 國防大學院, 2002.

2) 國外 資料

Appleman, Roy E., *U. S. Army in the Korean Army : South to the Naktong to the Yalu,* Washington, D. C. : GPO, 1961.

BG. G. 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6, 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Anchor Press Books, Doubleday, 1989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George M. McCune,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Navy, 196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USGPO.

Kathryn Weat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2, No.4 (Spring 1995).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Roy K. Flint, *T. F. Smith and 24th Division,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Univ. Press of Kansas: 1988).

Susan Matura Translation, *Khrushchev Remembers*, 1970.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Washington, D.C.: U.S. G.P.O., 1988.

Truman, Harry S., *Memoirs* : *Year of Decision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5.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Walter Kraig, Malcom W. Cagle aq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and Co., Inc., 1952.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朝鮮戰爭』 2;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한국전쟁』 제2권, 명성출판사, 1986.

朱榮福,『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찾아보기

ㄱ

가산 5, 110, 166, 167, 171, 178, 180, 206
갑령 368, 372, 373, 379, 383, 386, 388, 390, 391, 392, 396
강건 45, 201
강구 336, 482, 488, 499, 501, 544, 546, 547, 550, 551, 552, 580
검암리 304, 306
게이(Hobert R. Gay) 86, 202, 204, 207, 443
경산 72
경주 38, 43, 329, 330, 333, 407, 424, 434, 435, 437, 441, 453, 455, 457, 462, 464, 465, 467, 481, 482, 488, 496, 498, 509, 511, 519, 524, 534, 542, 557, 560, 569, 573, 576, 760
고모산 417, 418, 419
곤계봉 482, 497, 524, 529, 532, 534, 535, 536, 537, 539, 540, 541, 569, 574, 576
광천동 416, 425
구련봉 509, 510, 532
구미산 532, 534, 539
구산동 394, 409, 410, 412, 413, 417, 464, 481, 496, 501, 504, 505, 507, 509, 511, 512
93고지 527, 528, 543, 563, 564, 566, 568, 569
9월 공세 49, 50, 51, 52, 53, 189, 302, 327, 328, 434, 465, 481, 524, 529, 568, 759, 760
구수동 496, 502, 503, 504, 579
국군 제1사단 5, 85, 110
국군 3, 5, 6, 7, 36, 42
국통산 357, 368, 372, 374, 375
군위 36, 121, 327, 329, 357, 358, 395
금무봉 195, 197
금호강 329, 443, 444, 449, 450, 452, 456, 460
기계 366, 394, 407, 410, 413, 416, 436, 463, 481, 482, 487, 488, 496, 498, 504, 505, 506, 511, 517, 524, 541, 556, 577, 579
기룡산 396, 410, 424, 425, 428, 429, 431, 433, 435, 437, 445, 448, 456

길안 337, 342, 401, 406, 407, 482, 496, 503
김광협 46, 331, 332
김동빈 117, 162
김무정 45, 142, 331, 332, 484
김백일 88, 338, 416, 489, 490, 512, 528, 535, 537, 545, 567, 750
김석원 83, 338, 339, 489, 490, 503, 545, 546, 550, 551, 567, 584, 750
김성삼 670
김성은 부대 287, 288, 290, 296, 301
김성준 204
김익렬 339, 349, 350, 372
김일성 37, 38, 40, 52, 131
김점곤 117, 121, 186
김종오 84, 113, 339, 349, 350, 379, 442, 750
김창덕 46, 484, 485, 544
김책 37, 45, 47, 201, 243, 267
김홍일 83, 338, 339, 398, 410, 489, 490, 511, 526, 545

ㄴ

낙동강 돌출부 55, 82, 105, 217, 233, 240, 245, 249, 269, 298, 756, 760
낙동강 방어선 3, 4, 7, 9, 29, 30, 31, 33, 34, 35, 43, 50, 54, 55, 76, 82, 89, 90, 91, 113, 749, 751, 755, 757, 758, 760, 761
낙정리 30, 109, 118, 121, 185
남지 27, 28, 30, 31, 240, 288, 304
Nannie Baker 작전 729
Nannie Charlie 작전 730
냉천동 527, 528, 542, 551, 556, 558, 563, 564
너름산 422, 424
노무대 94
노무자 22, 67, 68, 151

ㄷ

다부동 5, 56, 79, 80, 105, 106, 109, 110, 121, 125, 128, 129, 130, 132, 133, 159, 166, 167, 168, 173, 176, 177, 179, 186, 189, 206, 208, 210, 212, 213, 214, 308, 330, 333, 335, 364, 433, 464, 518, 756, 760
단구동 519, 523, 525, 527, 563
대구 6, 9, 38, 43, 49, 56, 58, 66, 79, 82, 105, 110, 112, 167, 183, 184, 212, 333, 335, 347, 393, 464, 754, 760
대구방위사령부 58, 59, 82, 749
덕적도 590
덩커르크(Dunkirk) 76
데이비드슨(Davidson) 31, 87
도덕산 110, 183, 207
도음산 507, 512, 517, 518, 521, 523, 525, 528, 529, 533
도일(James H. Doyle) 689
도평동 409, 410, 412, 412, 413, 415, 505, 511, 512
독석동 545, 546, 550, 552, 553, 554
딘(William F. Dean) 27, 86, 244

ㄹ

라이트(Edwin K. Wright) 724
락크웰(L. H. Rockwell) 443
랜드럼(Eugene M. Landrum) 77, 78, 81
러스크(Dean Rusk) 23
레드볼 특급(Red Ball Express) 73

ㅁ

마산 28, 33, 38, 43, 47, 83, 116, 176, 233, 241, 272, 273, 288, 298, 313, 314, 760
마셜플랜 24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165, 172, 284
말리크 22
망일봉 671
매봉산 357, 358, 360, 361, 363, 366, 370, 395, 407, 409
맥아더(Douglas MacArthur) 9, 17, 19, 31, 32, 38, 64, 75, 76, 140, 141, 749, 754, 755
맨스필드 636
멜로우 통제소 684
모택동 22
무릉산 482, 497, 512, 534, 535, 536, 538, 539, 540, 541
무선유도 레이존폭탄 711
무어 282
무초 19, 92, 754
미 극동공군 9
미 제187연대전투공수단 664
미 제1기병사단 34, 56, 80, 82, 85, 86, 105, 106, 177, 189, 190, 191, 193, 193, 194, 198, 205, 211, 751
미 제1해병여단 258, 271, 313
미 제24사단 56, 64, 71, 82, 83, 86, 105, 193, 233, 241, 245, 246, 249
미 제25사단 6, 33, 55, 64, 71, 82, 83, 233, 272, 273, 275, 751
미 제2사단 105, 241, 266, 271, 752
미 제5공군 10, 306, 316
미 제5공군전방사령부 9
미 제6146기지부대 663
미 제8군 4, 10, 33, 47, 52, 67, 71, 72, 76, 86, 193, 216, 275, 751
미 제8군사령부 36, 454, 463, 505, 525, 556
미극동해군사령관 630
민기식 59, 339, 489, 545, 561
민부대 61, 290, 296, 298, 340, 364, 496, 518, 543, 545, 556, 558, 560, 561, 562, 563, 749
밀양 31, 38, 43

ㅂ

바둥 스트레이트 642
박성철 46, 331, 332, 397, 435
박진 246, 253
반변천 336, 396, 401, 407, 465, 488, 501
방호산 45, 274, 286

백선엽 84, 86, 109, 113, 114, 115, 116, 129, 130, 131, 137, 152, 172, 184, 187, 206, 212, 213, 215, 338, 339, 442, 750, 757
백인엽 83, 338, 339, 398, 490, 499, 500, 750
밸리포지 8, 638
벌밭 413
벌전 395, 409
베를린(Berlin)의 공수작전 698
벨파스트 631
병수동 361, 363
보현산 121, 327, 329, 337, 395, 396, 397, 409, 410, 411, 413, 416, 420, 424, 425, 431, 431, 433, 435, 437, 441, 456, 463, 481, 482, 488, 490, 501, 513, 521, 678
복서(Boxer)호 69
볼링앨리 170
봉림동 374, 386, 392
봉암리 209, 280, 287, 296, 297, 298
봉화봉 396, 397, 411, 412, 415, 417, 419, 420, 421, 422, 423, 424, 513, 521, 523
부산 4, 37, 38, 42, 43, 56, 486
부산교두보 3, 7, 20, 30, 94, 314, 340, 466
북한군 전선사령부 111
북한군 제10사단 190, 191, 198
북한군 제13사단 111, 204, 211
북한군 제15사단 111
북한군 제2사단 242
북한군 제3사단 111, 190, 197
북한군 제4사단 242, 252, 262
북한군 제6사단 6, 233, 273, 275
북한군 제7사단 274
북한군 제9사단 242, 270
북한군 3, 4, 17, 41, 49, 50, 111, 239, 759
뷰챔프(Charles Beauchamp) 245, 252
브래들리(Bradley) 특수임무부대 86, 482, 518, 543, 545, 556, 559, 560
브래들리(Omar N. Bradley) 23, 81, 87
비상경비총사령부 19, 64, 65, 66, 94
비학산 416, 482, 497, 498, 513, 517, 518, 519, 521, 522

ㅅ

445고지 509, 512, 515, 517, 524, 528, 528, 529, 530, 531, 532, 534, 535, 541
사창천 360, 363, 366, 367
삼랑진 33
3사단 591
303고지 199, 200, 201
314고지 209
326고지 403, 405
328고지 126, 127, 128,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0, 143, 144, 145, 156
365고지 361, 362, 364, 366, 367
상륙작전 599
상림동 122
상주 33, 110
서북산 31, 239, 286, 298, 299, 300, 309
석주암 117, 130, 184, 186

선돌주막 354, 355
선무공작 672
선우종원 66
성주 109, 190
세빌레(Louis J. Sebille) 715
셔먼(Forrest P. Sherman) 688
소년지원병 63
소이탄 728
소티재 506, 507, 556, 557, 569
손원일 596
송요찬 59, 83, 88, 750
수석봉 411, 413, 415, 416, 416, 419, 421, 422, 423, 424, 425, 521
수암산 116, 121, 122, 128, 129, 132, 146, 154, 155, 158, 159, 202, 204, 205, 220
수중교량 714
스카이라이더(Skyraiders)기 639, 710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631, 685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141, 682
스티어리(Ralph F. Stearley) 696
습격기연대 704
신녕 5, 176, 327, 328, 329, 347, 348, 364, 368, 373, 380, 383, 384, 391, 393, 395, 467, 562
신막비행장 706
신상철 85, 750
신성모 57, 58, 114, 152, 153, 756
신유협 670
신정현 677
신주막 128, 159
십이당산 299, 300, 304, 305
쓰록모튼(John L. Throckmorton) 292

ㅇ

아시야(Ashiya)기지 698
아싼바스칸 634
아화(阿火) 경찰지서 679
아화 434, 441, 451, 454, 455, 456, 459, 460, 462, 467, 535, 572
안강 5, 330, 336, 366, 396, 413, 424, 437, 454, 457, 463, 464, 467, 481, 482, 487, 488, 496, 497, 498, 505, 511, 524, 528, 531, 541, 569, 576, 577
안동 36, 47, 327, 329, 330, 335, 336, 347, 395, 399, 481, 488
안면도 597
안전보장이사회 75
알렌(Frank A. Allen) 207
알몬드(Edward M. Almond) 75, 688
애치슨(Dean G. Acheson) 23, 24
앨런(Leven C. Allen) 66, 81
야간촬영대 693
약목 126, 128, 133, 146
양곡동 351, 353, 354
양곡재 503, 504
어래산 510, 511, 531, 532, 541
에드워드(Idwal H. Edwards) 688
에머리치 551, 559
F-4U전투기 686
F-82전투기 716
X선 337
여자의용군 62
영국군 제27여단 7, 69, 193, 717, 759
영덕 5, 30, 31, 81, 327, 333, 336, 337, 413, 465, 481, 488, 501, 542, 544, 547, 550, 577, 756
영동 190
영산 5, 38, 56, 83, 233, 239, 240, 244, 245, 247, 249, 250, 256, 257, 262, 265, 267, 269, 270, 313, 316, 317
영일비행장 6
영천 5, 21, 43, 57, 327, 328, 329, 329, 332, 347, 390, 391, 396, 411, 419, 433, 434, 435, 437, 441, 442, 443, 444, 448, 449, 453, 456, 464, 465, 488, 519, 528, 760
영흥도 590, 611
오도넬 141
오뚜기 철교 710
오백룡 46, 331, 332, 349, 397
오봉리 258, 259, 261, 267
오상중학교 129, 130
오스틴(Austin) 23
오십천 336, 483, 488, 542, 550, 551
오점석 674
오항 246, 252, 253
옥녀봉 497, 543, 572, 573, 574
옥산동 505, 511, 531, 532
옥연동 354, 355, 356
Y선 337, 390, 396, 415
왜관 32, 43, 47, 105, 109, 112, 189, 198, 242
왜관교 107
용기동 36, 121, 337, 351, 353, 354
용포 198
우보 329, 368, 370, 374, 375, 377, 394
운산 399, 401, 403
운산동 329, 348, 349, 392
운제산 497, 538, 540, 543, 567, 572, 573, 574, 576
운주산 396, 416, 417, 419, 423, 425, 436, 482, 513, 517, 518, 527, 529, 530, 531
워커 라인 30
워커(Walton H. Walker) 3, 7, 19, 20, 26, 28, 31, 32, 58, 70, 75, 76, 77, 78, 79, 81, 86, 89, 90, 115, 141, 153, 179, 202, 212, 259, 289, 295, 305, 306, 309, 315, 316, 328, 443, 497, 524, 535, 543, 559, 749, 754, 756, 760
원문고개 624, 671
웨이랜드(Otto P. Weyland) 682
위천 329, 356, 360, 361, 368, 375, 377
위티(Robert W. Witty) 702
윌트시 637
유엔 17
유엔공군 49, 762
유엔군 3, 7, 36, 42
유엔군사령부 7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 23
유엔한국위원단 17
유재흥 57, 167, 339, 436, 441, 466, 757
유학산 110, 116, 121, 123, 128, 128, 132, 146, 148, 151, 152, 154, 157, 159, 173, 186, 186, 220
육군본부 35, 36, 64, 67, 82, 83, 113
육군종합학교 749
육전대 606
윤암동 503
융단폭격 9, 128, 140, 141, 212, 759, 762
의성 9, 36, 327, 329, 335, 347, 348, 349, 395, 407, 464, 481, 488, 496
의용군 21, 40, 138, 140, 144, 313

의흥 347, 348, 357, 368, 370, 372, 383
이권무 45, 243
218고지 440, 445, 446, 447, 456
이선근 58
이성가 57, 84, 85, 113, 338, 339, 397, 398, 401, 403, 417, 436, 436, 489, 490, 499, 500, 750
이승만 18, 19, 20, 33, 54, 55, 56, 57, 58, 64, 74, 75, 92, 93, 753, 754, 755, 756
이영호 45, 201
이응준 287
이익성 274, 299
이종찬 84, 88, 750
이준식 84
이타미(Itami)기지 685
이한림 58, 59, 85
이희정 599
인금동 401, 402, 403
인천상륙작전 4, 20, 76, 313, 340, 481, 541, 749, 752, 755, 756, 757, 760, 761, 762
임병래 609
임부택 339, 349, 350, 361
임포 449, 451, 453, 454, 455, 457, 459, 462, 464
입암 410, 411, 412, 415, 421, 423, 544, 577

ㅈ

자양 396, 397, 423, 424, 425, 426, 427, 428, 440, 448
자천 411, 415, 417, 419, 431, 433, 448, 456, 457, 460, 481, 505
자초산 512
자호천 426, 428, 439
작오산 32, 140, 199
장군동 361, 363
장덕창 666
장림동 402, 407, 409
장면 23, 92
장사동 543, 544, 551
장창국 83
장택상 23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 86, 497, 525, 527, 528, 535
전구서 678
전술항공통제반(TACP) 681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682
전시 선전대책위원회 17
전시대책위원회 54, 754
전자폭격통제반 694
전쟁지도 754
전차특공대 389, 390
전천후요격대대 695
전투공수사령부 699
전투산 31
정봉욱 173, 174
정일권 29, 57, 114, 115, 153, 756
정찰비행대 674
제103치안연대 327, 330, 332, 334, 433, 435, 447, 448, 456
제1201건설공병단 410, 411, 490
제12전폭대대 700
제162전술정찰대대 693

제17기갑여단 330
제187공정연대전투단 697
제18전폭비행단 695
제18전폭전대 700
제1병력수송기동부대 698
제1사단 116
제1위치측정항로표식대 693
제1해병비행단 686
제20통신중대 682
제2무선중계대대 694
제307폭격전대 695
제33해병비행전대 686
제35전투요격전대 700
제363정찰기술대대 693
제3903레이다폭격기록대대 694
제39전투요격대대 700
제40전투요격대대 700
제437병력수송비행단 693
제452경폭격비행단 693
제502전술항공통제전대 694
제51전투요격비행단 695
제6002전투비행단 700
제6131기지부대 700
제6131전투비행단 701
제6147전술공중통제대대 681
제67전폭대대 700
제68전천후전투기대대 716
제6사단 328
제73독립연대 327, 330, 332, 334, 433, 435, 447, 448, 456, 459
제766부대 410, 411, 431, 481, 482, 484, 488, 490, 496, 498, 501, 504, 521, 544, 559, 560
제77특별기동부대 682
제855군부대 704
제877군부대 704
제934통신대대 694
제96.5기동전대 629
제96기동부대(TF96) 630
제98폭격전대 695
조교동 437, 440, 441, 443, 444, 445, 449, 451, 452, 460, 461
조림산 329, 347, 348, 368, 373, 379, 380, 383, 384, 386, 392, 394
조병옥 57, 66, 167
조열광 331, 332, 435, 456
조이(C. Turner Joy) 631, 682
존슨(Johnson)기지 693
죽장 383, 396, 397, 410, 415, 416, 420, 423, 424, 425, 463, 481, 482, 490, 511, 513, 518, 579
중리 305, 306
중암산 666
지경동 552
진동리 34, 286, 287, 288, 290, 302
진목정 159
진보 481, 483, 501
쯔이끼(Tsuiki)기지 684

ㅊ

참페니 290, 302
창녕 34, 38, 56, 83, 233, 239, 244, 247, 249, 250, 262, 265, 266, 267, 313, 760
처치(Church) 특수임무부대 86, 535, 536, 572, 573

처치(John H. Church) 87, 244, 245, 255, 257, 258, 259, 260, 280
천봉식 677
청노동 357, 368, 370, 372, 374, 377, 394
청송 6, 328, 329, 330, 336, 337, 342, 401, 406, 407, 410, 481, 482, 487, 501, 504, 577, 578
청하 591
체리티 631
총력전 18, 74, 91, 93, 94, 755, 757
최규봉 607
최덕신 84, 85, 750
최영희 117, 137
최용건 38
최용진 46
최인 331, 332, 484, 485, 498
최춘국 46
최현 45, 243
추격기연대 704

ㅋ

카이저(Lawrence B. Keiser) 86, 247, 248, 264, 265
카투사 18, 63, 64, 94, 752, 753
케냐 631
케이유가 634
코사르 638
코사크 631
콜레트 634
콜린스(J. Lawton Collins) 153, 295, 688
콜세어(Corsair)기 710
콜터(John B. Coulter) 87, 88, 524, 525, 527, 535
쿠슈맨(T. J. Cushman) 691
크랩(Jarred V. Crabb) 691
클라크(Eugene F. Clark) 608
클로버고지 255, 257, 258, 261, 267, 270, 271
킨(Kean) 특수임무부대 6, 272, 274, 279, 289, 290, 291, 296, 298, 299, 686, 756
킨 86, 276, 298, 302, 305, 308, 310, 311, 315

ㅌ

탑리 357, 368, 371, 372, 395
톨레도(Toledo) 629
통영 590
통영상륙작전 8, 301, 617
트루먼(Harry S. Truman) 23, 24, 25, 69, 74, 753
티아첸코 634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683

ㅍ

파쇄공격 372, 408, 418, 515
파트리지(Earle E. Partridge) 681
팔공산 5, 85, 105, 109, 178, 181, 183, 184, 185
팔머(Raymond D. Palmer) 207

팔미도 608
8월 공세 43, 44, 49, 50, 57, 81, 217, 316, 327, 328, 465, 481
패튼(George Patton) 76
페플로(George Pepole) 247, 248
포토산 405, 407
포항 5, 43, 327, 330, 332, 332, 336, 340, 413, 464, 465, 481, 486, 488, 496, 504, 505, 506, 511, 524, 528, 542, 550, 556, 557, 564, 569, 576, 577
포항지구전투사령부 364, 416, 417, 482, 488, 490, 496, 499, 500, 504, 505, 506, 507, 518, 545, 556, 560, 562, 578
폭격사령관 690
표적계획위원회 707
프라이스(George E. Price) 724
프리먼(Paul L. Freeman) 165, 248, 264
피난민구호중앙위원회 56
피셔 311
피커렐(Pickerel) 647
필리핀시 638

ㅎ

하양 328, 329, 333, 347, 383, 441
하이저(Hyzer) 특수임무부대 253, 254
하인즈 특수임무부대 265
하인즈(Loyal M. Haynes) 265
하트만 631
학도병 94, 118, 137
학도의용군 61, 340, 543, 584, 753
한국공군 비행단 666
한미연합군 3, 7, 17, 26, 27, 32, 33, 82, 90, 105, 212, 313, 758
한미연합작전 166, 173, 214, 215, 216, 757
한신 338, 398, 489, 490, 499, 500, 517, 528
함명수 607
함병선 339, 349, 350, 375
함안 306, 308, 310
함포지원사격 591
합동작전본부(JOC) 681
해군 총참모장 593
해군육전대 411, 505, 507, 518, 560, 582
해군작전 8
해병대 610
해상봉쇄 592
해상통제권 589
향로봉 329, 395, 401, 402, 405, 406
험프(Hump)작전 698
헬레나(Helena) 629
현동 490, 505, 512
현풍 5, 83, 105, 193, 198, 240, 245, 247, 254, 262, 267
형산강 455, 482, 483, 483, 532, 533, 534, 538, 540, 543, 558, 560, 561, 566, 567, 569, 570, 572, 576, 577
호림부대 502, 581
호명리 497, 529, 532, 533, 534, 535, 537, 538, 539, 540, 541, 569
홈타운(Hometown) 공격 731
홍계동 537, 538, 539, 540, 570
홍시욱 610
화산 329, 347, 348, 349, 368, 379, 380, 382, 383, 391, 396, 511

화수동 329, 356, 373, 374, 390, 394
황정연 603
효령 329, 358
후방차단작전 707
히긴스 631
힐(Hill) 특수임무부대 255, 256, 257, 258
힐(John G. Hill) 247, 248, 255, 256

□ 집 필 자
남 정 옥 책임연구관 손 규 석 선임연구관
최 권 삼 연구관 이 준 혁 연구관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문위원
정 용 근 자문위원

□ 감 수
한 용 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온 창 일 교수(육군사관학교)
유 재 갑 교수(경기대학교) 허 남 성 교수(국방대학교)
정 토 웅 교수(육군사관학교)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년 6월 23일 인쇄
2008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서 울 시 용 산 구 이 태 원 로 29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김 홍 영
인쇄처 용 산 구 립 장 애 인 보 호 작 업 장